축복사와
선지자

New Covenant Publications International Ltd. Korean

저작권 © 2020. 새 언약의 국제 출판물.

모든 권리 보유. 이 책의 어떠한 부분도 해당 저작권법이나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허용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 기계, 복사, 녹음 또는 기타 형식 또는 수단으로.

본 책의와 관련된 모든 권한은 [새 언약의 국제 출판물]가 보유합니다. 복사, 녹음, 정보 저장, 검색 시스템을 포함한. 전자적 또는 기계적 수단을 막론하고 어떤 형태로든 편집자의 사전 승인 없이 본 본 책의의 어떤 부분도 복제 또는 전재될 수 없습니다.

출판 데이터의 카탈로그

편집 및 디자인: 뉴 언약 국제 간행물

영국에서 인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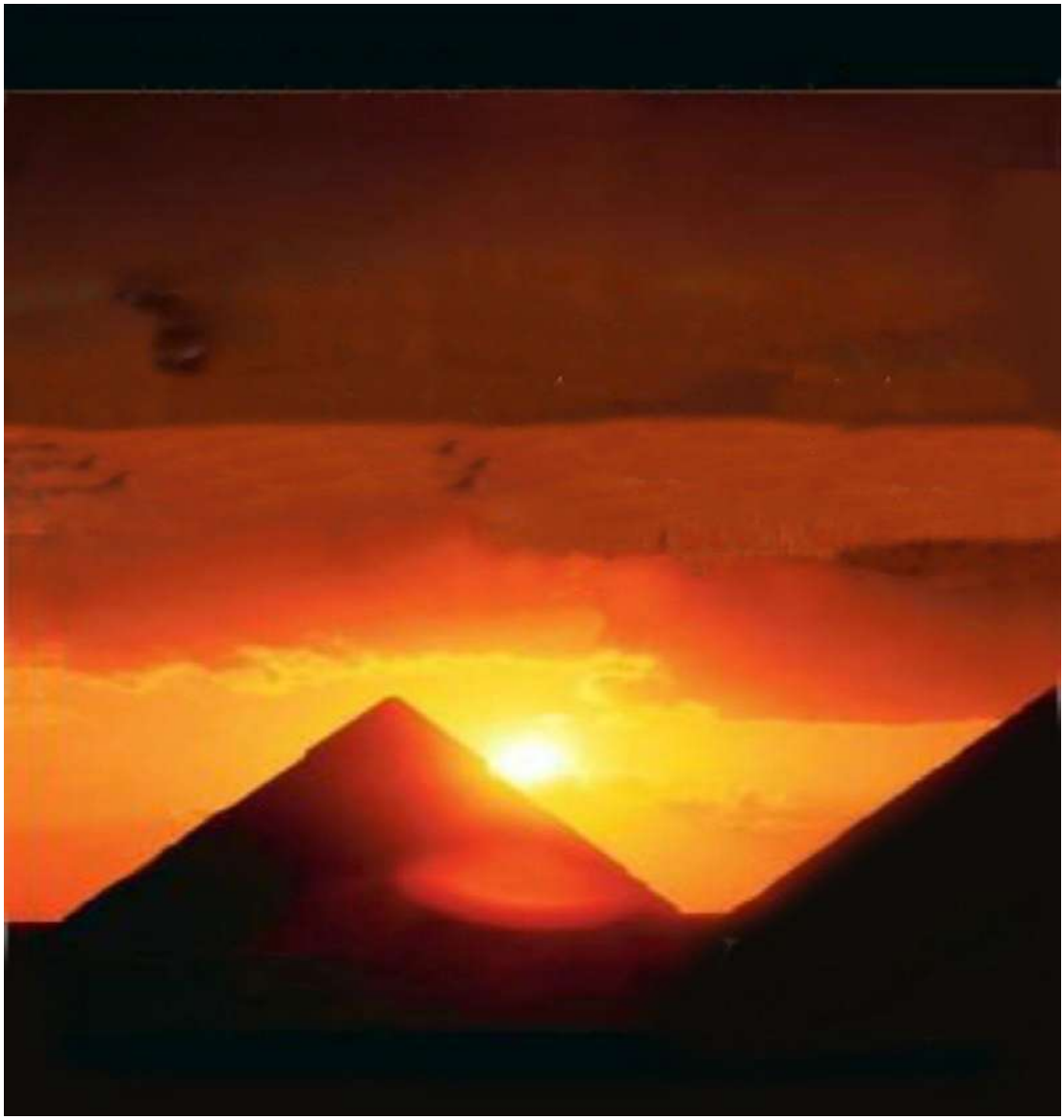
최초 인쇄 2020 년 5 월 26 일

게시됨: 뉴 언약 국제 간행물

New Covenant Publications International Ltd.,
Kemp House, 160 City Road, London, EC1V 2NX

웹 사이트 방문 : www.newcovenant.co.uk

축복사와 선지자



엘렌 G. 화이트

모세는 또한 하나님께서 동쪽에다 모든 종류의 나무들로 가득 찬 낙원을 세우셨다고 말한다. 나무들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지식의 나무가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의 아내를 이 낙원으로 오게 하셔서 그들에게 나무들을 잘 돌보라고 명령하셨다. 이제 그 낙원은 하나의 강으로 물을 공급받았고, 그 강은 모든 땅을 적시면서 4가지 지류로 나뉘어져 흘렀다 ...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선 안 된다고 명령하셨다. 뿐만 아니 라, 만일 그 나무를 만지기만 해도 그들은 파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아담과 그의 아내 이브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에 질투를 느낀 뱀이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재난을 당할 것을 알고 악의를 품어 하루는 여자에게 지식의 나무는 선과 악을 알게 하며 그 지식을 얻게 될 때 행복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높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열매의 맛을 보라고 유혹했다 (호겐 : 무엇보다 큰일 인 것은 '악에 관한 지식' 을 알게 된다는 것이었다. 약한 비유지만 어린이가 폭력-음란물을 보고 실제로 모방하는 것과 같다). 결국 뱀은 그 여자 를 유혹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도록 하는데 성공했다. 그 여자가 그 나무의 맛을 보고 그 맛이 좋아서 (호겐 : 악의 묘미를 알게 된 셈) 아담에 게도 또한 그것을 먹으라고 권했다 ... 이 일이 있은 후, 그들은 서로가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고, 벗은 몸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 수치심을 느꼈으며, 자신들의 몸을 가리기 위해 무엇인 가를 고안해냈다. 왜냐하면 그 열매가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잎으로 자신들의 앞을 가리고는 이전에는 자신 들이 몰랐던 것을 지식의 열매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행복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뱀이 아담에게 적대감을 갖게 한 것에 대해 분개하여 뱀의 언어를 빼앗아 가셨다. 이외에도 하나 님께서는 뱀의 혀 아래에 독을 넣으셔서 인간과 적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악한 계략이 떠오른 곳이 머리이므로 그 머리를 깨부수는 것이 뱀에게 가장 쉽게 복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뱀이 발을 사용하는 능력을

빼앗고 몸으로 땅바닥을 기어다니게 만드 셨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형벌들을 내리신 후에 아담과 이브를 동산에서 쫓아내어 다른 곳으로 옮기셨다.

4. 타락과 낙원에서의 추방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 서문

이 페이지는 의도적으로 비워두었습니다.

New Covenant Publications

International Ltd.

개혁 된 책,변형 된 마음

New Covenant Publications International Ltd.,
Kemp House, 160 City Road, London, EC1V 2NX

Email: newcovenantpublicationsintl@gmail.com

헌정의 글

하나님께 바쳐진

서문

새 언약 출판물 국제 하늘과 땅을 바인딩 신성한 계획과 사랑의 법의 영속을 강화와 독자를 다시 연결합니다. 언약의 방주는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백성과 하나님의 법의 중심 사이의 친밀감을 나타냅니다. [...]사실,새 언약은 구속에 증명,줄어들지 않은 투쟁에 의해 탄생과 혈액에 의해 밀봉.

수많은 세기 동안,많은 견디고 마모에 고통하고 이해할 수 없는 탄압의 계산을 없애는 진리입니다. 특히 암흑 시대에,빛이 있었다 크게는 궁지에 몰린과에 의해 가려는 인간의 전통과 인기있는 무지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세계는 지혜를 멸시하고 배반하의 언약입니다. 대재앙의와 타협을 방지할 자극 악 이러한 재앙의 무한 퇴화 및 악마 같은 비인간적에는 많은 생명을 희생을 부당하게 거부,항복하심이 있으. 그럼에도 불구하고,잃어버린 지식은 특히 개혁의 시간 동안,부활했다.

16 세기의 개혁 시대는 반 개혁에 반영 된 진리,근본적인 변화 및 결과적 난류의 순간을 촉발 시켰습니다. 그러나,이를 통해 볼륨,하나의 재발견 명백한 의미의 이 유일한 혁명의 관점에서 본 개혁자 및 다른 용감한 개척자. 자신의 계정에서,하나는 황폐 한 전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놀라운 저항과 초자연적 인 개입의 기본 이유.

우리의 모토:"개혁 된 책,변형 된 마음"은 중요한 시대와 그 영향으로 구성된 문학의 독특한 장르를 강조합니다. 또한 개인 개혁,부활과 변화의 긴급 공감. 으로 구텐베르크 인쇄기와 결합에 의해 기관의 번역,전파의 원리,개혁 신앙을 약 500 년 전,디지털 압박과 온라인 미디어 통신 것이라 모든 언어로 진리의 빛에서 이러한 마지막 시간.

목차

1장 죄가 용납된 이유 8

2장 창조 19

3장 유혹과 타락 27

4장 구속의 경륜 39

5장 가인과 아벨이 시험을 받음 48

6장 셋과 에녹 55

7장 홍수 65

8장 홍수 후 78

9장 글자 그대로의 주일 84

10장 바벨탑 90

11장 아브라함을 부르심 96

12장 가나안의 아브라함 103

13장 믿음의 시험 117

14장 소돔의 멸망 127

15장 이삭의 결혼 140

16장 야곱과 에서 146

17장 야곱의 도망과 유랑 152

18장 씨름하던 밤 162

19장 가나안으로 돌아옴 170

20장 애굽에서의 요셉 180

22장 모세 207

23장 애굽의 재앙 221

24장 유월절 236

25장 출애굽 242

26장 홍해에서 시내산까지 251

27장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 264

28장 시내에서의 우상숭배 277

29장 율법에 대한 사단의 적의(敵意) 292

30장 성막(聖幕)과 그 봉사 304

31장 나답과 아비후의 죄 317

32장 율법과 언약 321

33장 시내에서 가데스까지 332

34장 열두 정탐꾼 345

35장 고라의 반역 354

36장 광야에서 366

37장 침을 당한 반석 371

38장 에돔을 돌아서 381

39장 바산을 정복함 393

40장 발람 398

41장 요단에서의 배도 412

42장 율법의 반복 421

43장 모세의 죽음 428

44장 요단강을 건너감 439

45장 여리고의 함락 445

46장 축복과 저주 456

47장 기브온 족속과의 동맹 460

48장 가나안의 분배 465

49장 여호수아의 마지막 교훈 476

50장 십일조와 헌물 481

51장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 486

52장 연중 절기들 493

53장 초기의 사사들 500

54장 삼 손 515

55장 아이 사무엘 524

56장 엘리와 그 아들들 531

57장 법궤를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김 537

58장 선지자 학교 549

59장 이스라엘의 첫 왕 558

60장 사울의 외람됨 572
61장 사울이 버림을 받음 581
62장 다윗이 기름부음을 받음 592
63장 다윗과 골리앗 596
64장 도망자 다윗 602
65장 다윗의 너그러움 613
66장 사울의 죽음 626
67장 고대와 현대의 마술 632
68장 시글락에서의 다윗 639
69장 다윗이 왕위에 오름 647
70장 다윗의 치세 653
71장 다윗의 범죄와 회개 666
72장 압살롬의 반란 678
73장 다윗의 만년 696

1장 죄가 용납된 이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요일 4:16).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율법은 사랑이다. 이것은 과거에도 그러하였고 미래에도 영원히 그러할 것이다.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 하시며,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시는 분은 변치 않으신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합 3:6; 사 57:15; 약 1:17). {PP 33.1}

창조력의 현현 하나하나마다 무한한 사랑의 표현이다. 하나님의 통치권에는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완전한 축복이 포함되어 있다.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PP 33.2}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얼굴빛에 다니며
종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주의 의로 인하여 높아지오니
주는 저희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속하였음이니이다".

시 89:13~18 {PP 33.3}

선악의 대쟁투가 하늘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때부터 반역이 영원히 정복되고 죄악이 전멸될 때까지의 역사도 또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증거이다. {PP 34.1}

우주의 통치자는 당신의 은혜로우신 사업을 홀로 행하지 않으셨다. 그분에게는 모든 존재들에게 행복을 주시려는 그분의 목적을 이해하고 당신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역자 곧 동료 한 분이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요 1:1, 2)다.

말씀이시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는 본성과 품성과 목적에 있어서 영원하신 아버지와 하나이셨으며 하나님의 모든 협의와 의도(意圖)에 참여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셨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사 9:6).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미 5:2).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당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하신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내가 세움을 입었나니…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잠 8:22~30)다. {PP 34.2}

아버지께서는 하늘의 모든 존재자를 창조하심에 있어서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일하셨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골 1:16)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그분의 어전(御前)에서 흘러나오는 빛으로 빛나고 그분의 뜻을 실행하기 위하여 신속한 날개로 빨리 날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아들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히 1:3) 모든 천사들 위에 최상권을 가지신다. 원시부터 높이 계신 영화로우신 보좌는 당신의 성소(聖所)가 있는 곳이며(렘 17:12 참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히 1:8).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시 96:6, 89:14). {PP 34.3}

사랑의 율법은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이므로 모든 지성적 존재들의 행복은 그들이 이 의의 대원칙과 완전히 일치함에 달려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사랑의 봉사 곧 당신의 품성을 인식함으로 솟아나는 봉사를 원하신다. 그분은 강제적 굴종을 기뻐하지 않으시므로 모든 존재로 하여금 당신께 자원하여 봉사하도록 그들에게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신다. {PP 34.4}

모든 피조물이 사랑의 충성을 인정하는 동안 하나님의 온 우주에는 완전한 조화가 있었다. 창조주의 목적을 성취하는 일이 하늘 천사들의 기쁨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그분을 찬미하는 것을 즐거워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있는 동안에는 상호간의 사랑도 믿을 만하였고 무아적이었다. 하늘의 조화들을 파괴할

불협화음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이 행복한 상태에 한 변화가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허락하셨던 자유를 악용한 자가 있었다.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 다음가는 최고의 영광을 받았으며, 하늘 거민들 가운데 가장 높은 권세와 영광을 가졌던 자에게서 시작되었다. "아침의 아들" 루스벨은 덮는 그룹들 가운데 으뜸이었으며 거룩하고 흠이 없었다. 그는 크신 창조주의 어전에 서 있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둘러싼 영광의 끊임없는 빛이 그에게 머물고 있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印)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으로 단장하였었음이여…너는 기름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겔 28:12~15). {PP 35.1}

루스벨은 차츰차츰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에 빠지게 되었다. 그것을 성경은 다음과같이 말한다. "네가 아름다우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우므로 네 지혜를 더럽혔음이여"(겔 28:17),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사 14:13, 14). 그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도 이 힘센 천사는 그것을 자기 자신의 소유인 양 생각하게 되었다. 하늘 무리들 중에 최고의 영광을 누리면서도 그는 자기의 지위에 만족하지 않고 감히 창조주만이 받으실 수 있는 존경을 탐냈다. 그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들의 애정과 충성에 하나님을 최고로 삼도록 노력하는 대신에 그들의 봉사와 충절을 자기 자신이 받으려고 노력하였다. 이 천사장은 무한하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부여하신 영광을 탐내고 그리스도만이 가지신 대권(大權)을 갈망하였다. {PP 35.2}

그리하여 완전하던 하늘의 조화는 파괴되었다. 창조주 대신에 자신을 섬기려는 루스벨의 태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불안한 생각을 일으켰다. 하늘에서 열린 회의에서 천사들은 루스벨에게 간청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주의 위대하심과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루스벨에게 나타내시고 또한 그분의 거룩한 율법의 불변성을 나타내셨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의 질서를 세우셨으므로, 이 질서를 벗어남으로 루스벨은 창조주를 멸시하고 자신에게 파멸을 초래할 것이었다.

그러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로 주어진 경고는 반항심을 불러일으킬 뿐이었다. 그리스도에 대한 루스벨의 질투심은 더욱 굳어 갔다. {PP 35.3}

하나님의 아들의 최상권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리하여 창조주의 지혜와 사랑을 비난하는 것이 이 천사장의 목적이 되어 버렸다.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는 그리스도에 버금가며, 하나님의 천군들 중에 으뜸가는 그의 위대한 정신의 능력을 기울이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신의 모든 피조물이 의지의 자유를 가지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그 반역을 정당화시키는 데 사용될 궤변에 현혹되도록 버려두지 않으셨다. 대쟁투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존재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하였으며 그분의 지혜와 선하심이 저들의 모든 기쁨의 근원임을 알아야 하였다. {PP 36.1}

우주의 왕은 저희 앞에서 당신의 아들의 참된 지위를 드러내시고 모든 피조물에 대한 아들의 관계를 보이시려고 하늘 무리들을 소집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보좌에 같이 앉으셨으며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두 분을 둘러쌌다. 보좌 주위에는 “만만이요 천천”(계 5:11)인 셀 수 없이 많은 거룩한 천사들이 모였는데 수종드는 자들이요 신하로서 가장 높은 저들은 하나님의 어전에서부터 비치는 빛 가운데서 기뻐하고 있었다. 회집된 하늘의 거민들 앞에서 우주의 왕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밖에는 아무도 당신의 계획에 완전히 참여할 수 없으며 그분에게 당신의 뜻의 위대한 도모(圖謀)들을 수행하도록 위임하셨다고 선언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의 모든 천사들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그러므로 그분에게도 하나님께와 같은 존경과 충절을 드려야 마땅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지구와 그 거민들을 창조하는 일에 있어서도 신적 능력을 발휘하실 것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은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나게 자신을 위하여 세력이나 존귀를 구하시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의 영광을 높이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의 의도를 실행하실 것이었다. {PP 36.2}

천사들은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최상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그들의 사랑과 경배를 표하였다. 루스벨도 그들과 함께 부복하였으나 그의 마음속에는 일종의 이상하고 맹렬한 투쟁이 있었다. 진리와 공의와 충성은 시기와 질투로 더불어 투쟁하고 있었다. 거룩한 천사들의 감화가 한동안 그를 감동시키는 것처럼 보였다. 무수한 자들이 즐거운 목소리로 부르는 찬양의 노래가 선율적인 곡조로 흘러나올 때에 악한 정신은

극복된 것처럼 보였으며 말할 수 없는 사랑이 그의 전신을 흥분시키고 그의 영혼은 죄 없는 예배자들과 합하여 아버지와 아들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또다시 자신의 영광에 대한 자만심으로 충만하였다. 최상권을 얻고자 하는 그의 욕망은 다시 일어나고 그리스도에 대한 시기심을 마음에 또다시 품게 되었다. 루스벨은 자기에게 부여된 높은 명예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창조주께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자기의 광명과 높은 지위를 자랑하였으며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얻고자 갈망하였다. 루스벨은 하늘 천사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으며 천사들은 기쁨으로 그의 명령을 수행하였고 그는 그 모든 천사들보다 뛰어난 지혜와 영광으로 옷입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능력과 권위에 있어서 아버지와 하나이신 분으로 루스벨보다 높임을 받았다. 그분은 아버지와 같이 의논하셨으나 루스벨은 하나님의 의도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강한 천사는 "왜 그리스도가 최상권을 가져야 하는가? 왜 그는 루스벨보다 더 영광을 받는가?"라고 자문하였다. {PP 36.3}

아버지의 바로 앞에 있는 자기의 자리를 떠나 루스벨은 천사들 가운데 불만의 정신을 퍼뜨리려고 나갔다. 그는 모호하게 그리고 은밀히 일하였는데, 한동안 그는 표면상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하여 그의 진정한 목적을 감추었다. 그는 하늘의 존재자들을 다스리는 율법에 관하여 의심을 심어 주기 시작하였다. 그는 다른 세계들의 거민들에게는 율법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천사들은 더 높은 존재자들이므로 그와 같은 속박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의 지혜가 충분한 안내자가 되기 때문이라고 암시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는 존재자들이 아니며, 그들의 모든 생각이 거룩하며, 하나님 자신이 죄를 범하실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죄를 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버지와 동등의 지위로 높이는 처사는 루스벨을 부당하게 취급하는 일이며 루스벨 역시 그와 같은 존경과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되었다. 이 천사장이 그가 가져야 할 진정한 높은 지위를 얻을 수만 있다면, 온 하늘 천사들은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자에게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한 전제적(專制的) 통치자가 그들에게 임명되었고, 그분의 권위에 모두가 경의를 표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그들이 지금까지 누려 오던 자유가 이제는

끝장났다고 말하였다. 이와 같은 교활한 기만은 루스벨의 간계(奸計)를 통하여 신속히 하늘 궁정에서 동조자들을 얻고 있었다. {PP 37.1}

그리스도의 지위와 권위는 조금도 변한 적이 없었다. 루스벨의 시기와 그릇된 설명, 그리스도와 동등하다는 그의 주장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참된 지위를 발표할 필요가 생겼으나, 그리스도의 천사들 중에 루스벨의 기만으로 말미암아 눈멀게 된 자들이 많았다. {PP 37.2}

루스벨은 자기의 지휘 하에 있는 거룩한 존재자들이 자기를 신뢰하는 사랑스럽고 충성스러운 신임을 이용하여 그들의 마음에 자신의 불신과 불만을 매우 교묘하게 불어넣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의 행위는 눈치채지지 않았다. 루스벨은 하나님의 의도들을 그릇된 시각으로 제시하였다. 그는 반대와 불만을 일으키기 위하여 그것들을 곡해하고 왜곡하였다. 그는 교활하게 그의 말을 듣는 자들을 이끌어서 그들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그의 목적에 유리하게 이용될 만한 때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정부와 완전히 조화되어 있지 않다는 증거로 그런 표현들을 되풀이하였다. 그는 자기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정부의 안정을 위해 하늘의 질서와 율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에 반대하도록 선동하고 그의 휘하에 있는 천사들의 마음에 자신의 불만을 불어넣으면서도 표면상으로는 그가 불만을 제거하고 불만을 품은 천사들을 하늘의 질서로 돌이키려고 노력하는 척하였다. 비밀리에 불화와 반역을 선동하면서도, 그는 능숙한 술책으로 충성을 촉진시키며 조화와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자기의 유일한 목적인 양 보이게 하였다. {PP 38.1}

이와 같이 불붙은 불만의 정신은 무서운 일을 행하고 있었다. 공공연한 반란은 없었지만 천사들 가운데는 감정의 분열이 감지할 수 없게 자라나고 있었다.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정부를 반대하는 루스벨의 암시에 찬의를 표하였다. 지금까지 그들은 하나님께서 확립하신 질서에 완전히 조화되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의도를 통찰할 수 없는 까닭에 이제는 불만족하고 불행해 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뜻에 불만을 느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동등한 권위를 주장하는 루스벨의 요구를 후원할 태세를 갖추었다. 그러나 충성스럽고 진실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의 지혜와 공의를 유지하고 이 불만을 품은 자들을 하나님의 뜻과 화해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은 천사들이 창조함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과 하나이셨다. 그분은 언제나 아버지의 오른편에 서 계셨다. 그 자비로운 통치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그토록 충만한 축복이 되는 그분의 최상권에 이의가 제기된 적은 이제까지 없었다. 하늘의 조화는 이제까지 어지럽혀진 일이 결코 없었는데 어떤 이유로 이제 불화가 있어야 하는가? 충성스러운 천사들은 불화가 초래할 것은 오로지 무서운 결과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으므로, 불만을 품은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목적을 버리고 하나님의 정부에 성실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음을 입증하도록 열렬히 간청하였다. {PP 38.2}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하신 품성을 따라 크신 자비를 베푸사 루스벨을 오래 참으셨다. 이전에는 하늘에 불평과 불만의 정신이 존재했던 적이 결코 없었다. 그것은 이상하고 신비스럽고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요소이었다. 루스벨 자신도 처음에는 자신의 감정의 진정한 본질을 알지 못하였다. 한동안 그는 자기의 마음의 움직임과 상상을 밝히기를 두려워하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버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에게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려고 무한한 사랑과 지혜자께만이 궁리해 낼 수 있는 노력이 기울여졌다. 그의 불만은 이유 없는 것임이 판명되었으며 그가 반항을 고집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도 그에게 알려진 바 되었다. 루스벨은 자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거룩하)시”(시 145:17)다는 것과 하나님의 계율들은 공의롭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온 하늘 앞에서 이것들을 그렇다고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하였더라면 그는 자신은 물론 많은 천사들을 구원하였을 것이다. 그 때는 그가 아직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충성심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었다. 비록 그가 덮는 그룹의 위치는 떠났다 할지라도 만일 그가 기꺼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창조주의 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신 경륜 가운데서 그에게 지정된 자리를 차지하기에 만족하였더라면, 그는 그의 이전 직위에 다시 복직되었을 것이다. 그가 하나님의 주권에 완전히 복종하든지, 공공연히 반역하든지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시간이 이르렀다. 그는 거의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결정에 이르렀으나 자존심이 허락지 않았다. 그토록 큰 존경을 받던 자가 자신의 그릇되었음과 그의 상상이 잘못되었음을 자복하고 부당하다는 것을 밝히려고 힘써 오던 바로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너무나 큰 희생이었다. {PP 39.1}

자비로우신 창조주께서는 루스벨과 그의 부하들에 대한 간절한 동정심으로 그들이 뛰어들려고 하는 멸망의 심연(深淵)에서 그들을 돌이키시려고 노력하고 계셨다. 그러나 그분의 자비는 오해되었다. 루스벨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자기 자신의 우월성의 증거로, 우주의 왕께서 자기의 요구 조건에 따르실 징후라고 가리켰다. 그는 천사들이 자기와 함께 굳게 선다면 저희가 요구한 바를 모두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는 자기의 노선을 고집스럽게 옹호하였으며 자기의 창조주를 대항하는 대쟁투에 완전히 전념하였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가진 자요, 그의 보좌에서 수종들던 자요, "빛을 지닌 자"인 루스벨은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거룩한 존재자들의 "대적"사단이 되었으며, 하늘이 지도하며 보호하도록 그에게 맡긴 자들을 멸망시키는 자가 되었다. {PP 39.2}

충성스러운 천사들의 변론과 간청을 멸시하는 태도로 물리치면서 루스벨은 그들을 현혹당한 노예라고 비난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우선권은 자기와 온 하늘 천사들에게 불공평한 처사라고 선언하였으며 그의 권리와 저들의 권리에 대한 이러한 침해를 더 이상 감수할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그는 다시는 결코 그리스도의 최상권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받았어야 했을 명예를 주장하고 그의 부하가 되고자 하는 모든 자를 지휘하려고 단호하게 결심하였다. 그리고 그의 대열에 가담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모두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더 나은 새 정부를 수립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많은 수효의 천사들이 그를 그들의 지도자로 받아들일 의도를 표시하였다. 그의 제안들이 호의적인 반응을 얻는 데 우쭐하여 그는 모든 천사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하나님 자신과 동등하게 되어서 온 하늘 천사들의 순종을 받기를 희망하였다. {PP 40.1}

그러나 충성스러운 천사들은 루스벨과 그의 동조자들에게 하나님께 굴복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들은 만일 거절하면 그들이 당할, 피하지 못할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권세를 꺾으시고 그들의 대담한 반역을 현저하게 처벌하실 수 있으셨다. 어떤 천사라도 하나님 자신처럼 거룩한 그분의 율법을 성공적으로 반대할 수 없었다. 충성스러운 천사들은 모든 자들에게 루스벨의 기만적인 추론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경고하고 루스벨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지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지혜와 권위를 의심한 잘못을 자복하도록 권고하였다. {PP 40.2}

많은 천사들은 이 권고에 유의하고, 저들의 불만을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의 은총을 받고자 구할 마음이 있었다. 그러나 루스벨은 다른 속임수를 준비해 놓고 있었다. 이 대모반자는 이제 그와 연합한 천사들은 너무나 멀리 떠났으므로 다시 돌아가기는 틀렸으며, 자신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는바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는 하늘의 권위에 복종하는 자들은 모두 저들의 명예를 박탈당하고 그들의 지위가 떨어질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자신은 결코 그리스도의 권위를 다시 인정하지 않기로 굳게 결심하였다고 말하면서 그는 자신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남아 있는 유일의 길은 그들의 자유를 주장하고 그들에게 수여하기를 꺼리시는 권리들을 폭력으로 얻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PP 40.3}

사단 자신에 관한 한 이제 그는 돌아오기에는 너무 멀리 떠난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의 기만으로 눈멀게 된 천사들은 그렇지 않았다. 충성스러운 천사들의 권고와 간청은 그들에게 희망의 문을 열었다. 그들이 경고에 유의했었더라면, 그들은 사단의 올무에서 탈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자존심과 그들의 지도자에 대한 사랑과 제한 없는 자유에 대한 욕망이 그들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였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간청을 결국 거절하였다. {PP 41.1}

하나님께서는 불만의 정신이 성숙하여 공공연한 반역의 행동이 나올 때까지 사단이 그의 반역을 추진하도록 허용하셨다. 그 까닭은 사단의 계획들이 충분히 발전되어 그것들의 참 본질과 의도를 모두가 볼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기름부음을 받은 그룹인 루스벨은 매우 높은 지위에 있었으며 그는 하늘의 존재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으며, 그들에 대한 그의 영향력은 매우 컸다. 하나님의 정부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들도 포함하였다. 루스벨은 하늘의 천사들을 반역에 가담시킬 수 있다면 다른 모든 세계도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는 그 문제를 자기의 관점에서 교묘하게 제시하고 천사들을 자기에게 이끌기 위하여 궤변과 기만을 사용하였다. 그의 속이는 능력은 매우 컸다. 거짓의 가면으로 자신을 가장함으로 그는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 그의 모든 행위들은 너무도 신비에 싸여 있었으므로 천사들에게 그의 행위의 진상을 알게 하기는 어려웠다. 그의 행위가 충분히 발전하기 전에는 이것이 악한 일이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없었으며 그의 불만은 반역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었다. 충성스러운 천사들조차도 그의 품성을 완전히 분별할 수 없었으며 그의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랐다. {PP 41.2}

처음에 루스벨은 자기 자신은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척하면서 유혹하였다. 그는 그의 편에 완전히 가담시킬 수 없었던 천사들을 하늘 거민의 이익에 무관심한 자들이라고 비난하였다. 자기 자신이 행하고 있던 바로 그 일을 그는 충성스러운 천사들에게 뒤집어씌웠다. 교묘한 논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그의 정책이었다. 그는 단순하던 모든 것을 신비로 가렸으며 여호와의 가장 분명한 말씀을 교활하게 곡해하여 의심을 일으켰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부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그의 높은 지위가 그의 진술을 한층 더 힘 있게 하였다. {PP 41.3}

하나님께서는 진리와 의에 모순되지 않는 그런 방법만을 사용하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는 아첨과 허위를 사용할 수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짓됨을 입증하려고 힘썼으며 하나님의 정부의 계획을 허위로 대표하였다. 그는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율법을 부과하신 것은 불공평한 일이며, 당신의 피조물에게 굴복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이 단순히 자신을 높이고자 함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하늘 거민들과 온 세계 앞에 하나님의 정부는 공의로우며 그분의 율법은 완전하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다. 사단은 자신이 우주의 행복을 증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그러므로 이 횡령자(橫領者)의 참 성질과 그의 진정한 목적을 온 세계가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가 자신의 악한 행위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도록 시간이 주어져야 하였다. {PP 42.1}

사단은 자신이 하늘에 불화를 일으켜 놓고는 그것을 하나님의 정부의 잘못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는 모든 악은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라고 언명하였다.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개선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주장의 본질 곧 그가 제안했던 하나님의 율법의 변경에서 오는 결과를 나타내 보이도록 그에게 허락하셨다. 그 자신의 행위가 그를 정죄해야 하였다. 사단은 처음부터 자신은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온 우주는 가면이 벗겨진 기만자의 정체를 보아야만 했다. {PP 42.2}

비록 그가 하늘에서 추방되었을 때에라도 무한하신 지혜자는 사단을 멸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 가납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의 봉사뿐이므로, 당신의 피조물들의 충성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대한 확신에서 우러나와야 했다. 하늘과 여러 세계의 거민들은 그 당시에 죄의 참 성질과 결과를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사단의 멸망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 없었을 것이다. 만일 그를 즉각적으로 멸망시켰더라면 사랑에서가 아닌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섬겼을 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 기만자의 영향은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을 것이며 또한 반역의 정신도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을 것이다. 무궁한 세대를 통한 온 우주의 복지를 위하여, 사단이 그의 원칙들을 더욱 충분히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정부에 대한 그의 비난을 모든 피조물이 바른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그리고 그분의 율법의 불변성에 대하여 영원히,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남지 않도록 해야만 했다. {PP 42.3}

사단의 반역은 앞으로 오는 영원한 세월을 통하여 우주에 한 교훈, 즉 죄의 본질과 그 무서운 결과에 대한 하나의 영속적인 증언이 될 것이었다. 사단의 통치가 낳은 결과와 그것이 사람들과 천사들 모두에게 끼친 결과는 하나님의 권위를 버린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 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의 행복이 그분의 정부의 존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거할 것이다. 이와 같이하여 이 무서운 반역의 경험의 역사는 모든 거룩한 존재자들에게 영원한 안전장치가 되어 저들이 범죄의 본질에 관하여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며, 범죄하거나 그 죄의 형벌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 줄 것이었다. {PP 42.4}

온 하늘을 다스리시는 그분은 종말을 처음부터 보시는 분 즉, 그분 앞에는 과거와 미래의 신비가 같이 펼쳐져 있는 분, 죄가 초래한 비애와 어둠과 파멸을 넘어 당신의 사랑과 축복의 목적이 성취될 것을 보시는 분이시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시 97:2). 그리고 우주의 거민들, 즉 충성스러운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모두가 언젠가 이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 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신 32:4). {PP 43.1}

2장 창조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말씀하시매 이루었으며 명하시매 견고히 섰도다",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시 33:6, 9, 104:5). {PP 44.1}

창조주의 손으로 창조되었을 당시에 지구는 아주 아름다웠다. 지표(地表)는 산과 언덕과 평원으로 규모 있게 구분되었으며 여기저기에 맑은 강과 아름다운 호수가 있었으며, 언덕과 산들은 지금처럼 험준하거나 울퉁불퉁하지 않았으며 무시무시한 절벽과 무섭고 깊은 구렁들이 있지 않았다. 지구의 뼈대가 되는 날카롭고 거친 바위 끝들은 비옥한 땅 아래 묻혔으며 어느 곳에 가든지 청청한 수목들이 무성하였다. 거기에는 소름끼치는 늪이나 불모의 사막이 없었다. 어느 곳을 향하든지 우아한 관목들과 아름다운 꽃들이 눈을 기쁘게 하였다. 높은 산들을 덮은 나무들은 지금 있는 어떤 나무보다 더욱 장엄하였다. 공기는 더러운 병균에 오염되지 않았으므로 맑고 건강에 좋았다. 모든 풍경은 가장 잘 장식된 궁전의 정원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다. 천사의 무리들은 기쁨으로 그 경치를 바라보았으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경이로운 작품들을 보고 즐거워하였다. {PP 44.2}

많은 동식물로 가득 찬 지구가 창조된 후, 창조주의 걸작품이며, 그를 위하여 이 아름다운 세상이 단장함을 입은 존재인 사람이 활동의 무대에 등장하였다. 그 사람에게 그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통치권이 주어진 바 되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온 땅을…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여기에 인류의 기원이 밝히 제시되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기록은 너무도 명확하여 잘못된 결론을 내릴 여지가 조금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여기에 아무런 모호함도 없다. 사람이 하등 동물이나 식물에서 서서히 발전하여 진화되었다고 상상할 여지가 조금도 없다. 이러한 학설은 창조주의 위대한 사업을 사람의 좁고 세속적인 개념의 수준으로 저하시킨다. 사람들은 우주의 주권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축출하는 데 몰두한 나머지 사람을 평가 절하하고 인간의 기원의 존엄성을 그에게서 속여 빼앗는다. 성군(星群)의 세계들을 하늘 높이 두시고, 들의 꽃들을 정교한 솜씨로 물들이시고, 땅과

하늘을 당신의 능력의 경이들로 채우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스러운 사업의 마지막을 장식하시려고 하실 때 즉 아름다운 지구의 통치자로 한 존재를 그 가운데 두시려고 하실 때,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당신의 솜씨에 걸맞게 창조하시는 데 실패하지 않으셨다. 영감의 말씀이 밝혀 주는 바 우리 인류의 혈통은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진화하는 세균이나 연체동물(軟體動物)이나 사족수(四足獸)의 계열이 아닌, 위대하신 창조주께 이른다. 아담은 흙으로 창조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아들(눅 3:38, 영어 성경 참조)이었다. {PP 44.3}

그는 보다 낮은 차원의 존재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표자로 세움을 받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거나 인정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아래 두셨으니…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시 8:6~8). {PP 45.1}

사람은 외모나 품성에 있어서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될 것이었다. 그리스도만이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히 1:3)이시나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의 본성은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의 애정은 순결하였고 그의 식욕과 감정은 이성(理性)의 지배 아래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그분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거룩하고 행복하였다. {PP 45.2}

사람이 그의 창조주의 손으로 지음을 받았을 때 신장이 컸으며 완전히 균형이 잡혀 있었다. 그의 용모(容貌)는 건강한 혈색을 띠어 불그스레하였으며 생기와 기쁨의 빛으로 빛났다. 아담의 키는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키보다 훨씬 컸다. 하와는 아담보다 조금 키가 작았으나 그의 자태는 고상하였으며 아름다움으로 충만하였다. 이 무구(無垢)한 부부는 아무런 인조 의복을 입지 않았으며 그들은 천사들처럼 빛과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이 빛의 두루마기가 계속 그들을 둘렀다. {PP 45.3}

아담이 창조된 후에 모든 동물은 각각 그들의 이름을 받으려고 그의 앞으로 인도되었다. 그는 각 동물마다 짝이 주어진 것을 보았으나, 그에게는 "돕는 배필이 없"(창 2:18, 20)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지으신 모든 동물 가운데 사람에게 비길 만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창 2:18). 인간은 고독하게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다. 인간은 사교적 존재가 될 것이었다. 반려자가 없었다면 에덴의 아름다운 광경과 유쾌한 노작(勞作)도 완전한 행복을 줄 수 없었을 것이다. 천사들과의 교제라 할지라도 동정과 반려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사랑하고 사랑을 받을 자기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 {PP 46.1}

하나님께서 친히 아담에게 한 반려자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동무가 되기에 적당하고 사랑과 동정으로 그와 하나가 될 수 있는 “돕는 배필” 즉 그에게 적합한 조력자를 그를 위하여 준비하셨다. 하와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취한 갈빗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것은 여자가 머리가 되어 남자를 지배하거나, 열등한 존재로 마구 짓밟힘을 당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과 동등한 자로서 그의 곁에 서서 그의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의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며 남자의 한 부분인 그 여자는 그의 제2의 자아로서 이러한 관계에 필수적인 밀접한 연합과 애정적 결합을 보여 주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나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엡 5:29; 창 2:24). {PP 46.2}

하나님께서 최초의 결혼을 주례하셨다. 그러므로 이 제도의 창시자는 우주의 창조주이시다. “혼인은 귀”(히 13:4, 난외주)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초의 선물들 중의 하나였으며, 타락 후에 아담이 낙원 문들 저편에서 가져온 두 제도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원칙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에 결혼은 축복이 된다. 그것은 인류의 순결과 행복을 수호하며 사람의 사회적 필요를 채워 주며 육체적·지적·도덕적 본성을 향상시킨다. {PP 46.3}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창 2:8)셨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은 온전히 아름다웠으며 거룩한 부부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부족하게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나 창조주께서는 한 동산을 특별히 그들의 집으로 마련해 주심으로 당신의 사랑의 또 다른 증거물을 그들에게 주셨다. 이 동산에는 각종 수목들이 있었는데 그중에는 향기롭고 맛있는 열매가 많이 달려있는 나무들이 많았다. 거기에는 곧게 자라지만 매우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사랑스러운

포도나무들이 있었다. 그 가지들은 형형색색의 선명한 색조를 띤 구미를 당기는 열매로 휘어져 있었다. 포도나무 가지들을 손질하여 나무 그늘을 만들어서 잎과 열매로 덮인 산 나무들로 그들의 거처를 손수 만드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일이었다. 그 곳에는 여러 가지 색깔의 향기로운 꽃들이 아주 많이 있었다. 동산 중앙에는 다른 모든 나무보다 영광이 탁월한 생명나무가 있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금과 은의 사과같이 보였으며 생명을 영속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PP 46.4}

창조는 이제 완성되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 2:1~3, 1:31). 에덴은 지상에서 꽃같이 화려하였다.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에 자유롭게 접근하였다. 아무런 죄의 흔적이나 죽음의 그늘이 이 아름다운 창조를 훼손하지 않았다. “그 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욥 38:7). {PP 47.1}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시고, 온 세상을 미(美)의 옷으로 입히시고, 사람에게 유용한 것들로 세상을 채우셨으며, 육지와 바다의 온갖 경이로운 것들을 창조하셨다. 엿새 동안에 위대한 창조 사업은 완성되었다. 그리고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하므로…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창 2:2, 3).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이루신 것들을 보시고 만족히 여기셨다. 모든 것이 완전하였으며, 거룩하신 창조주께 걸맞는 것들이었다. 그분은 피곤한 자로서가 아니라 당신의 지혜와 선하심의 열매와 당신의 영광의 나타남을 기뻐하시는 자로서 쉬셨다. {PP 47.2}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하여 그날을 안식의 날로 성별하셨다. 창조주의 모본을 따라 사람은 이 거룩한 날에 휴식할 것이었는바, 이는 그가 하늘과 땅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사업을 회상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의 증거들을 바라볼 때 그의 마음이 창조주께 대한 사랑과 숭경심으로 가득 차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PP 47.3}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제칠일을 축복하심으로 당신의 창조 사업의 기념물을 세우셨다. 안식일은 전 인간 가족의 아버지요 대표자인 아담에게 위탁되었다. 안식일의 준수는

세상에 거할 모든 자들 편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창조주이시며 그들의 정당한 주권자시라는 것과 그들은 그분의 손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며 그분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될 것이었다. 이와 같이 안식일 제도는 전적으로 기념적인 것이었으며, 온 인류에게 주어졌다. 이것은 그림자이거나 어떤 백성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다. {PP 48.1}

하나님께서는 낙원에서라도 사람에게 안식일이 불가결하다는 것을 아셨다. 그는 하나님의 작품들을 더욱 충분히 숙고하고 그분의 능력과 선하심을 명상할 수 있도록 칠일 중 하루 동안은 자신의 이익과 일을 제쳐놓을 필요가 있었다. 그는 그에게 하나님을 더 명확하게 상기시켜 주고 그가 누리고 소유한 모든 것이 창조주의 자선심 많은 손에서 나온 것임을 그에게 상기시킴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안식일을 필요로 하였다. {PP 48.2}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들의 마음을 당신께서 창조하신 작품들을 명상하게 이끌도록 의도하셨다. 천연계는 사람들의 오감에 말하며,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최고 통치자이신 살아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선포한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시 19:1, 2). 땅을 옷입힌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다. 우리는 영원한 언덕들, 교목(喬木)들, 피어나는 꽃봉오리들과 아름다운 꽃들에서 이것을 볼 수 있다. 만물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한다. 언제나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안식일은 사람들에게 자연의 큰 책을 열어 그 속에서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찾도록 명령한다. {PP 48.3}

우리의 첫 조상은 비록 무구하고 거룩하게 창조되었지만 범죄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품성의 지혜와 자애심 그리고 당신의 요구 사항의 공의로움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거역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가진 자유로운 도덕적 행위자로 만드셨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고 거룩한 천사들과의 교통을 나누게 될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영원한 안전을 얻을 수 있기 전에 그들의 충성은 시험을 받아야 했다.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시초부터, 사단의 타락의 근본 원인이 된 치명적인 정욕 즉 자아 방종에 대하여 한 억제가 가해졌다. 동산 중앙의

생명나무 곁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의 첫 조상의 순종과 믿음과 사랑을 시험하게 될 것이었다. 다른 모든 나무의 실과는 마음대로 먹도록 허락되었지만, 이 나무의 실과를 맛보는 것은 금지되었다. 만일 먹게 되면 죽음의 고통을 당할 것이었다. 그들은 또한 사단의 유혹을 당할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시험에 견딘다면 마침내 그들은 사단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게 될 것이었으며 영원히 하나님의 총애를 받을 것이었다. {PP 48.4}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는 데 불가피한 조건으로서 그를 율법 아래 두셨다. 사람은 하나님의 정부의 백성이었으며 율법 없는 정부는 있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율법을 범할 능력이 없도록 창조하실 수 있으셨으며, 금단의 열매를 만지지 못하도록 아담의 손을 제어하실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그렇게 되었을 경우 사람은 자유로운 도덕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자동인형에 불과하게 되었을 것이다. 선택의 자유가 없었다면, 그의 순종은 자원하는 순종이 아닌, 강요된 굴종이 되었을 것이다. 품성의 계발은 전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방침은 다른 세계의 주민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과 배치될 것이었다. 이것은 지성적 존재로서의 사람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것이 되었을 것이며 하나님은 독단적 군주라는 사단의 비난을 뒷받침해 주었을 것이다. {PP 49.1}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창조하셨고, 악으로 기우는 성향이 조금도 없는, 고상한 품성의 특성을 부여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높은 지력을 주시고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가능한 한 가장 강한 유인(誘因)을 그에게 제시하셨다. 완전하고 영구적인 순종이 영원한 행복의 조건이었다. 이 조건 아래서, 그는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었다. {PP 49.2}

우리 첫 시조들의 가정은 장차 온 땅을 채우게 될 그들의 자녀들의 가정을 위한 하나의 모범이 될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손수 아름답게 장식하신 그 가정은 호화찬란한 궁전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저들의 교만심으로 장엄하고 값진 건물을 기뻐하며 저희 손으로 이룬 공사를 자랑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한 동산에 두셨다. 이것이 아담의 거할 집이었다. 푸른 하늘은 지붕이었고 아름다운 꽃들과 싱싱한 풀로 깔린 땅은 마루였고 아름다운 나무의 무성한 가지들은 차양이었다. 그 집의 벽들은 위대한 예술가이신

하나님의 작품인 가장 장엄한 장식들로 드리워졌었다. 거룩한 부부의 환경에는 모든 시대를 위한 교훈 즉 참된 행복은 교만과 사치와 방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통하여 그분과 교통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인위적인 것들에 주의를 덜 기울이고 더욱 많은 단순성을 계발한다면 저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훨씬 더 가까이 이를 것이다. 교만심과 야망은 결코 만족될 수 없으나 참으로 현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손에 닿을 수 있는 곳에 두신 기쁨의 근원에서 가치 있고 기분을 돋우는 즐거움을 발견할 것이다. {PP 49.3}

에덴의 거주자들에게 동산을 관리하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는 일이 위탁되었다. 그들의 일은 피곤하지 않고 유쾌하며 활력을 주는 일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노동이 축복이 되도록 정하시되, 그의 마음을 쏟고, 그의 육체를 강건하게 하고 그의 능력을 발달시키게 하셨다. 정신적·육체적 활동에서 아담은 그의 경건한 생존의 최고의 쾌락 중의 하나를 발견하였다. 그의 불순종의 결과로 그가 아름다운 본향에서 추방되어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하여 거친 땅과 투쟁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비록 동산에서 그가 유쾌하게 일하던 것과는 판이하게 달랐지만, 바로 이 노동은 유혹에 대한 방벽이었으며 행복의 근원이었다. 노동에는 권태와 고통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지만, 노동을 저주라고 생각하는 자는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부자들은 흔히 근로 계급을 멸시하는 태도로 낮추어 보지만, 이것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전적으로 배치된다.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의 소유물이라도 군주다운 아담에게 주어진 유산에 비하면 얼마나 적은가? 그럴지라도 아담은 게을러서는 안 될 것이었다. 사람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우리 창조주께서는 아담에게 그의 할 일을 지정하셨다. 인생의 참 기쁨은 일하는 남녀에게만 찾을 수 있다. 천사들은 부지런한 일꾼들이다. 그들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봉사자들이다. 창조주께서는 게으름을 부릴 만한 곳을 아무 곳에도 마련하시지 않으셨다. {PP 50.1}

아담과 그의 반려자가 하나님께 성실하게 일하는 동안 그들은 지상을 통치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들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릴 제한 없는 통치권이 부여되었다. 사자와 어린 양이 그들 주위에서 서로 장난하거나 그들의 발아래 함께 누웠다. 새들이 기뻐하며 두려움 없이

그들의 주위에 훨훨 날아다녔고, 새들의 즐거운 노래는 창조주를 찬양하였으며 아담과 하와도 새들과 합하여 아버지와 아들께 감사를 드렸다. {PP 50.2}

그 순결한 부부는 하나님의 자부(慈父)와 같으신 돌보심 아래 있는 자녀였을 뿐 아니라 전지하신 창조주에게서 교훈을 받는 학생이었다. 그들은 천사들의 방문을 받았으며 창조주와의 교통이 허락되었으며 그들 사이에 아무런 어두운 장벽이 없었다. 그들은 생명나무에서 얻은 활력으로 충만하였으며 그들의 지력은 천사의 것보다 조금 낮을 뿐이었다. 보이는 우주의 신비 곧 "지혜가 온전하신 자의 기묘한 일"(욥 37:16)이 저들에게 교훈과 기쁨을 주는 다함없는 원천이 되었다. 6천 년간 사람들이 연구하여온 자연의 법칙과 활동은 만물의 무한하신 창조자요, 유지자이신 하나님에 의하여 저들의 마음에 열렸다. 그들은 나무와 꽃과 잎의 친구가 되어 그것들의 생명의 오묘를 연구하였다. 바다에서 노는 큰 리워야단으로부터 햇빛 가운데 날아다니는 먼지처럼 작은 곤충에 이르기까지 아담은 모든 동물을 잘 알고 있었다. 아담은 그것들에게 각각 이름을 주었으며 모든 동물의 성질과 습관을 잘 알고 있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질서 있게 운행하는 무수한 천체, '구름의 평평하게 뜬 것', 빛과 소리와 주야의 신비 -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최초의 조상에게 연구하도록 개방되었다. 삼림의 모든 나무의 잎에나, 산에 있는 돌마다에, 빛나는 모든 별에, 땅과 공기와 하늘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우주의 질서와 조화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권능을 말하여 주었다. 그들은 항상 어떤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그것은 그들의 마음을 창조주께 대한 더욱 깊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였으며 새로운 감사를 표시할 수 있게 하였다. {PP 50.3}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충성을 하는 한, 알고 즐기고 사랑하는 그들의 능력은 계속 증가할 것이었다. 그들은 계속하여 지식의 새 보화들을 얻고, 새로운 행복의 샘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고 끊임없는 사랑에 대한 더욱더 분명한 관념을 얻게 될 것이었다. {PP 51.1}

3장 유혹과 타락

하늘에서 더 이상 마음대로 반역을 선동할 수 없게 되자 하나님께 대한 사단의 증오심은 인류의 파멸을 음모하는 가운데서 한 새로운 분야를 찾아내었다. 그는 에덴에 사는 경건한 부부의 행복과 평화 가운데서 자기가 영원히 잃어버린 행복의 환상을 보았다. 시기심에 동하여 그는 불순종하도록 그들을 선동하고 죄책과 죄의 형벌을 가져다주려고 단호히 결심하였다. 그는 그들의 사랑을 불신으로, 그들의 찬송의 노래를 창조주께 대한 비난으로 변화시킬 참이었다. 이와 같이 하여 그는 이 무죄한 자들을 자기 자신이 당하는 것과 동일한 비참함 가운데로 빠뜨릴 뿐 아니라 하나님께 욕을 돌리게 하고 하늘에 슬픔을 일으키려고 하였다. {PP 52.1}

우리 최초의 조상은 그들을 위협하는 위험에 대한 경고 없이 버려둔 바 되지 않았다. 하늘의 사자들은 그들에게 사단이 타락하게 된 역사와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그의 음모를 미리 알려 주었으며 악의 임금이 전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정부의 본질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사단과 그의 부하들이 타락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므로 질서와 공평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의 방편인 율법을 아담과 하와가 존중히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였던가! {PP 52.2}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 자신만큼 신성하다. 이것은 그분의 뜻의 계시요, 그분의 품성의 사본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의 표현이다. 생물이나 무생물을 막론하고 모든 것 곧 천지 만물의 조화는 창조주의 율법에 완전히 순응하는 데 달려있다. 하나님께서는 생물뿐 아니라 모든 자연계의 작용을 다스리시기 위하여 법칙들을 제정하셨다. 만물은 무시할 수 없는 철칙들 아래 있다. 그러나 자연계에 존재하는 만물은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으나 지상에 사는 만물 중에 사람만은 도덕적 율법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극치인 사람에게 당신의 요구를 이해하며 그분의 율법의 공의와 자비, 그리고 그에 대한 율법의 신성한 요구를 이해할 능력을 주셨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성실한 순종이 요구되었다. {PP 52.3}

천사들처럼 에덴의 거주자들도 시험 아래 있었으며 그들의 행복스러운 지위는 창조주의 율법에 충성하는 조건 하에서만 지속될 수 있었다. 그들은 순종하고 살든지,

불순종하여 죽을 수도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축복을 받을 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범죄한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끼실 수 없으실 것이었다. 범죄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박탈하고 그들에게 불행과 멸망을 가져올 것이었다. {PP 53.1}

천사들은 사단의 계교(計巧)에 대하여 경계하도록 그들에게 경고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줄기차게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한 동안에는 악한 자가 저들을 해할 수 없었는데, 이는 필요한 경우에는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그들을 돕기 위하여 파견될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사단의 최초의 암시를 단호히 물리친다면, 그들은 하늘의 사자들처럼 안전할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한번 유혹에 넘어가면 저들의 본성은 너무도 타락하게 되어 그들 스스로 사단을 저항할 능력이나 의향도 가질 수 없게 될 것이었다. {PP 53.2}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순종과 사랑의 시금석으로 삼아진 바 되었었다. 여호와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만을 금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셨다. 그러나 그들이 바로 이 점에 있어서 그분의 뜻을 무시하면 그들은 범죄의 죄책을 초래할 것이었다. 사단은 그들을 따라 다니면서 계속 유혹할 수는 없을 것이었다. 그는 금단의 나무에서만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었다. 만일 그들이 그 나무의 본질을 조사하려고 시도한다면 사단의 간계에 노출될 것이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경고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그분께서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셔서 보내신 지시에 만족하도록 경고를 받았다. {PP 53.3}

사단은 눈치 채지 않게 그의 계략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기의 기만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잘 맞는 변장물 즉 뱀을 매개로 사용하기로 선택하였다. 당시 뱀은 지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동물 중의 하나였다. 그것은 날개가 있었는데, 공중으로 날 때에는 금빛 광택이 나는 눈부신 모습을 나타냈다. 뱀이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금단의 나뭇가지에 앉아서 맛좋은 실과를 맛있게 먹고 있는 것은 보는 자의 주의를 끌고 눈을 즐겁게 하는 장면이었다. 이와 같이 평화의 동산에 먹이가 나타나기를 지켜보고 있는 파괴자가 숨어 있었다. {PP 53.4}

천사들은 하와에게 동산에서 날마다의 노동을 하는 동안에 남편을 떠나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었다. 남편과 함께 있으면, 그 여자는 홀로 있을 때보다 유혹에 빠질 위험이 적을 것이었다. 그러나 자기의 즐거운 일에 몰두하여 그 여자는 무의식중에 남편의 곁을 떠나 돌아다녔다. 하와는 자기가 홀로 있는 것을 알자, 위험에 대한 불안을 느꼈으나, 자기는 악을 분별하고 대항할 충분한 지혜와 능력을 가졌다고 단정하고 자기의 공포심을 물리쳐 버렸다. 천사의 경고를 잊은 채 그는 곧 호기심과 감탄이 뒤섞인 중에 금단의 나무를 바라보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였다. 그 열매는 매우 아름다웠다. 그 여자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과실을 금하셨을까 하고 자문하였다. 바로 이때가 유혹자의 절호의 기회였다. 그는 이 여인의 마음의 생각들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양 그 여자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창 3:1)라고 말을 걸었다. 하와는 자기 생각의 메아리를 듣는 것 같았으므로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러나 뱀은 계속하여 음악적인 음성으로 그 여자의 탁월한 아름다움을 교묘히 칭찬하였고 그의 말은 불쾌감을 주지 않았다. 그 여자는 그 곳으로부터 도망하지 않고 뱀이 말하는 것을 듣고자 이상히 여기며 그 곳에서 지체하였다. 천사와 같은 존재가 그 여자에게 말을 걸었었더라면 그 여자의 공포심이 자극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매혹적인 그 뱀이, 타락한 원수의 매개물이 될 수 있으리라고는 조금도 생각지 않았다. {PP 53.5}

유혹자가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에 그 여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창 3:2~5). {PP 54.1}

그는 이 나무의 과실을 따 먹는다면 그들은 더욱더 높은 존재의 영역을 획득할 것이며 더욱 넓은 지식의 분야로 들어갈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자기 자신도 금단의 과실을 먹어 보았으며, 그 결과 말하는 능력을 얻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분과 동등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그것을 금하신 것이라고 교묘하게 암시하였다. 그는 이 나무의 실과는 지혜와 능력을 주는 놀라운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먹는 것뿐 아니라 만지는 것까지도 금하신 것이라고 말하였다.

유혹자는 하나님의 경고는 사실 그대로 성취되지 않을 것이며, 단순히 그들을 위협하려고 의도된 것이라고 암시하였다. 그들이 죽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이미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지 않았던가? 하나님께서 그들이 한층 더 고상하게 발달하고, 더 큰 행복을 발견하는 것을 막으시려 노력해 오셨다고 그는 암시하였다. {PP 54.2}

아담의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단은 이런 방식으로 공작해 왔으며, 그는 그것으로 크게 성공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그분의 지혜를 의심하도록 사람들을 유혹한다. 그는 불경한 호기심의 정신, 하나님의 지혜와 권세의 비밀을 꿰뚫어 보고자하는 끊임없이 캐묻기를 좋아하는 욕망을 일으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 많은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보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신 것들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바 구원에 필수불가결한 진리는 간과해 버린다.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놀라운 지식의 분야로 들어가고 있다고 믿게 하여 그들을 불순종하도록 유혹한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기만이다. 진보한다는 생각에 의기양양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요구를 짓밟음으로 타락과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에 그들의 발을 들여 놓고 있다. {PP 54.3}

사단은 거룩한 부부에게 저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득을 볼 것이라고 말하였다. 오늘날 우리는 이와 비슷한 논증을 듣지 않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의 협량(挾量)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들 자신은 넓은 사상을 가지고 큰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다. 이것은 “그것을 먹는 날에는”ㅡ하나님의 요구를 거역하는 날에는 -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하는 에덴에서 한 뱀의 말의 메아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사단은 금단의 과실을 먹음으로 큰 유익을 얻었다고 주장했지만 범죄함으로 하늘에서 추방된 존재라는 것은 나타내지 않았다. 그는 죄가 무한한 손실을 초래한다는 것을 체득했었지만, 다른 자들을 자신과 같은 처지로 끌어들이려고 자신의 비참함은 감추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범죄자는 자기의 참 특성을 변장하려고 노력한다. 그는 거룩하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그의 높은 공언은 그를 더욱 위험한 기만자로 만들 뿐이다. 그는 사단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율법을 유린하며 다른 사람도 그와 같은 일을 하도록 꾀어 그들을 영원한 멸망에 빠지도록 한다. {PP 55.1}

하와는 사단의 말을 참으로 믿었으나 그의 믿음이 그에게서 죄의 형벌을 면제시켜 주지는 못하였다. 그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였는바 바로 이것이 그 여자를 타락으로 이끈 것이었다. 심판의 때에 사람들은 그들이 거짓말을 양심적으로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 배울 기회를 등한히 하였기 때문에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사단의 궤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언제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열심을 기울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도록 하신 모든 교훈들은 우리를 경고하시고 교훈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것들은 우리를 기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다. 그것들을 무시하면 우리 자신에게 멸망을 초래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들이 사단에게서 온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PP 55.2}

뱀은 금단의 나무 과실을 따서 그것을 반쯤 싫어하는 하와의 손에 놓았다. 그러고 나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죽지 않도록 이것을 만지지 말라고 하셨다는 여자 자신의 말을 그 여자에게 상기시켰다. 그 여자가 과실을 만져도 아무 해가 없는 것처럼 그것을 먹어도 해가 없으리라고 그는 단언하였다. 하와는 그것을 만졌지만 아무런 해로운 결과도 생기지 않는 것을 알자 더욱더 대담해졌다.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 먹”었다. 그것은 맛이 좋았으며, 그는 먹는 순간 활력을 느끼는 것 같았으며, 스스로 일층 더 고상한 생존 상태에 들어가고 있다고 상상하였다. 두려움 없이 그 여자는 따서 먹었다. 그리고 이제 범죄한 그 여자는 자기 남편을 멸망시키는 일에 사단의 대리자가 되었다. 이상스럽고 부자연스럽게 흥분된 상태에서 금단의 과실을 두 손에 들고 그 여자는 남편이 있는 곳을 찾아서 일어났던 모든 일을 말하였다. {PP 55.3}

아담의 얼굴에는 슬픈 빛이 떠올랐다. 그는 놀라고 근심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와의 말을 듣고 그는 그것이 그들이 경고를 받아왔던 원수임에 틀림없으며 하나님의 선고대로 그 여자는 죽을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그 말에 그 여자는 그들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뱀의 말을 반복하면서 그에게 먹도록 재촉하였다. 그 여자는 하나님께서 불쾌히 여기시는 아무런 증거도 느끼지 못했으며, 오히려 하늘의 사자들을 고무시키는 그런 새로운 생기로

모든 기능들에 감동을 주는 상쾌하고 기분 좋은 감각을 느꼈기 때문에 뱀의 말이 틀림없이 참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PP 56.1}

아담은 그의 반려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었다는 것, 그들에게 충성과 사랑의 시금석으로 부과된 단 하나의 금령(禁令)을 무시하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심중에는 무서운 투쟁이 있었다. 그는 그가 하와로 하여금 그의 곁을 떠나 방황하게 허락한 것을 슬퍼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는 그렇게 큰 기쁨으로 교제하던 그 여자와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담은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로 더불어 교제하는 기쁨을 누렸었다. 그는 창조주의 영광을 바라보았었다. 그는 인류가 하나님께 충성되기만 한다면, 그들 앞에 열릴 고귀한 운명을 깨닫고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축복들은 그의 눈에 다른 모든 것을 능가하는 것처럼 보인 한 선물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보이지 않았다. 창조주께 대한 사랑, 감사, 충성, 이 모든 것은 하와에 대한 사랑에 눌리어졌다. 그 여자는 아담 자신의 한 부분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이별한다는 생각만 해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땅의 진토에서 자기를 활력 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하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반려자를 주신 그 같은 무한하신 능력자께서 그 여자 대신 다른 반려자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는 그 여자와 운명을 같이하기로 결심하였다. 그 여자가 죽어야 한다면, 그도 그 여자와 함께 죽을 것이었다. 결국 현명한 뱀의 말이 참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그는 추론하였다. 하와는 불순종의 행위를 하기 전과같이 아름답고 표면상으로 무죄한 것처럼 그의 앞에 있었다. 그 여자는 전보다 더 큰 사랑을 그에게 표시하였다. 그 여자에게 아무런 죽음의 징후도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는 담대히 그 결과를 무릅쓰려고 결심하였다. 그는 그 과실을 쥐고 급히 먹었다. {PP 56.2}

범죄한 후 아담은 처음엔 자기가 일층 더 높은 생존 상태에 들어가고 있다고 상상하였다. 그러나 곧 그의 죄에 대한 생각이 그를 공포심으로 채웠다. 지금까지 온화하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던 공기가 이 범죄한 부부에게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다. 그들이 누려왔던 사랑과 평화는 사라지고, 그대신 그들은 죄에 대한 의식, 장래에 대한 공포, 영혼의 벌거벗음을 느꼈다. 그들의 몸을 두르고 있었던 빛의 두루마기는 이제 사라져 버렸다.

그리하여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가리개를 만들어 빛의 옷을 대신하려고 노력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설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PP 57.1}

그들은 이제 그들의 죄의 참 성격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아담은 자기의 곁을 떠나서 뱀에게 속임을 당하도록 자신을 허용한 그의 반려자의 어리석음을 꾸짖었다. 그러나 그들 둘 모두, 그처럼 당신의 사랑에 대한 많은 증거를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한 번의 범죄는 용서해 주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두려워했던바 그렇게 무서운 형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PP 57.2}

사단은 그의 성공으로 기뻐 날뛰었다. 그는 여인을 유혹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그분의 지혜를 의심하고, 그분의 율법을 범하게 하였으며 그 여자를 통하여 그는 아담을 넘어뜨렸다. {PP 57.3}

그러나 대입법자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의 범죄의 결과를 알리려 하셨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임하셨다. 그들은 무죄하고 거룩하였을 때에는 즐거움으로 창조주의 접근을 환영하였으나 이제는 무서워 도망하여 동산 가장 깊은 곳에 은신(隱身)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창 3:9~11). {PP 57.4}

아담은 그의 죄를 부인하거나 변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참회의 태도를 나타내는 대신에 그는 그의 아내에게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자신에게 죄를 씌우려고 노력하였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에 대한 사랑에서 고의로 하나님의 승인과 낙원에 있는 자기의 집과 영원한 기쁨의 생활을 포기하기로 선택했었던 그는 범죄한 지금에는 그의 아내와 심지어 창조주 자신에게까지 범죄의 책임을 씌우려고 하였다. 죄악의 세력은 그처럼 무서운 것이다. {PP 57.5}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고 물으셨을 때에 그 여자는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대답하였다. "왜 당신께서 뱀을 창조하셨습니까?" "왜 뱀이 에덴에

들어오도록 허용하셨습니까?" 이것들은 그 여자의 죄에 대한 변명 가운데 암시된 질문이었다. 이처럼 그 여자도 아담과 같이 그들의 타락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렸다. 자기 합리화의 정신은 거짓의 아비에게서 비롯되었다. 우리의 최초의 조상은 사단의 감화에 굴복되자마자 이 정신에 빠졌으며, 아담의 모든 자녀들이 이 정신을 나타내오고 있다. 사람들은 겸손하게 그들의 죄를 자복하는 대신에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환경에, 또는 하나님께 씌움으로 자신들을 방어하려고 애쓴다. 그들은 심지어 그분의 축복까지도 그분께 불평할 이유로 삼는다. {PP 58.1}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는 뱀에게 다음과 같은 선고를 내리셨다.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창 3:14). 사단의 매개물로 사용되었으므로 뱀은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을 함께 받게 될 것이었다. 들짐승 중에 가장 아름답고 경탄을 받았던 뱀은 가장 비천하고 혐오받는 짐승이 되어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다 두려움과 증오의 대상이 될 것이었다. 뱀에게 하신 다음의 말씀은 사단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었으며, 그의 최후의 패배와 멸망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창 3:15). {PP 58.2}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그후 그의 몫이 될 수밖에 없는 슬픔과 고통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창조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아담과 동등하게 만드셨다.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유지했었더라면 - 그분의 위대한 사랑의 율법에 조화되었었더라면 - 그들은 항상 서로 조화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죄는 불화를 가져왔으며, 이제는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에 복종함으로만 그들의 연합이 유지되며 조화가 보존될 수 있게 되었다. 하와는 최초의 범죄자였으며, 하나님의 지시를 거스르고 그의 반려자와 떨어짐으로 유혹에 빠졌다. 아담이 범죄한 것이 그 여자의 권유에 의하였으므로 이제 그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위치에 놓였다.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명하신 원칙들을 타락한 인류가 지켰더라면, 죄의 결과로 생긴 것이긴 하지만 이 선고는 그들에게 축복임이 입증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여 남자에게 주어진 주권의 남용은 너무도 자주 여자의 운명을 비참하게 만들고 여자의 생활을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 놓았다. {PP 58.3}

하와가 에덴의 가정에서 그의 남편 곁에 있을 때 완전히 행복하였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침착하지 못한 현대의 하와들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할당하신 것보다도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는 희망으로 치켜세움을 입었다. 그 여자는 본래의 지위 이상으로 높이 오르려다가 훨씬 더 아래로 떨어졌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들의 생활의 의무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꺼리는 자들에게는 모두 같은 결과가 이를 것이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적합하게 하시지 않은 지위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수도 있는 자리를 비워 두고 있다. 보다 높은 지위를 얻으려는 욕망으로 참 여자다운 존엄성과 고상한 품성을 희생하고, 하늘이 그들에게 지정해 준 바로 그 일은 하지 않은 채 방치해두는 자들이 많다. {PP 59.1}

여호와께서 아담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창 3:17~19). {PP 59.2}

무죄한 부부가 악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그분은 그들에게 선한 것을 풍부하게 주시고 악한 것은 주시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의 명령을 거스르고 금단의 나무 실과를 먹었으며, 이제 그들은 평생 동안 그것을 계속 먹을 것이다. 즉 악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 때로부터 인류는 사단의 유혹으로 고통을 당할 것이었다. 지금까지 그들에게 맡겨졌던 즐거운 노동 대신 걱정과 수고가 그들의 운명이 될 것이었다. 그들은 실망, 슬픔, 고통 그리고 마침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었다. {PP 59.3}

죄의 저주 아래서 자연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특성과 결과에 대하여 사람에게 증거할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통치자로 창조하셨다. 아담이 하늘에 충성을 유지한 동안에는

천연계의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였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율법에 반역하였을 때 하등의 피조물들이 그의 다스림에 반기를 들었다. 이렇게 하여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크신 자비 가운데 당신의 율법의 신성성을 사람들에게 보여 주시고 그들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가장 사소한 정도라도 그것을 도외시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셨다. {PP 59.4}

이제부터 사람의 운명이 될 수고와 염려의 생애도 사랑으로 지정된 것이었다. 그것은 그의 죄로 말미암아 필요하게 된 훈련으로써, 식욕과 정욕의 방종을 억제하고 극기의 습관을 기르기 위한 것이었다. 그것은 죄의 영락(零落)과 퇴화(退化)로부터 사람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의 일부분이었다. {PP 60.1}

우리의 첫 부모에게 주어진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창 2:17)는 경고는 저희가 금단의 실과를 먹은 바로 그날에 죽으리라는 것을 암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에 취소할 수 없는 선고가 언도될 것이었다. 불사불멸은 순종을 조건으로 그들에게 약속되었으며 범죄한다면, 그들은 영생을 잃어버릴 것이었다. 바로 그날 그들은 죽음의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었다. {PP 60.2}

영원히 생존하려면 사람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계속 먹어야 하였다. 이것을 박탈당하면 그의 활력은 점차로 사라져 마침내 생명이 소멸될 것이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을 입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었다. 그 다음, 그들이 용서를 받지 못할 경우 생명나무 실과를 먹음으로 죄와 비참 가운데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려고 희망하였다. 그러나 사람의 타락 후에, 생명나무를 지키도록 즉시 거룩한 천사들이 명령을 받았다. 이 천사들 주위에는 번쩍이는 칼 모양의 광선이 비치었다. 아담의 가족들 중에 한 사람도 생명을 주는 과실을 따먹도록 그 장벽을 통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불사의 죄인은 하나도 없다. {PP 60.3}

우리 첫 부모의 범죄로부터 흘러나온 비애의 조수는 그처럼 작은 죄에 비하여 너무도 무서운 결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그들은 사람을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를 비난한다. 그러나 그들이 이 문제를 더욱 깊이 살펴보면 그들의 과오를 깨달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죄 없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지구에는 천사들보다 조금 낮은 존재인 사람들이 거하게 될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순종은 시험을 받아야

하였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그분의 율법을 무시할 자들로 가득 차게 되기를 허용치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크신 자비를 베푸사 결코 혹독한 시험을 주지 않으셨다. 그리고 금령의 가벼움이 바로 그 죄를 극도로 크게 만들었다. 아담이 가장 작은 시험도 견딜 수 없었다면, 그에게 더 큰 책임이 위탁되었을 경우 그는 보다 큰 시련을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PP 60.4}

아담에게 큰 시험이 지정되었더라면, 죄악으로 마음이 기울어지는 자들은 그 때에는 '이것은 하찮은 문제이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대하여서는 그렇게 까다롭지 않으시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변명했을 것이다. 그리고 작은 일이라고 간주되는 일에 있어서 끊임없이 범죄가 계속될 것이며, 그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비난도 받지 않고 묵인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죄는 경중에 관계없이 당신께 불쾌한 것임을 분명히 하셨다. {PP 61.1}

하와에게는 금단의 나무 실과를 맛봄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의 남편 또한 범죄하도록 유혹한 것이 작은 일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들의 죄는 비애의 수문들을 세계로 열어놓았다. 유혹의 순간에 악으로 내딛는 한걸음이 가져올 무서운 결과를 누가 알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에게 구속력이 없다고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의 법도를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담은 왜 범죄의 형벌을 당하였는가? 우리의 최초의 부모의 죄는 이 세상에 죄책과 슬픔을 가져왔으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없었더라면 인류는 속절없이 절망 가운데 빠졌을 것이다. 아무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 "죄의 삯은 사망이요"(롬 6:23). 인류의 시조가 범죄하여 사형의 선고를 받을 때와 똑같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벌을 받지 않을 수는 없다. {PP 61.2}

범죄한 후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에덴에서 살지 못하게 되었다. 그들은 죄 없고 즐거운 집에 계속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열렬히 간청하였다. 그들은 행복스러운 거처를 소유할 모든 권리를 상실했음을 자백하고 앞으로는 하나님께 엄격히 순종하겠다고 서약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본성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되었고, 그들이 악을 저항할 그들의 힘을 감소시켰으며, 사단이 그들에게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말씀을 들었다. 무죄한 상태에서 그들은 유혹에 굴복하였었다. 죄책을 의식하는 지금의 상태에서 그들은 그들의 성실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더 적게 될 것이었다. {PP 61.3}

겸비하게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슬픔으로 그들은 아름다운 집에 작별을 고하고 죄의 저주가 내린 땅에 살기 위하여 나아갔다. 일찍이 그렇게 온화하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던 대기에 현저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비로우시게도 극단적 한서에서 보호하시려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마련해 주셨다. {PP 61.4}

시드는 꽃과 떨어지는 잎 가운데서 최초의 쇠퇴의 징조를 목격하고 아담과 그의 반려자는 오늘날 사람들이 죽은 자를 인하여 슬퍼하는 것보다 더 깊이 슬퍼하였다. 연약하고 우아한 꽃들의 죽음은 참으로 슬픔의 한 원인이었다. 그러나 미끈한 나무들이 잎들을 떨어뜨릴 때에 그 광경은 죽음이 모든 생물의 운명이라는 엄숙한 사실을 마음에 생생하게 심어 주었다. {PP 62.1}

에덴동산은 사람이 그 즐거운 길들에서 추방된 후에도 오랫동안 지상에 남아 있었다(창 4:16 참조). 타락한 인류는 오랫동안 그 무죄한 시대의 집을 바라보도록 허락되었다. 그 들어가는 입구는 파수 보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차단당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 천사들이 경비하는 낙원의 문에 나타났다(하나님의 영광이 그룹 사이에 나타났으며 후에는 이것을 쉐키나라고 불렀으며 이스라엘 예배의 중심인 지성소 안에 거하였다. 출 25:22; 시 80:1; 사 39:16 참조). 아담과 그의 아들들은 이곳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아왔다. 그곳에서 그들은 율법에 대한 순종의 맹세를 새롭게 하였는바 바로 그 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에덴에서 추방당했었다. 죄악의 조수가 온 세상을 휩쓸었고, 사람들의 악행이 홍수로 말미암아 그들의 멸망을 결정지었을 때, 에덴을 창설하신 손이 그것을 지상에서 철수시키셨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계 2:7, 21:1, 22:14)이 있게 될 최후의 회복의 때에 에덴은 태초 때보다 더 영광스럽게 단장되어 회복될 것이다. {PP 62.2}

그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이 생명나무 아래서 불사의 활력을 들이마실 것이다. 무궁한 세월을 통하여 무죄한 세계의 거민들은 그 즐거움의 동산에서 죄의 저주로 더럽혀지지 않은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사업의 표본, 사람이 창조주의 영광스러운 경륜을 성취하였었더라면 온 지구가 그렇게 되었을 표본을 바라볼 것이다. {PP 62.3}

4장 구속의 경륜

사람의 타락은 온 하늘을 슬픔으로 가득 채웠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죄의 저주로 시들었고, 비참하게 죽을 운명에 처한 존재들이 살게 되었다. 율법을 범한 자들이 피할 길은 없는 것같이 보였다. 천사들은 찬양의 노래를 그쳤다. 하늘 궁정 전체가 죄가 가져온 황폐 때문에 통곡하고 있었다. {PP 63.1}

하늘의 영광스러운 사령관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타락한 인류를 불쌍히 여기셨다. 잃어버린 세계에 임할 화가 그분 앞에 떠오를 때에 그분의 마음은 무한한 동정심으로 감동되셨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구속받을 수 있는 한 경륜을 입안하셨다. 깨어진 하나님의 율법은 죄인의 생명을 요구하였다. 온 우주에서 사람을 위하여 이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이는 한 분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자신처럼 거룩하므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만이 범법을 속죄할 수 있었다. 그리스도밖에는 아무도 타락한 사람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여 하늘과 조화시킬 수 없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책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매우 가증하므로 아버지와 아들을 틀림없이 분리시킬 죄의 수치를 자진해서 떠맡으실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비참의 심연(深淵)에까지 내려가실 것이었다. {PP 63.2}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서 간청하시는 동안 하늘 천사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관심을 가지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타락한 인류를 위한 신비스런 의논 - “평화의 의논”(슥 6:13)은 오래 계속되었다. 구속의 경륜은 지구의 창조 전에 이미 세워졌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창조함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양”(계 13:8 구역)이시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우주의 왕에게 있어서도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죽도록 내어 주는 것은 큰 투쟁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요 3:16)이었다. 오! 구속의 오묘함이여! 그분을 사랑하지 않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여! “지식에 넘치는” 그 사랑의 깊이를 누가 알 수 있으리요! 영원한 세월을 통하여 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오묘함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불후의 지성들은 경탄하고 숭경해 마지않을 것이다. {PP 63.3}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고후 5:19) 하실 것이었다. 사람은 죄로 인하여 매우 타락하였으므로 자신의 힘으로는 순결하시고 선한 본성을 가지신 분과 조화될 수 없었다. 그러나 율법의 정죄로부터 사람을 속량하신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노력과 연합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하실 수 있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아담의 자손들은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자녀”(요일 3:2)가 될 수 있을 것이었다. {PP 64.1}

사람의 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경륜에는 온 하늘의 무한한 희생이 포함되었다.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경륜을 천사들 앞에서 공개하셨을 때에 천사들은 기뻐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사람의 구원은 그들의 사랑하는 사령관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애를 필연적으로 요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었다. 슬픔과 놀라움으로 천사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당신께서 어떻게 하늘의 순결과 평화, 그 기쁨과 영광 및 불사의 생명을 떠나 내려오셔서 지상의 타락과 접촉하시고 세상의 슬픔과 수치와 죽음을 견디셔야만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그분은 죄인과 죄의 형벌 사이에 서실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었다. 그분은 하늘의 왕의 높은 지위를 버리시고 자신을 낮추어 사람으로 지상에 나타나셔서 사람이 견뎌야 할 각종 슬픔과 유혹을 친히 경험하실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은 그분께서 시험 받게 될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게 되기 위하여 필요하였다(히 2:18). 교사로서의 그분의 사명이 마치게 될 때에 그분은 악인들의 손에 넘겨지고 사단이 그들을 충동하여 끼치는 모든 모욕과 고통을 받지 않으면 안 될 것이었다. 그분은 가장 잔인한 죽음을 당하시고 하늘과 땅 사이에 범죄한 죄인으로 들림을 받아야 하였다. 그분은 천사들이 차마 볼 수 없어서 얼굴을 가릴 정도로 무서운 고통의 긴 시간을 견뎌내셔야 하였다. 그분은 자기가 져야 할 온 세계의 죄의 짐 곧 율법을 범한 죄책을 지심과 동시에 아버지께서 얼굴을 숨기심으로 인한 영혼의 고뇌도 견디셔야 하였다. {PP 64.2}

천사들은 그들의 사령관의 발 앞에 부복하여 그들이 사람을 위한 희생이 되겠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천사의 생명은 죄의 빚을 갚을 수 없었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께서만 인간을 속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다. 그러나 천사들은 구속의 경륜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들보다 잠간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히 2:9, 1:14)을 받은 자가 되실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실 때 그분의 능력은 그들의 능력에 못 미칠 것이었으며 그들은 그분께서 고통당하실 때 그분께 수종들고, 그분의 힘을 북돋워 드리고 위로할 것이었다. 그들은 또한 구원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부리는 영이 될 것이었다. 그들은 은혜의 백성들을 사단과 악한 천사들의 세력으로부터 그리고 사단이 끊임없이 그들의 주위를 두르는 어둠으로부터 보호할 것이었다. {PP 64.3}

천사들이 그들의 주님의 고뇌와 굴욕을 목격할 때에 그들은 슬픔과 의분에 충만하여 살인자들로부터 그분을 구원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천사들은 그들이 보게 될 어떤 일에든지 그것을 막으려고 개입해서는 안 될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악인들의 조롱과 모욕을 감수하시는 것은 구속의 경륜의 한 부분이었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구주가 되셨을 때 이 모든 것에 동의하셨다. {PP 65.1}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들에게 당신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속량하실 것이며 사망의 권세 잡은 자를 멸하실 것이라고 보증하셨다. 그분은 사람이 범죄로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으실 것이며, 구속받은 자들이 그분과 함께 그것을 유업으로 받아 영원히 그 곳에서 살게 될 것이었다. 죄와 죄인들은 제거될 것이며 앞으로 결코 하늘이나 땅의 평화를 어지럽히지 못할 것이다. 그는 그분의 천사의 무리들에게 아버지께서 수락하신 경륜에 보조를 맞추고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라고 명하셨다. {PP 65.2}

그 때에 기쁨, 말로 나타낼 수 없는 기쁨이 하늘을 가득 채웠다. 구속받은 세계의 영광과 축복은 생명의 왕의 고뇌와 희생조차도 능가하였다. 베들레헴의 언덕들 위로 울려 퍼지기로 되어 있던 저 노래 -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눅 2:14)의 첫 곡조가 온 하늘 궁정에 메아리쳤다. 새 창조의 환희보다 더 깊은 즐거움으로 그 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욥 38:7)다. {PP 65.3}

사람에게 주어진 구속에 관한 최초의 암시는 동산에서 사단에게 내린 선고 가운데서 통지되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인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창 3:15)고 선언하셨다. 우리의 첫 부모가 듣는 데서 선언된 이 선고는 그들에게는 한 약속이었다. 이 선고는 사람과 사단 사이의 전쟁을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큰 원수의 세력이 최후에 부서질 것도 선언하였다. 아담과 하와는 죄수로서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서서, 범죄가 초래한 선고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들의 운명이 될 수밖에 없는 수고와 슬픔의 생활이나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선고를 듣기 전에 그들은 그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을 수 없었던 말씀들을 들었다. 저희가 비록 강적(强敵)의 세력으로부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들은 최후의 승리를 기대할 수 있었다. {PP 65.4}

사단은 자기와 여인, 자기의 자손과 여인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이 있게 되리라는 것을 들었을 때 인간 본성을 타락시키려는 자신의 사업이 방해를 받을 것과 어떤 수단을 사용하여 사람이 그의 세력을 저항할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구원의 경륜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났을 때 사단은 사람을 타락시킴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그분의 높임 받은 지위에서 끌어 내릴 수 있다고 그의 천사들과 함께 기뻐하였다. 그는 여기까지는 그의 계획이 지상에서 성공을 거두었으며, 그리스도께서 자진해서 인성을 취하실 때 그분 또한 패배당할 것이며, 이렇게 하여 타락한 인류의 구속은 저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PP 66.1}

하늘의 천사들은 우리의 첫 부모에게 저들의 구원을 위하여 고안된 경륜을 더 완전하게 밝히었다. 아담과 그의 반려자는 그들의 죄가 비록 크지만 사단의 지배를 받도록 버림을 받지 않으리라는 보증을 받았다. 하나님의 아들은 당신의 생명으로 그들의 죄악을 속죄하시겠다고 제의하셨다. 은혜의 시기가 그들에게 허락될 것이며,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 {PP 66.2}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 요구된 희생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신성한 특성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저들은 전에 결코 본 일이 없는 죄과와 그것의 비참한 결과를 보았다. 그들은 후회와 괴로움 가운데서 그 형벌이, 그분의 사랑이 그들의 모든 즐거움의 근원이 되었었던 분에게 내리지 말고 차라리 그들과 그들의 자손에게 내리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PP 66.3}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은 땅에서뿐 아니라 하늘에서도 그분의 정부의 기초이기 때문에 천사의 생명이라도 이 율법을 범한 데 대한 희생으로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말씀을 들었다.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인간의 필요에 응하기 위하여 그 율법의 한 교훈도 폐기되거나 변경될 수 없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을 위하여 속죄하실 수 있으셨다. 아담의 범죄가 불행과 죽음을 가져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희생은 생명과 불멸을 가져올 것이었다. {PP 66.4}

사람뿐만 아니라 지구도 죄로 말미암아 악한 자의 권세 밑으로 들어갔었다. 그것들은 구속의 경륜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것이었다. 아담은 창조될 때에 지구를 통치할 지위에 세워졌으나, 유혹에 굴복함으로 그는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갔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벧후 2:19) 된다. 사람이 사단의 포로가 되었을 때 그가 가졌던 통치권은 그의 정복자에게 넘어갔다. 이같이 하여 사단은 “이 세상 신”(고후 4:4)이 되었다. 그는 원래 아담에게 주어진 바 되었던 지상의 통치권을 찬탈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희생으로 죄의 형벌의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잃었던 통치권도 되찾으실 것이었다. 첫째 아담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둘째 아담이 회복하실 것이었다. 선지자는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이 네게로 돌아오리라”(미 4:8)고 말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엡 1:14)실 때를 가리킨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행복스러운 존재의 거처가 되도록 이 땅을 창조하셨다. 주께서 “땅도 창조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사 45:18)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땅이 새롭게 되고, 죄와 슬픔에서 해방되어 그것이 구속받은 자들의 영원한 거처가 될 때 이 목적이 성취될 것이다. “의인이 땅을 차지함이여 거기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시 37:29; 계 22:3)리라. {PP 67.1}

아담은 그가 무죄하였던 때에는 창조주와 간격 없는 교통을 즐겼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다. 그리스도의 속죄만이 그 심연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놓고 하늘에서 땅으로 축복 혹은 구원을 전달할 수 있었다. 사람에게는 여전히 창조주께 직접 나아가는 길이 끊겼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천사들을 통하여 인간과 교통하시고자 하셨다. {PP 67.2}

그리하여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선고를 내리신 때로부터 홍수 때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초림까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중대한 사건들이 아담에게 계시되었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전 세계를 구원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회개와 순종의 생애를 택하지 않고 죄의 생애를 택할 것이 아담에게 보여진 바 되었다. 세대가 계속됨에 따라 범죄는 증가될 것이며 죄의 저주는 더욱더 인류와 짐승에게와 지상에 내릴 것이었다. 사람의 수명은 인간 스스로가 죄의 생애를 함으로 짧아지고, 체력과 인내력, 도덕적, 지적 능력은 저하될 것이며 세계는 마침내 각종 참상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식욕과 정욕의 방종으로 구속의 경륜의 대진리를 깨달을 능력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늘을 버리시고 세상에 오신 그 목적에 부합되게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계속 관심을 가지실 것이며, 그들의 약점과 결점을 당신 안에 숨기라고 여전히 그들을 초청하실 것이다. 그분은 믿음으로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의 필요를 공급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보존하며, 불의가 편만한 가운데서도 더럽힘을 받지 않은 적은 무리가 항상 있을 것이었다. {PP 67.3}

희생 제사들은 사람에게 그의 죄를 항상 상기시켜 주고 자신의 죄에 대한 참회가 동반된 시인과 약속된 구속주를 믿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에 의하여 제정되었다. 그것들은 타락한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온 것은 죄라는 엄숙한 진리를 깊이 명심시키려고 제정되었다. 아담에게 있어서 첫 희생 제사는 가장 고통스러운 의식이었다. 그의 손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을 취하기 위해 들려져야만 하였다. 그는 이 때 죽음을 처음으로 목도하였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였었더라면 사람이나 짐승이 죽는 일이 없었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무죄한 동물을 희생 제물로 죽이면서 그는 자기의 죄가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양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떨었다. 이 장면을 보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밖에는 속죄할 수 없는 그의 죄의 중함을 더욱 깊고 더욱 생생하게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범죄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이처럼 놀라운 속전(贖錢)을 지불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선하심에 경탄하였다. 한 희망의 별이 어둡고 무서운 장래를 비추어 주었으며 미래의 완전한 황폐의 공포를 제거해 주었다. {PP 68.1}

구속의 경륜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광범위하고 깊은 목적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만을 위하여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오신 것은 단순히 이

작은 세계의 거민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마땅히 생각해야 할 대로 생각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시기 위해서였다. 당신의 위대한 희생의 이와 같은 결과 - 이 세상 사람뿐 아니라 다른 세계들의 지성적 존재들에게 그것이 끼치는 영향 - 를 구주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미리 내다보셨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요 12:31, 32).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행위는 사람들이 하늘에 접근하는 일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사단의 반역을 처리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 정당하심을 온 우주 앞에 옹호할 것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영원 불변성을 확립할 것이며 죄의 본질과 결과들을 나타낼 것이었다. {PP 68.2}

대쟁투는 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다. 사단은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며, 그분의 율법에 결함이 있고, 우주의 행복을 위하여 그것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써왔다. 율법을 공격함으로 그는 그 율법의 제정자의 권위를 뒤집어엎으려고 하였다. 그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율례에 결함이 있어 변경해야 되는지 혹은 완전하여 변할 수 없는 것인지가 나타나게 될 것이었다. {PP 69.1}

사단은 하늘에서 추방되었을 때 이 지구를 그의 나라로 삼으려고 단호히 결심하였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그들을 정복하였을 때 그는 이 세상이 그의 소유물이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나를 그들의 통치자로 선택하였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죄인을 용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타락한 인류는 그의 합법적 백성이며 이 세상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동등이신 당신의 귀하신 아들을 주셔서 죄의 형벌을 담당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그분의 은총을 회복하고 그들의 에덴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구속하고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을 탈환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늘에서 시작된 대쟁투는 사단이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바로 이 세상에서 결판날 것이었다. {PP 69.2}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신다는 것은 온 우주가 경탄할 일이었다. 별에서 별로, 세계에서 세계로 다니시면서 만물을 감독하시고 그분의 섭리로 창조하신 광대한 우주의 각계각층의 존재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분께서 당신의 영광을 떠나 몸소 인성을 취하시기로 동의하신 것은 죄 없는 다른 세계들의 지적 존재자들이 이해하기를 원하는 신비였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온 우주는 그분께서 말구유에서 갈바리에 이르기까지 피 묻은 길을 한걸음 한걸음 옮겨 놓으시며 가로지르시는 모습을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다. 하늘은 그분이 받으신 능욕과 멸시를 주목하였고, 그것이 사단의 선동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았다. 그들은 서로 적대적인 세력의 역사(役事)가 진행되는 것을 주목하였다. 사단은 인류에게 계속적으로 흑암과 슬픔과 고통을 가져다주려고 노력하고 있었고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막고 계셨다. 그들은 빛과 어둠 사이의 투쟁이 더욱 격렬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며 고통 중에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실 때에 승리의 함성이 온 하늘과 모든 세계에 울려 퍼졌다. 그렇게 오랫동안 이 세상에서 진행되어 오던 대쟁투의 승부가 그 때 판가름이 났다. 승리자는 그리스도이셨다. 그분의 죽음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이 사람을 위하여 자기 부인과 희생의 정신을 발휘하실 만큼 충분한 사랑을 가지셨는지에 대한 의문을 풀어 주었다. 사단은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로서의 자신의 참 성격을 드러냈다. 하늘의 지적 존재자들을 통치하도록 허용되었었더라면 사단은 자기의 권세 하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렸던 바로 그 동일한 정신을 나타내었을 것이라는 사실이 밝히 드러났다. 충성스러운 우주는 목소리를 합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였다. {PP 69.3}

율법이 변경될 수 있었더라면 사람은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희생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은 죄인을 율법의 요구에서 면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다. 죄의 삯은 사망임이 입증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에 사단의 멸망은 확정되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십자가에서 율법이 폐지되었다면 하나님의 귀하신 아들이 당한 고통과 죽음은 사단이 요구한 바로 그것을 그에게 준 셈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더라면 악마는 승리를 얻고 하나님의 정부에 대한 그의 비난이 확증되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범죄의 형벌을 받으신 바로 그 사실은 모든 창조된 지적 존재들에게, 율법은 불변이며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자기를

부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과, 그분의 정부의 통치에는 무한한 공의와 자비가 연합되어 있다는 데 대한 강력한 논증이다. {PP 70.1}

5장 가인과 아벨이 시험을 받음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은 품성이 현격하게 달랐다. 아벨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정신을 가졌으며, 타락한 인류를 다루시는 창조주의 공의와 자비를 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속의 소망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가인은 반역의 감정을 품었으며, 아담의 죄로 인하여 땅과 인류에게 선고된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였다. 그는 자신의 마음이 사단을 타락으로 이끈 동일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허용하였다. 그는 자기 찬양의 갈망과 하나님의 공의와 권위에 대한 의심을 품었다. {PP 71.1}

아담이 앞서 시험을 받았던 것같이, 이 형제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는지의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시험을 받았다. 그들은 사람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에 대하여 익히 알고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 제도에 대하여서도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 제물로 그것들이 예표한 구주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고 동시에 용서를 위하여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와 같이 그들의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순응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그들이 순종한다는 증거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피흘림이 없이는 사죄가 있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은 가축의 초태생을 희생 제물로 바침으로써, 약속된 속죄로써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야 할 것이었다. 이것들 외에 땅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감사 제물로 주 앞에 바쳐야 할 것이었다. {PP 71.2}

두 형제는 그들의 제단을 같은 모양으로 쌓고 각기 제물을 가져왔다. 아벨은 주께서 지시하신 대로 양떼 중에서 취한 희생 제물을 드렸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하셨”(창 4:4)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물을 살랐다. 그러나 가인은 주의 직접적이요 분명한 명령을 무시하고 과실만을 제물로 드렸다. 그것이 가납되었음을 보여 주는 아무런 표적도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의 형에게 간청하였다. 그러나 그의 간청은 가인을 더 단호하게 자신의 뜻을 고집하도록 만들 뿐이었다. 장자로서 그는 동생의 권고를 받을 처지가 아니라고 느끼고 그의 충고를 무시하였다. {PP 71.3}

가인은 약속된 희생과 희생 제물의 필요성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불평과 불신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그의 봉헌물(奉獻物)에는 죄에 대한 참회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바와 같이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그대로 따르는 것은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되며 자기 구원을, 약속된 구세주의 속죄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륜을 곧이곧대로 따르는 것은 연약함을 시인하는 것이 된다고 느꼈다. 그는 자기 의존의 길을 택하였다. 그는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다. 그는 양을 가져와서 그 피와 함께 제물을 드리려 하지 않고 자기의 소산, 자기의 노력의 생산물을 드리고자 하였다. 그는 하나님께 대한 호의의 표시로 자기의 제물을 드렸으며, 이것으로 그는 하나님의 승인을 얻으려고 기대하였다. 가인은 제단을 쌓고 희생을 가져오는 점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였다. 그러나 그는 부분적인 순종만을 드렸다. 가장 요긴한 부분 즉, 구속주의 필요성에 대한 인정을 빼어버렸다. {PP 72.1}

출생과 종교적 교훈에 관한 한 이 형제는 같았다. 둘 다 죄인이었으며, 둘 다 존경과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시인하였다. 외관적으로 볼 때 그들의 신앙은 어떤 점까지는 같았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서는 둘 사이의 차이는 컸다. {PP 72.2}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히 11:4)다. 아벨은 구속의 대원칙의 의미를 파악하였다. 그는 자신이 죄인인 것과 죄와 그 죄의 형벌인 죽음이 그의 영혼과 하나님과의 교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죽임을 당한 제물 즉 희생된 생명을 드림으로 범해진바 된 율법의 요구를 승인하였다. 그는 흘려진 피를 통하여 미래의 희생 즉 그리스도께서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루어질 속죄를 의지함으로 그가 의로워졌으며 그의 제물이 받으신 바 되었다는 증거를 얻었다. {PP 72.3}

가인도 아벨과 같이 이 진리들을 배우고 받아들일 동일한 기회가 있었다. 그는 결코 하나님의 독단적인 목적의 희생자가 아니었다. 한 형제는 하나님께 받으신 바 되고 다른 이는 거절을 받도록 선택되지 않았다. 아벨은 믿음과 순종을 선택하였고 가인은 불신과 반역을 선택하였다. 모든 문제는 여기에 달려 있었다. {PP 72.4}

가인과 아벨은 종말 때까지 이 세상에 있을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표한다. 한 부류는 죄를 위하여 지정된 희생을 이용하지만 다른 부류는 자신들의 공로를 감히 의지한다.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의 중보의 공로가 없는 제사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게 해줄 수 없다. 예수의 공로를 통하여서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피의 필요를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들의 행위로 하나님의 가납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느끼는 자들은 가인과 동일한 과오를 범하고 있다. 정결케 하는 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은 정죄 아래 있다. 그들이 죄의 속박에서 놓임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아무데도 없다. {PP 72.5}

대부분의 세계 사람들이 가인의 본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류에 속해 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거짓 종교들이 동일한 원칙 즉 사람은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구속이 아니라 발전이라 하며, 그것이 인류를 세련되게 하며 향상시키며 갱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가인이 희생의 피가 없는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으려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속죄 없이 인류를 하나님의 표준까지 높이려고 한다. 가인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준다. 인류는 스스로 자신을 새롭게 만들 능력이 없다. 인류는 위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사단적인 것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시다.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행 4:12)다. {PP 73.1}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참 신앙은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순종함으로 나타날 것이다. 아담의 시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쟁투의 쟁점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의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하나님의 율법 중의 어떤 계명은 무시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어느 시대에나 있었다. 그러나 성경은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고, 순종의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약 2:22, 17)고 선언한다. 하나님을 아노라 공언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요일 2:4)다. {PP 73.2}

가인은 그의 제물이 가납을 받지 못하자 하나님과 아벨에게 분노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희생 대신 인간의 대치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자 분노하였고, 그의 아우가 하나님께 대한 반역에 가담하지 않고 그분께 순종하기를 선택하였다 하여 아우에게 분노하였다. 가인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방임하지 않으시고 그처럼 불합리하게 행동한 그 사람과 변론하셨다. 주께서는 가인에게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찜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찜이뇨"(창 4:6, 7)라고 말씀하셨다. 한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경고의 기별이 전달되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선택은 가인 자신에게 달려 있었다. 그가 약속된 구주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한다면, 그는 그분의 은총을 누릴 것이었다. 그러나 그가 고집스럽게 계속 불신하고 죄를 짓는다면 자기가 주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하여 그분께 불평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이었다. {PP 73.3}

그러나 가인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는커녕 계속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시다고 불평하였으며 아벨에 대하여는 질투와 증오심을 품었다. 그는 성을 내며 그의 아우를 비난하였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사에 관하여 그와 논쟁을 벌이려고 시비를 걸었다. 아벨은 온유하게 그러나 두려움 없이, 단호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을 옹호하였다. 그는 가인의 잘못을 지적하고 잘못은 그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모를 즉시 사형에 처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들의 생명을 빼앗지 않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지적하고, 그분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과,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분께서 그들이 범죄함으로 초래한 형벌을 무죄하시고 거룩하신 그분의 아들이 당하도록 허락하시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모든 말은 가인의 분노를 더 맹렬하게 불타오르게 했다. 이성과 양심은 그에게 아벨이 옳다고 말했지만, 지금까지 자기의 권고를 들어오던 아우가 이제는 건방지게도 그를 불명예스럽게 만들고 자기의 반역에 조금도 동조하지 않는다 하여 격노하였다. 가인은 격분하여 그의 동생을 살해했다. {PP 74.1}

가인은 그의 아우를 증오하였고 그를 죽였다. 아벨이 무슨 잘못을 범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요일 3:12)웠기 때문이었다. 그와 같이 각 시대를 통하여 악인들은 그들보다 더 나은 자들을 미워해 왔다. 아벨의 순종과

확고부동한 신앙의 생활은 가인에게 끊임없는 견책이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3:20)니라. 하나님의 충실한 종들의 품성에서 반사되는 하늘의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죄는 더욱더 분명히 드러나며, 그들의 평안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자 더욱더 단호하게 노력할 것이다. {PP 74.2}

아벨의 살해는 뱀과 여인의 후손 곧 사단과 그의 부하들과 그리스도와 그분의 추종자들 사이에 있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증오심의 실례였다. 인간의 범죄를 통하여 사단은 인류를 지배하게 되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사단의 멍에를 벗어 버릴 수 있게 하실 것이었다. 하나님의 어린양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한 영혼이 죄를 섬기기를 단념할 때마다 사단의 분노는 불붙는다. 아벨의 거룩한 생애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단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악한 자의 정신으로 충동을 받은 가인은 그가 아벨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았을 때에 크게 노하여 아우를 살해하였다.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움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그들을 증오하는 동일한 정신이 나타날 것이다. {PP 77.1}

각 시대를 통하여 화형주를 세우고 장작더미에 불을 붙여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태워 죽인 것은 바로 이같은 정신이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들에게 가하여진 잔인한 행위는 사단과 그의 부하들이 그들을 자신들의 지배 아래 복종시킬 수 없기 때문에 선동한 짓이었다. 이것은 정복당한 원수의 분노이다. 예수의 순교자들은 모두 승리자로 죽었다. 선지자는 “또 여러 형제가 어린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자)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계 12:11, 9)다고 기록한다. {PP 77.2}

살인자 가인은 곧 그의 죄에 대하여 답변하도록 소환되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창 4:9~12). 가인은 죄 중에 너무 깊이 빠져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임재하심과 그분의 위대함과 전지하심을 느끼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거짓말을 하였다. {PP 77.3}

또다시 주께서 가인에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그의 죄를 자복할 기회를 주셨었다. 그에게는 반성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그는 그가 저지른 행위가 얼마나 흉악한지를 그리고 그것을 감추려고 말한 거짓말이 얼마나 흉악한지를 알았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반역적이었으므로 더 이상 선고는 연기되지 않았다. 가인에게 간청하고 권고하시던 하나님의 음성은 다음과 같은 무서운 선고를 내렸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창 4:11, 12). {PP 77.4}

가인은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즉시 사형을 받아 마땅하였지만 자비로우신 창조주께서는 그의 생명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셨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의 마음을 강퍅하게만 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반항하는 생애를 살았고 결국 대담한 버림받은 죄인들의 조상이 되었다. 사단에게 조종당한 이 한 반역자가 다른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람이 되었으며, 그의 모본과 감화는 그들을 타락시키는 영향력을 발휘했으며, 마침내 세상은 너무도 패괴하고 강포로 충만해져서 멸망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PP 78.1}

첫 살인자의 생명을 취하지 않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앞에 대쟁투에 관계가 있는 한 교훈을 제시하셨다. 가인과 그의 후손들의 어두운 역사는, 죄인들을 영원히 살게 하여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계속하도록 허락한다면 그 결과가 어떠했을지에 대한 예증이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악인들을 더 그들의 악행에 담대하게 만들고 도전적으로 만들 뿐이었다. 가인에게 선고가 내린 지 15세기 후에 온 우주는 세상에 범람한 범죄와 부패 가운데서 가인의 감화와 모본의 결과를 목격하였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타락한 인류에게 내린 사형 선고는 정당하고 자비스러운 처사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사람들이 죄 중에 오래 살면 살수록 더 타락하게 되었다. 재갈을 물리지 않은 악의 생애를 단축시키고, 굳어진 반역 정신을 가진 자들의 감화를 세상에서 제거하신 하나님의 선고는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었다. {PP 78.2}

사단은 매우 정열적으로 수많은 가면을 쓰고 하나님의 품성과 정부를 허위로 대표하기 위해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다. 사단은 광범위하고도 잘 조직된 계획과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세상 거민들을 그의 기만 아래 장악해 두기 위하여 일하고 있다. 무한하시고 온전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시초부터 시말까지를 보시며, 악을 다루시는 그분의 계획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었다. 그분의 목적은 단순히 반역을 진압하시는 것뿐 아니라 온 우주 앞에 반역의 진정한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공의와 그분의 자비를 모두 나타내고 악을 다루시는 데 있어서의 그분의 지혜와 의를 완전히 옹호하면서 하나님의 경륜은 전개되고 있었다. {PP 78.3}

다른 세계에 있는 거룩한 거민들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주목하고 있었다. 홍수 전 이 세상의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루스벨이 그리스도의 권위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배척하면서 하늘에 수립하려고 노력해 왔었던 통치의 결과가 예시된 것을 보았다. 홍수 전 세상의 강퍅한 죄인들 가운데서 그들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그의 백성들을 보았다.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은 항상 악할 뿐이었다(창 6:5). 사람들의 모든 감정과 충동과 상상은 하나님의 순결과 평화와 사랑의 원칙들과 싸우고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에게서 그분의 거룩한 율법의 제지를 제거하고자 한 사단의 정책에서 기인된 무서운 부패의 실례이었다. {PP 78.4}

하나님께서는 대쟁투가 진행되는 동안에 드러난 사실들로 지금까지 사단과 사단의 기만에 빠진 모든 자들이 거짓 대표해 온 그분의 정부의 원칙들을 증명하실 것이다. 그분의 공의로우심은 마침내 전 세계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같은 인정은 그들을 구원하기에는 너무 늦게 될 것이다. 그분의 위대한 계획이 완전 성취를 향하여 일보 일보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동조와 시인을 받으시며 반역자들을 최종적으로 멸망시키실 때도 온 우주의 찬동과 시인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교훈을 저버린 자들은 모두 사단의 편에 가담하여 그리스도와 싸워 왔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고 그와 연합한 자들이 모두 그와 운명을 같이 할 때, 온 우주는 그 선고에 대한 증인으로서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계 15:3)라고 선언할 것이다. {PP 79.1}

6장 셋과 에녹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또 다른 아들을 주셨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요, 영적 상속권의 사자(嗣子)가 될 것이었다. 이 아들에게 주어진 이름인 셋은 “약속된” 혹은 “보상”을 의미하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창 4:25)기 때문이라고 어머니는 말했다. 셋은 가인이나 아벨보다 더욱 고상하였으며 아담의 다른 아들들보다 그를 더 많이 닮았다. 그는 훌륭한 인물이었으며, 아벨의 발자취를 따랐다. 그러나 그가 가인보다 더 많은 미덕을 타고난 것은 아니었다. 아담의 창조에 관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하였으나 타락한 후에 인간은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창 5:1, 3)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죄 없이 창조함을 입었으나 셋은 가인처럼 그 부모의 타락한 성질을 물려받았다. 그러나 그는 또한 구속주에 관한 지식과 의에 대한 교훈을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하나님을 섬기며 영화롭게 하였다. 그는 아벨이 살았더라면 행하였을 바로 그 일 즉, 죄인들의 마음을 그들의 창조주를 공경하고 순종하도록 돌이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PP 80.1}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창 4:26)다.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전에 하나님을 경배하였었다. 그러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두 부류 사이의 구별이 더욱 현저하게 되었다. 한 부류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주저 없이 고백하였고 다른 부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하였다. {PP 80.2}

타락하기 전 우리 첫 부모는 에덴에서 제정된 안식일을 지켰고, 낙원에서 추방된 후에도 계속 그것을 지켰다. 그들은 불순종의 쓴 열매를 맛보았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짓밟는 모든 자들이 조만간에 배우게 될 것 즉 하나님의 계명은 신성하고 불변하며 범법에는 반드시 형벌이 과하여질 것이라는 것을 배웠다. 하나님께 충성해 온 아담의 자손들은 모두 안식일을 존중하였다. 그러나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쉬신 그날을 존중하지 않았다. 그들은 여호와의 명백한 명령을 무시하고 노동과 쉼의 날을 그들 나름대로 정했다. {PP 80.3}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가인은 그 아버지의 가족을 떠나갔다. 그는 먼저 땅을 경작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았고, 다음에는 한 도시를 건설하여 그의 장자의 이름을 따서 도성의 이름을 붙였다. 그는 에덴의 회복에 대한 약속도 버리고 죄로 저주받은 세상에서 자기의 소유와 즐거움을 얻으려고 여호와 앞을 떠났다. 그리하여 그는 이 세상 신을 숭배하는 많은 무리의 조상이 되었다. 그의 후손들은 단순히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발전에 있어서는 탁월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였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에도 반대하였다. 가인이 이끌어 들인 살인죄에 그의 5대손 라멕은 일부다처의 죄를 더하였으며, 하나님을 거역하면서도 가인의 보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신도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하나님을 인정하였다. 아벨은 천막이나 오두막에 살면서 양치는 생활을 하였으며, 셋의 후손들도 그와 같은 길을 따라서 스스로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하였으며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히 11:13, 16)였다. {PP 81.1}

얼마 동안 두 부류의 사람들은 서로 떨어져서 살았다. 가인의 씨족은 그들의 최초의 정착지에서 퍼져나와 셋 자손들이 사는 평원과 골짜기에 흩어졌다. 셋의 후손들은 악에 물들게 하는 그들의 감화를 피하기 위하여 산지로 물러나 그 곳에서 살았다. 이와 같이 서로 떨어져 사는 동안에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순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들은 점차로 골짜기의 주민들과 위험을 무릅쓰고 섞이기 시작하였다. 이 교제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창 6:2)았다. 셋 자손들이 가인의 후손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혹하여 그들과 통혼함으로 여호와를 불쾌하게 하였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 앞에 끊임없이 이르러오는 유혹으로 말미암아 현혹되어 죄에 빠졌다. 그들은 독특하고 거룩한 품성을 잃어버렸다. 타락한 자들과 섞임으로 그들은 정신과 행동에 있어서 그들과 같이 되었다. 일곱째 계명의 제지를 무시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셋 자손들은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유 11) 세속적 번영과 향락에 몰두하고 주의 계명을 등한히 하였다.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그들은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셨다(롬 1:21, 28). 죄는 치명적인 문둥병처럼 세상에 널리 퍼졌다. {PP 81.2}

거의 1천년 동안 아담은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죄의 결과들을 목격하였다. 그는 악의 조류를 막으려고 충실히 노력하였다. 그는 그의 후손들을 주의 길로 교육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신 것을 주의 깊게 간직하고 후세대에게 그것을 반복하였다. 그는 자자손손 9대에 이르기까지, 낙원에 있었던 사람의 거룩하고 행복스러운 지위에 대하여 묘사하며,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그분의 율법에 엄격히 복종해야 할 필요를 자기에게 가르치신 것과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비스러운 준비를 마련하신 것을 그들에게 설명하면서 자기의 타락의 역사를 반복하여 말하였다. 그러나 그의 말에 유의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자주 그는 그의 후손들에게 이와 같은 재난을 초래한 죄를 범한 데 대하여 통렬한 비난을 받았다. {PP 82.1}

아담의 생애는 비탄과 겸비와 통회의 일생이었다. 에덴을 떠났을 때 그는 죽음을 피할 수 없으리라는 생각으로 공포에 떨었다. 그의 장자 가인이 아우를 죽였을 때 그는 처음으로 인간 가족 가운데서 죽음의 실재(實在)를 알게 되었다. 자기의 죄에 대한 심한 가책과 아벨이 죽고 가인이 버림을 받은 이중 슬픔으로, 아담은 고뇌로 기가 꺾였다. 그는 마침내 홍수로 인한 세상의 멸망을 초래케 할, 전 세계에 편만한 부패를 목격하였다. 창조주께서 그에게 내리신 사형 선고는 처음에 무섭게 보였으나 약 1천년 동안 죄악의 결과를 목도한 후에 그는 고통과 슬픔의 생애를 끝나게 하심은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을 느꼈다. {PP 82.2}

홍수 이전의 세계가 사악하기는 하였으나 그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흔히 상상하듯이 무지 야만의 시대는 아니었다. 그 백성들에게는 도덕적·지적으로 높은 표준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되었다. 그들은 비상한 체력과 지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종교적·과학적 지식 모두를 얻는 데 있어서 그들의 유리함은 비할 데 없었다. 그들이 장수하였으므로 지적 성숙이 늦었으리라고 상상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들의 지력은 일찍 발달되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뜻에 일치하게 산 사람들은 일생 동안 지식과 지혜를 끊임없이 증가시켰다. 우리 시대의 저명한 학자들과 홍수 전에 살았던 같은 나이의 사람들과 비교한다면 그들은 체력뿐만 아니라 지력에 있어서도 크게 열등한 것이 나타날 것이다. 수명이 단축되고 체력이 감소됨에 따라 인간의 지적 능력도 감소되었다. 현대에 20년 내지 50년 동안 연구에 전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은 그들의 학식에 경탄을 금치 못한다.

그러나 수세기 동안 발달하고 있었던 지적·육체적 능력의 소유자들의 학식과 비교하면 이것들은 얼마나 제한되어 있는가! {PP 82.3}

현대인들이 선인(先人)들의 학식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계획을 세우고 연구하고 저술한 위대한 정신의 소유자들은 후대를 위하여 그들의 업적을 남겼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도, 그리고 인간의 지식 면에서만도 고대 사람들이 얼마나 더 유리했는가!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창조주께서 친히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선언하신 사람 곧 하나님께서 물질세계에 관한 모든 지혜를 가르쳐 주신 아담과 수백 년 동안 함께 있었다. 아담은 창조주께로부터 창조의 역사(歷史)를 배웠고, 직접 9세기 동안에 일어난 사건들을 목격하였으며, 후손들에게 그의 지식을 나누어 주었다. 홍수 전의 사람들에게는 책이나 쓰인 기록이 없었다. 그러나 탁월한 육체적·지적 능력의 소유자들인 그들은 뛰어난 기억력을 갖고 있었으므로, 그들은 전달된 것을 이해하고 보전할 수 있었으며, 그것을 손상됨 없이 차례로 그들의 후손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수백 년 동안 7대의 사람들이 동시대에 살며 서로 의논할 기회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으로 각자 유익을 얻었다. {PP 83.1}

그 시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업적을 통하여 그분에 대한 지식을 얻는데 있어서 그들만큼 유리했던 때는 그때 이후로 결코 다시 없었다. 그리고 그 때는 종교적 암흑시대이기는 커녕 대광명의 시대였다. 온 세계는 아담에게서 교훈을 받을 기회가 있었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또한 그리스도와 천사들을 그들의 교사로 모셨다. 또한 수 세기 동안 세상에 남아 있었던 하나님의 동산 가운데 진리에 대한 무언의 증인이 있었다. 그룹 천사가 지키던 낙원의 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곳으로 처음 예배자들이 나아왔다. 이곳에 그들의 제단이 세워지고 그들의 제물이 바쳐졌다.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가져오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교통하시려고 내려오신 곳도 이곳이었다. {PP 83.2}

에덴동산이 눈에 보이고, 그 입구를 지키는 천사들이 막고 있는 동안은 회의주의가 에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었다. 창조의 순서, 그 동산의 목적, 사람의 운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두 나무의 역사, 이것들은 모두 분명한 사실들이었다. 아담이 그들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존재와 최고 권위, 그분의 율법에 순종할 의무 등은 좀처럼 문제시되지 않는 진리였다. {PP 84.1}

죄악의 창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향상되고 고결하게 되어 하늘 가족처럼 산 거룩한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다. 그들은 지능이 대단하고 학식이 놀라운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크고 거룩한 사명 즉 그들의 시대 사람들뿐 아니라 후대의 사람들에게도 의의 성품을 계발시키고 경건의 공과를 가르칠 사명을 가졌었다. 성경 가운데는 이처럼 탁월한 사람들이 몇 사람밖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러운 증인들과 성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가지고 계셨다. {PP 84.2}

에녹에 관하여 성경은 그가 65세 때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하였다. 그후 그는 3백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에녹은 이 옛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였으며 그분의 계명들을 지켰다. 그는 거룩한 계보의 한 사람이요, 참된 신앙의 보존자들의 한 사람이요 약속된 여인의 후손의 선조들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는 아담으로부터 타락의 어두운 이야기와 그 약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위안을 주는 이야기를 배웠다. 그는 오실 구속주를 의지했다. 장남이 태어난 후 에녹은 더 높은 경험에 이르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이끌려 들어갔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보다 더 완전히 깨달았다. 아버지에 대한 자녀의 사랑과 그의 보호에 대한 아이의 단순한 신뢰를 볼 때, 또한 그의 장남에 대한 깊은 애정과 부드러움을 마음에 느꼈을 때, 그는 당신의 아들을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 아버지 안에서 편히 쉴 수 있는 신뢰의 귀중한 공과를 배웠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무한하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밤낮 그의 명상의 주제가 되었다. 그는 전심전력을 다하여 그가 살고 있던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려고 애썼다. {PP 84.3}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황홀경 속에서나 이상 중에서가 아니라 그의 일상생활의 모든 의무를 행하는 가운데서였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할 일이 있었던 까닭에 그는 이 세상을 완전히 등진 은둔자가 되지 않았다. 가정에서와 사교 생활에서, 남편이요 아버지로서, 친구로서, 시민으로서 그는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종이었다. {PP 85.1}

에녹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였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암 3:3)면 동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거룩한 동행은 3백 년간 계속되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예수의 재림이 임박함을 안다면, 훨씬 더 열렬하고 헌신적이 되지 않을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에녹의 믿음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강해지고 그의 사랑은 더 열렬하게 되었다. {PP 85.2}

에녹은 확고부동하고 고도로 세련된 마음의 소유자였으며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께 특별한 계시를 받는 영광을 얻었으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완전하심을 항상 느끼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함으로 가장 겸손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긴밀하게 되면 될수록 자신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더욱더 깊이 느꼈다. {PP 85.3}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악행이 증가하는 것을 슬퍼하고 그들의 불신행위가 하나님께 대한 그의 존경을 감소시키지나 않을까 염려하여, 에녹은 그들과의 지속적 교제를 피하고 많은 시간을 한적한 곳에서 보내며 묵상과 기도에 전심하였다. 이와 같이 그는 주의 뜻을 실행하려고 그것을 더 분명히 알고자 주의 앞에서 기다렸다. 그에게 있어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었으며 그는 바로 하늘의 분위기 가운데서 살았다. {PP 85.4}

거룩한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킬 그분의 의도를 나타내셨다. 그분은 또 구속의 경륜을 그에게 더 완전하게 나타내셨다. 예언의 신을 통하여 그분은 그를 홍수 후에 대대(代代)의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에 관계된 큰 사건들을 보여 주셨다. {PP 85.5}

에녹은 죽은 자에 관하여 근심하였었다. 의인과 악인이 다 같이 흙으로 돌아가고 이것이 그들의 종말인 것같이 그에게는 생각됐었다. 그는 무덤 저편의 의인의 생애를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예언적 이상(異像)으로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하여 가르치심을 받았으며 무덤에서 그분의 백성들을 속량하시려고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수행하는 가운데 영광 중에 임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또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때의 이 세상의 부패한 상태를 보았다. 그는 이 세상이 유일하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율법을 짓밟으며 속죄를 경멸하는 거만하고 참람되며 제멋대로 하는 세대가 될 것을

보았다. 의인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는 것과 악인들이 주 앞에서 추방되어 불로 멸망당하는 것을 보았다. {PP 85.6}

에녹은 의의 전도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신 바를 백성들에게 알렸다. 주를 두려워한 자들은 이 거룩한 사람을 찾아와 그의 교훈을 받고 그와 함께 기도하였다. 그는 또한 공적으로도 일하며, 경고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였다. 그의 사업은 셋 족속에게 국한되지 않았다. 가인이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도망하려고 했던 그 지방에서 하나님의 예언자는 그가 이상 가운데 본 놀라운 광경을 알렸다. 그는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유 14, 15)고 선언하였다. {PP 86.1}

그는 두려움 없이 죄를 책망하였다. 그는 그의 시대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하며 그들의 악행을 버리라고 간청하면서 도처에 횡행하는 죄악을 책망하고 범죄자들에게 분명히 심판이 내릴 것이라고 그의 세대 사람들에게 경고하였다. 에녹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은 그리스도의 영이셨다. 그 영은 언제나 사랑과 동정과 간청의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한 말은 언제나 부드러운 것들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좌우에 날선 검같이 날카롭고 예리한 것을 말하도록 그분의 사자들의 마음과 입술에 진리를 두신다. {PP 86.2}

당신의 종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은 듣는 자에게 느껴졌다. 그 경고에 유의하여 자기의 죄를 버리는 사람도 있었으나 다수의 사람들은 엄숙한 기별을 조소하고 더 담대하게 악한 길로 나아갔다. 말세에도 하나님의 종들이 비슷한 기별을 세상에 전하기로 되어 있고, 그것 역시 불신과 조롱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홍수 이전 세계는 하나님과 동행한 그의 경고의 말을 거절하였다. 이와 같이 마지막 세대의 사람들도 주의 사자들의 경고를 경시할 것이다. {PP 86.3}

활동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에녹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꿋꿋이 유지하였다. 그의 사업이 더 커지고 더 분주하게 되면 될수록 그는 더 부단히 그리고 열렬하게 기도하였다. 그는 어떤 기간들에는 모든 교제 관계를 떠나 있기를 계속하였다. 한동안 백성들 가운데 머물러

교훈과 행실의 모본으로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일한 후에, 그는 물러나서 하나님께서만 나누어 주실 수 있는 거룩한 지식에 주리고 목말라 하면서 한동안 한적한 곳에서 보내곤 하였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에녹은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였다. 그의 얼굴은 거룩한 빛, 예수님의 얼굴에서 비취는 빛으로 빛났다. 그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나올 때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그의 얼굴에 찍힌 하늘의 인상을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보았다. {PP 86.4}

사람들의 사악함은 극에 달하여 그들에게 멸망이 선고되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인간의 죄악의 조수는 점점 깊어졌고 하나님의 심판의 구름은 모여들어 점점 짙어졌다. 그러나 신앙의 증인 에녹은 그의 길에 굳게 서서 경고하고 간청하고 탄원하고 죄악의 조수를 밀어내어 복수의 심판을 멈추게 하려고 노력하였다. 그의 경고가 죄악적이며 쾌락을 좋아하는 백성들에게 무시당하였을지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증거를 가졌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죄의 세계에서 하늘의 순결한 희락의 세계로 데려가실 때까지 편만한 죄악에 맞서서 계속 신실하게 싸웠다. {PP 87.1}

그 세대 사람들은 금 은 보석을 모으거나, 이 땅에서 소유물을 축적하는 데 관심을 두지 않는 에녹의 어리석음을 조롱하였다. 그러나 에녹의 마음은 영원한 보화에 있었다. 그는 하늘 도성을 바라보았다. 그는 시온 가운데서 영광 중에 계신 왕을 바라보았다. 그의 생각과 마음은 하늘에 있었으며 그의 대화는 하늘에 관한 것이었다. 이 세상의 사악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그의 마음은 더욱 열렬하였다. 지상에 살면서도 에녹은 믿음으로 빛의 영역에서 살았다. {PP 87.2}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마 5:8). 3백 년 동안 에녹은 하늘과 조화되기 위하여 영혼의 순결을 추구해 왔었다. 그는 3세기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었다. 날마다 그는 더 밀접한 연합을 바랐었다. 그 교통은 점점 가까워졌으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 곁으로 데리고 가셨다. 그는 영원한 세계의 문어귀에 섰었고 그와 축복의 나라는 한 걸음 사이였다. 이제 그 문이 열리고 지상에서 그처럼 오랫동안 이루어졌던 하나님과의 동행은 계속되었다. 그는 거룩한 도성의 문을 통과하였다. 그는 인간으로서 하늘에 들어간 첫째 사람이 되었다. {PP 87.3}

지상에서 그가 없어진 것이 느껴졌다. 날마다 들려오던 그의 경고와 교훈의 음성은 없어졌다. 악인과 의인 양편에서 그가 지상을 떠나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가 자주 가는 한적한 곳에 옮겨졌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를 사랑한 자들은 훗날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야가 승천한 후에 그를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에녹을 부지런히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으므로 그가 있지 않다고 보고하였다. {PP 88.1}

에녹을 승천시키심으로 주께서는 중대한 공과를 가르치실 계획이셨다. 아담의 죄가 초래한 무서운 결과들 때문에 사람들이 낙담에 빠질 위험이 있었다. 인류에게 무서운 저주가 지워져 있고 우리 모든 사람이 죽을 운명에 처한 이상, “우리가 주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법령을 지킨들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으려 하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시고, 셋에 의하여 반복되고, 에녹에 의하여 실천된 교훈들은 우울과 흑암을 일소하였으며, 아담을 통하여 죽음이 온 것처럼 약속된 구속주를 통하여 불사불멸의 생명이 이를 것이라는 소망을 사람들에게 주었다. 사단은 의인에 대한 보상이나 악인에 대한 형벌이 없다는 것과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신념을 사람들에게 역설하고 있었다. 그러나 에녹의 경우로 하나님께서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히 11:6)시라는 것을 선언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보여 주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가능하며, 죄 많고 부패한 자들 가운데서 살 때에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유혹을 물리치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을 받았다. 그들은 그의 모본 가운데서 그런 생애의 복됨을 보았다. 그리고 그의 승천은, 순종하는 자는 기쁨과 영광과 불멸의 생명을 상급으로 받고 범법자는 정죄와 재앙과 죽음의 판결을 받는다는 장래에 관한 그의 예언이 진리라는 증거였다. {PP 88.2}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히 11:5)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 받을 운명에 처한 세상 가운데서 에녹은 하나님과 매우 밀접한 교제의 생애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죽음의 권세 아래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다. 이 선지자의

경건한 품성은 그리스도께서 재강림하실 때에 “땅에서 구속함을 얻을”(계 14:3) 자들이 달성해야 할 거룩한 상태를 대표한다. 홍수 전 세계에서처럼 그 때에도 죄악이 넘칠 것이다. 사람들은 그들의 부패한 마음의 충동과 기만적인 철학의 가르침을 좇아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여 반역할 것이다. 그러나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의 순결과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기를 구할 것이며 마침내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사할 것이다. 에녹처럼 그들은 주의 재림과 범법에 임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경고할 것이다. 그들은 거룩한 담화와 모범으로 경건치 않은 자들의 죄를 견책할 것이다. 물로 세상이 멸망당하기 전에 에녹이 하늘로 승천한 것처럼, 산 의인들도 불로 세상이 멸망당하기 전에 하늘로 승천할 것이다.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전 15:51, 52; 살전 4:16~18). {PP 88.3}

7장 홍수

노아의 시대에 아담의 범죄와 가인의 살인죄의 결과로 지상에 이중의 저주가 지워져 있었다. 그러나 이 저주는 천연계의 외관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 쇠퇴의 분명한 징후들이 있었지만 땅은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의 선물로써 풍부하고 아름다웠다. 언덕들에는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가지들을 지탱해 주는 장엄한 나무들이 무성하였다. 정원과 같은 넓은 평야는 신록으로 향기로웠다. 땅의 열매들은 매우 다양하였으며 거의 무한정으로 종류가 많았다. 나무들은 크기와 아름다움과 완전한 균형의 면에 있어서 지금의 어떤 나무보다도 훨씬 우월하였으며, 그 재목은 나뭇결이 치밀했으며 거의 돌처럼 단단하였고 내구성이 돌 못지않았다. {PP 90.1}

금, 은과 보석들이 풍부하게 있었다. 인류는 아직도 그 초기의 활력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다. 아담이 생명을 연장시키는 나무에 접근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수 세대가 지났을 뿐이어서 사람의 수명은 아직도 백년을 단위로 헤아렸다. 비상한 계획력과 실행력을 가졌던 그 장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봉사하는 데 헌신하였더라면, 그들은 세상에서 창조주의 성호를 찬양의 대상으로 만들었을 것이며, 창조주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을 달성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하는 데 실패하였다. 신장과 체력이 탁월하고, 지혜가 걸출하고, 가장 정교하고 놀라운 일들을 고안하는 데 재간이 있는 거인들이 많았다. 죄악을 엄격하게 제어하지 않는 데 있어서의 그들의 죄악은 그들의 재간과 정신적 능력에 비례하였다. {PP 90.2}

하나님께서는 홍수 전에 살았던 이 사람들에게 풍요한 선물을 많이 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의 선물을 자신들을 영화스럽게 하는 데 사용했으며, 그들의 애정을 선물들을 주신 분에게가 아닌 선물들에만 둠으로써 그것들을 저주로 만들었다. 그들은 금·은·보석과 상품(上品)의 목재를 써서 그들 자신을 위하여 주택을 건축하였고, 그들의 가옥을 가장 공교한 솜씨로 아름답게 꾸미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앞지르려고 노력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교만한 마음의 욕망을 만족시키기만을 추구했으며 쾌락과 사악의 길에 빠졌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그들은 얼마 있지 않아 그분의 존재까지 부인하기에 이르렀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천연계를 숭상하였다. 그들은 천재적인 인간을 찬미하고

자신의 손으로 만든 작품을 숭배하였고 자녀들에게 아로새긴 우상에게 절하라고 가르쳤다. {PP 90.3}

푸른 들과 보기 좋은 나무 그늘 아래 그들은 우상들의 제단들을 쌓았다. 일 년 내내 잎이 무성했던 넓은 숲들은 거짓 신들을 예배하는 데 바쳐졌다. 또 이 숲들에 아름다운 정원들이 접해 있었는데, 그 나선형의 긴 통로들 위에는 온갖 종류의 과수들이 가지를 뻗고 있었고, 조상(彫像)들로 장식되었으며, 오관을 즐겁게 해 주거나 사람들의 육감적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설치되어 있어서 그들을 우상숭배에 참여하도록 유혹하였다. {PP 91.1}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지식 밖에 두고 그들이 상상해서 만든 피조물들을 숭배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들은 점점 더 타락하게 되었다. 시편 기자는 우상숭배가 그 숭배자에게 끼치는 결과를 이렇게 묘사한다. 그는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시 115:8)라고 말한다. 바라봄으로 변화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의 법칙이다. 사람은 진리와 순결과 거룩함에 대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념 이상으로 높아지지 않는다. 만일 마음이 보통 인간성의 수준 이상으로 높여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사랑을 명상하도록 높여지지 않는다면, 사람은 계속적으로 점점 더 타락하게 될 것이다. 거짓 신들을 숭배하는 자들은 그들의 신들에게 인간의 속성과 성정을 부여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품성의 수준은 죄악된 인간성의 수준까지 저락되었다. 그런 결과로 그들은 더럽혀졌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창 6:5, 11).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당신의 계명을 생애의 법칙으로 주셨으나, 그분의 율법은 범해졌으며 그 결과 생각해 낼 수 있는 온갖 죄가 나타났다. 사람들의 사악함은 공공연하고 담대하였으며, 공의는 땅에 짓밟힌 바 되고, 압제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은 하늘에 상달되었다. {PP 91.2}

태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와는 반대로 일부다처가 매우 일찍이 시작되었다. 주께서는 아담에게 한 아내를 주심으로 그것에 관한 당신의 규칙을 보이셨다. 그러나 타락한 후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악적인 욕망을 따르기로 선택하였다. 그 결과로

범죄와 비참하고 불행한 일이 신속하게 증가하였다. 결혼 관계나 재산의 소유권도 존중되지 않았다. 이웃의 아내나 소유물이 탐이 났을 때 누구든지 폭력으로 빼앗았으며 사람들은 그들의 난폭한 행위를 으스대며 자랑했다. 그들은 동물을 죽이는 일을 낙으로 삼았다. 그리고 육식을 함으로 그들은 더욱더 잔인하고 피에 굶주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들은 인간의 생명을 놀랍도록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었다. {PP 91.3}

세계는 그 초기에 있었으나, 죄악은 매우 깊고 널리 퍼져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것을 참으실 수 없으셨다. 그리하여 그분은 마침내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창 6:7)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영께서 언제까지나 범죄한 인류와 다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그들이 자신들의 죄로 세계와 그의 풍부한 귀중품을 더럽히는 일을 그치지 않는다면, 그분은 그들을 그분의 우주에서 제거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기쁨으로 주셨던 모든 것을 멸망시킬 것이었다. 그분은 들의 짐승들과 그렇게 풍부하게 양식을 공급했던 식물(植物)을 쓸어버리시고 아름다운 지구를 황폐와 파멸의 장면으로 변모케 하실 것이었다. {PP 92.1}

도처에 횡행하는 부패 가운데서도 므두셀라와 노아와 다른 많은 사람들은 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간직하며, 도덕적 사악의 조수를 막아 보려고 노력하였다. 홍수 120년 전에 주께서 거룩한 천사를 통하여 노아에게 그분의 계획을 나타내시고, 방주를 짓도록 지시하셨다. 방주를 짓는 동안 그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홍수를 내리셔서 악인들을 멸하실 것이라는 기별을 전파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 기별을 믿고 회개와 개혁으로 그 사건을 위하여 준비하는 자들은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을 것이었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홍수에 관하여 자기에게 보여 주신 바를 그의 자손들에게 반복하여 전파하였으며, 노아의 설교를 살아서 들은 므두셀라와 그의 아들들도 방주를 짓는 일에 조력하였다. {PP 92.2}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의 정확한 치수와 건축에 관하여 세부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확실한 지시를 주셨다. 인간의 지혜로는 그렇게 강력하고 내구성 있는 큰 건축물을 고안해 낼 수 없었다. 하나님은 설계자이시고 노아는 건축가였다. 그것은 물 위에 뜨게 하기 위하여 선체(船體)와 같이 건조되었으나, 여러 면에서는 집을 더 닮았다. 그것은 삼층으로 되어 있었으며, 문은 옆에 하나밖에 없었다. 광선은 위에서 들어오게 하고, 여러 방도 다 빛이 들어오도록 만들어졌다. 방주를 건축하는 데 사용된 목재는 수백 년 동안

부패하지 않는 일종의 삼나무나 산다릅나무였다. 이 굉장한 건조물의 건축 공정(工程)은 느리고 힘들었다. 나무들의 엄청난 크기와 그 재목의 특성 때문에 더 강한 체력을 가졌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지금보다 목재를 준비하는 데 훨씬 더 많은 노력이 들었다. 그 공사를 완전히 하기 위하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했지만 그 방주 자체만으로는 지상에 임할 큰 폭풍우를 견뎌낼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만 맹렬한 물결 위에서 그분의 종들을 보전하실 수 있으셨다. {PP 92.3}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히 11:7)다. 노아가 세상에 그의 경고의 기별을 전하고 있는 동안 그의 업적이 그의 성실성을 증거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그의 믿음은 온전케 되었고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모본을 세상에 보여 주었다.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을 그는 방주를 짓는 데 바쳤다. 그가 마른 땅 위에 저 굉장한 배를 짓기 시작하였을 때에 많은 군중은 사방에서 그 이상스러운 광경을 보려고 또 그 비범한 설교자의 진지하고 열렬한 말을 들으려고 왔다. 방주를 짓기 위하여 내리치는 망치질 하나 하나는 백성들에게 한 증거였다. {PP 95.1}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경고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들은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는 않았다. 그들은 자기 죄를 버릴 마음이 없었다. 홍수가 이르기 전 지나간 기간 동안에 그들의 믿음은 시험을 당하였으며, 그들은 그 시험을 견디지 못하였다. 널리 퍼진 불신에 압도되어 마침내 그들은 먼저 사귀던 동료들과 합세하여 엄숙한 기별을 거절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깊은 감명을 받고 경고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였으나 희롱과 조소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서 저들도 같은 정신에 감염되어, 얼마 있지 않아 은혜의 초청을 거부하고 가장 담대하고 무례한 조소자들의 무리에 가담하였다. 그렇게 되는 까닭은 한 때 빛을 받았었지만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저항해 온 자들만큼 무모하며 그처럼 깊이 죄에 빠지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 {PP 95.2}

그 세대의 사람들 모두가 우상 숭배자라는 용어가 갖고 있는 의미 그대로의 우상 숭배자들은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공언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우상들은 신의 대표물이며, 그것들을 통하여 백성이 거룩하신 존재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노아의 설교를 앞장서서 거절한 자들은 바로 이 부류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물질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대표하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를 알아보는 눈이 없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이나 그분의 요구들의 신성하고 불변적인 성질을 깨닫지 못하였다. 죄가 보편화됨에 따라, 그것이 점점 더 죄악적으로 보이지 않았으며,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은 더 이상 구속력이 없으며, 죄를 처벌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배치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의 심판이 지상에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부인하였다. 그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였더라면, 그들은 그분의 종의 경고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빛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너무도 어둡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진정으로 노아의 기별이 기만이라고 믿었다. {PP 95.3}

바른편에 선 사람들은 군중도 아니었고 대다수도 아니었다. 세계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분의 율법에 일제히 반대하였으며, 노아는 광신자로 간주되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하와를 유혹할 때 사단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창 3:4)고 그에게 말했다. 홍수 직전에 세속적이며 영광을 받은 위인들과 현인들도 같은 말을 반복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협은 겁을 주려는 것뿐이며 결코 실제로 이행되지 않을 것이다. 놀랄 필요가 없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한 세계의 파멸과 그분이 창조하신 존재에 대한 처벌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노아는 무모한 광신자다”라고 말하였다. 세상 사람들은 현혹당한 그 노인의 어리석음을 놀려 댔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비하게 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아무 경고도 받지 않은 것처럼 불순종과 사악함을 계속하였다. {PP 96.1}

그러나 노아는 폭풍우 가운데 반석같이 굳게 섰다. 대중의 멸시와 조롱에 둘러싸인 그는 거룩한 성실과 확고부동한 충성을 나타냈다. 그의 말은 그분의 종을 통하여 사람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목소리였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다. 120년간 그의 엄숙한 음성이 인간의 지혜로 판단해 볼 때 불가능한 사건들에 관하여 저 세대의 사람들의 귀를 울리고 있는 동안, 하나님과의 연결이 그를 무한하신 능력 안에서 강하게 만들었다. {PP 96.2}

홍수 이전 세상 사람들은 수 세기 동안 자연 법칙은 변한 적이 없었다고 판단을 내렸다. 계절의 순환은 그 순서대로 이르러 왔었다. 지금까지 비가 내린 적은 결코 없었으며, 땅은

안개나 이슬로 물 공급을 받았다. 강들은 아직까지 그들의 경계선을 넘어 범람한 적이 없었고, 강물을 안전하게 바다까지 날랐다. 고정된 하나님의 명령은 물이 제방을 넘어 범람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 논자(論者)들은 “네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한”(욥 38:11)다고 말씀하시며 물들을 멈추게 하신 그분의 손길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PP 96.3}

자연계에 특별한 변화 없이 시간이 흘러가자, 때때로 공포로 떨었던 자들이 안심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추론하듯이 자연계는 자연계를 만드신 하나님 위에 있으며, 자연 법칙은 매우 확고하게 확립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것들을 변경시키실 수 없다고 추론하였다. 노아의 기별이 옳다면, 자연은 그 궤도에서 이탈한 것이 될 것이라고 추론하면서, 그들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노아의 기별을 일종의 기만 곧 일대 망상(一大妄想)으로 생각하게 하였다. 그들은 경고를 받기 전과 똑같이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그들의 멸시를 나타냈다. 그들은 연락(宴樂)과 폭식의 잔치를 계속 열었다. 그들은 먹고 마시며, 심고 지으며, 장래에 얻기를 바라는 이득에 관한 그들의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더 한층 사악하게 행동하였고 하나님의 율법을 더욱더 도전적인 태도로 무시하였다. 그들은 노아가 말한 것에 조금이라도 참된 것이 있다면 세상에서 명성이 높은 사람들 - 현명한 이들, 사려 깊은 이들, 위인들 - 이 그것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PP 97.1}

홍수 전 사람들이 그 경고를 믿고 그들의 악한 행실을 회개하였더라면, 주께서 후세에 니느웨에서 행하신 것처럼 그분의 진노를 돌이키셨을 것이었다. 그러나 양심의 견책과 하나님의 예언자의 경고를 완강히 거절함으로 그 세대 사람들은 그들의 죄악의 잔을 채웠고, 멸망의 때는 무르익었다. {PP 97.2}

그들의 은혜의 기간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교훈들을 충실히 실행했다. 방주는 주께서 지시하신 대로 각 부분이 완성되었고 사람과 짐승을 위한 양식도 저장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종은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엄숙한 호소를 하였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애절한 열망을 가지고 그는 찾을 수 있는 동안에 피난처를 구하도록 그들에게 간청하였다. 그러나 또다시 그들은 그의 말을 배척하고 농담과 조소의 소리를 높였다. 갑자기 조롱하던 군중이 침묵에 휩싸였다. 각종 짐승, 가장 사나운 짐승에서

온순한 짐승뿐 아니라 야수들에 이르기까지 각종 짐승들이 산과 숲에서 나와 조용히 방주를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보였다.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사방에서 새들이 날아 들어오는데, 그들의 수효는 하늘이 어두워질 정도였으며 질서 정연하게 방주로 들어갔다. 동물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반면에 사람들은 불순종하였다. 거룩한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가고" 정결한 짐승은 일곱 쌍씩 들어갔다. 세상 사람들은 놀라움으로, 어떤 사람들은 무서움으로, 이 광경을 바라보았다. 이 예사롭지 않은 사건을 설명하도록 철학자들을 불렀지만 헛수고였다. 이것은 그들이 설명할 수 없는 신비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빛을 계속적으로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아주 강퍅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광경도 그들에게 순간적인 인상밖에 줄 수 없었다. 태양이 여전히 영광스럽게 빛나고, 땅이 거의 에덴의 아름다움으로 옷 입은 것을 보았을 때에, 이 멸망 받을 운명에 처한 사람들은 소란한 환락으로 그들의 마음에 떠오르는 두려움을 없애버렸고, 그들의 난폭한 행위로 이미 일깨워진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을 자신들에게 불러들이는 것같이 보였다. {PP 97.3}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창 7:1)고 명하셨다. 노아의 경고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거절을 당하였지만 그의 감화와 모본이 그의 가족에게는 복된 결과를 가져왔다. 그의 충성과 성실의 보상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가족들을 그와 함께 구원하셨다. 부모의 성실에 대한 이 얼마나 큰 격려인가! {PP 98.1}

죄 많은 인류에 대한 자비의 간청은 그쳐졌다. 들의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은 피난처로 들어갔고,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 안에 있었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셨다. 눈부신 섬광이 나타나고, 번개보다 더 환한 영광의 구름이 하늘에서 내려와 방주 문 앞에 떠돌았다.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닫을 수 없는 육중한 문이 눈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천천히 닫혔다. 노아는 방주 안에 들어가 있었고, 하나님의 긍휼을 거절한 자들은 닫힌 방주 밖에 있었다. 하늘의 인(印)이 그 문에 찍혔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닫으셨으며, 하나님께서만 그것을 여실 수 있었다. 그와 같이 하늘 구름을 타시고 오시기 전,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한 그분의 중보를 그치실 때에 자비의 문은 닫힐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악인들을 제어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해

온 자들은 사단에게 완전히 지배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마치 노아가 닫힌 방주 안에 있었던 것처럼 의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될 것이다. {PP 98.2}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간 후 7일 동안 폭풍우가 올 아무런 징조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저들의 믿음은 시험을 당하였다.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승리의 때이었다. 분명한 지체는, 노아의 기별은 기만이었고 홍수는 결코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그들의 신념을 더욱 굳게 해 주었다. 짐승들과 새들이 방주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천사가 문을 닫은 그 엄숙한 광경을 목격하고도 그들은 여전히 농담을 하면서 술을 마시고 흥청거리기를 계속하였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능력의 그 놀라운 표현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떼를 지어 방주 주위에 모여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비웃고 대담하게도 전에 없던 난폭한 행위를 감행하였다. {PP 98.3}

그러나 여덟째 날에 검은 구름이 온 하늘을 덮었다. 나지막한 천둥소리와 번갯불이 뒤따랐다. 얼마 안가서 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것을 전혀 목격한 적이 없었으므로 그들의 마음은 공포에 휩싸였다. 모든 사람들은 참으로 노아가 옳았던 것일까, 세상은 멸망당할 운명에 있는 것일까? 하고 수군거렸다. 하늘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내리는 비는 점점 더 빨라졌다. 짐승들은 무서워서 미친 듯이 돌아다니고, 그들의 귀에 시끄러운 울음소리는 그들 자신의 운명과 사람의 운명을 슬퍼하는 것 같았다. 그 때에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창 7:11)렸다. 물은 구름 가운데서 큰 폭포들을 이루어 쏟아지는 것처럼 보였다. 강들은 범람하여 골짜기로 넘쳐흘렀다. 형언할 수 없는 강력한 힘으로 땅에서 물이 솟구쳐 나왔으며, 큰 바위들은 수백 피트 공중으로 높이 치솟았다가 떨어지면서 땅속 깊이 묻혔다. {PP 99.1}

백성들은 그들이 만든 것들이 파괴되는 것을 처음으로 보았다. 그들의 화려한 가옥과 아름다운 정원과 우상을 세워두었던 삼림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번개로 인하여 파괴되고, 그 파편들이 멀리 그리고 넓게 널려 있었다. 사람을 제물로 드려오던 제단들은 파괴되고, 그 숭배자들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권능에 떨며, 그들의 부패와 우상숭배가 그들의 멸망을 초래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PP 99.2}

폭풍우가 점점 더 거세지자 수목, 건물, 바위, 흙이 사방으로 날아가 흩어졌다. 사람과 짐승의 두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폭풍우의 노호(怒號)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요동하는 자연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사단 자신도 자기의 생명을 염려하였다. 그는 당시 매우 강했던 인류를 자기의 뜻대로 조종하는 데서 기쁨을 느꼈었고, 그들이 그들의 가증한 행위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고 하늘의 통치자에 대하여 반역을 계속하게 하고자 갈망해 왔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분이 불공평하며 잔인하다고 비난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사단과 함께 하나님을 모독하였고, 그들이 그럴 능력만 있었더라면 그분을 권능의 보좌에서 끌어내렸을 것이다. 미칠 듯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방주를 향하여 손을 뻗치며 들어가게 해달라고 애걸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애원도 소용이 없었다. 마침내 양심이 각성되어 하늘에서 다스리시는 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그분께 열렬하게 구원을 호소하였으나 그분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셨다. 그 무서운 시간에 이르러서야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이 그들의 멸망을 초래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형벌이 무서워서 그들의 죄를 인정했지만 진정한 통회의 정신이나 죄악의 가증스러움은 조금도 느끼지 않았다. 심판이 물러갔더라면,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 대한 반항의 생활로 되돌아갔을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을 불의 홍수로 소멸하기 전, 하나님의 심판이 지상에 내릴 때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그들의 죄가 어떤 것이었는지, 어떤 점에서 범죄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멸시한 것이 그들의 죄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옛 세계의 죄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진정한 회개는 하지 않을 것이다. {PP 99.3}

어떤 자들은 절망 중에 필사적으로 방주를 부수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자 애썼으나 견고하게 건조된 이 방주는 깨어지지 않았다. 어떤 자들은 방주에 매달려 있다가 밀어닥치는 물결에 휩쓸러 가거나 바위와 나무에 부딪혀 그들의 손을 놓칠 때까지 방주에 매달려 있기도 하였다. 사정없이 불어대는 바람을 맞고 거대한 방주 전체가 진동하였으며 물결이 칠 때마다 뒤흔들렸다. 안에 있던 짐승들은 공포와 고통으로 울부짖었다. 그러나 폭풍우 가운데서도 그것은 계속 안전하게 떠 있었다. 능력이 탁월한 천사들이 그것을 보호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PP 100.1}

폭풍우 가운데서 짐승들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려는 듯이 그들에게로 달려갔다. 어떤 사람들은 짐승들이 좀처럼 죽지 않으며 불어 오르는 물을 피하여 제일 높은 곳으로 올라가리라는 것을 알고, 힘센 짐승들 위에 그들의 자녀들과 자신들을 붙들어 매었다. 어떤 사람들은 언덕이나 산꼭대기에 있는 나무에 자신들을 단단히 붙들어 맸다. 그러나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 거기 자신들을 묶어 매었던 사람들과 함께 소용돌이치는 파도 속으로 휩쓸려 들어갔다. 안전하게 보이던 곳들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졌다. 물이 계속 더 높이 불어 오르자 사람들은 제일 높은 산으로 피난하였다. 가끔 사람과 짐승이 발 디딜 곳을 차지하기 위하여 서로 싸우다가 둘 다 휩쓸러 갔다. {PP 100.2}

가장 높은 산봉우리에서 사람들이 끝없는 대양을 바라보았다. 하나님의 종의 엄숙한 경고가 더 이상 조소와 희롱의 대상으로 보이지 않았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이 그들이 무시해 왔던 그 구원의 기회를 얼마나 사모하였을까! 한 시간의 유예(猶豫)를, 또 한 번의 긍휼의 특권을, 그리고 노아의 입술에서 나오는 초청을 다시 듣기를 그들이 얼마나 애원하였을까! 그러나 자비로운 긍휼의 음성은 그들에게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것이었다. 공의 못지않게 사랑도 하나님의 심판이 죄를 제어해야 할 것을 요구하였다. 복수의 물결은 마지막 피난처를 휩쓸었으며, 하나님을 멸시하던 자들은 깊은 물속에 빠져 죽었다. {PP 100.3}

“하나님의 말씀으로…그 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당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벧후 3:5~7)다. 또 하나의 폭풍우가 다가오고 있다. 세상은 다시 황폐케 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에 휩쓸릴 것이요, 죄와 죄인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PP 101.1}

홍수 전 세계에 멸망을 불러들인 죄들은 오늘날에도 존재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라지고, 그분의 율법은 무관심과 멸시를 받고 있다. 지금 이 세대는 노아 시대만큼이나 크게 세속화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마 24:38, 39)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먹고 마신 것으로 홍수 전 사람들을 정죄하지는 않으셨다.

그분은 그들의 육체적 필요를 공급할 수 있는 땅의 소산들을 그들에게 풍부하게 주셨다. 그들의 죄는 주신 분께 감사드림 없이 이 선물들을 취한 것과 식욕을 자제하지 못하고 방종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타락시킨 데 있었다. 결혼하는 것은 그들에게 합법적이었다. 결혼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최초의 제도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분은 결혼 제도에 대한 특별한 지시를 주셨으며 이것을 거룩함과 미로 옷 입히셨다. 그러나 이 지시는 잊혀졌고, 결혼은 왜곡되어 정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되어 버렸다. {PP 101.2}

현재의 상황도 이와 비슷하다. 그 자체로는 합법적인 것이 지나치게 방종되고 있으며 식욕은 자제됨 없이 방종되고 있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취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의 이름은 존중받는 교회 녹명책에 올려놓고 있다. 부절제는 도덕적 능력과 정신적 능력들을 마비시키며 보다 저급한 정욕들에 탐닉하는 길을 준비한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관능적 욕망을 제어할 도덕적 의무를 느끼지 못하고 색욕의 노예가 된다. 사람들은 감각적 쾌락을 위해서, 이 세상과 이생만을 위하여 살고 있다. 사치는 사회의 각계각층에 퍼져 있다. 그 사치와 허영을 위하여 성실성을 희생하고 있다. 속히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공의를 굽게 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한다. 그리고 “노예들과 사람의 영혼”이 아직도 매매되고 있다. 사기와 뇌물 수수와 도둑질은 높은 곳에서나 낮은 곳에서나 정죄받지 않고 활개를 치고 있다. 신문 지상에는 살인에 대한 기사로 가득 차는데 그 범죄들은 너무나 잔인하고 까닭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본능이 말살된 것같이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잔학 행위들은 너무도 흔히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들이 논평의 대상이 되거나 경악을 일으키는 일도 거의 없다. 무정부주의 정신이 각국에 퍼지고 있으며,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폭동들은 일단 통제를 벗어나면 세상을 재난과 황폐로 채우게 될, 갇혀있는 정욕과 무법의 불의 징후에 지나지 않는다. 현 사회는 성경에 기록된 홍수 전 세계의 상황으로 신속히 빠져 들어가고 있다. 지금도, 소위 그리스도교국이라고 공언하는 지역에서 고대 세계 죄인들의 멸망을 초래한 그 흉악하고 무서운 범죄들이 날마다 저질러지고 있다. {PP 101.3}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회개하여 임박한 멸망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아를 보내어 세상을 경고하셨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주께서는

그 큰 사건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당신의 종들을 보내시사 세상을 경고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생애를 살고 있으며, 이제 그분은 긍휼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성한 계명에 순종하도록 그들을 부르고 계신다. 하나님께 대하여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버리는 자들은 모두 용서를 받는다. 그러나 죄를 버리는 데는 너무나 큰 희생이 요구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하나님의 도덕적 정부의 순결한 원칙이 그들의 생활과 조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분의 경고를 거절하고 그분의 율법의 권위를 부인한다. {PP 102.1}

홍수 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단 여덟 사람만 노아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다. 120년 동안 의의 설교자는 다가오는 멸망에 대하여 세상을 경고하였다. 그러나 그의 기별은 거절과 멸시를 당하였다. 그 시대뿐만 아니라 현 세대도 그럴 것이다. 입법자이신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를 벌하시기 위하여 오시기 전에 범법자들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도록 경고를 받는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이 경고는 헛될 것이다. 사도 베드로는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좇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벧후 3:3, 4)고 기록하였다. 우리는 바로 이 말을 공공연한 불신자에게서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설교단을 차지한 많은 사람들에게서 거듭 듣고 있지 않은가? 그들은 다음과 같이 부르짖는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온 세계가 회개하고 의인이 1천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므로 놀랄 이유가 전혀 없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만물은 태초에 있었던 것같이 계속된다. 군걱정하는 사람들의 흥분시키는 기별에 아무도 불안해하지 마시오.” 그러나 천년기에 대한 이같은 교리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의 가르침과 조화하지 않는다. 예수께서는 “인자의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눅 18:8)는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셨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그분의 세상의 상태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선언하신다. 바울이 끝 날이 가까워 올수록 악이 증가되는 것을 보리라고 우리에게 경고한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딤전 4:1). 그 사도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딤후 3:1)라고 말한다. 그는 경건의 모양을 가진 자들 가운데서 발견될 놀라운 죄의 일람표를 제시한다. {PP 102.2}

홍수 이전 사람들은 저들의 은혜의 기간이 마쳐지고 있을 때 흥분시키는 오락과 연락에 몰두했다. 큰 영향력과 세력을 가진 자들은 아무도 마지막 엄숙한 경고에 감명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계속 환락과 쾌락에 몰두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오늘날 우리는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종들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기별을 전하고 있는 동안 세상 사람들은 오락과 쾌락 추구에 여념이 없다.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만들고 다가오는 멸망에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인 진리들로 말미암아 감명을 받지 못하게 하는 흥분적인 일들이 계속된다. {PP 103.1}

노아 시대의 철학자들이 세상이 물로 멸망을 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것처럼 오늘날도, 세상이 불로 멸망을 당하는 것은 자연 법칙들에 모순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거하고자 노력하는 과학자들이 있다. 그러나 자연계를 만드신 하나님, 그 법칙들을 제정하시고 통제하시는 분은, 당신께서 만드신 것들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데 쓰실 수 있으시다. {PP 103.2}

위인들과 현인들이 물로 세상이 멸망당하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득의에 차 있을 때, 백성의 두려움이 진정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노아의 예언을 기만으로 여기고 그를 광신자로 바라보았을 때, 바로 그 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다가왔다.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창 7:11) 조롱하던 자들은 홍수에 엄몰되었다. 사람들은 그들의 뽐내던 모든 철학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지혜는 어리석다는 것과 크신 입법자는 자연의 법칙보다 위대하시다는 것, 전능하신 분은 당신의 목적을 성취시킬 수단이 없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너무도 늦게야 발견하였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눅 17:26, 30).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벧후 3:10). 철학적 이론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공포를 떨어 버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평화와 번영의 장구한 시대가 올 것을 가리키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심고 집 짓고 잔치하고 연락하며 하나님의 경고를 거절하고 그분의 사자들을 조롱하며 그들의 사업과 향락에 몰두하고 있을 때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결단코 피하지 못”(살전 5:3)할 것이다. {PP 103.3}

8장 홍수 후

물은 가장 높은 산 위로 15규빗이나 높이 올랐다. 5개월이란 긴 기간에 그들의 배는 외관상으로는 바람과 물결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렸기 때문에 방주 안에 있던 일가족에게는 가끔 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듯이 보였다. 그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련이었으나, 하나님의 손이 키를 잡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었으므로 노아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PP 105.1}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자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보존하신 일군(一群)의 산들로 보호된 한 지점에 방주를 떠 들어가게 하셨다. 이 산들은 서로 조금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으므로 방주는 이 조용한 안식처 안에서 움직였으며 더 이상 끝없는 대양으로 떠돌아다니지 않았다. 이것은 폭풍우에 시달려 지친 항해자들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다. {PP 105.2}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다시 지상으로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였으므로 물이 줄어지기를 몹시 고대하였다. 산봉우리들이 모습을 나타낸 40일 후에, 그들은 냄새 잘 맡는 새인 까마귀를 내보내어, 땅이 말랐는지 알아보게 하였다. 물밖에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그 새는 계속 방주를 들락날락하였다. 7일 후에 비둘기를 내보냈으나, 그것도 발 디딜 곳을 찾지 못하여 방주로 되돌아왔다. 노아는 7일을 더 기다려, 다시 그 비둘기를 내보냈다. 저녁에 그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을 때에는 큰 기쁨이 있었다. 후에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걷혔더"(창 8:13)라. 그러나 그는 방주 안에서 끈기 있게 기다렸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에 들어간 것같이 떠나라는 특별한 지시가 내리기를 기다렸다. {PP 105.3}

마침내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육중한 문을 열고 족장(族長)과 그의 가족들에게 모든 생물들을 데리고 땅으로 내려가라고 명하였다. 방주에서 풀려나오는 기쁨 중에서도 노아는 은혜로운 보호를 베푸사 그들을 보존하신 그분을 잊지 않았다. 그가 방주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한 일은 제단을 쌓고, 각종 정결한 짐승과 새들 중에서 희생을 드려서, 구원에 대한 그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 일이었다. 그는 그같이 함으로 위대한 희생 제물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그의 신앙을 나타냈다. 이 제사는 주를 기쁘시게 했으며, 족장과

그의 가족뿐 아니라 땅에 살게 될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창 8:21, 22). 여기에 모든 후세대를 위한 교훈이 있었다. 노아는 황폐된 지상에 나왔었으나, 자신을 위하여 집을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그가 소유한 가축은 적었으며 그것들을 보존하느라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었다. 그러나 그는 만물이 그분의 것임을 인정하는 표로써 즐겁게 그 가축의 일부를 주께 드렸다. 이와 같이 우리의 자원하는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첫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모든 긍휼과 사랑에 대하여, 우리는 기도로 그리고 그분의 사업을 위하여 헌물을 드림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모든 자비와 사랑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정해야 한다. {PP 105.4}

구름이 모여들고 비가 내릴 때에 또 다른 홍수가 내리지 않을까 하는 끊임없는 공포에 싸이지 않도록 주께서 노아의 가족들에게 한 약속을 하심으로 그들에게 용기를 주셨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창 9:11~16). {PP 106.1}

사람들과 맺으신 언약의 징표로써 아름다운 무지개를 구름 속에 이렇게 두심으로 나타내신, 당신의 그릇 행하는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겸손과 동정은 얼마나 큰가! 주께서는 무지개를 보실 때에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선언하신다.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당신의 언약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더 잘 이해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후대의 자손들이 하늘에 걸쳐 있는 영광스러운 아치(arch)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에, 그들의 부모들이 홍수의 이야기를 되풀이하고, 다시는 세상을 물로써 멸망시키시지 않겠다는 보증으로,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둥근 무지개를 만드셔서 구름 속에 두셨다는 것을 저들에게 이야기해 주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였다. 이리하여 이것은

대대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신뢰를 굳게 할 것이었다. {PP 106.2}

하늘에는 무지개 비슷한 것이 보좌를 두르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아치형을 이루고 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겔 1:28) 말한다. 계시자 요한은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계 4:2, 3)고 선언하였다. 사람이 그의 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때 구주께서는 그를 위하여 아버지께 간구하시며, 회개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의 징표로써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와 보좌 주위를 두르고 있는 무지개와 자신의 머리 위에 둘린 무지개를 가리키신다. {PP 107.1}

하나님께서는 홍수에 관하여 노아에게 주신 보증을 그분의 은혜의 가장 귀중한 약속 중의 하나와 결부시키셨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사 54:9, 10). {PP 107.2}

노아가 그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힘센 맹수들을 바라보았을 때에, 모두 여덟인 그의 가족들이 그들에게 멸절당하지나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주께서는 한 천사를 보내사 그분의 종에게 보증의 기별을 주셨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웠음이라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창 9:2, 3).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동물의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인류가 전적으로 땅의 소산을 먹고 살아가도록 의도하셨다. 그러나 모든 푸른 것이 죽어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는 방주 안에 보존되었던 정결한 동물의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셨다. {PP 107.3}

홍수 때에 땅의 표면은 전부 변하였다. 죄악의 결과로 세 번째 무서운 저주가 지상에 임하였다. 물이 줄어지기 시작하자 산들과 언덕들은 흙탕물의 대해(大海)로 둘러싸였다. 도처에 사람들과 짐승들의 시체가 널려있었다. 주께서는 이 시체들이 그대로 남아서 부패하여 대기를 오염시키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흙으로 큰 매장지를 만드셨다. 물을 말리기 위해 그분께서 일으킨 강풍은 큰 힘으로 그 시체들을 옮겼는데, 때로는 산봉우리까지 옮겨 시체 위에 나무와 바위와 흙을 쌓아올렸다. 홍수 전 세상을 부요하게 장식하였으며, 그 당시의 거민들이 우상화했던 금과 은, 귀중한 목재들과 보석들이 같은 방법으로 땅속에 매몰되어 사람들의 시야에서 감추어졌는데, 맹렬한 물결이 이 보물들 위에 흙과 바위를 쌓아올리고, 어떤 곳에서는 그것들 위에 산을 쌓기도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시고 번영하게 하시면 하실수록 그들이 그분 앞에서 더 부패하게 되리라는 것을 보셨다.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했어야 할 보물들이 숭배의 대상이 되어 왔었던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수치와 멸시를 받아 오셨다. {PP 107.4}

드러난 땅의 모습은 묘사할 수 없을 만큼 어지럽고 황폐하였다. 한때 그처럼 완전한 균형미를 가지고 있어서 아름다웠던 산들은 파괴되고 불규칙하게 되었다. 돌멩이, 울퉁불퉁한 바위와 부서진 돌덩이들이 그 때 땅 표면에 흩어졌다. 여러 곳에서 언덕과 산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평지였던 곳에 산맥이 생겼다. 어떤 곳은 다른 곳보다 이런 변화가 더 심하였다. 한때 세상에서 가장 많은 금, 은과 보석이 있었던 곳에 가장 중한 저주의 흔적이 보였다. 그리고 사람이 살지 않았던 지방과 죄들이 아주 적었던 곳에는 저주가 가볍게 내렸다. {PP 108.1}

이 때에 광대한 삼림들이 땅에 매장되었다. 이것들은 그 때부터 석탄으로 변하였는데, 지금 있는 광대한 석탄층을 형성하였고 또 다량의 기름을 산출하였다. 석탄과 기름이 때때로 인화하여 지표면 아래서 탄다. 그리하여 바위들이 뜨거워지고 석회석이 타며 철광석이 용해된다. 물이 석회석에 미치는 작용이 고열에 맹위를 더하여 지진, 화산과 분화(噴火)의 원인이 된다. 불과 물이 암석과 광석의 광맥들과 접촉할 때에 지하에서 큰 폭발과 함께 둔화된 뇌성 같은 소리가 난다. 공기는 뜨겁고 사람의 숨을 막는다. 화산의 분출이 따른다. 그리고 때때로 화산의 분출이 가열된 물체들이 뚫고 나갈 충분한 분출구를

만들어주지 못할 때도 있다. 이 때에는 지구 자체가 진동하고 땅이 바다의 물결처럼 융기하고 부풀어 오르고, 큰 균열이 생겨서 때때로 도시와 촌락과 불타는 산들이 삼켜 버린 바 된다. 이런 놀라운 현상들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 직전에 세상의 신속한 멸망의 징조로써, 차츰 더 빈번히 발생할 것이며 더욱더 가공할 파괴력을 행사할 것이다. {PP 108.2}

땅의 깊은 곳은 주의 병기고인데, 고대 세계의 멸망에 사용되었던 무기들은 이곳에서 나왔다. 땅에서 솟구쳐 나온 물은 하늘에서 내린 물과 합하여 멸망시키는 일을 성취하였다. 홍수 이래로 물뿐만 아니라 불도 사악한 도시들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 이 심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경시하고 그분의 권위를 짓밟는 자들로 그분의 능력 앞에서 떨게 하며 당신의 공의로운 주권을 인정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다. 화염을 내뿜는 불타는 산들을 볼 때 그리고 용해된 광석들이 급류를 이루어 강들을 말리며, 사람이 많이 사는 도시들을 덮치고, 도처에 파멸과 황폐를 가져오는 것을 볼 때, 강심장을 가진 사람들도 공포에 싸였고 불신자들과 하나님을 모독해 온 자들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PP 109.1}

이와 같은 광경에 관하여 옛 선지자들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불이 섶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 때에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하였”(사 64:1~3)나이다. “여호와의 길은 회리 바람과 강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의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우시며 모든 강을 말리우시나니”(나 1:3, 4). {PP 109.2}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세상이 이제까지 본 것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현상들이 발생할 것이다. “그로 인하여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의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가 발하게 하소서 번개를 번득이사 대적을 흩으시며 주의 살을 발하사 저희를 파하소서”(나 1:5, 6; 시 144:5, 6). {PP 109.3}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행 2:19).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옴으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 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리"(계 16:18, 20, 22)더라. {PP 110.1}

하늘의 번갯불과 땅의 불이 합칠 때에 산들은 용광로처럼 타며 무시무시한 용암을 쏟아내어 정원과 전답, 농촌과 도시를 덮칠 것이다. 강에 빠진 들끓는 녹은 물질은 물을 끓게 하여,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맹렬하게 큰 바위들을 날려 보내어, 부서진 조각들을 땅 위에 흩어 놓을 것이다. 강들이 말라 버릴 것이다. 땅은 진동하고 각처에서 무서운 지진과 폭발이 일어날 것이다. {PP 110.2}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자들을 지상에서 멸절하실 것이다. 그러나 노아가 방주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된 것같이 의인들은 이 소동 가운데서도 보호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실 것이며, 그들은 그분의 날개 아래 의지할 것이다.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시 91:9, 10). "여호와께서 환난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시 27:5)리라. 하나님께서는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시 91:4)고 약속하신다. {PP 110.3}

9장 글자 그대로의 주일

주일 제도는 안식일과 같이 창조 때에 시작되었으며 성경 역사를 통하여 계속 보존되어 내려와 우리에게 이르렀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 날까지 계속될 주일의 한 표본으로 친히 최초의 주일을 구분하셨다. 최초의 주일은 다른 모든 주일과 같이 24시간을 하루로 하는 7일로 구성되었다. 창조 사업에 6일이 걸렸다. 하나님께서는 제7일에 쉬시고, 이날을 축복하셔서 사람의 안식의 날로 구별하셨다. {PP 111.1}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주일과 그것의 기초가 된 사실들을 시인하셨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시고, 엿새 동안에 행해져야 할 일과 일곱째 날에 해서는 안 될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후에 그분께서는 당신 자신의 모본을 가리키시면서, 이와 같이 주일 제도를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신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출 20:8~11). 우리가 창조 주간의 날들이 글자대로 24시간 하루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이 이유는 아름답고 설득력 있게 보인다. 매 주일의 첫 6일은 일하는 시간으로 인간에게 주어졌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 사업을 하실 때 첫 주일 가운데 같은 기간을 쓰셨기 때문이다. 제7일에 사람은 창조주의 쉬심을 기념하여 일을 중지해야 한다. {PP 111.2}

그러나 첫 주일의 창조 사건에 수만 년이 걸렸으리라는 억측은 넷째 계명의 기초를 직접적으로 파괴한다. 이것은 마치 어마어마한, 막연한 기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글자대로의 날들로 구성된 주일을 지키도록 사람에게 명령하시는 분으로 창조주를 나타낸다. 이것은 피조물들을 다루시는 그분의 방법과 같지 아니하다. 그것은 그분께서 아주 분명하게 하신 것을 애매모호하게 한다. 그것은 가장 음험(陰險)한, 따라서 가장 위험한 형태의 불신이다. 그것의 참 성질이 감쪽같이 변장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믿노라 공언하는 많은 자들도 그것을 믿고 가르치고 있다. {PP 111.3}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말씀하시매 이루었으며 명하시매 견고히 섰도다”(시 33:6, 9). 성경은 이 세상이 오랜 세월을 통하여 혼돈 상태에서 서서히 진화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창조의

하루하루는 그 뒤에 잇따른 모든 날처럼 저녁과 아침으로 되었다고 거룩한 기록은 선언한다. 매일의 끝에 창조주의 일의 결과가 발표되어 있다. 첫 주일의 기록 끝에 “천지의 창조된 대략(제너레이션)이 이러하니라”(창 2:4, 영문 성경 참고)는 말이 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창조 때의 날들이 글자대로의 날들이 아니라는 사상을 나타내지 않는다. 각 날은 제너레이션(세대 또는 발생의 뜻)이라고 불렸는데, 그 이유는 이 날들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업의 어떤 새로운 부분들을 발생(제너레이터)시키셨거나 산출하셨기 때문이었다. {PP 112.1}

지질학자들은 지구 자체 가운데서 지구가 모세의 기록이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한다고 주장한다. 지금 존재하거나 수천 년 전에 존재했던 어떤 것보다도 훨씬 큰 사람과 짐승들의 뼈, 무기, 화석이 된 나무 등이 발견되어 왔다. 이러한 것들로부터 창조의 기록에 나타난 시간보다 오래 전에, 지금 살고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훨씬 큰 종족이 지구에 살고 있었으리라고 추론되었다. 이와 같은 추론은 성경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창조의 날들은 막연한, 긴 기간이라고 믿는 입장을 채택하도록 만들었다. {PP 112.2}

지질학은 성경 역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다. 그 발견에 확신을 가지는 자들도 홍수 전의 사람들, 짐승들, 나무들의 크기나 당시에 일어났던 큰 변화에 대한 적합한 관념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다. 땅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현대와는 많은 점에서 제(諸)조건들이 달랐다는 증거를 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태가 존재했었던 때는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에서만 배울 수 있다. 홍수의 역사 가운데서 영감은 지질학만으로는 결코 파헤칠 수 없는 것을 설명하였다. 노아 시대에 지금보다 몇 배나 컸던 사람들, 짐승들, 나무들이 매몰되었으며, 그와 같이 하여 홍수 전 시대 사람들이 홍수로 말미암아 멸망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로써 후세대를 위하여 보존되었다. 이것들의 발견이 영감으로 기록된 역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해주기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으나, 사람들은 그들의 헛된 이론으로 홍수 전 사람들이 범한 것과 같은 잘못에 빠진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익하도록 주신 것들을 잘못 사용하므로 그것들을 저주거리로 만든다. {PP 112.3}

사단의 책략 중의 하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우화를 받아들이도록 이끄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이렇게 함으로 그 자체로는 아주 명백한 하나님의 율법을 애매모호하게 만들 수 있고 사람들이 대담하게 하나님의 정부에 대하여 반역하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그의 노력을 특히 넷째 계명을 파괴하는 데 기울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천지의 창조주이신 살아 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PP 113.1}

창조 사업을 자연적 원인들의 결과로 설명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해 온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명백한 성경상 사실과 반대되는 인간적 추론을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까지도 받아들이고 있다. 예언들 특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연구를 반대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그것들이 너무 모호하여 우리가 그것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언명한다.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들이 모세의 기록과 모순되는 지질학자들의 가설들은 열심히 받아들인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바가 그처럼 이해하기 어렵다면, 그분께서 나타내지 않으신 것에 대한 단순한 가정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얼마나 불합리한 일인가! {PP 113.2}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신 29:29)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업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결코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않으셨다. 인간의 과학으로는 지존자의 오묘를 찾아낼 수 없다. 그분의 창조력은 그분의 존재와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없다. {PP 113.3}

하나님께서는 과학과 예술 양방면을 통해 빛의 홍수가 지상에 쏟아지도록 허락하셨다. 그러나 소위 과학적인 사람들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인간적 관점에서 이 문제들을 다룰 때에는 그들은 분명히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우리의 이론들이 성경에서 발견되는 사실들과 모순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내신 바를 넘어서 추론하는 일은 해롭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분의 창조 사업을 과학적 원리로 설명하려는 사람들은 해도(海圖)나 나침반 없이 미지의 대양에서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탁월한 지성을 가진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의 연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도받지 않으면, 과학과 계시와의 관계를 추적함에 있어서 갈피를 못잡게 된다. 창조주와 그분께서 창조하신 만물들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으므로 그들이 자연 법칙으로 창조주와 그분의 창조 세계를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 역사가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신구약 성경 기록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자들은 한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존재까지 의심하게 될 것이며, 그 때에 그들은 닻을 잃어버렸으므로 불신의 암초에 부딪치게 된다. {PP 113.4}

이 사람들은 신앙의 단순성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신성한 권위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앙이 있어야 한다. 성경은 사람들의 과학적 관념으로 시험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의 지식은 신뢰할 수 없는 안내자다. 흠잡기 위하여 성경을 읽는 회의론자들은 과학이나 계시에 관한 자신의 불완전한 이해 때문에, 양자 사이에 모순들을 발견한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올바르게 이해하면 과학과 계시는 완전히 조화된다. 모세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아래에서 기록하였다. 그러므로 올바른 지질학 이론은 성경의 기록과 조화시킬 수 없는 발견을 했다고 결코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천연계에서건 계시에서건 모든 진리는 그 모든 표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다. {PP 114.1}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가장 위대한 학자들도 결코 답변할 수 없는 질문들이 많이 있다. 유한한 인간들이, 그들이 자랑하는 온갖 지혜를 가지고도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심지어 일상생활의 평범한 일들 가운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이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주제들에 관심을 돌려보라고 촉구하시고 있다. {PP 114.2}

그런데도 과학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그분께서 행하셨거나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분께서는 당신 자신의 법으로 말미암아 제약을 받으신다는 사상이 널리 퍼져 있다. 사람들은 그분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무시하는가 하면 만물, 심지어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성령의 활동까지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그분의 이름을 존경하거나, 그분의 권능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이나 그 법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무한한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므로 초자연적인 것을 믿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대로, “자연의 법칙”은 물질세계를 주관하는 법들에 관하여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었던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인간의 지식은 얼마나 제한되어 있으며, 창조주께서 유한한 존재들에게는 전적으로 이해될 수 없지만 당신 자신의 법들과 조화되게 일하실 수 있는 분야는 얼마나 광범위한가! {PP 114.3}

많은 사람들은 물질은 활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르친다. 즉 물질에는 어떤 특성들이 주어져 있는데 그것은 그의 고유한 에너지로 활동하도록 되어 있으며, 천연계의 운행은 철칙(鐵則)에 따라 행해지고 있으며, 이 법칙은 하나님 자신도 간섭하실 수 없다고 가르친다. 이것은 거짓 과학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자연계는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의 종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법들을 폐지하시거나 그것들에 배치되게 일하지도 않으신다. 그분은 계속적으로 그것들을 그분의 도구로 쓰시고 계신다. 천연계는 그분의 법 안에서 그리고 그 법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지성적 존재가 계심을 증거한다. 아버지와 아들은 천연계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요 5:17)고 말씀하신다. {PP 114.4}

레위인들은 느헤미야가 기록한 찬가(讚歌)에서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느 9:6)라고 노래하였다. 이 세계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업은 이미 완성되었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히 4:3)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분의 기운은 아직도 그분의 창조물들을 붙드시는 데 행사되고 있다. 맥박이 뛰고 호흡이 계속되는 것은 한번 시동이 걸린 기계 장치가 고유의 기운으로 계속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이 아니다. 모든 호흡과 심장의 고동은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행 17:28)는 그분의 편만한 돌보심의 증거이다. 지구가 해마다 그의 소산물을 내며, 태양 주위를 계속 공전하는 것은 고유의 힘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손이 유성들을 인도하시고 우주 전역에 걸쳐서 그것들이 제자리를 지키며 질서 정연하게 운행하도록 하신다. 그분은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므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사 40:26). 식물이 무성하고 잎이 나며 꽃이 피는 것은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이다. 그분은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골짜기에 열매가 가득하게 하신다. 삼림의 모든 짐승이 그들의 식물을 하나님께로부터 구하며(시 147:8, 104:20, 21), 가장 작은 곤충에서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생물이 매일 그분의 섭리의 보호에 의존하고 있다. 시편 기자의 글 가운데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말이 있다.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시 104:27, 28)나이다. 그분의 말씀은 자연력을

지배하시며 그분은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신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신다.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신”(시 147:16; 렘 10:13)다. {PP 115.1}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시다. 모든 참된 과학은 그분의 일하심과 조화되며, 모든 참된 교육은 모두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도록 인도한다. 과학은 새로운 경이들을 우리 눈앞에 공개하며, 매우 높이 치솟아 새로운 깊은 것들을 탐구한다. 그러나 과학의 연구는 하나님의 계시와 모순되는 결과를 결코 가져오지 않는다. 무지로 인하여 과학이라는 이름을 빙자하여 하나님에 대한 거짓 견해를 지지하려고 노력할지 모르나 천연계의 책과 기록된 말씀은 서로 빛을 비추어 준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창조주를 숭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이지적으로 신뢰하도록 인도된다. {PP 115.2}

인간은 어느 누구도 무한하신 분의 존재, 능력, 지혜나 업적들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거룩한 기자는 이렇게 말한다. “네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어찌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욥 11:7~9).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지식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사람들이 계속 탐구하고 배울지라도 무한은 그들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다. {PP 116.1}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성을 증거한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시 19:1). 성경을 그들의 상담자로 삼는 자들에게 과학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롬 1:20)된다. {PP 116.2}

10장 바벨탑

도덕적 부패 때문에 홍수를 당하여 황폐된 지구를 백성으로 다시 채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단 한 가족 곧 노아의 가족을 보존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창 7:1)고 선언하셨다. 그러나 노아의 세 아들들 가운데서도 홍수 전 세상에서 볼 수 있었던 동일한 큰 특징들이 신속히 나타났다. 인류의 조상이 될 셈과 함과 야벳의 품성 가운데 그들의 후손들의 품성이 예시되었다. {PP 117.1}

노아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말하면서 이 인류의 조상들로부터 일어날 삼대 인종의 역사를 예언하였다. 그는 함의 자손에 대하여, 아버지가 아닌 그 아들을 통하여 함의 자손들의 역사를 추적해 가면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창 9:25)고 선언하였다. 함의 비인도적 범죄는 그의 마음에서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진 지 오래라는 것과 그의 성격이 불경건하고 비루하다는 것을 나타냈다. 이 악한 특징은 가나안과 그 후손들에게 물려진 바 되었고, 그들의 계속적인 죄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다. 그 반면에 셈과 야벳이 나타낸 아버지에 대한 존경, 그렇게 함으로 나타낸 하나님의 계율들에 대한 존경은, 그들의 후손들의 한층 밝은 장래를 약속하였다. 이 두 아들들에 관하여 이렇게 언명되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창 9:26, 27). {PP 117.2}

셈의 가계(家系)는 선민의 가계, 하나님의 언약의 가계, 약속된 구주의 가계가 될 것이었다. 여호와는 셈의 하나님이셨다. 그에게서 아브라함이,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생겨날 것이며, 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시 144:15). 그리고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할”것이다. 야벳의 자손들은 복음의 축복에 특별히 참여할 것이었다. {PP 117.3}

가나안의 후손들은 가장 타락한 이교의 형식에까지 전락되었다. 예언적 저주를 통하여 그들은 노예가 될 운명에 처하였었으나, 수 세기 동안 그 운명은 보류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당신의 오래 참으심의 한계를 넘을 때까지 그들의 불경건한 부패를 참으셨다. 그렇게 되자 그들은 재산을 빼앗기고 셈과 야벳 자손들의 노예가 되었다. {PP 118.1}

노아의 예언은 독단적인 진노의 선고도 아니요. 총애의 언명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아들들의 품성과 운명을 고정시키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각자 선택한 생활과 그들이 계발시킨 품성의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것은 그들 자신들의 품성과 행동을 참작하여 그들과 그들의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표한 것이었다. 대체로 아이들은 부모의 성질과 성벽을 물려받으며, 부모를 본받는다. 그같이 하여 부모의 죄는 대대로 그 자손들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이와 같이 함이 나타낸 비열함과 불경을 그의 자손들이 되풀이하였으며 여러 세대 동안 걸쳐 그들에게 저주를 가져왔다.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패괴케”(전 9:18)한다. {PP 118.2}

그 반면에 아버지에 대한 셈의 존경은 얼마나 큰 보상을 받았으며 그의 후손 가운데서 얼마나 빛나는 거룩한 사람들의 계보가 나타났는가!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시 37:18, 26)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 7:9)신다. {PP 118.3}

한동안 노아의 자손들은 방주가 안착했던 산중에서 살았다. 그러나 그들의 수효가 증가하면서 배도가 일어나 분열이 생겼다. 그들의 창조주를 잊어버리고, 그분의 율법의 제지를 벗어 버리기를 갈망한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들의 형제들의 교훈과 모본을 늘 귀찮게 여겼다. 그리하여 얼마 후에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과 분리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저들은 유프라테스 강변의 시날 평야로 이동하였다. 그들은 이 곳 지형이 아름답고 토지가 비옥한 데 마음이 끌려 이 평야에 거주하기로 결정하였다. {PP 118.4}

그들은 이 곳에 도시를 건설하고, 그 도시 안에 세계의 경이가 될 굉장히 높은 탑을 세우기로 결정하였다. 이 사업은 백성들이 각지에 널리 흩어지는 것을 막고자 계획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온 땅에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정복하도록 지시하였었다. 그러나 이 바벨탑 건설자들은 그들의 공동 사회를 한 단체로 연합시켜서

결국 온 세계를 포함할 한 왕국을 세우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면 그들의 도시는 세계적 제국의 수도가 될 것이며, 그 영광은 온 세계의 칭찬과 존경을 자아낼 것이며 건설자들은 명성을 얻을 것이었다. 하늘에까지 닿을 굉장한 탑은 이 탑 건설자들의 명성을 후대에 길이 보존시키면서, 저들의 능력과 지혜의 기념비로써 서 있게 하고자 의도되었다. {PP 118.5}

시날 평야의 거민들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그분의 언약을 믿지 않았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홍수를 자연적 원인의 결과로 돌렸다. 다른 사람들은 지존자가 계심을 믿고, 홍수 전 세상을 멸망시키신 분이 바로 그분임을 믿었으나 가인처럼 그들의 마음은 그분께 대한 반역으로 일어섰다. 탑 건축에 있어서 그들이 염두에 둔 한 목적은, 또다시 대홍수가 일어날 경우에 그들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자는 것이었다. 홍수의 물결이 닿은 높이보다 훨씬 더 높은 건축물을 만듦으로 그들은 그들이 어떤 위험도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게 되리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구름이 있는 층에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면 홍수의 원인을 규명해 보기를 소망했다. 이 전체적인 사업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계획 입안자들의 이름을 높이고, 후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고, 저들을 우상숭배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계획되었다. {PP 119.1}

탑의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 그 일부분은 건축자들의 거처로 쓰였다. 다른 방들은 호화찬란하게 장식되어 그들의 우상들에게 봉납되었다. 백성들은 그들의 성공을 기뻐하고 금·은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고, 천지의 주재를 대적하였다. 그처럼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던 공사가 갑자기 중지당하였다. 천사들은 건축자들의 목적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도록 보내심을 받았다. 탑은 매우 높이 솟아올라 꼭대기에 있는 일꾼들이 아래에 있는 자들과 직접 말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각각 다른 지점에 배치되어 각기 필요되는 재료들의 주문이나 공사에 관한 다른 지시들을 받고, 자기 다음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였다. 이와 같이 기별들이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질 때 이상하게도 언어의 혼란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필요 없는 재료가 주문되었고 전달된 공사의 지시가 주어진 지시와 정반대되는 일이 잦았다. 혼란과 낭패가 잇따랐으며, 모든 공사는 곧 답보 상태에 있게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조화나 협력이 있을 수 없었다. 건축자들은 그들 사이에 있는 이상한 오해들의 이유를 도무지 밝힐 수 없었고, 분노와 실망 중에 그들은 서로 비난하였다. 그들의 공모는 투쟁과 유혈로 종말을 고하였다.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의

증거로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 탑의 상부를 파괴하여 땅에 떨어뜨렸다. 사람들은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PP 119.2}

이 때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언어를 사용해 왔었다. 이제는 서로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 집단으로 뭉쳐서 사방으로 흩어졌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창 11:8)셨다. 이 분산은 온 땅에 사람들을 살게 하는 수단이었다. 이리하여 주의 목적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고 했던 바로 그 방편을 통하여 성취되었다. {PP 120.1}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일어선 사람들은 얼마나 큰 손실을 당하였는가! 사람들이 세계 각처에서 나라들을 건립하기 위하여 나아갈 때에, 그들이 그분의 뜻에 관한 지식을 지니고 가서 진리의 빛이 대대로 밝게 빛을 비추도록 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다. 충실한 의의 설교자 노아는 홍수 후 350 년간 살았고 셈은 500 년간 살았다. 그리하여 그들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취급하신 역사에 정통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구미에 맞지 않는 이 진리들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언어의 혼란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빛을 그들에게 줄 수가 있었을지 모를 사람들과의 왕래를 거의 차단당했다. {PP 120.2}

바벨탑 건설자들은 하나님께 대한 불평의 정신에 빠졌다. 아담에게 베푸신 그분의 긍휼과, 노아와 맺으신 그분의 은혜로운 언약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기는커녕 그들은 최초의 부부를 에덴에서 추방하시고 세계를 홍수로 멸망시킨 하나님의 가혹하심에 대하여 불평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혹하며 독단적이라고 불평하는 한편 그들은 폭군 중에도 가장 잔인한 폭군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희생 제물에 치욕을 끼치려고 애쓰고 있었다. 백성들의 마음이 우상숭배로 어두워지자 사단은 그들로 하여금 제물을 모조(模造)하게 하여 그들의 우상의 제단에 자신들의 자녀들을 제물로 드리게 하였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공의, 순결, 사랑 등과 같은 하나님의 속성들은 압박, 폭력, 잔인에 밀려났다. {PP 120.3}

바벨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독립된 정부를 세우기로 결정하였었다. 그들 중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그들은 불신자들의 주장에 속아 그들의 술책에

말려든 사람들도 있었다. 주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있는 충성스러운 자들을 위하여 그분의 심판을 지체하시고, 그들의 참된 품성을 나타내도록 백성들에게 시간을 주셨다. 백성들의 참된 본성이 드러나게 되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들에게 그들의 목적을 단념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들의 대담한 사업에 완전히 연합되었다. 저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버려두었더라면 그들은 세계를 그 여명기에 타락시켰을 것이다. 그들의 동맹은 반역에 기초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이나 영광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을 높이고자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였다. 만일 이 동맹이 허용되었더라면 그것이 한 강대국이 되어 지상에서 의로움 - 평화와 행복과 안전도 함께 - 을 몰아내는 데 그 통치력을 사용했을 것이다. 사람들은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한"(롬 7:12)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 자신의 이기적이며 잔인한 마음의 의도와 맞는 법으로 대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PP 123.1}

주님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그분께 개입해 주시기를 부르짖었다.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창 11:5)다. 그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사 탑 건설자들의 목적을 좌절시키시고, 그들의 대담성의 기념비인 그 탑을 파괴하셨다. 또한 자비를 베푸셔서 그분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저들의 반역적 의도를 좌절시키셨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회개할 충분한 기회를 주시고 그들의 외고집을 오래 참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공의롭고 거룩한 그분의 율법의 권위를 거역하는 그들의 모든 간계를 주목하신다. 때때로 통치의 홀을 잡은 보이지 않는 손이 불의를 억제하기 위하여 뻗쳐진다. 우주의 창조주, 지혜와 사랑과 진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은 천지의 최고 통치자이시며, 그분의 권력에 도전하고서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분명한 증거가 주어진다. {PP 123.2}

바벨탑 건설자들의 계획은 수치와 패배로 끝났다. 그들의 교만의 기념비는 그들의 어리석음의 기념비가 되었다. 지금도 사람들은 여전히 동일한 노선 - 자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배척하는 노선 - 을 따르고 있다. 그것은 사단이 하늘에서 실천에 옮기고자 하던 원칙이요 그의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인을 지배했던 원칙이다. {PP 123.3}

우리 시대에도 탑 건설자들이 있다. 무신론자들은 과학의 상상적 추론(推論)으로 학설을 만들고,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배척한다. 그들은 몹시 주제넘게도 하나님의 도덕적 정부를 비판하고 그분의 율법을 멸시하며 인간의 이성(理性)으로 충분하다고

자랑한다. 그리하여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전 8:11)하다. {PP 123.4}

소위 그리스도교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단순한 가르침에서 떠나서 사람의 이론과 재미있는 우화로 신경을 만든다. 그리고 그들은 그 탑이 하늘에 올라가는 길이라고 가리킨다. 범법자는 죽지 않을 것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고도 구원이 확보될 수 있다고 가르치며 능변을 토하는 입술에 사람들은 경탄하면서 집착한다.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표준을 받아들인다면, 그들 가운데 연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가 그분의 거룩한 말씀 위에 높임을 받는 한, 분열과 분쟁이 있을 것이다. 상이한 신조와 교파로 이루어진 작금의 혼란은 “바벨론”이라는 말로 적절히 표현되어 있는데 예언은 그 용어를 세상을 사랑하는 마지막 때 교회들에게 적용한다(계 14:8, 18:2). {PP 124.1}

많은 사람들은 부귀와 권력을 얻음으로 스스로 천국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한다. 그들은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하게 말하며”(시 7:8), 인권을 짓밟고,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한다. 거만한 사람들이 한동안 큰 권력을 휘두르고 그들이 경영하는 모든 사업에 성공할지는 모르나 결국 그들은 실망과 불행만을 당할 것이다. {PP 124.2}

하나님의 조사의 때가 임박했다. 지존자께서 인간들이 건축한 것을 보시려고 곧 강림하실 것이다. 그분의 주권이 드러날 것이며 교만한 인간의 사업들은 낮춤을 당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심이여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히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시 33:13, 14, 10, 11). {PP 124.3}

11장 아브라함을 부르심

바벨에서 흩어진 후 또다시 우상숭배가 거의 보편화되자, 마침내 주께서는 완고한 범법자들은 그들의 악한 길을 따르도록 내버려 두시고 셈 계통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후대를 위하여 당신의 율법의 보존자로 삼으셨다. 아브라함은 미신과 이교 신앙 가운데서 자랐다.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보존하여 왔던 그의 아버지의 가족들까지도 그들을 둘러싼 유혹적인 감화에 굴복하여 여호와보다도 "다른 신들을 섬겼"(수 24:2)다. 그러나 참 신앙은 중단되지 말아야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을 섬기는 남은 무리를 보존하셨다. 아담, 셋, 에녹, 므두셀라, 노아, 셈은 계통을 이어가며 각 시대를 통하여 그분의 뜻을 담은 귀중한 계시들을 보존하였다.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은 이 거룩한 신탁(信託)의 후계자가 되었다. 우상숭배는 사방에서 그를 유혹하였으나 허사였다. 신실치 못한 자들 가운데서도 신실하며, 만연하고 있는 배교에도 부패되지 않은 채 그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끝까지 고수하였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시 145:18). 그분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뜻을 전달하시고, 당신의 율법의 요구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될 구원에 관한 명확한 지식을 주셨다. {PP 125.1}

당대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소중했던 자손의 번영과 국가적 위대함에 대한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것에 더하여 그 믿음의 후사에게는 다른 모든 것보다 귀중한 보증, 곧 그의 혈통에서 세상의 구세주가 나시리라는 다음과 같은 보증이 주어졌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창 12:3). 그러나 성취의 첫째 조건으로서 믿음의 시험이 있어야 했는데, 그것에는 희생이 요구되었다. {PP 125.2}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창 12:1)는 하나님의 기별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그로 거룩한 신탁의 보존자로서 그의 위대한 사업을 위하여 합당한 자격을 갖추게 하실 수 있도록, 아브라함은 그의 초기 생애에 교제하던 것들로부터 분리되어야 했다. 친족과 친구들의 감화는 주께서 당신의 종에게 주고자 의도하신 훈련에 방해가 될 것이었다. 이제 아브라함은 특별한 의미에서

천국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는 낯선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야 하였다. 그의 품성은 온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것이어야 하였다. 그는 자신의 행동 노선을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도 없었다. 영적인 사물은 영적으로 분별되므로, 아브라함의 동기와 행동은 우상을 섬기는 그의 친족들에게는 이해되지 않았다. {PP 126.1}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히 11:8). 아브라함의 의심 없는 순종은 온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현저한 믿음의 증거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에게 있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히 11:1)였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외부적 증거가 조금도 없는데도 그 약속을 믿고서, 집과 친척과 고향을 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곳으로 따라가고자 나아갔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히 11:9)다. {PP 126.2}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시험은 가벼운 것이 아니었고 그에게 요구된 희생도 작은 것이 아니었다. 그를 조국과 친족과 고향에 붙들어 매는 강한 줄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약속의 땅에 관하여 묻지 않았다. 곧 토지가 비옥하고 기후가 건강에 적합한지, 그리고 그 지방은 유쾌한 환경을 제공하며 재물을 쌓을 기회를 줄 것인지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의 종은 순종해야 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은 하나님께서 그로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었다. {PP 126.3}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하였던 것처럼 시험을 당한다. 그들이 하늘로부터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않으나, 그분은 당신의 말씀의 교훈과 섭리의 사건들을 통해 그들을 부르신다. 그들은 극기와 고난과 희생의 길인 것처럼만 보이는 길로 들어가기 위하여, 부귀와 공명을 보장하는 직업을 버리며 마음에 맞는 유리한 공동생활을 떠나고 친족과 작별하라는 요구를 받을지도 모른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해야 할 일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나 안일한 생활과 친구들과 친족의 감화는 그 일을 성취하는 데 필수적인 바로 그 특성을 계발하는 데 방해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그들에게 계시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인간의 감화와 도움에서

벗어나게 해서 당신의 도움의 필요를 느끼며 당신만을 의지하도록 인도하신다. 마음에 품은 계획과 친밀한 교제를 단념하고 섭리의 부르심에 응할 준비가 된 사람은 누구인가? 새로운 의무들을 받아들이며 시도해 본 적도 없는 분야에 뛰어들어 확고부동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손해를 이익으로 간주할 사람은 누구인가? 이와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그와 함께 "현재의 고난은…족히 비교할 수 없"(롬 8:18)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고후 4:17)을 나누어 받을 것이다. {PP 126.4}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창 11:31)에 살 때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에게 임하였고, 그것에 순종하여 하란으로 옮겨갔다. 그의 아버지의 가족은 이곳까지 그와 동행하였는데, 이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동시에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도 연합하였기 때문이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데라가 죽기까지 머물렀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그에게 그의 아버지의 무덤으로부터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였다. 그의 형제 나홀과 그의 가족은 그들의 고향과 우상을 버리지 않았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외에, 오래 전에 죽은 하란의 아들 롯만이 부조(父祖)의 순례 생활에 동참하기로 선택하였다. 그러나 큰 무리가 메소포타미아를 떠났다. 아브라함은 이미 동방에서는 부로 간주되는 허다한 양떼와 가축 떼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의 주위에는 수많은 종들과 가신(家臣)들이 있었다. 그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려고 조상들의 땅을 떠나고 있었으니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창 12:5)을 함께 이끌고 갔다.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사사로운 이익이나 봉사에 대한 보수보다도 더 높은 보수로 말미암아 이끌림을 받았다. 하란에 머무르는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는 둘 다 다른 사람들로 참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도록 인도하였다. 이들은 부조의 권속의 일원이 되어, 약속의 땅으로 그와 같이 갔다.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창 12:5)다. {PP 127.1}

저희가 최초로 머무른 곳은 세겜이었다. 아브라함은 이편의 에발 산과 저편의 그리심 산 사이에 감람 숲과 솟는 샘물들이 있는 넓고 풀이 무성한 골짜기의 모레 상수리나무 그늘 아래 장막을 쳤다. 부조가 들어간 곳은 아름답고 비옥한 지역, 곧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신 8:7, 8)였다. 그러나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에게 있어서 숲이 우거진 산과 풍요한 평원은 음울한 그림자로 덮여 있었다. “그 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창 12:6). 아브라함은 그의 희망의 목적지에 이르렀으나 그 땅은 이방 족속에게 점령당하였고 우상숭배가 널리 퍼진 지역임을 알았다. 숲 속에는 거짓 신들의 제단이 세워져 있었고 부근의 언덕들에서는 인간이 제물로 바쳐졌다. 하나님의 약속에 매달리기는 하였으나, 그가 장막을 친 곳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 곳이었다. 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창 12:7)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와 함께 하며 그가 악인의 손에 내맡겨지지 않았다는 이같은 보증으로 그의 믿음은 더욱 굳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 곳에 단을 쌓”았다. 여전히 나그네인 그는 얼마 후에 벧엘 근처에 있는 한 곳으로 옮겨 다시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다. {PP 127.2}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훌륭한 모본을 보여 주었다. 그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였다. 그는 장막을 치는 곳마다 그 근처에 제단을 세우고, 장막에 유하던 모든 사람들을 불러 조석으로 희생 제물을 드렸다. 그의 장막이 옮겨갔을 때에도 제단은 남았다. 후년에 유랑하는 가나안 사람들 중에는 아브라함에게서 진리에 대한 교훈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이 이 제단이 있는 곳에 왔을 때는 언제든지 저들 앞에 지나간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그 곳에 장막을 칠 때는 제단을 수리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였다. {PP 128.1}

아브라함은 남쪽으로 여행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의 믿음은 다시 시험을 당하였다. 하늘은 비를 내리지 않고, 시냇물은 골짜기에서 흐르기를 그치고, 들의 풀은 시들었다. 양떼들과 가축 떼들은 목초를 얻지 못하였고 기근은 온 장막을 위협하였다. 그 때 그 부조는 섭리의 인도를 의심하지 않았을까? 그는 갈대아 평야의 풍요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돌아보지 않았을까? 그에게 고난에 고난이 연속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모두 열심히 주시하고 있었다. 그의 확신이 요동한 것같이 보이지 않는 한, 그들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벗이시며 여전히 그를 인도하시고 계신 것을 확신하였다. {PP 129.1}

아브라함은 섭리의 인도를 설명할 수 없었으며 장래의 유업을 실감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는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약속을 굳게 붙잡았다. 그는 열심히 기도하며 어떻게 그의 백성과 양떼의 생명을 보존할는지를 생각하였으나,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믿음을 뒤흔들도록 허용하지 않았다. 그는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는 가나안을 저버리거나 궁지에 몰린 나머지 그가 떠나온 갈대아 땅으로 되돌아가지 않았다. 갈대아 땅은 양식이 결핍되는 일은 없었지만 그는 될 수 있는 대로 약속의 땅에서 가까운 곳에 임시로 피난하였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두셨던 곳으로 곧 돌아가고자 하였다. {PP 129.2}

주께서 당신의 섭리로 아브라함에게 이 시련을 주신 것은 그에게 순종과 인내와 믿음의 교훈, 곧 나중에 고난을 참도록 부르심을 받을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에 남겨야 할 교훈을 가르치고자 하심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시나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잊어버리거나 내버리시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욥에게 고통이 이르는 것을 허락하셨으나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사랑하는 요한이 외로운 밧모섬으로 귀양 가도록 허락하셨으나,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그 곳에서 그를 만나셨다. 그리하여 그의 계시는 불멸의 영광된 장면들로 가득 찼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시련을 당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자신들의 성실성과 순종으로 그들 스스로가 영적으로 부요하게 되며 그들의 모본이 다른 사람들에게 힘의 근원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렘 29:11)라. 우리의 믿음을 격렬하게 시험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바로 그 시련들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짐들을 그분의 발아래 놓고, 그대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실 평안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더욱 가까이 인도하기 위함이다. {PP 129.3}

하나님께서는 항상 고난의 풀무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 그리스도인 품성의 순금에서 찌꺼기가 제거되는 것은 풀무의 열을 통해서이다. 예수께서는 그 시험을 주목하신다. 그분께서는 그것이 당신의 사랑의 광채를 반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 품성의 귀금속을 정련하기 위하여 필요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고 엄격한 시험으로써 당신의 종들을 훈련하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어떤 사람들을 보시고 이들을 시련에 처하게 하신다. 그리하여 그분께서는 당신의 섭리 가운데서 그들의 품성을 시험하며, 그들 자신들은 알지 못했던 결점과 약점들을 드러내는 위치로 그들을 이끄신다. 그분께서는 이 결점들을 시정하고 당신을 위한 봉사에 그들 자신을 적합한 자가 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신다. 그분은 그들에게 그들 자신의 연약함을 보이시고 당신을 의지하도록 가르치신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그들의 도움과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그분의 목적은 달성된다. 그들의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진 그 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들은 교육과 연단과 훈련을 받으며 준비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활동하게 하실 때, 그들은 준비가 되므로 지상에서 성취되어야 할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과 연합할 수 있다. {PP 129.4}

애굽에 체류하는 동안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약점과 불완전함을 벗어나지 못하였음을 증거하였다. 사라가 그의 아내라는 사실을 숨김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그의 생애 속에서 그처럼 자주 존귀하게 예증되었던 고상한 신앙과 용기의 결핍을 나타내었다. 사라는 “아리따운” 여인이었으므로, 그는 거무스레한 애굽 사람들이 아름다운 타국인을 탐내어 그를 얻고자 그의 남편을 죽이기를 주저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사라가 자기 어머니의 딸은 아닐지라도 자기 아버지의 딸이었으므로 그를 누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같이 그들 사이의 진정한 관계를 은폐하는 것은 기만이었다. 엄격한 정직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부족 때문에 사라는 큰 위험에 처하였다. 사라가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애굽 왕은 그를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궁궐로 데려오게 하였다. 그러나 주께서 왕가에 천벌을 내리심으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사라를 보호하셨다. 이 일을 통해 왕은 일의 진상을 알고 자신에게 행한 기만에 대하여 분노하여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그의 아내를 돌려주면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창 12:18, 19)고 말하였다. {PP 130.1}

아브라함은 왕에게 큰 총애를 입었다. 아직도 바로는 그나 그의 일행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말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호위병에게 명하여 그들을 그의 나라 밖으로 안전히

인도하게 하였다. 이 때에 애굽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목자들과 먹거나 마시며 친숙하게 교제하는 일을 금하는 법이 제정되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추방하는 일은 친절하고 관대하였지만 그는 그에게 애굽을 떠나도록 명령하였다. 그는 감히 그를 머물도록 허락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알지 못하여 그에게 큰 해를 입히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큰 죄를 범하는 데서 왕을 구원하셨다. 바로는 이 타국인을 통해 하늘의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사람을 보고 그의 나라 안에 그처럼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있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그의 증가되는 재산과 명예는 애굽 사람들의 질투와 탐심을 일으켜 왕이 책임져야 할 어떤 해를 그에게 입힐지 모르며 다시 왕가에 천벌이 이르를지도 모를 일이었다. {PP 130.2}

바로에게 주어진 경고는 아브라함이 그후 이방 백성들과 교제할 때에 그에게 보호가 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 사건은 비밀로 감추어져 있을 수는 없었고, 아브라함이 섬기던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보호하시며 그에게 입힌 어떤 해라도 보복을 당한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었다. 하늘의 왕의 자녀 가운데 한 사람에게라도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시편 기자는 선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고로 열왕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시 105:14, 15)고 말함으로써 아브라함의 경험을 이 장에서 언급한다. {PP 131.1}

애굽에서 당한 아브라함의 경험과 여러 세기 후에 있은 그의 후손들의 경험 사이에는 재미있는 유사점들이 있다. 양편 다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고 양편 다 그 곳에 머물렀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천벌을 내리심으로 애굽 사람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며, 그들은 이방인들의 선물로 부요하게 되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PP 131.2}

12장 가나안의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육축과 은금이 풍부한”(창 13:1~9) 가운데 가나안으로 돌아왔다. 롯은 아직도 그와 함께 있었고 그들은 다시 벧엘로 가서 전에 세웠던 제단 곁에 그들의 장막을 쳤다. 그들은 재산이 증가됨에 따라 어려움이 증가되었음을 곧 발견하였다.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는 그들이 서로 화합하고 같이 살았으나 번영 가운데서는 그들 사이에 분쟁의 위험이 있었다. 목초가 두 사람의 가축 떼와 양떼에게 충분하지 못하였으므로, 두 사람의 목자들 사이에 자주 분쟁이 일어났으며 그들의 주인들에게 와서 해결책을 구했다. 그들이 헤어져야 함이 분명하였다. 아브라함은 나이로나, 친족간의 촌수로나, 재산으로나, 지위에서 롯보다 윗사람이었다. 그러나 화목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을 그가 먼저 제안하였다. 비록 하나님께서 친히 온 땅을 그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손히 이 권리를 양보하였다. {PP 132.1}

그는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창 13:8~10)고 말하였다. {PP 132.2}

여기에 아브라함의 고상하고 이타적인 정신이 나타나 있다. 그 같은 환경에 처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난을 무릅쓰고 자신들의 개인적인 권리와 우선권을 고수하고자 하였는가! 그같이 하여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갈라져 버렸는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분열되어 진리의 사업을 악인들의 웃음거리와 비난거리가 되도록 하였는가! 아브라함은 자연적인 관계로써만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서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서로 다투게 말자”고 하였다. 온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가족이므로 사랑과 화해의 동일한 정신이 그들을 지배하여야 한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롬 12:10)는 것이 우리 구주의 가르치심이다. 한결같은 예절, 곧 남이 우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의 계발은 인생의 불행을 절반으로 근절시킬 것이다. 자아 존대의 정신은 사단의 정신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마음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소유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빌 2:4)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PP 132.3}

롯이 번영한 것은 아브라함과 동거하였던 덕택이었으나 그는 자신의 은인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을 양보하는 것이 예절이었으나 예절은커녕 그는 이기적으로 선택권의 이점을 다 차지하려고 노력하였다. 그가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땅과 같았”(창 13:10~13)다. 온 팔레스틴에서 가장 비옥한 지방은 요단강 유역이었다. 이곳은 보는 자들에게 잃어버린 낙원을 연상시키며, 저들이 최근에 떠나온 비옥한 나일강 연안의 아름답고 풍요한 땅과 같았다. 거기에는 또한 부요하고 아름다운 도시들이 있었고, 그 혼잡한 시장에서는 이익이 많은 상업이 사람을 끌었다. 세속적 이익에 대한 환상에 현혹되어 롯은 그 곳에서 당하게 될 도덕적·영적 불행을 간과하였다. 그 평야의 거민들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거나, 알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다. 그는 “요단 온 들을 택하고”,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창 13:10~13)다. 그는 이기적 선택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그렇게도 예측하지 못하였던가! {PP 133.1}

롯과 작별한 후에 아브라함은 온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주께로부터 다시 받았다. 이 일 후에 그는 곧 헤브론으로 옮겨 마므레 상수리 수풀 아래 장막을 치고 그 곁에 주님을 위하여 단을 쌓았다. 감람나무 숲과 포도원, 곡식이 물결치는 들판, 그리고 작은 산들을 둘러싼 넓은 방목지가 있는 고원지대에 거주하면서 그는 단순한 족장 생활에 크게 만족했으며, 롯이 차지한 소돔 골짜기의 위험스런 사치는 바라지도 않았다. {PP 133.2}

아브라함은 유력한 군주요, 현명하고 유능한 어른으로서 부근 민족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그의 감화는 저절로 이웃 사람들에게 퍼져 나갔다. 그의 생활과 품성은 우상 숭배자들과 현저하게 달라 참된 신앙을 위하여 큰 감화를 끼쳤다.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심은 확고부동한 동시에 그의 친절과 자비심은 사람들의 신임과 우의를 두텁게 하였고 그의 꾸밈없는 위대함은 존경과 영예를 차지하였다. {PP 133.3}

그의 종교는 빈틈없이 지켜지고 그 소유자만이 즐기는 귀한 보물처럼 간직되지 않았다. 참된 종교는 그와 같이 간직될 수 없으니, 그런 정신은 복음의 원칙과 반대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마음 가운데 거하실 동안에는 그분의 임재하시는 빛을 가릴 수 없으며 그 빛을 어둡게 할 수도 없다. 반대로 날마다 영혼을 둘러싼 이기심과 죄악의 안개가 의의 태양의 밝은 광선에 의하여 흩어지게 될 때 그 빛은 점점 더 밝게 빛날 것이다. {PP 134.1}

하나님의 백성은 지상에 있는 그분의 대표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세상의 도덕적 흑암 가운데서 빛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들은 온 나라에, 곧 고을과 도시와 촌락들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증인들, 곧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세상에 당신의 뜻을 알리며 당신의 은혜의 기사를 전하실 통로들이다. 큰 구원에 참여한 자들이 모두 그분을 위한 선교사가 되는 것이 그분의 계획이다. 그리스도인의 경건성은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판단하는 표준이 된다. 끈기 있게 참아내는 시련,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축복, 온유, 친절, 자비,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사랑 등은 품성을 통하여 세상 앞에 비추는 빛들이며 타고난 마음의 이기심에서 오는 어둠과는 대조를 이룬다. {PP 134.2}

믿음에 부요하고 관대함이 넘치며, 순종에 확고하고, 단조로운 순례 생활 가운데서도 겸손한 아브라함은 외교에도 현명하였으며 전쟁에도 용감하고 능란하였다. 새로운 종교의 교사로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하는 아모레 평지의 통치자인 왕족 삼형제가 보다 큰 안전을 위하여 저들과 동맹을 맺고자 그를 초청함으로 우정을 표시하였으니, 그것은 그 지방이 폭력과 압제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다. 얼마 후에 그가 이 동맹을 이용할 기회가 이르렀다. {PP 134.3}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14년 전에 가나안을 침략하여 이를 그의 속국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제 몇 왕들이 반역을 일으켰고, 엘람 왕은 네 동맹국으로 더불어 그들을 항복시키고자 그 곳으로 다시 진군하였다. 가나안의 다섯 왕들은 그들의 군대를 연합하여 침입한 적과 싯딤 골짜기에서 교전하였으나 완전히 패배하였다. 군대의 대부분이 괴멸되었고 탈출해 나온 자들은 안전을 위하여 산으로 도망하였다. 승리자들은 평야의 도시들을 약탈하고 풍부한 전리품과 많은 포로들을 노획하여 갔는데, 그 중에는 롯과 그 가족도 있었다. {PP 134.4}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던 아브라함은 도망병 한 사람에게서 전쟁 이야기와 그의 조카에게 닥친 재난에 대하여 들었다. 그는 롯의 배은망덕에 대한 불쾌한 기억을 품고 있지 않았다. 롯에 대한 그의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났으며 그는 그를 구원하기로 결심하였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권고를 구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하였다. 그는 자신의 영내에서 잘 훈련된 318명의 종들을 소집하였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들의 주인을 섬기는 일과, 무기를 쓰는 일에 훈련을 받은 장정들이었다. 그의 동맹자들인 마므레와 에스골과 아넬도 그들의 무리와 함께 그와 연합하여 침략자를 추격하는 데 나섰다. 엘람 사람들과 그들의 동맹군들은 가나안 북쪽 변경에 있는 단에 진을 치고 있었다. 승리로 상기된 그들은 패배한 적군에게 추격 받을 염려가 없으므로 주연에 흠뻑 빠져 있었다. 아브라함은 다른 방향에서 공격할 수 있도록 그의 군대를 나누었으며, 밤에 진영을 엄습하였다. 그의 공격은 매우 강력하고 의외였으므로 신속한 승리를 가져왔다. 엘람 왕은 살해당하였고 공포에 사로잡힌 그의 군대들은 완전히 패주(敗走)하였다. 롯과 그의 가족은 모든 포로들과 그들의 재물과 함께 회복되었고 막대한 전리품이 승리자들의 수중에 들어왔다.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는 아브라함에게 승리가 돌아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인 아브라함은 나라를 위하여 위대한 봉사를 했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이 용감한 사람임을 증거하였다. 이것으로 의로움은 비겁이 아니며 아브라함의 종교는 의를 지지하고 피압박인을 방어하는 데 그를 용감한 사람으로 만들었음이 드러났다. 그의 영웅적 행위는 부근의 부족들 간에 널리 감화를 끼쳤다. 돌아오는 길에 소돔 왕은 그의 수행원들과 함께 승리자를 환영하려고 나왔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전리품은 취하고, 포로들은 놓아 주기를 간청하였다. 전쟁의 관습대로 전리품은 승리자의 것이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본래 이득을 목적으로 이 원정을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한 자로부터 이익을 취하고자 하지 않았으며, 다만 그의 동맹자들이 받아야 할 몫을 주도록 요구할 뿐이었다. {PP 135.1}

이와 같은 시험을 당했을 때 아브라함처럼 자기 자신을 고상하게 나타낼 사람은 드물 것이다. 그처럼 막대한 전리품을 얻을 유혹을 물리칠 사람은 드물 것이다. 그의 모본은 이기주의적이고 돈을 탐하는 정신에 대한 견책이다. 아브라함은 정의와 인간성의 요구를 중시하였다. 그의 행동은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레 19:18)는 영감으로 기록된

금언을 실증한다. 그는 말하기를, “천지의 주재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케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무론 한 실이나 신들메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창 14:22, 23)고 하였다. 그는 자신이 이익을 얻기 위하여 전쟁에 가담하였다고 생각하게 하거나 그의 번영이 그들의 선물이나 호의에 의한 것이라고 오해할 기회를 주고자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주시기를 약속하셨다. 그분께 영광이 돌려져야 하였다. {PP 135.2}

승리를 얻은 부조를 환영하러 나온 다른 사람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는데, 그는 아브라함의 군사의 기운을 회복시켜 주고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선언하고 당신의 종을 통하여 그렇게 큰 구원을 이루신 주께 감사를 드렸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얻은 것에서 십분 일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PP 136.1}

아브라함은 기쁨으로 그의 장막과 양떼에게 돌아왔으나 그의 마음은 괴로운 생각들로 불안하였다. 그는 가능한 한 원한과 싸움을 피하는 평화의 사람이었다. 그는 두려움으로 자신이 목격하였던 학살 장면을 회상하였다. 그가 쳐부순 군대들이 속하였던 민족들은 틀림없이 또다시 가나안을 침략하고자 할 것이며, 자신을 그들의 복수의 특별 목표로 삼고자 할 것이다. 그와 같이 민족간의 전쟁에 휩쓸리므로 그의 평온한 생활은 깨어질 것이다. 더욱이 그는 가나안 점령을 시작하지도 않았으며, 지금은 그 예언의 약속이 성취될 후사를 바랄 수도 없었다. {PP 136.2}

밤 이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렸다. 만왕의 왕의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고 하셨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제는 전처럼 의심할 수 없는 확신으로 약속을 붙잡을 수 없다는 불길한 예감에 압도되었다. 그는 그것이 성취되리라는 어떤 구체적인 증거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아들의 선물이 보류되고서야 어떻게 언약의 약속이 실현될 리가 있겠는가? 그가 말하기를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창 15:1~5 참고)고 하였다. 그는 그가 신임하는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 그의 소유를 상속시키자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의 아들이 그의 후사가 되리라는 보증을 받았다. 그 때 그는 장막 밖으로 인도되어 하늘에서 반짝이는 무수한 별들을 쳐다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가 이렇게 하였을 때에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말씀이 들렸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롬 4:3). {PP 136.3}

아직도 부조는 자신의 믿음을 확증해 주며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이 성취되리라는 사실을 후세대들에게 증거해 줄 눈에 보이는 어떤 표징을 간구하였다. 주께서는 자신을 낮추시어 당신의 종과 언약을 맺기로 하시고 엄숙한 계약의 비준(批准)을 위하여 사람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던 형식을 채택하셨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아브라함은 각각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숫양을 희생으로 드리고, 그것들을 쪼개어 그 조각들을 조금씩 떼어 놓았다. 이것에 더하여 산비둘기 하나와 집비둘기 새끼 하나를 드렸는데, 그것들은 쪼개지 아니하였다. 이 일을 한 후에 그는 영구적 순종을 하나님께 엄숙히 맹세하면서 그 제물 사이를 경건하게 지나갔다. 조심스럽고 끈기 있게 그는 해가 질 때까지 짐승들의 주검 곁에 머물러서 맹금(猛禽)들이 그것을 더럽히거나 뜯어먹지 못하게 하였다. 해 질 무렵에 그는 깊은 잠에 떨어졌다. 그리고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였다(창 15:7~18). 그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약속의 땅을 즉시 점령하리라고는 기대하지 말라고 명하시며,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에 그의 후손들이 당할 고통을 지적해 보이셨다. 위대한 희생 제물이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께서 영광 가운데 오시는 모습을 통해 여기서 구속의 경륜이 그에게 제시되었다. 또 아브라함은, 이 땅이 약속의 최종적이요 완전한 성취로 그에게 영원한 유업으로 주어지기 위하여 에덴의 아름다움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았다. {PP 137.1}

사람들과 더불어 세우신 하나님의 이같은 언약의 보증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연기 나는 풀무와 타는 횃불이 쪼개진 희생 제물 사이로 지나가며 그것을 모두 태웠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들리며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실 것을 확증하셨다. {PP 137.2}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유한 지 거의 25년 되었을 때에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창 17:1~16 참고)고 말씀하셨다. 부조는 두려워 엎드렸으며 기별은 계속되었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 언약이 성취될 증거로 이제까지 아브람이라고 불리던 그의 이름은 “열국의 아비”라는 의미를 가진 아브라함으로 고쳐졌다. 사래의 이름은 “여주(女主)”라는

뜻의 “사라”라고 고쳤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PP 137.3}

이 때에 아브라함에게 할례 의식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롬 4:11)이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봉사하는 일에 헌신하므로 우상 숭배자들과는 분리되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특별한 보배로 받으신다는 표로써 그것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 의식을 행함으로 그들은 그들 편에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의 조건들을 성취할 것을 서약하였다. 그들은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율법에 대한 존경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다른 나라들의 죄된 행습에 가담할 유혹을 받게 되며 우상숭배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PP 138.1}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명예를 주셨다. 하늘의 천사들은 친구가 친구에게 하듯이 그와 동행하며 담화하였다. 소돔에 심판이 내리려고 할 때에 그 사실은 그에게 숨겨지지 않았고, 그는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재하는 자가 되었다. 그와 천사들과의 회견은 또한 환대에 대한 아름다운 모본을 제시한다. {PP 138.2}

무더운 여름 한낮에 부조는 조용한 풍경을 바라보면서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 그 때 그는 멀리서 세 행인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았다. 그의 장막에 이르기 전에 행인들은 잠시 멈추어 그들이 갈 길을 의논하는 것같이 보였다. 그들이 호의를 구하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아브라함은 급히 일어났다. 그리고 그들이 명백히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는 빨리 그들을 따라가서 최고의 예의를 갖추어 자신의 장막에 머물러 쉬어 가기를 권하였다. 그는 그들이 여행으로 발에 묻은 먼지를 씻을 물을 손수 떠왔다. 그는 몸소 그들의 음식물을 선택하여 그들이 서늘한 그늘 아래서 휴식하는 동안 연회를 준비하였고, 그들이 대접을 받는 동안 그들 곁에 정중히 서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정중한 행동을 당신의 말씀 가운데 기록할 만큼 중요하게 여기셨으며, 천년 후에 영감 받은 사도는 그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히 13:2). {PP 138.3}

아브라함은 그의 손님들에게서 피곤한 세 행인들만 보았으나 그 가운데는 그가 경배해야 할 죄 없는 한 분이 계셨다는 사실을 거의 생각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제 하늘에서 온 사자들의 참 성격이 드러났다. 그들은 비록 진노의 사자들로서 가는 도중이었으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는 먼저 축복을 말하였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저지하고 죄과를 벌하기에 엄격하지만, 보복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멸망시키는 일은 사랑이 무한하신 그분께는 "생소한 일"이다. {PP 138.4}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음이여"(시 25:14).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였으므로 주께서는 그를 당신의 의논 가운데 참여시키고 당신의 목적을 그에게 밝힘으로 그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창 18:17~33 참고). 하나님께서는 소돔의 죄악의 정도를 잘 아셨으나, 당신께서 처리하시는 일의 공의가 이해될 수 있도록 사람의 방법대로 당신 자신을 나타내셨다. 범법자들에게 심판을 내리기 전에 그분께서는 친히 가셔서 그들의 행위를 심사하고자 하셨으며, 만일 그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자비의 한계를 넘지 않았으면,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실 것이었다. {PP 139.1}

하늘의 두 기별자들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된 그분을 그에게 홀로 남겨 두고 떠났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은 소돔 거민을 위하여 탄원하였다. 한때 그는 그들을 칼로 구원한 일이 있었으나 이제는 그들을 기도로써 구원하고자 노력하였다. 롯과 그의 가족은 아직도 그곳에 살고 있었다. 그들을 엘람 사람들에게서 구원하였던 아브라함의 이기심 없는 사랑은, 만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폭풍 가운데서 구원하고자 하였다. {PP 139.2}

깊은 존경과 겸비로 그는 탄원하였다.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자만심도, 자신의 의를 자랑함도 없었다. 그는 순종이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라고 드린 희생들을 근거로 은총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그 자신이 죄인으로서 죄인을 위하여 간구하였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모두 이와 같은 정신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간청하는 어린아이의 확신을 나타내었다. 그는 하늘의

크신 사자에게 가까이 나아가 열렬히 탄원하였다. 비록 롯이 소돔에서 살았을지라도 그는 소돔 사람들의 죄악에 참여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에 참 하나님을 섬기는 다른 사람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그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라고 간청하였다. 아브라함은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구하였다. 그의 요구가 허락됨에 따라 점점 더 대담하게 되어 그는 열 명의 의인만 있어도 그 도시가 멸망되지 않으리라는 보증을 얻기까지 계속하였다. {PP 139.3}

멸망하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힘을 불어넣었다. 그는 저 부패한 도시의 죄는 미워하였으나 죄인들은 구원 얻게 되기를 원하였다. 소돔을 위한 그의 깊은 관심은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느껴야 할 걱정을 나타낸다. 우리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야 하나 죄인에 대해서는 동정과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우리 주위에는 소돔에 임했던 것과 같은 무섭고도 절망적인 파멸로 달려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다. 날마다 누군가의 은혜의 시기는 끝나고 있다. 시간마다 누군가는 자비가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런데 죄인으로 이 무서운 운명에서 피하도록 하는 경고와 간청의 음성은 어디에 있는가? 그를 죽음에서 건져내려고 뻗친 손은 어디에 있는가? 겸비와 끈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가? 아브라함의 정신은 그리스도의 정신이었다.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죄인을 위한 크신 중재자이시다.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값을 치르신 그분은 인간의 영혼의 가치를 아신다. 티 없이 순결한 상태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악에 대한 적개심과 함께 그리스도께서는 무한한 선만이 품을 수 있는 사랑을 죄인에게 나타내셨다. 온 세상의 죄의 무거운 짐을 몸소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통 중에서도 그분께서는 당신 자신을 능욕하는 자들과 살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 23:34)라고 기도하셨다. {PP 140.1}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약 2:33; 롬 4:11)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충성스러운 족장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창 26:5, 18:19)라는 말씀이다. 여러 세기 동안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진리의 수호자요 보존자들이었던 백성들, 곧 그들을 통하여 세상의 온 민족들이 약속된 메시야의 강림으로 축복을 받게 될 백성들의 조상이 되도록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것은 큰 영광이었다. 그러나 그를 부르신 분은 그가 그럴 만하다고 판단하셨다.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장래 생각을 아시고 사람들을 바르게 평가하시는 분이 "내가 그를 안다"(흠정역 참고)고 말씀하신다. 아브라함 편에서 이기적 목적으로 진리를 배반하는 일은 없을 것이었다. 그는 율법을 지킬 것이요 공정하고 의롭게 처신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이 주를 경외할 뿐 아니라 자신의 가정에서 종교를 신장할 것이었다. 그는 자기 가족을 의로써 가르칠 것이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의 가족 사이의 규범이 될 것이었다. {PP 140.2}

아브라함의 식구는 천명 이상이나 되었다. 그의 교훈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인도함을 받은 자들은 그의 장막에서 같이 살았으며, 여기서 그들은 학교에서처럼 참된 신앙의 대표자가 될 준비를 갖출 교육을 받았다. 그와 같이 무거운 책임이 그에게 지워져 있었다. 그는 각 가장들을 교육하고 있었으며 그의 관리 방법은 그들이 거느려야 할 가족들에게서 실시될 것이었다. {PP 141.1}

고대에는 아버지가 자기 가족들의 지배자요 제사장이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녀들에게 그들이 자신의 가족들을 가진 후에까지도 권위를 행사하였다. 그의 후손들은 그를 종교적인 일이나 세속적인 일에 있어서 지도자로 우러러보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이 족장 관리 제도를 영구히 존속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매우 넓게 퍼지고 뿌리 깊이 박힌 우상숭배를 막을 방벽을 만들기 위하여 가족 전원을 하나로 묶는 것이 필요하였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힘이 미치는 한 모든 수단을 다하여 그의 진영에서 동거하는 자들이 이방인들과 섞이며 그들의 우상숭배 행위를 목격하는 것을 경계하려고 노력하였다. 악과 친숙하게 되면 모르는 사이에 원칙을 부패시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었다. 모든 형태의 거짓 종교를 막고 예배할 참 대상으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마음에 새기는 일에 가장 큰 주의를 기울였다. {PP 141.2}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능한 한 이방인과의 교제를 끊고 홀로 거하며 열방 중에 끼어들지 않도록 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 마련하신 현명한 배려였다. 그의 가족들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더라면 그들을 둘러쌌을 매혹적 감화에서 떠나도록 그들을 훈련시키며 교육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참된 신앙이 대대로 그의 후손들을 통해 순전하게 보존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께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친족으로부터 아브라함을 분리시키셨다. {PP 141.3}

그의 자녀와 가속들에 대한 깊은 애정에서 아브라함은 그들의 신앙을 보살펴 주었으며, 그가 그들과 그들을 통하여 세상에 전해 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전승물로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지식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 하에 있다는 가르침을 받았다. 부모들 편에서는 압제를 하지 말아야 하고 자녀들 편에서는 불순종하지 말아야 하였다. 하나님의 율법은 각자에게 할바 의무를 부과하였고, 누구든지 그것에 순종함으로써만이 행복과 번영을 얻을 수 있었다. {PP 142.1}

그 자신의 모본, 곧 일상생활의 묵묵한 감화는 끊임없는 교훈이었다. 그의 변함없는 성실, 곧 왕들의 칭찬을 받았던 덕행과 이기심 없는 예절은 가정에서도 나타났다. 생활 주변에는 향기가 있었다. 곧 품성의 고결함과 사랑스러움이 있었다. 이것들은 그가 하늘과 연결된 사람임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냈다. 그는 가장 비천한 종의 영혼도 무시하지 않았다. 그의 가정에는 주인을 위한 법과 종을 위한 다른 법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부자를 위한 훌륭한 길과 가난한 자를 위한 다른 길이 놓여 있지 않았다. 모든 사람들은 그와 함께 생명의 은혜의 후사로서 공의와 긍휼로 대접받았다. {PP 142.2}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자녀들의 악한 성향을 제지하지 않는 죄된 태만도, 유약하고 현명하지 못한 편애도, 잘못된 애정의 요구에 대하여 의무에 대한 그의 확신을 굽히는 일도 없을 것이었다. 아브라함은 바른 교훈을 줄 뿐 아니라 공정하고 의로운 율법의 권위를 유지할 것이었다. {PP 142.3}

우리 시대에 이같은 모본을 따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적은가! 너무도 많은 부모들이 사랑이라는 잘못된 미명 하에 맹목적이고 이기적인 감상주의에 빠져 있다. 그리하여 자녀들은 미숙한 판단과 제어되지 않은 정욕을 가진 채 그들 자신의 뜻대로 행하도록 방임된다. 이것은 청년들에 대하여 정말로 잔인한 짓이요 세상에 대하여 큰 과오를 범하는

것이다. 부모의 방임이 가정과 사회에 있는 무질서의 원인을 이룬다. 이것이 청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대신에 자신의 성향(性向)에 따르고자 하는 욕망을 굳게 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장하여 그들의 불경하고 불순종하는 정신을 자녀들과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전한다. 아브라함처럼 부모들은 가족에게 저들을 따르도록 명령해야 한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첫 단계로서 부모의 권위에 순종할 것을 가르치고 실행하게 하라. {PP 142.4}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율법을 과소평가함으로 큰 악이 생겨났다. 세상에 널리 퍼진, 하나님의 율법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구속력이 없다는 가르침은 백성들의 품행에 우상숭배와 같은 결과를 끼친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저하시키려고 하는 자들은 가정과 국가를 지배하는 기초를 직접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다. 신앙을 가진 부모들이 하나님의 법도대로 행치 아니하며 그들의 가족들에게도 주의 길을 따르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율법이 생활의 법칙이 되고 있지 않다. 그리하여 자녀들은 그들 자신의 가정을 이룰 때 그들이 결코 배운 일이 없는 것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의무를 느끼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믿음이 없는 가정이 그렇게도 많은 이유요, 부패와 타락이 그처럼 깊고 넓게 퍼져 있는 이유이다. {PP 143.1}

부모들 자신이 완전한 마음으로 주의 율법 안에서 행하기 전에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자신들을 따르라고 요구할 준비가 갖추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개혁이 필요한데, 그것은 깊고 넓은 개혁이 될 것이다. 부모들도 개혁을 필요로 하며, 목사들도 개혁을 필요로 한다. 그들은 그들의 가정 내에 하나님을 모실 필요가 있다. 만일 상황이 달라지기를 기대할 것 같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가족들에게 소개하며 그것을 그들의 상담역으로 삼아야 한다. 그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이것은 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므로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그들은 참을성 있게 자녀들을 교육해야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방법을 친절하고 끈기 있게 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그런 가정의 자녀들은 불신의 궤변에 대처할 준비가 갖추어질 것이다. 그들은 성경을 그들의 신앙의 기초로 받아들일 것이며 밀려오는 무신론의 물결에도 휩쓸릴 수 없는 기초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PP 143.2}

너무나 많은 가정에서 기도가 등한시된다. 부모들은 조석으로 예배드릴 시간이 없다고 느낀다. 그들은 그분의 풍성한 자비, 곧 식물이 무성하게 자라도록 하는 복된 햇빛과 소나기 그리고 거룩한 천사들의 보호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적은 시간도 할애할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위하여, 그리고 가정에 예수께서 임재하시도록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들은 하나님이나 하늘에 대한 생각은 조금도 없이 소나 말이 일하러 나가듯이 일터로 나아간다. 그들은 소망 없이 멸망을 당하도록 내버려두기에는 너무도 귀한 영혼들이다. 곧 그들을 속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의 크신 선하심에 대하여 멸망할 짐승만큼도 감사할 줄을 모른다. {PP 143.3}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은 옛날의 부조들처럼 장막을 치는 곳마다 주께 제단을 쌓아야 한다. 각 가정마다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때가 있었다면 그때는 바로 지금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신들과 자녀들을 위하여 탄원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주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아내와 자녀들이 기도와 찬송으로써 연합하는 동시에, 아버지는 가족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제단에 조석으로 희생을 드리도록 하라. 예수께서는 이런 가정에 머무르기를 좋아하실 것이다. {PP 144.1}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으로부터 거룩한 빛이 비쳐 나와야 한다. 사랑이 행동에 나타나야 한다. 그것은 사려 깊은 친절과 너그럽고 이기심 없는 예절 가운데 나타남으로 가정의 모든 상호 관계 가운데서 흘러나와야 한다. 이 원칙이 실천되는 가정들, 곧 하나님을 예배하며 가장 참된 사랑이 다스리는 가정들이 있다. 이런 가정들에서는 조석 기도가 아름다운 향연처럼 하나님께 올라가고 그분의 긍휼과 축복이 아침 이슬처럼 간구자들에게 내려온다. {PP 144.2}

질서 정연한 그리스도인 가정은 그리스도인 신앙의 실재에 대한 강력한 논증, 곧 불신자가 논박할 수 없는 논증이다. 모든 사람들은 자녀들을 감화시키는 감화력이 그 가정에 역사하고 있으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가정들이 올바른 종교적 특성을 지닌다면 그들은 선을 위하여 유력한 감화를 끼칠 것이다. 그들은 참으로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러운 모든 부모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대로 말씀하신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PP 144.3}

13장 믿음의 시험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리라는 약속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으나,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시간과 방법대로 당신의 말씀을 성취시키시도록 기다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지체되는 일을 허락하셨으나 그는 그 시험을 견디는 데 실패하였다. 사라는 자신이 나이 많아 자녀를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지도 모를 방법으로서 자신의 여종들 가운데 한 사람을 아브라함이 취하여 첩으로 맞이해야 한다고 제의하였다. 일부다처는 아주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어 버렸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는 일이었으며 가족 관계의 신성성과 평화에 치명적이었다. 아브라함과 하갈과의 결혼은 그의 가정뿐 아니라 후대에까지 나쁜 결과를 빚어내었다. {PP 145.1}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새로운 지위를 얻은 영광에 우쭐하게 되고, 그의 후손으로 이루어질 큰 민족의 어미가 되리라는 것을 믿고 교만해져서 자신의 여주인을 멸시하였다. 서로의 질투는 한때 행복했던 가정의 평화를 어지럽혔다. 양쪽의 불평을 듣게 된 아브라함은 조화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헛수고였다. 하갈과 결혼한 것은 사라의 열렬한 간청에 의한 것이었으나 사라는 이제 잘못한 사람은 아브라함인 것처럼 그를 나무랐다. 사라는 그의 경쟁자를 쫓아내기를 바랐으나 아브라함은 이 일을 허락하기를 거절하였다. 왜냐하면 하갈은 그가 열망한 대로 약속의 아들인 자신의 아들의 어미가 되어야 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사라의 종이었으므로 아브라함은 그 여자를 사라의 수하에 두었다. 하갈의 거만한 정신은 자신의 무례한 태도가 초래한 호된 비난을 참으려고 하지 않았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창 16:6~13 참고). {PP 145.2}

하갈이 광야로 가서 친구 없이 외롭게 한 샘물 곁에서 쉴 때에, 주의 천사가 인간의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는 그 여자의 지위와 의무를 상기시켜 주기 위하여 “사라의 여종 하갈”이라고 말하면서 그 여자에게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책망에는 위로의 말이 섞여 있었다.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영원히 생각나게 해줄 사람으로서, 그 여자는 자신의 아이를 이스마엘 곧 “하나님이 들으심”이라고 부르라는 명령을 받았다. {PP 145.3}

아브라함이 거의 백세가 되었을 때, 장래의 후사는 사라의 아들이어야 한다는 보증과 함께 아들에 대한 약속이 그에게 반복되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직도 그 약속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의 마음은 한때 이스마엘에게로 향하였고, 그는 이스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이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에 집착하였다. 그는 자신의 아들에 대한 애정으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부르짖었다. 다시 오해할 수 없는 말씀으로 약속이 주어졌다.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기도에 무심하지 아니하셨다. 그분은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PP 146.1}

거의 평생을 두고 기다린 후에 얻은 그들의 가장 귀중한 소망의 성취인 이삭의 출생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장막을 기쁨으로 채웠다. 그러나 이 사건이 하갈에게는 그가 열망했던 야망의 좌절이었다. 이제 청년이 된 이스마엘은 진중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재산의 상속인이요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된 축복의 후사로 생각되어 왔다. 이제 그는 돌연 밀려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실망한 가운데 모자는 사라의 아들을 미워하였다. 일반 사람들의 기쁨은 그들의 질투심을 증가시켜 마침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후사에 대하여 공공연한 조롱을 서슴지 않았다. 사라는 이스마엘의 불온한 성질이 영원한 불화의 근원이 될 것을 알고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진중에서 내보낼 것을 호소하였다. 부조는 큰 곤란에 빠졌다. 아직도 극진히 사랑하는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그가 어떻게 내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는 근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간구하였다. 주께서는 한 거룩한 천사를 통하여 사라의 소원을 허락하도록 그에게 지시하셨다. 이것만이 그의 가정에 조화와 행복을 회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스마엘이나 하갈에 대한 그의 사랑이 방해가 되지 말아야 하였다. 그리고 그 천사는 비록 이스마엘이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그의 생명은 보존될 것이며 그는 큰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는 위안의 약속을 그에게 주었다. 아브라함은 천사의 말을

순종하였으나 거기에는 살을 에는 듯한 괴로움이 있었다. 그가 하갈과 자신의 아들을 내보낼 때, 아버지로서의 그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짓눌렸다. {PP 146.2}

결혼 관계의 신성함에 관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교훈은 각 시대를 통하여 교훈이 되어야 하였다. 그것은 결혼 관계의 권리와 행복은 비록 큰 희생을 치르더라도 신중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선언한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유일한 참 아내였다.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그의 권리는 다른 아무도 나누어 가질 자격이 없었다. 그 여자는 남편을 잘 공경하였으므로 이 일로 그 여자는 훌륭한 모본으로서 신약 성경 가운데 나타나 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아브라함의 애정이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으며, 주께서도 사라가 자신의 경쟁자를 내쫓으라고 요구한 일에 대하여 그 여자를 책망하지 않으셨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으니 이 과오가 하갈과의 결혼의 원인이었다. {PP 147.1}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들의 조상이 되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셨으므로 그의 생애는 후대 사람들에게 신앙의 모본이 되어야 하였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완전하지 못하였다. 그는 사라가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을 감춤으로, 또 하갈과 결혼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나타내었다. 그로 가장 높은 표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사람이 견디도록 부름을 받은 시험 가운데 가장 견디기 힘든 다른 시험을 당하게 하셨다. 아브라함은 밤의 이상 중에,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에게 보여 주게 될 산에서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지시를 받았다. {PP 147.2}

이 명령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120세였다. 그는 그의 세대에서도 노인으로 간주되었다. 그는 젊은 시절에는 어려운 일도 견디고 위험한 일도 용감하게 밀고 나갈 만큼 굳센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청춘의 열정도 사라져 버렸다. 무덤을 향하여 비틀거리는 발걸음을 옮겨 놓는 노년에는 낙담케 할 곤란과 고통도 성년의 활력이 왕성할 때에는 용감하게 맞이할 수 있다. 그러나 노령의 짐이 그를 짓눌러서 그가 걱정과 수고에서 쉬기를 바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혹독한 시험이었던 당신의 마지막 시험을 보류하셨다. {PP 147.3}

부조는 번영과 명예를 누리며 브엘세바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매우 부요하였으며 그 땅의 통치자들로부터 유력한 군주로 존경을 받고 있었다. 수천의 양과 가축이 그의 장막 저편에 펼쳐진 평야들을 뒤덮고 있었다. 사방에는 그의 가신(家臣)들의 장막, 곧 수백 명의 충성된 종들의 집들이 있었다. 약속의 아들은 장성하여 성년이 되어 그의 곁에 있었다. 하늘은 지연된 소망을 참을성 있게 기다린 희생의 생애를 축복으로 관 씌운 것처럼 보였다. {PP 147.4}

믿음으로 순종하여, 아브라함은 그의 고국을 버렸으며 선산(先山)과 친족이 사는 고향을 떠나왔다. 그는 자신의 유업의 땅에서 나그네처럼 방황하였다. 그는 약속된 후사의 출생을 오래 기다렸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는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냈다. 그런데 이제 그처럼 오랫동안 소망했던 아들이 성년이 되어가고 있었을 때, 그리하여 부조가 그의 소망의 결실을 식별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을 때, 그의 앞에는 다른 모든 시험보다도 훨씬 더 큰 시험이 이르러 왔다. {PP 148.1}

그 명령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고통으로 찢어지게 했음에 틀림이 없었을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되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번제로 드리라”(창 22:2). 이삭은 그의 가정의 빛이요, 그의 노령의 위로요, 다른 모든 것보다도 약속된 축복의 후사였다. 그런 아들을 사고나 질병으로 잃는다 해도 사랑하는 아버지에게는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었을 것이요, 백발이 된 그를 슬픔에 잠기게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친히 자신의 손으로 그 아들의 피를 흘리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것은 그에게 도저히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다. {PP 148.2}

거룩한 율법에 “살인하지 말지니라”고 했으며 또 하나님께서는 일단 당신께서 금하신 바를 요구하실 리가 없으므로, 그는 틀림없이 속임을 당하였을 것이라고 사단은 곁에서 암시하였다. 아브라함은 장막 밖으로 나가 맑게 개인 고요한 하늘의 광채를 우러러보며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많으리라던 근 50년 전의 약속을 회상하였다. 만일 이 약속이 이삭을 통하여 성취되어야 한다면 어떻게 그가 죽임을 당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자신이 기만을 당했을 것이라고 믿도록 유혹을 받았다. 의심과 고민 중에 그는 땅에 엎드려 이 무서운 의무를 수행해야 할 것인지, 주어진 명령의 확실성을 알고자 이전에 결코 그같이 해본 적이 없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그는 소돔을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에게 보여 주도록 보내심을 받은 천사들, 바로 이 아들 이삭에 관한 약속을 전달한 천사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만나 더 자세한 지시를 받을 희망을 품고 여러 번 하늘의 사자들을 만났던 곳으로 가 보았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구원하러 오지 않았다. 암흑이 그를 에워싼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데리고"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의 귀에 쟁쟁히 울리고 있었다. 그 명령에 순종해야 했으므로 그는 감히 지체할 수 없었다. 날이 밝아오므로 그는 여행길에 올라야 하였다. {PP 148.3}

장막으로 돌아온 그는 이삭이 깊은 잠, 곧 아무것도 모르고 젊음의 단잠을 자고 있는 곳으로 갔다. 아버지는 잠시 그의 아들의 사랑스런 얼굴을 바라본 후 떨면서 돌아섰다. 그는 사라 곁으로 갔는데, 그녀도 자고 있었다. 사라를 깨워서 한 번 더 그의 아들을 안아 보도록 해야 할까? 하나님의 요구를 그에게 말해야 할까? 그는 마음을 그에게 털어놓고 이 무서운 의무를 그와 분담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사라가 자신의 일을 방해할까봐 두려워서 자제하였다. 이삭은 그녀의 기쁨과 자랑이었고 그녀의 생명은 그와 결탁되어 있었으므로 모성애가 그 희생을 거절할지도 몰랐다. {PP 148.4}

마침내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을 불러 먼 산에서 희생을 드리라는 명령에 대하여 그에게 말하였다. 이삭은 종종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유랑 생활을 말해 주는 어떤 제단들에 예배하러 갔었음으로 이 부름이 아무런 놀라움을 주지 않았다. 여행 준비는 빨리 끝났다. 나무는 준비되어 나귀에 실렸고 그들은 두 하인과 함께 출발하였다. {PP 151.1}

아버지와 아들은 나란히 서서 말없이 여행하였다. 아브라함은 엄청난 비밀에 대한 생각으로 말할 마음이 없었다. 그는 아들을 자랑하고 사랑하는 어머니와 또 그가 혼자 그 여자에게로 돌아가야 할 날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칼이 그 여자의 아들의 생명을 끊을 때에 그것이 그 여자의 가슴을 찌르리라는 것을 잘 알았다. {PP 151.2}

아브라함이 여태껏 경험했던 것 가운데 가장 길었던 그 하루는 천천히 저물어 갔다. 그의 아들과 하인들이 자고 있는 동안에 그는 기도로 밤을 지새우며 아직도 어떤 하늘의 사자가 찾아와서 시험은 이것으로 넉넉하며, 청년은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그의 어머니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해 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의 고통당하는 영혼에게는 구원이 이르러 오지 않았다. 또 긴 하루와, 겸비와 기도의 밤이 지나갔으나

그를 무자(無子)하게 만들게 될 명령만이 그의 귀에 쟁쟁하였다. 사단은 가까이서 의심과 불신을 속삭이었으나 아브라함은 그의 암시들을 물리쳤다. 그들이 셋째 날의 여행을 시작하려고 하였을 때 북쪽을 바라보던 아브라함은 약속의 표인 영광의 구름이 모리아 산 위에 배회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자신에게 말한 음성이 하늘에서 온 것임을 알았다. {PP 151.3}

지금도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고 주의 선하시고 진실하신 증거를 생각함으로 그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였다. 이 아들은 예기치 않게 주어졌으니 귀중한 선물을 주신 분께서 당신 자신의 것을 다시 취하실 권리가 없으시겠는가? 그 때 믿음은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는 약속 곧,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시리라는 약속을 반복하였다. 이삭은 기적의 아들이었으니 그에게 생명을 준 능력이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없겠는가? 보이는 것 저편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히 11:19)하였다. {PP 151.4}

그러나 하나님밖에 아무도 그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 주는 아버지의 희생이 얼마나 컸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그 고별의 장면을 목격하기를 원치 않았다. 그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창 22:5~8 참고)고 말하여 하인들을 뒤에 머물러 있게 하였다. 나무는 제물이 될 이삭에게 지우고 아버지는 칼과 불을 가지고 그들은 함께 산꼭대기를 향하여 올라갔다. 이삭은 우리와 양떼가 없는데 어디서 제물을 구할 것인지 내심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마침내 그는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양은 어디 있나이까"라고 말하였다. 오! 이 얼마나 무서운 시험이었는가! "내 아버지여"란 사랑스러운 말이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을 찔렀던가! 그러나 아직은 아니었다. 그는 지금은 그에게 말할 수 없었다. 그는 "아들아 번제할 어린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말하였다. {PP 152.1}

지정된 장소에 이르러 그들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놓았다. 그 후에 아브라함은 떨리는 음성으로 하나님의 기별을 아들에게 알렸다. 이삭은 그의 운명을 알고 두려워하고 놀랐으나, 아무 저항을 하지 않았다. 이삭은 그렇게 하기로 선택했더라면 자신의 운명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며, 그 격렬했던 삼 일간의 투쟁에 지쳐서 비탄에 빠진

노인은 혈기 왕성한 청년의 뜻을 꺾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삭은 유년 시절부터 즉시 신뢰하고 순종하도록 훈련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자신에게 알려졌을 때 그는 자원해서 순종하였다. 그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누어 가진 사람이었으므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였다. 그는 아버지의 슬픔을 덜어 드리려고 애쓰며 그의 활기 없는 손을 북돋아 자신을 제단에 붙들어 매는 줄을 매게 했다. {PP 152.2}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며, 마지막 눈물을 흘리고 마지막 포옹을 한다. 아버지는 그의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든다. 이 때 갑자기 그의 팔이 정지된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부른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재빨리 대답한다. 또다시 음성이 들린다.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창 22:11~18 참고). {PP 152.3}

그 때 아브라함은 “한 숫양이…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재빨리 그 새 제물을 가져다가 그것을 “아들을 대신하여” 드렸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브라함은 그 거룩한 곳에 “여호와 이레”, 곧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새 이름을 붙여 주었다. {PP 153.1}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당신의 언약을 새롭게 하시고 엄숙한 맹세로써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앞으로 다가올 모든 세대를 통하여 받을 축복을 확증하셨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창 22:16~18)이니라. {PP 153.2}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의 행위는 불기둥처럼 서서 모든 후대의 하나님의 종들의 진로를 비추고 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를 기피하려고 하지 않았다. 만일 그가 의심하려고 하였더라면 삼일 간의 여행 중에 이유를 따지고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것은 그로 살인자, 곧 제2의 가인으로 주목을 받게 하는 원인이 될 것이며, 그의 가르침이 거절과 멸시를 당하여 이웃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그의 능력을 손상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이유를 제기할 수도 있었다. 그는 또한 나이를 이유로 순종의 의무에서 면제 되어야 한다고 간청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느 것을 핑계로 피난처를 찾고자 하지 않았다. 아브라함도 인간이었고 그의 애정과 애착도 우리의 그것과 같았다. 그러나 그는 이삭이 죽임을 당하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머뭇거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아픈 마음을 구실로 이유를 따지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요구에 있어서 공평하고 의로우심을 알고 명령을 문자 그대로 순종하였다. {PP 153.3}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약 2:23). 바울은 말하기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줄 알지어다"(갈 3:7)라고 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행위로 나타났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약 2:21, 22).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라 그러면 그대는 안전하다. 그대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순종을 통해 나타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요 8:39)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충실한 자들의 조상에 관하여 주께서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창 26:5)고 선언하신다. 사도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약 2:17)고 말한다. 그리고 그처럼 철저하게 사랑을 강조한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요일 5:3)고 말한다. {PP 153.4}

하나님께서는 예표와 약속을 통하여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갈 3:8)셨다. 그러므로 그 부조의 믿음은 오실 구주에게 고정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요 8:56)고 말씀하셨다.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려진 어린양은 우리 대신 희생당하시기로 되어 있던 하나님의 아들을 대표하였다.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여 죽을 운명에 처했을 때

하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쳐다보며 죄인에게 “살라. 내가 대속물을 찾았노라”고 말씀하신다. {PP 154.1}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동시에 복음의 실재를 그의 마음에 새겨 주기 위함이었다. 그 무서운 시련의 어두운 날 동안 그가 참은 고통은 그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속하기 위하여 치르신 희생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려고 허락되었다. 아무 다른 시험도 그의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과 같은 영혼의 고통을 아브라함에게 일으킬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고통과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도록 내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의 치욕과 영혼의 고뇌를 목격한 천사들은 이삭의 경우처럼, 중재하도록 허락되지 않았다. “족하다”라고 부르짖는 어떤 음성도 없었다.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려고 영광의 왕께서 당신의 생명을 포기하셨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동정과 사랑에 대하여 이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주어질 수 있겠는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롬 8:32). {PP 154.2}

아브라함에게 요구된 희생은 그 자신의 유익이나 후대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늘과 다른 세계들의 무죄한 지적 존재들을 교훈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싸움터, 곧 구속의 경륜이 실현되는 장소는 우주의 교과서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부족을 나타냈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그가 언약의 조건을 따르지 못하였다고 비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를 고소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온 하늘 앞에서 당신의 종의 충성심을 증명하여 완전한 순종만이 받으시는 바 된다는 것을 나타내며 구속의 경륜을 그들 앞에 더욱 완전하게 밝히고자 하셨다. {PP 154.3}

하늘의 존재들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이 시험당하던 광경을 목격하였다. 그 시험은 아담에게 주어진 것보다 훨씬 더 혹독하였다. 우리의 첫 조상에게 주어진 금령을 순응하는 데는 고통이 따르지 않았으나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에는 가장 고통스러운 희생이 요구되었다. 온 하늘은 아브라함의 확고부동한 순종을 경이와 감탄 가운데 바라보았다. 온 하늘은 그의 충성됨을 칭찬하였다. 사단의 고소가 거짓됨이 드러났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에게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사단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선언하셨다. 다른 세계의 지성들 앞에서 맹세로써 아브라함에게 확증된 하나님의 언약은, 순종은 보상을 받게 되리라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PP 155.1}

천사들까지라도 구속의 오묘,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늘의 사령관께서 범죄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이 내렸을 때, 온 하늘 존재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들은 열렬한 관심을 가지고 이 명령이 성취되는 매 단계를 주시하였다. “번제할 어린양은 어디 있나이까”라는 이삭의 물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대답하였을 때,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막 죽이려는 찰나 그의 손이 멈추어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양이 이삭 대신에 드려졌을 때, 바로 그 때 구속의 신비 위에 빛이 비쳤으며, 천사들도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놀라운 준비를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였다(벧전 1:12 참고). {PP 155.2}

14장 소돔의 멸망

그 비옥함과 아름다움에 있어서 “여호와의 동산”(창 13:10) 같았던 소돔은 요단 계곡의 도시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웠으며 평야에 세워져 있었다. 이곳에는 화려한 열대성 식물이 무성하였다. 이곳은 종려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의 원산지로 꽃들은 일 년 내내 향기를 뿜었다. 풍부한 수확물들은 들을 옷 입히고 양떼와 가축 떼들은 주위의 산들을 덮었다. 예술과 상업은 평야의 거만한 도시를 부요하게 하는 데 공헌하였다. 동방의 보물들은 소돔의 궁궐들을 장식하였고, 사막의 대상(隊商)들은 그들의 귀중한 상품들을 소돔 시장에 내놓기 위해 가지고 왔다. 생각이나 노력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생활의 모든 필요는 충족될 수 있었으며 일 년 내내 축제가 연속되는 것처럼 보였다. {PP 156.1}

어느 곳에서나 지나친 부요는 사치와 교만의 원인이었다. 게으름과 부요함은 결핍으로 억압되거나 슬픔으로 괴롭힘을 당한 일이 없는 마음을 완고하게 한다. 쾌락에 대한 사랑은 재물과 여가로 말미암아 촉진되었으며 백성들은 육욕의 방종에 빠졌다. 예언자는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겔 16:49, 50)고 말하였다. 사람들에게 부와 여가보다 더 바라는 바는 없으나, 이것은 그 평야의 도시들에 멸망을 가져온 죄를 낳게 하였다. 그들의 무익하고 게으른 생활은 자신들을 사단의 유혹의 밥이 되게 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켰으며 하나님처럼 되기보다는 악마같이 되었다. 게으름은 사람에게 닥칠 수 있는 가장 큰 저주이다. 왜냐하면 악습과 범죄가 그것에 잇따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음을 약하게 하고 이해력을 왜곡시키며 영혼을 저하시킨다. 사단은 방심하고 있는 자들을 멸망시킬 준비를 갖추고 숨어 기다린다. 그들의 여가는 사단이 다소 매력적인 변장을 하고 교묘하게 침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사단은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갈 때 가장 큰 성공을 거둔다. {PP 156.2}

소돔에는 환락과 주연, 연회와 술 취함이 있었다. 가장 비열하고 가장 야수적인 정욕들이 제어되지 않았다. 백성들은 공공연히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을 무시하였으며

포악한 행위를 즐겼다. 그들 앞에는 홍수 전 세상의 실례도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이 멸망당한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들은 동일한 악의 길을 따랐다. {PP 157.1}

롯이 소돔으로 이주할 당시에는 부패가 전면적인 것은 아니었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 가운데서 도덕적인 암흑을 비출 빛줄기를 허락하셨다. 아브라함이 엘람 사람들로부터 포로들을 구원하였을 때, 백성들의 주의는 참된 신앙에로 이끌렸다. 아브라함은 소돔 사람들에게 낯선 사람이 아니었고, 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은 그들 가운데 조롱거리가 되었으나 그가 크게 우세한 군대를 쳐부수고 승리를 얻은 것과 포로들과 전리품을 관대하게 양도한 일은 저들의 경이와 감탄을 자아내었다. 그의 전략과 무용(武勇)이 칭송을 받는 한편,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승리자로 만들었다는 확신을 아무도 거부할 수 없었다. 이기적인 소돔 주민과는 전혀 다른 고상하고 이기심 없는 정신은 그가 용기와 충성심으로 영광스럽게 한 그의 종교의 우수성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였다. {PP 157.2}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빌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힘의 근원이요, 승리의 주인공임을 시인하였다. “천지의 주재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창 14:19, 20).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로써 그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계셨으나, 이전의 모든 빛이 그러했던 것처럼 마지막 빛줄기도 거절당하였다. {PP 157.3}

이제 소돔의 마지막 밤이 가까워 오고 있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구름이 이 운명 지어진 도시에 그늘을 던지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천사들이 그들을 멸망시킬 사명을 띠고 가까이 오고 있는 동안에도 사람들은 번영과 향락을 꿈꾸고 있었다. 마지막 날도 이전에 왔다간 모든 날과 다름이 없었다. 사랑스럽고 안전한 광경 위에 저녁이 찾아왔다. 비할 수 없이 아름다운 풍경은 지는 햇빛 속에 잠기었다. 저녁 무렵의 시원함은 도시의 주민들을 불러내었으며 향락을 추구하는 무리들은 그 시간을 즐기고자 왔다 갔다 하였다. {PP 157.4}

황혼녘에 두 낯선 사람들이 성문 가까이 이르렀다. 그들은 언뜻 보기에 소돔에서 밤을 새러 온 여행자들처럼 보였다. 아무도 이 초라한 행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들이라는

것을 통찰할 수 없었으며, 들뜨고 경솔한 군중들은 이 하늘의 사자들을 취급한 일을 통하여 자신들이 바로 그 밤에 그들의 자랑스러운 도시를 멸망케 한 죄악의 절정에 도달하리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 낯선 행인들에게 친절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한 한 사람이 있었다. 롯은 그들의 참 신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에게는 예절과 후대의 습관이 있었다. 그것들은 그의 종교의 일부분이었는데, 아브라함의 모본에서 배운 교훈이었다. 그가 예절의 정신을 배양하지 않았더라면 나머지 소돔 사람들과 함께 멸망당하도록 내버려졌을 것이다. 많은 가정에서 낯선 사람에게 문을 닫음으로 축복과 희망과 평화를 가져왔을 하나님의 사자를 내쫓았다. {PP 158.1}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생애의 모든 행위는 선한 일이나 악한 일에 관련이 있다. 가장 작은 의무처럼 보이는 일에 성실하거나 태만한 그것이 인생의 가장 부요한 축복이나 가장 큰 재난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 놓을지도 모른다. 작은 일이 품성을 시험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날마다의 꾸밈없는 극기의 행위이다. 우리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남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우리는 자신을 잊어버리고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품음으로써만이 우리의 생활을 복되게 할 수 있다. 하찮은 배려, 곧 작고 단순한 예절은 생애의 행복에 크게 기여하며, 이것들을 게을리 할 때는 적지 않은 불행을 초래하게 된다. {PP 158.2}

소돔에서 낯선 사람들이 무례한 대접을 받는 것을 보고, 롯은 그들이 들어올 때 그들을 자신의 집에서 대접함으로써 그들을 보호하는 것을 자신의 의무로 여겼다. 롯은 나그네들이 가까이 올 때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살펴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맞아 공손히 절하면서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주무시”(창 19장 참고)라고 하였다. 그들은 그의 후대를 사양하는 것처럼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고 말하였다. 그들이 이와 같이 대답한 데는 이중의 목적이 있었다. 곧 롯의 진실성을 시험하고, 또 마치 그들이 밤에 거리에서 경야하여도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처럼 보이게 해서 소돔 사람들의 품성에 대해서 모르는 체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의 대답을 듣고 롯은 그들을 폭도들의 손에 맡기지 않기로 더욱 결심하였다. 그는 그들이 자신의 말을 듣고 자신을 따라 집으로 올 때까지 그의 초청에 응하도록 강권하였다. {PP 158.3}

그는 나그네들을 우회로를 통해서 집으로 인도함으로 성문에 있던 게으름뱅이들에게 그의 의도를 감추려고 하였으나 그들의 주저와 지체, 그리고 그의 끈질긴 권유로 인하여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목격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무법자들의 무리가 그의 집 주위에 모여들었다. 그것은 가장 비열한 정욕에 불타는 젊은이와 늙은이로 된 큰 무리였다. 나그네들은 그 도시의 성격에 관하여 질문하고 롯은 그 밤에 자기 집 문밖에 나가지 않도록 그들에게 경고할 바로 그 때, 폭도들의 야유와 조롱소리가 들리며 나그네들을 자신들에게 끌어내 줄 것을 요구하였다. {PP 159.1}

그들을 폭력으로 나오게 건드렸다가는 쉽사리 집을 부수고 들어올 줄을 알고, 롯은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설득시키려고 밖으로 나갔다. 그는 그들을 달래고 자신들의 비루한 의도를 부끄럽게 여기도록 하려고 친한 이웃이란 뜻으로 "형제"란 말을 써서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의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았다. 그들의 분노는 폭풍우의 노호(怒號)처럼 되었다. 그들은 롯이 스스로 그들의 법관이 되었다고 조롱하며 그의 손님들에게 대하려 했던 것보다 그를 더 심하게 대하겠다고 위협하였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보호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그에게 달려들어 그의 몸을 갈기갈기 찢었을 것이다. 하늘의 사자들은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았다. 그 후에 일어난 사건들은 그가 대접한 손님들의 신분을 드러내었다. "문밖의 무리로 무론 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만일 그들이 완고한 마음에 자신을 내맡김으로 이중으로 눈멀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채찍을 보고 두려워서 그 악행을 단념하였을 것이었다. 그 마지막 밤이 이전의 다른 많은 밤보다도 더 큰 죄악으로 얼룩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처럼 오랫동안 멸시당한 자비는 마침내 탄원하기를 그쳤다. 소돔의 거민들은 하나님의 관용의 한계, 곧 "하나님의 참으심과 그분의 진노 사이에 감추어진 경계선"을 넘어가 버렸다. 그분의 복수의 불길이 바야흐로 싯딤 골짜기에 붙으려고 하였다. {PP 159.2}

천사들은 그들의 임무의 목적을 롯에게 드러내었다.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보호하려고 노력하였던 나그네들이 이제는 롯을 보호하며, 또 이 악한 도시에서 그와 함께 피할 그의 모든 가족을 구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폭도들은 피곤에 지쳐서 떠났고 롯은 그의

자녀들에게 경고하려고 나갔다. 그는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는 천사들의 말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롯이 농담하는 사람처럼 생각되었다. 그들은 소위 그의 미신적 공포심을 비웃었다. 그의 딸들은 그들의 남편들의 감화를 받았다. 그들은 그들이 사는 곳에서 매우 부요하였다. 그들은 위험에 대한 아무 증거도 볼 수 없었다. 모든 것은 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그들은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였으며, 아름다운 소돔이 멸망당하리라는 가능성을 믿을 수 없었다. {PP 159.3}

롯은 슬픔 가운데 집으로 돌아와서 그가 실패한 이야기를 하였다. 그 때 천사들은 그에게 일어나 그의 아내와 아직 출가하지 않은 두 딸을 데리고 그 도시를 떠나라고 하였다. 그러나 롯은 지체하였다. 비록 강포한 행위들을 보고 날마다 근심하였으나 그는 이 비루한 도시에서 행하여지는 저열하고 혐오스러운 죄악의 참 개념을 알지 못하였다. 그는 죄를 저지하여야 할 하나님의 심판의 긴급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 그의 몇 자녀들은 소돔에 밀착되어 있었으며 아내는 그들을 두고 떠나기를 거절하였다. 그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들을 두고 떠난다는 생각은 그에게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호화스러운 집과 한 평생의 노력으로 얻은 모든 재물을 버리고 빈털터리의 방랑자로 떠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슬픔으로 넋을 잃은 그는 떠나기 싫은 생각으로 머뭇거렸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니었더라면 그들은 모두 소돔과 함께 멸망당했을 것이다. 하늘의 사자들은 롯과 그의 아내와 딸들의 손을 잡아 그들을 그 도시에서 이끌어 내었다. {PP 160.1}

여기서 천사들은 그들을 떠나 멸망시키는 일을 완수하려고 소돔으로 돌아갔다. 다른 천사, 곧 아브라함이 간청하던 그분께서 롯에게 가까이 이르셨다. 평원의 모든 도시 가운데 열 사람의 의인도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나 아브라함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한 사람만 멸망을 면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는 놀랍고도 격렬한 명령이 주어졌다. 이제 주저하거나 머뭇거리는 일은 치명적인 일이 될 것이다. 저주받은 도시를 망설이면서 바라보든지, 그처럼 아름다운 집을 떠나기 싫어서 한 순간이라도 머뭇거리든지 하면 그들의 생명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폭풍우는 이 가엾은 피난자들이 도망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PP 160.2}

그러나 롯은 당황하고 두려워한 나머지, 그에게 어떤 불행이 닥쳐와 죽지나 않을까 해서 명령을 받은 대로 행할 수 없노라고 핑계하였다. 저 사악한 도시의 불신 가운데 살았으므로 그의 믿음은 희미하게 되었다. 하늘의 왕께서 그의 곁에 계셨으나, 그는 그에게 그처럼 보호와 사랑을 나타내신 하나님께서 마치 그를 보호하지 않으실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애원하였다. 그는 자신의 뜻과 생명을 주님의 손에 의심 없이 맡기고 전적으로 하늘의 사자를 의지하여야 하였다. 그러나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그는 자신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려고 하였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 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이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여기서 말한 도시는 나중에 소알이라고 불린 벨라였다. 그 도시는 소돔에서 몇 마일 떨어진 곳이었으며 소돔처럼 부패하였고 멸망당할 운명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롯은 이 성을 보존해 주시기를 간청하며 이것은 작은 요청이라고 애원하였다. 그의 소원은 허락되었다. 주께서 그에게 확언하시기를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다. 오, 과오를 범하는 당신의 피조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는 얼마나 큰가! {PP 161.1}

불의 폭풍우가 조금밖에는 더 지체되지 않을 것이므로 급히 서두르라는 엄숙한 명령이 또다시 내렸다. 그러나 피난자 중의 한 사람은 감히 운명 지어진 도시를 돌아보았으므로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념비가 되었다. 만일 롯 자신이 주저하지 않고 천사들의 경고를 순종하여 간청이나 항의의 말 한 마디도 없이 부지런히 산으로 도망하였더라면, 그의 아내도 무사히 피난하였을 것이요, 그의 모본의 감화력은 그 여자의 운명을 결정지은 죄에서 그녀를 구원해 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머뭇거림과 지체가 그 여자로 하나님의 경고를 경시하게 하였다. 그녀의 몸은 들에 나와 있으면서도 마음은 소돔에 달라붙어 있었으므로 그것과 함께 멸망하였다. 그분의 심판으로 그녀의 재산과 자녀들이 파멸을 당하게 된 까닭에 그 여자는 하나님을 배반하였다. 비록 그녀는 사악한 도시에서 불러냄을 받음으로 그처럼 큰 은총을 입었을지라도, 여러 해 걸려 모은 재산이 잿더미가 되도록 버려두어야 했기 때문에 자신이 가혹한 취급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감사함으로 구원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그 여자는 하나님의 경고를 거역한 자들의 생명을 동경해서 주제넘게도 뒤를 돌아다보았다. 그 여자의 죄는 그녀가 살 가치가 없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곧 그 여자는 생명의 보호에 대하여 그다지 감사를 느끼지 않았다. {PP 161.2}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준비를 경시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나의 아내와 자녀들이 나와 함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나는 구원 얻을 마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그들은 그렇게 사랑스러운 자들이 함께 하지 못한다면 그들에게는 하늘이, 하늘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감정을 품은 자들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선하심과 긍휼하심에 비추어, 그분과 자신들의 관계에 있어서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그들은 그들의 창조주요 구속주를 섬김에 있어서 사랑과 명예와 충성의 가장 강한 줄로 붙들어 매어져 있음을 잊었는가? 자비의 초청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그런데 우리의 친구들이 구주의 애소하시는 사랑을 거절한다고 해서 우리도 구주에게서 돌아서야 할까? 영혼의 구원은 귀중하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무한한 값을 치러 놓으셨으므로, 이 큰 희생의 가치와 영혼의 가치를 옳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기를 선택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긍휼을 멸시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그분의 공의로우신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이 우리를 분기시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감화를 끼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여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데 더욱 부지런하게 되어야 한다. {PP 162.1}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다. 아침의 밝은 빛은 평야의 도시들에게 번영과 평화만을 말하는 것같이 보였다. 활발한 생활의 움직임이 거리에서 시작되었고, 사람들은 사업이나 그날의 쾌락에 여념이 없는 등 여러 면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롯의 사위들은 마음 약한 노인의 공포심과 경고를 재미있어 하고 있었다. 돌연 예기치 않게 청천벽력같이 대소동이 일어났다. 주께서 도시들과 비옥한 평야에 유황과 불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셨다. 궁궐과 신전, 값진 주택, 정원과 포도원, 그리고 전날 밤에 하늘의 사자들을 모욕하던 방탕하고 쾌락에 빠진 군중들 - 이 모든 것들이 불에 타 없어졌다. 대화재의 연기는 큰 가마의 연기처럼 올라갔다. 그리고 싯딤의 아름다운 골짜기는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을 각 시대를 통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황폐된 곳, 곧 다시 건축하거나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었다. {PP 162.2}

평원의 도시들을 삼킨 화염은 우리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경고의 빛을 비추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범죄자를 오래 참으시나, 그 반면에 사람들이 그 이상 죄의 길로

가서는 안 되는 한계선이 있다는 무섭고도 엄숙한 교훈을 배운다. 그 한계선에 이를 때에는 긍휼을 베푸는 일은 끝나고 심판하시는 일이 시작된다. {PP 162.3}

세상의 구주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죄보다 더 큰 죄가 있다고 선언하신다. 죄인들을 회개하도록 부르시는 복음의 초청을 듣고도 이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은 싯딤 골짜기의 주민보다 하나님 앞에 죄가 더 크다. 또한 그보다 더 큰 죄는 하나님을 알고 그 계명을 지키노라 공언하면서도 그들의 품성과 일상 생애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의 죄이다. 구세주의 경고에 비추어 보면 소돔의 운명은 공공연하게 죄를 범하는 자들뿐 아니라 하늘이 보내신 빛과 특권을 무시하는 모든 자들에게 대한 엄숙한 훈계이다. {PP 165.1}

참된 증인은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셨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계 2:4, 5). 구주께서는 제멋대로 하며 고생하는 아들을 용서하는 지상의 부모의 동정심보다 더 깊은 동정심을 가지고 당신께서 제공하는 사랑과 용서에 대한 죄인의 반응을 주목하신다. 그분은 방황하는 자들을 향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말 3:7)고 부르짖으신다. 그러나 만일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부드러운 사랑으로 그를 부르시는 음성에 유의하기를 고집스럽게 거절할 것 같으면, 마침내 그는 어둠 속에 버려질 것이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긍휼을 멸시한 마음이 점차 죄로 굳어지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의 감화를 느끼지 못한다. 탄원하시는 구세주께서 마침내 그에게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 두라”(호 4:17)고 선언하실 그 영혼의 운명은 참으로 비참할 것이다. 심판 날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도 세상의 죄악의 향락을 택하여 돌아선 사람들이 소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PP 165.2}

자비의 제의를 업신여기고 있는 그대들이여, 하늘의 책들에 기록된 그대들에게 불리한 긴 내용들을 생각해 보라. 하늘에는 민족들과 가정들과 개인들의 불신의 기록이 보존되어 있다. 기록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도록 초청하시며 용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으시다. 그러나 기록책이 가득 차고, 영혼의 결정이 이루어지고,

자신의 선택으로 자신의 운명이 결정될 때가 올 것이다. 그 때에는 심판이 집행될 징조가 주어질 것이다. {PP 165.3}

오늘날 종교계의 형편에 경종을 울려야 할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긍휼은 멸시를 받아왔다. 많은 무리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마 15:9)며 여호와의 율법은 소용없다고 말한다. 많은 교회들은 불신에 휩쓸려 있는데, 성경을 공공연히 부인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불신이 아니요 그리스도교의 의복으로 단장하고서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믿음을 해치고 있는 그런 불신이다. 열렬한 헌신과 생기 있는 경건은 형식주의로 대치되었다. 그 결과로 배도와 관능주의가 성행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롯의 때와 같으리니…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눅 17:28, 30)고 선언하셨다. 날마다 지나가는 사건에 대한 매일의 기록은 인자의 말씀이 성취됨을 증거한다. 세계의 죄악은 신속히 무르익어 멸망 직전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형벌은 곧 내릴 것이요 죄와 죄인들은 소멸당할 것이다. {PP 166.1}

우리의 구주께서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눅 21:34, 35)고 말씀하셨다. 그것은 관심이 이 세상에 집중된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다. {PP 166.2}

소돔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롯에게 기별을 보내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다음과 같은 동일한 경고의 음성을 들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창 19:17; 눅 21:20, 21). 그들은 소유물의 어느 것이라도 지키려고 머무르지 말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도망하여야 하였다. {PP 166.3}

부도덕한 사람들에게서 결정적으로 분리하여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한 탈출구가 있었다. 노아의 날에도 그러하였으며 롯의 때에도 그러하였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도

그러하였으며, 역시 말세에도 그러할 것이다. 당신의 백성들로 널리 퍼진 죄악에서 떠나라고 명하시는 경고의 기별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또다시 들린다. {PP 166.4}

말세에 종교계에 있는 부패와 배도의 상태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계 17:18) 바벨론에 대한 계시 중에 예언자 요한에게 나타났다. 바벨론 멸망 전에 하늘로부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예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계 18:4)는 초청이 하늘로부터 주어진다. 노아와 롯의 시대처럼 죄와 죄인들로부터 뚜렷한 분리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과 세상은 타협할 수 없으며, 세상의 재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돌아설 수는 없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마 6:24). {PP 167.1}

싯딤 골짜기의 주민들처림 사람들은 번영과 평화를 꿈꾸고 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는 하나님의 천사들로부터의 경고가 있는 반면에 "안심하라, 경고를 받을 만한 까닭이 없다"라고 하는 다른 음성이 들린다. 하늘이 죄인들에게 임하려고 하는 신속한 멸망을 선포하는 동안에도 군중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부르짖는다. 저희가 멸망당한 전날 밤까지도 평야의 도시들의 주민은 향락에 도취되어 하나님의 사자의 염려와 경고를 비웃었다. 그러나 그 조롱자들은 불꽃 속에서 멸망하였고, 그날 밤에 자비의 문은 사악하고 경망스러운 소돔 주민들에게 영원히 닫혔다. 하나님께서 항상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사 13:9). 세상의 큰 무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하고 신속하고 만회할 수 없는 멸망에 휩쓸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경고에 주의를 기울인 자들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할 것이다. 그분의 진실함은 그들의 방패와 손 방패가 될 것이다. 그들에게는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시 91:1, 4, 16)는 약속이 있다. {PP 167.2}

롯은 소알에서 오래 살지 않았다. 그 곳에도 소돔에서처럼 죄악이 성행하였다. 그래서 롯은 이 도시도 멸망당하지 않을까 하고 그 곳에 머물기를 두려워하였다. 오래지 않아 소알도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멸망을 당하였다. 롯은 감히 그의 가족들을 부도덕한 도시의 감화에 내맡기면서까지 갖고자 했던 것들을 다 빼앗긴 채 산으로 가서 굴속에서 살았다. 그러나 소돔의 저주는 이곳까지 그를 따라왔다. 그의 딸들의 죄스러운 행위는 그 타락한 곳에서 악한 교제를 한 결과였다. 소돔의 도덕적 부패가 그들의 품성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선악을 구별할 수 없었다. 롯의 후손은 모압과 암몬 사람들뿐이었는데, 그들은 비루하고 우상을 숭배한 족속들, 곧 하나님께 대한 배반자들이었고, 그분의 백성의 쓰디쓴 원수들이었다. {PP 167.3}

아브라함의 생애와 롯의 생애는 얼마나 큰 대조를 이루었는가! 한때 그들은 동료가 되어 한 제단에서 예배하고 그들의 순례의 장막에서 나란히 거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얼마나 멀리 떨어졌는가! 롯은 향락과 이익을 위하여 소돔을 선택하였다. 아브라함의 제단과, 이 제단에서 날마다 살아 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을 떠나서 그는 그의 자녀들이 부패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과 섞이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그는 심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는 성경 가운데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선언을 받았다. 그의 의로운 영혼은 날마다 그의 귀에 들리는 비루한 대화와 그가 막을 수 없는 강포와 범죄로 인하여 번민하였다. 그는 마침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슥 3:2)처럼 구원은 받았으나 재산은 없어지고 아내와 자녀들을 잃고 야수처럼 동굴에 살았으며, 노령에는 불명예스러운 일을 행하여 의로운 족속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의 잔이 차서 멸망할 운명에 처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그분의 백성과 전쟁을 한, 두 무리의 우상숭배하는 족속을 세상에 남겨 놓았다. 현명하지 못한 발걸음 하나를 따른 결과는 얼마나 무서웠는가! {PP 168.1}

현인은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잠 23:4)라고 말한다. "이를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사느니라"(잠 15:27). 그리고 사도 바울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딤전 6:9)고 선언한다. {PP 168.2}

롯이 소돔에 들어갔을 때 그는 자신을 온전히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고 가족들을 명하여 자신을 따르게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크게 실패하였다. 주위의 부패시키는 감화는 그 자신의 믿음에 영향을 끼쳤으며 그의 자녀들이 소돔의 주민들과 결합하였기 때문에 그의 관심도 어느 정도 그들의 관심사와 결부되었다. 그 결과는 우리 앞에 놓여 있다. {PP 168.3}

지금도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다. 집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들은 그들 자신과 그들의 가족들을 둘러쌀 도덕적·사회적 감화보다도, 그들이 얻을 현세적 이익을 더 바라본다. 그들은 아름답고 비옥한 지방을 선택하거나 보다 더 큰 번영을 바라므로 번창하는 어떤 도시로 이사한다. 그러나 그들의 자녀들은 시험에 둘러싸이게 되어, 흔히는 경건을 계발하고 의로운 품성을 형성하기에 불리한 교제를 이룬다. 방종한 도덕, 불신, 종교적 사물에 무관심한 분위기는 부모들의 감화를 깨뜨리는 경향이 있다. 하나님과 부모의 권위에 반항하는 실례들이 언제나 젊은이들 앞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과 불신자들에게 애착을 가지며 하나님의 원수들과 운명을 같이 한다. {PP 168.4}

집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가족들을 둘러쌀 도덕적·종교적 감화를 제일 먼저 고려하도록 요청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원하는 환경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몹시 견디기 어려운 입장에 놓일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 깨어 기도하면, 우리가 의무를 다하도록 부름을 받을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패되지 않은 채 서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불필요하게 그리스도인 품성 형성에 이롭지 못한 감화 아래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자원해서 우리 자신을 세속적·불신적 환경 아래 둘 때, 우리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여 우리 가정에서 거룩한 천사들을 쫓아내게 된다. {PP 169.1}

그들의 영원한 관심사를 희생하면서 그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세속적 부와 명예를 얻는 사람들은 결국 이것들이 엄청난 손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롯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자녀들은 멸망당하고 그들 자신의 영혼만이 간신히 구원받은 것을 본다. 그들의 평생 사업은 수포로 돌아가고 그들의 생애는 슬픈 실패로 끝난다. 만일 그들이 참된 지혜를 활용하였더라면 그들의 자녀들이 세속적 번영은 많이 얻지 못하였을지라도 영원한 유업을 얻을 자격은 확보하여 놓았을 것이었다. {PP 169.2}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유업은 이 세상에 있는 유업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지상에서 “발붙일 만큼”(행 7:5)도 땅을 얻지 못하였다. 그는 막대한 물질을 가지고 그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썼다. 그러나 그는 이 세상을 그의 집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주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우상 숭배자들인 그의 동족을 떠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영원한 유업으로 약속하셨다. 그러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아들의 아들도 그것을 얻지 못하였다. 아브라함이 그의 죽은 자를 위하여 매장지를 필요로 하였을 때 그는 그것을 가나안 사람에게서 사야 하였다. 약속의 땅에서 그의 유일한 소유는 막벨라 굴속 바위를 잘라낸 무덤뿐이었다. {PP 169.3}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았으며, 유대 백성의 가나안 점령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성취된 것도 아니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갈 3:16)이었다. 아브라함 자신도 그 유업을 나누어야 하였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오래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벧후 3:8) 까닭이다.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나 정한 때는 “지체되지 않고 정녕 응하리라”(합 2:3).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선물은 다만 가나안 땅뿐 아니라 온 지구가 포함되었다. 그래서 사도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롬 4:13)고 한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다는 것을 성경은 명백히 가르친다.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곧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갈 3:29; 벧전 1:4)을 이을 자들이며 그 유업은 죄의 저주에서 해방된 이 지구이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인 바 되리니”,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단 7:27; 시 37:11)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PP 169.4}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불멸의 유업을 보여 주셨고 그는 이 소망으로 만족하였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히 11:9, 10). {PP 170.1}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하여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히 11:13)다고 기록되어 있다.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히 11:16)을 얻으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야 한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이 고대한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성을 얻으려고 애쓸 것이다. {PP 170.2}

15장 이삭의 결혼

아브라함은 이제 노인이 되었고 오래지 않아 죽으리라고 생각되었으나 그의 후손에 관한 약속의 성취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가 할 한 가지 일이 남아 있었다. 이삭은 하나님의 율법의 수호자와 선민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을 계승하도록 하나님의 지정을 받은 사람이었으나 아직 미혼이었다. 가나안 주민은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결혼이 배교로 인도할 것을 아시고 당신의 백성과 그들 사이의 통혼을 금하셨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을 두른 부패케 하는 감화의 결과를 두려워하였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대한 평소의 신앙과 그분의 뜻에 대한 복종은 이삭의 품성에 반영되었다. 그러나 젊은이의 애정은 강한 것이었으며, 더욱이 그는 온순하고 순종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 만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과 연합한다면 그는 조화를 위하여 원칙을 희생할 위험이 있었다. 아브라함의 심중에는 자부 선택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를 떠나게 하지 않을 사람과 결혼시키고자 갈망하였다. {PP 171.1}

고대에는 결혼 약속이 일반적으로 부모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이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습이었다. 아무도 그들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과 결혼하도록 요청되지 않았으나, 청년들은 그들의 애정을 주는 데 있어서 경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판단에 따라 지도를 받았다. 이와 반대되는 방향을 취하는 것은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일 뿐 아니라 범죄처럼 생각되었다. {PP 171.2}

아버지의 지혜와 애정을 신뢰하는 이삭은 그 문제를 아버지에게 맡기는 것에 만족하였으며 또 선택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지도하여 주시리라고 믿었다. 아브라함의 생각은 메소포타미아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친척에게로 향하였다. 비록 우상숭배를 버리지는 못하였을지라도 그들은 참 신의 지식과 경배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 이삭이 가나안을 떠나 그들에게로 가서는 안 되었지만 그들 중에서 자신의 집을 떠나 그와 연합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에 대한 순결한 예배를 유지할 사람은 찾을 수도 있을 것이었다. 아브라함은, 경건하고 경험이 많으며 판단력이 건실하고 오랫동안 그를 충실히 섬긴 사람인 그의 “늙은 종”에게 그 중대한 일을 위임하였다. 그는 이 하인에게 이삭을

위하여 가나안 사람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홀의 집에서 한 처녀를 선택할 것을 여호와 앞에서 엄숙히 맹세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는 이삭을 나홀의 집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고 명하였다. 만일 집안을 떠나올 처녀를 발견할 수 없으면, 그 때 그 심부름꾼은 그의 맹세에서 놓일 것이었다. 아브라함은 그의 어렵고도 신중을 요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명을 성공으로 관 씌워 주시리라는 보증으로 그를 격려하였다. 그는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그가 그 사자를 네 앞서 보내실지라"(영문 성경 참조)고 말하였다. {PP 171.3}

늙은 종은 지체하지 않고 곧 출발하였다. 자기 일행과 자기와 함께 돌아올 신부 일행이 쓸 약대 열 필을 취하고, 또한 신부와 그의 친구들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여 그는 멀리 다메섹을 지나서 긴 여행을 하였으며, 동방의 큰 강과 경계를 이룬 비옥한 평야로 전진하였다. "나홀의 성" 하란에 이르러 그는 그 지방 여인들이 저녁때 물 길러 오는 우물에 가까운 성밖에서 멈추었다. 그에게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그의 주인의 가족에게뿐 아니라 후대까지 미칠 중대한 결과가 그의 선택에 따르게 될 것이었다. 전혀 낯선 사람들 가운데서 그가 어떻게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그에게 보내시리라는 아브라함의 말을 기억하고 그는 명확한 지도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였다. 주인의 집에서 그는 항상 실행하는 친절과 대접에 익숙하였다. 그래서 이제 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처녀임을 지적해 주는 한 예의 있는 행동을 요구하였다. {PP 172.1}

기도가 끝나자마자 응답이 주어졌다. 우물곁에 모였던 여인들 중에 한 여인의 예의 있는 태도가 그의 주의를 끌었다. 그 여자가 우물에서 나올 때에 그 나그네는 그 여자에게 나아가 어깨에 멘 항아리의 물을 좀 달라고 청하였다. 그 요청은 친절하게 응답되었으며 약대들을 위해서도 물을 길어주겠다고 제의하였다. 물을 긷는 일은 군주의 딸들이라도 그들의 조상의 양떼와 가축 떼를 위하여 해야 하는 관습적인 일이었다. 그리하여 바라던 표증이 분명히 주어졌다. 그 처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땁고", 그 여자가 갖춘 예의는 친절한 마음과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성격을 가졌다는 증거였다. 하나님의 손길은 거기까지 그와 함께 하였다. 값진 선물을 주고 친절에 대하여 감사한 후에 종은 그 여자의 부모가 누구인지를 물어, 그 여자가 아브라함의 조카 브두엘의 딸임을 알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PP 172.2}

그 사람은 그 여자의 아버지의 집에 유숙하기를 청하고 그의 감사의 말 가운데서 그는 자신이 아브라함과 관계있다는 사실을 나타냈다. 집에 돌아오자 처녀는 일어났던 일을 말하였으며, 오빠 라반은 즉시 그 나그네와 그의 수행자들을 영접해 들였다. {PP 173.1}

엘리에셀은 그의 사명과 우물가에서 드린 기도와 이에 수반된 모든 사정을 말하기까지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 후 그는 "이제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로 나의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고하시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게 고하여 나로 좌우간 행하게 하소서"(창 24:49)라고 말하였다. 그에 대한 대답은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창 24:50, 51)는 것이었다. {PP 173.2}

가족의 동의를 얻은 후에,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아들과 결혼하기 위하여 아버지 집에서 아주 먼 곳으로 갈 것인지 본인이 결정하도록 요청받았다. 그 여자는 이루어진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삭의 아내가 되도록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가겠나이다"라고 말하였다. {PP 173.3}

그의 사명이 성공한 것을 보고 기뻐할 주인을 생각하고 그 하인은 한시바삐 돌아가고 싶어서 아침이 되자 집으로 돌아가는 여행길에 나섰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거하였고, 이웃 지역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던 이삭은 아버지의 장막으로 돌아와서 하란으로부터 심부름꾼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뇨 종이 가로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하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창 24:64~67). {PP 173.4}

아브라함은 가인의 시대로부터 자신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진 통혼의 결과에 주의하였다. 자기 자신이 하갈과 행한 결혼의 결과와 이스마엘과 롯의 결혼 관계에서 빚어진 결과들이 그의 앞에 있었다.

아브라함과 사라 편에서의 믿음의 부족으로 이스마엘이 출생하였으며, 의인의 자손과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혼합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아들에게 끼친 아버지의 감화는 우상을 숭배하는 어머니의 친척들이 끼친 감화와 이스마엘 자신의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으로 인하여 약화되었다. 하갈의 질투와 그가 선택한 이스마엘의 아내들의 질투는 그의 가족을 장벽으로 둘렀으며 아브라함은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헛수고였다. {PP 173.5}

아브라함의 초기의 교훈은 이스마엘에게 효과가 없지 않았으나 그의 아내들의 영향은 그의 가정에 우상숭배를 시작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의 아버지와 분리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경외심이 없는 가정의 싸움과 경쟁으로 마음이 상한 이스마엘은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치"(창 16:12)는 거칠고 약탈하는 광야의 추장의 생활을 선택하게 되었다. 말년에 그는 악의 길에서 회개하고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나 그의 후손에게 준 성격의 특징은 남아 있었다. 그의 후예로 일어난 강력한 민족은 항상 이삭의 자손을 성가시게 하고 괴롭힌 거친 이교의 백성이었다. {PP 174.1}

롯의 아내는 이기적이요 종교심이 없는 여인이었으며 그의 영향은 남편을 아브라함에게서 떨어지게 하였다. 그 아내가 아니었더면 롯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명한 아브라함의 권고를 들을 수 없는 소돔에 머무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가 어려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충실한 교훈이 아니었더라면 그의 아내의 감화와 그 악한 도시 사람과의 교제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였을 것이다. 롯의 결혼과 그가 가정을 위하여 소돔을 선택한 것은 여러 세대 동안 세상에 악을 가져온 사건들이 시작되는 첫 고리였다. {PP 174.2}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와 아무도 위험 없이 결합할 수 없다.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암 3:3)는가. 결혼 관계의 행복과 번영은 쌍방의 연합에 의존한다. 그러나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는 취미와 경향과 목적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들은 일치될 수 없는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 그의 원칙이 아무리 순결하고 올바를지라도, 믿지 않는 반려자의 영향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경향을 지닐 것이다. {PP 174.3}

회심하기 전에 결혼 관계에 들어간 자들은 그들의 종교적 신념에 아무리 큰 차이가 있을지라도 회개로 말미암아 그의 반려자에게 충실해야 할 더욱 큰 의무를 지게 된다. 그러나 비록 시험과 박해가 초래될지라도, 하나님의 요구는 모든 세속적 관계에 우선해야 한다. 사랑과 온유의 정신으로 이 성실성은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감화를 끼칠지 모른다. 그러나 그리스도인과 불신자와의 결혼은 성경에 금지되어 있다. 주께서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후 6:14, 17, 18)고 지시하신다. {PP 175.1}

이삭은 그를 통하여 세계가 축복을 받게 될 약속의 후사가 되는 큰 영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그는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를 위하여 아내를 택하는 일을, 경험 많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에게 명하는 아버지의 판단에 순응하였다. 그 결혼의 결과는 성경에 표현된 대로 부드럽고 아름다운 가정적 행복으로 나타나 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PP 175.2}

이삭의 행동과 오늘날 청년들이 추구하는 행동과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대조적인가! 청년들은 흔히 그들의 애정을 주는 일은 그들 자신만이 고려해야 할 일이지 하나님이나 그들의 부모가 결코 통제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성년 남녀에 이르기 훨씬 전에 부모의 도움이 없이 그들 스스로 선택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몇 년 동안의 결혼 생활은 대개 그들의 과오를 스스로 알아차리게 하기에 충분하나 해로운 결과를 방지하기에는 너무 늦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자제력의 부족으로 성급하게 한 선택은 악을 더욱 가중시켜 마침내 결혼 관계는 괴로운 멍에가 된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은 금생의 행복과 내세의 소망을 파멸시켜 버렸다. {PP 175.3}

주의깊이 고려되어야 하고 또 연로하고 경험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야 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결혼 문제이다. 언제나 성경을 고문으로 삼고 기도로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할 때가 있다면 그것은 두 사람을 일생 동안 연합시키는 첫 발걸음을 내딛기 전이다. {PP 175.4}

부모들은 자녀들의 장래의 행복에 대한 그들의 책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의 판단을 존중한 것은 그가 순종의 생활을 사랑하도록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은 결과였다. 아브라함은 자녀들에게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그의 일상생활은 그 권위가 이기적이거나 독재적인 지배가 아니라 사랑에 기초되고 그들의 복리와 행복을 고려한 것임을 증명하였다. {PP 175.5}

아버지와 어머니는 젊은이들의 애정이 적합한 배우자가 될 자들에게 머무르도록 그들의 애정 문제를 지도할 의무가 있음을 느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힘입어 부모들은 자신들의 가르침과 모범으로써 자녀들이 순결하고 고상하게 되며 선행과 진실한 일에 마음이 끌리도록 어린 시절부터 그들의 품성을 꼴 지워 주는 것이 의무임을 느껴야 한다. 같은 것끼리 서로 끌어당기고, 같은 것끼리 서로 이해한다. 진리와 순결과 선행에 대한 사랑을 일찍부터 영혼 속에 심어주라. 그리하면 젊은이들은 이와 같은 특성들을 가진 사람들과 교제하려고 할 것이다. {PP 176.1}

부모들은 자신들의 품성과 가정생활에서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선행의 모본을 보이도록 노력하라. 가정에 햇빛이 가득 차게 하라. 이것은 그대들의 자녀들에게 토지나 돈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을 것이다. 가정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 살아 있어서 그들로 그들의 유년 시절의 가정을 하늘 다음 가는 평화와 행복이 깃든 장소로 되돌아보게 하라. 집안 식구들이 모두 동일한 품성의 특성을 가지지 않았으므로 때때로 인내와 관용을 베풀 기회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사랑과 수양을 통하여 모두가 가장 친밀한 연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PP 176.2}

참된 사랑이란 충동으로 일깨워지고 심한 시련을 만나면 갑자기 시들어 버리는 그런 사랑과는 성격상 전혀 다른 고상하고 거룩한 원칙이다. 젊은이들은 부모의 가정에서 충실히 의무를 감당함으로써 그들 자신들의 가정을 위하여 준비해야 한다. 그들로 가정에서 극기를 실행하며 친절과 예의와 그리스도인적 동정을 나타내게 하라. 그리할 때 사랑은 마음속에 따뜻이 간직될 것이며 그와 같은 가정에서 자라나서 자기 자신의 가정의 가장이 되는 사람은 평생의 반려자로 선택한 여자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방법을 알 것이다. 결혼은 사랑의 종말이 되는 대신에 사랑의 시작이 될 것이다. {PP 176.3}

16장 야곱과 에서

이삭의 쌍둥이 아들들인 야곱과 에서는 성격과 생활에서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었다. 이같은 불일치는 그들의 출생 전에 하나님의 천사로 말미암아 예언되었다. 천사는 리브가의 고민어린 기도의 응답으로 두 아들이 출생할 것을 선언하고, 그들의 장래의 역사를 공개하여 말하기를 두 아들이 다 강대한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며 하나가 다른 쪽보다 더 강대하며 아우가 더 탁월할 것이라고 하였다. {PP 177.1}

에서는 자아 만족을 사랑하며 그의 모든 관심을 현세에 집중시키며 자라났다. 제어받기를 싫어하며, 사냥하는 거친 자유를 즐겨 일찍부터 사냥꾼의 생활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다. 조용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목자인 아버지는 이 맏아들의 대담성과 활기에 끌리었다. 그는 두려움 없이 산야를 넘고, 아버지를 위하여 사냥한 고기와 그의 모험적 생활의 흥미진진한 보고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반면에 사려 깊고 부지런하고 집안일을 돌보며 항상 현재보다 미래를 더 많이 생각하는 야곱은 양떼를 돌보고 밭가는 일에 종사하며 집안에 있는 것을 만족스럽게 여겼다. 그의 꾸준한 참을성과 검약과 선견지명은 그의 어머니에게 높이 평가되었다. 그의 애정은 깊고 강하였으며, 그의 온순하고 끈질긴 친절은 에서의 소란스럽고 우발적인 친절보다 어머니를 훨씬 더 행복스럽게 하였다. 리브가에게는 에서보다 야곱이 더 사랑스러운 아들이었다. {PP 177.2}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그의 아들에게 확증된 약속은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그들의 큰 소망의 대상으로 간주되었다. 이 약속을 에서와 야곱은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장자의 명분을 매우 중대한 일로 생각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것은 세속적 재산의 상속뿐 아니라 영적 탁월성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을 받는 사람은 가정에서 제사장이 되고 그의 후손의 가계에서 세상의 구주가 나실 것이었다. 한편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에게 부과되는 의무가 있었다. 그 축복을 상속받을 자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에 자신의 생애를 바쳐야 하였다. 아브라함처럼 그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여야 하였다. 결혼이나, 가족 관계나, 공공 생활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하였다. {PP 177.3}

이삭은 그의 아들들에게 이 특권들과 조건들을 알리고, 장자인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말하였다. 그러나 에서는 헌신을 좋아하지 않았고 종교 생활을 애호하지 않았다. 영적 장자의 명분에 동반된 요구들이 그에게는 반갑지 않은 일일 뿐 아니라 오히려 달갑지 않은 구속이었다. 아브라함과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의 조건이었던 율법이 에서에게는 속박의 멍에로 생각되었다. 그는 방종에 기울어져 그가 좋아하는 것을 행할 자유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그에게는 권세와 부귀, 잔치와 연락이 행복의 전부였다. 그는 그의 거친 방랑생활의 제재 받지 않은 자유 가운데서 자만하였다. 리브가는 천사의 말을 기억하고 자기 남편보다도 더 분명한 통찰력을 가지고 두 아들의 성격을 이해하였다. 그 여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은 야곱을 위한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그 여자는 천사의 말을 여러 번 이삭에게 말하였으나 아버지의 애정은 장자에게 집중되었고, 그는 자신의 의도를 굽히지 않았다. {PP 178.1}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 자신에게 주어지리라는 하나님의 암시를 어머니에게서 배우고 그의 마음은 그것이 줄 특권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소망으로 충만하였다. 그가 갈망한 것은 아버지의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었다. 영적 장자의 명분이 그가 바란 대상이었다. 의로운 아브라함이 한 것같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 속죄 제물을 드리는 일, 택하신 백성과 약속된 메시야의 조상이 되는 일, 언약의 축복에 포함된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일 등이 그가 획득하고자 열망한 특권과 명예였다. 그의 마음은 항상 장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을 붙잡고자 갈망하였다. {PP 178.2}

그는 은밀한 갈망을 품고 영적 장자의 명분에 관하여 그의 아버지가 말하는 모든 것을 귀담아들었고 그의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도 조심스럽게 간직하였다. 주야로 그 문제가 그의 생각들을 사로잡았고 마침내 그것은 그의 생애를 사로잡는 관심사가 되었다. 그러나 그와 같이 현재보다 내세의 축복을 존중하였으나, 야곱은 그가 경외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 없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지 않았다. 에서가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한 자기 자신에 관한 약속은 성취될 수 없으리라는 것을 믿고, 그는 자신의 형은 매우 경시하나 자신에게는 대단히 귀중한 그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고자 끊임없이 연구하였다. {PP 178.3}

어느 날 사냥하러 나갔다가 피로에 지쳐 집에 돌아온 에서가 야곱이 준비하고 있던 음식을 청하였을 때, 한 가지 생각으로 늘 골똘해 있던 야곱은 자신에게 유리한 기회를 포착하고, 장자의 명분을 넘겨주면 형의 주림을 만족시켜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무모하고 방종한 사냥꾼은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창 25:32)라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넘기고 맹세로써 거래를 확인하였다. 조금만 기다렸으면 아버지의 장막에서 음식이 그에게 보장되었을 것이었다. 그러나 순간적인 식욕을 만족시키려고 그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유업을 부주의하게 팔아 버렸다. 그의 온 관심사는 현세에 있었다. 그는 땅의 것을 위하여 하늘의 것을 희생하고 미래의 행복을 순간적인 방종과 교환하였다. {PP 179.1}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창 25:34). 그는 그것을 처분함으로 후련한 기분을 느꼈다. 그때 그의 길에는 거칠 것이 없었으며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행할 수 있었다. 자유로 잘못 불리는 이 방종한 쾌락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늘에 있는 순결하고 영원한 상속을 얻을 그들의 장자의 명분을 팔고 있는가! {PP 179.2}

단순히 외모와 세속적 매력에 끌려 에서는 헷 족속의 딸들 중에서 두 아내를 취하였다. 그들은 거짓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었으며 그들의 우상숭배는 이삭과 리브가에게 쓰디쓴 근심이 되었다. 에서는 언약의 조건 중에 하나를 깨뜨려 버렸는데 그것은 선민과 이방인 사이의 통혼을 금지하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그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려는 이삭의 결심은 흔들리지 아니하였다. 리브가의 이론, 야곱의 축복에 대한 열망, 에서의 의무에 대한 무관심도, 아버지의 목적을 변경시키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PP 179.3}

세월이 흘러 마침내 나이 많고 눈이 어두워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예측한 이삭은 그의 장자에게 축복을 내리는 일을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결심이었다. 그러나 리브가와 야곱의 반대를 알고 그는 이 엄숙한 의식을 비밀리에 거행하고자 결심하였다. 이런 경우에 잔치를 베푸는 습관에 따라 이삭은 에서에게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창 27:3, 4)고 명하였다. {PP 179.4}

리브가는 이삭의 목적을 알아차렸다. 그 여자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으로 나타내신 바와는 반대되는 일임을 확신하였다. 이삭은 하나님의 불쾌하심을 초래하는 위험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그의 둘째 아들을 앉지 못하게 하는 위험에 빠져 있었다. 그 여자는 이삭을 설득하여 효과를 얻으려고 하였으나 허사였으므로 술책을 쓰려고 결심하였다. {PP 179.5}

에서가 아버지의 말대로 사냥하러 나가자마자 리브가는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일에 나섰다. 그 여자는 일어난 일을 야곱에게 말하고 그 축복이 최종적으로 돌이킬 수 없게 에서에게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기만적 행동을 취해야 할 필요를 역설하였다. 그리고 그 여자는 야곱에게 만일 자신의 지시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장자의 명분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시켰다. 야곱은 어머니가 제의한 계획에 선뜻 동의하지 않았다. 아버지를 속인다는 생각이 그를 크게 당혹시켰다. 그는 그와 같은 죄가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가져오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의 망설임도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 없어 그는 어머니의 제안을 수행하려고 나섰다. 직접 거짓을 행하는 것이 그의 의도는 아니었으나 일단 그가 아버지 앞에 나온 이상 물러서기에는 너무 깊이 간 것같이 생각되어 그는 탐하던 축복을 기만적인 방법으로 얻었다. {PP 180.1}

야곱과 리브가가 그들의 목적은 성취하였으나 그들이 얻은 것은 다만 기만으로 말미암은 고민과 슬픔뿐이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받으리라고 선언하셨으니 그들이 만일 믿음으로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일하실 때까지 기다렸더라면 그분의 말씀은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성취되었을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처럼, 그들은 그 문제를 그분께 맡기려고 하지 않았다. 리브가는 자신이 아들에게 한 잘못된 권고를 통절히 회개하였다. 이것이 야곱을 리브가에게서 분리시킨 원인이 되어 그 여자는 아들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없었다. 장자의 명분을 받은 그 시간부터 야곱은 자기 정죄에 억눌리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그의 형에게, 자신의 영혼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짧은 시간 동안에 그는 일생 동안 후회할 일을 저질렀다. 오랜 세월 후에 자신의 아들들의 악한 행동이 그의 마음을 억압하였을 때 이 광경은 그의 앞에 역력히 떠올랐다. {PP 180.2}

야곱이 아버지의 장막을 떠나자마자 에서가 그 곳에 들어왔다. 그는 비록 장자의 명분을 팔고 엄숙한 맹세로 그 권리의 양도를 확인하였을지라도 이제 그의 아우의 요구를 무시하고 그 축복을 얻고자 결심하였다. 영적 장자의 명분에는 현세적 장자의 명분이 결합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그에게 가장의 직분과 아버지의 재산 중에 두 몫을 소유하게 할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귀중하게 생각하는 축복들이었다. 그는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라고 말하였다. {PP 180.3}

눈이 어둡고 연로한 아버지는 기만당한 줄을 알고 놀라움과 고통으로 떨었다. 그가 오랫동안 자기 나름대로 품고 있던 소망은 좌절되어 버렸고 그는 그의 맏아들에게 틀림없이 다가올 실망을 절실히 느꼈다. 그러나 그의 목적이 좌절되고 그가 방지하려고 결심하였던 바로 그 일이 실현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확신이 그에게 번개처럼 떠올랐다. 그는 천사가 리브가에게 한 말을 기억하였으며 지금 야곱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야곱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임을 보았다. 축복의 말이 그의 입술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는 영감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심을 느꼈다. 이제 모든 사정을 안 그는 무의식중에 야곱에게 선언된 축복을 승인하였다.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녕 복을 받을 것이니라”(창 27:33). {PP 181.1}

에서는 축복이 그의 손이 닿는 곳에 있는 동안에는 그것을 가볍게 여겼으나 그에게서 영원히 떠나간 지금에는 그것을 가지고자 하였다. 그의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강한 성질이 발동했으며, 그의 비탄과 분노는 무서웠다. 그는 매우 비통한 소리로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아버지께서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라고 부르짖었다. 그러나 일단 주어진 약속은 취소될 수 없었다. 그가 그처럼 부주의하게 팔아 버린 장자의 명분을 이제는 다시 되찾을 수 없었다.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곧 제어된 일이 없는 식욕의 순간적인 만족을 위하여 에서는 그의 유업을 팔았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발견하였을 때는 그 축복을 회복하기에 너무 늦었다. “저가…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히 12:17). 에서도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특권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었으나, 장자의 명분을 회복할 방법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 그의 슬픔은 죄를 인정함으로 솟아난 것이 아니었으며 그는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갈망하지도 않았다. 그는 죄의 결과 때문에 슬퍼하였지, 죄 그 자체를 슬퍼하지는 않았다. {PP 181.2}

하나님의 축복과 요구에 무관심하였으므로 에서는 성경에서 “망령된 자”라고 불린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신 구원을 경히 여기고 없어질 세상의 사물을 위하여 하늘에 들어갈 그들의 상속권을 희생하는 자들을 대표한다. 많은 무리들이 장래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나 관심도 없이 현세를 위하여 살고 있다. 에서와 같이 그들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고전 15:32)라고 부르짖는다. 그들은 기호의 지배를 받으며 극기를 실천하기는 고사하고 가장 귀중한 사려마저 내버린다. 만일 부패된 식욕의 만족이나 극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만 허락된 하늘의 축복 중에 어느 한 가지를 버려야 한다면, 식욕의 요구가 우세하고 하나님과 하늘은 사실상 멸시를 당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도 건강에 해롭고 영혼의 감수성을 마비시키는 기호에 기울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육체와 정신상의 모든 더러움을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함을 이루라는 의무가 제시될 때, 그들은 그것을 언짢게 여긴다. 그들은 하늘을 얻기 위하여서는 이 유해한 만족을 더 유지할 수 없음을 알고, 영생으로 가는 길은 매우 좁으므로 저들이 그리로 이상 더 행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PP 181.3}

많은 군중들은 육욕적 방종 때문에 그들의 장자의 명분을 팔고 있다. 동시에 품성을 나약하게 하고 저하시키는 방종, 즉 다만 일시적인 쾌락을 위하여 건강을 희생시키고 지적 능력을 감소시키며 하늘을 잃어버린다. 에서가 자신의 경솔한 거래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을 때는 그의 손실을 회복하기에 너무 늦었던 것처럼, 이기적 만족 때문에 하늘의 상속권을 팔아버리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PP 182.1}

17장 야곱의 도망과 유랑

에서의 분노로 인하여 죽음의 위협을 당한 야곱은 도망자가 되어 아버지의 집을 나서기는 했지만, 그는 아버지의 축복은 지니고 다녔다. 이삭은 그에게 언약의 약속을 새롭게 하고 그것의 후계자로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의 어머니의 집안에서 아내를 구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야곱이 외로운 여행길에 올랐을 때, 마음에는 깊은 고민이 있었다. 그는 손에 지팡이만 쥔 채 거친 떠돌이 족속들이 살고 있는 지방을 통과하여 수백 리를 여행해야 하였다. 가책과 겁에 질린 그는 성난 형이 자신을 따라오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피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기를 목적하신 축복을 영원히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였다. 게다가 사단은 가까이서 그를 시험하려고 하였다. {PP 183.1}

둘째날 저녁에 그는 아버지의 장막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였다. 그는 자신이 쫓겨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이 모든 재난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이르렀다는 것을 알았다. 절망의 어둠이 그의 영혼을 억눌러 그는 기도할 용기조차 없었다. 그러나 그는 심히 외로워서 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보호의 필요를 느꼈다. 깊은 겸비로 눈물을 흘리며 그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가 완전히 버림을 당하지 않았다는 어떤 증거를 간청하였다. 그래도 그의 번민하는 마음은 위안을 찾지 못하였다. 그는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고 그의 조상의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고 두려워하였다. {PP 183.2}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버리시지 않으셨다. 그분의 긍휼은 여전히 과오를 범하고 의심이 많은 당신의 종에게 미치고 있었다. 주께서는 자비롭게도 야곱이 바로 필요로 한 구주를 나타내 보이셨다. 그는 범죄하였으나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나타난 것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은 감사로 충만하였다. {PP 183.3}

여행에 지친 그 방랑자는 돌을 베고 땅에 누웠다. 그는 잠들었을 때 꿈속에서 밝고도 빛나는 사닥다리를 보았는데, 그것은 땅에서 하늘까지 닿았다. 그 사닥다리 위에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그 위에는 영광의 주께서 계시고 하늘에서 그분의 음성이 들렸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가 유랑자요, 도망자의 신세로 누워 있던 땅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는 보증의 말씀과 함께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어졌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어졌으며 이제 이것은 야곱에게 반복되었다. 그리고 그가 당면한 외로움과 고통을 특별히 고려하여 안위와 격려의 말씀도 같이 주어졌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창 28:13~15 참조). {PP 183.4}

주께서는 야곱을 에워쌀 악한 감화와 그가 당할 위험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자비로써 이 회개하는 도망자에게 장래를 열어 보이시고 그가 자신에 관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서 우상 숭배자들과 간악한 자들 가운데 홀로 있게 될 때에 그에게 분명히 닥쳐올 유혹들을 저항할 준비를 하게 하셨다. 그가 목표로 삼아야 할 높은 표준이 항상 그의 앞에 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고 있다는 인식은 그를 신실하게 되도록 끊임없이 자극할 것이었다. {PP 184.1}

이 이상 가운데서 구속의 경륜이 야곱에게 나타났는데, 완전하지는 않았으나 그 당시 그에게 필요되는 부분만큼만 나타났다. 그의 꿈 가운데 그에게 나타난 신비스러운 사닥다리는 그리스도께서 나다나엘과의 대화 가운데서 언급하신 것과 동일한 것이었다. 그분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요 1:51)고 말씀하셨다. 사람이 하나님의 정부에 반역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자유스러운 교통이 있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죄가 하늘과 땅을 분리시켰으므로 사람은 창조주와 교통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세상은 소망 없는 상태로 홀로 내버려지지 않았다. 그 사닥다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교통의 매개인 예수님을 나타낸다. 만일 그분께서 자신의 공로로 죄가 만든 깊은 구렁에 다리를 놓지 않으셨더라면, 섬기는 천사들이 타락한 인류와 교통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하고 절망적인 인생을 무한하신 능력의 근원과 연결시키신다. {PP 184.2}

이 모든 것이 꿈속에서 야곱에게 계시되었다. 비록 그의 마음이 그 즉시에는 계시의 일부만을 이해하였을지라도 이 크고 신비로운 진리는 그가 일평생 연구할 과제이었으며, 그가 이해할 수 있게 차츰차츰 밝혀졌다. {PP 184.3}

야곱은 밤의 깊은 고요 가운데 잠에서 깨었다. 그 계시의 빛나는 형상들은 사라져 버렸다. 다만 한적한 산들의 희미한 윤곽과 그 위에 반짝이는 별들이 빛나는 하늘만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엄숙한 느낌을 가졌다. 그 쓸쓸한 장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임재로 가득 찼다. 그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이 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창 28:16, 17)라고 말하였다. {PP 187.1}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중대한 사건을 기념하는 습관에 따라 야곱은 그가 이 길을 지나갈 때마다 이 거룩한 곳에 머물러 주를 예배하기 위하여 머무르려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기념비를 세웠다. 그리고 그는 이곳을 벧엘 곧 "하나님의 전"이라고 불렀다. 그는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와 함께 하시리라는 약속을 반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엄숙한 맹세를 하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창 28:20~22). {PP 187.2}

야곱은 여기서 하나님과 약정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주께서는 이미 그에게 번영을 약속하셨으며 이 맹세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보증에 대한 감사로 그의 마음에서 넘쳐나온 것이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요구하신 것들을 시인해야 한다고 느꼈으며 또 자신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은총의 특별한 표에 보답해야 한다고 느꼈다. 그와같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모든 축복은 우리에게 모든 긍휼을 베푸신 분에게 보답하기를 요구한다. 때때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지난 생애를 회고하며 시련 중에 붙드시고, 모든 것이 어둡고 험악하게 보일 때에 그의 앞에 길을 열어 주시고, 힘이 쇠할 때에 그를 소생시킨 하나님의 귀중한 구원을 감사함으로 회상하여야 한다. 그는 그 모두를 하늘 천사들의 돌봄의 증거로 인식하여야 한다. 이 헤아릴 수 없는 축복들을 고려하여 그는 종종 겸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시 116:12)라고 자문해 보아야 한다. {PP 187.3}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간, 우리의 재산은 우리에게 이런 축복들을 위탁하신 분께 거룩히 바쳐져야 한다. 우리를 위하여 특별한 구원을 베푸시거나 새롭고 예기하지 않은 은총이 우리에게 허락될 때마다 우리는 말로써 감사할 뿐 아니라 야곱처럼 그분의 사업에 예물과 헌금을 드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여야 한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는 드리는 일도 끊임없이 해야 한다. {PP 187.4}

야곱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창 28:22)라고 말하였다. 복음의 충만한 빛과 특권을 누리는 우리들이 은총을 적게 받던 옛날에 살던 사람들이 드린 것보다 적게 드리고 만족할 것인가? 아니다.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더 큰 만큼 우리의 의무도 거기에 부합되도록 증가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얼마나 과소평가하는가?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헤아릴 수 없는 값진 선물에 보답함에 있어서 수학적 법칙으로 시간과 돈과 사랑을 측정하려는 노력은 얼마나 헛된가! 그리스도께 드리는 십일조! 오, 보잘것없는 금액이요, 그렇게 값진 것에 대하여 얼마나 빈약하고 부끄러운 보상인가!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남김 없는 헌신을 요구하신다.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다. {PP 188.1}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새롭고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늘 천사들의 임재와 보호를 확신하는 가운데 야곱은 "동방 사람의 땅"으로 그의 여행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야곱이 그 땅에 도착한 것은 거의 백년 전 아브라함의 심부름꾼의 도착과는 얼마나 달랐던가! 그 심부름꾼은 수행인들을 거느리고 약대를 타고 금, 은 등 값진 선물을 가지고 도착하였었다. 그러나 그 자손은 지팡이밖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외롭고 발병이 난 나그네였다. 아브라함의 심부름꾼처럼 야곱은 우물곁에서 머물렀는데, 그가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만난 것도 이곳이었다. 우물에서 돌을 굴려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봉사를 한 것은 야곱이었다. 그는 친척이라는 것을 알려서 라반의 집으로 영접되었다. 비록 재산도, 수행원도 없이 홀로 왔으나 몇 주일 동안에 부지런하고 재간 있는 인물이라는 인정을 받아 그는 계속 머물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가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에게 봉사할 것이 협정되었다. {PP 188.2}

고대에는 혼약의 재가(裁可) 전에 신랑이 그의 형편에 따라 얼마의 돈이나 그에게 해당하는 다른 재물을 장인에게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습관이 있었다. 이것은 결혼 관계의 안전을 보호하는 방편으로 여겨졌다. 아버지들은 가족의 부양을 위하여 준비되지 아니한 남자들에게 그들의 딸들의 행복을 위탁하는 일을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만일 그들이 일을 처리하고 가축이나 토지를 얻을 충분한 검약의 정신과 능력이 없으면 그들의 생애는 두렵게도 무가치하다고 판명될 것이었다. 그러나 아내를 위하여 아무것도 지불할 것이 없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있었다. 그들은 요구된 결혼 자금의 가치에 따라 규정된 기간 동안 그들이 사랑하는 여자의 아버지를 위하여 일할 것이 허락되었다. 구혼자가 봉사를 충실히 하고 다른 점에 있어서도 합당하다는 것이 밝혀질 때 그는 그 딸을 자신의 아내로 얻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받았던 결혼 지참금은 결혼 때에 그 딸에게 주어졌다. 그러나 레아와 라헬의 경우에 있어서 라반은 그들에게 주었어야 할 결혼 지참금을 제멋대로 보류하였다. 그들은 메소포타미아를 떠나기 직전에 이것에 대하여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창 31:15)다고 언급하였다. {PP 188.3}

고대의 습관은 라반의 경우에서처럼 비록 남용되는 일이 때때로 있을지라도 좋은 결과들을 가져왔다. 구혼자가 그의 신부를 얻기 위하여 봉사하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그것은 조급한 결혼을 방지하고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그의 능력과 동시에 그의 애정의 깊이를 시험해 볼 기회가 되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그와 반대되는 길을 따라감으로 그 결과 많은 불행들이 생긴다. 결혼하기 전에 서로의 습관과 성질을 알 기회는 거의 없으며, 일상생활에 관한 한 그들이 결혼 서약을 하기까지는 사실상 알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많은 사람들은 저희가 서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 늦게야 발견하며, 그 결과 그들의 연합은 일평생 불행하다. 남편과 아버지의 게으름과 무능 혹은 악습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일이 종종 있다. 고대의 풍습을 따라 결혼 전에 구혼자의 성품을 시험하였더라면 큰 불행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PP 189.1}

야곱은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이나 충실히 봉사하였으나, 그는 봉사한 세월을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수일같이 여겼”(창 29:20)다. 그러나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라반은 그렇게 귀중한 조력자를 더 오래 잡아두고자 하여 레아를 라헬 대신에 바꾸어 주는 무자비한 기만을 행하였다. 레아 자신이 그같이 속이는 일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은

야곱으로 그 여자를 사랑할 수 없다고 느끼게 하였다. 그가 분개하여 라반을 비난하자 라반은 또 7년간을 봉사하면 라헬을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레아를 버리지 말도록 강요하였는데, 그럴 경우 집안에 불명예를 초래할 것이었다. 이리하여 야곱은 매우 고통스럽고 괴로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마침내 그는 레아를 그대로 두고 라헬과 결혼하기로 결심하였다. 라헬은 항상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 그러나 그 여자에 대한 그의 편애는 시기와 질투를 자극하였고, 그의 생애는 이 자매 아내들의 맞겨룸으로 인해 쓰라렸다. {PP 189.2}

20년 동안 야곱은 메소포타미아에 체류하면서 라반을 위하여 일하였으나 라반은 친족간의 유대를 돌아보지 않고 그들의 관계에서 오는 모든 이익을 자기 자신만이 취하였다. 그는 자신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의 노역(勞役)을 요구하였으며, 나머지 기간 동안 야곱의 품삯은 열 번이나 변경되었다. 그래도 야곱의 봉사는 부지런하고 신실하였다. 그들의 마지막 회견에서 그가 라반에게 한 말은 가혹한 주인의 이익을 위하여 그가 어떻게 꾸준히 일하였는가를 생생하게 묘사한다. “내가 이 이십년에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숫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창 31:38~40). {PP 190.1}

목자는 낮이나 밤이나 그의 양떼를 지켜야만 하였다. 그 양떼들은 강도들과 무수한 야수들의 위험에 처하였다. 그들은 잘 보호받지 못한 양떼들을 자주 약탈하였다. 라반의 많은 양떼들을 돌보기 위하여 야곱은 많은 조력자들을 데리고 있었으나 그 모든 양떼들의 책임은 자기 자신이 지고 있었다. 건조한 계절에는 목말라 죽지 않도록 보호하고 가장 추운 계절에는 밤에 내리는 심한 서리에 떨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연중 어떤 때는 몸소 양떼들과 함께 있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야곱은 목자장이었고 그가 고용한 종들은 수하의 목자들이었다. 만일 어떤 양이 없어지면 목자장이 손해를 보았다. 만일 양떼가 번성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 양떼를 돌보도록 책임을 맡긴 종들을 불러 엄히 문책하였다. {PP 190.2}

부지런하며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목자의 생애와 그의 책임 하에 맡겨진 무력한 동물에 대한 그의 부드러운 동정심은 영감 받은 성경 기자들로 말미암아 복음의 가장 귀중한 어떤 진리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 목자로 비유되었다. 타락 후에 그분께서는 당신의 양들이 죄의 어두운 길에서 멸망당할 운명에 있는 것을 보셨다. 이 방황하는 양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분께서는 영예롭고 영광스러운 당신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셨다. 그분께서는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리라",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땅의 짐승의 삼킨 바 되지 아니하"(겔 34:16, 22, 28)게 하리라고 말씀하신다.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사 4:6)는 당신의 우리로 그들을 부르는 그분의 음성이 들린다. 양떼를 돌보시는 그분의 노력은 지치지 않는다. 그분께서는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고통당하는 자를 구하며 어린양들을 당신의 팔로 모아 당신의 품에 안으신다. 그분의 양들은 그분을 사랑한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요 10:5). {PP 190.3}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삯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삯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요 10:11~14)이라고 말씀하신다. {PP 191.1}

목자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수하 목자들인 당신의 목사들에게 당신의 양떼를 돌보도록 위탁하셨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당신께서 나타내셨던 것과 같은 관심을 나타내며, 당신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일의 신성한 책임감을 느끼라고 명하신다.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성실한 자세로 양떼를 먹이며,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실신한 자를 소생시키며 삼키려는 이리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라고 엄숙히 명령하셨다. {PP 191.2}

그리스도께서는 양들을 구원하려고 친히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으며, 그분께서는 당신의 목자들에게 그같은 사랑을 그 모본으로 나타내신다. 그러나 "삯꾼은…양도 제 양이 아니므"로 양떼에 진정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는 다만 보수를 얻기 위하여 일하며

자기 자신을 돌볼 뿐이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한 관심 대신에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며 위험하거나 위급할 때에는 양떼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PP 191.3}

사도 베드로는 수하 목자들에게 권고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를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벧전 5:2, 3). 바울은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행 20:28, 29)리라고 말한다. {PP 191.4}

충실한 목자에게 맡겨진 수고와 짐을 불쾌한 과업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두 사도에게 책망을 받는다.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를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 목자장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그와 같은 불충실한 종들을 모두 기꺼이 해임하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분의 피로 사셨으니 모든 목자는 자신이 돌보는 양들이 무한한 희생의 값으로 산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는 각 양들을 매우 값진 것으로 생각하고 건강하고 원기 왕성한 상태로 보존하도록 그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정신에 감화된 목자는 그분의 극기의 모본을 따라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의 복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양떼들은 그의 보호 하에 번성할 것이다. {PP 192.1}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봉사에 대한 엄밀한 평가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을 것이다. 주께서 모든 목자들에게 “네가 받았던 떼, 네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뇨”(렘 13:20)라고 캐물으실 것이다. 충실하였음이 드러난 사람은 값진 보상을 받을 것이다.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벧전 5:4)고 사도는 말한다. {PP 192.2}

라반을 위해 봉사하는 데 싫증이 난 야곱은 가나안으로 돌아가겠다고 제의하면서 장인에게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창 30:25,

26)라고 하였다. 그러나 라반은 야곱에게 유하기를 강권하며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창 30:27)라고 언명하였다. 그는 자신의 재산이 사위의 보호 아래서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PP 192.3}

야곱은 말하기를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떼를 이루었나이다”(창 30:30)라고 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라반은 야곱의 소유가 점점 많아지는 것을 질투하였는데, 야곱은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대와 나귀가 많았”(창 30:43)다. 라반의 아들들도 그들의 아버지와 같이 질투하였으며 그들의 악의 있는 말이 야곱의 귀에 들렸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창 31:1, 2). {PP 192.4}

야곱이 에서 만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더라면 오래 전에 그의 교활한 친척을 떠났을 것이었다. 이제 그는 라반의 아들들이 자신의 재산을 그들의 소유인 것처럼 넘겨다보고 폭력으로라도 그것을 빼앗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느꼈다. 야곱은 큰 당혹함과 난국에 처하여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은혜스러운 벧엘의 약속을 생각하고 그는 자신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며 그분의 지시를 구하였다. 꿈에 그의 기도는 응답되었다.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창 31:3). {PP 193.1}

라반의 출타가 떠날 기회를 주었다. 양떼와 가축 떼들을 빨리 모아 앞서 보내고, 야곱은 그의 아내들과 자녀들과 종들을 데리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가나안 변경에 있는 길르앗을 향하여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3일 후에 라반은 그들이 도망한 것을 알고 그 뒤를 추격하여 그들이 여행을 떠난 지 7일 만에 그 일행들을 따라잡았다. 그의 분노는 맹렬한 불같았으며 그가 거느린 무리가 야곱의 무리보다 강하므로 그들을 강제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도망자들은 참으로 큰 위기에 처하였다. {PP 193.2}

라반이 그의 적개심을 실천에 옮기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종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중재하신 사실 때문이었다. 라반이 말하기를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창 31:29)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그는 야곱을 강제로 돌아가게 하거나 감언이설로 그를 강압해서는 안 되었다. {PP 193.3}

라반은 그의 딸들의 결혼 지참금을 주지 않았으며 언제나 야곱을 교활하고 가혹하게 다루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시치미를 떼고 야곱이 몰래 떠난 것을 책망하고 왜 아버지로 하여금 송별 잔치를 베풀고 딸들과 손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나눌 기회를 주지 않았느냐고 하였다. {PP 193.4}

그에 대한 대답으로 야곱은 라반의 이기적이요 탐욕적인 수단을 솔직하게 지적하고 자신의 충실과 정직에 대한 증거를 들어 그에게 호소하였다. 야곱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창 31:42)라고 말하였다. {PP 193.5}

라반은 야곱이 들춰내는 사실들을 부인할 수 없었고 이제 그는 화평의 언약을 맺을 것을 제의하였다. 야곱은 그 제의에 동의하였고 돌무더기를 쌓아 계약의 표를 삼았다. 라반은 이 돌무더기에 미스바 곧 “망대”란 이름을 주며 “우리가 피차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감찰하옵소서”라고 말하였다. {PP 193.6}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나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않을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 아비 이삭의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창 31:51~53)였다. 이 조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양편에서 연회를 열었다. 환담으로 밤을 새우고 동이 틀 때에 라반과 그의 무리는 떠났다. 이 이별로써 아브라함의 자손과 메소포타미아 주민 사이의 모든 접촉은 두절되었다. {PP 194.1}

18장 씨름하던 밤

야곱이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밧단아람을 떠났지마는 20년 전에 도망자로서 지나갔던 그 길을 되돌아올 때에 여러 가지 불안한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다. 아버지를 속인 죄는 언제나 그의 앞에 아른거렸다. 그는 자신의 오랜 유랑 생활이 그 같은 죄의 직접적인 결과임을 알고 그 일을 주야로 깊이 생각했으며 양심의 가책은 그의 여행을 매우 슬프게 만들었다. 고향의 산들이 멀리 바라보일 때에 이 족장의 마음은 깊이 감동되었다. 지난날의 모든 일들이 그의 앞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자기 죄에 대한 기억과 아울러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이 함께 떠올랐다. {PP 195.1}

그는 여행의 끝이 점점 가까워짐에 따라 에서에 대한 생각으로 여러 가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야곱이 도망한 후에 에서는 자기 자신이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유일한 상속자라고 생각하였다.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은 에서로 하여금 야곱이 상속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오고 있다는 두려움을 일으킬 것이었다. 에서는 지금 마음만 먹는다면 그의 아우를 크게 해할 수 있었다. 그는 복수하고 싶은 욕망에서뿐 아니라 그가 오랫동안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해 오던 재물에 대한 안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야곱에게 폭력을 사용할 수도 있었다. {PP 195.2}

주께서는 다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보여 주셨다. 야곱이 길르앗산에서 남쪽으로 여행할 때에 두 무리의 하늘 천사들이 그의 앞뒤를 호위하고 마치 그의 일행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양 그 무리와 함께 전진하였다. 야곱은 오래 전에 벧엘에서 본 계시를 회상하고 그가 가나안으로부터 도망할 때에 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던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의 귀환 길을 수호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증거를 보고 그의 무거웠던 마음이 점점 더 가벼워졌다. 그리고 그는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두 군대 혹은 진영)이라 하였”(창 32:2)다. {PP 195.3}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느꼈다. 그러므로 그는 먼저 사자들을 보내어 그의 형에게 위무적(慰撫的)인 인사를 하도록 하였다. 그는 그들에게 에서에게 가서 할 말까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다. 두 형제가 출생하기 전에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는 예언이 있었으므로 에서가 이것을 기억하고 원한을 품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야곱은 하인들에게 에서 앞에 가서 저희는 “내 주 에서”에게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하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 대하여는 “주의 종 야곱”이라고 말하도록 부탁하였다. 그리고 그가 가난한 방랑자로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돌아오고 있다는 염려를 없애기 위하여 야곱은 그의 기별에서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고하고 내 주께 은혜받기를 원하나이다”고 조심스럽게 말하였다. {PP 195.4}

그러나 하인들은 에서가 친선의 기별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4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가까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다. 에서가 복수하기 위해 오고 있는 것이 분명하였다. 공포가 온 진영에 퍼졌다.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 그는 되돌아갈 수도 없었고 앞으로 나가기도 두려워했다. 무장도 안하고 아무 방비도 없는 그의 일행은 원수를 만날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는 그들을 두 무리로 나누고 만약 한 무리가 공격을 받으면 다른 무리는 도망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하였다. 그는 그의 많은 양떼 중에서 골라낸 후한 선물을 친선의 기별과 함께 에서에게 보냈다. 그는 형에게 잘못한 죄를 속하고 무서운 위기를 피하기 위하여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 후에 그는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하였다.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떼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옴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창 32:9~11). {PP 196.1}

그들은 이제 얍복강에 이르렀다. 밤이 되어 야곱은 가족들을 보내어 강의 얕은 여울을 건너게 하고 그는 홀로 뒤에 남았다. 야곱은 그 밤을 기도하며 보내기로 결심하고 홀로 하나님과 같이 있기를 바랐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수 있으셨다. 그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 있었다. {PP 196.2}

그 곳은 야수들이 자주 나타나는 한적한 산악 지대였고 강도들과 살인자들의 은신처였다. 야곱은 혼자 아무 방비도 없이 비통한 마음으로 땅에 엎드려 있었다. 밤중이었다. 그의 사랑하는 이들은 모두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그는 언제 위험과 죽음을

당하게 될지 알 수 없었다. 무엇보다 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무죄한 사람들에게 이런 위난을 몰고 온 것은 자기 자신의 죄라는 생각이었다. 그는 진지한 탄원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 갑자기 거센 손이 그를 붙잡았다. 그는 원수가 자기를 죽이려 하는 줄로 생각하고 공격자의 손아귀에서 빠져 나오기 위해 몸부림쳤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이기기 위해 서로 싸웠다. 한마디 말도 없이 야곱은 혼신의 힘을 다해 싸웠으며 한 순간도 그의 노력을 늦추지 않았다. 이처럼 그가 자기의 생명을 위해 싸우는 동안 죄책감이 그의 영혼을 억눌렀으며 그의 죄가 되살아나 그를 하나님께로부터 떼어 놓으려 하였다. 그러나 그는 무서운 궁지에 빠져 있었지마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간청하였다. 투쟁은 거의 동틀 때까지 계속되었는데 그 때 그 이상한 사람이 그의 손가락을 야곱의 환도 뼈에 대자 그가 곧 절게 되었다. 그리하여 야곱은 이제 그가 더불어 싸우는 상대자가 누구인지를 분별하게 되었다. 그는 자기가 하늘의 사자와 씨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것이 바로 그가 거의 초인간적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얻지 못한 원인이었다. 야곱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분은 “언약의 천사” 그리스도였다. 야곱은 이제 불구가 되어 격심한 고통을 느꼈으나 그가 잡고 있는 것을 놓으려 하지 않았다. 온전히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그는 천사에게 매달렸다. 그는 축복을 탄원하면서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호 12:4)다. 그는 자기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보증을 받아야 하였다. 육체적 고통도 이러한 그의 목적을 단념시킬 수 없었다. 그의 결심은 점점 강하여지고 그의 신앙은 더욱더 열렬해져서 마지막 순간까지 참고 견디었다. 천사는 그에게서 빠져 나가려고 애를 쓰며 말하기를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고 재촉하였다. 그러나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대답하였다. 만일 이 말이 자만하고 외람된 자신감에서 나왔다면 야곱은 즉시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신념은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하면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이 보여 주는 그러한 확신이었다. {PP 196.3}

야곱은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호 12:4)겼다. 이 죄 많고 잘못이 많은 인간이 겸손과 회개와 자기 포기를 통해서 하늘의 임금과 겨루어 이겼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떨리는 손으로 붙잡았으며, 사랑이 무한하신 분께서는 이 죄인의 호소를 물리칠 수 없으셨다. {PP 197.1}

속임수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죄가 이제 그의 앞에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정하신 시간에 당신이 정하신 방법으로 이루실 그것을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고자 하였다. 그가 용서받았다는 증거로서 그의 이름이 그가 범한 죄를 생각나게 하는 이름으로부터 그의 승리를 기념하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천사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대신 들어앉는 자)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창 32:28)고 말하였다. {PP 197.2}

야곱은 그의 영혼이 오랫동안 갈망하던 축복을 받았다. 대신 들어앉는 자요, 속이는 자로서의 그의 죄는 사유하심을 받았다. 그의 생애의 위기는 지나갔다. 의심과 고통과 후회가 그의 생애를 쓰디쓰게 만들었었지만 이제 모든 것이 변했다.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이르러 오는 평화는 몹시 달콤했다. 야곱은 이제 형 만나기가 두렵지 않았다.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도 감동시켜 그의 겸손과 회개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실 수 있으셨다. {PP 198.1}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동안 다른 하늘의 사자가 에서에게 파송되었다. 에서는 꿈속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20년 동안 방랑하는 그의 아우를 보았다. 그는 또 야곱이 어머니의 죽음을 알고 몹시 슬퍼하는 것과 그가 하나님의 군대에 호위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에서는 이 꿈을 자기의 군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시니 그를 해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PP 198.2}

마침내 두 무리는 서서히 접근하고 있었다. 황야의 추장은 그의 부하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며 야곱은 그의 처자들과 목자들과 하녀들을 앞세우고 뒤에는 양떼들과 가축 떼들의 긴 행렬을 이끌고 다가갔다. 야곱은 지팡이를 의지하여 군사들의 무리를 만나러 나아갔다. 투쟁을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으므로 얼굴은 창백하고 발을 절름거리면서 그는 발걸음마다 아픔을 이기지 못해 멈추면서 천천히 걸어 나아갔으나 그의 얼굴은 기쁨과 평화로 빛나고 있었다. {PP 198.3}

그 절름거리는 고뇌의 사람을 보고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창 33:4) 울었다. 그 광경을 바라보던 거칠기 이를 데 없던 에서의

군사들까지도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다.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는 하였으나 그들의 대장의 마음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을 미처 생각지 못했었다. 저들은 야곱의 질환을 보았으나 그의 이 연약함이 바로 그의 능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거의 생각지 못했다. {PP 198.4}

얍복 강가에서 고민하던 밤, 멸망이 바로 그의 앞에 이른 것처럼 보이던 그 때에 야곱은 인간의 도움이 얼마나 헛된 것이며 인간의 능력을 신뢰하는 모든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가 하나님께 그처럼 큰 죄를 지었으나 그의 유일한 도움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의지할 곳 없고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낀 그는 회개하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약속을 간청하였다. 그 약속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용서하시고 받아 주시겠다는 보증임을 확신하였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 수 있어도 그 말씀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를 붙들어 저 무서운 투쟁을 견딜 수 있게 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PP 198.5}

야곱이 씨름하고 고민하던 밤에 겪은 경험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어야 할 시련을 나타낸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거룩한 이상 가운데 이 때를 내려다보고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임은 어찜이뇨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렘 30:5~7)고 말하였다. {PP 201.1}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중보자로서 그의 사업을 끝내실 때에 이 환난의 때가 시작될 것이다. 그 때에는 영혼 개개인의 문제가 결정될 것이며 더 이상 죄로부터 정결케 하는 속죄의 피가 없을 것이다.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위하여 봉사하시던 중보자의 자리를 떠나실 때에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계 22:11)는 엄숙한 선고가 내려진다. 그 때에 억제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은 지상에서 떠나가신다. 마치 야곱이 성난 형에 의하여 죽음의 위협을 당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들을 멸하려는 악인들로부터 위협을 당하게 될 것이다. 야곱이 에서의 손에서 구원함을 받기 위하여

밤새도록 씨름한 것처럼 의인들은 그들을 둘러싼 원수들로부터 구원함을 받기 위하여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다. {PP 201.2}

사단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야곱을 고소하고 그가 범죄하였으므로 그를 멸할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에서에게 야곱을 대적하여 진군하도록 충동하였다.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하고 있는 동안 사단은 그로 하여금 죄책감에 억눌리게 함으로 그를 낙담시켜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그의 신뢰심을 깨뜨리려 하였다. 야곱이 고통 중에서도 천사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간청할 때 하늘의 사자도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그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에게서 빠져나가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야곱은 외면당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비하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자비에 자기 자신을 의탁하였다. 그는 자기가 죄를 회개한 것을 지적하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탄원하였다. 그는 자기의 생애를 되돌아 볼 때에 거의 절망 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그는 천사를 굳게 붙들고 열렬하고도 애타는 부르짖음으로 승리를 얻을 때까지 간청하였다. {PP 201.3}

악의 세력과의 마지막 투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경험도 이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과 인내와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분의 능력에 대한 그들의 확신을 시험하실 것이다. 사단은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으며 그들의 죄는 너무 커서 용서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일으켜 그들을 공포에 질리게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결점들을 뼈저리게 느낄 것이며 그들의 생애를 회고할 때에 그들의 희망은 꺼져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들의 성실한 회개를 기억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회개한 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도록 간청할 것이다. 기도가 즉시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하여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 것이다. 야곱이 천사를 붙잡은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는 말이 될 것이다. {PP 202.1}

야곱이 속임수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자기 죄를 이전에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스럽게 그의 생명을 보존시킬 수 없으셨을 것이다. 시련의 때에도 이와 같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포와 고민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동안에 그들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나타날 때, 그들은 압도당할 것이며 절망으로 그들의 신앙은 끊어지고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 자신들의 무가치함을 깊이 느끼는 반면 은밀한 잘못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죄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로 도말되었을 것이므로 그들은 그 죄악들을 기억할 수 없을 것이다. {PP 202.2}

사단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일상생활의 사소한 불충실은 묵과하실 것이라고 믿게 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결코 악을 시인하시거나 허용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야곱을 다루시는 가운데 나타내셨다. 죄를 변명하거나 숨겨 두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채 하늘 책에 그대로 남겨 두는 자들은 모두 사단에게 정복당할 것이다. 그들의 고백이 찬양을 받고 직위가 명예로울수록 그 같은 저들의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악한 것이며 그들의 대원수 마귀의 승리는 더욱 분명하게 된다. {PP 202.3}

그러나 야곱의 이야기는, 죄에 빠졌다가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을 그분께서 내어 쫓지 않으시리라는 보증이 된다. 야곱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싸워서 얻으려고 하다가 놓쳤던 그것을 얻게 된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맡기고 신뢰하는 신앙으로 말미암아서였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와 능력만이 그가 갈망하던 축복을 그에게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당신의 종에게 가르치셨다. 말세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을 것이다. 위험이 그들을 둘러싸고 절망이 영혼을 억압할 때에 그들은 오직 속죄의 공로만을 의지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력하고 무가치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를 의지해야 한다. 그렇게 하고도 멸망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우리의 흉악한 범죄의 긴 목록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눈앞에 놓여 있다. 그 기록은 완전하여 우리의 죄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진 것이 없다. 그러나 옛날 당신의 종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성취하실 것이다. {PP 202.4}

야곱은 인내심을 가지고 단호하게 섰기 때문에 승리하였다. 그의 경험은 끈질긴 기도의 능력을 증거한다. 우리가 끈질긴 기도와 불굴의 신앙에 대한 교훈을 배워야 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다. 그리스도교나, 그리스도인 개개인들에게 이르러 오는 가장 위대한 승리들은 그들의 재능이나, 교육이나, 재물이 인간의 어떤 호의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열렬하고 필사적인 믿음으로 전능하신 능력의 팔에 매달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의 밀실에서 얻어지는 승리들이다. {PP 203.1}

모든 죄를 버리고 열렬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가 했던 것처럼 열렬하고 참을성 있게 매달리는 사람들은 야곱이 성공한 것처럼 모두 성공할 것이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눅 18:7, 8). {PP 203.2}

19장 가나안으로 돌아옴

요단강을 건너 “야곱이…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야곱이 벧엘에서 드린 기도 곧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고향 땅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해 달라던 기도가 응답되었다. 한동안 그는 세겜 골짜기에 거하였다. 이곳은 약 백 년 전에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처음으로 장막을 치고 첫 제단을 쌓은 곳이었다. 이곳에서 야곱은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의 손에서 은 일백 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이스라엘”(창 33:18~20)—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 이라 하였다. 아브라함처럼 야곱도 장막 곁에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가족들을 조석으로 희생 제단 주위에 불러 모았다. 17세기가 지난 후에 야곱의 후손이신 구세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낮의 더위를 우물곁에 앉아 식히시면서 의아해 하던 청중들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요 4:14)에 대하여 말씀하셨던 그 우물은 야곱이 판 것으로 바로 여기에 있었다. {PP 204.1}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난폭과 유혈사태로 인해 더 이상 세겜에 머무를 수 없었다. 그의 가족 중 한 딸이 수치와 슬픔을 당했고 두 형제는 살인죄를 범했으며 온 도시는 한 경솔한 청년의 무례한 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파멸과 살육에 휩쓸렸다. 이같은 무서운 결과의 발단은 이방인과 교제하기 위하여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던”(창 34장 참조) 야곱의 딸의 행동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사단의 지경에 두고 있으며 사단의 유혹을 불러들이게 된다. {PP 204.2}

시므온과 레위의 무모한 잔학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세겜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행동으로 인하여 그들은 중대한 죄를 범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의도를 교묘하게 야곱에게 숨겼다. 그들이 복수했다는 소식은 야곱의 마음을 공포로 가득 채웠다. 자기 아들들의 기만과 난폭한 행위로 인해 마음이 상한 야곱은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에게 냄새를 나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고 말할 뿐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피비린내 나는 행위에 대한 그의 슬픔과 염오는 거의 50년이 지난 후 그가 애굽 땅에서 침상에 누워 임종할 때 그의 아들들에게 한 말 가운데 나타나 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예하지 말지어다...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창 49:5~7). {PP 204.3}

야곱은 깊이 겸비해야 되겠다고 느꼈다. 잔인성과 거짓이 그의 아들들의 성격에 나타났다. 장막 안에도 거짓 신들이 있었고 우상숭배는 그의 가족 중에서도 어느 정도 발붙일 곳을 얻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공과(功過)에 따라 그들을 다루신다면 그 이웃 민족들에게 보복을 당하도록 버려두시지 않겠는가? 이같이 야곱이 고통 중에 엎드려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남쪽으로 여행하여 벧엘로 가라고 지시하셨다. 이곳에 대한 생각은 야곱으로 하여금 천사들과 자비로운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계시뿐 아니라 그곳에서 한 그의 맹세 곧 여호와께서 자기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맹세도 기억나게 해주었다. 이 거룩한 곳으로 가기 전에 그는 그의 가족들이 우상숭배의 부정에서 벗어나게 해야겠다고 결심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장막에 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 중의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벧엘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창 35:3)고 지시하였다. {PP 205.1}

야곱은 깊은 감동에 젖어 그가 방랑자로서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아버지의 장막을 떠났을 때에 처음으로 벧엘을 찾게 되었고 그 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밤의 이상 중에 그에게 나타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되풀이해서 말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루신 놀라운 일들을 회고해 볼 때에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의 자녀들 역시 역사하시는 능력에 감동되었다. 그는 그들이 벧엘에 도착하면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준비시켰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묻"었다. {PP 205.2}

하나님께서 그 땅 거민들의 마음에 공포심을 일으키셨으므로 그들은 세겜의 살육에 대한 보복을 감행하지 못했다. {PP 206.1}

여행자들은 무사히 벧엘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여호와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언약의 약속을 새롭게 하셨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웠다. {PP 206.2}

야곱은 벧엘에서 오랫동안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공경 받던 한 식구 즉 그의 여주인과 같이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온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다. 이 연로한 여인의 존재는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를 그의 유년시절에 연결시켜 주는 귀중한 끈이었고 특별히 그에 대한 사랑이 매우 강하고 부드러웠던 매우 큰 슬픔 가운데서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되었으므로 그 나무는 “곡함의 상수리”라고 불렸다. {PP 206.3}

드보라의 충실한 봉사의 생애와 그들의 친구에 대한 이 가정의 깊은 애도를 기념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보존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 사실을 무심히 보아 넘겨서는 안 된다. {PP 206.4}

벧엘에서 헤브론까지는 이틀 길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곳에 이르기 전에 야곱은 라헬과 사별하는 큰 슬픔을 당하였다. 그는 그 여자를 위하여 7년간의 봉사를 두 번이나 하였으나 그의 사랑이 수고를 가볍게 하였었다. 그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고 영속적인 것이었던가는 오랜 후 야곱이 애굽 땅에서 거의 임종시에 그를 문병하러 온 요셉에게 노령의 야곱이 자기의 생애를 회고하면서 “내게 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노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 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오히려 격한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창 48:7)고 한 말 중에 나타나 있다. 그의 길고 파란 만장한 생애를 통해 일어난 숫한 가정의 일들 중에 오직 라헬을 사별한 일만이 그의 마음에 떠올랐다. {PP 206.5}

라헬은 죽기 전에 둘째 아들을 낳았다. 숨을 거두면서 그는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곧 “슬픔의 아들”이라 지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 곧 “오른손의 아들” 또는 “나의 힘”이라고 불렀다. 라헬은 죽은 그 곳에 장사되었고 야곱은 그를 오래도록 기억하기 위하여 그 곳에 비를 세웠다. {PP 206.6}

에브랏으로 가는 도중에 다른 사악한 범죄가 야곱의 가족을 더럽혔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장자 르우벤은 장자의 명분의 특권과 명예를 상실하게 되었다. {PP 206.7}

마침내 야곱은 여행의 끝에 이르러 “마므레로 가서 그 아비에게 이르렀으니…곧 아브라함과 이삭의 우거하던 헤브론이더라”(창 35:27). 그는 그의 아버지의 생애의 만년에 이 곳에 머물러 있었다. 아내를 사별하고 외롭게 지내는 허약하고 눈먼 이삭에게는 오래 떨어져 있었던 이 아들의 친절한 시중이 큰 위안이 되었다. {PP 207.1}

야곱과 에서는 그들의 아버지께서 임종하는 병상에서 다시 만났다. 한때 형은 이 때를 복수할 기회로 기다렸던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의 감정은 그 후에 크게 달라졌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에 속한 영적 축복에 크게 만족하여 에서가 갈망하고 가치 있게 여긴 유일한 상속물인 아버지의 재산을 형에게 양도하였다. 그들은 더 이상 질투나 증오로 사이가 나빠지지 않았으나 서로 헤어져 에서는 세일산으로 옮겨갔다. 축복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가 갈망하던 보다 높은 미덕에 첨가하여 야곱에게 세상 재물도 허락하셨다. 두 형제의 재산이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음이더라 그들의 우거한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창 36:7). 이 분리는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하였다. 두 형제는 신앙에 있어서 아주 큰 차이가 있었으므로 서로 떨어져 사는 것이 그들에게 더 좋았다. {PP 207.2}

에서와 야곱은 다 같이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배웠고 둘 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총애를 받을 자유를 가졌었다. 그러나 그들 두 사람이 다 이것을 행하고자 선택하지는 않았다. 그 두 형제가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갔고 그들의 길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갔다. {PP 207.3}

에서가 구원의 축복에서 제거된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독단적으로 택정하신 것이 아니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만민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었다. 어떤 사람이 멸망당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선택한 것이지 다른 사람이 선택해 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이 영생을 얻도록 택하심을 입을 수 있는 조건을 당신의 말씀 가운데 제시하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에 조화되는 한 인물을 선정해 놓으셨으며

누구든지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이 표준에 도달하는 자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요 3:36; 마 7:21)고 말씀하셨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분은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계 22:14)고 선언하신다. 인간의 최종적인 구원과 관련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유일한 택정이다. {PP 207.4}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영혼은 택함을 받고, 갑옷을 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도 선택함을 받았다. 깨어 기도하며 성경을 연구하고 시험에서 도망치는 사람과 꾸준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다 택함을 받을 것이다. 구속을 위하여 마련된 것들은 모든 사람에게 제한 없이 주어지지만, 구속의 결과는 그 조건들에 응한 자들이 누릴 것이다. {PP 208.1}

에서는 언약의 축복을 멸시하였다. 그는 영적 이익보다도 현세적 이익을 더 귀중히 여겼다. 그는 바라던 그것을 얻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은 자기 자신의 계획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야곱은 신앙의 유업을 선택하였다. 그는 그것을 술책과 배반과 허위로써 얻고자 노력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고치기 위하여 그 죄가 범해지는 것을 내버려 두셨다. 그러나 만년에 온갖 쓰라린 경험을 당하면서도 야곱은 결코 그의 목적에서 벗어나거나 그의 선택을 포기하지 않았다. 인간의 기교와 책략에 의지하여 축복을 얻고자 함으로 그는 하나님과 싸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얍복강가에서 씨름하던 그날 밤부터 야곱은 다른 사람이 되었다. 자기 과신은 뿌리째 뽑혀 버렸다. 그 때 이후로 어릴 때의 교활함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술책과 기만 대신에 그의 생애는 단순함과 진리로 특징지워졌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에 단순한 믿음으로 의지하는 공과를 배웠고 시련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복종하였다. 품성의 비열한 요소는 풀무불에서 타 없어지고 마침내 정금처럼 정련(精鍊)되어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PP 208.2}

야곱의 죄와 그것이 가져온 일련의 사건들은 악한 영향 곧 그의 아들들의 품성과 생애에 쓰라린 결과를 가져온 나쁜 영향을 끼쳤다. 그의 아들들이 성년이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서 심각한 결점들이 나타났다. 일부다처의 결과가 그의 가족들 중에 나타났다. 이 무서운 악은 사랑의 샘을 고갈시키고 그 영향은 가장 신성한 관계를 약하게 한다. 어머니들의 질투는 가족 관계를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아이들은 툭하면 싸우는 성질과 제재를 받을 때 참지 못하는 성질을 가지고 자라났으므로 그들의 아버지의 생애는 근심과 슬픔으로 어두워졌다. {PP 208.3}

그러나 그들 중에 전혀 다른 성품을 가진 한 사람 곧 라헬의 맏아들 요셉이 있었다. 그의 드문 아름다운 인품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내적 미를 반영하는 것 같았다. 순결하고 활동적이고 기쁨이 충만한 이 젊은이는 또한 도덕적으로도 성실하고 확고한 증거를 나타내었다. 그는 아버지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좋아하였다. 후에 애굽에서 그를 유명하게 만든 자질들 곧 온유, 성실, 진실은 일찍부터 그의 일상생활에 나타났었다. 그의 어머니가 죽은 후에 그의 애정은 아버지에게 더욱 밀착되었고 야곱의 마음도 그의 노령에 이 아이에게 집중되었다. 그는 “여러 아들보다 요셉을 깊이 사랑하”(창 37장 참조)였다. {PP 209.1}

그러나 이러한 애정이 걱정과 슬픔의 원인이 되었다. 어리석게도 야곱은 요셉에게 편애를 나타냈고 이것이 그의 다른 아들들의 질투심을 자극하였다. 요셉이 형제들의 악한 행동을 목격했을 때에 그는 매우 괴로워하면서 용기를 내어 부드러운 말로 그들을 충고하였으나 더욱 그들의 증오와 원한을 살 뿐이었다. 그는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없어서 그의 아버지의 권위로 그들을 개심시키고자 하여 그 문제를 아버지에게 알렸다. {PP 209.2}

야곱은 가혹하게 하거나 엄격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분노를 격발시키는 일을 조심스럽게 피했다. 그는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자녀들에 대한 자기의 염려를 말해 주고 그들에게 자기의 백발을 존중하여 자기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애원했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무시함으로 그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간청하였다. 그들의 악행이 알려진 것을 부끄럽게 여긴 야곱의 아들들은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진정한 감정을 감추었을 뿐 이었다. 실제로는 이 같은 폭로로 인하여 그들의 감정은 더욱 날카롭게 되었다. {PP 209.3}

일반적으로 고귀한 사람들이 입는 그런 값진 겉옷 곧 무릎까지 내려오는 외투를 요셉에게 준 아버지의 무분별한 선물은 그들에게 그의 편애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가 되었고 그것은 야곱이 장자를 제쳐놓고 장자의 상속권을 라헬의 아들에게 주려고 한다는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어느 날 그 소년이 자기가 꾼 꿈을 형들에게 말했을 때에 그들의 적의는 더 커졌다. 그가 말하기를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창 37:6, 7) 하였다. {PP 209.4}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형제들은 질투에 찬 분노로 소리 질렀다. {PP 210.1}

얼마 후에 그는 이와 비슷한 또 하나의 꿈을 꾸고 "해와 달과 열 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고 말했다. 이 꿈도 처음 꿈과 같이 쉽게 해몽되었다. 함께 있던 아버지는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모와 네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고 꾸짖었다. 표면상으로는 그의 말이 엄한 책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주께서 요셉에게 장래를 계시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다. {PP 210.2}

요셉이 형제들 앞에 섰을 때에 그의 아름다운 용모는 주의 영의 임재로 말미암아 환하게 빛났으므로 그들은 요셉을 찬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악한 길을 단념하지 않고 그들의 죄를 책망한 요셉의 결백을 미워하였다. 그들의 마음속에 가인을 움직인 동일한 정신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PP 210.3}

요셉의 형제들은 양떼들이 먹을 목초를 얻기 위하여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지 않을 수 없었으며 때때로 그들은 여러 달 동안 집을 떠나 있어야 했다. 앞에 말한 그런 사정으로 인하여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일찍이 세겜에 사 놓은 땅으로 갔다. 여러 날이 지났으나 그들로부터 아무 소식이 없자 그들이 전에 세겜 사람들에게 행한 잔인한 짓으로 인하여 야곱은 저들의 안전에 대하여 염려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야곱은 요셉을 보내어 그들을 찾아보고 묻게 하였다. 만일 야곱이 요셉에 대한 자기 아들들의 진정한 감정을

알았더라면 그를 홀로 그들에게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조심스럽게 감추어 왔었다. {PP 210.4}

요셉은 즐거운 마음으로 아버지를 떠나갔다. 그들이 다시 만나기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늙은 아버지도 젊은 아들도 다 같이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외롭고 긴 여행 끝에 요셉은 세겜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그 때 그의 형제들과 양떼들이 보이지 않았다. 그들의 행방을 물어서 그는 도단으로 향하였다. 그는 이미 200리 이상 여행하였으나 아직도 60리는 더 가야 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근심을 덜어 드리려는 생각과 불친절하기는 하나 사랑하는 형제들을 만날 생각으로 자기의 피로도 잊고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PP 210.5}

형제들은 그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았다. 그가 그들을 만나기 위해 오랫동안 여행했으리라는 생각도, 그가 몹시 피곤하고 무척 배가 고프리라는 생각도, 그들의 따뜻한 환영과 형제 우애를 그가 무척 갈망하리라는 생각도 그들의 증오심을 누그러뜨리지 못했다. 아버지의 사랑의 증거인 겉옷을 보자 그들은 미칠 지경이었다. 그들은 조롱하는 말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고 소리쳤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몰래 품어 왔던 질투와 보복의 정신이 이제 그들을 지배하였다. 그들은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창 37:20)고 말하였다. {PP 210.6}

르우벤이 아니었더라면 그들은 그들의 의도를 실행에 옮겼을 것이다. 르우벤은 아우를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그를 구원하여 아버지께로 돌려보내야겠다는 생각으로 요셉을 산 채로 구덩이에 던지고 거기서 죽게 버려두자고 제의하였다. 그리고는 모두가 이 계획에 동의하도록 설득시킨 후에 르우벤은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거나, 자기의 진정한 의도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 무리를 떠났다. {PP 211.1}

요셉은 위험을 알지 못하고 오랫동안 찾던 목적이 이루어진 것을 기뻐하며 그들에게 가까이 갔다. 그러나 기대하였던 환영의 인사 대신 그는 그들의 분노와 복수심에 불타는 눈초리를 보고 떨었다. 그는 붙잡히게 되었고 그의 겉옷은 벗겨졌다. 그들의 욕설과 위협은 그의 생명을 빼앗을 것 같은 기세를 보였다. 그의 애걸은 무시되었다. 그는 성난 사람들의

수중에 완전히 빠지고 말았다. 저들은 난폭하게 그를 깊은 구덩이로 끌고 가서 그를 그 속에 던져 넣고 그가 도망할 가망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 후에 거기서 굶어 죽게 내버려 두고 "앉아 음식을 먹"었다. {PP 211.2}

그러나 그들 중 몇 사람들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그들은 복수에서 기대했던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다. 얼마 후 한 떼의 여행자들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 무리는 향료와 다른 상품들을 가지고 요단 저편에서부터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족속의 대상(隊商)이었다. 그 때에 유다는 아우를 죽게 내버려 두지 말고 그대신 그를 이방 상인들에게 팔자고 제의하였다. 그렇게 한다면 그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동시에 그들은 그의 피를 흘리는 죄에서 결백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유다는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골육이니라"고 역설했다. 이 제안에 모두가 찬성하여 요셉을 급히 구덩이에서 끌어올렸다. 요셉이 상인들을 보았을 때에 무서운 미래가 번개처럼 그를 스쳐갔다. 노예가 되는 것은 죽음보다 더 무서운 운명이었다. 그는 무서워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의 형들을 차례로 붙잡고 애원하여 보았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어떤 형제들은 불쌍한 마음이 들었으나 다른 사람의 조소를 무서워하여 침묵을 지켰다. 그들 모두가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였다. 만일 요셉을 그대로 둔다면 그는 틀림없이 그들의 소행을 아버지께 고해 바칠 것이며 아버지는 총애하는 아들에게 행한 그들의 잔인한 행위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의 애걸에 마음을 굳게 닫고 그들은 그를 이방 상인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 대상의 무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 마침내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PP 211.3}

르우벤이 구덩이로 돌아왔으나 요셉은 거기에 없었다. 놀라움과 자책으로 그는 옷을 찢고 그의 형제들을 찾아가 "아이가 없도다 나는 나는 어디로 갈까" 하고 외쳤다. 요셉이 당할 운명과 그를 다시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르우벤은 남은 사람들과 연합하여 그들의 죄를 감추기로 하였다. 염소 새끼를 죽여 그 피에 요셉의 채색 옷을 적셔서 그것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가져가 말하기를 우리가 들에서 그것을 주웠는데 이것이 우리 동생의 옷인지 염려한다고 하였다. 그들은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이 광경을 예상은 했었지만 이제 목격하지 않을 수 없는, 아버지의 가슴이 메어지는 듯한 고통과 비통함을 대처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었다. 야곱은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녕 찢겼도다."고 말하였다.

그의 아들과 딸들이 그를 위로하고자 하였으나 헛된 일이었다. 그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였다. 시간도 그의 슬픔을 경감시키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는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라는 말로 처절하게 울부짖었다. 젊은이들은 그들이 행한 일을 인하여 떨었으나 아버지의 책망이 무서워 그들의 악행을 마음속에 감추어 두었다. 이 일은 그들 자신에게도 매우 큰 죄로 느껴졌다. {PP 212.1}

20장 애굽에서의 요셉

한편 요셉은 그를 산 사람들과 함께 애굽으로 가고 있었다. 대상(隊商)이 가나안 국경을 향하여 남쪽으로 여행할 때에 소년은 멀리 아버지의 장막 주위에 있는 산들을 분별할 수 있었다. 그는 외로움과 고민 중에 있을 그의 사랑하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통곡하였다. 다시 도단에서 일어났던 광경이 그의 앞에 떠올랐다. 그는 성난 형제들을 보았고 그를 향한 그들의 사나운 눈초리를 느꼈다. 그가 몸부림치며 애걸할 때 그를 향해 쏘는 듯한 모욕적인 말들이 그의 귀에 쟁쟁하게 울렸다. 떨리는 마음으로 그는 장래를 내다보았다. 귀엽게 고이 자란 아들이 멸시받고 의지할 데 없는 노예가 되다니 얼마나 큰 환경의 변화인가! 친구도 없는 외로운 몸, 그가 가고 있는 낯선 땅에서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동안 요셉은 억제할 수 없는 슬픔과 두려움에 빠졌다. {PP 213.1}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러한 경험조차도 그에게 축복이 될 것이었다. 다른 방법으로는 여러 해 걸려서도 배울 수 없었을지 모를 것을 그는 몇 시간 안에 배웠다. 강하고 부드러운 사랑을 가졌던 그의 아버지는 편애와 관대로 그에게 해를 끼쳤다. 이 지각없는 편애는 그의 형제들을 노엽게 하였고 저들을 자극하여 그를 가정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잔인한 일을 하게 하였다. 그 편애의 결과는 또한 요셉 자신의 품성에도 나타났다. 그때 그때 시정되어야 할 결점들이 이제까지 조장되어 왔다. 그는 자부심이 강하고 가혹하게 되어가고 있었다. 아버지의 부드러운 보호에 젖은 그는 이방인이요 노예로서 그의 앞에 있는 어려움을 이겨내며, 아무도 보호해 주지 않는 쓰라린 생애를 살아야 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깨달았다. {PP 213.2}

그 때 요셉의 생각은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향하였다. 그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때때로 그는 아버지의 장막에서 야곱이 그의 집으로부터 도망해 나와서 방황하던 때에 그가 본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과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에 대해 들었다. 곧 필요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교훈하고 안위하고 보호하셨는지에 대하여 들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구주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다. 이제 이 모든 귀한 교훈이 그의 앞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요셉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것을 믿었다. 그리고 그 곳에서 그는 여호와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고 이스라엘의 수호자 하나님께서 그가 유랑하는 땅에서도 그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였다. {PP 213.3}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늘 왕의 신민(臣民)답게 행동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는 고결한 결심으로 그의 영혼은 감동되었다. 그는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운명의 시련을 인내로 당하며 날마다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 하루의 경험이 요셉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 무서운 재난이 그를 응석 부리는 아이에서 사려 깊고 용감하고 자제력 있는 어른으로 변화시켰다. {PP 214.1}

요셉은 애굽에 도착하여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 그 집에서 10년 동안 머무르며 그를 섬겼다. 여기서 그는 특수한 시험을 당하였다. 그는 우상을 숭배하는 환경에 처해 있었다. 거짓 신의 숭배는 궁정의 모든 사치에 둘러싸여 그 당시 최고의 문명국의 부와 문화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요셉은 그의 단순성과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심을 지켜나갔다. 그의 주위에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숱한 죄악들이 둘러 있었으나 그는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생애하였다. 그의 생각은 금지된 문제들의 주변에서 머뭇거리지 않았다. 애굽인들의 환심을 사려는 욕망으로 자기의 원칙을 감추는 일도 없었다. 만일 그가 그렇게 하였더라면 그는 유혹에 빠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조상들의 종교를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았으며 그가 여호와를 경배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숨기려고 애쓰지 않았다. {PP 214.2}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의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창 39:2, 3). 요셉에 대한 보디발의 신임은 날이 갈수록 두터워져 마침내 그는 요셉을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주관하는 가정 총무로 삼았다.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창 39:6). {PP 214.3}

요셉이 돌보는 모든 일에 현저한 번영이 따른 것은 직접적인 기적의 결과가 아니다. 그의 근면과 보살핌과 정력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였다. 요셉은 그의 성공을 하나님의 은혜에 돌렸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의 주인까지도 그것이 비할 데 없는 번영의 비결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견인불발(堅忍不拔)하며 잘 관리된 노력이 없었다면 결코 성공을 거둘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의 충성스러움으로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을 믿는 신도가 순결과 정직으로 우상 숭배자들과 현저한 대조를 나타내는 것, 곧 그렇게 함으로 은혜의 빛을 이교의 흑암 가운데 비추게 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다. {PP 214.4}

요셉의 유순함과 성실함은 시위 대장의 마음을 샀으며 그는 요셉을 노예보다는 오히려 아들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 청년은 지위가 높은 사람들과 박식한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어 장래의 애굽의 총리대신이 되는 데 필요한 교육 곧, 과학과 어학과 직무에 관한 지식을 얻었다. {PP 217.1}

그러나 요셉의 신앙과 성실은 불같은 시련을 겪어야만 하였다.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도록 유혹하려고 몹시 애썼다. 지금까지 그는 이교도의 나라에 범람하고 있는 부패로 말미암아 오염되지 않았다. 그러나 매우 돌발적이요 아주 강하고 매우 매혹적인 이 시험을 그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요셉은 저항의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한편에는 은폐와 총애와 보상이 있고, 다른 편에는 수치와 투옥과 죽음이 있었다. 그의 장래의 전 생애가 일순간의 결정에 달려 있었다. 원칙을 어길 것인가? 여전히 하나님께 충실할 것인가? 천사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염려하면서 이 광경을 바라보았다. {PP 217.2}

요셉의 대답은 종교적 원칙의 능력을 드러내 준다. 그는 지상에 있는 그의 주인에 대한 신의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며,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늘에 계신 그의 주인께 참되게 행하고자 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동료들의 앞에서도 죄스러워서 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이 살펴보는 눈앞에서 마음대로 자행한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맨 먼저 생각하였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고 그는 말하였다. {PP 217.3}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며 우리의 언행에 대한 세세한 기록을 보존하고 계시다는 사실과 우리가 그 모든 기록을 다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있다면 범죄하기를 두려워할 것이다. 청년들로 하여금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라. 우리들의 행동 중에 어느 하나도 보시지 못하는 부분이 없다. 우리는 지존하신 분께 우리의 행동을 숨길 수 없다. 인간의 법률이 때로는 준엄하지마는 그것을 범하고도 발각되지 않은 채 무사히 넘어가는 수가 종종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그렇지 않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중일지라도 죄인을 숨겨 주지 못한다. 자신이 홀로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모든 행위를 주목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목격자가 있다. 마음의 모든 동기가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펼쳐져 있다. 모든 행위와 말과 생각이 마치 이 세상에 단 한사람만 있는 것처럼 분명하게 기록되고 온 하늘이 그를 주목하게 된다. {PP 217.4}

요셉은 그의 성실함 때문에 고생을 당했다. 그의 유혹자는 그에게 더러운 죄를 씌워 고소하였고 그로 인해 감옥에 들어가게 함으로 복수하였다. 만일 보디발이 요셉에 대한 그의 아내의 고소를 그대로 믿었다면 그 젊은 히브리 청년은 그의 생명을 잃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결같이 그의 품행을 특징지어 온 겸손과 정직이 그의 무죄의 증거이었다 요셉은 자기 주인집의 명성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수치와 속박을 감수했다. {PP 218.1}

요셉은 처음에 간수들로부터 아주 혹독한 대우를 받았다. 시편 기자는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연단하였도다”(시 105:18)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요셉의 참된 품성은 어두운 감옥 속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는 자기의 신앙을 굳게 붙잡고 모든 것을 참았다. 그의 수년 동안의 충성스러운 봉사가 가장 잔인한 보답을 받았으나 이 일이 그를 침울하게 하거나 불신하게 하지 못했다. 그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으므로 마음이 아주 평안했다. 그는 자기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다. 그는 자신의 불행에 마음을 앓지 않고 다른 사람의 슬픔을 가볍게 해 주려고 노력하는 중에 자신의 슬픔을 잊었다. 그는 옥중에서라도 할 일을 찾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크게 쓰시기 위하여 고난의 학교에서 준비시키고 계셨으며 그는 필요한 훈련을 거절하지 않았다. 감옥 속에서 압박과 학대와 범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목격하고 그것을 통해 그는 정의의 동정과 자비의 공과를 배웠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지혜와 자비심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었다. {PP 218.2}

요셉은 점차로 옥사장의 신임을 얻어 마침내 모든 죄수들을 돌보는 책임을 맡게 되었다. 그는 감옥에서 하루하루의 생활을 성실하게 살았고 아울러 고민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동정을 베풀어 줌으로 그가 후일에 번영과 영예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춘 모든 빛줄기는 우리 자신에게 반사된다.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베푼 모든 친절과 동정 어린 말과 압제받는 사람의 고통을 덜어준 모든 행동과 궁핍한 사람에게 준 모든 선물은 바른 동기로 행해졌다면 행한 자에게 큰 축복이 될 것이다. {PP 218.3}

왕의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떤 잘못으로 인하여 옥에 갇히게 되었으며 그들은 요셉의 감독 하에 있게 되었다. 어느 날 아침에 그는 그들이 매우 슬퍼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그 연유를 친절히 물었다. 그들은 둘 다 이상한 꿈을 꾸고 그 뜻을 알지 못하여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셉은 그들에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라고 말했다. 각자가 자기 꿈을 말했을 때에 요셉은 그 꿈의 의미를 알려 주었다. 3일 안에 술 맡은 관원장은 그의 전직을 회복하여 전과 같이 바로의 손에 잔을 올릴 것이나 떡 맡은 관원장은 왕명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것이었다. 두 사건들이 다 요셉이 말한 대로 일어났다. {PP 219.1}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은 그의 꿈에 대한 용기를 주는 해석과 여러 가지 일을 친절히 돌봐준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표했었다. 이에 대해 요셉은 가장 감명적인 태도를 자기가 부당하게 감금된 것을 말하고 자기의 사정을 왕의 앞에 아뢰어 주기를 간청하였다. 그는, “당신이 득의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창 40:14, 15)라고 말하였다. 술 맡은 관원장은 꿈이 말한 그대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성취된 것을 보았다. 그러나 왕의 은총을 다시 회복하였을 때에 그는 자기의 은인을 까맣게 잊어버렸다. 요셉은 2년 더 죄수로 그 곳에 머물러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 불타오르던 희망은 서서히 꺼져갔고 다른 모든 시련에 배은망덕의 쓰라린 고통이 더해졌다. {PP 219.2}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옥문을 여시려 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애굽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은 다 같은 사건을 가리키는 듯 하였고 그것들은 어떤 큰 재난을 예고하는 징조인 것처럼 보였다. 왕은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으므로 그것들이 그의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혔다. 그의 영토 안에 있는 술객들과 박사들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었다. 왕의 당혹함과 걱정은 점점 커지고 온 궁궐은 공포로 가득 찼다. 궁궐 전체의 소요가 술

맡은 관원장의 마음속에 지난날 자기가 꿈꾸었던 일과 관련된 상황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는 요셉을 기억하고 자신의 건망증과 배은망덕을 크게 자책하였다. 그는 곧 왕에게 가서 사로잡혀 온 한 히브리인이 자기의 꿈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어떻게 해석해 주었으며 그 해석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아뢰었다. {PP 219.3}

자기 나라의 술사들과 박사들을 제쳐놓고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 노예에게 물어본다는 것은 바로에게 큰 굴욕이었다. 그러나 번민하는 그의 마음이 구제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아무리 비천한 자의 봉사라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즉시 요셉을 데려오도록 사람을 보냈다. 그는 죄수복을 벗고 감옥에서 길게 자란 수염을 깎았다. 그 후에 그는 어전으로 안내되었다. {PP 220.1}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창 41장 참조). 요셉이 왕에게 대답한 이 말은 하나님께 대한 그의 겸손과 믿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겸손하게 자기가 훌륭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영광스러운 말을 사양하였다.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묘한 일을 설명하실 수 있다. {PP 220.2}

이제 바로가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내가 꿈에 하숫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하숫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 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악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악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악한 소가 처음의 일곱 살찐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흉악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쇠약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쇠약한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술객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보이는 자가 없느니라"(창 41:17~24). {PP 220.3}

요셉은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라고 말하였다.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을 것이었다. 전원(田園)은 이전의 어느 때보다도 풍부한 결실을 가져올 것이었다. 이 시기가 끝난 후에 7년간 흉년이 올 것이었다.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하므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것이었다. 꿈의 반복은 그 일이 확실하게 성취될 것이라는 것과 그 성취가 가깝다는 증거였다. 그는 계속하여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궁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오분의 일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창 41:33~36)라고 말하였다. {PP 220.4}

그 해석은 매우 합리적이었고 모순이 없었다. 이 일에 대한 대비책으로 제안된 정책 역시 매우 건전하고 빈틈이 없으므로 그 정확성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이 계획의 집행을 누구에게 맡겨야 하겠는가? 전 국민의 존망(存亡)이 이 한 사람을 선택하는 지혜에 달려 있었다. 그러므로 왕은 몹시 걱정이 되었다. 당분간 임명 문제를 연구해 보기로 했다.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 그는 감옥을 관리하는 일에 나타난 요셉의 지혜와 신중성에 대하여 들었다. 요셉이 탁월한 행정력을 가졌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자책하는 마음으로 그의 은인을 매우 열렬히 칭찬함으로써 자기가 전에 배은망덕한 잘못을 만회하려고 애썼다. 왕의 세밀한 조사가 그의 보고의 진실함을 증거해 주었다. 온 영토 안에서 그 나라를 위협하는 위협을 지적하고 그것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요셉밖에 없었다. 왕은 요셉이 제안된 계획을 수행하는 데 유일한 적임자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으며 아울러 왕의 관원들 중에 이 위기를 당하여 국사를 잘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없다는 증거이었다. 그가 히브리인이요 종이라는 사실은 그의 명백한 지혜와 건전한 판단에 비할 때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라고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말했다. {PP 221.1}

임명이 결정되고 요셉에게 놀라운 기별이 왔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네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왕은 요셉에게 그의 높은 직무의 표장을 주었다.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PP 221.2}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시 105:21, 22).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 온 애굽 땅의 통치자로 높임을 받았다. 그 직위는 높고 명예로운 것이었으나 어려움과 위험도 따르는 직위였다.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높은 지위에서 견디어 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폭풍이, 골짜기에 피어 있는 나직한 꽃은 해치지 않으나 산꼭대기에 있는 높직한 나무를 뿌리째 뽑는 것처럼, 비천한 생활 중에서는 성실을 유지하던 자들이 이세상의 성공과 명예가 동반되는 유혹을 받고는 질질 끌려 내려가다 구덩이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요셉의 성품은 역경에서나 순경에서나 한결같이 시험을 견디어냈다. 그는 바로의 궁전에 있을 때나 감방에 있을 때를 막론하고 한결같이 하나님께 충성을 나타냈다. 그는 여전히 친척들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는 이국땅의 나그네였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전적으로 믿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성실하게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요셉을 통하여 애굽의 왕과 고관들이 참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되었다. 비록 그들은 우상숭배를 고집하였으나 여호와를 경배하는 사람의 생애와 품성에 나타난 원칙들을 존중하기를 배웠다. {PP 222.1}

요셉이 어떻게 그같은 견인불발의 품성과 정직하고 지혜로웠다는 기록을 남길 수 있었을까? 그는 유년 시절부터 자신의 경향을 따르기보다는 의무를 수행하는 데 충실하였다. 그의 어린 시절의 성실함과 단순한 신뢰심과 고상한 품성이 성인이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되었다. 순결하고 단순한 생활이 체력과 지력 양면의 왕성한 발전에 도움을 주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통과 믿음의 후사들에게 위탁된 대 진리에 대한 명상은 다른 어떤 연구로도 도달할 수 없을 만큼 지력을 넓혀 주고 마음을 강하게 해주고 그의 영성을 높이고 고상하게 해주었다.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가장 높은 데 이르기까지 어떤 위치에서든지 자기의 의무에 충실한 것이 최고의 봉사를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연마하는 것이 되었다. 창조주의 뜻에 일치되게 사는 사람은 가장 참되고 가장 고상한 품성을 계발하게 된다.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욥 28:28). {PP 222.2}

생활의 사소한 일이 품성 계발에 끼치는 영향을 바로 아는 사람은 심히 적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참으로 하찮은 일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날마다 직면하는 여러 가지 환경은 우리의 충성을 시험하여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한다. 일상생활의 업무 처리에서 원칙을 고수함으로 마음은 향락과 쾌락의 추구보다는 의무의 수행을 더 존중하는 데 익숙해진다. 이와 같이 훈련된 마음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같이 선과 악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이러한 마음은 성실과 진리에 익숙하도록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의무에 충실히 행한다. 작은 일에 충실히 행함으로 큰일에 충실할 힘을 얻는다. {PP 223.3}

정직한 품성은 오빌의 금보다 더 가치가 크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영광스럽고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없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다.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우수한 지능은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가장 귀중한 자질이라도 계발되지 아니하면 아무 가치가 없다. 고상한 품성을 형성하는 일은 일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업이며 부지런하고 꾸준한 노력의 결과로 얻어진다.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나 성공은 그 기회를 사용하는 데 달려 있다. {PP 223.1}

21장 요셉과 그의 형제들

풍년이 든 첫해에 다가올 기근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다. 요셉의 지시에 따라 전국적으로 애굽 땅의 중요한 장소에 커다란 창고를 짓고 예상했던 수확량보다 과잉 생산된 곡식을 저장하기 위하여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 풍작이 들던 7년 동안에 똑같은 정책이 계속되어 마침내 저장된 곡물의 양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PP 224.1}

그리고 이제 요셉의 예언대로 “일곱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였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주리매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매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았다. {PP 224.2}

기근이 가나안 땅에까지 미쳐서 야곱이 사는 지방에서도 심각하게 느껴졌다. 애굽 왕이 곡식을 많이 준비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의 아들 열 명은 곡식을 사기 위하여 그 곳을 향해 떠났다.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왕의 부관들의 안내를 받아 다른 신청자들과 함께 그 땅의 통치자 앞에 나아갔다. 그들은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요셉의 히브리 이름은 왕이 그에게 준 이름으로 바뀌었으며 이 애굽의 총리대신과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아넘긴 풋내기와는 조금도 비슷한 데가 없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이 허리를 굽히고 절하는 것을 볼 때에 그의 꿈이 회상되었고 그 당시의 광경이 생생하게 그의 앞에 떠올랐다. 그는 날카로운 눈으로 무리를 돌아보고 그들 중에 베냐민이 없는 것을 발견하였다. 베냐민도 이 잔인무도한 사람들의 무도한 책략의 희생이 되고 말았는가? 그는 그 진상을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엄하게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구나" 하고 말했다. {PP 224.3}

그들은 "내 주여 아니니이다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니 종들은 정탐이 아니니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는 지금도 그의 형들이 그가 그들과 함께 있던 때와 똑같이 거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고, 또 그들의 집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그들의 진술이 얼마나 기만적이 될 수 있는지도 잘 알고 있었다. 그가 반복해서 혐의를 씌우자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주의 종 우리들은 십이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말째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PP 225.1}

총리대신은 그들의 이야기의 진실성이 의심스럽기 때문에 아직도 그들을 정탐꾼으로 본다고 말하면서 그들은 다 애굽에 남고 오직 한 사람만 돌아가 그들의 제일 어린 동생을 데려오도록 요구하는 일로 그들을 확인해 보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들이 이 요구에 동의하지 않으면 정탐꾼으로 취급될 것이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이와 같은 계획에 동의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려 저들의 가족들이 양식이 없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저희 중에 누가 그의 형제들을 감옥에 두고 혼자 여행을 떠나겠는가? 어떻게 그가 이런 상황 아래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겠는가? 저들이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노예가 될 판이었다.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온다 해도 그들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 같았다. 그들은 단 하나밖에 남지 않은 아들마저 잃게

함으로 아버지에게 슬픔을 더 안겨주기보다는 차라리 그 곳에 남아 함께 고통을 당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옥에 갇혀 3일을 보내게 되었다. {PP 225.2}

요셉이 그의 형제들로부터 떨어져 있던 여러 해 동안에 야곱의 아들들의 성품은 변화되었다. 그들이 전에는 질투하고 불온하고 속이기 잘하고 잔인하고 복수심이 강했으나 역경을 겪은 지금에는 이타적이고 서로 간에 진실하고 그들의 아버지께 효도했으며 중년에 접어들었으나 아버지의 권위에 복종하고 있었다. {PP 225.3}

애굽의 감옥에서 지낸 3일간은 그의 형제들이 그들의 과거의 죄를 반성하는 괴롭고 슬픈 날들이었다. 베냐민을 데려올 수 없는 이상 그들이 정탐꾼이란 혐의를 벗을 수 없을 것이 분명하였고 그들이 베냐민을 데려오기 위하여 아버지의 동의를 얻을 가망도 전혀 없었다. 요셉은 3일째 되는 날에 그의 형제들을 자기 앞으로 데려오게 하였다. 요셉은 감히 형제들을 더 이상 더 감금해 둘 수 없었다. 그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가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벌써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요셉이 그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독실한 자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하였다. 비록 그들의 아버지가 베냐민을 데려가도록 해줄 가망이 거의 없음을 밝혔지마는 그들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동의하였다. 요셉은 통역을 세워 그들과 말했고 그들은 총리대신이 그들의 말을 알아들을 줄은 생각지 못하고 그의 앞에서 서로 자유롭게 말했다. 그들은 요셉을 취급한 저희 행위에 대해 자신들을 나무랐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도단에서 그를 구할 계획을 세웠던 르우벤이 덧붙여,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 값을 내게 되었도다."고 말하였다. 듣고 있던 요셉은 감정을 억제할 수 없어서 밖으로 나가 실컷 울었다. 그는 다시 돌아와 시므온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결박하여 다시 옥에 가두도록 명령하였다. 그들의 아우를 잔인하게 취급한 일에 있어서 시므온은 선동자요 주동자였다. 그가 선택된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PP 225.4}

그의 형제들이 출발하도록 허락하기 전에 요셉은 그들에게 곡식을 공급해 주고 또 각 사람의 돈을 몰래 그들의 자루 어귀에 넣어 주라고 명령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짐승들에게 먹일 여물도 공급해 주었다. 도중에 일행 중 한 사람이 자루를 열어서 그 속에 있는 은전 주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니 그들도 놀라 어쩔 줄을 모르고 서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라고 하였다. 그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로 여겨야 할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로 인하여 저들을 벌하시고 그들을 더 깊은 고통 속에 빠지게 하시려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보셨다는 것과 그가 지금 그들을 벌하시고 계신 것으로 인정하였다. {PP 226.1}

야곱은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온 장막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의 주위에 모여들어 그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이제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을 고하는 말을 들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은 공포와 불안으로 가득 찼다. 애굽 총리대신의 행동은 어떤 악한 계책이 내포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자루를 열고 그 안에서 각자의 돈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에 그들의 두려움은 더욱 커졌다. 연로한 아버지는 고민 중에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라고 부르짖었다. 르우벤이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고 대답하였다. 이 급한 성미의 말은 야곱의 마음을 안심시키지 못하였다. 야곱의 대답은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 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였다. {PP 226.2}

그러나 한발은 계속되었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이 거의 다 떨어졌다. 야곱의 아들들은 베냐민을 동반하지 않고 애굽으로 가는 것은 헛된 일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결심을 돌이킬 가망이 없어 묵묵히 귀추를 관망하고 있었다. 다가오는 기근의 그림자는 점점 짙어 갔고 장막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근심스런 얼굴에서

그 노인은 저들의 필요를 알아차릴 수 있었다. 마침내 그는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고 말했다. {PP 227.1}

유다가 대답하기를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라고 하였다. 그의 아버지의 결심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그는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고 덧붙여 말하였다. 그리고 그는 그의 아우에 대한 보증인이 되고 만일 그가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못한다면 영원히 책임을 지겠다고 제의하였다. {PP 227.2}

야곱은 더 이상 동의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의 아들들에게 여행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는 또한 그 통치자에게 기근으로 황폐된 지방에서 나는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비자와 파단행”과 같은 것을 선물로 하고 또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도록 저들에게 명했다. 그는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고 하였다. 그의 아들들이 꺼림칙한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에 연로한 아버지는 일어나 손을 하늘로 들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고 기도하였다. {PP 227.3}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여행하여 요셉 앞에 나아갔다. 요셉의 시선이 그의 어머니의 아들 베냐민에게 쏠렸을 때에 그는 깊이 감동되었다. 그러나 그는 감정을 억제하고 그들을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가 자신과 함께 식사할 준비를 하도록 명령하였다. 총리대신의 저택으로 안내되어 온 형제들은 몹시 놀라서 그들의 자루 속에 들어 있던 돈 때문에 불려온 것이 아닌가 하여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그들을 노예로 삼을 기회를 만들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거기에 돈을 넣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고민 끝에 그 집 청지기에게 그들이 애굽을 방문하게 된 사정을 말하고 그들이 무죄함을 밝히려고 자루 속에 들어 있던 돈을 도로 가져오고 양식 살 돈도 따로 가져왔노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고 덧붙여 말하였다. 그 사람은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고 대답하였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안심하였으며 옥에서 풀려나온 시므온이 그들과 자리를 같이 하는 것을 볼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로우시다는 것을 느꼈다. {PP 227.4}

총리대신이 다시 그들을 맞을 때에 그에게 선물을 드리고 겸손히 "땅에 엎드리어 절하"였다. 요셉의 마음속에는 다시 그의 꿈이 회상되었고 손님들의 인사가 끝난 후에 그는 급히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하셨느냐"고 물었다. "주의 종 우리 아비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셨나이다"라고 대답하고 다시 머리 숙여 절하였다. 그의 시선이 베냐민에게 미쳤을 때에 그는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동생이냐" "소자여 하나님이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고 말하고는 감정이 북받쳐 더 이상 말을 계속할 수 없었다. 그는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었다. {PP 228.1}

그는 감정을 억제하고 냉정을 되찾은 후에 연회장으로 돌아왔으며 모든 사람들은 연회를 시작하였다. 계급제도의 규례에 따라 애굽 사람들은 다른 나라 백성들과 같이 음식을 먹는 일이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끼리 한 식탁에 앉고 총리대신은 계급이 높은 까닭에 혼자서 먹고, 애굽 사람들은 또 다른 식탁에 앉았다. 일동이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형제들은 그들의 나이에 따라 정확한 순서대로 그들의 자리가 배열된 것을 보고 놀랐다. 요셉이 "자기 식물로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었다. 베냐민을 총애한다는 티를 보이고 요셉은 그들이 자기에게 했던 것처럼 시기와 질투를 그 어린 막내아우에게도 나타내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형제들은 여전히 요셉이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줄 알고 서로 자유스럽게 말했다. 이리하여 요셉은 그들의 진정한 감정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그는 좀더 그들을 시험해 보기를 원했다. 그리하여 그들이 떠나기 전에 그는 그가 마시는 은잔을 제일 어린 사람의 자루 속에 감추어 두도록 명령하였다. {PP 228.2}

그들은 기쁨으로 귀로에 올랐다. 시므온과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었고 나귀들에는 곡식이 가득 실려 있었다. 그러므로 모든 형제들은 그들을 둘러 있던 것 같이 보이던 모든 위험들을 무사히 넘겼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저희가 도시를 벗어나 얼마 가지 않아서

총리대신의 청지기가 뒤쫓아 와서 “너희가 어찌하여 악으로 선을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라는 가혹한 말로 그들을 힐문하였다. 이 잔은 그 속에 담긴 물건에 독이 있는지를 가려내는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되었다. 그 시대에는 이런 종류의 잔들이 독살에 대한 방어 장치로 매우 귀중히 여겨졌다. {PP 229.1}

청지기의 힐책(詰責)에 여행자들은 대답하였다. “우리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이런 일은 종들이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 금을 도적질하리이까 종들 중 뉘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오 우리는 우리 주의 종이 되리이다.” {PP 229.2}

청지기는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뉘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우리 종이 될 것이오 너희에게는 책망이 없으리라”라고 말하였다. {PP 229.3}

즉시 수색이 시작되었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 놓고” 청지기는 르우벤부터 시작하여 가장 어린 사람에 이르기까지 순서대로 각 사람의 자루를 검사하였다. 베냐민의 자루 속에서 그 잔이 발견되었다. {PP 229.4}

형제들은 매우 비참한 심정의 표시로 그들의 옷을 찢고 천천히 도시로 되돌아갔다. 저희 약속대로 베냐민은 노예가 될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청지기를 따라 궁정까지 들어가서 총리대신이 아직 그 곳에 있는 것을 보고 그 앞에 엎드렸다. 그는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 잘 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였다. 요셉은 저들이 죄를 자백하도록 하고자 계획하였다. 그는 점치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한 일은 결코 없었으나 그들로 하여금 그가 저희 생활의 비밀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을 믿게 하고자 하였다. {PP 229.5}

유다는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라고 대답하였다. {PP 229.6}

요셉은 대답하기를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나의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라고 하였다. {PP 230.1}

유다는 몹시 고민하면서 통치자에게 가까이 나아가 “내 주여 청컨대 종으로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고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옵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라고 외쳤다. 감동을 주는 웅변으로 그는 요셉을 잃어버린 저희 아버지의 슬픔과, 베냐민을 그들과 함께 애굽으로 보내지 않으려던 일을 고하고 그 이유는 베냐민이 그의 아버지 야곱이 매우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 중 남은 유일한 아들인 것을 설명하였다. 그는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를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라고 말하였다. {PP 230.2}

요셉은 만족하였다. 그는 그의 형들에게서 참 회개의 열매를 보았다. 유다의 고상한 제의를 듣고 요셉은 그 형제들 외의 모든 사람들을 나가도록 명하였다. 그리고 큰소리로 울면서 그는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라고 부르짖었다. {PP 230.3}

그의 형제들은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말문이 막히어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들이 질투하여 죽이려고 하다가 마침내 종으로 팔아넘긴 형제 요셉이 애굽의 통치자가 되다니! 그들이 그를 학대했던 모든 일이 기억에 되살아났다. 그들은 어떻게 요셉의 꿈을 멸시하고 그 성취를 방해하려고 노력하여 왔던가를 회상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 꿈을 성취시키도록 저들의 맡은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제는 저들이 완전히 그의 세력 아래 있었으므로 그가 하려고 하면 틀림없이 그를 괴롭힌 악행에 대하여 복수할 수 있을 것이다. {PP 230.4}

요셉은 형제들이 당황하는 것을 보고 친절히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라고 말하고 그들이 가까이 나아오자 계속해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라고 말했다. 자기에게 행한 잔인한 행위로 인해 그들이 이미 충분한 고통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그는 숭고하게도 그들의 공포심을 없이하고 자책의 쓰라림을 덜어 주려고 애썼다. {PP 230.5}

그는 계속하여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다섯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속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라고 말하고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였다. 그들은 겸손히 저희 죄를 자복하고 용서해 주기를 간청하였다. 그들은 오랫동안 근심과 후회로 고통당하였으나 그가 아직 살아 있는 것을 보고 몹시 기뻐하였다. {PP 231.1}

이 일에 관한 소식이 왕에게 즉시 전달되었다. 왕은 요셉에게 감사를 표시하기를 바라고 있었으므로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는 말로 총리대신이 자기 가족들을 초대하도록 윤허하였다. 형제들은 양식과 수레와 그들의 모든 가족들과 노비들이 애굽으로 옮기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받아 가지고 출발하였다. 요셉은 베냐민에게 다른 형제들에게 준 것보다 더 값진 선물을 주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제들 중에 다툼이 일어날 것을 염려해서 그들이 떠나려고 할 때에 “당신들은 노중에서 다투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PP 231.2}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다. 처음에 그 노인은 얼떨떨하여 그가 들은 이야기를 믿을 수 없었으나 기다란 수레의 행렬과 짐을 잔뜩 실은 짐승들과 베냐민이 무사히 돌아와 그의 곁에 서있는 것을 보고 비로소 그들의 말을 믿고 기쁨이 충만하여 “족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고 외쳤다. {PP 231.3}

열 형제들에게는 겸손히 뉘우쳐야 할 일이 또 하나 남아 있었다. 그들은 이제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생애와 그들의 생애를 비참하게 만들었던 저들의 기만과 잔인한 행위를 아버지께 고백하였다. 야곱은 그들이 그처럼 큰 죄를 지었으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나 모든 것이 유익하게 된 것을 보고 잘못을 저지른 그의 아들들을 용서하고 축복하였다. {PP 232.1}

아버지와 아들들은 즉시 가족들과 양떼들과 소떼들과 많은 종들과 함께 애굽을 향해 길을 떠났다. 기쁜 마음으로 그들은 여행을 계속하였고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야곱은 감사의 희생을 드리고 주께서 그들과 함께 가시겠다는 보증을 달라고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밤의 이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 {PP 232.2}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언약은 의미심장하였다.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하리라는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으나 아직은 선민(選民)들이 서서히 증가될 뿐이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은 예언된 바와 같은 민족으로 발전하기에 여건이 맞지 않았다. 그 땅은 강대한 이방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고 그들은 사대(四代)까지 그 땅을 빼앗기지 않게 될 것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곳에서 무수한 백성으로 발전되려면 그들이 그 땅 거민들을 몰아내든지 아니면 그들 스스로가 저들 중에 분산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전자를 행할 수 없었다. 그리고 저희가 가나안 족속들과 섞여 산다면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도록 유혹을 받을 위험에 빠질 것이었다. 그러나 애굽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시키기에 필요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다. 관개가 잘되고 비옥한 나라의 한 부분이 그들에게 개방되어 있어 그들의 수효가 신속히 증가할 수 있는 모든 이점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었으므로 저들이 애굽에서 직업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반감은 그들을 독특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남아 있게 해서 애굽의 우상숭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해줄 것이었다. {PP 232.3}

애굽에 도착하여 그 일행은 곧바로 고센 땅으로 갔다. 요셉은 통치자의 수레를 타고 위엄 있게 시종들을 거느리고 그 곳에 왔다. 그는 자기를 두르고 있는 화려함과 높은 지위에 대해 다 잊어버렸다.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그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한 가지 열망만이 그의 가슴을 설레게 했다. 여행자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자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억눌려 있던 사모의 정을 더 이상 억제할 수 없었다. 그는 수레에서 뛰어내려 아버지를 환영하고자 급히 달려나아 갔다. “그 목을 어긋맞겨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 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하도다.” {PP 233.1}

요셉은 그의 형들 중 다섯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고 그에게서 그들이 앞으로 살 땅에 대하여 허락을 받도록 하였다. 왕은 총리대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그들을 그 나라의 높은 관직에 임명하여 영화롭게 하고자 할 것이나 진심으로 여호와를 경배하는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이교의 궁정에서 당하게 될 시험에서 구원하고자 힘썼다. 그리하여 요셉은 형제들을 권고하여 왕이 물을 때에 그들의 직업을 솔직히 말하도록 하였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 권고를 따르고 또한 그들이 이 땅에 얼마 동안 체류하기 위하여 온 것이지 이 곳에 영주하려고 온 것이 아님을 주의 깊게 말하여 원할 때에 떠날 권리를 보유하였다. 왕은 그들에게 거할 곳을 배정하였다. 왕은 “땅의 좋은 곳” 고센 땅을 제공했다. {PP 233.2}

그들이 도착한 후 오래지 않아 요셉은 또한 그의 아버지를 인도하여 왕을 알현하게 하였다. 야곱은 왕궁에 처음 온 사람이었으나 장엄한 자연 가운데서 전능하신 왕과 교제하여 왔기 때문에 이제 우월감을 가지고 손을 들어 바로를 축복하였다. {PP 233.3}

요셉을 처음 만났을 때에 야곱은 그의 오랜 염려와 슬픔의 세월 끝에 이처럼 즐거운 결말을 보게 되었으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에게 17년 동안 고센 땅에서 평화스러운 여생을 보내도록 허락되었다. 이 기간은 전에 살아온 세월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행복스러운 세월이었다. 그는 아들들에게서 참 회개의 증거를 보았다. 그는

그의 가족이 큰 민족으로 발전하기에 필요한 모든 조건에 둘러싸인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저희가 장차 가나안에 들어가 나라를 세우게 되리라는 확실한 언약을 굳게 붙잡았다. 그 자신은 애굽의 총리대신의 사랑과 후의의 표시에 둘러싸여 있었고 오랫동안 잃어버린 아들과 교제하는 행복을 누리다가 조용하고 평화롭게 무덤으로 내려갔다. {PP 233.4}

임종이 가깝다는 것을 느낀 야곱은 요셉을 불러오도록 사람을 보냈다. 여전히 가나안을 소유하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그는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고 말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야곱은 만족하지 않았다. 야곱은 그에게 그를 막벨라 굴에 있는 조상들 곁에 장사하겠다는 엄숙한 맹세를 하도록 요구하였다. {PP 234.1}

아직 처리해야 할 다른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 요셉의 아들들도 이스라엘의 자녀들로 정식으로 인정되어야 하였다. 요셉이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만나러 올 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왔다. 이 두 청년은 그들의 어머니를 통해서 애굽 사제(司祭)의 최고위층과 혈연이었고 그들이 애굽인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그들의 아버지의 지위는 그들에게 부귀영달의 대로를 열어 줄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연결되는 것이 요셉의 소원이었다. 그는 아들들을 위하여 애굽의 궁전이 제공하는 모든 영예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위탁된 천대받는 양치는 족속 중에 자리를 차지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자기의 신앙을 나타내었다. {PP 234.2}

야곱은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야곱의 자손으로 입양되어 각각 한 족속의 족장이 될 것이었다. 이리하여 르우벤이 잃어버린 장자의 권리 중의 하나가 요셉에게 넘어갔다. 그리하여 요셉은 이스라엘 중에서 두 몫을 차지했다. {PP 234.3}

연로하여 눈이 어두운 야곱은 젊은이들이 온 것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형체를 알아보고 "이들이 누구냐"고 물었다. 그들이 그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고 그는 덧붙여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고 말하였다. 그들이 가까이 나아왔을 때에 야곱은 그들을 안고 입을 맞추고 축복하기 위하여 그의 손을

엄숙히 그들의 머리 위에 얹고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소서 하고 기도하였다. 이제는 자기를 의지하는 정신도 인간의 능력이나 교활한 꾀를 의지하는 마음도 없었다. 하나님만이 그의 보존자이셨고 후원자이셨다. 과거의 불행한 세월에 대한 불평도 없었다. 그러한 시련과 슬픔들은 이제 더 이상 “그를 해하는 것들”로 간주되지 않았다. 그의 인생의 순례 행로 내내 그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자애만이 기억에 떠올랐다. {PP 234.4}

축복은 끝났다. 야곱은 그의 아들에게 보증을 주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리라.” 장차 올 세대들을 위하여 속박과 슬픔의 긴 세월 동안 그의 신앙에 대한 이같은 증거를 남겨 주었다. {PP 235.1}

마침내 야곱의 아들들은 모두 죽어가는 아버지의 침상 주위에 모였다.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여 들으라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고 하였다. 자주 또 걱정스럽게 그는 그들의 장래를 생각하고 각 지파들의 역사를 스스로 그려 보려고 노력하였다. 이제 그의 자녀들이 마지막 축복을 받고자 기다리고 있을 때에 주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그의 앞에 예언적 계시를 통해 그의 후손들의 장래가 전개되었다. 차례 차례 그의 아들들의 이름이 불리고 각자의 성격이 묘사되고 각 지파의 장래의 역사가 간단히 예언되었다. {PP 235.2}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광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PP 235.3}

이와 같이 아버지는 장자로서 르우벤의 지위가 어떠했어야 할 것을 묘사하였다. 그러나 에델에서 범한 그의 무서운 죄가 그로 하여금 가독(家督, 호주의 신분에 따른 권리와 의무) 상속권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게 만들었다. 야곱은 계속하였다. {PP 235.4}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라” {PP 235.5}

제사장 직분은 레위에게, 나라와 메시야의 허락은 유다에게, 기업의 두 몫은 요셉에게 배당되었다. 르우벤 지파는 결코 이스라엘 중에서 뛰어나지 못했다. 르우벤 지파는 유다, 요셉, 단처럼 수효가 많지 못하였고 제일 먼저 포로로 잡혀갔다. {PP 235.6}

나이에 있어서 르우벤 다음은 시므온과 레위였다. 그들은 연합하여 세겜 사람들에게 잔인한 행동을 하였고 또한 요셉을 파는 일에도 제일 죄가 많은 자들이었다. 그들에 관하여 이같이 선언되었다. {PP 235.7}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PP 235.8}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이스라엘을 계수할 때에 시므온은 가장 적은 지파였다. 모세는 그의 마지막 축복에서 시므온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 가나안에 정착할 때에 이 지파는 유다의 몫의 작은 부분밖에 가지지 못하였으며 그 가족들은 그 후에 다른 강력한 식민지를 만들어 성지(聖地)변경의 바깥 지역에 거했다. 레위도 역시 그 땅 여기 저기 널려 있던 48성읍밖에는 유업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지파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지파들이 배도하였을 때에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성소의 거룩한 봉사에 직분을 맡아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었다. {PP 235.9}

장자의 명분의 가장 큰 축복이 유다에게 옮겨졌다. 유다는 찬양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서 그 이름의 의미심장함이 이 지파에 대한 예언적 역사 가운데 나타났다. {PP 236.1}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PP 236.2}

삼림의 왕 사자는 이 지파의 적절한 상징이다. 그 지파로부터 다윗과 다윗의 자손이신 실로 곧 참 “유다 지파의 사자”가 나실 것이며 마침내 그에게 모든 권세가 주어질 것이며 모든 민족들이 충성을 표할 것이다. {PP 236.3}

야곱은 대부분의 그의 자녀에게 장래의 번영을 예언하였다. 마침내 요셉의 이름에 미치자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에 축복을 빌 때에 아버지의 마음은 기쁨이 넘쳐흘렀다. {PP 236.4}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의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구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건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네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네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PP 237.1}

야곱은 항상 열렬하고 깊은 애정을 가진 사람이었고 아들들에 대한 그의 사랑은 강하고 부드러웠다. 임종 시 그의 증언에는 편애나 분노가 섞여있지 않았다. 그는 그 모든 것을 잊어버렸고 마지막까지 그들을 사랑하였다. 그의 부성애가 그들에게 오직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만 하려고 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고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 그는 고통스러웠지마는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PP 237.2}

마지막 축복을 말한 후에 그의 매장지에 대하여 되풀이해서 지시했다.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굴에 우리 부여조와 함께 장사하라…이 굴은…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 곳에 장사하였노라." 이와같이 그의 생애의 최후의 행위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의 신앙을 나타내는 일이었다. {PP 237.3}

야곱의 만년(晩年)은 수고하고 피곤한 한낮이 지나간 후에 오는 저녁의 평온함과 안정함 같은 것이었다. 그의 인생행로에 구름이 어둡게 모여들었으나 그의 생애의 황혼은 맑았고 하늘의 광휘가 그의 최후의 시간을 비추었다. 성경은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시 37:37)라고 말한다. {PP 237.4}

야곱은 범죄했었으며 많은 괴로움을 당했었다. 큰 죄를 범하고 아버지의 장막에서 도망하여 나온 그날부터 그는 여러 해 동안 수고와 염려와 슬픔을 당했다. 어머니와 이별하고 다시는 그를 보지 못했으며 집 없는 도망자로서 사랑하는 여인을 위하여 7년 동안 수고했으나 어이없이 속임을 당했고 탐심과 욕심 많은 친척을 섬기느라고 20년 동안 수고했었다. 재산은 불어나고 슬하에 자녀들이 자라났지만 가족들의 불화와 불목 때문에 기쁨이라곤 거의 찾아보지 못하고 살아왔다. 그의 딸의 수치, 그에 대한 오라비들의 복수, 라헬의 죽음, 르우벤의 패륜적인 범죄, 유다의 죄, 그리고 요셉에게 행한 형제들의 잔인한 기만과 악행으로 인하여 당하던 고통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것은 얼마나 길고도 어두운 악의 목록이었던가! 그는 최초의 실패의 결과를 여러 번 여러 번 거두었다. 그는 자신이

범한 죄를 그의 아들들이 거듭 거듭 범하는 것을 보았다. 징벌은 쓰라린 것이었으나 그 목적은 달성되었다. 징계는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의의 평강한 열매를”(히 12:2) 맺었다. {PP 237.5}

영감의 말씀은 선한 사람들 곧 하나님의 은총으로 고귀하게 되었던 사람들의 과오를 충실히 기록한다. 사실 그들의 과오는 그들의 선행보다 더욱 완전하게 제시되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는 문제가 되어왔으며 불신자에게 성경을 조롱할 기회를 주었다. 그러나 사실들을 그럴싸하게 얼버무리지도 않고 성경의 주요한 인물들의 죄를 은폐하지도 않은 그것이 바로 성경이 진리라는 가장 유력한 증거 중에 하나이다.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나 자주 편견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공정하게 기록될 수 없다. 성경이 영감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 의하여 기록되었다면 그것은 의심 없이 거기 나오는 존경받은 사람들의 성품을 좀더 아첨하는 견지에서 기록해 놓았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사실 그대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그들의 경험에 대한 올바른 기록을 가지고 있다. {PP 238.1}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과 그분께서 무거운 책임을 맡긴 사람들도 오늘날 우리가 싸우고 흔들리고 자주 과오에 빠지는 것처럼 때때로 유혹에 빠지고 죄를 지었다. 우리를 격려하고 경고하기 위하여 허물 많고 어리석었던 그들의 생애가 우리 앞에 공개되어 있다. 만일 그들이 과오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으로 묘사되었더라면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과오와 실패를 보고 절망에 빠졌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당한 바와 같은 낙담과 싸운 것과 그들이 우리처럼 유혹에 빠졌었으나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은혜로 유혹을 이긴 것을 봄으로 우리는 의를 위하여 싸울 용기를 얻는다. 그들이 때로는 패퇴를 당했으나 그들의 위치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생애의 기록은 우리에게 대한 경고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 있는 사람을 결백하다고 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많이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죄를 보시며 그들의 죄를 보다 적은 빛과 책임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는 죄보다 더 엄격히 다루신다. {PP 238.2}

야곱을 장사지낸 후에 요셉의 형들의 마음에는 또다시 두려움이 생겨났다. 그들에게 대한 요셉의 친절에도 불구하고 죄를 의식하는 그들에게는 불신과 의심이 일어났다. 그는 아버지에 대한 배려에서 그의 복수를 지체해 왔으나 이제 그는 그들의 죄에 대하여 오랫동안 연기해 온 형벌을 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감히 요셉의 앞에 몸소 나타나지 못하고 기별을 보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데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 기별을 듣고 요셉은 울었으며 이것에 용기를 얻은 그의 형들은 요셉의 앞에 나아와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라고 말하였다. 형제들에 대한 요셉의 사랑은 깊고 이기심 없는 것이었으나 그들은 그가 복수할 것이라는 생각을 품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매우 고통스러웠다. 그는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고 말하였다. {PP 239.1}

요셉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예시한다. 요셉의 형제들을 움직여 그를 노예로 팔게 한 것은 시기심이었다. 그들은 요셉이 그들보다 더 크게 되는 것을 막고자 하였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에 그들은 그의 꿈이 실현될 가능성을 모두 제거했으므로 그들은 더 이상 그의 꿈 때문에 번민할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 우쭐해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일을 가지시고 그들이 방해하고자 계획한 바로 그 사건을 실현시키셨다. 그와 같이 유대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리스도를 질투하고 그분께서 그들에 대한 백성의 관심을 앗아가지나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그분께서 왕이 되시는 것을 방해하고자 그분을 죽였으나 그들은 그와같이 함으로 그 같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었다. {PP 239.2}

요셉은 애굽의 노예 신세를 통하여 그의 아버지의 가족을 구원한 구주가 되었다. 그러나 결과가 그렇다 하여 그의 형들의 죄가 감소된 것은 아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타락한 인류의 구속자와 구주가 되시고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셨다. 그러나 그분을 살해한 자들의 죄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당신의 영광과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그 사건을 지배하지 않으셨을 때와 똑같이 극악한 것이다. {PP 239.3}

요셉이 그의 친형들에 의하여 이방인에게 팔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의 제자들 중 한 사람에 의하여 가장 극악한 원수들에게 팔리셨다. 요셉이 그의 결백 때문에 거짓으로 고소당하여 투옥당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의 의로운 극기의 생애가 죄에 대하여 견책이 되었기 때문에 멸시와 거절을 당하셨다. 정죄받을 만한 죄가 없으셨으나 그리스도께서는 거짓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여 정죄를 당하셨다. 요셉이 불공평과 압제 하에서도 참고 온유하게 행한 일과 인륜을 어긴 그의 형들을 기꺼이 용서해주고 고상한 자비심을 베푼 일은 구주께서 악인들의 악행과 능욕을 불평 없이 참으시고 당신을 살해한 자들뿐 아니라 당신께 나아와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을 모두 용서해 주실 것을 예표한다. {PP 239.4}

요셉은 그의 아버지가 돌아간 후 54년을 더 살았다. 그는 살아서 “에브라임의 자손 삼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었”다. 그는 그의 백성이 증가되고 번성하는 것을 보았고 그 모든 세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회복시키시리라는 그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다. {PP 240.1}

자기의 임종이 가까움을 알고 그는 친족들을 그의 주위로 불렀다. 바로의 땅에서 그는 그렇게 영예로운 대우를 받았었으나 애굽은 그에게 있어서 유랑의 땅에 지나지 않았다. 그의 마지막 행위는 그가 이스라엘과 운명을 같이한다는 것을 증거하였다. 요셉의 마지막 말은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는 말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로부터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그의 유골을 가져가겠다는 엄숙한 맹세를 받아냈다. “요셉이 일백십세에 죽으매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 후 이스라엘 백성이 노역(勞役)에 종사하게 된 수 세기 동안 요셉의 임종의 말을 기억나게 하는 그의 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은 다만 잠시 애굽에 체류하는 자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거하였으며 구원의 때가 분명히 올 것이므로 허락의 땅에 대한 그들의 희망을 굳게 잡도록 해 주었다. {PP 240.2}

22장 모세

애굽 백성들은 기근이 닥쳐오자 식량을 공급받기 위하여 국왕에게 가축과 토지를 팔아버리고 마침내 영구히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다. 요셉은 현명하게 그들이 놓임을 받을 길을 준비하였다. 그는 그들을 국왕의 소작인으로서 왕의 땅을 확보하게 하고 노력하여 얻은 수확의 5분의 1을 연공(年貢)으로 바치게 하였다. {PP 241.1}

그러나 야곱의 자손들은 이런 조건 하에 있을 필요가 없었다. 요셉이 애굽 나라에 끼친 공헌으로 인하여 그들은 그 국토의 일부분을 그들의 거주지로 허락을 받았을 뿐 아니라 과세도 면제되고 기근이 계속되는 동안 양식도 후하게 공급받았다. 왕은 다른 나라들이 기근으로 인하여 파멸되어 가고 있는 동안 애굽이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중재라는 사실을 공공연히 인정하였다. 그는 또한 요셉의 시정(施政)으로 왕국이 부요하게 된 것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야곱의 가족들에게 왕실의 총애를 입게 하였다. {PP 241.2}

그러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애굽에 커다란 공헌을 했던 위대한 인물과 그의 업적으로 은혜를 입었던 세대도 다 이 세상을 떠나 무덤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출 1장, 2장 1~10절)렸다. 이 왕은 요셉이 나라를 위하여 세운 공을 전혀 모르지는 않았으나 가능한 한 그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것을 지워 버리려고 애썼다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PP 241.3}

이스라엘 백성의 수효는 벌써 엄청나게 불어났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요셉의 돌봄과 그 당시 나라를 다스리던 왕의 총애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신속히 온 나라에 퍼졌다. 그러나 그들은 특별한 민족으로서의 특징을 지켰으며, 풍습이나 종교에 있어서 조금도 애굽인들과 같은 점이 없었다. 그리고 그들의 수효의 증가는 왕과 그 백성들에게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그들의 애굽의 원수들 편에 가담하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주었다.

그러나 애굽의 정책은 그들을 국외로 추방하는 것을 금했다. 그들 중에는 유능하고 분별력 있는 기술자들이 많아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컸다. 왕은 그의 장엄한 궁전들과 신전들을 건축하는 데 그런 일꾼들이 필요했다. 따라서 왕은 나라에 저들 자신과 소유물을 판 애굽인들과 같은 대열에 그들을 두었다. 얼마 후에는 그들을 관할하는 감독을 세우고 그들을 완전히 노예로 만들었다.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였”다. {PP 241.4}

왕과 그의 모사(謀事)들은 고역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수를 줄이며 독립 정신을 분쇄하려고 했다. 이런 방법으로 저들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실패하자 그들은 더 잔인한 방법을 고안해 냈다. 일의 성격상 명령을 수행해야 할 입장에 있는 산파들에게 히브리인의 남자 아이는 출생할 때에 죽이라는 명령이 내렸다. 사단은 이 일에 선동자였다.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원자가 나리라는 것을 알았으므로 왕으로 하여금 그들의 자녀들을 멸하도록 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좌절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잔인한 명령을 수행할 수 없었다. 여호와께서 산파들의 이 같은 행동을 용인하시고 그들을 번영하게 하셨다. 왕은 그의 계획이 실패한 것을 보고 화가 나서 더욱 긴급하고도 광범위한 명령을 내렸다. 그는 전 국민들에게 속절없는 희생물들을 찾아내어 학살하도록 요구했다.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다. {PP 242.1}

이 법령이 강행되고 있을 때에 레위 지파 중에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 아므람과 요게벳에게 한 아들이 출생하였다. 갓난아이는 “준수하”였고 그 부모는 이스라엘의 해방 시기가 가까이 이르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일으키시라는 것을 믿고 그들의 아이가 희생당하지 않게 하기로 결심하였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었으며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히 11:23)다. {PP 242.2}

어머니는 아이를 3개월 동안 감추어 두고 길렀다. 그러나 더 이상 아이를 안전히 보호할 수 없음을 알고 그 여자는 갈대로 만든 작은 상자를 준비하여 물이 스며들지 않게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 다음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가 갈대 사이에 숨겨 놓았다. 그 어머니는 감히

그 곳에 머물러 아이를 지켜보고 있을 수 없었다. 그렇게 한다면 아이의 생명과 자신의 생명을 잃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대신 그의 누이 미리암이 그 부근에 머물러 있으면서 표면상으로는 무관심한 체하면서 그의 작은 아우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마음 졸이며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감시자들도 있었는데 어머니의 열렬한 기도가 그의 아들을 하나님의 보호에 의탁하게 되자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그의 비천한 휴식처 위를 날고 있었다. 천사들은 바로의 딸을 그 곳으로 인도하였고 공주는 그 작은 상자에 호기심을 갖게 되었으며 그가 그 상자 속에 있는 아름다운 아이를 보았을 때에 한눈에 그 아이를 버린 사연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 어린아이의 눈물은 그의 동정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방법으로라도 자기의 귀중한 아이의 생명을 보존해 보려는 알지 못하는 어머니에게 동정심이 갔다. 공주는 그 아이를 구원하기로 결심하고 그를 자기의 양자로 삼으려 하였다. {PP 243.1}

미리암은 몰래 모든 동태를 살피고 있었다. 아이를 부드럽게 다루는 것을 알고 그는 용기를 내어 가까이 나아가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고 말했다. 그의 이 제안은 허락되었다. {PP 243.2}

그의 누이는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급히 어머니에게로 달려가 지체 없이 그를 모시고 바로의 딸 앞에 되돌아왔다. 공주는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삯을 주리라"고 말하였다. {PP 243.3}

하나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여자의 믿음은 보상을 받았다. 요게벳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마음 놓고 그의 아들을 양육할 수 있는 이 복된 과업에 착수했다. 그 어머니는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교육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였다. 그는 자기 아들이 어떤 위대한 사업을 위하여 그의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그를 왕실의 양모에게 보내야 하고 거기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감화에 둘러싸이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이 모든 일이 그로 하여금 다른 아이들보다 이 아이를 더욱 부지런히 또 더 주의 깊게 교훈하도록 만들었다. 그 어머니는 아이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와 공의를 사랑하는 정신을 불어넣고자 노력하였으며 모든 부패케 하는 감화로부터 보존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를 위해 열렬히 기도하였다. 그 여자는 우상숭배의 어리석음과 죄를 그에게 보이고

어려서부터 어떠한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살아 계신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다. {PP 243.4}

어머니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오래도록 소년을 데리고 있었으나 그가 열두 살이 되었을 때에 부득불 보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아이는 보잘것없는 오두막집에서 왕궁 곧, 바로의 딸에게로 옮겨 가서 “그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그는 유년 시절에 받은 인상을 잃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 곁에서 배운 교훈들은 잊힐 수 없었다. 그 교훈은 교만과 궁전의 호화로움 가운데서 창궐하는 악습에 대한 방패가 되었다. {PP 244.1}

유랑민이요 노예인 한 히브리 여인이 끼친 감화의 결과가 얼마나 멀리까지 퍼졌는가! 장래의 모세의 전 생애 곧,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가 성취한 위대한 사명이 그리스도인 어머니의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거해 준다. 이것에 맞먹을 수 있는 다른 일은 없다. 자녀들의 운명의 상당한 부분이 어머니의 손에 달려 있다. 어머니는 마음과 성품을 계발시키는 일들을 다루고 있으며 이 세상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영원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그는 선악간에 싹이 돋고 열매를 맺을 종자를 심고 있다. 어머니는 화폭에 아름다운 모양을 그리거나 대리석에 그것을 조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야 하는 것이다. 특별히 그들의 어린 시절에는 자녀들의 품성 형성에 대한 책임이 어머니에게 있다. 한창 계발되고 있는 마음에 주어진 인상은 평생 동안 그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아주 어렸을 때에 그들을 교훈하고 훈련시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을 그들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들은 이 세상 왕국의 보좌를 상속할 후계자로서가 아니라 무궁한 세월을 통하여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의 왕들로서 교육하도록 어머니들에게 위탁되었다. {PP 244.2}

모든 어머니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주어진 순간들이 매우 귀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라. 어머니의 일은 엄숙한 심판 날에 검사를 받게 될 것이다. 그 때에 남녀들의 수많은 실패와 범죄가 그들의 어린 시절에 철없는 그들의 발을 바른길로 인도해야 할 의무를 진 사람들의 무지와 나태의 결과라는 것이 밝혀질 것이다. 그 때에 또 천부적 재능과 진리와 성화의 빛으로 세상에 축복을 가져왔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감화와 성공의 원동력이 된 원칙들을 그들의 어머니 곧,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임이 밝혀질 것이다. {PP 244.3}

모세는 바로의 궁정에서 최고의 시민적, 군사적 훈련을 받았다. 국왕은 그의 양손(養孫)을 자기의 보좌의 후계자로 삼기로 결심했고 그 청년은 그의 높은 지위를 위하여 교육을 받았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행 7:22).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그의 능력은 애굽 군대의 총애를 받았으며 그는 비범한 인물로 일반에게 알려졌다. 사단의 목적은 좌절되었다. 히브리인의 자녀들을 죽이라는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의 미래의 지도자를 훈련하고 교육을 하는 일에 활용하셨다. {PP 245.1}

천사들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용하실 사람이 모세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천사들은 모세에게도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속박을 깨뜨리시기 위하여 그를 택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그들이 무력으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애굽 군에 대항해서 싸울 히브리 군대를 지휘하게 될 줄로 생각했다. 그는 이점을 염두에 두고 그의 양 어머니나 바로에 대한 애착으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자유롭지 못하게 될까봐 그의 애정을 억제하고 있었다. {PP 245.2}

애굽의 법률에 의하면 바로의 보좌를 차지할 사람은 모두 사제 계급의 일원이 되어야 하였다. 그래서 모세는 세자(世子)로서 국교의 비법을 전수하여야 했다. 이 의무는 사제들에게 위탁되었다. 그러나 그는 열심 있고 꾸준한 학생이었으나 거짓 신들을 예배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왕위를 상실할 것이라는 위협도 당했고 그가 히브리 사람의 신앙을 고집할 것 같으면 모자간의 의를 끊겠다는 경고를 공주로부터 받기도 했다. 그러나 천지의 창조주이신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아무 다른 신에게도 경배하지 않겠다는 그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사제들과 예배자들에게 감각이 없는 대상을 미신적으로 숭배하는 일의 어리석음을 보이며 따졌으나 아무도 그의 변론을 논박하거나 그의 목적을 변경시킬 수 없었다. 그러나 그의 높은 지위와 그가 왕과 백성들 양편에서 받는 총애 때문에 당분간 그의 확고부동함은 묵인되었다. {PP 245.3}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히

11:24~26). 모세는 세상의 위인들 중에서 더욱 뛰어난 자리를 차지하고 당대에 가장 영광스러운 나라의 궁정에서 빛을 발하고 그 나라의 권세의 홀을 휘두르기에 적합한 사람이었다. 그의 훌륭한 지력은 그로 하여금 각 시대의 위인들보다 더욱 뛰어나게 했다. 역사가요, 시인이요, 철학자요, 군대 장관이요, 입법자로서 그와 견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온 세계가 자기 앞에 있었으나 그는 부와 존귀와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가망성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 할 수 있는 도덕적 힘을 가지고 있었다. {PP 245.4}

겸손하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어질 최후의 보상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은 모세에게 세속적 이익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바로의 장엄한 궁전과 왕의 보좌가 모세를 유인(誘因)하고 있었다. 그러나 모세는 그 궁정 안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죄악적인 쾌락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호화찬란한 궁전 저편 곧 군주의 왕관 저편에 있는, 죄로 물들지 않은 나라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가 받게 될 지극히 높은 영광을 바라보았다. 그는 믿음으로 하늘의 왕께서 승리자의 머리에 씌워 주실 불멸의 왕관을 바라보았다. 이 믿음이 그로 하여금 비천하고 가난하고 멸시받는 민족과 연합하도록 했다. {PP 246.1}

모세는 40세까지 궁정에 머물러 있었다. 그는 때때로 동족의 비참한 상태를 생각하고 노역에 종사하는 동포를 방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해 역사(役事)하시리라는 보증으로 그들을 격려하였다. 때때로 그는 동족이 불공평하게 압박당하는 광경을 보고 흥분하여 그들의 학대에 대하여 복수심을 불태우곤 했다. 어느 날 그는 궁전 밖에서 한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달려들어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그 이스라엘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 살인을 목격한 자가 없었으므로 모세는 즉시 그 시체를 모래에 묻어 버렸다. 이제 그는 자기 백성의 해방 운동을 지지할 준비가 된 것을 스스로 나타냈으며 그들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봉사하게 되기를 바랐다.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행 7:25). 그러나 그들은 아직 자유를 얻을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 이튿날 모세는 두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데 그중 한 사람이 분명히 잘못된 것을 보았다. 모세가 그 잘못한 사람을 책망하였더니 그는 곧 책망하는 사람에게 참견할

권리가 없다고 대꾸하면서 비열하게도 그의 범죄를 비난하였다. 그는 “누가 너를 우리의 주재와 법관을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출 2:14)라고 말하였다. {PP 246.2}

사건의 전말이 신속하게 애굽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크게 과장되어 곧바로 바로의 귀에 들어갔다. 이 같은 행위는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졌다는 것과 모세가 그의 백성을 지휘하여 애굽 사람들을 대항하여 그 정부를 전복하고 스스로 왕위에 오를 계획을 세웠다는 것과, 그가 살아 있는 한 그 나라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 등이 왕에게 제시되었다. 왕은 당장 모세를 죽이기로 결정하였으나 모세는 이미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아라비아로 도망하고 없었다. {PP 247.1}

여호와께서 모세의 길을 인도하셔서 그로 하여금 미디안의 제사장이요 왕인 이드로의 집에서 거처를 찾게 하셨다. 이드로는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었다. 얼마 후 모세는 이드로의 딸들 중 하나와 결혼하고 거기서 그의 양떼를 지키는 목자로서 장인을 섬기면서 40년 동안 머물러 있었다. {PP 247.2}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 모세는 조상들이 누누이 범한 과오, 곧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일을 자신들의 손으로 처리한 과오를 반복하였다. 하나님의 뜻은 모세가 생각한 대로 전쟁으로 그분의 백성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그분께만 돌려지도록 그분 자신의 능하신 힘으로 하시는 것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경솔한 행위도 당신의 목적을 달성하시는 데 사용하셨다. 모세는 아직 위대한 그의 사업을 성취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아브라함과 야곱이 배운 동일한 믿음의 교훈 -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는 인간의 힘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그분의 능력에 의지할 것 - 을 배워야 했다. 그리고 한적한 산중에서 모세가 배워야 할 다른 교훈들도 있었다. 극기와 고난의 학교에서 그는 인내와 감정을 조절하는 것을 배워야 했다. 현명하게 다스릴 수 있기 전에 그는 순종하기를 배워야 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 전에 그 자신의 마음이 그분과 완전히 조화되어야 하였다. 자신의 경험으로 그는 장차 그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될 모든 사람들을 자애로운 아버지와 같이 돌볼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하였다. {PP 247.3}

사람들은 그 오랜 세월 동안의 수고와 남의 눈에 드러나지 않은 생활을 시간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생각하여 면제시켜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지도가가 될 그를 부르사 40년 동안 비천한 목자의 일을 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하여 돌보는 습관 곧 자기를 잊어버리고 동정과 부드러운 염려로 양떼를 돌보는 습관이 개발됨으로 자비심이 깊고 오래 참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도록 그를 준비시킬 것이었다. 인간의 수련이나 수양이 줄 수 있는 어떤 이점도 이 경험을 대신할 수는 없었다. {PP 247.4}

모세는 배우지 않아야 할 것을 많이 배워 왔다. 애굽에서 모세를 에워싸고 있었던 영향 곧 어머니의 사랑과 왕의 손자로서의 높은 지위, 도처에 있었던 방탕과 호화로움, 교활과 거짓 종교의 신비, 우상숭배의 장엄함과 건축과 조각의 엄숙한 장관 등 이 모든 것은 계발 중에 있던 그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주어 어느 정도 그의 습관과 품성을 형성하였다. 시간과 환경의 변화와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 같은 인상을 제거할 수 있었다. 모세 자신도 오류를 버리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생활을 살기 위해 투쟁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그 투쟁이 너무나 치열하여 인간의 힘에 겨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조력자가 되실 것이었다. {PP 248.1}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사업을 수행하도록 택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인간적 결점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판에 박은 듯한 습관과 품성에 머물러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그분을 위해 일하는 법을 배우기를 열렬히 갈망하였다. 사도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어둠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그것을 만족히 여기고 있는 한 그들에게 거룩한 빛을 나누어 주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아야 하고 자기 자신 속에 이룩될 큰 변화에 마음을 쏟아야 한다. 열렬하고 꾸준한 기도와 노력으로 분기해야 한다. 그릇된 습관과 행습은 떨쳐 버려야 한다. 이 같은 잘못들을 시정하고 바른 원칙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결정적인 노력만이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 스스로 하도록 능력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까닭에 그들이 마땅히 차지할 수 있는 지위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엄격한

정신적·도덕적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그들의 노력과 결합시키심으로 그들을 도우실 것이다. {PP 248.2}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한적한 곳에서 모세는 홀로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애굽의 장엄한 신전과 그 곳의 미신과 허위가 더 이상 그의 마음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영원한 산들의 장엄함 속에서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위엄을 바라보며 그와 대조해 볼 때 애굽의 신들이 얼마나 무력하고 하찮은지를 깨달았다. 도처에 창조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모세는 그분이 임재해 계시는 곳에 서 있는 것 같았고 그분의 능력으로 둘러싸인 것 같았다. 여기서 그의 자존심과 자부심은 완전히 일소되었다. 단순하고 소박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애굽의 안일과 사치의 결과들은 다 없어지고 말았다. 모세는 참을성 있고, 경건하고, 겸손하게 되어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민 12:3)하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능하신 야곱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강하게 되었다. {PP 248.3}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모세는 양떼를 몰고 이 한적한 곳으로 이리저리 다니면서 압박받는 그의 백성들의 형편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그의 조상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선민(選民)의 유업에 대한 약속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서 밤낮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드렸다. 하늘의 천사들은 그의 주위에 그들의 빛을 비춰 주었다. 여기서 그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창세기를 기록하였다. 적막한 황야에서 보낸 오랜 세월은 모세와 그의 백성뿐 아니라 그후 계속된 모든 시대를 통하여 이 세상에 풍성한 축복이 되었다. {PP 251.1}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출 2:23~25).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함을 받을 때가 이르렀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의 교만심을 부끄럽게 하는 방법으로 성취되어야만 하였다. 구원자는 비천한 목자로서 손에 지팡이만을 가지고 갈 것이나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당신의 권능의 상징으로 삼으실 것이었다. 어느 날 모세는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 가까이서 그의 양떼를 이끌고 가다가 불꽃에 휩싸인 떨기나무를 보았다. 그 나무 가지와 잎사귀와 줄기 전체에 불이 붙어 타고 있었으나 그것들이 타 없어지지 않은 듯했다. 그가

이 놀라운 광경을 보려고 가까이 갔을 때 불꽃 속에서 한 음성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떨리는 입술로 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는 불경스럽게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출 3장, 4장 1~26절)니라. 그분은 언약의 천사로서 과거에 조상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던 분이셨다. “모세가 하나님 뵈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었다. {PP 251.2}

겸손과 존경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태도를 특징지어야 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그분께서 마치 우리와 같은 수준에 계시는 것처럼 주제넘고 뻔뻔스러운 태도로 그분께 가까이 나가서는 안 된다. 가까이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와 그들과 동등한 사람이나 그보다 못한 사람에게 하듯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상의 통치자의 알현실(謁見室)에서도 감히 하지 못할 행동을 하나님의 집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스랍들이 경배하고 하늘의 천사들이 그분 앞에서 얼굴을 가리우는 분의 면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은 크게 존경을 받으셔야 한다. 참으로 그분의 임재를 깨닫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이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본 야곱처럼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라고 부르짖을 것이다. {PP 252.1}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두려움으로 기다리고 있을 때에 그분의 말씀이 계속되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녕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려 하노라…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PP 252.2}

이 명령을 듣고 놀란 모세는 떨리는 음성으로 “내가 누구관대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라고 말하면서 뒤로 물러섰다. 이에 대한 대답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고 대답하셨다. {PP 252.3}

모세는 겪게 될 어려움과 많은 사람들이 거의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잃어버린 사실과 그 백성들의 무지몽매함과 불신을 생각했다. 그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라고 여쭈었다. {PP 252.4}

이에 대한 대답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는 것이었다. {PP 253.1}

모세는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고상하고 의로운 장로들 곧, 이스라엘의 속박을 인해 오랫동안 슬퍼해 온 장로들을 모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별과 구원의 약속을 그들에게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 후에 그는 장로들과 함께 왕의 앞에 나아가서 다음과 같이 말하라고 하셨다. {PP 253.2}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PP 253.3}

모세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해달라는 간청을 거절할 것이라는 경고를 미리 받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용기를 잃지 말아야 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 기회에 애굽 사람과 당신의 백성들 앞에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PP 253.4}

그들의 여행을 위하여 준비해야 할 것에 관해서도 지시를 주셨다.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 패물과 금패물과 의복을 구하"라고 선포하셨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부당하게 착취한 노동에 의하여 치부(致富)하였으므로, 후자가 새로운 거주지로 여행하려고 하는 마당에서 그들이 여러 해 동안 수고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들은 운반하기 쉬운 귀중품을 요구할 것이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의 목전에서 저들에게 은총을 베푸실 것이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행하신 큰 기적들은 압제자들로 하여금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여 속박되어 온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할 것이었다. {PP 253.5}

모세는 이겨내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어려움들이 그의 앞에 가로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과연 그를 보내셨다는 어떤 증거를 그의 백성에게 제시할 수 있을까? 그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고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때에 모세가 볼 수 있는 증거를 주셨다. 그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가 그렇게 했을 때에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였다. 그는 그것을 잡으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렇게 하자 그것이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었다. 그는 손을 품에 넣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가 그 말을 순종하여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되었다. 다시 손을 품에 넣으라는 명령에 따라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니 다른 손과 같이 된 것을 보았다. 여호와께서 이 표징들을 사용하셔서 바로뿐만 아니라 자기의 백성들도 애굽 왕보다 더 능력 있는 한 분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라고 모세에게 보증하셨다. {PP 253.6}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아직도 자기 앞에 있는 이상하고 놀라운 일을 생각하고 위축되어 있었다. 근심과 두려움으로 그는 이제 구변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는 오랫동안 애굽 사람들과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 중에 있을 때처럼 그들의 언어에 대해 잘 알지도 못했고 유창하게 말하지도 못하였다. {PP 254.1}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에 관한 또 하나의 보증이 첨가되었다.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러나 모세는 더 유력한 인물을 선택하도록 탄원했다. 이 같은 변명들이 처음에는 겸양에서 나왔으나 여호와께서 모든 어려움을 제거하시고 최후의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계속 뒷걸음치며 자기가 부적당하다고 호소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 불신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도록 부르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에게 적절한 자격을 갖추어 주지 못하시거나 그분이 사람을 택하시는 일에 과오를 범하셨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PP 254.2}

이제 모세의 주의는 일상생활에서 애굽 사람들의 언어를 써왔기 때문에 그것을 유창하게 말할 수 있었던 그의 형 아론에게로 향하게 되었다. 그는 아론이 그를 만나러 오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여호와께서 하신 다음의 말씀은 절대적인 명령이었다. {PP 254.3}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는 변명할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다. {PP 254.4}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주셨을 때에 그는 자신감이 없었고 말이 느리고 소심한 사람임이 드러났다. 그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기에는 무능하다는 생각으로 압도당했다. 그러나 일단 그 임무를 받아들인 이상 그는 모든 일에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심으로 그 일에 착수하였다. 그의 사명의 중대함이 그로 하여금 그의 최대의 지력을 행사하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신속한 복종에 축복하셨으므로, 그는 능변가가 되고 희망찬 사람이 되었고 침착한 사람이 되었다. 그는 일찍이 사람에게 맡겨진 과업 중 최대의 사업을 행할 수 있는 매우 적합한 사람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사람의 품성을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하나의 실례가 된다. {PP 255.1}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시는 책임들을 수락하고 그것을 올바로 감당할 자질을 갖추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 노력한다면 그는 힘과 능력을 얻을 것이다. 아무리 지위가 낮고 능력이 적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성실하게 그분의 사업을 수행하려고 한다면 그는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모세가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고 열렬히 그 큰 임무를 수락했었더라면, 그는 자신이 그 사업을 맡기에는 전혀 부적당한 사람임을 나타냈을 것이다.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느낀다는 사실은 적어도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업의 중대성을 깨닫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을 그의 의논 상대와 능력으로 삼으려 한다는 증거이다. {PP 255.2}

모세는 장인에게 돌아와 애굽에 있는 자기 동포들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드로는 "평안히 가라"는 축복의 말로 동의했다. 모세는 처자와 같이 여행을 떠났다. 그는

처자들이 그와 동행하도록 허락해 주지 않을까봐 감히 그의 사명을 말하지 못했다. 그러나 애굽에 도착하기 전에 모세는 그들의 안전을 위하여 미디안에 있는 집으로 그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했다. {PP 255.3}

40년 전에 그에 대해 적개심이 불타던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 대한 내면적 공포가 그로 하여금 한층 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꺼리게 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출발한 후에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그에게 계시해 주셨다. {PP 255.4}

미디안에서 나오는 길에 모세는 여호와의 불쾌히 여기심에 대한 놀랍고 무서운 경고를 받았다. 그를 당장 죽일 것처럼 한 천사가 그에게 위협하는 몸짓으로 나타났다. 아무 설명은 없었으나 모세는 그가 하나님의 요구 중 하나를 무시한 것을 기억하였다. 아내의 권유에 못 이겨 그는 막내아들에게 할례식을 거행하는 일을 등한히 하였다. 모세는 그의 아들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을 자격을 얻게 해주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들이 선택한 지도자에게 있는 이런 태만이 백성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능력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었다. 십보라는 남편이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손수 의식을 거행하였다. 그제야 천사가 모세로 하여금 여행을 계속하도록 허락해 주었다. 모세는 바로에 대한 그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매우 위험한 처지에 놓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생명은 거룩한 천사들의 보호를 통하여서만 보존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가 알고 있는 의무를 등한히 하는 생활을 사는 한 천사들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코 안전하지 못할 것이었다. {PP 255.5}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시련의 때에 의인들은 하늘 천사의 봉사를 통하여 보호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는 안전이 없을 것이다. 그 때에 천사들은 하나님의 교훈 중 어느 하나라도 무시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없다. {PP 256.1}

23장 애굽의 재앙

아론은 천사들의 지시를 받고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아우를 만나러 나아갔다. 그들은 호렙산 근처에 있는 적막한 광야에서 만났다. 이곳에서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모세가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고하"(출 4:27~31, 5~10장)였다. 함께 애굽으로 여행하여 고센 땅에 도착한 후 그들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아론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모든 일을 그들에게 거듭 말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표적을 백성 앞에 보였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 {PP 257.1}

모세는 또한 왕에게 전할 기별을 가지고 있었다. 두 형제는 왕 중 왕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대사로서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 그분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고 말했다. {PP 257.2}

왕은 "여호와가 누구관대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고 힐문하면서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고 말했다. {PP 257.3}

그들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라고 대답하였다. {PP 257.4}

그들에 대한 소식과 저희가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다는 소식이 벌써 왕의 귀에 들어갔다. 왕은 분노하였다. 그는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고 말하였다. 그 나라는 벌써 이 낯선 사람들의 관여로 인하여 손실을 입고 있었다. 이것을 생각하고 왕은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라고 덧붙여 말했다. {PP 258.1}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박 중에 있는 동안 어느 정도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지식을 잊어버리고 그 교훈에서 떠나 있었다. 전반적으로 안식일은 무시되었고 그들의 감독들의

가혹함이 안식일 준수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이 구원의 첫째 조건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 주었다. 안식일 준수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압박자들이 알아차렸다. {PP 258.2}

왕은 대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섬기는 일에 대해 반역을 기도하는 것이라고 의심하였다. 불만은 태만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왕은 그들에게 위험한 계책을 꾸밀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기로 하였다. 왕은 곧 그들을 더 압박하고 그들의 독립 정신을 말살시킬 조치를 취했다. 그날부터 그들의 노역을 한층 더 혹독하게 시키고 무겁게 하라는 명령이 내렸다. 그 나라의 가장 보편적인 건축 재료는 햇볕에 말린 벽돌이었다.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들의 벽을 이것으로 쌓고 거기에 돌을 붙였다. 그리고 벽돌 제조에 수많은 노예들이 동원되었다. 짚을 썰어서 진흙과 섞어서 진흙을 결합시켜야 하였으므로 이 일에는 막대한 양의 짚이 요구되었다. 왕은 이제부터 더 이상 짚을 공급해 주지 말라고 지시했다. 노역자들은 스스로 그것을 구하여 전과 똑같은 양의 벽돌을 만들어 내도록 강요당했다. {PP 258.3}

이 명령은 온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 주었다. 애굽인 감독들은 히브리인 직원들을 임명하여 그들로 백성들의 일을 감독하게 하고 저희로 하여금 저희 관할 하에 있는 사람들의 노역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했다. 왕의 명령이 시행되자 백성들은 짚이 없어 온 나라에 흩어져 짚 대신에 곡초 그루터기를 모았지마는 종전과 같은 작업량을 달성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일의 실패로 인하여 히브리인 직원들은 잔인하게 매를 맞았다. {PP 258.4}

이들 직원들은 이러한 압박이 그들의 감독에게서 나온 것이지 왕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왕에게 나아가 억울한 사정을 호소했다. 그러나 바로는 다음과 같이 그들의 항의를 조롱했다.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자 하는도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의 역사를 경감시킬 수 없다는 선언과 함께 일터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들은 돌아오는 길에 모세와 아론을 만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고 그들에게 소리쳤다. {PP 258.5}

모세는 이 비난을 듣고 크게 고민했다. 백성들의 고통은 점점 심해졌다. 노인들과 젊은이들의 절망적인 부르짖음이 온 나라에 메아리쳤고 모든 사람들은 연합하여 그들의 상태가 비참해진 것은 모세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비통한 마음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고 부르짖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하므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하므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는 것이었다. 그는 다시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바라보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것이 성취되리라는 보증도 받았다. {PP 259.1}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호와를 충실히 경배해 온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 그들은 자녀들이 날마다 이교도의 가증한 행위를 목격하고 심지어는 그들의 거짓 신들에게 절하는 것을 보고 몹시 괴로워했다. 고통 중에서 그들은 애굽인의 속박에서 구원해 주셔서 그들이 우상숭배의 부패시키는 감화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숨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이 예배하는 분은 천지의 창조주시요 유일하시고 참되신 살아 계신 하나님이심을 애굽인들에게 선포했다. 그들은 창조 때로부터 야곱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이 나타난 증거를 열거하면서 이야기했다. 이리하여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의 종교를 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노예들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을 수치로 여길 뿐 아니라 오히려 상당한 보상을 주겠다는 약속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을 유혹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이 일이 실패하자 그들은 위협과 잔인한 행동으로 나왔다. {PP 259.2}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과 요셉이 죽기 전에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말한 예언을 반복해서 말해 줌으로 쇠퇴해 가는 그들의 동포들의 신앙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믿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고 그 같은 희망을 포기했다. 애굽 사람들은 노예들 사이에 퍼진 말을 듣고 그 같은 기대를 조롱하며 그들의 하나님의 능력을 얕보고

부정했다. 그들은 노예 민족으로서의 그들의 처지를 지적하면서 “너희 하나님이 공의롭고 은혜로우며 애굽 신들보다 능력이 더 많다면 왜 너희를 자유로운 민족으로 만들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의를 자기들의 형편에 환기시켰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거짓 신이라고 부르는 신들을 예배하고 있지만 부요하고 강한 민족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신들이 번영하도록 축복해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종으로 주었다고 선언하면서 여호와를 경배하는 사람들을 압박하고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자만하였다. 바로 자신도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손에서 해방시킬 능력이 없다고 자랑했다. {PP 259.3}

이와 같은 말들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을 소멸시켰다. 당시 사정은 애굽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흡사해 보였다. 그들은 노예였고 그들의 잔인한 간역자들이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견디어 내야 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들의 자녀들은 쫓기다가 붙잡혀 죽임을 당했고 그들 자신의 생애는 하나의 무거운 짐이었다. 그래도 그들은 하늘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참으로 모든 신들 위에 계시다면 그분은 반드시 그들을 이렇게 우상 숭배자들의 속박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이 노예가 되는 것을 허락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분에게서 떠나서 이방 민족과 결혼하여 우상숭배를 하게 된 저들의 기질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동포들에게 머지않아 그분께서는 압박자의 멍에를 곧 꺾으시리라는 것을 확신 있게 보증했다. {PP 260.1}

히브리 사람들은 아무런 특별한 신앙의 시련이나 실제적 고통과 어려움 없이 자유를 얻게 되기를 기대해 왔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해방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거의 없었으며 그분이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기에 적당하다고 보실 때까지 그들의 고통을 참을성 있게 견디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은 낯선 땅으로 이주하는 데 따르는 고난을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노예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을 만족하게 여겼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습관이 애굽 사람들의 습관과 매우 흡사하게 되었기 때문에 애굽에 거하기를 좋아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바로 앞에서 나타내신 당신의 첫 능력으로 그들을 해방시키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의 포악한 정신이 더욱 완전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동시에 당신 자신을 당신의 백성에게 나타내시기 위하여 모든

사건들을 당신의 섭리로 지배하셨다. 그분의 공의와 능력과 사랑을 보고서야 그들은 애굽을 떠나 그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바치기로 선택할 것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기를 싫어할 만큼 부패하지 않았더라면 모세의 직무는 훨씬 쉬웠을 것이다. {PP 260.2}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가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생한 보증과 아울러 그들에게 구원의 허락을 거듭거듭 말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는 받은 명령대로 갔으나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성경에는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듣지 아니하였더라"고 쓰여 있다. 다시 하나님의 기별이 모세에게 임하여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고 하셨다. 모세는 낙담하여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라고 대답하였다. 그는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가서 "그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고 다시 요구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PP 260.3}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의 능력을 놀랍게 나타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기까지 왕이 결코 그 요구에 굴복지 않을 것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각 재앙이 내리기 전에 모세는 그 재앙의 성질과 결과를 바로에게 설명해 주어서 그로 하여금 그 재앙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하도록 했다. 재앙 하나하나가 거절당할 때마다 한층 더 혹심한 재앙이 따르게 되어서 마침내 왕의 교만한 마음은 낮아져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분을 참되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는 애굽 사람들에게 그들의 위대한 사람들의 지혜가 얼마나 헛되고 여호와의 명령에 반대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의 신들의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이었다. 여호와께서는 애굽 사람들의 우상숭배를 벌하시고 지각없는 신들에게서 축복을 받았다는 저들의 자랑을 침묵시키실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국민들이 당신의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듣고 당신의 능하신 행사에 대하여 떨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이 우상숭배로부터 돌아서서 당신께 순결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으로 당신의 성호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었다. {PP 263.1}

다시 모세와 아론은 애굽 왕의 장엄한 궁전으로 들어갔다. 노예 민족의 대표자 두 사람은 이스라엘을 석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듭 촉구하기 위하여, 높은 기둥들과 찬란한 장식들과 이교의 신들의 선명한 그림과 조각에 둘러싸여 그 당시 이 땅에 존재했던

최대 강국의 군주 앞에 섰다. 왕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는 증거로 기적을 요구하였다. 모세와 아론은 이런 요구를 받을 경우에 어떻게 행할지를 지시받았기 때문에 아론은 이제 지팡이를 취하여 바로 앞에 던졌다. 지팡이는 뱀이 되었다. 왕도 "박사와 박수"를 불렀고 그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다. 그 때에 왕은 전보다 마음을 더 강퍅하게 하여 그의 술객들도 모세와 아론과 같은 능력을 가졌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여호와의 종들을 사기꾼이라고 비난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여도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비록 그가 그들의 기별을 업신여기기는 했으나 하나님의 능력의 제지를 받아 그들을 해하지는 못했다. {PP 263.2}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이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어떤 인간적 감응력이나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행하신 것이었다. 이 표적과 기사는 크시고 "스스로 있는 자"가 모세를 보내셨고 이스라엘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내보내는 것이 왕의 의무라는 것을 바로에게 확신시키기 위하여 행해진 것이었다. 술객들도 역시 이적과 기사를 행했다. 이는 그들 자신들의 기술로써만 행한 것이 아니요 저들의 신 사단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모방하도록 그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이었다. {PP 264.1}

술객들은 실제로 그들의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지는 못했다. 큰 사기꾼의 조력을 받아 마술로써 그들은 그렇게 보이도록 할 수 있었다. 사단의 능력으로는 지팡이가 산 뱀이 되게 할 수 없다. 악의 임금은 타락한 천사로 온갖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창조할 능력이나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은 가지지 못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만 가지신 고유 권한이다. 그러나 사단은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모조품을 만들어 냈다. 인간의 눈에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것처럼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그것을 사실로 믿었다. 외견상으로 볼 때 그 뱀들은 모세가 만든 뱀과 아무 다른 차이가 없었다. 여호와께서 참 뱀이 거짓 뱀들을 삼키도록 하셨으나 이것까지도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일이 아니요 다만 모세가 행한 마술이 그의 종들의 그것보다 우월한 결과라고 생각하였다. {PP 264.2}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자신의 고집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행하신 표적들을 무시할 어떤 구실을 찾고 있었다. 사단은 바로가 원하던 바로 그것을 주었다. 그가 술객들을 통하여 행한 일로 모세와 아론은 박사와 박수에 지나지 않으며 그들이 가져온 기별이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서 온 것처럼 존경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고 애굽인들에게 나타나 보이도록 만들었다. 사단의 기만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애굽인들로 하나님을 담대히 반역하게 하고 바로의 마음을 굳게 하여 불신에 빠지게 하였다. 사단은 또 모세와 아론으로 하여금 그들의 사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믿는 그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으므로 자기의 부하들이 이기게 되기를 바랐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속박에서 풀려나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PP 264.3}

그러나 악의 왕자가 술객들을 통하여 자기의 이적을 나타내는 데는 더 깊은 목적이 있었다. 사단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메고 있는 종의 멍에를 깨뜨리는 모세가 인간 가족을 압제하고 있는 죄의 권세를 깨뜨리실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셨다는 것을 온 세상에 증거하기 위하여 능력 있는 표적이 행해질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사단은 그의 권세를 크게 염려하였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행하신 일을 모조함으로 그는 이스라엘의 해방을 방해할 뿐 아니라 장차 올 모든 시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표적에 대한 신앙을 파괴할 수 있는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바랐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표적을 모조하며 자기의 권세와 주장들을 입증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 그는 그리스도의 표적을 인간의 기술과 능력의 결과인 것처럼 나타내 보임으로 사람들로 그렇게 생각하도록 한다. 그렇게 함으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믿음을 파괴하고 구속의 경륜을 통해 주시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초청을 그들로 거절하게 만든다. {PP 264.4}

이튿날 아침 모세와 아론은 왕이 잘 가는 하숫가에 가보라는 명령을 받았다. 나일강의 넘쳐흐르는 물이 온 애굽의 식물과 부(富)의 근원이었으므로 그 강은 신으로 숭배를 받았으며 애굽 왕은 그 강을 경배하기 위하여 날마다 그리로 갔다. 그 곳에서 두 형제는 다시 왕에게 그들의 기별을 되풀이해서 말하고 지팡이를 내밀어 물 위를 쳤다. 신성하게 여기던 강물은 피가 되어 고기가 죽고 강에서 악취가 났다. 집안에 있는 물이나 물통에 저장된 물도 역시 피로 변하였다. “그러나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도 관념하지 아니하였"다. 그 재앙이 7일간 계속되었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PP 265.1}

다시 지팡이를 들어 물 위로 내미니 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와 전국에 퍼졌다. 개구리들은 온 집안에 가득 찼으며, 침상과 화덕과 떡반죽 그릇까지 다 덮었다.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신성하게 여겨 그것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진흙투성이의 성가신 개구리들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개구리들은 바로의 궁전에까지 우글거렸고 왕은 개구리들을 제거하고 싶어 애를 태웠다. 술객들은 개구리를 만들어 내는 것처럼 보였었으나 그것을 치울 수는 없었다. 이것을 본 바로의 마음이 꺾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고 말하였다. 모세와 아론은 왕에게 그가 전에 자만하던 일을 상기시킨 후에 그들이 재앙을 제거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할 때를 정해 달라고 왕에게 요청하였다. 왕은 다음날로 정했다. 그러고는 그 동안에 개구리가 저절로 없어져서 자기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굴복하는 쓰라린 굴욕을 면하게 되기를 은근히 바랐다. 그러나 그 재앙은 정한 때까지 계속되었으며, 그 때가 되자 온 애굽 땅에 산재해 있던 개구리들이 죽었다. 그러나 죽은 시체가 그대로 남아 썩어서 공기를 더럽혔다. {PP 265.2}

여호와께서는 개구리를 일순간에 흙으로 돌아가게 하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은 개구리가 제거된 후에 왕과 그의 백성이 그것을 술객들이 행한 일처럼 마술이나 요술의 결과라고 주장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개구리들은 죽었으며, 모인 시체들은 수거되어 무더기로 쌓였다. 왕과 모든 애굽 사람들은 그들의 헛된 철학으로서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보았다. 이 일은 마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형벌이었다. {PP 266.1}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그 마음을 완강케 하"였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론이 손을 펼치니 온 애굽 땅의 티끌이 이가 되었다. 바로가 술객들을 불러 같은 이적을 행하게 하였으나 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사단의 것보다 우월하다는 것이 나타났다. 술객들도 스스로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시인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왕은 요지부동이었다. {PP 266.2}

호소와 경고도 효력이 없었다. 그러므로 다른 재앙이 내렸다. 우연히 일어났다고 말하지 못하도록 재앙이 내릴 시간이 예고되었다. 파리 떼가 온 집에 가득하고 떼를 지어 땅 위에 덮였다. "파리 떼로 인하여 땅이 해를 받"았다. 이 파리들은 크고 독이 있어 그것들에게 물리면 사람이나 짐승이 큰 고통을 당했다. 예고된 대로 이 재앙은 고센 땅에는 미치지 않았다. {PP 266.3}

바로는 이제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 땅에서 제사 드리게 해주겠다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와 같은 조건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였다. 모세는 "그리함은 불가하나이다...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며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라고 말하였다. 히브리 사람들이 희생을 드리도록 요구받게 될 동물은 애굽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동물의 하나였다. 이 짐승들은 그처럼 크게 숭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우발적으로라도 그것을 죽였을 경우 그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다. 히브리 사람들이 그들의 주인들을 성나게 하지 않고 애굽에서 제사 드리는 일이 불가능했다. 모세는 또다시 광야로 3일 길을 여행하겠다고 제의하였다. 왕은 동의하면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재앙이 물러가도록 간구해 주기를 애걸하였다.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저들을 기만하지 말도록 그에게 경고했다. 재앙이 멎었다. 그러나 왕의 마음이 완고한 반역으로 강퍅해졌으며, 왕은 여전히 굴복하기를 거절하였다. {PP 266.4}

더욱 무서운 타격 - 들에 있던 모든 애굽의 가축에게 내린 전염병 - 이 뒤따랐다. 신성하게 여기던 짐승들과 짐 나르는 짐승들 곧 암소, 황소, 양, 말, 약대, 나귀들이 다 몰살당했다. 히브리 사람들의 짐승은 제외된다고 분명히 언급되어 있었으므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곳으로 사신들을 보내어 모세의 선언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이스라엘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왕은 여전히 완고하였다. {PP 267.1}

다음에 모세는 풀무의 재를 취하여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행위는 의미심장하였다. 4백년 전에 하나님께서 연기 나는 풀무와 불타는 등의 상징으로 당신의 백성이 장차 압박당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이셨다. 그분께서 그들의 압박자들을 벌하시고 포로들은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리라고 선언하셨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고통의 풀무에서 신음하였다. 모세의 이 같은 행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며 그들의 해방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증하는 것이었다. {PP 267.2}

재가 하늘로 뿌려졌을 때에 그 미세한 가루들이 온 애굽 땅에 퍼져 그것들이 앉은 곳에는 어디서든지 부스럼이 시작되어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하"였다. 사제와 술객들은 그 때까지 바로를 격려하여 완고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들에게까지 미치는 재앙이 왔다. 지긋지긋한 고통스러운 질병에 걸리고 그들의 허세는 다만 저들을 멸시받게 할 뿐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싸울 능력이 없었다. 술객들이 자신들의 몸도 보호할 수 없는 것을 볼 때에 전 국민은 그들을 믿는 것이 어리석음을 보게 되었다. {PP 267.3}

바로의 마음은 한층 더 굳어졌다. 그 때에 여호와께서 바로에게 기별을 보내어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네 마음과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고 선포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위하여 그를 세상에 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정하신 바로 그 때에 그가 보좌에 오르도록 사건들을 지배하셨던 것이다. 이 교만한 폭군은 그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잃어버렸지만 그의 생명은 보존되었다. 이는 그의 강퍅함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당신의 기사를 나타내시고자 하심이었다. 사건들을 처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속한다. 하나님께서는 힘 있게 나타나는 당신의 능력을 감히 저항하지 않을 더 인자한 왕을 보좌에 앉히실 수도 있으셨으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여호와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애굽인들의 포학하고 잔인한 행위를 경험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우상숭배의 부패한 감화에 속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바로를 취급하시는 일에서 여호와께서는 우상숭배를 미워하시고 잔인한 행위와 압제를 처벌하신다는 당신의 결의를 나타내셨다. {PP 267.4}

하나님께서 바로에 대하여 "내가 그의 마음을 강퍅케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출 4:21)라고 말씀하셨다. 왕의 마음을 강퍅하게 하는 초자연적 능력이 행사되었던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당신의 능력에 대한 아주 분명하고

놀라운 증거를 주셨다. 그러나 왕은 완고하게 그 빛을 거절하고 그것에 유의하지 않았다. 그가 거절한 무한한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그의 반역은 더욱 굳어지고 결정적이 되었다. 그가 맨 처음 표적을 거절할 때에 심은 반역의 씨들은 결실을 거두었다. 바로의 마음은 그의 완고함이 한 단계씩 더해지는 자신의 길을 계속 추구해 감에 따라 점점 더 굳어져서, 마침내 그는 죽은 그의 맏아들의 싸늘한 얼굴을 볼 수밖에 없었다. {PP 268.1}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며, 주의와 경고를 주시고 죄를 견책하신다. 그분은 각 사람에게 그들의 그릇된 행위가 품성에 고착되기 전에 그것들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러나 만일 그가 시정받기를 거절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그의 행동의 경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개입하지 않는다. 그는 같은 길을 되풀이하기가 훨씬 쉽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성령의 감화에 대항하여 마음을 굳게 하고 있다. 계속 빛을 거절하면 그는 더욱 강력한 감화력도 영구적으로 감명을 주지 못하는 곳에 자신을 두게 된다. {PP 268.2}

한 번 유혹에 굴복한 일이 있는 사람은 둘째 번에는 더 쉽사리 굴복하게 될 것이다. 죄를 반복할 때마다 그의 저항력은 감소되고, 그의 눈은 어두워서 죄에 대한 자각을 상실하게 된다. 뿌려진 방종의 씨마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수확을 막기 위하여 이적을 행하지 않으신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 6:7). 대담한 불신곧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철저히 무관심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심은 것을 수확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한때 그들의 영혼을 분기시켰던 진리를 냉랭한 무관심을 가지고 듣는 것은 이 때문이다. 불경건한 강퍅함 즉 거룩한 진리에 대한 태만과 저항을 나타내는 자는 그들이 뿌린 것을 수확하고야 말 것이다. {PP 268.3}

그들이 원할 때에는, 언제든지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으며, 지금 은혜의 초청을 경시할지라도 거듭거듭 그 감화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양심의 가책을 진정시키는 사람들은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그 같은 길을 행할 것이다. 그들은 대반역자의 편에 그들의 모든 영향력을 바친 후에라도, 극도의 궁지에 빠져 있는 순간에 곧 위험이 그들을 에워싸는 때에, 그들의 지도자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죄악적인 방종의 생활을 경험하고 그것에 익숙하도록 길들여지고 단련된 성품이 그들에게 너무나 철저하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그들은 그 때에 예수님의 형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들의 길에 아무런 빛이 비치지 않았었더라면, 문제는 달라졌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가 중재하여 그들에게 자비의 제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빛이 오랫동안 거절되고 멸시당한 후에는, 마침내 그 같은 기회는 영영 사라지게 된다. {PP 269.1}

"이제 보내어 네 생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은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는 경고와 함께, 다음에는 우박의 재앙이 바로를 위협하였다. 애굽에서는 비나 우박이 흔하지 않았으며 예고된 그 같은 폭풍우는 전에 결코 목격한 일이 없었다. 그 소문은 빨리 퍼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가축을 모아들인 반면 그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은 가축을 들에 방치해 두었다. 이와 같이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났고 백성들은 시험되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의 현시를 보고 그분을 경외하게 되었는지가 드러났다. {PP 269.2}

예언한 대로 폭풍우가 이르러 왔다. 천둥과 우박이 내리고 이 우박에는 불이 섞여 있었다. 그 우박은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에 그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었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무론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다. 파멸과 황폐가 멸망시키는 천사의 지나간 길을 뚜렷이 드러내 보였다. 고센 땅만이 황폐를 면했다. 땅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고 자연력도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며 가장 유일한 안전책은 그분께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이 애굽 사람들에게 증거되었다. {PP 269.3}

온 애굽이 무서운 하나님의 재앙 앞에 떨었다. 바로는 급히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뇌성과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고 외쳤다. 모세는 "내가 성에서 나가자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뇌성이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않을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라고 대답했다. {PP 270.1}

모세는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다. 바로의 자백과 약속은 그의 정신이나 마음에 어떤 근본적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공포와 고민으로 인하여 할 수 없이 한 것이었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가 더 이상 고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의 요구를 들어 주겠다고 약속했다. 선지자는 맹렬한 폭풍우를 개의치 않고 밖으로 나아갔으며 바로와 그의 모든 무리는 그분의 사자를 보호하시는 여호와의 능력을 목격하였다. 도시 밖으로 지나가 모세는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뇌성과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왕이 공포에서 놓이게 되자 그의 마음은 다시 외고집으로 돌아갔다. {PP 270.2}

그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는 참되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으로서 당신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굳게 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셨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 사이에 두신 차이점에 대한 의심할 여지없는 증거를 주시고 그것으로 애굽인들이 멸시하고 압박했던 히브리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호 하에 있다는 것을 모든 민족들이 알게 하시고자 하셨다. {PP 270.3}

모세는 왕에게, 만일 그가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메뚜기 재앙이 내릴 것이며 그것들이 지면을 덮고 남아있는 푸른 것을 모두 먹어 치울 것이며, 그것들이 민가에뿐 아니라 왕궁에까지 우글거릴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모세는 이와 같은 재앙은 "네 아비와 네 조상이 세상에 있어 옴으로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고 말했다. {PP 270.4}

바로의 고문들은 기겁하여 놀랐다. 국가는 가축이 몰살당함으로 인하여 막대한 손실을 당했고 많은 백성들이 우박에 맞아 죽었다. 삼림은 황폐되고 농작물은 못쓰게 되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들의 노동으로 얻은 모든 것을 속히 잃어버리고 있었다. 전 국토는 기아(饑餓)의 위기에 몰렸다. 왕자들과 조신들은 왕에게 쇄도하여 노기를 띠고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하고 요구하였다. {PP 271.1}

왕은 다시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뇨” 하고 말했다. {PP 271.2}

모세는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라고 대답했다. {PP 271.3}

왕은 몹시 화가 났다. 그는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하게 함과 일반이니라 삼갈지어다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하고 소리 질렀다.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났다. 바로는 심한 노역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이제 그는 그들의 복지와 그들의 자녀들에 대한 친절한 깊은 관심을 가진 척하였다. 그의 진정한 목적은 남자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부녀들과 아이들을 인질로 붙들어 두려는 것이었다. {PP 271.4}

모세가 애굽 땅 위에 자기의 지팡이를 들자 동풍이 일어나 메뚜기들을 몰고 왔다. “그 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러라.” 메뚜기들이 하늘을 뒤덮어 땅이 어두컴컴해졌다. 메뚜기들은 남아 있는 모든 푸른 것을 다 먹어 치웠다. 바로는 급히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들을 불러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득죄하였으니 청컨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고 말하였다. 그들이 그렇게 하자 강한 서풍이 불어와 메뚜기들을 홍해 쪽으로 몰아갔다. 그러나 왕은 여전히 그의 완강한 결심을 고집했다. {PP 271.5}

애굽 백성은 거의 절망 상태에 빠졌다. 이미 저들에게 내린 재앙은 거의 견디어 내기 어려울 듯했고 그들은 미래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국민들은 바로를 그들의 신의 대표자로 숭배해 왔다.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은 바로가 모든 자연의 세력을 그분의 뜻의 수행자들로 만드신 한분을 스스로 거역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처럼 기적적으로 은총을 입은 히브리 노예들은 이제 해방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들의 감독들도 그들을 이전처럼 감히 압박하지 못했다. 온 애굽을 통하여 노예 민족이 궐기하여 그들의 학대에 보복하지나 않을까 하는 내면적인 두려움이 애굽 전역에 퍼져 있었다. 도처에서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물었다. {PP 271.6}

돌연히 흑암이 온 땅을 덮었는데 이 흑암이 매우 짙어 “더듬을 만한 흑암”처럼 보였다. 백성들은 빛을 잃었을 뿐 아니라 대기가 답답하게 되어 호흡이 곤란하였다. “삼일 동안…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의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다. 해와 달은 애굽 사람들의 숭배의 대상이었다. 이 신비로운 암흑으로 백성들과 그들의 신들은 다 같이 노예 민족을 옹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타격을 받았다. 비록 이 재앙이 무섭기는 했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의 멸망시키기를 기뻐하지 않으심의 증거였다. 가장 무서운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그분은 백성들에게 반성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실 것이었다. {PP 272.1}

마침내 공포심이 바로로 하여금 마지못해 좀더 양보하게 만들었다. 흑암이 시작된 지 3일째 되던 날 끝에 그는 모세를 부르고 양떼와 가축 떼들은 남겨 놓고 간다는 조건하에 온 백성이 떠나는 것에 동의했다. 히브리 사람은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단호하게 대답하였다. 왕의 분노는 제어할 수 없었다. 왕은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외쳤다. {PP 272.2}

모세는 “왕의 말씀이 옳으니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고 대답하였다. {PP 272.3}

“그 사람 모세는 애굽 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뵈었더라.” 애굽 사람들은 모세를 두려워하였다. 왕도 감히 그를 해하지 못했다. 이는 백성들이 그를 재앙을 제거할 능력을 가진 유일한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도록 허용되기를 바랐다. 모세의 요구를 끝까지 반대한 자들은 왕과 사제들이었다. {PP 272.4}

24장 유월절

최초에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달라는 요구가 애굽 왕에게 제출되었을 때에 가장 무서운 재앙에 대한 경고가 주어졌다. 모세는 바로에게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는 말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들의 멸시를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의 보관자가 되도록 선발됨으로 영예를 받았다. 그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축복과 특권으로 그들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처럼 모든 민족들 중에 뛰어났다. {PP 273.1}

애굽 사람들이 맨 처음에 경고를 받은 재앙은 최후의 재앙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그분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친절히 돌보신다. 만일 애굽 사람들이 그들의 수확물과 양떼와 가축 떼의 손실을 보고 회개하였더라면 그들의 자녀들은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이었다. 그러나 그 나라가 하나님의 명령을 완강하게 저항해 왔기 때문에 이제 최후의 재앙이 막 내리려 하고 있었다. {PP 273.2}

모세는 바로 앞에 다시 나타나면 사형당할 것이라는 명령으로 그의 앞에 나가는 일을 금지당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이 이 반역적 왕에게 전달되어야 했으므로 모세는 무서운 발표문을 가지고 다시 왕의 앞에 나아갔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의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시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였으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좇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출 11:4~8). {PP 273.3}

이 선고를 집행하기 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애굽을 떠나는 데 대한 지시와 아울러 특별히 다가오는 재앙에서 어떻게 보존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시도 주셨다. 한 가정 단독으로 하든지 다른 가정과 어울려 하든지 간에 모든 가정에서 흠 없는

새끼양이나 새끼 염소를 잡아 우슬초 묶음으로 그 피를 집 좌우 설주와 인방에 뿌려서 밤중에 다가올 멸망시키는 천사가 그 집에 들어오지 않게 해야 하였다. 모세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출 12:1~18)고 말한 대로 그들은 구운 고기를 무교병과 쓴 나물과 같이 그 밤에 먹기로 되어 있었다. {PP 274.1}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무론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선언하셨다. {PP 274.2}

이 큰 구원을 기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자손손이 해마다 한 절기를 지킬 것이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그들이 미래에 절기를 지킬 때에 모세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그들은 이 큰 구원의 이야기를 자손들에게 거듭 말해야 할 것이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PP 274.3}

그뿐만 아니라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난 것은 여호와의 것이 될 것이며 속전을 드림으로써만 자기의 소유가 될 수 있었다. 이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처음 난 것들이 죽임을 당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들도 비록 은혜스럽게 보호를 받기는 했지만 속죄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동일한 운명에 처한 바 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었다. 여호와께서는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니라”(민 3:13)고 선포하셨다. 성막 봉사의 제도를 세우신 후 여호와께서 친히 레위 지파를 성별하시고 백성의 장자를 대신하여 성소에 관한 임무를 맡기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일절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내가 그들을 취하였”(민 8:16)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자비를 인정하는 표로 장자를 위하여 속전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민 18:15, 16). {PP 274.4}

유월절은 기념적인 동시에 표상적인 것이다. 그것은 과거에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가리킬 뿐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죄의 속박에서 해방하시기로 되어 있는 더 큰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다. 희생 제물로 바쳐진 새끼양은 우리들의 구원의 유일한 희망이신 "하나님의 어린양" 곧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사도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고전 5:7)고 말한다. 유월절 양을 죽이는 것만으로 충분치 못했다.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하였다. 그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각 영혼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분께서 온 세상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뿐 아니라 우리 각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속죄의 희생의 공로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한다. {PP 277.1}

피를 뿌릴 때에 사용된 우슬초는 정결케 함의 상징이었으며 문둥병자와 죽은 사람을 만짐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을 정결케 하는 데 쓰였다. 시편기자의 기도 가운데도 우슬초의 의미가 나타나 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시 51:7). {PP 277.2}

어린양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고 온전하게 준비되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양의 뼈도 하나도 꺾이지 않아야 하였다(출 12:46; 요 19:36). 이처럼 그리스도의 희생의 완전함이 표현되었다. {PP 277.3}

그 고기는 먹어야 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께로부터 영적 능력과 영양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말씀의 뜻을 설명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요 6:53, 54, 63)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율법을 받아들이시고 당신의 생애에 그 원칙을 실천하셨으며, 그 율법의 정신을 나타내시고 마음속에 있는 그 자비로운 능력을 보이셨다.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4)고 말하였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분의 경험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서 그것이 생활과 행동의

원동력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하나님의 속성을 반사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 속에 생명이 없다. 그리스도의 정신과 사업이 그의 제자들의 정신과 사업이 되어야 한다. {PP 277.4}

어린양의 고기는 쓴나물과 함께 먹어야 했는데 이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때의 고통을 회상하기 위함이었다. 그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먹을 때에 우리의 죄를 통회해야 할 것이다. 무교병을 먹는 것 역시 깊은 뜻이 있었다. 이 절기 동안에는 그들의 집에 누룩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유월절의 규례 가운데 명백하게 지시되어 있으며 유대인들은 그것을 엄격히 지켜야만 했다. 그와 같이 죄의 누룩도 그리스도로부터 생명과 영양을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일소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고전 5:7, 8)라고 편지하였다. {PP 278.1}

노예들은 자유를 얻기 전에, 이제 곧 성취될 큰 구원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보여야 했다. 피의 표적이 그들의 집에 있어야 했으며, 그들은 자신과 가족들을 애굽 사람들과 분리시켜 그들의 집안에 불러 모아야만 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지시 중에 한 가지라도 무시했거나, 자녀들을 애굽 사람들로부터 떼놓기를 게을리 했거나, 어린양은 잡았지만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았거나, 그들의 집 밖으로 나간 사람이 있었다면 그들은 안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들이 필요되는 모든 것을 다했다 하더라도 정직하게 믿었을지라도 그들의 성실함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었을 것이다. 여호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멸망시키는 천사의 손에 그들의 장자를 잃을 것이었다. {PP 278.2}

백성들은 이 명령을 순종함으로 그들의 믿음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야 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 얻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들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범죄의 형벌에서 속량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뿐이시지만 우리가 할 일은 죄에서 순종으로 돌아서는 것이다. 사람은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 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야 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주셔서 죄를 위한 화목 제물로 죽게 하셨다. 그는 진리의 빛과 생명의 길을 나타내 보이셨고 의식들과 특권을 주셨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러한 구원의 방편들로 더불어 협력하여야 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도움들을 감사함으로 사용해야 하며 하나님의 모든 요구들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 {PP 279.1}

모세가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을 때에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출 12:27)였다. 자유를 얻게 된다는 기쁜 소망과 그들을 학대하던 자들에게 임할 절박한 재앙에 대한 무서운 소식과 그들의 임박한 출발에 따르는 수고와 활동들 등, 이 모든 것들이 얼마 동안 그들로 하여금 은혜로우신 구원자에 대한 감사로 도취되게 했다. 애굽 사람들 중에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한 사람이 많았으며, 그들은 이제 멸망시키는 천사가 온 애굽 땅을 지날 때에 이스라엘 집에서 피난처를 얻게 해달라고 애걸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기쁨으로 환영했다. 그들은 그 후부터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백성과 더불어 애굽에서 나가겠다고 서약하였다. {PP 279.2}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지시를 순종했다. 그들은 신속하고도 은밀하게 떠날 준비를 했다. 그들의 가족들은 집안에 모였고 유월절 양을 잡아 그 고기를 불에 구웠다. 그리고 무교병과 쓴나물도 준비되었다. 가족의 제사장인 아버지는 피를 문설주에 뿌리고 가족들을 집안에 다 모았다. 그들은 말없이 급히 유월절 양을 먹었다. 백성들은 두려움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었고 혈기 왕성한 장년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자들의 심장은 말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두근거렸다. 부모들은 그 밤에 내리기로 되어 있는 무서운 재앙을 생각하고 팔로 사랑하는 장자를 끌어안았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죽음을 관장하는 천사가 방문하지 않았다. 구주의 보호의 표인 피가 그들의 문에 발려 있었으므로 멸망시키는 천사가 그 곳에 들어가지 않았다. {PP 279.3}

밤중에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그 나라에서 "모든 처음 난 것 즉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의 처음 난 것"(출 12:29~33)이 멸망시키는 천사의 침을 받았다. 광대한 애굽 전토에 걸쳐 각 가정의 자랑거리인 장자가 죽어 넘어졌다. 슬퍼하는 자들의

비명과 통곡 소리가 온 하늘을 메웠다. 창백한 얼굴을 한 왕과 조신들은 사지를 떨면서 무서운 공포에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다. 바로는 자기가 한때 어떻게 “여호와가 누구관대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고 외쳤던 일을 회상했다. 이제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던 그의 교만은 땅에 떨어졌고 그는 “밤에…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하였다. 왕의 모사들과 백성들도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지경에서 속히” 떠나라고 간청하였다. {PP 280.1}

25장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는 말없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기대하면서 그들에게 떠나가라는 왕명을 기다리면서 서 있었다. 동이 트기 전에 그들은 출발해야 했다 재앙이 내리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의 현시가 노예들의 마음에 신앙의 불을 붙이고 그들을 학대해 오던 자들을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서히 고센 땅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의 탈출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이동할 군중들에 대한 필요한 조직과 통제를 위한 얼마만큼의 준비가 이미 갖추어져 있었다. 군중들은 여러 무리로 나뉘어 임명된 지도자들의 인도를 받게 되었다. {PP 281.1}

그리하여 그들은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육십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이 그들과 함께" 출발했다. 이 무리들 중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나온 사람들도 있었을 뿐 아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도 있었고 흥분과 호기심으로 덩달아서 이동하는 군중을 따라 나온 숫자도 상당히 많았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해와 올무가 되었다. {PP 281.2}

백성들은 또 그들과 함께 "양과 소와 심히 많은 생축"을 데리고 나왔다. 그것들은 애굽 사람들처럼 그들의 재산을 왕에게 판 일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유물이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올 때 양떼와 가축 떼를 몰고 애굽에 왔었는데 그것들이 거기서 크게 증가하였다.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기 전에 모세의 명령을 따라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노동의 보수를 요구하였다. 애굽 사람들은 너무나 그들의 모습을 보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거절하지 않고 주었다. 노예들은 그들의 학대자들에게서 얻은 전리품을 가득 싣고 길을 떠났다. {PP 281.3}

수 세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예언적 이상 중에 나타났던 역사가 그날 완성되었다.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백 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창 15:13, 14). 사백 년의 기간이 찼다.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출 12:40, 41, 51, 13:19).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날

때에 그들의 귀중한 유산인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왔다. 그것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려 왔고, 노예 생활의 어두운 세월 동안, 이스라엘로 하여금 저들의 해방을 생각나게 해 주었었다. {PP 281.4}

여호와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나라를 가로질러 가나안으로 직행하는 길을 택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진로를 홍해 연안을 향하여 남쪽으로 인도하셨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출 13:17, 18, 20~22)다. 만일 그들이 필리스티아(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땅 이름 - 역자 주)를 지나가려 했더라면 그들의 진행은 방해를 받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이 그들을 주인에게서 도망하는 노예로 알고 그들과 전쟁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력하고 호전적인 백성들과 싸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고, 그분께 대한 믿음도 거의 없었으므로 쉽게 겁에 질려 낙담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들은 무장도 하지 않았고 전쟁에 익숙하지도 못했다. 오랜 노예 생활로 인하여 그들의 정신은 위축되어 있었고 부녀들과 아이들과 양떼와 가축 떼들이 저들에게 방해가 되었다. 그들을 홍해 길로 인도하심으로,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심판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셨다. {PP 282.1}

"그들이 숙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취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시 105:39; 고전 10:1, 2)다고 말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인도자의 군기가 항상 그들과 함께 있었다. 낮에는 구름이 그들의 여정을 인도하거나 군중 위에 천개(天蓋)처럼 덮여 있었다. 그것은 불타는 폭염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었고, 냉기와 습기는 목이 타고 끓는 사막에서 그들을 시원하게 해주었다. 밤에는 그것이 불기둥으로 변하여 그들의 진영을 비춰줌으로 그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게 해주었다. {PP 282.2}

가장 아름답고 위안이 되는 이사야의 예언의 글귀에는, 악의 세력과 싸우는 최후의 대투쟁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분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를 나타내는 것으로 언급되어 있다.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회집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사 4:5, 6). {PP 283.1}

그들은 황량하고 사막 같은 광대한 지역을 가로질러 여행했다. 그들은 벌써 그들의 가는 방향이 어느 곳인지를 의아해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고달픈 여행에 싫증나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애굽 사람들이 추격해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구름기둥은 앞으로 나아갔고, 그들은 그것을 따라갔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암석이 많은 좁은 길로 돌아들어 해변에 진을 치라고 명령하셨다. 바로가 그들을 추격해 올 것이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리라는 것이 그에게 계시되었다. {PP 283.2}

애굽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사드리기 위해 광야에 머무는 대신에, 홍해 쪽으로 전진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바로의 모사들은 그들의 노예들이 도망쳤으며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왕에게 고하였다. 백성들은 장자의 죽음을 하나님의 능력에 돌린 그들의 어리석음을 개탄하였다. 공포심이 가라앉자 애굽의 위인들은 그들에게 내린 재앙들이 자연계에 나타난 이변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출 14:5~9)라고 비통하게 부르짖었다. {PP 283.3}

바로는 그의 군대, “특별 병거 육백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와 “마병과 군장관과 보병”을 모았다. 왕 자신이 그 나라의 위인들을 거느리고 공격군의 선두에 섰다. 그들의 총애를 받아 그들이 하는 일에 성공을 거두기 위하여 사제들도 그들과 같이 동행하였다. 왕은 자기의 힘을 과시하여 이스라엘 사람을 위협하기로 결심하였다. 애굽 사람들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한 자신들의 강요에 의한 복종이 혹시 다른 민족들의 조소를 사지나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힘을 과시하여 나가서 도망자들을 다시 잡아 온다면 노예들의 봉사를 회복하는 동시에 그들의 영광을 도로 찾게 될 것이었다. {PP 283.4}

히브리 사람들은 해변에 진을 쳤는데, 그들 앞에는 바닷물이 전혀 건널 수 없는 장벽처럼 넘실거리고 있었으며 한편 남쪽에는 험준한 산이 그들의 진로를 가로막고 있었다. 갑자기 그들은 저 멀리에 대군의 전위대같이 보이는 번쩍이는 갑주와 움직이는

병거들을 보았다. 부대가 점점 가까워짐에 따라, 전속력으로 추격해 오는 애굽 군대를 볼 수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급히 모세에게로 달려가서 불평들을 터뜨렸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출 14:10~22). {PP 283.5}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나타내지 않음을 보고 크게 걱정했다. 그가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을 따라 행했는데 어찌하여 그들이 처한 위험과 어려움을 인하여 모세를 비난할 수 있단 말인가? 진정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시기 위하여 친히 개입하지 않는 한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이곳까지 온 모세는 조금도 그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침착하고 확신 있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고 대답하였다. {PP 284.1}

이스라엘의 무리를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훈련과 자제력이 부족한 그들은 난폭하고 분별력이 없었다. 머지않아 압제자들의 수중에 빠질 것으로 생각하고 우는 그들의 울부짖음과 통곡 소리는 요란하고도 처절했다. 앞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신호인 신비한 구름기둥을 따라왔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이 구름기둥이 그들에게 이르러 올 어떤 큰 재난의 전조가 아닌가 하고 의심하였다. 왜냐하면, 그것이 산 반대쪽에 있는 지나가지 못할 이 길로 그들을 인도해 오지 않았던가라고. 이리하여 그들의 현혹당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재난의 전조로 보였다. {PP 284.2}

그러나 이제 애굽 군대가 그들을 쉽게 사로잡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해 올 때, 구름기둥이 장엄한 모습으로 하늘로 치솟아서 이스라엘 사람들 위를 지나, 그들과 애굽 군대 사이에 내려왔다. 흑암의 장벽이 쫓기는 사람들과 쫓는 사람들 사이를

가로막았다.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의 진영을 더 이상 분간할 수 없어서 정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밤의 어둠이 깊어 갔을 때에 구름 장벽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큰 빛이 되어, 백주의 광명처럼 온 진영을 비췄다. {PP 284.3}

그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는 희망이 되살아났다. 모세는 큰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PP 287.1}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가운데로 지나간 것을 묘사하여 이렇게 노래하였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적을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무리양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시 77:18, 20).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자, 바닷물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육지 위를 걷는 것처럼 바다를 통과했다. 그들이 지나가는 동안 물은 양편에 벽같이 서 있었다. 하나님의 불기둥에서 발하는 빛은 거품이 이는 파도 위를 비추어, 마치 바닷물 가운데 생긴 큰 고랑처럼 뚫려 있는 그 길을 밝혀 주었다. {PP 287.2}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출 14:23, 24)셨다. 신비스러운 구름은 놀라는 그들의 목전에서 불기둥으로 변하였다. 천둥소리가 울리고 번갯불이 번쩍였다.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발하며 주의 살도 날아 나갔…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의 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취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시 77:17, 18). {PP 287.3}

애굽 사람들은 혼란과 낙담에 사로잡혔다. 그들은 자연력의 노호(怒號)가운데서 분노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발걸음을 돌려 떠나온 해안으로 돌이켜 도망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자, 노호하며 먹이를 삼킬 것처럼 으르렁대던 쌓였던 물이 쏴아 소리를 내며 급히 합쳐져서 애굽 군대를 그 침침한 깊은 물속으로 삼켜 버렸다. {PP 287.4}

날이 밝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강력한 원수들이 남긴 모든 것 즉 갑옷을 입은 채 해안에 널려 있는 시체를 보았다. 하룻밤 동안에 그들은 가장 무서운 위험으로부터 완전하게 구원을 얻었다. 전쟁에 익숙지 못한 노예들과 부녀들과 아이들과 가축들로 이루어진 무력한 이스라엘 대군(大群)은 앞에는 바다가 가로놓여 있었고 뒤에는 강한 애굽 군대가 추적해 오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바다 가운데로 길이 열리고 그들의 원수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하던 순간에 여지없이 패배당하는 것을 보았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은 감사와 믿음을 가지고 그분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감격하여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 하나님의 성령이 모세에게 임하셨으며 모세는 백성들을 지휘해서 감사에 넘친 승리의 노래를 불렀다. 이 노래는 인류에게 알려진 것 중에 가장 오래되고 장엄한 노래이다. {PP 287.5}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와 같은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이니까…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열방이 듣고 떨며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치매
주의 팔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였사오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출 15:1~16 {PP 288.1}

깊은 바다의 파도소리 같은 장엄한 찬송이 이스라엘의 큰 무리에게서 일어났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인도를 받는 부녀자들이 소고와 춤으로 이 노래에 화답하였다. 멀리 광야와 바다 넘어까지 이 즐거운 노래의 후렴이 울려 퍼졌고, 산들은 그들의 찬양의 노래 곧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라는 노래를 반향하였다. {PP 288.2}

이 노래와 이 노래가 기념하는 큰 해방은, 히브리 민족의 기억에서 결코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겨 주었다. 이 노래는 각 시대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예언자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되풀이해서 불림으로 여호와는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힘과 구원이심을 증거하였다. 이 노래는 유대 백성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의의 원수가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될 미래를 가리킨다. 밧모 섬의 예언자는 흰옷을 입은 이긴 무리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았다. {PP 289.1}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시 115:1). 이스라엘의 구원의 노래에 편만한 정신은 이와 같은 것이었다. 이 정신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있어야 할 정신이다. 우리의 영혼을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사람들이 홍해에서 얻은 구원보다 더 큰 구원을 우리를 위하여 이룩하셨다. 우리는 히브리 백성들같이 마음과 뜻과 목소리를 다하여 인생에게 행하신 그분의 기이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를 찬양해야 한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늘 생각하며, 그분의 작은 선물에도 무관심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쁨의 띠를 띠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받는 매일의 축복들과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행복과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신 사실이 끊임없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 잃어버린 바 된 죄인인 우리를 자기 자신과 연결시키시고 자기의 귀중한 보배로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얼마나 큰 비할 데 없는 사랑을 주셨는지를 나타낸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구주께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가! 우리는 위대한 구속의 경륜 속에서 우리 앞에 제공된 복된 소망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우리는 하늘의 유업과 풍부한 약속들을 인하여 그분을 찬송해야 한다. 예수께서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일을 인하여 그분을 찬송해야 한다. {PP 289.2}

창조주께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시 50:23)라고 말씀하신다. 하늘의 모든 거민들은 연합하여 하나님을 찬양한다. 천사들의 빛나는 반열과 연합할 때에 함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지금 그들의 노래를 배우자. 우리도 시편 기자와 같이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여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시 146:2, 67:5)라고 말하자. {PP 289.3}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로 히브리인들을,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산이 있는 요새로 인도하신 것은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시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압박자들의 교만한

콧대를 현저하게 꺾으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저들을 구원하실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당신께 대한 그들의 신뢰심을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방법을 선택하셨다. 백성들은 지치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나 모세가 그들에게 전진하라고 명령했을 때 그들이 주저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결코 길을 열지 않으셨을 것이었다.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던 것은 "믿음으로"(히 11:28)였다. 그 행진하여 바다 속으로 들어간 것은 그들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으므로, 그 때에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분께서는 그들이 걸어갈 길을 만드시기 위하여 바다를 가르셨다. {PP 290.1}

이 이야기가 가르치는 큰 교훈은 모든 시대를 위한 것이다. 가끔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위험에 둘러싸이고, 의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앞에는 절박한 파멸이 있고 뒤에는 속박이나 죽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앞으로 나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비록 우리의 눈으로 어둠을 꿰뚫어 볼 수 없고, 우리의 발이 찬 물결을 느낄지라도, 이 명령을 순종해야 한다.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망설이고 의심하는 사람의 앞에서는 결단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모든 불확실한 그림자가 사라지고, 실패나 패배의 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순종을 미루는 자들은 결코 순종하지 못할 것이다. 불신은, "장애물들이 제거되고 우리의 길을 똑똑히 볼 때까지 기다리자"고 속삭이나 신앙은 용기 있게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라고 촉구한다. {PP 290.2}

애굽 사람들에게는 흑암의 장벽이 되었던 구름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큰 빛줄기가 되어, 온 진영을 비춰 주고, 그들의 앞길을 밝혀 주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들은 불신하는 자에게는 암흑과 절망을 가져다주는 반면, 신뢰하는 영혼들에게는 한낮의 광명과 평화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사막이나 바다를 통해 나 있는지 모르나 그 길은 안전한 길이다. {PP 290.3}

26장 홍해에서 시내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의 인도 하에 홍해를 출발하여 그들의 여행을 다시 계속했다. 그들 주위에 보이는 광경들은 매우 황량해 보였다. 황폐해 보이는 벌거숭이산들과 황무한 들판들, 멀리까지 펼쳐져 있는 바다와 그 바닷가에 널려 있는 원수들의 시체들만 보였으나 그들은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알고 매우 기뻐하였다. 불만스럽던 모든 생각은 사라져 버렸다. {PP 291.1}

그러나 그들은 여행 중의 3일 동안 물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들이 준비해온 물은 다 떨어졌다. 저들이 뙤약볕에 타는 듯한 광야를 지친 걸음으로 느릿느릿 걸어갈 때에, 그들의 타는 듯한 갈증을 풀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 지역을 훤히 알고 있는 모세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곧 이 곳에서 제일 가까운 마라에는 샘물이 있었으나 그 물은 마시기에 부적당하였다. 그는 몹시 걱정을 하면서 인도하는 구름을 바라보았다. 그는 행렬을 따라 울려 퍼지는 "물이야...물이야..."하는 기쁨의 함성을 듣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남자들과 여자들과 아이들이 기뻐 날뛰며 급히 샘물이 있는 곳으로 모여들었으나 모인 무리로부터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이 터져 나왔다. 그 물은 쓴물이었다. {PP 291.2}

그들은 저 신비한 구름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모세를 거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공포와 절망 중에서 그들을 그런 길로 인도했다고 모세를 비난했다. 모세는 그들이 곤경에 빠져 비탄해 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슬퍼하면서 그들이 행하기를 잊어버린 그 일을 했다.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열렬히 부르짖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매 물이 달아졌더라"(출 15:25). 이곳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이 주어졌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출 15:26). {PP 291.3}

마라에서 백성들은 다시 엘림으로 여행하였다. 그 곳에서 그들은 "물샘 열둘과 종려 칠십수"를 발견하였다. 신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여기서 수일 동안 머물렀다.

애굽을 떠난 지 한 달이 되었을 때에 그들은 광야에서 처음으로 진을 쳤다. 그들이 준비해 온 양식은 떨어지기 시작했다. 광야에는 목초가 부족했으므로 그들의 양떼는 줄어들고 있었다. 이 많은 군중을 먹일 양식을 어떻게 공급할 수 있을까? 의심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그들은 다시 불평하기 시작했다. 백성의 관원들과 장로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지도자들에 대한 불평에 가담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주려 죽게 하는도다"(출 16:3). {PP 292.1}

그들은 아직까지는 굶주리지 않았다. 그들의 당장의 필요는 공급되었으나, 그들은 장래에 대하여 염려했다. 그들은 이 많은 군중이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굶주리는 광경을 상상해 보았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고난에 에워싸이고 그들의 양식이 떨어지게 허락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이 지금까지 그들을 구원해 내신 당신께로 향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셨다. 만일 그들이 궁핍한 중에서 그분께 부르짖으면, 그분께서는 계속 그들에게 당신의 사랑과 돌보심의 증거를 나타내실 것이었다. 그들이 만일 당신의 계명을 순종한다면, 그들에게 질병이 이르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었다. 그런데도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굶어 죽지나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것은 그들 편의 죄악적인 불신이었다. {PP 292.2}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당신의 친 백성으로 삼으시고 저들을 광활하고 좋은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땅으로 가는 도중에 장애들을 만날 때마다 용기를 잃었다. 여호와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이끌어내신 것은 그들을 높이시고 고상하게 하시사 세상에서 칭찬받는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난관들을 만나고 궁핍을 견디는 것이 필요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비천한 상태에서 불러내시어 열국 중에 명예스러운 지위에 적합한 자가 되고 중요하고 거룩한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하시고 계셨다.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것을 생각하고 비추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졌더라면 그들은 불편과 결핍과 쓰라린 고통까지도 기쁨으로 참았을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그분의 능력의 증거들을 계속 보지 않으면 더 이상 여호와를 신뢰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애굽에서의 지긋지긋했던 종살이를 잊어버렸다. 그들은 그들을 속박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잊어버렸다. 그들은 멸망시키는 천사가 모든 애굽의 초태생을 죽일 때에 어떻게 그들의 자녀들의 목숨이 보존되었는지를 잊어버렸다. 그들은 홍해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장엄한 능력 역시 잊고 있었다. 그들은 바다 가운데 열린 길을 따라 안전하게 건넜으나, 그들을 추격하던 원수의 군대는 바닷물에 잠겨 버렸던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들은 오로지 눈앞에 당면한 불편과 시련만을 보고 느낄 뿐이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해 오셨다. 우리는 노예였으나, 그분께서는 우리를 큰 민족으로 만드시고 계신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길의 어려움만을 말하고, 그들의 지루한 여행이 끝날 때가 있을까 하는 의아심을 품었다. {PP 292.3}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광야 생활의 역사는 세상 끝 날에 사는 영적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의 이곳저곳으로 행진하던 모든 여정과, 그들이 당한 배고픔과 목마름과 피곤함 중에서,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현저히 나타내신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신 기록은 각 시대의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경고와 교훈으로 가득 차 있다. 히브리 사람들이 겪은 여러 가지 경험은 가나안에 있는 그들의 약속된 안식처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학교였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사는 그분의 백성이 겸손한 마음과 온순한 정신으로, 고대 이스라엘이 겪은 시련들을 자세히 살펴서, 하늘 가나안을 위해 준비하는 일에 교훈을 받게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 {PP 293.1}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행적을 되돌아보고 그들의 불신과 원망에 몹시 놀란다. 그리고는 그들이 그때에 있었더라면 그처럼 배은망덕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작은 시련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시험을 받을 때에라도 그들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나은 신앙과 인내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난관에 봉착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선택하신 과정에 대하여 불평한다. 그들의 현재의 필요가 공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장래를 위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들은 빈곤이 그들에게 이르러오지 않을까, 저희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버려진 바 되지나 않을까, 늘 걱정한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불행을 예상하거나 실제로 존재하는 어려움들을 과장함으로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감사해야 할 많은 축복들을 보지 못한다. 그들이 만나는 장애물들이 그들을 힘의 유일한 근원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도록 이끄는 대신에 그들을 그분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불안과 불평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PP 293.2}

우리가 이렇게 불신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왜 우리가 배은망덕하고 불신해야 하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이시다. 온 하늘은 우리의 행복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근심과 공포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시게 한다. 우리는 우리를 초조하게 하고 피곤하게 만들 뿐, 시련을 견디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근심과 걱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우리의 행복이 이 세상 사물로 이루어져 있는 양, 미래의 필요를 대비하는 일을 우리의 생애의 주요한 추구 대상으로 삼게 만드는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불신을 조금도 품지 말아야 한다. 당신의 백성이 근심에 눌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 주께서는 우리의 길에 위험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하지 않으신다. 주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죄악 세상에서 데려가시겠다고 제의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결코 실패함이 없는 피난처를 가리켜 주신다. 그분은 피곤하고 근심에 눌린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초청하신다. 그대가 손수 그대의 목에 걸어 놓은 근심과 세속적 염려의 멍에를 벗으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마 11:28, 29)으리라고 말씀하신다.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있기 때문이다(벧전 5:7). {PP 294.1}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히 3:12)하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에 비추어, 우리의 믿음은 굳세고, 활동적이고, 영속적이어야 한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불만과 불평이 아니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시 103:1, 2)라는 말이 되어야 한다. {PP 294.2}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에 대하여 무관심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백성들은 날마다 필요되는 양식을 거두되 안식일이 거룩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제육일에는 두 배를 거두라는 지시가 주어졌다. {PP 294.3}

모세는 회중에게 그들의 양식이 공급될 것이라고 확언했다.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라.” 그리고 모세는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라고 첨언했다. 그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아론에게 명했다.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아론이 말하고 있는 동안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출 16:8~10). 그들이 전에 결코 본 적이 없는 엄청난 광휘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다. 저들은 감각에 제시된 현시들을 통하여 하느님께 대한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지도자는 인간에 불과한 모세가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분이셨다는 것과 그분의 성호를 경외하고 그분의 음성을 순종해야 한다는 교훈을 배워야 했다. {PP 294.4}

저녁 무렵에 전 국민을 먹일 수 있을 많은 메추라기 떼가 온 진영에 덮였다. 아침에는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었다.” 이것은 “깟씨 같고도 희”었다. 백성들은 이것을 “만나”라 불렀다. 모세는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출 16:14, 15, 31)고 말했다. 백성들은 만나를 거두어들였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충분하리만큼 공급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그것을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찧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다.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민 11:8; 출 16:31)다. 그들은 날마다 한 사람당 한 호멜(약 3쿼트)씩 거두고 이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어떤 사람들이 양식을 이튿날 아침까지 보관해 보았으나 그 때 그것은 양식으로는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 땅 위에 남는 것은 모두 햇빛에 녹아 버렸기 때문에 그날의 양식은 아침에 거두어야 했다. {PP 295.1}

만나를 거두어들일 때 어떤 사람들은 정한 양보다 좀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들은 좀 적게 거두었으나 “호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출 16:18)다. 이 성경 구절의 해석과 함께 그 실제적 교훈은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낸 그의 두 번째 편지 가운데 주어져 있다. 바울은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여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여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것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고후 8:13~15)고 말했다. {PP 295.2}

제육일에는 모든 백성이 1인당 두 호멜씩 거두었다. 백성의 두목들은 급히 모세에게 와서 일어난 일을 알렸다. 그는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고 대답했다. 그들은 그렇게 거두었는데 그것이 변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모세는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육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칠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출 16:23, 25, 26)고 말했다. {PP 295.3}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스라엘 시대처럼 당신의 성일이 거룩하게 준수되기를 요구하신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명령은 여호와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명령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안식일 전날은 예비일로서 그 거룩한 시간을 위하여 모든 것이 준비되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 자신들의 사무가 거룩한 시간을 침해하도록 허락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병자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돌봐야 한다고 지시하셨다. 그들을 안락하게 하는 데 요구되는 노동은 자비의 일이므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모든 일은 피해야 한다. 예비일에 할 수 있었던 사소한 일들을 부주의하게 안식일이 시작될 때까지 미루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안식일이 시작될 때까지 게을리한 일은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하지 말고 미루어 두어야 한다. 이런 방법이 이 부주의한 사람들의 기억력을 도와 일하는 6일 동안에 그들의 일을 주의 깊이 행하도록 만들 것이다. {PP 296.1}

광야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동안 매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에 안식일의 신성성을 감명시켜 주려고 고안된 삼중 이적을 목격했다. 곧 여섯째 날에는 만나가 갑절 내렸고, 일곱째 날에는 조금도 내리지 않았으며 다른 때에는 저장해 둔 것이 하루를 넘기면 못쓰게 되었으나 안식일을 위하여 필요되는 몫은 달고 신선하게 보존되었다. {PP 296.2}

만나를 주신 것과 관련된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안식일이 제정되지 않았다는 결정적 증거를 우리에게 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내산에 오기 전에 이미 그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만나가 내리지 않는 안식일을 준비하는 매 금요일에 그것을 갑절 거두어들여야 할 의무를 짐으로 그 쉬는 날의 신성한 성질이 그들에게 끊임없이 감명되었다.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아갔을 때에 여호와께서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고 책망하셨다. {PP 296.3}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사십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출 16:35). 40년간 그들은 이 기적적 식량 공급으로 하나님의 끊임없는 돌보심과 부드러운 사랑을 날마다 생각하게 되었다. 시편 기자의 말을 빌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시 78:24, 25)었다(흠정역 성경에는 "천사의 떡을 먹음이여"라 하였음). 그 떡은 그들을 위하여 천사들이 준비한 떡이었다. "하늘 양식"을 공급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마치 그들이 비옥한 가나안 평야의 물결치는 곡식밭에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궁핍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배웠다. {PP 297.1}

이스라엘을 먹이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러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였다. 예수께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요 6:48~51)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이 미래에 받을 축복의 약속들 중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계 2:17)겠다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다. {PP 297.2}

신 광야를 떠난 후 이스라엘 백성은 르비딤에 장막을 쳤다. 이곳에는 물이 조금도 없었다. 그러자 그들은 또 하나님의 섭리를 불신했다. 백성들은 무분별하고 주제넘게도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는 요구를 가지고 모세에게 나아갔다. 그러나 모세는 끝까지 인내하였다. 그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고 말했다. 그들은 화가 나서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출 17:1~7)라고 소리쳤다. 그들은 식물을 윤택하게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들의 불신과 불평을 부끄럽게 여기고

앞으로 여호와를 신뢰할 것을 약속하였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약속을 곧 잊어버리고 그들의 믿음이 시련을 당하자마자 실패했다. 그들을 인도하던 구름기둥이 무서운 신비로 가려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모세가 누구이며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의 목적이 무엇일까 하고 의심했다. 그들의 마음은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궁핍과 고생으로 그들과 그들의 자녀를 죽이고 그들의 소유물을 자기가 취하여 부하게 되려 한다고 대담하게 그를 비난했다. 격렬한 소요와 분노 속에서 그들은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다. {PP 297.3}

모세는 곤경에 빠져 여호와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라고 부르짖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이적을 행한 지팡이를 가지고 백성들 앞에 서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바위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 생수의 시내를 이루었고, 그것으로 온 진영의 기갈이 흡족하게 해소되었다. 불평을 선동한 사악한 지도자들에게 애굽에서처럼 모세를 명하여 그의 지팡이를 쳐들어 무서운 재앙이 내리도록 하지 않으시고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크신 자비를 베푸사 그 지팡이를 그들의 해방을 이룩하는 당신의 도구가 되게 하셨다. {PP 298.1}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같이 저희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우셨으며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시 78:15, 16)다. 반석은 모세가 쳤으나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하신 분은 구름기둥 속에 가려져 모세 곁에 서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모세와 장로들뿐 아니라 멀찌감치 서있던 온 회중도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 구름이 사라졌더라면 그들은 그 속에 계셨던 그분의 무서운 광채로 인하여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PP 298.2}

목이 말랐을 때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셨다면 왜 그분은 우리에게 떡과 같이 물도 주지 않으시는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이처럼 불신을 나타내는 일은 죄가 되었으므로 모세는 하나님의 형벌이 그들에게 임하지나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그는 그들의 범죄의 기념물로서 그 장소의 이름을 맛사(시험)와 므리바(다툼)라고 불렀다. {PP 298.3}

이제 하나의 새로운 위험이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다. 그분에 대한 그들의 불평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원수로부터 공격을 당하도록 허용하셨다. 그 지방에 사는 사납고 호전적인 아말렉 족속들이 나아와 그들을 공격하여 약하고 피곤해서 뒤에 처진 사람들을 쳤다. 모세는 많은 백성들이 전쟁에 대해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고,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각기 다른 지파에서 일단의 군사를 선발해서 다음날 아침에 그들을 지휘하여 원수를 대항하게 하고 자기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부근 높은 언덕 위에 서 있기로 하였다. 따라서 그 다음날 여호수아와 그의 무리가 원수를 공격하는 동안 모세와 아론과 훌은 전쟁터가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올라가 있었다. 모세는 양팔을 하늘을 향해 뻗은 다음 오른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군대의 승리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전쟁이 진행될 때에 모세의 손이 들려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그 손이 내려왔을 때에는 원수의 군대가 승리한다는 것이 관찰되었다. 모세가 피곤해졌을 때에 아론과 훌이 해가 질 때까지 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고 있더니 저희 원수들은 패주(敗走)하고 말았다. {PP 298.4}

모세의 손을 부축한 아론과 훌의 행동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줄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동안 백성들은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그를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 주었다. 그리고 또 모세의 행동 또한 의미심장하였다. 그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운명을 그분께서 장악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들이 그분을 그들의 신뢰자로 삼는 동안에는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고 그들의 원수들을 정복하실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그분을 잡았던 손을 놓고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더 약하게 될 것이며 그들의 원수들이 쉽게 그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이었다. {PP 299.1}

모세가 손을 하늘로 뻗치고 히브리 사람들을 위하여 중재하고 있는 동안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영적 이스라엘도 믿음으로 전능하신 조력자의 능력을 붙잡을 때에 이기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노력과 결합 되어야 한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활동도 하지 않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를 정복하게 해 주실 것으로 믿지 않았다. 위대한 지도자가 여호와께 탄원하고 있는 동안 여호수아와 그를 따르는 용감한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원수들을 격퇴시키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PP 299.2}

아말렉 사람들이 패배한 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출 17:14)고 말씀하셨다. 위대한 지도자는 임종 직전에 엄숙한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달하였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신 25:17~19). 이 사악한 백성에 관하여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보좌를 치려고 손이 들렸”(출 17:16 난외)다고 선언하셨다. {PP 299.3}

아말렉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주권에 대하여 모르는 바가 아니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는 대신에 그분의 능력에 도전하였다. 모세가 애굽 사람들 앞에서 행한 이적들은 아말렉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고 부근에 있는 민족들이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을 조소하였다. 그들은 히브리 사람들을 멸망시켜서 한 명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들을 대항할 능력이 없을 것이라고 자만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를 입거나 위협을 당한 일이 없었으므로 그들의 공격은 전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려 한 것은 그분께 대한 그들의 증오와 도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다. 아말렉 사람들은 오랫동안 횡포를 자행해 온 죄인들이었으며, 그들의 범죄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응하시도록 부르짖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긍휼하심이 지금까지 계속 그에게 회개하도록 요청해 왔다. 그러나 아말렉 사람들이 지치고 무방비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습격하였을 때에 그들은 그들의 민족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그분의 자녀 중 가장 연약한 자에게도 미친다. 그들에게 가하는 모든 잔인한 행동이나 압박을 하늘이 주목하고 있다.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분의 손은 그들을 보호하는 방패가 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분의 손을 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손은 정의의 검을 휘두르기 때문이다. {PP 300.1}

그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을 친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집이 있었다. 이드로는 히브리 사람들이 해방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들을 방문해서 모세에게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돌려주려고 길을 떠났다. 위대한 지도자는 사자들로부터 그들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모세는 기쁨으로 나아가 그들을 만났다. 먼저 인사를 나눈 후 그들을 자기의 장막으로 안내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위험한 일을 하러 가는 도중에 그의 가족들을 돌려보냈다. 그러나 이제 다시 가족들과의 교제를 통해 평안함과 안위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이드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행사들을 자세히 말했다. 이드로는 크게 기뻐하며 여호와를 찬미하고 모세와 장로들과 함께 희생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엄숙한 축연을 배설하였다. {PP 300.2}

이드로는 그 진영에 머물러 있는 동안 모세에게 부과된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게 되었다. 무지하고 훈련받지 못한 저 큰 군중 가운데 질서와 규율을 유지하는 일은 실로 막중한 과업이었다. 모세는 그들의 공인된 지도자요 치안관이었다. 그러므로 백성 전체에 관련된 일반적인 이해관계와 의무뿐 아니라 그 개개인 간에 야기된 분쟁까지 그에게 문의되었다. 그는 백성들이 이렇게 하도록 허락하였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고 그가 말했듯이 그들을 가르칠 기회를 그에게 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드로는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고 권고했다. 그는 “그대와 함께 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라고 말하고 모세에게 적당한 사람들을 천부장으로, 다른 사람들을 백부장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십부장으로 임명하도록 권고했다. 그들은 “재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 무망하며 불의한 이를 미워하는 자”(출 18:13~26)라야 했다. 모든 작은 문제들은 이 사람들이 재판해야 했으며, 가장 어렵고 중대한 문제는 역시 모세 앞에 가져와야 했다. 이드로는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고 말했다. 이 권고가 받아들여졌다. 그것은 모세에게 안도감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 사이에도 더 완전한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다. {PP 300.3}

여호와께서 모세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의 손을 통하여 이적들을 행하셨다. 그러나 그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택하심을 입었다는 사실이 그로 하여금 자기 자신은 그 이상 교훈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하지 않았다.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경건한 미디안 제사장의 제의를 즐겨 듣고 현명한 제도로 생각해서 그의 계획을 채택했다. {PP 301.1}

백성들은 르비딤에서 구름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면서 여행을 계속했다. 그들은 불모의 광야를 횡단하고, 가파른 오르막길을 넘고, 바위 많은 좁은 골짜기를 지나갔었다. 그들이 모래벌판을 여행하고 있을 때 그들의 앞에 자주 거대한 성채(城砦)와 같은 험준한 산들이 나타나 그들의 진로를 가로막아 앞으로 더 전진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었다. 그러나 그들이 가까이 접근해 갔을 때에 암벽들의 여기저기에 열린 틈새들이 보였다. 그 너머에 또 다른 들판이 그들의 시야에 나타났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러한, 깊고 자갈로 뒤덮인 통로 중 하나를 지나가고 있었다. 이것은 참으로 장엄하고 인상적인 광경이었다. 양편에 수백 피트 이상 높이 솟아 있는 암벽 사이를 온 이스라엘 군중들은 양떼와 소떼를 이끌고 양끝을 볼 수 없는 긴 행렬을 이루어 서서히 이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시야에 장엄하고 위엄 있는 시내산이 그 거대한 모습을 드러냈다. 구름기둥은 이 산꼭대기에 머물렀고 백성들은 그 산 아래 평지에 장막을 쳤다. 그들은 여기서 근 1년 동안 머물게 될 것이었다.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장해 주었고 그들이 편히 잠자는 동안에 진영에는 하늘의 떡이 고요히 내렸다. {PP 301.2}

동틀 녘에 어둡던 산마루가 황금빛으로 물들여지고 금빛 햇살이 깊은 골짜기를 내리비출 때에 이 피곤한 여행자들에게는 이 빛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빛처럼 보였다. 사면에 솟아 있는 거대하고 험준한 산들의 고독하고 장엄한 위풍이 그 영원성과 장엄함을 말해 주는 것처럼 보였다. 여기서 그들의 마음은 엄숙함과 경외심으로 감명을 받았다. 인간들은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보”(사 40:12)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느끼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놀라운 계시를 받게 될 것이었다. 여호와께서는 이곳에 당신의 백성을 모으시고 여기서 친히 당신의 육성으로 거룩한 율법을 선포하심으로 그들에게 대한 당신의 요구가 신성하다는 것을 인상깊게 하시고자 하셨다.

오랜 노예 생활과 우상숭배의 영향으로 인하여 악한 감화가 그들의 습관과 품성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근본적인 대변화가 일어나야 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관한 지식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그들을 보다 높은 도덕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일하고 계셨다. {PP 302.1}

27장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

시내산에서 장막을 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산으로 올라오라는 부르심을 받았다. 그는 혼자 가파르고 험준한 산길을 올라가 여호와께서 임재해 계시는 곳을 나타내는 구름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나아갔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교회와 국가로 조직되기 위하여, 지극히 높으신 분과의 밀접하고 특별한 관계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기별을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다. {PP 303.1}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네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출애굽기 19장 참조). {PP 303.2}

모세는 진영으로 돌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전달했다. 그들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과 엄숙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그들의 통치자로 받아들이기로 맹세했다. 동시에, 그같이 하여 그들은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그분의 지배를 받는 신민이 되었다. {PP 303.3}

그들의 지도자는 다시 산으로 올라갔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다. 백성들은 그 곳까지 오는 길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 자기들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애굽에서 인도해 냈다고 비난하였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 앞에서 모세를 영화롭게 하심으로 저들이 그의 교훈을 따르게 되도록 계획하셨다. {PP 303.4}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선포하시는 행사가, 그 율법의 탁월성을 감안하여 매우 장엄한 광경이 되도록 경영하셨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것은 무엇이나 최대의 경외심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는 깊은 인상을 받아야 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삼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삼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이 몇 날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은 엄숙하게 준비하는 일에 그들의 시간을 바쳐야 했다. 그들의 몸과 의복에서 부정이 제거되어야 했다. 그리고 모세가 그들의 죄를 지적해 줄 때 그들은 마음의 부정을 깨끗하게 씻기 위하여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여야 했다. {PP 303.5}

명령된 대로 모든 준비가 갖추어졌다.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명령에 순종하여, 모세는 산 주위에 울타리를 치게 해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아무도 이 신성한 지역을 침입하지 못하게 했다. 누구든지 이 금령을 무시하고 그것을 만지기만 하여도, 그 벌로 즉각 죽임을 당할 것이다. {PP 304.1}

제3일 아침, 온 백성이 산을 쳐다보고 있을 때에, 산꼭대기에는 빽빽한 구름이 덮였고, 그 구름은 더욱 검어지고 짙어지면서 아래로 밀려 내려와 마침내 온 산은 어둠과 무시무시한 신비에 싸여 버렸다. 그 후에 백성들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소집하는 나팔 소리와 같은 소리가 들렸다. 모세는 백성들을 인도하여 산기슭으로 나아갔다. 짙은 흑암 속에서 번개가 번쩍이고 우레가 진동하여 그 소리가 주위의 산들에 메아리치고 또 메아리쳐 퍼져 나갔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 "산 위의 여호와의 영광"이 모인 군중의 눈에는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졌다. 여호와의 임재의 표징이 심히 무서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에 질려 땅에 엎드렸다. 모세까지도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히 12:21)고 외쳤다. {PP 304.2}

다음에 우렛소리가 그치고, 나팔소리도 들리지 않았으며 온 땅은 고요해졌다. 한동안의 엄숙한 침묵이 지난 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수종하는 천사들에게 옹위되어서 여호와께서 산 위에 서시고 당신을 두르신 짙은 흑암을 통하여 큰 음성으로 당신의 율법을 알리셨다. 모세는 그 장면을,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취시고 일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 같은 율법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신 33:2, 3)라고 묘사했다. {PP 304.3}

여호와께서는 재판자와 입법자의 무서운 위엄으로써 자신을 나타내셨을 뿐 아니라, 당신께서 그분의 백성의 동정 깊으신 보호자이심을 나타내셨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출 20:2).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그들의 인도자요 구원자로 알고 있는 그분,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들을 위하여 바다 가운데로 길을 내시고 바로와 그의 군대를 멸망시키심으로써 자신이 애굽의 모든 신들보다 높으신 분임을 나타내신 그분께서 지금 당신의 율법을 반포하고 계셨다. {PP 305.1}

이 율법은 그 때에 히브리 사람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반포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을 당신의 율법의 수호자와 관리자로 삼으심으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으나 그것은 온 세계를 위한 신성한 위탁물로 간수되어야 했다. 십계명의 계율은 온 인류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만민을 위한 교훈과 통치 원칙으로 주신 것이다. 간결하면서도 포괄적이며 권위 있는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웃 사람에 대한, 사람의 의무를 총망라하고 있으며, 모든 조항이 다 근본적인 사랑의 대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눅 10:27; 신 6:4, 5; 레 19:18). 십계명 가운데는 이 원칙들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그것들은 사람의 상태나 환경에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PP 305.2}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출 20:3~17). {PP 305.3}

영원하시고 자존하시고 지음을 받지 않으신 분이시며 만물의 근원이시요 보전자(保全者)이신 여호와께서만 최고의 존경과 경배를 받으실 자격이 있으시다. 사람은 어떤 다른 대상물에게도 그들의 애정과 봉사의 첫째 자리를 주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감소시키거나 마땅히 그분께 드릴 봉사에 방해가 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품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신으로 만드는 것이 된다. {PP 305.4}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PP 305.5}

둘째 계명은 우상이나 그와 비슷한 것을 가지고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많은 이교의 민족들은 그들의 우상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표상(表象)이나 상징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예배는 죄가 된다고 선언하셨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세상의 물질로 대표해 보려는 시도는 하나님께 대한 개념을 저하시킨다.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여호와께로부터 돌아선 마음은 창조주께보다는 오히려 그가 만드신 피조물들에게 더 끌리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개념이 저하되면 사람도 타락하게 될 것이다. {PP 306.1}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친밀하고 신성한 관계가 결혼 관계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 우상숭배는 영적 간음으로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을 질투라고 표현된 것은 적합한 말이다. {PP 306.2}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한다. 자녀들이 부모의 비행의 결과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나 그들이 부모의 죄에 동참하지 않는 한 부모의 죄 때문에 그들이 벌을 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대체로 자녀들은 부모의 발자취를 따른다. 유전과 부모들의 모본으로 말미암아 아들들은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짓는다. 나쁜 버릇과 그릇된 식욕과 저열한 품행은 육체적 질병과 퇴화 현상을 지니고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전승물로 내려간다. 이 무서운 사실이 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견제하는 데 큰 힘을 발휘해야 한다. {PP 306.3}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둘째 계명은 거짓 신들을 숭배하는 것을 금하는 동시에 참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명령한다. 그분을 미워하는 자들에 대한 노여움이 삼사 대까지밖에 미치지 않지만 그분을 위해 충실히 봉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천대까지 긍휼이 약속되어 있다. {PP 306.4}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PP 306.5}

이 계명은 거짓 서약과 일반적인 맹세를 금할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의 존엄한 뜻을 생각지 않고 경솔하고 부주의한 태도로 그 이름을 쓰는 것을 금하고 있다. 보통의 대화에서 부주의하게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일과, 사소한 문제로 그분께

호소하는 일과, 그분의 이름을 자주 생각 없이 되풀이하는 일로 우리는 그분께 욕을 돌린다.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시 111:9). 모든 사람은 그들의 마음이 그분의 존귀하신 품성을 깨닫고 깊은 감명을 받기 위하여 그분의 위엄과 순결함과 거룩함을 명상해야 한다.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입 밖에 낼 때에는 존경하는 마음과 엄숙함으로 해야 한다. {PP 306.6}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칠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PP 307.1}

안식일은 새로운 제도로서가 아니라, 창조 때에 이미 제정된 것으로 소개되었다. 그것은 창조주의 업적을 기념하는 것으로 기억해서 지켜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지적하고 참 하나님과 거짓 신들을 구별시켜 준다. 제칠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 같은 행동으로 그들이 다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들임을 나타낸다. 그리하여 이 땅 위에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안식일은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충절의 표가 된다. 이 넷째 계명은 열 계명 중에 입법자의 이름과 직함이 들어있는 유일한 계명이다. 그것은 또 누구의 권위로 율법이 주어졌는지를 보여 주는 유일한 계명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율법의 진정성과 구속력의 증거로서 그분의 율법에 찍힌 하나님의 인을 포함하고 있다. {PP 307.2}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엿새를 주시고 그들 각자의 일을 이 엿새 동안에 하기를 요구하신다. 자비를 베푸는 행위와 꼭 필요한 일들은 안식일에도 허락됐으므로 병자와 고통당하는 자는 언제나 돌보아 주어야 한다. 그러나 불필요한 일은 엄격히 피해야 한다.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치”(사 58:13)말라. 여기서 그 금령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선지자는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사업 문제를 의논하거나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을 실제로 사업에 종사한 것으로 간주하신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세속적 성격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조차도 피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계명은 우리 집 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집안에 동거하는 사람들까지 거룩한 시간 동안에는 그들의 세속적 사무를 제쳐놓아야 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자원하는 봉사를 통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연합해야 한다. {PP 307.3}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PP 308.1}

부모는 어느 누구보다도 자녀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들의 보호 아래 위탁된 영혼들을 돌볼 책임을 지워 주신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이 저희 자녀가 어렸을 때에는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서도록 친히 정해 놓으셨다. 그러므로 자기 부모의 정당한 권위를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것이다. 다섯째 계명은 자녀들에게 그들의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하기를 요구할 뿐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부드럽게 대하며, 그들의 수고를 가볍게 해주고, 그들의 명예를 지켜 주며, 노후에 그들을 부양하고 위로해 주기를 요구한다. 이 계명은 또 목사들과 나라의 통치자들과 하나님께서 권위를 위임하신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라고 분부한다. {PP 308.2}

사도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엡 6:2)라고 말한다. 잠시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계명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땅에서 오래 살리라는 공약이었다. 그러나 이 계명은 보다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하며, 이 세상이 죄의 저주에서 해방될 때 이 땅에서 그들이 영원히 살게 되리라고 약속하고 있다. {PP 308.3}

"살인하지 말지니라." {PP 308.4}

생명을 단축시키는 모든 부정한 행위와 증오와 복수의 정신과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우리로 그들이 해 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도록 만드는 감정에 빠져드는 것(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인 까닭에)과 가난한 사람들이나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고도 이기심 때문에 돌보는 일을 게을리 한 행위와 모든 방종이나 불필요한 소모나 건강을 해치는 경향이 있는 과중한 노동 등-이 모든 것은 정도에 차이는 있으나 다 여섯째 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PP 308.5}

“간음하지 말지니라.” {PP 308.6}

이 계명은 음란한 행위를 금할 뿐 아니라, 육욕적인 생각과 욕망은 물론 그것들을 자극하는 경향이 있는 어떠한 행위도 금하고 있다. 외부에 나타나는 생활에서뿐만 아니라 마음의 은밀한 의도와 감정에까지도 순결이 요구되고 있다. 하나님의 율법의 원대한 의무를 가르치신 그리스도께서는 사악한 생각이나 눈길도 불법한 행위와 마찬가지로 죄가 된다고 선언하셨다. {PP 308.7}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PP 308.8}

공사(公私)간의 범죄가 이 금령 안에 포함되어 있다. 여덟째 계명은 유괴(誘拐)와 노예 매매를 정죄하고 정복을 위한 전쟁을 금하고 있다. 이 또한 절도와 강도 행위를 정죄한다. 이 계명은 또 일상 업무의 가장 사소한 일에도 엄격한 성실을 요구한다. 이 계명은 상거래에 있어서 속이는 것을 금하는 동시에 당연히 지불해야 할 부채와 임금의 지불을 요구한다. 이 계명은 또 남의 무지와 약점과 불운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 하는 모든 행위는 하늘 책에 사기로 기록된다고 선언한다. {PP 309.1}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PP 309.2}

우리의 이웃을 속이려는 의도나 목적으로 어떤 문제에서든지 거짓말하는 것은 모두 이 계명에 저촉된다. 속이려는 의도가 거짓을 구성하는 것이다. 눈짓, 손짓, 얼굴 표정 등으로도 말로 하는 것과 같이 효과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 있다. 모든 고의적인 과장과 그릇되거나 과장된 인상을 전하려고 계획된 시사(示唆)나 암시, 비록 사실일지라도 오해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말하는 것은 거짓이다. 이 계명은 잘못 전하거나 나쁘게 추측하거나, 비방이나 고자질을 함으로 이웃의 명망을 손상시키려는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일도 아홉째 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PP 309.3}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유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PP 309.4}

열째 계명은 죄된 행위의 뿌리가 되는 이기적 욕망을 금함으로써 만악의 뿌리 자체를 강타하고 있다.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여 남의 소유물에 대한 나쁜 욕심을 품는 것조차도 삼가는 사람은 그의 이웃들에게 해를 끼치는 악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 {PP 309.5}

우레와 화염 가운데서, 위대하신 입법자의 권능과 위엄을 놀랍게 나타내시며 말씀하신 십계명의 거룩한 교훈은 이와 같았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선포하실 때에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신 것은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광경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해서 율법의 제정자요 천지의 창조주이신 당신께 깊은 존경심을 갖도록 감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당신의 율법의 신성성과 중대성과 영원성을 만민에게 보이려고 하셨다. {PP 309.6}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에 짓눌렸다. 하나님의 말씀의 무서운 능력을 그들의 떨리는 마음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의 대원칙이 그들 앞에 제시되었을 때에 그들은 전에 없이 죄의 가증한 성질과 하나님의 목전에 있는 저희 자신의 죄를 통절히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공포와 경외심을 가지고 그 산에서 물러갔다. 군중들은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출 20:19~21)라고 부르짖었다. 지도자 모세는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는 동안 멀리 뒤에 남아 두려운 마음으로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PP 309.7}

백성들의 마음은 노예 생활과 우상숭배로 어두워지고 저하되어서, 하나님의 십계명의 원대한 원칙을 온전히 이해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 그리하여 십계명의 의무가 더욱 잘 이해되고 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십계명의 원칙을 설명하고 적용하는 여러 가지 법들을 첨가해 주셨다. 이 법들이 “율례(律例)”라고 불리는데 이는 그것들이 무한한 지혜와 공평으로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법관들이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법은 십계명과는 달리 모세에게 은밀하게 전달되었으며, 그는 이것들을 다시 백성들에게 전달하였다. {PP 310.1}

이 법들 중에 첫째 법은 종들에 관계된 것이었다. 고대에는 죄수들이 때때로 법관들에 의하여 노예로 팔렸다. 어떤 경우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의하여 노예로 팔렸다. 때로는 빈곤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자신이나 자녀들을 노예로 팔 때도 있었다.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은 종신 노예로 매매될 수 없었다. 종살이의 기간은 6년간으로 제한되었으며 7년째 되는 해에는 자유를 주어야 하였다. 사람을 유괴하는 자와 고의적으로 살인하는 자와 부모의 권위에 대해 반역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스라엘 태생이 아닌 사람을 노예로 삼는 것은 허락되었으나 그들의 생명과 신체는 엄격히 보호되었다. 노예를 살해하는 자는 형벌을 받아야 했다. 주인이 노예에게 상처를 입히면, 그의 이(爾) 하나를 부러뜨렸을지라도 그 노예를 해방시켜 주어야 했다. {PP 310.2}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이 최근까지 노예로 있었으나 이제 그들의 수하에 종을 거느리게 될 것이었다. 그 때 그들은 자신들도 애굽인 감독 밑에서 고생을 했으므로 그들처럼 잔인하고 가혹한 정신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었다. 그들이 당한 쓰라린 고역을 회상하고 자기 자신들을 종의 입장에 두어 그들에게 동정과 친절을 베풀고 그들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들을 대접하여야 하였다. {PP 310.3}

과부와 고아들의 권익이 특별히 보호되었고, 그들의 속절없는 상태를 친절히 고려해 주도록 명령되었다. 여호와께서는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므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나의 노가 맹렬하므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출 22:23, 24)고 선언하셨다. 이스라엘과 연합한 이방인들도 부정이나 압박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였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정경을 아느니라"(출 23:9). {PP 310.4}

가난한 사람에게서 이자(利子) 받는 것이 금지되었다. 저당 잡힌 가난한 사람의 의복이나 이불을 해질 무렵에는 되돌려 주어야 했다. 도둑질한 사람은 배로 변상해야 했다. 법관들과 통치자들을 존경하라는 명령이 주어졌으며 재판관들은 거짓 송사를 도와주거나 뇌물을 받고 재판을 그르치지 않도록 경고를 받았다. 비방과 중상이 금지되었고, 자기들의 원수에게까지도 친절한 행동을 하도록 백성들은 명령을 받았다. {PP 311.1}

다시 안식일의 신성한 의무를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었다. 연례적인 축제들이 제정되었다. 그 때에는 그 나라의 모든 남자들이 여호와 앞에 드릴 감사의 헌물과 그분의 축복의 첫 열매를 가지고 모이도록 되어 있었다. 이 모든 규정(規定)을 주신 목적이 진술되었다. 그것들은 단순히 전제적 주권을 행사하는 데서 유래된 것이 아니요, 모두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하여 주어졌던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출 23:9)라고 말씀하셨다. {PP 311.2}

이 법들은 모세에 의하여 기록되었고 국법의 기초로서 십계명과 함께 조심스럽게 보관되었다.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킬 수 있는 열 계명을 설명하기 위하여 주어졌다. {PP 311.3}

이제 여호와께로부터 그들에게 기별이 주어졌다.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가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출 23:20~22). 이스라엘이 방황하던 모든 기간 내내 그리스도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속에 계셔서 그들을 인도하셨다. 오실 구세주를 가리키는 예표들이 있었던 반면에 또한 구세주께서 친히 현재 임하셔서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을 주셨다. 그분은 그들 앞에 유일한 축복의 통로로 제시되셨다. {PP 311.4}

산에서 내려와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출 24장 참조)라고 말했다. 모세는 이 서약을 백성이 지켜야 할 여호와의 말씀과 함께 책에 기록하였다. {PP 311.5}

그 후에 언약의 비준(批准)이 뒤따랐다. 산기슭에 제단이 설치되고 그 곁에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대로" 열두 기둥이 그들의 언약의 수락의 증거로 세워졌다. 그리고 이 제사를 위하여 선택받은 청년들이 희생 제물을 드렸다. {PP 312.1}

모세는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려주었다. 이와 같이 언약의 조건들이 엄숙히 반복되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언약의

조건을 따르든지 아니면 거절하든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겠다고 이미 약속했다. 그러고 나서 그 후에 그들은 그분의 율법이 선포되는 것을 들었다. 이 언약이 얼마나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율법의 원칙들이 상술(詳述)되었다. 다시 백성들은 이구동성으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대답하였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피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였다. {PP 312.2}

이제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는 선민의 국가가 창설될 완전한 준비가 이루어졌다. 모세는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칠십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아오"라는 명령을 받았다. 백성들은 산기슭에서 경배하는 동안 이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산 위로 올라오도록 부름을 받았다. 70인 장로들은 모세를 도와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분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분의 권능과 위대함을 나타내심으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고 다만 그분의 임재의 영광을 보았다. 이 일이 있기 전에는 그들이 그런 광경을 보고 견딜 수 없었을 것이었다. 하나님의 권능의 발현이 그들을 두렵게 하여 그들을 회개로 이끌었다. 그들은 그분의 영광과 순결과 긍휼을 깊이 생각하고 그들의 묵상의 대상이신 그분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다. {PP 312.3}

이제 모세와 "그 종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대면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그들은 한동안 부재중일 것이었다. 그러므로 지도자 모세는 장로들의 도움을 받아 그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아론과 훌을 임명하였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러 있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임재의 증거로써 6일 동안 구름이 산을 가리고 있었으나 그분께 대한 계시나 그분의 뜻은 전달되지 않았다. 이 기간에 모세는 지존자의 알현실(謁見室)로 들어오라는 부르심을 기다리면서 머물러 있었다. 그가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의 인내와 순종은 시험을 받았으나 그는 살피기에 지치거나 그의 직임을 버리지 않았다. 이 기다리는 기간은 그에게 있어서 준비하는 기간이었고 자기 자신을 면밀히 살피는 시간이었다. 하나님의 총애 받는

모세조차도 당장 그분의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영광의 발현을 견딜 수는 없었다. 그가 그의 조물주와의 직접 교통을 위하여 준비될 수 있기 전에, 마음의 반성과 묵상과 기도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데 엿새가 걸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PP 313.1}

안식일이었던 제칠일에 모세는 구름 속으로 부름을 받았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빽빽한 구름이 열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맹렬한 불처럼 쏟아져 나왔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사십일 사십야를 산에 있으니라." 산상에서 체류한 40일에는 준비하던 6일이 포함되지 않았다. 6일 동안은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있었으며 다 같이 "만나를 먹고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냇물을 마셨"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밖에 머무르면서 모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날마다 먹고 마시기를 계속하였다. 그러나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하였다. {PP 313.2}

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가 특별히 나타나게 될 성소를 건축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출 25:8)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세 번째로 안식일 준수를 명하셨다. 여호와께서는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출 31:17, 13, 14)고 선언하셨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성소를 조속히 지으라는 지시가 주어졌다. 이제 백성들은, 염두에 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예배할 장소가 몹시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이 안식일에도 건축하는 일을 정당화하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었다.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경고가 주어졌다.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사업이 아무리 신성하고 긴급하다 할지라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범하게 해서는 안 되었다. {PP 313.3}

이제부터 백성들은 그들의 왕의 영속적 임재로 영광을 얻게 될 것이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출 29:43, 45)는 보증이 모세에게 주어졌다.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이며 그분의 뜻의 구체적 표현인 십계명이 하나님의 친수로 두 돌판에(신 9:10; 출 32:15, 16) 새겨져

성소 안에 거룩하게 안치되도록 모세에게 하사 되었다. 그리고 성소가, 건립되면 그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적 예배의 중심이 될 것이었다. {PP 314.1}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 민족으로부터 만왕의 왕의 특수한 보배로운 백성이 되어 모든 민족들 위에 뛰어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신성한 임무를 맡기기 위하여,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셨다. 그분은 그들을 당신의 율법의 수호자로 삼아, 그들을 통하여 사람들 가운데 그분 자신에 관한 지식을 보존하시고자 하셨다. 그리하여 하늘의 빛은 흑암에 싸인 세계를 비추어, 모든 백성이 우상숭배에서 돌이켜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호소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를 충실히 행한다면, 그들은 세계에서 강대국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방패가 되시고, 그들을 모든 다른 민족들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분의 빛과 진리는 그들을 통하여 나타날 것이며, 그분의 지혜와 신성한 통치하에서 그들은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모든 형태의 우상숭배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 주는 표본이 될 것이었다. {PP 314.2}

28장 시내에서의 우상숭배

모세가 없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냈다. 백성들은 그가 여호수아와 함께 산으로 올라가 아래 평야에서 볼 수 있는 빽빽한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알았다. 그 구름은 산꼭대기에 걸쳐 있었으며 때때로 하나님의 임재의 빛으로 환하게 밝아지곤 했다. 그들은 그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물질로 표현된 신들에 익숙해 있었으므로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를 신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세를 의지하여 왔다. 그러나 이제 그는 저들과 떨어져 있었다. 여러 날이 지나고 여러 주가 지나도 그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구름이 여전히 그들에게 보이는데도 진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지도자가 그들을 버렸거나 맹렬한 불에 소멸되어 버린 것처럼 보였다. {PP 315.1}

이 기다리는 기간은 그들이 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명상하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더 주실지도 모를 계시를 받을 마음의 준비를 갖춰야 할 시간이었다. 이 일을 위하여 그 시간은 너무 긴 시간은 아니었다. 그들이 만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요구를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분 앞에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했더라면 그들은 유혹에서 보호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 곧 부주의하고 게으르고 무법하게 되었다. 특별히 섞인 무리가 그러했다. 그들은 약속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고 싶어 못견뎌 했다. 그들에게 순종하는 조건으로 좋은 땅이 약속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렸다. 더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제의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간에 더 이상 모세를 기다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PP 315.2}

그들의 지도자의 부재로 인하여 그들의 상태가 속절없다고 느낀 그들은 옛날의 미신으로 되돌아갔다. “잡족”들이 제일 먼저 불평과 초조에 빠졌으며 그들은 뒤따라 일어난 배도의 선봉이 되었다. 애굽 사람들이 신의 상징으로 존경했던 대상물 중에 황소나 송아지가 있었다. 애굽에서 이런 형태의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하자고 제안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상 곧 모세를 대신하여 그들을

인도할 어떤 형상을 갈망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과 비슷한 모양을 주시지 않으셨고 그같은 목적으로 어떠한 물질적인 조상(彫像)을 만드는 것을 금하셨다. 애굽과 홍해에서 행하신 큰 표적들은 여호와를 눈에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이스라엘의 조력자와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믿도록 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고자 하는 그들이 갈망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리고 시내산에서의 당신의 영광의 현현이 주어진 바 되었다. 그들 앞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이 있었지만 저들의 마음이 애굽의 우상숭배로 되돌아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의 형상으로" 나타냈다(출 32장 참조). {PP 315.3}

모세가 없는 동안에 사법권이 아론에게 위임되어 있었다. 많은 군중들이 아론의 장막에 모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고 요구하였다. 그들은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여 왔던 구름은 이제 산 위에 영구히 머물러 있어서 더 이상 그들의 여행을 인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구름기둥을 대신할 한 우상을 가져야만 했다. 그리고 전에 제의한 대로 애굽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다면 이 우상을 그들의 신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앞세우고 가는 것이 애굽 사람들의 호감을 살 것이라 했다. {PP 316.1}

그런 위기는 확고부동하고 결단성이 있고 불굴의 용기를 가진 사람 곧 민중의 인기나, 개인적 안전이나, 생명 그 자체보다도 하나님의 영예를 더 높이는 사람을 요구했다. 그러나 현재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이런 성격의 인물이 아니었다. 아론은 무기력하게 백성들에게 항의했다. 그러나 이 중대한 시점에서 그가 보인 동요와 소심한 태도는 더욱 그들을 단호하게 만들 뿐이었다. 소요는 점점 확대되었다. 맹목적이요 이론에 닿지 않는 광란이 군중을 지배하는 것 같았다. 하나님과 세운 언약에 충실한 사람이 더러 있었으나 대부분의 백성들이 이 반역에 가담했다. 우상을 만들자는 제의를 우상숭배라고 용감하게 지적한 소수의 무리는 공격을 당하고 거친 취급을 받았으며, 혼란과 흥분 속에서 마침내 그들의 생명을 잃고 말았다. {PP 316.2}

아론은 자기 자신의 안전을 염려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당히 일어서지 못하고 군중의 요구에 굴복하였다. 백성들의 교만한 탐심이 그런 희생을 거절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는 우선 모든 백성들에게 금 귀걸이를 모아 오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그들은 자원하여 그들의 장식품을 내놓았고 그는 이것들을 가지고 애굽의 신들을 모방하여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었다. 백성들은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하고 선언했다. 그리고 비열하게도 아론은 여호와께 그같은 모욕적인 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일을 했다. 그는 금신상을 백성들이 만족히 여기고 환대하는 것을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고 선포하였다. 나팔수들은 이 포고를 이 집단에서 저 집단으로 온 진영에 전달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의 절일”이라는 구실 하에 그들은 폭식과 경박한 주연에 스스로 빠져들어 갔다. {PP 317.1}

오늘날에도 향락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자주 “경건의 모양”으로 분장되는가! 한편으로 사람들에게 예배의 의식을 거행하도록 하면서 이기적이거나 육욕적 만족에 탐닉하게 버려두는 종교는 지금도 이스라엘 시대처럼 군중의 환심을 사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교회에서 권위 있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의 욕망에 굴복하여 그들이 범죄하도록 놔두는 우유부단한 아론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 {PP 317.2}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그분의 음성을 청종하겠다고 엄숙한 언약을 세운 지 며칠도 채 지나지 않았다. 그들은 산 앞에서 공포에 질려 떨면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고 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었다.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은 회중이 볼 수 있는 시내산 꼭대기에 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다른 신들을 구했다. “저희가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하여 자기 영광을…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시 106:19, 20). 자기 자신을 친절하신 아버지와 전능하신 왕으로 나타내신 그분께 대하여 어떻게 이보다 더 큰 배은망덕을 보일 수 있겠으며 이보다 더 대담한 모독을 돌릴 수 있겠는가! {PP 317.3}

산에 있던 모세는 진영에서 일어난 배도에 관한 경고와 지체 없이 하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였다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초기에 그러한 움직임을 제지하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 일이 최고 절정에 달하도록 묵인하신 이유는 반역과 배도로 받게 될 형벌 가운데서 한 가지 교훈을 만민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 {PP 317.4}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세우신 그분의 언약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그분은 모세에게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특별히 섞인 무리가 걸핏하면 하나님께 대해 반역하였다. 그들은 또한 그들의 지도자에 대하여 불평하고 그들의 불신과 고집으로 그를 슬프게 하기 일쑤였다.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은 몹시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이었다. 그들의 죄는 이미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아 갔으며 공의는 그들의 멸망을 요구하였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 대신 모세로 하여금 큰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고 제의하셨다. {PP 318.1}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시기로 뜻을 정하셨다면 누가 그들을 위하여 간구할 수 있겠는가? 죄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당할 운명에 빠지도록 버려두지 않을 자들은 얼마나 적은가!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만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제안하실 때, 안락하고 명예로운 지위를, 망은과 불평만을 보답으로 받게 될 많은 수고와 부담과 희생의 운명과 기꺼이 맞바꾸려고 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PP 318.2}

그러나 모세는 좌절과 진노밖에는 나타나지 않은 곳에서 희망의 근거를 찾아냈다. 그는 "나대로 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금지하는 뜻이 아니요 중재하도록 격려하는 말이며 자기의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다는 암시로서, 만일 그와 같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용서하시리라는 뜻으로 이해하였다. 그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였다. {PP 318.3}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버리셨다는 것을 알려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라고 하셨다. 그러나 모세는 겸손히 이스라엘에 대한 자기의 지도권을 부인하였다. 그들은 "그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는 주장하였다.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PP 318.4}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지 몇 달이 못 되어 그들의 놀라운 해방에 대한 소식이 인근의 모든 민족들에게 퍼졌다. 공포와 무서운 예감이 이방인들에게 임했다.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행하실 일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들이 지금 멸망을 당한다면 그들의 원수들은 승리의 개가를 부를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수치를 당하실 것이었다.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희생을 드리도록 하기 위하여 광야로 인도해 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죽이시려고 불러내셨다고 한 그들의 비난이 사실이었다고 주장할 것이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처럼 영화롭게 하셨던 백성들의 파멸로 인해 그분의 이름을 비난할 것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께서 매우 영화롭게 하신 사람들에게 놓인 책임이 얼마나 큰가! 그분의 재앙을 불러들이고 불경건한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만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얼마나 조심해야 하겠는가! {PP 319.1}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중재할 때에 모세는 이제까지 하나님의 인도 하에서 그가 여러모로 정력을 쏟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 때문에 그의 소심함은 없어졌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의 이기심 없는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을 시험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실성과 범죄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백성들에 대한 그의 사랑을 시험하셨다. 그러나 모세는 이 시련을 고상하게 잘 견디어 냈다. 이스라엘에 대한 그의 관심은 이기적인 동기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민의 번영은 자기 개인의 명예나 큰 나라의 조상되는 특권보다도 더 귀중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실함과 단순한 마음과 그의 진실함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신실한 목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중대한 책임을 맡기셨다. {PP 319.2}

모세는 "증거의...판"을 들고 여호수아와 함께 산에서 내려올 때 몹시 소란한 상태에 있는 것이 분명한, 흥분된, 군중들의 외치는 소리와 고함소리를 들었다. 군인인 여호수아는 처음에는 원수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여호수아는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소요의 성질을 보다 올바르게 판단했다.

그 소리는 싸우는 소리가 아니요 환락의 소리였다.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PP 319.3}

진영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백성들이 우상의 주위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애굽의 우상 숭배적 축제를 모방한, 이교적인 방탕의 장면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엄숙하고 경건한 예배와는 얼마나 다른가! 모세는 너무나 놀라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다. 그는 방금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는 데서 왔으며 비록 벌어지고 있는 사건에 대해 경고를 받았지만 이스라엘의 이처럼 무서운 타락의 장면을 보고 견딜 수 없었다. 그의 분노는 불처럼 뜨거웠다. 백성들의 범죄에 대한 그의 혐오감을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그는 돌비를 내던졌다. 그러자 그것은 백성들의 목전에서 깨어지고 말았다.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깨뜨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세우신 그분의 언약을 파기하셨다는 것을 나타냈다. {PP 320.1}

진영에 돌아온 모세는 잔치에 모인 군중을 헤치고 나아가 우상을 들어 불속에 던졌다. 그 후 그는 그것을 갈아 가루로 만들어 산에서 내려오는 시내에 뿌리고 백성들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하였다. 그렇게 하여 그들이 섬겨 왔었던 신은 전혀 무가치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PP 320.2}

그 위대한 지도자는 범죄한 그의 형을 불러 “이 백성이 네게 어떻게 하였기에 네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뇨” 하고 엄중히 문책하였다. 아론은 백성의 소동을 이야기함으로 즉, 만일 그가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더라면 그는 죽임을 당했을 것이라는 말로 자신을 방어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 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모세로 하여금 기적, 곧 금을 불 속에 던졌더니 초자연적 능력에 의하여 송아지로 변하였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의 변명과 얼버무려 넘기는 수법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는 범죄의 주모자로서 공정히 다루어졌다. {PP 320.3}

아론이 백성들보다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받고 명예를 얻었다는 사실이 그의 죄를 더 흉악스럽게 만들었다. 우상을 만들고 축제를 공포한 사람은 “여호와의 성도”(시 106:16) 아론이었다.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하려는 백성들의 의도를 제지하지 못한 아론은 모세의 대변자로 임명되었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출 4:14)고 증거하셨던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신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데 쓰셨던 사람이 부어 만든 우상 앞에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라고 선포하는 말을 태연하게 듣고 있었다. 산에서 모세와 함께 있으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았고 아무것을 가지고라도 그 영광을 나타낼 우상을 만들 수 없음을 안 그가 바로 그 영광을 소의 형상으로 바꾼 자였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없는 동안 백성을 다스릴 권한을 위탁하셨던 그가 그들의 반역을 재가하였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신 9:20)다. 그러나 모세의 열렬한 중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의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는 자신의 큰 죄를 참회하고 겸비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했다. {PP 320.4}

만일 아론이 결과에 관계없이 용기 있게 의를 위하여 굳게 섰더라면 그는 그 배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만일 그가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충성을 확고부동하게 유지하였더라면, 또 그가 시내 광야의 위험들을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겠다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세운 엄숙한 언약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었더라면 그 악은 제지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백성들의 요구에 대한 그의 순응과 그들의 계획을 수행한 뻔뻔스러움이 그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그들이 먼저 생각한 것보다 더 깊은 죄에 빠져들게 했다. {PP 323.1}

모세가 진영에 돌아와 반역자들과 대면했을 때에 그의 날카로운 책망과 의분 곧 그가 율법이 기록된 신성한 돌판을 깨뜨림으로 나타낸 분노는 백성들이 볼 때 그의 형의 유쾌한 말과 품위 있는 태도와는 대조적이었다. 백성들은 아론을 동정했다.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아론은 그들의 요구에 굴복한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하려고 노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의 점잖음과 참을성을 찬탄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보는 것같이 보지 않으신다. 아론의 양보하는 정신과 백성들의 비위를 맞추려는 소망은 그가 재가하고 있었던 범죄의 극악함을 볼 수 없도록 그의 눈을

멀게 만들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도록 영향력을 끼친 그의 태도는 수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 이것과는 대조적으로 모세의 태도는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이스라엘의 행복을 자신의 번영이나 명예나 생명보다 더 귀중하게 여겼다. {PP 323.2}

하나님께서 벌하실 모든 죄 중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악을 행하도록 격려한 죄보다 그분께서 보시기에 더 큰 죄는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가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분의 종들은 신실하게 악을 책망하는 것으로 저들의 충성심을 나타내기를 바라신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 주심으로 영예를 얻은 사람들은 약하고 구부러지기 쉬운 기회주의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자신을 높이려는 의도를 갖지 말아야 하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의무도 피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성실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PP 323.3}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멸망을 면할 수 있게 하셨지만 그들의 배도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했다. 아론의 승인으로 그들이 빠지게 된 무법과 반역이 신속히 분쇄되지 않는다면 더욱 사악해져서 마침내 그 민족을 돌이킬 수 없는 파멸 속으로 떨어지게 할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 같은 악은 가차 없이 엄격하게 몰아내야 했다. 진영 입구에 서서 모세는 백성들을 향하여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배도에 가담하지 않았던 자들은 모세의 오른편에 자리를 잡고 범죄하였으나 회개한 사람들은 왼편에 자리를 잡기로 되어 있었다. 백성들은 이 명령을 순종하였다. 레위 지파는 우상숭배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다른 지파들 가운데는, 비록 범죄하였었지만 이제 회개함을 표시하는 큰 무리가 있었다. 그러나 주로 송아지를 만들자고 선동했던 섞인 무리로 대부분 이루어진 큰 집단이 완고하게도 그들의 반역을 고치려고 하지 않았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의 오른편에 있는,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그들의 칼을 차고 가서 반역을 고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였다. “이날에 백성 중에 3천 명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지위나 혈연이나 교우 관계에 상관없이, 행악의 주모자들은 죽임을 당했다. 그러나 스스로 회개하고 겸비한 사람들은 모두 용서함을 받았다. {PP 324.1}

이 무서운 심판을 수행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늘 왕의 선고를 집행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분별없이 그들의 동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도록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행에 대한 그분의 선고를 집행하도록 명하실 때에는 인간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고통스러운 행위를 한 사람들은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반역과 우상숭배를 증오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참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하여 자신을 바쳤다. 여호와께서는 레위 지파를 특별히 구별하심으로 그들의 충성을 영광스럽게 하셨다. {PP 324.2}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에게 은전(恩典)을 후히 주시고 그들이 자진하여 그분의 권위에 순종하겠다고 서약한 하늘 왕께 대역죄를 범하였다. 하나님의 정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역자들에게 형벌을 집행해야만 했다. 그러나 여기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났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옹호하시는 동시에 선택의 자유와 모든 사람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다. 고집스럽게 반역을 계속한 사람들만 끊어졌다. {PP 324.3}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인근 민족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이 죄는 반드시 처벌될 필요가 있었다.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범죄한 사람들에게 형벌을 집행함으로써 그들의 범죄에 대한 엄숙하고도 공공연한 항의를 기록으로 남겨야 했다.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근 족속의 우상숭배를 정죄할 때에 그들의 원수들은 여호와를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예배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할 것이었다. 그 때에는 이스라엘이 그 수치스러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자들이 당한 무서운 운명을 그들의 죄가 재가를 받지도 못했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는 증거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PP 325.1}

공의 못지않게 사랑도 이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통치자이실 뿐만 아니라 보호자이시다. 그분께서는 반역에 고착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파멸로 인도하지 않도록 그들을 죽게 하신다. 가인의 목숨을 살려 두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처벌하지 않고 방임하는 결과가 무엇인가를 온 우주에 예증해 보여주셨다. 그의 생활과 교훈이 그의 후손들에게 끼친 영향은 온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부패된 상태로 몰아갔다. 홍수 전 세계 역사는 장수(長壽)가

죄인에게 축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저들의 사악을 제지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오래 살면 살수록 더 부패하게 되었다. {PP 325.2}

시내산에서의 배도도 그러했다. 범죄에 대한 형벌이 신속하게 집행되지 않으면 동일한 결과가 다시 일어났을 것이다. 이 세상은 노아의 때와 같이 부패하게 되었을 것이다. 만일 이 범죄자들이 처벌되지 않았더라면 가인의 생명을 살려 둠으로 일어난 결과보다 더 큰 재앙들이 연달아 일어났을 것이다. 수백만에게 불가피하게 내릴 심판을 막기 위하여 수천 명이 고통을 당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소수를 벌하셔야 했다. 그뿐 아니라 백성이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충성을 버렸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잃어버렸고 그들의 방어벽은 무너져 민족 전체가 원수들의 세력에 노출되었다. 그 악이 빨리 제거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얼마 안가서 그들의 무수한 강적의 먹이가 되고 말았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행복과 또 모든 후세대에게 교훈을 주기 위하여 그 범죄가 빨리 처벌되어야 했다. 그리고 죄인들 자신에게 있어서도 그들이 빨리 악한 행로에서 끊어지는 것은 결코 적지 않은 자비스러운 배려였다. 그들의 목숨이 부지되었다 하더라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반역하도록 만든 그 같은 정신이 그들 중에 증오와 분쟁을 일으켜 결국 그들은 서로 죽였을 것이다. 그 범죄가 빨리 그리고 매우 가혹하게 처벌된 것은 세상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그리고 범죄자들에 대한 사랑에서였다. {PP 325.3}

그들의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를 깨닫고, 온 진영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들은 모든 범죄자들이 죽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두려워했다. 그들의 염려를 측은하게 생각하여 모세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한 번 더 호소하겠다고 약속했다. {PP 326.1}

모세는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고 말했다. 그는 올라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가운데,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에 가리라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고 대답하셨다. {PP 326.2}

모세의 기도에서 우리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선악간에 저들의 행위가 낱낱이 기록된 하늘의 기록책에 향하게 된다. 생명책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참여한 일이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만일 이들 중에 하나님을 떠나서 완고하고 고집스럽게 죄를 버리지 않음으로 마침내 성령의 감화에 대하여 마음이 강퍅하게 되면 그들의 이름이 심판 때에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모세는 죄인의 운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만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절하신다면 그는 자기의 이름도 그들의 것과 같이 지워지기를 바랐다. 그는 그처럼 은혜롭게 해방된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었다. 이스라엘을 위한 모세의 중보는 죄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중보를 설명해준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모세에게 범죄자의 죄를 짊어지도록 하지 않으셨다. 여호와께서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고 말씀하셨다. {PP 326.3}

백성들은 깊은 슬픔으로 죽은 사람들을 매장했다. 3천명이 칼에 죽었고 얼마 안 가서 진중에 전염병이 발생했다. 그런데다가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저들의 여행길에 함께하지 않으리라는 기별이 왔다. 여호와께서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고 선언하셨다. 그러고는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리겠노라”(출애굽기 33장 참조)는 명령이 내렸다. 그 때에 온 진영에 통곡이 있었다. 참회와 겸비로써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하니라.” {PP 327.1}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임시 예배 장소로 사용하던 성막이 옮겨져 “진과 멀리 떠나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그분의 임재를 거두셨다는 또 하나의 증거였다. 그분께서는 모세에게는 당신을 나타내시고자 하셨으나 그 같은 백성에게는 그렇게 하시기를 원치 않으셨다. 책망은 그들의 폐부를 찔렀다. 그 책망이 양심에 가책을 느낀 군중들에게는 큰 재난의 전조같이 보였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려고 모세를 진에서 떠나게 하지 않으셨는가? 그러나 그들은 희망 없이 버려지지 않았다. 성막은 진 밖에 세워졌고 모세는 그것을 “회막(會幕)”이라고 불렀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바라는 자들은 모두 그리로 나아가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분의 긍휼을

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백성들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갔을 때에 모세는 성막으로 들어갔다. 백성들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모세의 중보가 가납되었다는 증거를 보고자 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기 위하여 하감하신다면, 그들은 완전히 소멸당하지는 않게 되리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구름기둥이 내려와 회막 문에 머물렀을 때에 백성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들은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였다. {PP 327.2}

모세는 자기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들의 완고함과 무지 몽매함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자기가 싸워야 할 어려움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들을 설복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보다 더 분명하게 나타내시도록 그리고 그분의 임재에 대한 보증을 주시도록 탄원하였다.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PP 327.3}

그 대답에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편케 하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모세는 아직도 만족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은 그대로 놓아두시면 무서운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그의 영혼을 억눌렀다. 그는 자신의 생명이 동포들의 생명과 분리되는 것을 참을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은총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되도록, 그리고 그분의 임재의 표적이 계속 그들의 여행을 지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였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PP 328.1}

여호와께서는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앎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여전히 예언자는 탄원을 그치지 않았다.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었으나 그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더 큰 증거들을 갈망했다. 그는 이제

지금까지 어떤 인간도 해본 일이 없는 요구 곧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요구했다. {PP 328.2}

하나님께서는 그의 요구를 참람(僭濫)되다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은혜로운 말씀으로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중에 가리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가 견딜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보증을 받았다. 모세는 다시 산꼭대기로 올라오라는 부름을 받았다. 그 때에 세계를 창조하신 손 곧 “산을…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는”(욥 9:5) 그 손이 흙으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며 위대한 신앙의 소유자인 이 사람을 취하여 바위틈에 두셨다. 그 때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모든 선한 형상이 그의 앞으로 지나갔다. {PP 328.3}

이 경험 -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 - 은 모세에게는 자기 앞에 있는 사업이 성공하리라는 보증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 경험을 모든 애굽의 학문이나 정치적·군사적 지도자로서의 그의 모든 재능보다도 무한히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다. 어떠한 지상의 권력이나 기술이나 학문도 하나님의 항상 계시는 임재를 대신할 수 없다. {PP 328.4}

범죄자들에게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그러나 모세는 창조주의 뜻과 일치하였으므로 영원한 분의 존전에 홀로 섰어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시편 기자는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시 66:18)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음이여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시 25:14)고 덧붙인다. {PP 329.1}

하나님께서는 친히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을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으리라고 선포하셨다. {PP 329.2}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리어 경배하”였다. 그는 다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그분의 소유로 삼아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그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분의 은총을 회복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출애굽기 34장 참조) 행하시지 아니하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PP 329.3}

40주야 동안 산에 머물러 있는 기간 동안 그는 이전의 40주야 때와 같이 기적적으로 생명이 유지되었다. 아무도 그와 함께 산에 오르도록 허락되지 않았으며 그가 없는 동안에 어떤 사람도 산에 접근하도록 허용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돌판 둘을 준비하여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다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다. {PP 329.4}

하나님과 교통한 오랜 시간 동안에 모세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반사하였다. 자기 자신은 알지 못하였으나 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그의 얼굴은 눈이 부시도록 빛났다. 그와 같은 빛이 재판관들 앞에 소환된 스데반의 얼굴을 비추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행 6:15)았다. 백성들은 말할 것 없고 아론도 모세를 피하여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다. 모세는 그들이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았으나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재촉했다. 모세는 하나님이 화해하시겠다고 하신 맹세를 그들에게 제시하고 그분의 은총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확신시켰다. 그들은 그가 사랑과 간청의 말만을 하는 것을 깨닫고 마침내 한 사람이 담대하게 모세에게 접근했다. 그는 너무 무서워서 말은 못하고 묵묵히 모세의 얼굴을 가리키고 다음에 하늘을 가리켰다. 그 위대한 지도자는 그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차렸다. 그들의 죄를 의식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 아래 있는 줄로 생각한 그들은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순종하였더라면 그들에게 기쁨을 충만케 해주었을 그 하늘의 빛을 견딜 수 없었다. 범죄에는 두려움이 따른다. 죄와 상관없는 영혼은 하늘의 빛을 피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PP 329.5}

모세는 그들에게 전할 기별이 많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겁내는 것을 민망스럽게 생각하여 그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그 때 후로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진으로 돌아올 때마다 계속 그렇게 했다. {PP 330.1}

하나님께서는 이 빛으로 그분의 율법의 거룩하고 고매한 특성과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복음의 영광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명을 주시고자 계획하셨다. 모세가

산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율법판뿐 아니라 구속의 경륜도 보여 주셨다. 그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유대 국가 시대에는 모든 유형과 상징으로 예표된 것을 보았다. 그리고 모세의 얼굴에 비친 빛은 하나님의 율법의 영광의 빛에 못지않게 갈바리에서 흘러나온 하늘의 빛이었다. 그 신성한 조명(照明)은 유일하신 참 간구자의 대표자인 눈에 보이는 중보자로 봉사했던 시대의 영광을 상징했다. {PP 330.2}

모세의 얼굴에서 반사된 영광은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 받을 축복을 예시(例示)한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면 할수록 그리고 그분의 요구를 더 분명히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더 완전하게 닮게 되고 더 쉽게 그분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증거한다. {PP 330.3}

모세는 그리스도의 예표였다. 백성들이 그의 얼굴의 영광을 보고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중보자가 자기의 얼굴을 가린 것처럼 신성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도 그분이 세상에 오실 때에 그분의 신성을 인성으로 가리셨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광명을 입으시고 오셨다면 그는 죄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하실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분의 임재의 영광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분은 타락한 인류에게 접근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시고 “죄있는 육신의 모양”(롬 8:3)을 입으셨다. {PP 330.4}

29장 율법에 대한 사단의 적의(敵意)

죄 없는 하늘 거민들 중에서 기도(企圖)된 하나님의 율법을 전복(顚覆)하려는 사단의 처음 노력은, 한때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다.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이 그의 꼬임에 넘어갔다. 그러나 겉보기에 승리한 듯한 사단은 결국 패배와 손실을 당하고 하나님과의 분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추방당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PP 331.1}

그 투쟁이 이 지구상에서 다시 일어났을 때에 사단은 재차 표면상으로는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사람들은 범죄로 인하여 그의 포로가 되어 있었고, 그들의 나라도 역시 대반역자의 수중에 있었다. 이제 사단에게는 독립 국가를 건설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에게 도전할 길이 열린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구속의 경륜은 다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하고 그분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이 지구와 그 거민들이 마침내 악한 자의 권세에서 구속함을 받을 수 있게 해주었다. {PP 331.2}

그리하여 사단은 또다시 참패를 당하였다. 그는 이러한 자기의 패배를 승리로 바꿔 보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재차 기만술을 쓰게 되었다. 그는 타락한 인간에게 반역을 선동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인간으로 하여금 당신의 율법을 범하도록 방임해 두시는 불의한 분으로 나타냈다. 간교한 유혹자는 “하나님은 그 결과가 어떠할 것을 아시면서 왜 사람들로 하여금 시험을 당하도록 놔두셔서 그들로 이같은 비참과 죽음에 이르게 하셨는가?”라고 말했다. 그리고 사단의 반역으로 인하여 하늘 왕이 치르게 된 놀랍고도 무서운 희생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위하여 또 다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긍휼을 아담의 자손들은 쉽게 잊어버렸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혹자의 말을 귀담아 듣고, 사단의 파괴적 능력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그분께 불평하였다. {PP 331.3}

오늘날 하나님께 대하여 같은 반역적 불평을 되풀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선택의 자유를 빼앗는 것은 그들에게서 지적 존재로서의 특전을 박탈하는 것이며, 그들을 단순한 자동인형으로 만든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의지를 강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 사람은 자유로운 도덕적 행위자로 창조되었다. 다른 모든 세계의 거민들처럼, 그는 순종에 대한 시험을 받아야 하였다. 그러나 그는 악에 굴복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는 그런 위치에 결코 놓여 있지 않았다. 그가 대항할 수 없는 어떤 유혹이나 시련도 그에게 오도록 허락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사단과의 투쟁에서 결코 패배할 필요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놓으셨다. {PP 331.4}

지구상에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거의 모든 세상이 반역의 대열에 가담하였다. 사단이 또다시 승리를 얻은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다시 불의의 역사를 단축시키사 홍수로 이 세상에서 도덕적 부패를 깨끗이 제하셨다. {PP 332.1}

선지자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사 26:9, 10)라고 말하였다. 홍수 후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세상 거민들은 그분의 심판에서 놓이자, 또다시 여호와께 반역하였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율례를 두 번씩이나 거절했다. 홍수 전 사람들과 노아의 후손 모두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다. 그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시고 친히 한 백성을 취하여 당신의 율법의 보관자로 삼으셨다. 사단은 이 백성을 유혹하여 멸망시키기 위하여 즉시 올무를 놓기 시작했다. 야곱의 자녀들은 이방인과 혼인 계약을 맺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도록 유혹을 받았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 충실하였다. 그의 충성은 참 신앙에 대한 계속적인 증거였다. 사단이 요셉의 형들의 질투심을 이용하여 그를 이방 땅에 노예로 팔리게 만든 것은 이 빛을 꺼버리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건들을 지배하셔서, 당신께 대한 지식이 애굽 백성들에게도 주어지게 하셨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시에 그를 나라의 총리대신의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교육과 훈련을 받았다. 바로의 궁전에서 끼친 그의 감화는 온 나라에 퍼졌으며 하나님께 대한 지식은 원근에 널리 퍼졌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도 번영하고 부요하였으며,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들은 그들의 감화를 널리 끼쳤다. 우상 숭배교의 제사장들은 새 종교가 인기를 끄는 것을 보고 불안에 싸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적개심을 가진 사단의 선동을 받고, 그 새 종교의 빛을 꺼버리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사제(司祭)들에게 왕위의 후계자의 교육이 위탁되어 있었다. 장래 군주가 될 자의 품성을 꼴 짓고 히브리 백성들을 잔인하게 취급하고 압제하도록 만든 것은 하나님께 대한 이 같은 단호한 반대의 정신과 우상숭배에 대한 열정이었다. {PP 332.2}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한 후 사십년 동안 우상숭배는 승리한 것처럼 보였다. 해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희망의 불빛은 희미해져 갔다. 왕과 그의 백성들 모두 그들의 권세를 크게 기뻐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였다. 이러한 정신은 모세와 대결했던 바로에 이르러 최고조에 달했다. 히브리 사람들의 지도자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온 기별을 가지고 왕의 앞에 섰을 때에 그가 "여호와가 누구관대 내가 그 말을 듣고...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라고 한 말은 참 하나님에 관한 무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도전이었다.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반대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지의 결과가 아니라 그분에 대한 증오와 도전의 결과였다. {PP 333.1}

애굽 사람들이 그처럼 오랫동안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거절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요셉의 시대에는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난처였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준 친절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셨다. 그리하여 이제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동정이 충만하신 여호와께서 각 재앙 때마다 그들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 그들이 섬겨 오던 바로 그 대상물들로 말미암아 괴롭힘을 받은 애굽 사람들은 여호와의 권능의 증거를 보았고,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종하여 그분의 재앙을 면할 수 있었다. 왕의 고집과 완고함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널리 퍼지게 해서 애굽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PP 333.2}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교도와 서로 결합하여 그들의 우상숭배를 모방할 위험이 다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셉의 감화가 널리 퍼져 있는 곳, 그리고 그들이 구별된 백성으로 남아 있는데 유리한 환경을 가진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허락하셨다. 여기서 애굽 사람들의 야비한 우상숭배와 히브리 사람들의 체류 후반기 동안의 그들의 학대와 압박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상숭배에 대한 혐오감을 일으켜 주고, 그들로 하여금 피난처를 얻기 위하여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로 도피하도록 이끌었어야 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사단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편으로 삼았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이교도인 그들의 주인들의 관습을 모방하도록 이끌었다. 애굽인들이 동물을 미신적으로 숭배하는 까닭에 히브리인들은 종살이하는 동안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은

이러한 제사로 말미암아 크신 희생 제물이신 분께로 향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의 믿음은 약해졌다. 이스라엘이 해방될 때가 이르렀을 때 사단은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이백만명 이상 되는 큰 백성을 무지와 미신 가운데 붙잡아 두기로 결심하였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관한 지식을 세상에 나타내시기 위하여 한 백성을 축복하시고 번성하게 하사 지상에서 강대한 국가가 되게 하시기로 약속하고 그 백성들을 당신의 율법의 수호자로 삼으시고자 하셨다. 그런데 사단은 바로 이 백성들의 마음에서 하나님께 대한 기억을 말살시킬 목적으로, 그들을 어둠과 속박 가운데 붙들어 두고자 했다. {PP 333.3}

왕의 앞에서 기적이 행해졌을 때에, 사단은 그 기적들의 영향력을 없애고, 바로가 하나님의 최상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 장소에 와 있었다. 사단은 하나님의 역사(役事)를 위조하고 그분의 뜻에 항거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기도(企圖)의 결과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온 애굽인들에게 참되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의 존재와 주권을 더 분명하게 해줄 뿐이었다. {PP 334.1}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위대하신 능력을 나타내시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그 백성으로 즐거이 나오게 하시며 그 택하신 자로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좇게 하려 하심이로다”(시 105:43~45). 저들을 좋은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셨다. 그 땅은 그들이 원수에게서 피하여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로 준비하신 땅이었다. 그분께서는 저들을 당신께로 인도하여 그분의 영원하신 팔로 그들을 안아주시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베푸신 그분의 모든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대한 보답으로, 살아 계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 것과 지상에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할 것이 그들에게 요구되었다. {PP 334.2}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지식을 대부분 잊어버리고, 그 교훈에 이교의 풍속과 유전을 섞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내 광야로 인도해 내시고 거기서 당신의 친 음성으로 당신의 율법을 선포하셨다. {PP 334.3}

사단과 악한 천사들도 그 곳에 와 있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당신의 백성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동안에도 사단은 그 백성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고자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백성을 바로 그분의 면전에서 잡아떼고자 했다. 그는 그들을 우상숭배로 인도하여 모든 예배의 효력을 훼손하려고 하였다. 사람이 자기 자신보다 높지 못한 것이나 자기 손으로 만든 어떤 상징물로 우상숭배를 한다면 결코 향상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만일 사람들이 새겨 만든 우상이나 심지어는 짐승이나 파충류로써 하나님을 나타낼 만큼 무한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과 영광에 대하여 눈이 멀게 될 수 있다면, 그들이 창조주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서도 이같은 불쾌하고 감각 없는 대상물들에게 머리를 숙여 절할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잊어버리게 될 수 있다면, 음란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심중의 악한 정욕들이 제어되지 못할 것이다. 그리하여 사단이 완전히 그들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PP 334.4}

바로 시내산 기슭에서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전복하려는 자기의 계획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그가 하늘에서 시작한 똑같은 사업을 추진하였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산에 있었던 40일 동안, 사단은 의혹과 배교와 반역을 선동하느라고 분주하였다. 하나님께서 더불어 언약을 맺으신 백성들에게 위탁하실 그분의 율법을 기록하고 계시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 충성하기를 거부하고, 금으로 만든 신들을 요구하고 있었다. 모세가 영광에 둘린 하나님의 엄숙한 면전에서 물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복종할 것을 서약한 율법의 교훈들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에, 그는 백성들이 그 명령들을 공공연히 무시하고, 경건한 자세로 금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PP 335.1}

사단은 이처럼 이스라엘로 하여금 담대히 여호와를 멸시하고 모독하게 만듦으로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계획하였다. 백성들이 그처럼 완전히 타락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여하신 모든 특권과 축복들까지 잊어버릴 뿐 아니라 그들 스스로 엄숙하게 반복했던 충성의 맹세까지 잊어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과 절연하시고 그들이 멸망하도록 버려두실 것이라고 그는 믿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후손 곧 살아 계신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보존할 약속의 자손과 그 자손을 통하여 그분이 오셔서 사단을 정복하시기로 되어 있는 참 후손의 근절(根絶)이 확실하게 될 것이다. 큰 반역자는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키기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그는

다시 패배하였다. 비록 그들이 그처럼 죄가 많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당하지 않았다. 고집스럽게 사단의 편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지만, 겸비하고 회개한 백성은 자비롭게 용서되었다. 이 범죄의 역사는 우상숭배의 흉악함과 그 형벌을 증언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와 오래 참으시는 은혜에 대한 영원한 증거가 될 것이다. {PP 335.2}

온 우주가 시내산 밑에서 일어난 이 장면을 목격하였다. 두 개의 통치 방식에서 하나님의 정부와 사단의 정부 사이에 현저한 대조가 보였다. 다시 한 번 죄없는 다른 세계의 주민들은 사단의 배도의 결과와, 만일 그가 지배권을 행사하게 허락되었더면 그가 하늘에 세웠을 정부가 어떤 종류의 것임을 볼 수 있게 되었다. {PP 335.3}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둘째 계명을 범하게 하여 거룩한 존재이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저하시키려고 하였다. 넷째 계명을 제거함으로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했다. 이교의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당신을 경배하라는 하나님의 요구는 그분께서 창조주이시며, 다른 모든 존재들이 생존을 그분께 빚지고 있다는 사실에 기초를 두고 있다. 성경에는 그 사실이 이와 같이 제시되어 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 장색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렘 10:10~12, 14~16)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기념일인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의 조성자임을 지적한다. 그런고로 안식일은 그분의 존재에 대한 계속적인 증거이며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사랑을 상기시켜 주는 방편이다. 안식일이 항상 신성하게 준수되어 왔었더라면, 무신론자나 우상숭배자가 결코 생겨날 수 없었을 것이다. {PP 336.1}

에덴에서 기원된 안식일 제도는 이 세상만큼이나 오래되었다. 창조 이후에 모든 부조들이 그날을 준수하였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동안에 그들의 감독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범하도록 강요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날의 신성성에 대한 지식을

대부분 잊어버렸다. 시내산에서 율법이 선포되었을 때에 넷째 계명의 맨 처음 말은 안식일이 그 때에 제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기원이 창조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지적하신다.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기 위하여 이 큰 기념물을 파괴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사람들이 그들의 창조주를 잊어버리도록 만들 수 있다면, 그들은 악의 세력을 저항하고자 전혀 노력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확실하게 사단의 밥이 될 것이다. {PP 336.2}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증오심으로 사단은 십계명의 매 조항에 대한 싸움을 추진시켜 나갔다. 만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충성의 대원칙에는 자식으로서의 사랑과 순종의 원칙이 밀접히 관계되어 있다. 부모의 권위를 멸시하면 얼마 안 가서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기에 이를 것이다. 그런 까닭에 사단은 다섯째 계명의 의무를 약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방 백성 중에는 이 계명이 분부하고 있는 원칙이 거의 유의되지 않았다. 많은 국가에서, 부모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부양할 수 없는 연령에 달하면 그들을 즉시 유기(遺棄)하거나 죽였다. 가정에서 어머니는 거의 존경을 받지 못하였고 남편이 죽은 후에는 장남의 권위에 복종하도록 요구되었다. 모세는 자식의 도리로서 부모님께 복종하도록 명하였다. 그러나 여호와를 떠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계명들과 마찬가지로 다섯째 계명도 무시하게 되었다. {PP 337.1}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8:44)였으며, 인류를 지배할 권세를 얻자마자 그는 인간들로 상호간에 미워하고 죽이도록 선동했을 뿐 아니라, 더 대담하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기 위하여 그는 여섯째 계명에 대한 범죄를 그들의 종교의 한 부분으로 만들었다. {PP 337.2}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왜곡된 개념으로 말미암아 이교의 민족들은 그들의 신들의 은총을 얻는 데 인간 제물이 필요하다고 믿게 되었다. 그리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우상숭배 하에서 매우 끔찍스러운 잔인한 행위들이 저질러졌다. 그중에는 그들의 자녀들을 우상들 앞에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관습이 있었다. 만일 이러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와같은 불 가운데서 해를 입지 않고 나오게 되면 백성은 그들의 헌물이 가납되었다고 믿었고, 이와 같이 구원받은 사람은 신들에게 특별히 총애를 받았다고 생각하여, 은전(恩典)이 많이 주어지고, 그 때 이후부터는 높이 존경을 받았다. 그리고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그는 결코 형벌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불을 통과하다가 화상을 입은 사람은 그의 운명이 결정됐다. 신들의 분노는 희생자의 생명을 취함으로만 진정될 수 있다고 믿어졌기 때문에, 그는 희생 제물로 바쳐졌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큰 배교가 있었을 때에는 이러한 가증한 일들이 다소 행해졌다. {PP 337.3}

일곱째 계명의 위반도 일찍부터 종교의 이름으로 행하여졌다. 가장 음탕하고 가증한 의식들이 이방인들의 예배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신들 자신들도 불순하게 대표되었고, 그 신들의 숭배자들은 저열한 정욕을 마음껏 만족시켰다. 인륜에 어긋나는 죄악들이 성행하였고, 종교적 축제는 보편적이요, 공공연한 음란 행위로 특징지워져 있었다. {PP 337.4}

일부다처는 세상의 초기 시대부터 행해졌다. 이 제도는 홍수 전 세계에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한 죄들 중에 하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수 후에 다시 이와 같은 관습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결혼 제도를 왜곡시키고 그 의무를 약화시키고, 그 신성성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사단은 심사숙고하여 노력해 왔다. 왜냐하면 그가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키고, 불행과 죄악의 문을 여는 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PP 338.1}

대쟁투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품성을 그릇 나타내고, 그분의 율법에 대하여 반역을 선동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다. 이 일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기만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반역하였다. 그러나 악의 활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목적은 차근차근 성취되어 간다. 그분께서는 창조함을 받은 모든 지적(知的) 존재들에게 당신의 공의와 자애를 드러내고 계신다.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하나님의 율법의 범법자들이 되었지만, 그분의 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아버지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각 시대마다 배교와 반역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진실한 백성 곧 마음에 그분의 율법이 있는 백성을 모으신다(사 52:7). {PP 338.2}

사단은 속임수를 써서 천사들을 유혹했다. 그뿐 아니라 그러한 기만을 가지고 그는 각 시대를 통하여 사람들 중에서 그의 사업을 추진시켜 왔으며, 세상 끝까지 이 정책을 쓸 것이다. 만일 그가 공공연하게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에 대하여 싸우고 있다고 공언한다면

사람들이 그를 경계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변장하고, 진리에 오류를 뒤섞는다. 가장 위험한 형태의 거짓은 진리와 혼합되어 있는 거짓이다. 영혼을 사로잡고 파멸시키는 오류는 이렇게 해서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 방법으로 사단은 세상 사람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인다. 그러나 그의 승리가 영원한 패배로 끝날 날이 다가오고 있다. {PP 338.3}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취급하심이 그토록 오랫동안 은밀하게 수행되어온 일의 정체를 완전히 폭로시키게 될 것이다. 사단의 통치의 결과 곧 하나님의 율법을 도외시한 결과가 창조함을 입은 모든 지적 존재자들의 목전에 나타날 것이다. 그 때 하나님의 율법은 온전히 옹호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그분의 백성의 영원한 행복과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들의 행복을 염두에 두고 행해져 왔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사단 자신도 온 우주가 보는 데서 하나님의 정부의 공의와 그분의 율법의 의로움을 고백할 것이다. {PP 338.4}

불원한 장래에 하나님께서 모욕당한 당신의 권위를 옹호하기 위하여 일어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사 26:21).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말 3:2).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선포하시려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그분의 임재의 불타는 영광으로 소멸되지 않도록 그 산에 접근하는 일을 금지당했다.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선택된 장소에 이와 같은 그분의 능력의 현현이 있었거늘 이 신성한 법령들을 집행하시러 오실 때에 그분의 법정은 얼마나 두렵겠는가. 그분의 권위를 유린한 사람들이 최후의 보응의 그 큰날에 그분의 영광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시내산의 공포는 백성들에게 심판의 광경을 보여 주기 위함이었다. 나팔 소리는 하나님과 만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였다. 이와같이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이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산 자와 죽은 자를 그들의 심판자 앞으로 소집할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은 천사들의 무리에 호위되어 산 위에 나타나셨다. 큰 심판의 날에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마 16:27) 오실 것이다. 그분은 그 때에 당신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며, 그분 앞에 모든 민족들이 모일 것이다. {PP 339.1}

거룩하신 분께서 시내산에 나타나셨을 때에 여호와의 영광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멸하는 불같이 보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영광으로 오실 때에 온 세상은 그분의 임재로 말미암는 무서운 빛으로 불타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 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시 50:3, 4)시리라. 열화 같은 불길이 그분 앞에서 흘러나와서 땅의 원소들을 뜨거운 열로 녹이겠고, 지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게 될 것이다.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살후 1:7, 8)라. {PP 339.2}

사람이 창조된 이래 시내산에서 율법이 반포되던 때와 같이 하나님의 권능이 혁혁하게 나타난 적은 결코 없었다.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시 68:8). 천연계의 가장 무서운 격변 가운데 나팔 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구름 속에서 흘러나왔다. 산은 기슭에서 꼭대기까지 흔들렸고, 공포로 창백해지고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굴을 땅에 대었다. 당신의 음성으로 땅을 흔든 여호와께서는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고 선언하셨다.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부르시며 그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발하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히 13:26; 렘 25:30; 욜 3:16)고 기록되었다. 다가오는 그 큰날에는 하늘 자체가 “종이 축이 말리는 것같이”(계 6:14) 떠나갈 것이다. 모든 산들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질 것이다.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의 죄악이 중하므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사 24:20). {PP 340.1}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모든 얼굴이 “창백하여 보”일 것이며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힐 것이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사 13:7, 8, 11, 13; 렘 30:6). {PP 340.2}

모세가 증거의 판을 받았던 산에 계셨던 하나님의 존전을 떠나 내려왔을 때에 죄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을 영화롭게 만든 그 빛을 견딜 수 없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 하늘 군대의 옹위를 받으시며 그분의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분의 율법을 범한 자들과 그분의 속죄를 거부한 자들에게 심판을 집행하려 나타나실 때에 범법자들은 그분을 바라보기가 얼마나 더 어렵겠는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짓밟았던 사람들 곧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계 6:15, 17)라고 말할 것이다.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쥐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사 2:20, 21). {PP 340.3}

그 때에 하나님께 대한 사단의 반역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신하가 되기로 선택한 모든 자들에게 파멸을 초래했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사단은 범죄가 매우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제시해 왔다. 그러나 “죄의 삯은 사망”(롬 6:23)임이 드러날 것이다.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개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말 4:1)다. 모든 죄의 뿌리인 사단과 가지들인 모든 행악자들이 철저하게 끊어짐을 당할 것이다. 죄는 그것이 초래한 모든 재난과 파멸과 함께 끝을 맺을 것이다. 시편 기자는 “악인을 멸하시며 저희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영히 멸망하였나이다”(시 9:5, 6)라고 말한다. {PP 341.1}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폭풍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골 3:16).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 공포와 멸망을 가져오는 그날이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가져다 줄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성도를 내(구역 성경)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벧전 1:8; 시 50:5, 6)라고 말씀하셨다. {PP 341.2}

“그 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말 3:18).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들으라.” “보라 내가 비틀걸음 치게 하는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서 너로 다시는 마시지 않게 하”리라.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여늘 나여늘 너는…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사 51:7, 22, 12).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사 54:10). {PP 341.3}

위대한 구속의 경륜은 이 세상이 완전히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회복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죄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회복된다. 사람뿐 아니라 지구도 구속함을 받아 순종하는 사람들의 영원한 거처가 된다. 6천년 동안 사단은 지구를 계속 점유(占有)하기 위하여 분투해 왔다. 이제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이 성취된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단 7:18). {PP 342.1}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시 113:3).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천하의 왕이 되시리”(슥 14:9)라. 성경은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히 정하신 바”(시 119:89, 111:7, 8)라고 말한다. 사단이 미워하고 멸하고자 노력해 온 거룩한 율법은 죄 없는 우주 전역에서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사 61:11). {PP 342.2}

30장 성막(聖幕)과 그 봉사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산에 머물러 있는 동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출 25:8)으라는 명령과 성막 건축에 관한 완전한 지시를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축복을 상실하였으며, 당분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성소를 건립하는 일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하늘의 은총이 회복된 후 위대한 지도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PP 343.1}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거룩한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부여받았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성소의 구조를 도면으로 보여주시고 그 크기와 형태와 사용할 재료들과 그 안에 비치해야 할 모든 기구에 대하여 상세한 지시를 주셨다. 손으로 지은 성소는 “참 것의 그림자”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히 9:23, 24)이다. 즉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희생 제물로 바치신 후 죄인을 위하여 봉사하기로 되어 있는 하늘 성소의 축소판이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하늘 성소의 광경을 모세 앞에 제시하시고 그에게 보여 주신 식양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라고 명하셨다. 모세는 이 모든 지시를 주의 깊게 기록하여 그것들을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전해 주었다. {PP 343.2}

성소를 건축하기 위하여 많은 준비와 값진 재료들이 필요하였고 다량의 가장 귀중하고 비싼 재료가 요구되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원하는 헌물만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는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출 25:2)으라고 모세를 통하여 회중에게 반복해서 명령하셨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희생의 정신이 지극히 높으신 분을 위한 거처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첫째 필요조건이었다. {PP 343.3}

모든 백성들은 마음을 합하여 응답하였다.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가슴 핀과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왔으되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출 35:21, 22)다. {PP 344.1}

“무릇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베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무릇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자는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무릇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자는 가져”왔다. {PP 344.2}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낳고 그 낳은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베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낳았”다. {PP 344.3}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다(출 35:23~28). {PP 344.4}

성소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백성들 곧 노유를 막론하고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이 헌물을 계속 가져왔다. 마침내 일을 맡은 사람들은 가져온 물건이 넉넉하여 쓰고도 남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모세는 온 진영에 “무론 남녀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출 36:6)고 선포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평과 그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은 후세대를 경고하기 위하여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그들의 헌신과 열성과 너그러운 마음은 본받을 만한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좋아하고 그분의 거룩한 임재의 축복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실 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동일한 희생의 정신을 나타낼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소유물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기를 원할 것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짓는 집은 빚이 남아서는 안 된다. 이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호가 더럽힘을 입는 까닭이다. 교회를 짓는 데도 옛날 성막을 건축하던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더 이상 헌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할 만큼 일을 마치기에 충분한 액수의 돈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드려져야 한다. {PP 344.5}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하는 동안 그것을 분해하여 운반할 수 있도록 건축되었다. 그러므로 그것은 규모가 작은 것으로 길이가 55피트, 너비와 높이가 각각 18피트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장엄한 건물이었다. 성막의 건물들과 그 기구를 만드는 데 쓰인 목재는 아카시아(조각목) 나무였는데 그 나무는 시내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다른 나무보다도 내구성이 강했다. 벽은 곧은 판자로 되었고 은받침에 기둥과 가름대에 의하여 고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금으로 옷 입혀져서 건물이 전부 순금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게 했다. 지붕은 네 벌의 휘장으로 만들어졌는데 제일 안은

“가늘게 꼰 베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출 26:1)었고 다른 셋은 각각 염소 털과 붉은 물을 들인 숫양의 가죽과 해달(海獺)의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완전한 보호 덮개 역할을 할 수 있게 배열되었다. {PP 347.1}

건물은 금으로 싼 기둥에서 드리워진 화려하고 아름다운 휘장으로 두 칸으로 나뉘어졌고 이와 비슷한 휘장이 첫째 칸의 입구를 막고 있었다. 이것들은 천정을 이룬 내부 덮개와 마찬가지로 청색, 자색, 홍색 등 가장 화려한 색깔로 만들어졌는데 아름답게 배합되어 있었다. 그리고 하늘 성소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천사의 무리와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영들인 천사들의 무리를 대표하는 그룹이 금실과 은실로 짜여 있었다. {PP 347.2}

성막은 뜰이라고 불리는 넓은 터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뜰은 놋 기둥에서 늘어진 세마포 휘장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이 울타리의 입구는 동쪽 끝에 있었고 그것은 성소의 휘장보다는 못하지만 비싼 재료와 아름다운 세공으로 된 휘장으로 닫혀 있었다. 뜰의 휘장은 그 높이가 성막 벽의 높이의 절반쯤 되었으므로 밖의 사람들이 그 건물을 잘 볼 수 있었다. 뜰 안에, 문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번제를 위한 놋 제단이 있었다. 이 제단 위에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모든 희생 제물을 불살랐으며 그 제단 뿔에는 속죄의 피를 뿌렸다. 그 제단과 성막문 사이에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즐겨 바친 거울로 만들어진 대야가 있었는데 그것도 놋으로 되었다. 제사장들은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때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제단에 나아갈 때에는 언제나 이 대야에서 그들의 손발을 씻게 되어 있었다. {PP 347.3}

첫째 칸인 성소에는 떡상, 촛대 또는 등대와 향단이 있었다. 떡상은 북쪽에 놓여 있었다. 그 상부에는 면류관 모양의 장식이 있었으며 전부 순금으로 입혔다. 안식일마다 제사장들은 이 상위에 유향이 뿌려진 열두 덩어리의 떡을 두 무더기로 배열하였다. 물려낸 떡 덩어리들은 거룩하다고 생각되어 제사장들이 먹기로 되어 있었다. 남쪽에는 가지가 일곱 개 있는 등대가 있었고 그 위에 일곱 등이 있었다. 그 가지들은 백합화와 비슷한 꽃모양으로 정교하게 세공되었으며 전체가 한 덩어리의 금으로 만들어졌다. 성막에는 창문이 없었고 등불이 일시에 다 꺼지는 일이 전혀 없이 밤낮 빛을 발했다. 성소와 지성소 곧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는 장소를 나누는 휘장 바로 앞에는 금으로 만든 향단이 있었다.

이 단 위에 제사장은 조석마다 향을 피우도록 되어 있었으며 그 뿔은 속죄 제물의 피를 바르게 되어 있었고 대속죄일에는 이 향단에 피를 뿌렸다. 이 단 위의 불은 하나님께서 친히 붙이신 것이며 신성하게 보존되었다. 거룩한 향은 밤낮 없이 성막 전체와 성막의 주위는 물론 원방에까지 그 향기를 풍겼다. {PP 348.1}

안 휘장 뒤에는 지성소가 있었다. 그곳은 속죄와 중보의 상징적 봉사의 중심이 되었다. 그곳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고리를 이루었다. 이 칸에는 법궤 곧 안팎이 금으로 도금되어 있고 꼭대기가 금면류관 장식으로 둘려 있는 아카시아 나무 궤가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십계명을 새기신 돌판의 보관소로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증거궤라고 불렸으며 십계명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체결된 언약의 기초였기 때문에 언약궤라고도 불렸다. {PP 348.2}

거룩한 궤의 뚜껑은 시은좌(속죄소)라고 불렸다. 이것은 한 덩이의 정금으로 만들었고 양쪽 끝에 하나씩 서 있는 정금 그룹들이 그 위에 놓여 있었다. 존경과 겸손의 표시로서 각 천사의 한쪽 날개는 높이 쳐들려 있었고 다른 쪽 날개는 몸 위에 접히어 있었다.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고 경건하게 머리 숙여 법궤를 내려다보는 그룹의 자세는 하늘 천사의 무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가지는 존경과 구속의 경륜에 대한 그들의 관심을 나타냈다. {PP 348.3}

속죄소 위에는 쉐키나 곧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현현인 영광의 광채가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룹 사이에서 당신의 뜻을 알려 주셨다. 하나님의 기별은 때때로 구름 속에서 들리는 소리를 통해 대제사장에게 전달되었다. 때로는 바른쪽 천사 위에 빛이 비치어 시인 또는 가납을 표하고, 왼쪽 천사에게 그늘이나 구름이 머물러서 불가 또는 거부를 나타냈다. {PP 349.1}

법궤 속에 안치된 하나님의 율법은 의와 심판의 대 원칙이었다. 그 율법은 위반자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그 율법 위에 속죄소가 있었고 그 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으며, 거기로부터 속죄의 공로로 말미암아 회개한 죄인에게 사유하심이 허락되었다. 이와 같이 성소의 봉사로 상징된, 우리의 구속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업 가운데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시 85:10)다. {PP 349.2}

성소 안에 나타난 영광스러운 광경은 말로써 묘사할 수 없었다. 황금 촛대에서 비치는 빛을 반사하는 순금으로 입혀진 벽들과, 찬란한 천사들을 훌륭하게 수놓은 빛나는 커튼의 찬란한 색조, 금빛으로 번쩍이는 떡상과 향단, 둘째 휘장 너머의 거룩한 법궤와 신비한 그룹들, 그 위의 쉐키나 곧 여호와의 임재의 가시적(可視的) 현현(顯現), 이 모든 것은 인간의 구속을 위한 사업의 중심이 되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들의 희미한 반영에 지나지 않았다. {PP 349.3}

성막을 짓는 데 약 반년이 걸렸다.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에 모세는 건축자들이 만든 모든 것을 조사하고 그것을 시내산에서 그에게 보이신 모형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시와 비교하였다. “모세가 그 필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출 39:43). 이스라엘 군중들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거룩한 건물을 보기 위하여 그 주위에 모여들었다. 그들이 경건하고 만족스런 마음으로 그 광경을 응시하고 있을 때에 구름기둥이 성소 위로 떠올랐다가 내려와 그것을 덮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출 40:34)였다.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나 있었으므로 한동안 모세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다. 백성들은 깊이 감동되어서 그들의 손으로 만든 성소가 가납된 증거를 보았다. 거기에는 기뻐 훤화하는 일도 없었다. 모든 사람에게 엄숙한 두려움이 임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즐거움이 기쁨의 눈물을 자아냈으며 그들은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거하시겠다는 허락을 주신 데 대해 진심에서 나오는 감사의 말을 낮은 음성으로 중얼거렸다. {PP 349.4}

하나님의 명령으로 레위 족속은 성소 봉사를 위하여 구별되었다. 고대 사회에서는 모든 남자는 자기 가족의 제사장이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제사장 직분은 장자의 상속권으로 간주되었다.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에 성소의 일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레위 족속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이런 현저한 명예를 그들에게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로 배교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고수하고 당신의 형벌을 집행하는 일에 있어서 그 나타낸 성실성을 인정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셨다. 그러나 제사장의 직분은 아론의 가족에 국한되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이 여호와 앞에서 봉사하도록 허락되었다. 그 지파의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성막과 그 기구를 관리하는 책임이 맡겨졌다. 그들은 제사장들이 봉사할 때에 시중을 들어야 하였으나 희생 제물을

드리거나, 향을 피우거나, 성막이 덮일 때까지는 거룩한 것들을 보아서는 안 되었다. {PP 350.1}

그들의 직무에 따라 특별한 복장이 제사장들을 위하여 지정되었다.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출 28:2)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셨다. 보통 제사장의 예복은 흰 세마포로 만들어졌으며 통으로 짰다. 그것은 거의 발에까지 늘어졌고 청색, 자색, 홍색실로 수놓은 흰 세마포 띠로 허리를 둘렀다. 그리고 세마포 두건을 쓰면 완전한 복장이 되었다.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그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와 같이 제사장들은 신을 신고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그들의 발에 묻은 미량의 먼지들이 성소를 더럽힐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신을 벗어 뜰에 두도록 되어 있었고 또 성막에서나 번제단에서 봉사하기 전에 그들의 손발을 씻기로 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더러움도 제거되어야 한다는 교훈이 계속 가르쳐졌다. {PP 350.2}

대제사장의 의복은 그의 높은 지위에 적합하게 값진 재료로 아름답게 만든 것이었다. 대제사장은 보통 제사장이 입는 세마포로 짠 의복 외에 역시 통으로 짠 푸른 의복을 입었다. 옷자락 둘레에는 금방울들이 달려 있었고 청색, 자색 그리고 홍색의 석류 무늬가 수놓여 있었다. 이 밖에 금색, 청색, 자색, 홍색과 백색으로 된 짧은 옷인 에봇이 있었다. 그것은 같은 색깔로 아름답게 만들어진 띠로 묶도록 되어 있었다. 에봇에는 소매가 없고 금실로 수놓은 견대(肩帶)에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호마노 두 개가 붙어 있었다. {PP 350.3}

에봇 위에는 흉패가 있었다. 그것은 제사장의 제복 중에서 가장 신성한 부분이었다. 이것은 에봇과 같은 재료로 만들어졌고 그 모양은 사방이 모두 한 뼘이 되는 정방형이었으며 금고리에 꿰어진 푸른 끈으로 어깨에서 늘어뜨렸다. 그 가장자리는 하나님의 도성의 열두 기초와 같은 다양한 보석들로 이루어졌다. 그 사각형 안에는 견대에 있는 것들과 같이 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진, 금에 물린 열두 보석들이 네 줄로 배열되어 있었다. 여호와의 명령은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출 28:29)는

것이었다. 그와 같이 크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서 그분의 피로 탄원할 때에 회개하고 믿는 각 영혼의 이름을 그분의 마음에 지니신다. 시편 기자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 40:17)신다고 말한다. {PP 351.1}

흉패의 좌우에 찬란하게 빛나는 두 큰 보석이 있었다. 이것들은 우림과 둠밈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알려졌다. 여호와 앞에 결정을 구하는 문제가 제출되었을 때에 빛이 바른쪽에 있는 보석을 둘러싸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동의 혹은, 승인하신다는 표이며 구름이 왼쪽 보석을 둘러싸면 그것은 거부 또는, 불찬성의 증거이었다. {PP 351.2}

대제사장의 관은 흰 세마포 두건으로 만들었으니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긴 금판이 청색 끈으로 매여 있었다. 제사장들의 복장과 태도에 관한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에 대한 예배의 신성함과 그분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성결함을 깨닫고, 보는 사람에게 감명을 줄 만한 것이라야 하였다. {PP 351.3}

성소 자체뿐 아니라 제사장들의 봉사도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히 8:5)의 구실을 해야 하였다. 이와 같이 그것은 매우 중대하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예표적 봉사의 하나하나에 대하여 매우 분명하고 자세한 지시를 주셨다. 성소의 봉사는 매일의 봉사와 연례적인 봉사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매일의 봉사는 성막의 뜰에 있는 번제단과 성소에서 수행되었고, 연례적인 봉사는 지성소에서 거행되었다. {PP 351.4}

대제사장 외에는 어떤 사람도 성소의 안쪽 칸을 들여다보아서는 안 되었다. 대제사장도 오직 일년에 단 한 번만 그 곳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것도 몹시 조심스럽고 엄숙하게 준비를 갖춘 후에 들어갈 수 있었다. 대제사장은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존전에 들어갔으며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열심히 간구하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엄숙한 침묵으로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대제사장은 속죄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구름 속에서 그와 만나셨다. 그가 보통 때보다 그 곳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백성들은 그들의 죄나 대제사장 자신의 죄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죽임을 당하지나 않았을까 하는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PP 352.1}

매일의 봉사는 조석으로 드리는 번제와 금향단에 향기로운 향을 드리는 일과 개인들의 죄를 위한 특별한 제사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외에 또 안식일과 월삭과 특별한 절기를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있었다. {PP 352.2}

조석마다 일년 된 어린양을 적당한 소제물과 함께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이것은 그 민족이 매일 여호와께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에 끊임없이 의지한다는 것을 상징하였다. 성소의 봉사를 위하여 드려지는 제물은 모두 "흠(이) 없"(출 12:5)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명령하셨다. 제사장들은 희생 제물로 가져온 모든 짐승들을 검사하여 흠이 발견되는 것은 모두 거절해야 했다. "흠 없"는 제물만이 자신을 "흠 없고 점 없는 어린양"(벧전 1:19)으로 바치시기로 되어 있는 그분의 완전한 순결을 상징할 수 있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설명하는 실례로서 이 희생 제물들을 지적하였다. 그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롬 12:1)고 말하였다. 우리는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자신들을 바쳐야 하며 될 수 있는 대로 거의 완전한 제물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보다 못한 것은 무엇이든지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다. 온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생애의 최선의 봉사를 그분께 드리고자 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촉진시켜 주는 율법과 일치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그들의 모든 힘을 경주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PP 352.3}

제사장이 향을 드릴 때에 매일의 봉사 중 다른 어떤 행위에서 보다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하였다. 성소 내부의 휘장이 건물 천장에까지 닿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속죄소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부분적으로 첫째 칸에서도 볼 수 있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분향할 때에 법궤 있는 쪽을 바라보았다. 향연이 올라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은 속죄소 위에 내려와 지성소를 채웠으며 때로는 두 칸을 다 채웠으므로 제사장은 부득불 성막 문에까지 물러서야 하는 일도 있었다. 상징적 봉사에서 제사장이 그가 볼 수 없었던 속죄소를 믿음으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하늘 성소에서 그들을 위하여 탄원하시는 대제사장 그리스도께 지금 저들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 {PP 353.1}

이스라엘의 기도와 함께 올라가는 향연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 곧 그분의 완전한 의를 표상하며 그것은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백성에게 전가(轉嫁)된다. 그것만이 죄 많은 인간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가납될 수 있도록 한다. 지성소의 휘장 앞에는 끊임없는 중보의 제단이 있었다. 성소 앞에는 끊임없는 속죄의 제단이 있었다. 피와 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접근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들은 크신 중보자를 가리키는 상징들이었다. 그분을 통해서 죄인들은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으며 그분을 통해서만 자비와 구원이 회개하고 믿는 영혼에게 허락될 수 있다. {PP 353.2}

제사장들이 조석으로 분향할 시간에 성소에 들어갔을 때 매일 드리는 희생 제물이 바깥뜰에 있는 제단 위에 드려지도록 준비되어 있었다. 이 때는 성막에 모였던 예배자들이 가장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시간이었다. 그들이 제사장의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열심히 그들의 마음을 살피고 죄를 자복하는 일을 해야 하였다. 그들은 얼굴을 성소로 향하고 묵상함으로 연합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이 믿음으로 속죄의 희생으로 예표된 약속된 구주의 공로를 굳게 붙잡는 동안 그들의 탄원은 향연과 같이 올라갔다. 조석으로 드리는 제사를 위하여 정해진 시간들은 거룩하게 여겨져서 그 시간은 유대 민족 전체를 통하여 예배를 위한 정한 시간으로 지켜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 후에 유대인들이 포로가 되어 먼 지방으로 흩어졌을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그 정한 시간에 그들의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탄원을 올렸다. 이러한 관습은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조석 예배의 표본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대한 진정한 정신이 없이 단순히 의식만을 반복하는 것을 정죄하시지만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필요한 축복을 간구하기 위하여 조석으로 머리 숙이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큰 기쁨으로 바라보신다. {PP 353.3}

진설병은 항상 드리는 제물로서 여호와 앞에 늘 놓여 있었다. 그렇게 함으로 그것은 매일 드리는 제물의 일부가 되었다. 그것은 여호와의 면전에 항상 있으므로 “진설병”(차려 놓는 떡)이라고 불렸다(출 25:30 참고). 그 떡은 사람이 영적 양식과 육신의 양식 모두를 주께 의존한다는 것과 또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만 그것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였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하늘에서 떡을 내리사 그들을 먹이셨으며 그들은 영적 축복과 육신의 양식을 그분의 관대하심에 계속 의존하고 있었다.

만나와 진설병은 둘 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항상 계시는 산 떡 곧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분은 친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요 6:48~51)라고 말씀하셨다. 떡 위에는 유향이 있었다. 매 안식일 있던 떡을 물리고 새 떡을 차려놓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념물로서 제단 위에서 유향을 태웠다. {PP 354.1}

매일의 봉사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개인들을 위하여 수행하는 봉사이었다. 회개하는 죄인은 자기의 제물을 성막 문으로 가져와서 그 희생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들을 고백하였다. 이 상징적인 행위에 의하여 죄는 그에게서 흠 없는 제물에게 옮겨갔다. 그는 자기의 손으로 그 짐승을 죽였고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죄인이 범한 신성한 율법이 들어 있는 법궤 앞에 있는 휘장 앞에 뿌렸다. 이 의식에 의하여 그 죄는 피를 통하여 상징적으로 성소에 옮겨졌다. 어떤 경우에는 피를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다. 그럴 때에는 모세가 아론의 아들들에게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속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레 10:19)고 명령한 것처럼 그 고기는 제사장이 먹어야 했다. 이 두 의식은 다 같이 죄가 회개하는 죄인에게서 성소로 옮겨짐을 상징하였다. {PP 354.2}

이런 것은 연중 매일 진행되는 봉사였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죄가 성소로 옮겨져 성소가 더럽혀졌으므로 이 죄를 제거할 특별한 일이 필요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와 지성소의 각 칸을 위하여 속죄하라고 명령하셨으며 제단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레 16:17)라고 하셨다. {PP 355.1}

일 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갔다. 지성소에서 거행된 이 봉사로 연중 일체의 봉사가 완결되었다. {PP 355.2}

대속죄일에 두 염소 새끼를 성막 문으로 끌어 왔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아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였다. 먼저 뽑힌 염소는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로 죽임을 당해야 하였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 피를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속죄소 위에 뿌리게 되어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레 16:16). {PP 355.3}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레 16:21, 22). 이와 같이 염소가 광야로 끌려가 버려지기 전까지는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들의 죄짐에서 벗어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속죄 사업이 진행될 동안 각 사람은 그의 영혼을 괴롭혀야 하였다. 모든 일을 중지하고 온 이스라엘 회중은 기도와 금식과 마음의 깊은 반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그날을 보냈다. {PP 355.4}

백성들은 이 연례적 봉사로 속죄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배웠다. 일 년 동안 드려지는 속죄제를 통해 죄인을 대신하여 대치물이 가납되어졌지만 그 희생 제물의 피가 죄를 완전히 속죄하지 못했다. 그것은 다만 죄가 성소로 옮겨지는 방편을 제공한 것뿐이었다. 피를 드리는 제사로 죄인은 율법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신의 범죄를 고백하는 동시에 세상 죄를 지고 가시기로 되어 있던 그분께 대한 믿음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그가 율법의 선고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니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회중을 위한 한 제물을 취하여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율법이 기록된 돌비 위에 있는 속죄소에 뿌렸다. 이와 같이 하여 죄인의 생명을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중보자의 신분으로 그 죄를 자기가 지고 성소에서 나옴으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짐을 지게 되었다. 그는 성막 문에서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뽑은 염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었다. 그리고 죄를 담당한 이 염소가 광야로 보내어졌을 때 죄가 백성에게서 영원히 분리된 것으로 그들은 생각하였다. 이와 같은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히 8:5)로서 수행한 봉사이었다. {PP 355.5}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지상 성소는 하나님께서 보여 주신 식양대로 모세에 의하여 건축되었다. 그것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이었다. 그것의 두 거룩한 곳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었으며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 그리스도는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히 9:9, 23, 8:2). 사도 요한은 계시 중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볼 수 있는 허락을 받았다. 그 때에 그는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을 보았다. 그가 보니 한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계 4:5, 8:3). 여기서 예언자는 하늘에 있는 성소의 첫째 칸을 보도록 허락받았다. 거기서 그는 지상 성소에서 금 촛대와 향단으로 예표된 “일곱 등불”과 “금 단”을 보았다.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을 때 그는 안쪽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를 보았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넣어 두기 위해 모세가 만든 거룩한 궤로 대표된 “하나님의 언약궤”(계 11:19)를 보았다. {PP 356.1}

모세는 “저가 본 그 식양대로” 지상 성소를 만들었다. 사도 바울은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이 완성되었을 때에 그것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행 7:44; 히 9:21, 23)이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요한은 하늘에 있는 성소를 보았다고 말했다.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성소는 참 성소이며 모세가 지은 성소는 그것의 모형이었다. {PP 357.1}

만왕의 왕께서 거하시는 하늘의 성전에는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이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단 7:10), 그 성전은 영원한 보좌의 영광으로 충만하였다. 빛나는 수호자인 스랍들이 경외심을 가지고 그들의 얼굴을 가리는 그 곳은 지상의 어떠한 건물을 가지고도 그 크기와 영광을 나타낼 수 없다. 그러나 하늘 성소에 관한 중요한 진리와 사람의 구속을 위하여 거기서 행해지는 위대한 사업은 지상 성소와 그 봉사에서 배울 수 있었다. {PP 357.2}

우리의 구주께서는 승천하신 후에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그 곳에서 당신의 사업을 시작하시기로 되어 있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히 9:24)다고 하였다. 그리스도의 봉사가 두 큰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하늘 성소에서 각 봉사마다 일정한 시간과 구별된 장소를 가지는 것처럼 이 지상의 예표적인 봉사도 매일의 봉사와 연례적인 봉사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고 각 봉사에 성막의 한 칸씩이 바쳐졌다. {PP 357.3}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회개한 신자를 위해 자기의 피로 탄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는 것처럼 제사장도 매일의 봉사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희생 제물의 피를 성소에 뿌렸다. {PP 357.4}

그리스도의 피가 회개한 죄인을 율법의 정죄에서 풀어 줄 것이었지만 죄를 완전히 없이하지는 못할 것이었다. 그 죄는 최종적 속죄 때까지 성소의 기록에 남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모형에 있어서도 속죄 제물의 피는 회개한 사람에게서 죄를 제거하였으나 그것은 속죄일까지 성소에 남아 있었다. {PP 357.5}

최후의 보상의 큰 날에 죽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계 20:12)을 것이다. 그 때에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로 말미암아 회개한 모든 사람의 죄가 하늘 책에서 도말된다. 이와 같이 하여 성소는 죄의 기록에서 해방 혹은 정결케 되는 것이다. 모형에 있어서 이 속죄의 대사업 곧 죄를 도말하는 일은 대속죄일의 봉사 곧 속죄 제물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성소를 더럽혀 왔었던 죄를 제거함으로써 성취된 성소의 정결로 예표되었다. {PP 357.6}

최후의 속죄 때에 진심으로 회개한 자의 죄가 하늘의 기록에서 도말되고 다시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 않게 되어 있는 것과 같이 그 상징에 있어서도 죄는 회중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 광야로 옮겨지게 되었던 것이다. {PP 358.1}

사단은 죄의 창시자이었으며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의 원인이 된 모든 죄의 선동자이었으므로 공의는 사단이 최종적 벌을 받을 것을 요구한다. 사람의 구속과 우주를 죄에서 정결하게 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사업은 하늘 성소에서 죄를 제거하고 마지막 형벌을 받게 될 사단에게 이 모든 죄를 돌리므로 끝나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이 모형적 봉사에 있어서도 연중 봉사는 성소의 정결과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뽑은 염소의 머리 위에 죄를 고백함으로 끝났다. {PP 358.2}

이리하여 성막과 후에 그 대신 세워진 성전의 봉사에서 백성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봉사에 관한 위대한 진리를 배웠고 해마다 한 번씩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의 종국의 사건들 곧 우주에서 죄와 죄인들을 최종적으로 제거하는 사건에 그들의 마음이 이끌려갔다. {PP 358.3}

31장 나답과 아비후의 죄

성막을 봉헌한 후에 제사장들은 그들의 거룩한 직무를 위하여 성별되었다. 이 예식들은 7일간이나 걸렸고, 각 날마다 특별한 의식들이 행해졌다. 제8일에 그들은 그들의 봉사를 시작했다. 아론은 아들들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희생 제물을 드렸고, 손을 들어 백성을 축복하였다. 모두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대로 이루어졌다. 그분은 그 희생 제물을 가납하셨으며, 특별한 방법으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으니, 곧 불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 제단 위의 제물을 사르었다. 백성들은 경외심과 열렬한 관심을 가지고, 이같은 하나님의 능력의 놀라운 현현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의 증거를 보았고, 다 한결같이 찬양과 존경의 함성을 올렸으며, 여호와의 존전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얼굴을 가리고 엎드렸다. {PP 359.1}

그러나 얼마 후에 갑작스럽고 무서운 재화가 대제사장의 가정에 이르러 왔다. 경배를 드리는 시간, 곧 백성들의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을 때에, 아론의 두 아들들은 각각 자기의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불태워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올라가게 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불”을 사용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점화하시고, 이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명하신 신성한 불 대신에 보통의 불을 취하여 분향하였다. 이 죄로 인하여 불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서 백성이 보는 데서 그들을 사르어 버렸다. {PP 359.2}

나답과 아비후는 모세와 아론 다음으로 이스라엘 중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다. 여호와께서는 특별히 그들을 높이사 70인의 장로들과 함께 산에서 그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었다. 그러나 그들의 범죄는 그렇다고 해서 용서되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될 것이 아니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의 죄를 한층 더 중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이 큰 빛을 받고,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처럼, 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분의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할 특권을 받았었다는 이유로, 그 후에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을 수 있으며 그처럼 높임을 받은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엄격히 형벌하시지 않으시리라고 스스로 믿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생각은 치명적인 기만이다. 주어진 큰 빛과 특권은, 주어진 빛에 상응하는 미덕과 거룩함을 요구한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가납하실 수 없으시다. 큰 축복이나 특권에 취하여 방심하거나 부주의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들이 결코 죄에 방종하게 하거나 그러한 축복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격하게 하시지 않으시리라는 느낌을 가지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이점들은 그분의 거룩한 뜻을 실행하는 일에 열렬한 정신과 끈질긴 노력과 불어넣어 주신 그분의 방편들이다. {PP 359.3}

나답과 아비후는 유년 시절에 자제하는 습관에 대하여 훈련을 받지 않았다. 아버지의 우유부단한 기질과 정의에 대한 확고부동함의 결핍이 그로 하여금 그의 자녀들의 훈련을 등한히 하게 하였다. 그의 자녀들은 그들의 성향대로 하도록 방임되었다. 오랫동안 자라온 방종의 습관이 그들을 굳게 붙잡고 있었으므로 그들이 받은 가장 신성한 직무까지도 그들의 방종을 깨뜨릴 힘이 없었다. 그들은 아버지의 권위를 존경하도록 가르침을 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요구를 엄격히 순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자기 아들들에 대한 아론의 잘못된 관용이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PP 360.1}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존경과 경외심을 가지고 그분 자신이 지시하신 방법대로, 그분에게 가까이 나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계획하셨다. 그분은 부분적인 순종을 가납하실 수 없으시다. 이 엄숙한 예배 시간에 그분께서 지시하신 것이 거의 다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넉넉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명을 떠나,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선언하셨다. 그분은 선지자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을 흑암으로 삼으며...그들은 화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사 5:20~24). 하나님의 계명의 어느 부분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믿거나, 또 그분은 자기가 요구하신 것의 대용품도 받으실 것이라고 믿으므로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않도록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는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하는”(애 3:37)고 하고 말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 속에 사람들이 그를 마음대로 순종해도 되고 불순종해도 되는 명령 곧 그 결과를 당치 않을 수도 있는 명령은

하나도 하지 않으셨다. 사람들은 엄격한 순종의 길 외에 다른 길을 택하면, “필경은 사망의 길”(잠 14:12)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PP 360.2}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라…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레 10:6, 7). 위대한 지도자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레 10:3)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형 아론에게 상기시켰다. 아론은 말이 없었다. 아무런 경고도 없이 돌연히 그의 아들들의 죽음을 가져온 그처럼 무서운 죄가 자신의 의무를 태만히 한 결과임을 안 아버지의 마음은 격심한 고민으로 고통을 당하였으나, 그는 자기의 감정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는 슬픔을 나타냄으로 죄를 동정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되었다. 회중은 그 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도록 인도되어서는 안 되었다. {PP 361.1}

여호와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도록, 당신의 백성에게 당신의 징계의 공의로움을 깨닫도록 가르치고자 하셨다. 이 무서운 심판이 경고가 되어 하나님의 참으심을 경히 여김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구원함을 받을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 죄를 변명하려고 노력하는 죄인에 대한 거짓된 동정심에 대해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 도덕적 지각력을 무디게 하는 것은 죄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악을 행하는 사람은 범죄의 흉악성을 깨닫지 못한다. 그리고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능력이 없이는, 자기의 죄에 대하여 알지 못한 채로 남아 있게 된다.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위험을 보여 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종들의 의무이다. 죄의 참 성질과 결과에 대하여 죄인들의 눈을 어둡게 함으로 경고의 감화를 말살시키는 사람들은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동정적인 사람이라는 증거를 보여 준다고 우쭐해 한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정면으로 반대하고 방해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은 죄인을 멸망의 벼랑 위에서 쉬도록 달래고 있다. 그들은 스스로 그의 죄의 분담자가 되어, 그가 회개하지 않는 데 대한 무서운 책임을 초래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되고 기만적인 동정의 결과로 멸망당하고 있다. {PP 361.2}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이 범죄하기 전에 술에 취해 있지 않았더라면, 이 치명적 죄를 결코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났었던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주의 깊고 엄숙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부절제로 인하여 거룩한 직무를 수행할 자격을 잃어버렸다. 그들의 정신이 혼란하게 되고, 그들의 도덕적 식별력이 둔하여져서, 그들은 신성한 것과 속된 것의 차이를 통찰할 수 없었다. 아론과 그의 살아남은 아들들에게 경고가 주어졌다. “너나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레 10:9~11). 주정음료의 사용은 신체를 약하게 하고 정신을 혼란시키고, 품행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사물의 신성성과 하나님의 요구의 중대성을 깨닫지 못하게 만든다. 거룩한 책임과 관련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자들은 모두 다 엄격히 절제하는 자들이 되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두뇌와 공평하게 다스리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확고한 원칙과 지혜를 소유하여야 한다. {PP 361.3}

그와 같은 의무가 모든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에게 지워져 있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벧전 2:9)이라고 언명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능력을 가능한 최선의 상태로 보존하여 우리의 창조주께서 받으실 만한 봉사를 하도록 요구하신다. 주정음료를 사용했을 때에는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의 경우와 같은 결과가 따를 것이다. 양심은 죄에 대한 감수성을 잃어버리고 서서히 마비되어 속된 것과 신성한 것의 차이를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 6:19, 20, 10:31, 3:17). 각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에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는 엄숙하고도 두려운 경고가 주어져 있다. {PP 362.1}

32장 율법과 언약

아담과 하와는 창조함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율법의 요구를 알았고 그 교훈은 그들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었다. 사람이 범죄로 인하여 타락하였을 때 율법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인류를 돌이켜 다시 그 율법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원의 제도가 마련되었다. 구주의 약속이 주어졌고 큰 속죄 제물로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키는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도가 세워졌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지 않았더라면 죽음도, 구주의 필요도 없었을 것이며, 따라서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PP 363.1}

아담은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고 이 율법은 그 후에 이어진 세대들을 통하여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전달되었다. 그러나 사람의 구속을 위한 은혜스러운 준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여 순종하는 사람들은 적었다. 범죄로 인하여 세상이 매우 악하게 되었으므로 홍수로 세상을 부패로부터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율법은 노아와 그 가족에 의하여 보존되었고 노아는 그의 자손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쳤다.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고 선언하셨다. 그에게 할례의 의식을 주셨는데 이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신을 헌신했다는 표 즉 우상숭배에 가담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겠다는 서약이었다. 이방인들과 동맹을 맺고 그들의 습관을 본받는 기질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 서약을 지키지 못했고 이로 인해 그들은 애굽에 체류하여 종살이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상 숭배자들과의 교제와 강압으로 애굽 사람들에게 굴종하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교훈은 이교의 악하고 잔인한 가르침에 의하여 더욱 더럽혀졌다. 그런고로 여호와께서 저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을 때에 영광에 둘러싸이시고 천사들에게 호위되시어 매우 위엄스러운 모습으로 시내산에 강림하사 온 백성이 듣는 가운데서 당신의 율법을 말씀하셨다. {PP 363.2}

여호와께서는 그 때에도 당신의 요구를 잘 잊어버리는 백성의 기억력에 당신의 교훈을 의탁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돌비에 기록하셨다. 그분은 이방인의 전통과 당신의 거룩한

교훈이 섞이거나 인간의 의식이나 습관과 그분의 요구가 혼동될 모든 가능성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제거해 버리시려 하셨다. 그러나 그분은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으로 그치지 않으셨다. 백성들은 저희가 그처럼 쉽게 타락한다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 보였으므로 여호와께서는 어떠한 유혹의 문호도 경계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상세한 교훈을 주는 율례와 법도를 기록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인간 상호간의 의무와 이방인에 대한 의무에 관한 이 지시들은 십계명의 원칙이 확대된 것에 지나지 않았으며, 아무도 오해할 필요가 없을 만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주어졌다. 그것들은 돌비에 새겨진 열 교훈들의 신성함을 수호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이다. {PP 364.1}

만일 사람이, 타락한 후에 아담에게 주셨고, 노아가 보존했고, 아브라함이 준수했던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지켰더라면 할례 의식은 조금도 필요 없었을 것이다. 만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할례가 그 표징이 된 언약을 지켰더라면 그들은 우상숭배에 유혹당하지 않았을 것이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의 고통을 겪을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간직하고 있었더라면 시내산에서 율법이 선포되거나 또한 그것이 돌비에 새겨질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이 십계명의 원칙들을 실천했더라면 모세에게 주어진 부가적 지시의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PP 364.2}

아담에게 위임된 희생 제도도 그의 후손들에 의하여 왜곡되었다. 미신, 우상숭배, 잔인, 방탕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단순하고도 의미심장한 봉사를 부패시켰다. 우상숭배자들과의 오랜 교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이교의 습관들을 그들의 예배에 혼합시켰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희생 제사에 관한 명확한 지시를 주셨다. 성막이 완성된 후 그분은 속죄소 위에 나타난 영광의 구름 속에서 모세와 교통하시고 제사 제도와 성소에서 유지되어야 할 예배 형식에 관한 완전한 지시를 그에게 주셨다. 이와 같이 모세는 의식에 관한 율법을 받아 책에 기록하였다. 그러나 시내산에서 반포된 십계명은 두 돌비에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기록되어 법궤 안에 거룩하게 보관되었다. {PP 364.3}

의문의 율법(ceremonial law)에 대한 성경절을 도덕적 율법(moral law)이 폐지되었다는 증거로 사용함으로 이 두 율법을 혼돈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다. 이 두 제도 사이의 차이는 너무나 뚜렷하고도 명백하다. 이 의식의 제도는 그리스도 즉,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제사장 직분을 가리키는 상징들로 구성되었다. 이 의문의 율법은 그 희생 제도와 규례(規例－ordinance)와 함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형이 실물을 만날 때까지 히브리 사람들에 의하여 이행되어야 할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 모든 희생 제물들을 바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골 2:14)신 율법이다. 그러나 십계명의 율법에 대하여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시 119:89)나이다 라고 선언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마 5:17, 18)고 가능한 한 크게 강조하여 주장하셨다. 여기서 그분은 과거에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어떠했으며 그 당시에 어떠했는지를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이 요구는 천지가 존속하는 한 보존되리라는 것을 가르치셨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의 보좌와 같이 변하지 아니한다. 그것은 각 시대를 통하여 인류에게 율법의 요구를 주장할 것이다. {PP 365.1}

시내에서 선포된 율법에 관해 느헤미야는 "주께서…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저희와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저희에게 주"(느 9:13)셨다고 말했다. "이방의 사도" 바울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롬 7:12)고 선언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십계명이다. 왜냐하면 "탐내지 말라"고 명하는 것은 바로 그 율법이기 때문이다. {PP 365.2}

구주의 죽으심으로 표상과 그림자가 되는 율법은 종언을 고했지만 도덕적 율법의 의무는 조금도 줄지 않았다. 정반대로 이 율법을 위반한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했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은 불변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PP 365.3}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폐지하시고 구약을 없이하시려 오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의 시대를 암흑시대로 말하고 히브리 사람들의 종교가 단순히

형식들과 의식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나타낸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민을 어떻게 취급하셨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거룩한 역사의 모든 페이지에는 위대하신 스스로 계신 분의 자취가 강렬하게 나타나 있다. 하나님께서 홀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인정을 받으시고 자기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보다 더 사람의 아들들에게 당신의 능력과 영광을 활짝 나타내 보이신 적은 결코 없으셨다. 여기에 초인간적 손에 의해 휘둘러지는 홀(笏)이 있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왕의 행차는 말할 수 없이 장엄하고 엄숙하였다. {PP 365.4}

이 모든 하나님의 임재의 계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다. 구주의 강림뿐 아니라 타락과 구원의 약속 이후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고후 5:19)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족장 시대뿐 아니라 유대 국가 시대에도 희생 제도의 기초요 중심이셨다. 우리의 첫 조상이 범죄한 후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직접적인 교통이 없었다.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분의 율법의 권위와 신성성을 옹호하시도록 그리스도의 손에 세상을 맡기셨다. 하늘과 타락한 족속 사이의 모든 교통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져 왔다. 우리의 첫 조상에게 구속을 약속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었다. 족장들에게 친히 나타나신 분도 그분이셨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모세는 다 복음을 이해하였다. 저들은 인간의 대치물이시요 보증인이신 분을 통해 구원을 바라보았다. 이 고대의 성인들은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시기로 되어있던 구주와 교제하였고 그들 중에 몇 명은 그리스도와 하늘 천사들과 대면하여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PP 366.1}

그리스도께서는 광야에 있던 히브리 사람들의 인도자 곧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신 천사로서 구름기둥에 둘려 군중들의 선두에 서서 가셨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분이셨다. 시내산의 두려운 영광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의 율법의 열 가지 교훈을 모든 백성들이 듣는 가운데서 선포하셨다. 돌비에 새겨진 율법을 모세에게 주신 분도 그분이셨다. {PP 366.2}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분의 백성에게 말씀하신 분은 그리스도시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벧전 1:10, 11)고 말하였다. 구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는 그리스도의 음성이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계 19:10). {PP 366.3}

예수께서는 육신으로 사람들 중에 계시면서 가르치실 때에 백성들의 마음을 구약 성경으로 향하게 하셨다. 그분은 유대 사람들에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요 5:39)고 말씀하셨다.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고 선언하셨다. 그분은 덧붙여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눅 16:31)고 말씀하셨다. {PP 367.1}

의문의 율법 역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다. 그것이 더 이상 지켜지지 않게 된 후에도 바울은 그것이 구속의 경륜 가운데서 차지하는 자리와 그리스도의 사업과의 관계를 보이면서 유대 사람들 앞에 그것의 참 위치와 가치를 나타내 보였다. 위대한 사도는 이 율법이 영광스럽고 그것이 거룩하신 창시자에게 중요한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성소의 엄숙한 봉사는 각 세대를 통하여 나타나야 할 장엄한 진리를 예표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와 함께 올라가는 향연은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가납하실 수 있게 해주는 그분의 의를 나타낸다. 제단 위에 드린 피가 흐르는 희생 제물은 오실 구세주를 증거하였으며 지성소로부터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비쳐 나왔다. 그리하여 암흑시대와 배교의 시대를 통하여 허락하신 메시야가 초림하시는 때가 이를 때까지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간직되어 살아남아 있었다. {PP 367.2}

예수께서는 인류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시기 전에 당신의 백성의 빛 곧 세상의 빛이셨다. 세상을 둘러싼 죄악의 어둠을 꿰뚫은 최초의 섬광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왔다. 땅의 거민들에게 비친 모든 하늘의 빛줄기는 그분에게서 왔다. 구속의 경륜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시요 처음과 나중이시다. {PP 367.3}

구주께서는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히 9:24)러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 후부터는 빛이 갈바리의 십자가와 하늘 성소에서 흘러나왔다.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된 보다 더 밝은 빛이 우리로 하여금, 고대 세계 사람들이 오실 구주를 가리키던 예표들을 통하여 받았던 것을 멸시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 제도에 빛을 비춰 주고 의문의 율법에 의미를 부여해 준다. 새로운 진리가 나타나고 태초부터 알려져 있던 것이 더 분명해질 때에 하나님의 선민을 취급하시는 그분의 품성과 목적이 명백하게 나타난다. 우리가 추가로 받는 모든 새로운 광선마다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속의 경륜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해준다. 우리는 영감을 통해 주신 말씀에서 새로운 아름다움과 힘을 발견하고 그 모든 페이지들을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다. {PP 367.4}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사람들과 외부 세계 사이에 분리의 장벽을 두시고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는 당신의 보호와 사랑을 무척 제한하시고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집중적으로 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자신들과 그들의 이웃 사이에 장벽을 세우도록 계획하지 않으셨다. 사랑이 무한하신 분의 마음은 땅의 모든 거민에게 미치고 있었다. 그들은 비록 그분을 거절하고 버렸으나 그분께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그들에게 나타내시고 그들을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노력하고 계셨다. 선민들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도록 그분의 축복이 그들에게 허락되었다. {PP 368.1}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로 번영케 하시고 영예롭게 하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성실함은 그가 체류하던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의 빛이었다. 아브라함은 주위에 있는 백성들과 담을 쌓고 살지 않았다. 그는 주위 민족의 왕들과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그 중 몇 왕들은 몹시 존경하는 태도로 그를 대했다. 그리고 그의 성실과 이기심 없는 정신, 그의 무용(武勇)과 자비심은 하나님의 성품을 대표하였다.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그리고 심지어 소돔의 주민들에게까지도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대표자를 통하여 알려지셨다. {PP 368.2}

그와 같이 애굽 백성들과 그 강대한 왕국과 관계있던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다. 왜 여호와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

사람들에게 그토록 높임을 받도록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자손들에 대한 당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다른 길을 준비하실 수도 있으셨으나 그분은 요셉을 빛으로 삼으셔서 그를 통하여 하늘의 빛을 원근에 비추시고자 그를 왕의 궁정에 두셨다. 비록 그 백성들은 우상숭배하는 민족이었지마는 요셉은 그의 지혜와 공의로, 매일의 생활의 순결과 인자로, 백성들의 권익을 위해 애씀으로 그리스도의 대표자가 되었다. 모든 애굽 백성들이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그들의 은인을 통하여 저 이교의 백성들은 그들의 창조주와 구세주의 사랑을 바라보게 될 것이었다. 그와같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지상 최대의 왕국의 보좌 옆에 한 빛을 주시고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들은 다 참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하셨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모든 빛은 하나님이 손을 들어 그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주어졌다. {PP 368.3}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지식이 원근에 전파되었다. 호전적인 여리고 성의 주민들은 떨었다. 라합은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에 하나님이시니라”(수 2:11)고 말하였다. 출애굽 수 세기 후에 블레셋 제사장들은 그들의 백성에게 애굽의 재앙을 상기시켜 주었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항하지 말도록 그들을 경고하였다. {PP 369.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높이셨다. 그러나 그들만이 당신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은총과 축복을 받아서 그것을 독점하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들을 통해서 땅의 모든 거민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이었다. 바로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위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과 구별되도록 명하셨다. {PP 369.2}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 그리고 그것과 관련되어 생기는 모든 죄를 가증히 여기셨으며 그는 당신의 백성에게 다른 민족과 섞이어 “그들의 소위를 본받”(출 23:24)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명령하셨다. 그들의 마음이 그분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그분은 우상숭배자들과의 결혼을 금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순결해야 하는 것은 그때에도 지금과 똑같이 필요하였다. 그 정신은 진리와 의로움에 반대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에서 떨어져 있어야 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독선적 배타심을 가지고 세상과 담을 쌓으므로 그들이 세상에 아무런 감화도 끼칠 수 없게 하시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 {PP 369.3}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그들의 주님처럼 각 시대에 있어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였다. 구주께서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취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집안은 곧 세상이다. 그분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부언하셨다(마 5:14~16). 에녹과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는 바로 이와 같이 행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도록 계획하신 것이다. {PP 369.4}

인근 백성에게 빛을 비추는 대신에 그들로 그 빛을 감추어 두게 한 것은 사단의 조종을 받아 불신을 품게 된 그들 자신의 악한 마음이었다. 그들로 하여금 이교도의 불의한 습관을 따르게 하거나 마치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처럼 거만한 배타심을 가지고 스스로 이방인과 담을 쌓게 한 것도 같은 완고한 정신에서였다. {PP 370.1}

성경이 두 가지 율법 곧 변함없고 영원한 율법과 잠정적이요 임시적인 율법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처럼 언약도 두 가지가 있다. 은혜의 언약은 에덴에서 처음으로 사람으로 더불어 맺어졌고 타락 후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 이 언약은 모든 사람에게 용서를 제공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공하였다. 그것은 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충성을 조건으로 그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였다. 그리하여 족장들은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 {PP 370.2}

이같은 언약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창 22:18)라는 약속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되풀이 되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를 가리켰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해하고 죄의 용서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신뢰하였다.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갈 3:8, 16참조)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도 보존하였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창 17:1)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충실한 종에 관한 그분의

증언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창 26:5)는 것이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창 17:7)고 선언하셨다. {PP 370.3}

비록 이 언약은 아담과 맺어지고 아브라함에게 되풀이되었으나 그리스도의 죽으심까지는 비준될 수 없었다. 그것은 구속에 대한 첫 통고가 주어졌던 때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존재했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졌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비준하신 때로부터 그것은 새 언약으로 불렸다. 하나님의 율법은 이 언약의 기초이었으며, 그것은 단순히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만들고 그들을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위치에 처하게 하는 계획이었다. {PP 370.4}

성경에 “옛” 언약이라 불리는 다른 약속이 시내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체결되었고 그것은 희생 제물의 피로 그 때에 비준되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비준되었고 그것을 비준시킨 피가 처음 언약의 피보다 후에 흘려진 까닭에 그것은 “둘째” 또는 “새” 언약이라고 불린다. 새 언약이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유효하였던 것은 그것이 그 때에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로 확증되었다는 사실로써 분명하다. 약속과 맹세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히 6:18)로 확정되었다. {PP 371.1}

그러나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구원의 약속이 포함되었다면 왜 시내에서 다른 언약을 세우셨을까?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의 원칙을 대부분 잊어버렸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그들이 당신을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당신의 능력과 자비를 그들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무력함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필요를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홍해 곧 애굽의 추격을 받았을 때 도망할 길이 없어 보이는 곳으로 인도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을 위하여 구원을 이루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 그리고 그들을 도우시는 그분의 능력에 대한 신뢰로 채워졌다. 하나님께서는 현세의 속박에서 그들을 구원하심으로써 그들을 자기 자신과 결속시키셨다. {PP 371.2}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새겨져야 할 더 큰 진리가 있었다. 그들은 우상숭배와 부패 가운데서 살았으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찬 죄악,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기에 전혀 무능함, 구세주의 필요 등에 대하여 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을 그들은 배워야 하였다. {PP 371.3}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내 광야로 인도하사,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들에게 순종을 조건으로 큰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당신의 율법을 주셨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출 19:5, 6).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의 죄악과 그리스도 없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서도 선뜻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자신들의 의를 세울 수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그들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출 24:7)라고 선언하였다. 그들은 엄청난 위엄 중에 율법이 선포되는 것을 목격하고 산 앞에서 무서워 떨었다. 그러고도 불과 몇 주일이 지나지 않아 그들이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깨뜨리고 새긴 우상에게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들은 그들이 깨어버린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바랄 수 없었다. 그러고 나서야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과 용서의 필요를 깨닫게 되었고 그들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나타나 있고 희생 제물로 예표된 구주의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믿음과 사랑으로, 그들을 죄의 속박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매어 달렸다. 이제 그들은 새 언약의 축복을 바로 평가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PP 371.4}

옛 언약의 조건은 “순종하라 그리하면 살리라”였다.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겔 20:11, 레 18:5). 그러나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신 27:26). “새 언약”은 “더 좋은 약속” 즉 죄의 용서의 약속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과 일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위에 세워졌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렘 31:33, 34). {PP 372.1}

돌판에 새겨진 같은 율법이 성령에 의하여 마음 판에 기록된다. 자신의 의로움을 세우려 하는 대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의 임재로서 우리는 그분께서 행하신 대로 행할 수 있다. 그분은 선지자를 통하여 자신에 대하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시 40:8)라고 선언하셨다. 그리고 사람들 중에 계실 때에 그분은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요 8:29)고 말씀하셨다. {PP 372.2}

사도 바울은 새 언약 하에서 믿음과 율법 사이의 관계를 분명히 나타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이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롬 5:1, 3, 31, 8:3, 4). {PP 373.1}

하나님의 사업은 비록 발전의 정도가 다르고 같지 않은 시대의 사람들의 필요에 응하기 위하여 그분의 능력의 나타남 또한 다를지라도 모든 시대를 통하여 한결같다. 최초의 복음의 약속에서 시작하여 족장들의 시대와 유대인 시대를 지나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구속의 경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목적들이 서서히 전개되었다. 유대인의 율법의 의식과 의례에서 예표된 구주는 복음에 나타난 구주와 같은 분이다. 그분의 신성한 형체를 감싸고 있던 구름은 걷히고 안개와 그늘도 사라지고 세상의 구주 되신 예수께서 나타나셨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공포하시고 모세에게 의식의 율법의 교훈을 전달하셨던 그분은 산상수훈(山上垂訓)을 말씀하신 분이시다. 그분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기초로 제시하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대원칙은 그가 모세를 통하여 히브리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반복하신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신 6:4; 레 19:18). 두 시대의 교사는 같은 분이며, 하나님의 요구들도 같고 그분의 통치 원칙도 같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약 1:17) 그분에게서 나왔기 때문이다. {PP 373.2}

33장 시내에서 가데스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 도착한 후 얼마 동안은 성막 건축을 착공하지 않았다. 거룩한 건물의 건축은 애굽에서 나온 지 제2년째 되는 연초에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이 일에 이어서 제사장들의 위임식과 유월절을 지키는 일과 백성들을 계수하는 일과 그 외에 그들의 행정상 또는 종교상 조직에 필요불가결한 여러 가지 준비를 완성하는 일 등으로 약 1년의 세월이 시내의 진영에서 흘러갔다. 여기서 그들의 예배가 더욱 명확한 형식을 갖추게 되었고, 나라의 통치를 위한 율법들이 반포되었으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로서 더 효율적 조직이 이루어졌다. {PP 374.1}

이스라엘의 통치 체제는 완전성과 단순성이 뛰어났으며 철저한 조직으로 특징지워졌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의 완성과 정돈에서 그처럼 현저하게 표현된 질서가 히브리 제도에 나타났다. 하나님께서는 권위와 통치의 중심 곧 이스라엘의 주권자 이셨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임명을 받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율법을 집행하는, 눈에 보이는 그들의 지도자로서 택함을 받았다. 그 후에 각 지파의 장로 중에서 70인의 의원을 뽑아 모세를 보좌하여 국민의 일반 사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그 다음에는 성소에서 여호와께 의논하는 제사장들이 있었다. 두령들이 지파들을 다스렸다. 이 사람들 아래는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과 마지막으로는 특별한 임무를 위하여 고용된 관원들이 있었다. {PP 374.2}

히브리 진영은 철저한 질서에 따라 정돈되어 있었다. 그것은 세 큰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으며 각 부분은 진영 중에서 각각 지정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중앙에는 성막, 곧 눈에 보이지 않는 왕께서 거하시는 곳이 있었다. 그 주위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자리잡고 있었고 그 외 모든 다른 지파들은 그 바깥에 진을 쳤다. {PP 374.3}

여행하는 중에나 진을 치고 있을 때나 성막과 거기에 따르는 모든 일의 책임이 레위 사람들에게 위탁되어 있었다. 레위인들은 진영이 출발할 때에 거룩한 장막을 걷고 머무를 곳에 도착하였을 때에 그것을 세우는 일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은 아무도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도록 허락을 받지 못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사형을 당하였다. 레위 사람들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레위의 세 아들의 후손이 각각 그

특수한 지위와 일에 할당되었다. 성막 정면 제일 가까운 곳에 모세와 아론의 장막이 있었다. 남쪽에는 고핫 자손들이 있었는데 법궤와 다른 기구들을 돌보는 일이 그들의 의무였다. 북쪽에는 므라리 자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기둥과 받침과 판자 등을 돌보는 책임을 맡았다. 후미에는 게르손 자손들이 있어 휘장과 거는 천들을 관리하는 일이 위임되었다. {PP 375.1}

각 지파의 위치도 지정되어 있었다. 각 지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지파의 깃발을 따라 전진하고 야영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민 2:2). “그들이 진 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그 위치에서 그 기를 따라 앞으로 행할지니라”(민 2:17).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나온 섞인 무리는 이스라엘 지파들과 같은 지역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고 진영의 변두리에 거하게 하였다. 그 후손들은 3대까지 공동 사회에서 제외되기로 되어 있었다(신 23:7, 8). {PP 375.2}

철저한 청결법이 엄격한 질서와 함께 온 진영과 그 부근에 실행되었으며 철저한 위생 규칙이 아울러 시행되었다. 어떤 이유로도 부정한 사람이 진영으로 들어오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규칙은 수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그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 불가결하였으며 또한 완전한 질서와 순결을 유지하여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즐길 수 있게 하는 데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그분께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네게 붙이시려고 네 진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진을 거룩히 하라”고 말씀하셨다. {PP 375.3}

이스라엘의 모든 여행에 있어서 “여호와의 언약궤가…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민 10:33)다. 고핫의 아들들이 멘,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들어 있는 궤가 선두에 서기로 되어 있었다. 모세와 아론은 그 앞에서 행진하였고 은 나팔을 든 제사장들은 그들 가까이 배치되어 있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서 모세의 지시를 백성들에게 전달하였다. 나팔이 지시하는 대로 해야 할 모든 행동에 관하여 분명한 지시를 내리는 것이 각 집단의 지도자의 의무였다. 누구든지 받은 지시에 따르기를 등한히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하였다. {PP 375.4}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관련된 사물마다 완전한 질서 가운데 있다. 복종과 철저한 훈련이 천사의 무리의 행동에 나타난다. 성공은 질서와 조화된 행동에서만 얻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시대에 못지않게 지금도 그분의 사업에 질서와 조직을 요구하신다. 그분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은 다 지혜롭게 일할 것이며 부주의하거나 되는 대로 하는 태도로 해서는 안 된다. 그분께서는 자기가 승인하신다는 표를 칠 수 있도록 그분의 사업을 믿음과 정확성을 가지고 이루어 주기를 바라신다. {PP 376.1}

하나님 자신이 친히 이스라엘의 모든 여행을 지시하셨다. 그들의 진칠 장소가 구름기둥의 강하로 지시되었고, 그들의 진영이 그 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할 경우에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었다. 그들이 여행을 계속해야 할 때에는 그 구름이 거룩한 장막 위로 높이 떠올랐다. 멈출 때와 떠날 때에는 언제나 엄숙한 기도를 드렸다.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더라"(민 10:35, 36). {PP 376.2}

시내 광야와 가나안 변경 지방 가데스까지의 거리는 불과 11일간의 여정에 지나지 않았다. 마침내 구름이 전진의 신호를 보내고 이스라엘 군중이 그들의 행진을 시작하였다. 그 때 그들은 아름다운 땅으로 속히 들어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도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 그들이 그분을 그들의 주권자로 받아들이기로 하고 정식으로 언약을 체결해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선민으로서 인정을 받은 지금에 있어서야 더욱 그분의 축복을 기대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오랫동안 진치고 있던 그 곳을 거의 마지못해 떠났다. 그들은 그 곳을 거의 그들의 본향처럼 생각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다른 민족과 떨어져 그분의 거룩한 율법을 그들에게 거듭 말씀하시려고 저 화강석(花崗石) 벽으로 둘러싸인 피난처 안으로 당신의 백성을 모으셨다. 그들은 흰 봉우리와 불모의 산마루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자주 나타났던 거룩한 산을 바라보기 좋아하였다. 그 광경은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의 출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너무 성스러워 도무지 떠날 수 없을 것 같았다. {PP 376.3}

그러나 나팔수가 보내는 신호에 따라 온 진영은 성막을 가운데 두고 각 지파는 지정된 위치에서 각자의 기를 따라 출발하였다. 모든 눈들은 구름이 어느 방향으로 인도할는지를 궁금히 여기며 바라보았다. 그러나 구름기둥이 산들이 첩첩히 가로막고 있는 검고 황량한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의 마음에는 슬픈 감정과 의심이 일어났다. {PP 377.1}

그들이 전진할수록 길은 더욱 험해졌다. 그들이 가는 길은 돌 많은 협곡과 불모의 황야를 가로질러 뻗어있었다. 그들의 주위에는 다 황량한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렘 2:6)이었다. 멀고 가까운 바위 많은 좁은 골짜기에는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 수레들과 짐승들, 양떼와 가축 떼의 긴 행렬로 혼잡을 이루었다. 그들의 행진은 느리고 고통스러웠으며 군중은 오랫동안 장막을 치고 평안이 있던 뒤라 노중의 위험과 불편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PP 377.2}

3일 여정 후에는 공공연한 불평들이 들렸다. 이러한 불평은 이스라엘과 완전히 연합하지 않은 많은 섞인 무리에게서 시작되었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비난할 구실을 찾고 있었다. 그 불평자들은 행진 방향에 불만을 품고 모세도 역시 그들과 같이 구름의 지도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모세가 그들을 인도하는 길에 대한 결점을 끊임없이 찾고 있었다. 불만은 전염되었고 얼마 안 가서 온 진영에 퍼졌다. {PP 377.3}

그들은 다시 먹을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치기 시작하였다. 만나를 풍부하게 공급받았지만 그들은 만족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동안 가장 단순하고 가장 수수한 음식을 먹고 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궁핍과 힘든 노동으로 인한 예민한 식욕은 그것을 맛있게 하였다. 그러나 지금 그들 중에 있는 많은 애굽 사람들은 사치스러운 음식에 익숙해 있었으므로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불평하기 시작하였다.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 도착하기 바로 전에 만나를 주실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고기를 허락하셨으나 그것은 저들에게 단 하루 동안만 공급되었다. {PP 377.4}

하나님께서는 만나뿐 아니라 고기도 쉽게 좀더 그들에게 공급하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그것을 제한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자극성

식물보다 그들에게 더 필요하고 적합한 음식을 공급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셨다. 왜곡된 식욕을 보다 건전한 상태로 회복시켜 그들로 하여금 태초에 인류를 위하여 준비된 음식 곧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땅의 열매를 즐겨 먹도록 하고자 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체로 육식을 공급하지 않으신 것은 이런 이유에서였다. {PP 378.1}

사단은 그들을 유혹하여 이런 제한을 불공평하고 잔인한 일처럼 생각하게 했다. 사단은 제한받지 않은 식욕의 방종이 호색을 낳게 하기 쉬운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금지된 것을 갈망하게 하였다. 이 방법을 통하여 백성들이 더 쉽게 그의 지배 하에 들어 갈 수 있었다. 질병과 불행의 창시자 사단은 최대의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곳에서 사람들을 습격할 것이다. 하와를 유혹하여 금단의 열매를 먹게 한 때로부터 사단은 식욕에 호소하는 유혹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사람들을 죄로 몰아넣었다. 그들을 정욕의 방종으로 이끄는 먹고 마시는 데의 부절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불평하도록 만들었다.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도덕적 의무를 무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준다. 이런 사람은 유혹이 엄습해 올 때 그것을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 {PP 378.2}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들로 순결하고 거룩하고 행복한 백성이 되도록 하시고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그들 자신들의 행복과 그들의 후손들의 행복을 위하여 그들로 훈련의 과정을 받게 하셨다. 만일 그들이 그분의 현명하신 제한에 복종하여 기꺼이 그들의 식욕을 억제했더라면 그들은 허약과 질병을 모르고 지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은 육체적·정신적 힘을 아울러 가졌을 것이며 그들은 진리와 의무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하고 예민한 분별력과 견실한 판단력을 가졌을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제한과 요구에 복종하기를 원치 않았으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분께서 그들이 도달하기를 원하셨던 높은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내려 주시려던 축복도 받지 못했다. {PP 378.3}

시편 기자는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매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시 78:18~21)셨다고

말했다. 홍해에서 시내 광야까지 여행하는 동안에 불평과 소동이 자주 일어났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무지와 무분별력을 동정하시어 그 때에는 그들의 죄에 대하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그러나 그 후에 그분은 호렙산에서 자신을 그들에게 나타내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과 긍휼을 목격하였으므로 이제 그들은 큰 빛을 받았다. 그래서 그들의 불신과 불만은 더 큰 죄를 초래하였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여호와를 그들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권위에 순종할 것을 언약했다. 그러므로 지금의 그들의 불평은 반역이었으므로 이스라엘을 무정부주의와 멸망에서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런 행동은 신속하고 분명하게 처벌을 받아야 했다.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민 11장 참조)셨다. 불평자들 중 가장 죄가 심한 사람은 구름에서 나온 번갯불로 죽임을 당하였다. {PP 379.1}

백성들은 공포에 질려 떨면서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간청하도록 모세에게 탄원하였다. 모세가 그렇게 하자 불이 꺼졌다. 모세는 이 재앙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 곳의 이름을 다베라 곧 “불사름”이라 불렀다. {PP 379.2}

그러나 사태는 곧 전보다 더 악화되었다. 이 무서운 재앙은 생존자를 겸비하고 회개하게 하는 대신 다만 그들의 불평을 더 증가시키는 것처럼 보였다. 백성들은 장막 문 여기저기에 모여서 울며 탄식하였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와 같이 그들은 창조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음식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만나가 그들의 필요에 가장 적합했다는 끊임없는 증거가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파들 중에 한 사람도 약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PP 379.3}

모세는 낙망하였다. 그는 자신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지 말도록 간청하였었다. 그들을 위한 그의 사랑으로 그는 그들이 멸망하게 버려두기보다는 차라리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기를 기도하였었다. 그는 그들을 위하여 모든 위험을 감수하였으나 그들의 응답은 불평뿐이었다. 그들의 모든 고난과 저들이 상상하는 고통의 모든 책임을 그에게 씌웠다.

그들의 사악한 불평은, 그가 지고 비틀거리던 염려와 책임의 짐을 두 배나 무겁게 하였다. 비통에 빠진 모세는 하나님을 불신하라는 유혹까지 당하였다. 그의 기도는 거의 불평에 가까웠다.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PP 379.4}

여호와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장로 70인을 소집하도록 명하셨다. 이들은 노령일 뿐 아니라 품위와 건전한 판단력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하나님께서는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 {PP 380.1}

여호와께서는 그와 책임을 분담할 가장 충실하고도 유능한 사람들을 선택하도록 허락하셨다. 그들의 감화가 백성들의 난폭한 행위를 제지하고 폭동을 진압하는 것을 도울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발탁은 결국 중한 악을 가져올 것이다. 만일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목격하였던 증거에 합당한 믿음을 나타냈더라면 그들은 결코 선택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거의 잊어버리고 자신의 부담과 봉사를 과장하였다. 그는 조금이라도 이스라엘의 저주가 되었던 불평의 정신에 빠진 데 대하여 변명할 수 없었다. 그가 만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는 끊임없이 그를 인도하셨을 것이며 모든 비상사태를 감당할 능력이 그에게 주어졌을 것이다. {PP 380.2}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시려는 일을 위하여 백성을 준비시키도록 지시를 받았다. “너희는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이십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PP 380.3}

모세는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이까"라고 외쳤다. {PP 381.1}

그는 그의 불신에 대한 책망을 들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뇨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PP 381.2}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을 회중에게 반복하고 70인의 장로의 임명을 발표하였다. 이 선발된 사람들에 대한 위대한 지도자의 당부는 현대의 재판관과 입법자들을 위한 사법상 정직의 좋은 본이 될 것이다.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에 양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의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신 1:16, 17)라. {PP 381.3}

모세는 이제 70인을 성막으로 소집하였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칠십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오순절날의 제자들처럼 그들은 "위로부터 능력을 입"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그들의 사업을 위하여 준비시키시고 회중 앞에서 그들을 높여 이스라엘의 행정에 있어서 모세와 더불어 협력하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라는 신임을 받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PP 381.4}

위대한 지도자의 고결하고 이기심 없는 정신에 대한 증거가 또다시 드러났다. 70인 중에 둘은 겸손하게 그들이 그처럼 책임이 무거운 지위에 오를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형제들과 같이 성막에 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이 있는 곳에 임하심으로 그들도 예언의 선물을 행사했다. 이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는 그 일이 분열을 조장하지나 않을까 염려하여 이와 같은 불규칙한 일을 제지하고자 했다. 그의 상관의 명예를 위한 열심 때문에 그는 "내 주 모세여 금하소서." 하고 말했다. 모세는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대답했다. {PP 381.5}

그 때 바다에서 불어온 강풍이 메추라기 떼를 몰아와 “진 곁 이편저편 곧 진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민 11:31). 백성들은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기적적으로 공급된 식물을 열심히 거둬들였다. 막대한 수량이 확보되었다. “적게 모은 자도 십 호멜이라.” 당장 필요되지 않은 것은 모두 말려서 저장하였기 때문에 그 공급은 약속된 대로 온 한 달 동안 먹기에 충분하였다. {PP 382.1}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고집스럽게 열망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최고의 유익이 되지 않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셨다. 백성들은 그들에게 이로운 것에 만족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의 반역적인 욕망이 충족되었으나 그들은 그 결과를 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들은 마음대로 포식하였고 그들의 부절제는 곧 처벌당했다. “여호와께서…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 많은 무리가 맹렬한 열병으로 죽임을 당했고 동시에 그들 중에 가장 죄가 많은 자들은 그들이 탐하던 음식을 입에 넣자마자 멸망을 당했다. {PP 382.2}

다베라를 떠난 후 다음 진을 친 하세롯에서는 한층 더 쓰라린 시련이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론과 미리암은 이스라엘 중에서 높은 명예와 지도자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둘 다 예언의 선물을 받았고 하나님의 명을 받아 히브리 사람들을 해방시키는데 모세와 함께 힘을 쓴 사람이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네 앞에 행하게 하였느니라”(미 6:4)고 선지자 미가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미리암의 성격의 장점은 일찍이 그가 소녀로서 나일강가에서 아기 모세가 숨겨진 작은 상자를 지켜보던 때에 나타났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의 자제력과 재치를 당신의 백성의 해방자를 보호하는 도구로 삼으셨다. 시와 음악적 소질을 풍부히 받은 미리암은 홍해 바닷가에서 이스라엘 부녀들의 노래와 춤을 인도하였다. 백성의 사랑과 하나님께로부터 명예를 받아 그 여자는 모세와 아론의 다음 자리에 있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처음 불화를 가져온 같은 악이 이 이스라엘 여인의 마음에서 싹이 텄으며 그 여자는 자기의 불만에 동조하는 한 사람을 발견하는 데 성공했다. {PP 382.3}

70인의 장로를 임명하는 일에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으로 더불어 상의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모세에 대하여 질투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로 가는 도중에 이드로가 내방했고 그 때에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권고를 즉시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아론과 미리암은 위대한 지도자에 대한 그의 영향력이 그들의 영향력보다 크지나 않은지 두려워하였다. 또 장로회의를 조직할 때에 그들은 그들의 지위와 권위가 무시당했다고 느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에게 부과된 주의와 책임의 무게를 결코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를 조력하도록 택하심을 입은 까닭에 자기들이 그와 동등하게 지도하는 책임을 나눠지면 되지, 그 이상의 조력자들을 임명하는 것이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PP 382.4}

모세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자기에게 위임된 대사업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자기의 고문으로 모셨다. 그러나 아론은 자신을 더 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덜 신뢰하였다. 그는 책임을 맡았을 때에 실패했다. 시내 광야에서 우상숭배 문제에 비열하게 굴종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품성의 약점을 드러내었다. 그러나 미리암과 아론은 질투와 야망에 눈이 어두워 그것을 보지 못했다. 아론은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영광을 받아 그의 가족이 거룩한 사제의 직임에 임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를 높이려는 욕망을 품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민 12장 참조)였다. 그들은 자신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다고 간주하고 그들은 동등한 지위와 권위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PP 383.1}

미리암은 불만의 정신에 휩싸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배하신 사건들 중에서 불평할 조건을 찾았다. 모세의 결혼은 그를 불쾌하게 만들었다. 즉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않고 다른 민족의 여인을 선택한 것은 그 여자의 가족과 민족적 자존심에 모욕을 주는 처사로 생각되었다. 그래서 십보라는 교묘히 변장된 방법으로 멸시를 당하고 있었다. {PP 383.2}

“구스 여자”(민 12:1)로 불렸지만 모세의 아내는 미디안 사람이었으므로 곧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 그 여자는 외모에 있어서 살빛이 다소 검은 점에서 히브리 사람들과 달랐다. 십보라는 비록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으나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었다. 그 여자는

수줍어하고 내성적 기질을 가졌고 온순하며 애정이 깊고 고통당하는 것을 볼 때에는 마음이 아파했다. 이런 이유로 모세는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그 여자가 미디안으로 돌아가는 것에 동의했다. 그는 그 여자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릴 재앙을 목격하는 고통을 당하지 않기를 원했다. {PP 383.3}

십보라는 광야에서 남편을 다시 만났을 때에 그의 임무가 너무 중하여 그의 힘이 쇠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자기의 염려를 이드로에게 고했고 이드로는 자기의 구제책을 제시했다. 십보라에 대한 미리암의 반감의 주요 원인이 여기에 있었다. 미리암은 자신과 아론이 업신여김을 받고 있다고 상심하면서 모세의 아내를 그 원인으로 생각하고 그가 전과 같이 그들을 그의 의논자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은 십보라의 영향력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만일 아론이 의의 편에 굳게 섰더라면 그 악을 능히 제지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미리암의 악한 행위를 견책하지 않고 그에게 동조했고 그의 불평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질투심에 참여하게 되었다. {PP 384.1}

모세는 그들의 비난을 불평없이 침묵으로 참았다. 모세가 백성들의 불신과 불평, 그의 변함없는 조력자가 되어야 할 사람들의 교만과 시기에 대하여 참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춘 것은 미디안에서의 수고와 기다리는 세월 동안에 얻은 경험 곧 그 곳에서 계발한 겸손과 인내의 정신이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다. 바로 이것이 그로 하여금 다른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도를 받게 한 이유이다. 성경은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심이여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시 25:9)고 말한다. 온유한 사람들은 가르치기 쉽고 가르침을 받기 원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지도하신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자 하는 진지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 구주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을…알리라”(요 7:17)고 약속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사도 야고보를 통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약 1:5, 7)고 선언하셨다. 그러나 그분의 약속은 주를 전적으로 따르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의지도 강요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너무 교만하여 가르침을 받지 않는 자들과 자기의 고집대로 하는 사람들을 인도하실 수 없으시다. 두 마음을 품은 자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노라고 공언하면서 자기

자신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다. {PP 384.2}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시고 당신의 성령을 부어 주셨다. 그러나 미리암과 아론이 불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그들의 지도자에게뿐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 불충한 죄를 범했다. 선동적인 험담자들은 성막으로 부름을 받아 모세와 대면하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가운데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예언의 선물에 대한 그들의 주장은 부인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계시와 꿈으로 말씀하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친히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고 선언하셨던 모세에 대하여서는 더 밀접한 교제를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대화하셨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셨다. 하나님의 노하심의 증거로 성막에서 구름은 사라졌고 미리암은 벌을 받았다. 그 여자는 문둥병에 걸려 “눈과 같이 되었다. 아론은 무사하였으나 미리암의 벌로 혹독한 견책을 받았다. 이제 그들의 교만심은 땅에 떨어지고 아론은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의 누이가 그 몸서리치고 치명적인 벌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애원하였다. 모세의 기도의 응답으로 문둥병은 깨끗함을 받았다. 그러나 미리암은 7일간 진영에서 격리당했다. 미리암이 진영에서 격리당하기까지는 하나님의 은총의 상징은 성막 위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미리암의 높은 지위를 존중하고 그에게 이른 벌을 슬퍼하여 온 회중은 하세롯에 머물러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PP 384.3}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진노를 나타내신 이 사건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로 삼아 불만과 불복종의 정신을 제지하시고자 계획되었다. 미리암의 질투와 불만이 현저하게 처벌되지 않았더라면 그 결과는 더 큰 악을 가져왔을 것이다. 질투는 인간의 심중에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악마적인 특성의 하나이며 그 결과는 가장 불행한 것 중의 하나이다. 현인은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잠 27:4)라고 말했다. 하늘에서 불화를 처음 일으킨 것은 질투심이었고 그것에 빠지는 것은 인간에게 말할 수 없는 화를 가져왔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약 3:16). {PP 385.1}

남을 비방하거나 우리가 스스로 그들의 동기나 행위를 판단하는 것을 사소한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약 4:11). 그러므로 한 재판관 밖에 계시지 아니하니 그는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고전 4:5)는 분이시다. 누구든지 스스로 재판자 직을 취하여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창조주의 대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람이다. {PP 385.2}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대사로 서서 일하도록 부르신 사람들에 대하여 경솔하게 비난하기를 삼가라고 가르치고 있다. 사도 베드로는 버림받은 죄인들인 한 부류의 사람들을 묘사하면서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훼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훼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벧후 2:10, 11)고 말하였다. 또한 바울은 교회를 다스리는 위치에 세워진 사람들을 위하여 교훈하는 가운데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딤전 5:19)라고 말하였다. 사람들에게 그분의 백성의 지도자와 교사의 중책을 맡기신 그분은 백성들에게 그분의 종들을 취급한 방법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사람들을 우리도 영화롭게 해야 한다. 미리암에게 내린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업에 책임을 지우신 사람들에 대하여 질투하고 불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견책이 되어야 한다. {PP 386.1}

34장 열두 정탐꾼

히브리인들이 호렙산을 떠난 지 11일 만에 약속의 땅 변경에서 멀지 않은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에 진을 쳤다. 여기서 백성들은 정탐꾼을 보내어 그 땅을 탐지하자고 제의하였다. 모세는 곧 이 문제를 여호와 앞에 제출하여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고 이 일을 위하여 각 지파에서 족장 한 사람씩을 선택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모세는 지시받은 대로 사람들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그 땅에 가서 그 위치와 자연의 이점과 거기 거하는 백성들의 강약과 다소를 살피되 그 땅의 토질과 비옥도를 살피고 그 땅의 열매를 가져오라고 명하였다. {PP 387.1}

그들은 남방 변경으로 들어가 북방 끝에 이르기까지 온 땅을 정탐하고 40일 후에 돌아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희망을 품고 열렬한 기대를 가지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정탐꾼이 돌아왔다는 소식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퍼져나갔고, 그들은 기쁨으로 만세를 불렀다. 백성들은 모험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무사히 돌아온 사자들을 만나려고 급히 달려 나갔다. 정탐꾼들은 견본이 될 만한 과일을 가져와 그 땅의 비옥함을 보여주었다. 그 때는 포도가 익는 계절이었으므로, 그들은 두 사람이 메야 운반할 수 있을 만큼 큰 포도송이를 가져왔다. 그들은 또 그 지방에 많이 나는 무화과와 석류를 가져왔다. {PP 387.2}

백성들은 그처럼 좋은 땅을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크게 기뻐하며 그들이 모세에게 보고하는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들었다. 정탐꾼들은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민 13:17~33, 14장)라는 말로 보고하기 시작했다. 백성들은 열광적으로 환영하면서, 여호와의 음성을 순종하여, 곧 올라가 그 땅을 점령하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러나 그 땅의 아름다움과 비옥함을 묘사한 후 두 정탐꾼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도에 놓인 고난과 위험을 과장하여 말했다. 그들은 그 땅의 각 부분에 산재하고 있는 강력한 민족들을 열거하면서 그 도시들은 성벽으로 둘러 싸여 있고 매우 클 뿐 아니라 그 속에 거하는 백성들은 강하여, 자기들이 그들을 정복하기는 전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또 그 곳에서 아낙 자손들인 거인들을 보았다고 보고하고 그들이 그 땅을 소유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무모한 짓이라고 말했다. {PP 387.3}

이제 사태는 변했다. 정탐꾼들이 사단의 충동을 받아 절망에 빠진 자신들의 불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감상을 말할 때에, 백성들의 희망과 용기는 겁에 질려 절망으로 변했다. 그들의 불신은 회중에게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선민을 위하여 그처럼 자주 나타났던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게 했다. 백성들은 곰곰이 생각하기 위해 기다리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내신 그분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분명히 주시리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 길을 내시고,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를 멸하시면서, 그들을 어떻게 압제자로부터 해방시키셨는지를 돌이켜 생각해 보지 않았다.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생각지 않고, 단지 무력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행동했다. {PP 388.1}

그들은 불신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고, 지금까지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신 손길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고는 그들이 과거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던 그들의 잘못을 다시 범했다. 그들은 "자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의 끝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유하려고 애굽에서 여행하여 온 땅이로구나"고 말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지도자들이 백성을 기만하고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을 준다고 비난하였다. {PP 388.2}

백성들은 실망과 낙담으로 자포자기하였다. 고민의 통곡 소리가 어지러운 불평의 소리와 뒤섞여 퍼져나왔다. 갈렙은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옹호하고자 담대히 일어서서, 불충실한 동료들의 악한 영향력을 물리치기 위해 전력을 다하였다. 잠시 동안 백성들은 아름다운 땅에 대하여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의 말을 듣느라고 잠잠하였다. 갈렙은 이미 보고된 것을 부인하지 않았다. 성벽은 높았고 가나안 사람들은 강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다.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격려하였다. {PP 388.3}

그러나 열 정탐꾼들은 그의 말을 가로 막고 장애물에 대하여 처음보다 더 어둡게 묘사하였다. 그들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고 말했다. {PP 388.4}

이 사람들은 그릇된 길로 접어들어 갈렙과 여호수아는 물론, 모세와 하나님께 대하여, 고집스럽게 반대하였다. 사태의 진전은 그들의 마음을 더욱 굳게 할 뿐이었다. 그들은 가나안을 점령하려는 모든 노력을 좌절시키려 했다. 그들은 그들의 유해한 영향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실을 왜곡했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그들은 말했다. 그것은 불길한 보고일 뿐 아니라 허위 보고였다. 그것은 그 자체에 모순이 있었다. 정탐꾼들은 처음에 그 땅은 비옥하고 번영하는 땅이요, 그 곳 백성들은 키가 크다고 보고했는데, 만일 그 땅이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 곳 기후가 건강을 해친다면 위에 말한 모든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불신에 굴복시킬 때에는 그들은 그들 자신을 사단의 지배 아래 두게 되며 사단이 그들을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아무도 말할 수 없다. {PP 389.1}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폭동과 공공연한 반항이 신속히 뒤따라 일어났다. 사단이 완전히 지배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이성을 잃은 것같이 보였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말을 듣고 계신다는 것과 구름기둥 속에 싸인 그분의 앞에 있는 천사가 그들이 폭발시키는 무서운 분노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모세와 아론을 저주하였다. 그들은 비통 중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면 좋았을 것을"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그들의 감정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일어났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 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하여 그들은 차지할 수 없는 땅을 약속함으로 그들을 기만하였다고 모세뿐 아니라 하나님도 비난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하신 팔이 그들을 구원해 낸 그 고생과 속박의 땅으로 되돌아가기 위하여 그들을 인도할 장관을 임명하기까지 하였다. {PP 389.2}

굴욕과 고민 중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다. 그들은 분별없고 격정적인 백성들의 의도를 어떻게 돌이킬지를 알지 못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소란을 진정시키고자 시도했다. 그들은 비통과 의분의 표시로 옷을 찢고, 백성들 가운데로

급히 달려 나갔다. 그들의 쟁쟁한 음성은 울음소리와 반역적 통탄으로 야단 법석하는 소리를 압도하고 들렸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PP 389.3}

가나안 사람들은 그들의 죄악의 한도를 채웠으므로 여호와께서는 더 이상 그들을 참으실 수 없으셨다. 여호와의 보호가 제거되었으므로, 그들은 쉽게 항복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에 의하여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증되어 있었다. 그러나 불충실한 정탐꾼의 허위 보고가 수용되고, 그것 때문에 온 회중은 기만을 당했다. 반역자들의 노력이 효과를 발휘한 것이다. 그 때의 불신을 볼 때에는 두 사람만 불길한 보고를 하고 열 사람이 모두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땅을 점령하자고 격려했을지라도, 그들은 역시 그들의 사악한 불신 때문에 열 사람의 충고보다 두 사람의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열 명이 반역 편에 서 있는 반면, 두 사람만이 정의를 옹호하고 있었다. {PP 390.1}

불충실한 정탐꾼들은 큰 소리로 갈렙과 여호수아를 중상하고, 그들을 돌로 치자고 소리를 쳤다. 미친 듯한 폭도는 저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죽이려고 던질 것을 잡았다. 그들이 미친 듯이 앞으로 달려 나갈 때에 갑자기 그들의 손에서는 돌이 떨어지고, 무서운 침묵에 압도되어서 그들은 공포에 떨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의 살인 계획을 막으셨다. 타오르는 빛과 같은 그분의 임재의 영광이 성막을 비췄다. 백성들은 모두 여호와의 징조를 바라보았다. 그들보다 더 강하신 분이 나타나셨고 아무도 감히 그들의 반항을 계속하지 못하였다. 불길한 보고를 가져온 정탐꾼들은 공포에 움츠러들어 숨을 죽이고 그들의 장막을 찾아갔다. {PP 390.2}

이제 모세는 일어나 성막으로 들어갔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가 전염병으로 저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고 선언하셨다. 그러나 모세는 그의 백성을 위하여 탄원하였다. 모세는 백성들을 멸하고 그를 더 강한 나라로 만드시겠다는 제안에 동의할 수 없었다. 모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호소하여 말하였다.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같이 사하옵소서." {PP 390.3}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즉석에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으나, 그들의 불신과 비겁함 때문에 그분은 그들의 원수를 정복하기 위하여 능력을 나타내실 수 없으셨다. 그런고로 그분은 당신의 긍휼하심으로 그들에게 단 하나의 안전한 길인 홍해 쪽으로 되돌아가라고 명령하셨다. {PP 391.1}

백성들은 모반하여, "우리가...이 광야에서 죽었더면 좋았을 것을" 하고 부르짖었었다. 이제 그 소원이 허락되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이십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전부가...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들이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리"라. 그리고 갈렙에 대하여 "내 종 갈렙은 그 믿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좇았은즉 그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이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정탐꾼들이 40 일간을 그 여행에 소비한 것처럼, 이스라엘 무리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었다. {PP 391.2}

모세가 하나님의 결정을 백성들에게 전달했을 때에, 그들의 분노는 비탄으로 변했다. 그들은 그들이 받을 형벌이 공정함을 알고 있었다. 불충실한 열 정탐꾼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전염병에 걸려 온 이스라엘 회중의 목전에서 죽었고 백성들은 그들의 운명에서 자기들의 파멸을 읽을 수 있었다. {PP 391.3}

그들은 지금에야 그들의 죄된 행위를 성실히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들은 저들의 망은과 불순종을 슬퍼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악한 행동에 따르는 결과를 슬퍼한 것뿐이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명령을 철회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들의 고집은 다시 머리를 쳐들었으며, 그들은 광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원수의 땅에서 물러가도록 명령하심으로, 그들의 표면적 복종을 시험하시고, 그것이 진정한 복종이 아님을 입증하셨다. 그들은 무분별한 감정에 지배를 받아 하나님을 순종하라고 간청한 정탐꾼을 죽이려 함으로 큰 죄에 빠졌던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재난을 가져올 무서운 과오를 범했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할 뿐이었다. 그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으며, 그들에게는 동일한 폭동을 일으킬 구실이 필요했을 뿐이었다. 모세가 하나님의 권위를 받들어 그들에게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고 명했을 때에, 이러한 반역이 다시 일어났다. {PP 391.4}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명령은 모세와 아론은 물론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도 참으로 쓰라린 실망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사를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던 사람들은 그들이 멸시하던 축복들이 저들로부터 거두어졌을 때에 울며 크게 슬퍼하였다. 그들은 까닭 없이 불평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울 이유를 주셨다. 만일 그들이 자기 앞에 그대로 놓여 있는 그들의 죄를 슬퍼했더라면. 이런 선고는 내리지 않았을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재앙에 대하여 슬퍼하고 그들의 슬픔은 회개가 아니었으므로 그들에게 내린 선고를 역전시킬 수 없었다. {PP 392.1}

그 밤을 통곡으로 보냈으나 아침이 되었을 때 한 가지 희망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그들의 비겁한 행동을 속죄하기로 결심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 그 땅을 취하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그들은 그 명령을 거절했고, 이제 그분이 퇴각하라고 그들에게 지시하였을 때에 그들은 전과 동일하게 반역적이었다. 그들은 그 땅을 점령하고 소유하기로 결심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업을 받으시고, 그들에 대한 그분의 목적을 변경하실 지도 모를 일이었다. {PP 392.2}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정하신 때에,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특권이요, 의무가 되게 하셨다. 그러나 그들의 고의적 태만으로 그 허락은 철회되었다. 사단은 그들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 자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그리고 사단은 이제 하나님의 금령이 내린 지금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셨을 때에 그들이 거절한 바로 그 일을 하도록 그들에게 독촉하였다. 그리하여 대기만자는 그들로 두 번째 반역을 하도록 인도함으로 승리를 얻었다. 그들은 처음에 가나안을 점령하는 데 그들의 노력과 함께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그 사업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자신들의 힘으로 성취하고자 대담하게 나섰다. 그들은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신 1:41)고 외쳤다. 그들은 범죄로 인하여 그처럼 몹시 눈이 어두웠다. “여호와께서는 올라가서 싸우”라고

그들에게 결코 명하지 않으셨다. 그분의 의도는 그들이 전쟁으로 그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얻도록 하셨다. {PP 392.3}

백성들은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서도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반역한 그들의 죄와 어리석음을 고백하였다. 그들은 그 때에야 그들이 그처럼 경솔하게 내던졌던 축복의 가치를 알았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들의 불신 때문이라고 고백하였다. 그들은 "우리가…범죄하였"다고 말하고 잘못은 하나님의 편에 있는 것이 아니요, 그들에 대한 그분의 약속들을 성취하지 못한 데 대하여 하나님을 그처럼 나쁘게 비난한 그들 자신에게 있다고 고백하였다. 그들의 고백은 비록 참된 회개에서 우러나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은 그들을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처사의 공정성을 입증하였다. {PP 392.4}

주께서는 지금도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의 공의를 인정하게 하심으로 그와 동일한 방법으로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일하신다. 그분을 사랑한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그분의 섭리에 대하여 불평하고, 그분의 약속을 멸시하고, 유혹에 빠져 악한 천사들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깨뜨리고자 할 때에 여호와께서는 때때로 이런 사람들이 비록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들의 죄를 깨닫고 그들의 행위의 악함과 그들을 다루시는 그분의 공의와 선하심을 부득이 시인하도록 환경들을 지배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흑암의 역사가 드러나도록 하기 위하여 당신의 사업의 반작용을 그냥 두신다. 악한 길로 지체 없이 나가는 정신은 비록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옹호하고 반대와 오해를 받아왔던 그분의 충성스러운 책망자들을 의롭다고 하시기 위하여 자복하도록 하신다. 하나님의 진노가 최후로 쏟아질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여 뭇 사람을 심판하"실 때에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을 정죄하"(유 14, 15)실 것이다. 죄인들은 모두 그분의 정죄가 공정함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PP 393.1}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가나안 정복을 시도하고자 준비를 갖추었다. 갑옷과 전쟁 무기로 무장했으므로 그들 나름으로는 싸우기 위하여 잘 준비된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 일을 슬퍼하는 그분의 종들이 볼 때에는 슬프게도 그들에게 많은 결함이 있었다. 거의 40년 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라가 여리고를 취하라고 지시하셨을 때에, 그분께서는 그들과 함께 가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때 그분의 율법을 넣은 법궤가 그들의 군대의 선두에서 행진하였다. 그분이 임명하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지휘 하에서 그들의 행진을 지도해야 했다. 그 같은 지도하에서는 그들에게 어떠한 해도 닥쳐올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지도자들의 엄한 제지를 거역하고 법궤도 없고 모세도 없이 원수의 군대와 싸우러 나아갔다. {PP 393.2}

비상경보의 나팔소리가 울리자 모세는 급히 그들의 뒤를 좇아가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치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민 14:41~43)고 경고하였다. {PP 393.3}

가나안 사람들은 이 백성을 인도하는 듯한 신비한 능력과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이적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이제 그들은 침략자들을 물리치기 위하여 강한 군대를 소집하였다. 공격군은 지도자가 없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도록 기도도 드려지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의 운명을 역전시키든지 아니면 전쟁에서 죽는다는 필사적인 결심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그들은 비록 전쟁에 익숙하지 못했으나 막대한 수효의 무장한 장정들이였으므로 갑자기 맹공격을 퍼부어 모든 항거를 분쇄시키기를 바랐다. 그들은 외람되게도 감히 그들을 공격하지 못하는 적군에게 도전했다. {PP 394.1}

가나안 사람들은 암석질로 된 높은 고지에 자리 잡고 있었으므로 험한 협로와 가파르고 위험한 오르막길을 통해서만 그 곳에 도달할 수 있었다. 히브리 사람들의 수효가 많은 것은 그들의 패배를 한층 더 심하게 할 뿐이었다. 그들은 산 위에 있는 원수들의 진영에서 무섭게 날아오는 무기의 위험을 무릅쓰고 천천히 산길을 따라 비틀거리며 올라갔다. 거대한 바위들이 우레와 같은 소리를 내며 굴러 떨러졌고 그것들이 지나간 길은 죽은 사람들의 피로 붉게 물들었다. 산꼭대기까지 올라간 피로에 지친 사람들은 맹렬한 반격에 큰 손실을 입고 쫓겨 내려 왔다. 살육전이 지나간 벌판에는 죽은 사람들의 시체들이 널려져 있었다. 이스라엘 군대는 크게 참패를 당했다. 그들의 반역적 실험의 결과는 파멸과 죽음뿐이었다. {PP 394.2}

드디어 그들은 항복했고 생존자들은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저들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신 1:45)셨다. 이스라엘의 적군들은 이제까지 저 강력한 무리의 접근을 두려워하며 기다렸으나 지금의 그들은 현저한 승리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저항할 자신감이 생겼다. 그들은 그 때에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사에 관하여 들은 보고가 모두 허위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그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이스라엘의 최초의 패배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용기와 확고부동한 정신을 일깨워 그들을 정복하는 일에 어려움만 가중시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한 원수들 앞에서 물러나, 그 곳에 그들의 온 세대의 무덤이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광야로 들어가는 길밖에는 별 도리가 없었다. {PP 394.3}

35장 고라의 반역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재앙들은 한동안 그들의 불평과 반항을 제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반역의 정신이 도사리고 있어서 결국에는 가장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전에 일어난 반역들은 일반적으로 흥분된 군중의 돌발적 충동에서 일어난 단순한 민중의 소요(騷擾)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금은 계획된 음모로 교활하게 꾸며졌고, 그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서 친히 임명하신 지도자의 권위를 전복하려는 것이었다. {PP 395.1}

이 운동의 주모자인 고라는 고핫 가족에 속한 레위 사람으로서 모세의 사촌이었으며 재능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성막 봉사의 직분을 맡았으나 자기의 지위에 불만을 품고 사제직을 갈망하였다. 전에 모든 가족의 장자에게 주어졌던 사제의 직분을 아론과 그의 집에 준 처사에 대하여 질투와 불만을 품은 고라는 얼마 동안은 비록 공공연하게 반역 행위를 감행하지 않았지만 은밀하게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반대하였다. 마침내 그는 행정적 권위와 종교적 권위를 다 전복하려는 담대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여러 명의 동조자들을 얻는 데 성공했다. 성막 남쪽에 자리 잡은 고핫 자손의 장막 가까이 르우벤 지파의 장막이 있었고 이 지파의 두 족장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이 고라의 장막 가까이 있었다. 이 족장들은 그의 야심찬 음모에 쉽게 찬동하였다. 야곱의 장자의 후손인 그들은 이스라엘의 행정적 권위가 그들에게 속했다고 주장하고 고라와 함께 사제직의 명예를 나누어 갖기로 결심하였다. {PP 395.2}

백성들 사이에 퍼져 있는 분위기는 고라의 음모를 유리하게 만들었다. 백성들은 처절한 실망 중에서 전에 품었던 의심과 질투와 증오가 되살아나 참을성 있는 저들의 지도자를 향하여 다시 불평하기 시작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지도하에 있다는 사실을 계속하여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들은 언약의 천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의 지도자라는 사실과 그리스도의 임재가 구름기둥에 가리워져서 그들의 앞에 행하신다는 것과 모세는 그분으로부터 모든 지시를 받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다. {PP 395.3}

백성들은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야 한다는 무서운 선고를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그 같은 운명을 선고한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라고 생각하고 그 사실을 믿을 만한 구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의 최선의 노력도 이 백성들의 반항을 진정시킬 수 없었다. 이전에 그들의 완악함으로 인해 이르러온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신 흔적이, 아직도 깨어진 대오와 손실된 인원 가운데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 그래서 또다시 그들은 유혹에 말려들게 되었다. {PP 396.1}

모세에게는 비천한 목자의 생활이 난폭하기 이를 데 없는 이 거대한 군중의 인도자로서의 그의 현재의 위치보다 훨씬 더 평화롭고 행복스러웠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감히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에게는 목자의 지팡이 대신에 권세의 지팡이가 주어졌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두실 때까지 놓을 수 없었다. {PP 396.2}

모든 사람의 마음의 비밀을 아시는 분께서는 고라와 그의 동료들의 의도를 주목하시고 그분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음모자들의 기만을 피할 수 있도록 경고와 교훈을 주셨다. 그들은 모세에 대한 미리암의 시기와 불평 때문에 그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다. 여호와께서는 모세가 선지자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셨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한다고 하시고 또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민 12:8)고 말씀하셨다. 이 교훈들은 아론과 미리암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다. {PP 396.3}

고라와 그의 공모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어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본 일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모세와 함께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들 중에 속해 있었다. 그러나 그 때 이후에 그들에게는 변화가 일어났다. 마음속에 품은 유혹이 처음에는 별 것 아니었으나 격려를 받을 때 강해져서 마침내 그들의 마음이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불만을 선동하는 일을 감행하였다. 백성들의 번영에 큰 관심을 표명하면서 처음에는 저들의 불만을 상호간에 주고받았고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적 인물들에게 속삭였다. 그들이 넌지시 한 말은 너무나 잘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들은 한걸음씩 더 담대하게 나아가고 마침내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참으로 믿게 되었다. {PP 396.4}

그들은 백성들 중에 명망이 있는 250명의 족장들을 이간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그들은 힘이 있고 영향력 있는 이 지지자들로 인하여 정부 체제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모세와 아론의 행정 방식을 크게 개혁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PP 397.1}

질투는 시기를 일으켰고, 시기는 반역을 일으켰다. 그들은 그처럼 큰 권위와 명예를 가진 모세의 권한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마침내 그들 중 아무라도 모세와 같은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기만에 빠져 그들이 차지할 지위를 모세와 아론이 횡령했다고 생각했다. 불만자들은 이 지도자들이 사제직과 행정권을 취함으로 자신들을 여호와의 회중보다 더 높였으나, 그들의 가문은 이스라엘 중에서 다른 가문보다 우위에 있을 자격이 없으며 그들이라고 해서 백성들보다 더 거룩할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와 보호를 받아 똑같이 은총을 입은 동포들과 같은 위치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PP 397.2}

음모자들이 그 다음에 한 일은 백성들을 충동하는 것이었다. 잘못을 행하고 책망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있어서 동정과 칭찬을 받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고라와 그의 동조자들은 그렇게 함으로 회중의 주의를 끌고 회중의 지지를 얻었다. 백성들이 불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가 내렸다는 비난은 잘못된 것이라고 선포되었다. 그들은, 회중은 그들의 권리를 원한 것뿐임으로 잘못이 없고 오히려 모세가 오만한 통치자였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이 거룩한 백성들이요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백성들을 죄인으로 몰아붙였다고 말했다. {PP 397.3}

고라는 광야를 여행해 온 역사를 들추면서 그들이 험한 곳으로 인도되었기 때문에 불평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말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만일 모세가 다른 길로 인도했더라면 그들의 재난이 분명히 예방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모든 재난의 책임이 모세에게 있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은 모세와 아론이 일을 잘못 처리한 결과라고 단정했다. 그리고 만일 고라가 그들의 지도자였더라면 그는 그들의 죄를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선한 행위를 생각하여 그들에게 용기를 복돋아 주었을 것이며, 그들은 매우 평화스럽고 순조롭게 여행을 해서, 광야에서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고 곧바로 약속된 땅으로 전진해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PP 397.4}

이번 반역에는 전에 있던 어떤 반역에서보다 불평분자들 사이에 단결과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백성들의 환심을 사는 데 성공한 고라는 자신을 갖고 만일 모세에 의한 권력의 횡령을 제지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해방은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라는 자신의 신념을 굳게 믿게 되었다. 그는 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자기에게 보여 주시고 너무 늦기 전에 행정 제도의 개혁을 일으킬 권위를 주셨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모세에 대한 고라의 비난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모세의 참을성 있고 자기희생적 노력에 대한 기억이 떠올라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런고로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나타낸 것은 이기적인 동기에서였다고 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그가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기 위하여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여 죽게 한다는 비난을 전처럼 되풀이하였다. {PP 398.1}

한동안 이 일은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이 운동이 공공연히 해도 될 만큼 힘을 얻었을 때에 고라는 파벌의 두목으로 나타나 자기와 그의 동료들이 동등하게 나눠가질 권위를 모세와 아론이 횡령했다고 비난하였다. 더 나아가서 그는 백성들이 자유와 자립을 빼앗겼다고 비난하였다. 음모자들은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민수기 16장 참조)라고 말했다. {PP 398.2}

모세는 처음에 이 교묘하게 꾸며진 음모를 알아차리지 못했으나 그 가공할 만한 비난이 그를 향해 터져 나왔을 때에 그는 엎드려 하나님께 말없이 탄원하였다. 그는 슬퍼하면서 일어났지만 침착하고 강인했다. 하나님의 지시가 그에게 주어졌다. 그는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라고 말하였다. 그 시험은 모든 사람이 반성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다음날까지 연기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사제직을 갖기를 염원하는 사람들은 각자 향로를 가지고 와서 회중이 보는 가운데 성막에서 분향하기로 되어 있었다. 실은 규칙이 매우 엄격하여 성직에 임명을 받은 사람들만이 성소에서 봉사할 수 있었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었으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려 “다른 불”을 드리는 모험을 하다가 죽임을

당했다. 그러나 모세는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만일 그들이 감히 그렇게 위험한 간청을 한다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맞섰다. {PP 398.3}

모세는 고라와 그의 동료 레위 사람들을 뽑아내어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어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관대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하였다. {PP 399.1}

다단과 아비람은 고라처럼 그렇게 담대히 저항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이 음모에 끌리어 들어갔으나 완전히는 타락되지 않았을 것을 바라며, 자신에 대한 그들의 비난을 들어보려고 그들을 자기 앞으로 나오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들은 나오지 않고 오만하게 그의 권위를 인정하기를 거절하였다. 회중이 듣는 앞에서 그들은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고 대답하였다. {PP 399.2}

그리하여 그들은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묘사한 바로 그 말을 그들의 속박 장면에 적용하였다. 그들은 모세가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방편으로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 행하는 척한다고 그를 비방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소경처럼 모세의 야망적인 계획에 따라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이번에는 광야 쪽을 향해 가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리하여 인자한 아버지와 참을성 있는 목자였던 그가 이제 폭군과 횡령자로 묘사되었다. 그들 자신들이 지은 죄의 대가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으나 그 책임을 그에게 뒤집어 씌웠다. {PP 399.3}

백성들의 동정심이 반역자들의 편으로 기울어진 것이 분명했으나 모세는 조금도 자기를 변명하려고 애쓰지 않았다. 그는 엄숙한 태도로 회중 앞에서 그의 동기의 순결과

그의 행위의 정당함에 대한 증인으로서 하나님께 호소하였으며 그분께서 그의 재판장이 되시기를 애원하였다. {PP 399.4}

이튿날 고라를 선두로 250인의 족장들이 각각 향로를 가지고 나아왔다. 그들은 회막 마당으로 안내를 받아 들어왔고 백성들은 밖에 모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고라와 그 동료들의 패배를 바라보도록 회중을 모은 사람은 모세가 아니었다. 오히려 반역자들이 그들의 승리를 맹목적으로 가정하고 그것을 목격하도록 회중을 불러 모았다. 회중의 대부분은 공공연히 고라의 편에 가담하였고 아론을 대적하는 고라의 목적을 수행하는 것이 저들의 최대의 희망이었다. {PP 400.1}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의 경고가 모세와 아론에게 임하였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러나 그들은 땅에 엎드려 "하나님이여 모든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라고 기도하였다. {PP 400.2}

모세가 70인의 장로들을 동반하고 자기에게 나오기를 거절한 자들에게 최후의 경고를 주기 위하여 내려갔을 때에 고라는 다단과 아비람과 합류하기 위하여 집회 장소에서 물러갔다. 그러자 군중들은 모세를 따라갔다. 모세는 그의 기별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백성에게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고 명령하였다. 임박한 심판에 대한 불안이 그들 모두에게 있었으므로 사람들은 그 경고를 순종하였다. 반역의 주모자들은 그들이 기만했던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할 것을 보았으나 그들의 완고한 정신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에 도전하려는 듯이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그들의 장막 문에 서 있었다. {PP 400.3}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회중이 듣는 가운데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케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인하여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일반이요 그들의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의 당하는 벌과 일반이면 여호와께서 보내심이 아니어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PP 400.4}

저들이 공포와 어떤 예감을 가지고 그 사건을 기다리고 서 있을 때에 온 이스라엘의 눈은 모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모세가 말하기를 마쳤을 때에 굳은 땅이 갈라져 반역자들은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과 함께 구덩이에 빠져 "총회 중에서 망하"였다. 백성들은 그들의 죄에 관여된 자라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도망하였다. {PP 400.5}

그러나 심판이 그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었다. 구름에서 번개와 같이 불이 나와서 분향하던 250인의 족장을 태워버렸다. 이 사람들은 최초에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음모의 주모자들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고 그들의 종말을 보고 회개할 기회를 갖도록 허락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반역자들을 동정하였기 때문에 그들과 같은 운명에 빠지고 말았다. {PP 401.1}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올 멸망에서 피하라고 간청할 때에 만일 고라와 그 무리들이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였더라면 하나님의 심판이 멈췄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의 완고한 반항은 그들의 운명을 확정지었다. 온 회중이 그들의 죄악의 동참자이었다. 왜냐하면 다소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그들 모두가 그들에게 동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크신 긍휼을 베푸사 반역을 지도한 자들과 그들이 인도하던 사람들을 구별하셨다. 속임을 당한 백성에게는 그래도 회개할 기회가 허락되었다. 그들이 잘못했고 모세가 옳았다는 압도적 증거가 주어졌다. 하나님의 능력의 현저한 출현이 모든 불확실한 것을 제거하여 버렸다. {PP 401.2}

히브리 사람들 앞서 행하셨던 천사이신 예수께서는 그들을 멸망에서 구원하시려고 노력하셨다. 하나님의 형벌이 아주 가까이 와 있었으며 그것은 그들에게 회개를 호소하였다. 하늘에서 온 특별하고 불가항력적인 간섭이 그들의 반역을 억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중재에 응하였더라면 그들은 구원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멸망의 공포로 인하여 형벌에서 도망쳐 피하기는 하였으나 그들의 반역은 고쳐지지 않았다. 그들은 그 밤에 두려운 마음으로 각각 장막으로 돌아갔으나 회개하지는 않았다. {PP 401.3}

그들은 고라와 그 무리의 아첨을 받아들여 마침내 그들 자신들은 매우 좋은 백성들인데 모세가 그들을 부당하게 취급하고 학대했다고 믿게 되었다. 만일 그들이 고라와 그 무리들이 잘못했고 모세가 옳았다는 것을 시인했다면, 그 때에 그들은 그들이 광야에서 죽으리라는 선고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이 명령에 따르기를 반가워하지 않고 모세가 그들을 속였다고 믿으려 하였다. 그들은 책망을 받는 대신에 칭찬을 받고 염려하고 투쟁하는 대신에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새 질서가 세워지려 한다는 희망을 맹신적으로 품고 있었다. 멸망당한 사람들은 아첨하는 말로 그들에게 큰 유익을 끼쳐주고 그들을 몹시 사랑한다고 공언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고라와 그 동료들은 선량한 사람임에 틀림없고 어떤 의미로 보든지 모세가 그들의 멸망을 초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PP 401.4}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방편들을 멸시하고 거절하는 것보다 더 크게 그분을 모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했을 뿐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모두 죽이려고 하였다. 아직도 그들은 그들의 극악한 죄에 대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그 시련의 밤을 회개와 자복으로 새우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가장 큰 죄인들임을 보여 주는 증거들을 무시할 어떤 방법을 궁리하고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사람들에 대한 증오를 품고 그들의 권위에 저항하려는 자세를 취했다. 사단은 그들의 판단을 왜곡하고 저들을 현혹시켜 멸망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매우 가까이 있었다. {PP 402.1}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덩이에 빠진 멸망당할 운명에 처한 죄인들의 비명을 듣고 놀라 도망하였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기 때문이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충실하고 헌신적인 그들의 지도자들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려고 했다. {PP 402.2}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뜬 구름 속에 나타나 보이고 구름에서 한 음성이 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고 말씀하였다. {PP 402.3}

죄가 없었기 때문에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회중이 멸망하도록 버려두고 급히 떠나지도 않았다. 모세는 이 무서운 위기의 때에 자기의 보호 아래 있는 양무리에 대한 충실한 목자의 정신을 발휘하여 물러가지 않았다. 모세는 하나님의 분노가 그분의 선택하신 백성 모두를 멸하지 않기를 간청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재로 복수의 팔을 멈추시고 불순종하고 배반하는 이스라엘을 전멸하지 않으셨다. {PP 402.4}

그러나 진노의 사자가 나아가 진중에 전염병을 퍼뜨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 아론은 그의 동생의 지시로 향로를 취하여 급히 회중 가운데로 달려가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였다. 그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다. 향이 올라갈 때에 성막에서 드린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재앙이 멎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중에서 1만 4천여 명이 불평과 반역의 죄의 결과로 죽임을 당했다. {PP 402.5}

사제 직분이 아론의 가계에 주어졌다는 보다 분명한 증거가 주어졌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각 지파는 각각 지팡이를 준비하고 그 위에 자기 지파의 이름을 기록했다.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이 쓰여 있었다. 이 지팡이들을 성막 안 "증거궤 앞에" 두었다. 어느 지팡이든 간에 꽃이 피는 것이 여호와께서 그 지파를 사제직에 택하신 증거가 될 것이다. 이튿날 "레위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민 17장 참조). 이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준 후에 후대를 위한 증거로서 성막 안에 놓아두었다. 이 이적이 사제직에 관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주었다. {PP 403.1}

이제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말했다는 증거가 분명하게 확립되었고 백성들은 그들이 광야에서 죽어야 한다는 반갑지 않은 진실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은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고 부르짖었다. 그들은 지도자들에 대하여 반역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고라와 그 무리는 하나님의 공정한 형벌을 받았다고 고백하였다. {PP 403.2}

고라의 반역은 사단이 하늘에서 일으킨 반역의 축소판이었다. 루스벨로 하여금 하나님의 정부에 대하여 불평하게 하고 하늘에 확립되어 있는 질서를 전복하려고 기도케 한 것은 그의 교만과 야망이었다. 타락한 이후에 루스벨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기와 같은 시기와 불만의 정신과 지위와 명예에 대한 야망을 불어 넣는 것을 그의 목적으로 삼아왔다.

그러므로 루스벨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자기를 높이고 싶은 욕망을 일으켜 시기와 불신과 반역을 선동하는 일을 하게 했다. 사단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사람들을 거절함으로 그들의 지도자이신 하나님을 거절하게 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불평을 품고 하나님을 모독하면서도 자기 자신들은 의롭고, 그들의 죄를 충실히 책망하는 사람들은 사단으로 말미암아 행동한다고 생각할 만큼 기만당하고 있었다. {PP 403.3}

고라의 멸망의 근본이 되었던 그같은 악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지 않는가? 교만과 야망은 널리 퍼져 있다. 마음속에 품을 때에 그것들은 시기와 지배권을 위한 경쟁의 문호를 연다.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무의식중에 사단의 대열로 끌려 들어간다. 고라와 그의 동료들과 같이 그리스도의 추종자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 너무나 열심히 생각하고 계획하고 활동하기 때문에 백성들의 동정과 지지를 얻기 위하여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진리를 악용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그들은 주의 종들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고 그릇되게 나타내며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들을 높이는 비열하고 이기적인 동기를 가졌다고까지 그들을 비난한다. 전혀 근거가 없는 거짓말을 계속해서 되풀이 하므로 마침내 그들은 그것을 사실로 믿게 된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사람들에 대한 백성들의 신임을 파괴하려고 노력하면서도 그들 자신은 선한 사업에 종사하고 있고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고 믿는다. {PP 403.4}

히브리 사람들은 여호와의 지시와 제한에 즐겨 복종하고자 하지 않았다. 저들은 제지를 받게 되면 침착하지 못했고 책망을 받게 되면 몹시 싫어했다. 이것이 그들이 모세를 원망한 숨은 이유였다. 만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방임되었더라면 지도자에 대한 그들의 원망은 훨씬 적었을 것이다. 각 시대의 교회 역사를 통틀어 살펴보면 하나님의 종들은 이와 같은 정신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PP 404.1}

사람들이 사단으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에 접근하게 하는 것은 죄악에 탐닉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한 단계씩 악을 향해 나아간다. 빛을 거절함으로 그들의 정신은 어두워지고 마음은 완고해져서 제2의 악의 단계를 취하기 쉽게 되며 보다 밝은 빛을 거절하기가 훨씬 쉬워져서 마침내 그들의 악한 습관이 굳어지게 된다. 그리하여 죄는 그들에게 죄처럼 보이지 않게 된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전해서 그들의 죄를

나무라는 사람들을 너무나 자주 증오하게 된다. 그들은 개혁에 필요한 고통과 희생을 원치 않으므로 주의 종들을 적대시하고 그의 책망을 쓸데없고 가혹한 것이라고 공공연히 비난한다. 그들은 고라와 같이 백성들에게는 잘못이 없고 모든 재난은 책망자가 일으킨다고 선언한다. 이러한 기만으로 그들의 양심을 진정시켜서 질투하는 사람들과 불만을 품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불화의 씨를 뿌리는 일에 연합하여 교회를 세우려는 사람들의 손을 약하게 한다. {PP 404.2}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업을 인도하도록 부르신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모든 발전은 의심을 일으켰고 그들의 모든 행위는 질투하는 사람들과 흠을 찾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잘못 전하여져 왔다. 루터의 시대와 웨슬리의 시대와 그외 개혁자들의 시대에 그러했고, 오늘날에도 그러하다. {PP 404.3}

고라는 이스라엘에게 전달된 모든 지시와 책망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더라면 그가 행한 노선을 취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분명히 그것을 알 수 있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분명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라와 그 동료들은 마침내 그 모든 것을 인간이나 사단의 작용에 돌리게 되기까지 그 빛을 거절했다. 그같은 일을 백성들도 행하였다. 그들은 고라와 그의 무리들이 멸망을 당한 그 다음날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라고 말했다. 그들을 속인 사람들의 멸망에서,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불쾌히 여기셨다는 가장 유력한 증거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히 하나님의 심판을 사단에게 돌리고 악한 자의 능력을 힘입어 모세와 아론이 선량하고 거룩한 사람들을 죽게 했다고 선언했다. 그들의 운명을 확정한 것은 바로 이러한 행위였다. 그들은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범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실제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강퍅하게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마 12:32)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우리 구주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이루신 은혜스러운 일을 유대인들이 바알세불로 말미암은 것으로 간주했을 때에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교통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이다. 그런데 이 역사를 사단의 것이라고 고의로 거절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과 하늘 사이의 통로를 차단해 버리는 것이다. {PP 404.4}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나타내심으로 죄인들을 책망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신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마침내 거절당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영혼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시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지막 방편이 끝난 것이다. 범죄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고 죄는 그 자체를 치유할 방법이 없다. 그 이상 더 죄인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남아 있지 않다. “버려두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 후에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히 10:26, 27). {PP 405.1}

36장 광야에서

약 4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의 궁벽한 곳에 있어서 외부와의 소식이 끊어졌다.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삼십팔 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신 2:14, 15)라고 말한다. {PP 406.1}

이 기간 동안에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 하에 있음을 상기했다. 가데스의 반역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였고 하나님께서도 한동안 그들을 버리셨다. 그분의 언약에 불충실했음이 밝혀진 이상 그들은 언약의 표인 할례의 의식을 행해서는 안 될 것이었다. 종살이하던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던 그들의 갈망이 그들은 자유를 누릴 가치가 없음을 나타냈고 속박으로부터 구속받은 사실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된 유월절 의식은 준수될 필요가 없었다. {PP 406.2}

그러나 성소 봉사가 계속되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음을 증거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섭리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셨다. 모세는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역사를 되풀이하여 말하면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가 이 사십년 동안을 너와 함께하였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신 2:7)고 말하였다. 또한 느헤미야가 기록한 레위인의 찬양의 노래에도 반역으로 유랑하던 세월 동안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사실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주께서는 연하여 긍휼을 베푸사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취사 떠나게 아니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로 저희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시사 사십년 동안을 들에서 기르시되…그 옷이 해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릍지 아니하였"(느 9:19~21)다. {PP 406.3}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방황은 반역자들과 불평자들에게 내린 형벌이었을 뿐 아니라 청년들로 하여금 약속된 땅에 들어갈 준비를 갖추도록 훈련하기 위함이었다. 모세는 그들에게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너로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신 8:5, 2, 3)고 말했다. {PP 407.1}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의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신 32:10; 사 63:9)다. {PP 407.2}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남긴 유일한 기록은 여호와께 대한 반역의 실례들뿐이었다. 고라의 반란은 일만 사천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 밖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정신을 나타낸 단편적인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다. {PP 407.3}

한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함께 나온 섞인 무리 중에 하나인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자기에게 속한 야영지를 떠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야영지에 들어가 그 곳에 자기의 장막을 칠 권리를 주장하였다.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그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며 애굽인의 후손은 3대까지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올 수 없었다. 그 사람과 한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언쟁이 벌어져 그 문제는 결국 재판에 회부되었고 범법한 그 사람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렸다. {PP 407.4}

이 판결에 격분한 그는 그 재판관을 저주하고, 흥분한 나머지 하나님의 성호를 모독하였다. 그는 곧 모세 앞으로 불려왔다.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출 21:17)는 명령이 주어진 바 되었으나 이런 경우를 처리할 아무 규정도 없었다. 매우 두려운 범죄였으므로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지시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느껴졌다. 여호와의 뜻이 확실하게 될 때까지 그 사람을 감금해 두었다. 하나님께서 친히 판결을 내리셨다.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을 그분의 지시에 따라 진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였다. 그의 범죄를 목격한 증인들이 그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그의 범죄에 대한

고발이 진실함을 엄숙히 증언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먼저 돌을 던지고 주위에 서 있던 백성들이 뒤이어 돌을 던져 사형을 집행하였다. {PP 407.5}

그후에 그와 유사한 범죄를 처리하는 법이 공포되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훼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훼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레 24:15, 16). {PP 408.1}

격분을 이기지 못해 한 말에 대하여 그처럼 혹독한 형벌을 가하신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하여 의심을 품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 악의로 한 말들이 큰 죄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요구하는 바이다. 최초의 범죄자에게 내려진 형벌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호를 존중히 여겨야 한다는 경고가 된다. 만일 이 사람의 죄가 벌을 받지 않고 묵과되었더라면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어 그 결과로 많은 사람의 생명이 마침내 희생당했을 것이다. {PP 408.2}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나온 잡족이 언제나 시험과 사고의 근원이었다. 그들은 우상숭배를 버리고 참 하나님을 경배하노라고 공언했지만 어린 시절에 받은 교육과 훈련으로 인하여 그들의 습관과 성품은 우상숭배와 하나님께 대한 불경으로 상당히 부패되어 있었다. 그들은 매우 자주 소요를 일으켰고 제일 먼저 불평했으며 진영에서 우상숭배적인 행동을 하고 하나님께 대한 불평을 퍼뜨렸다. {PP 408.3}

광야로 돌아온 지 얼마 후에 안식일을 범하는 사례가 발생했는데 그것은 그 당시 사정으로 보아 특수한 범죄에 해당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여호와의 선고는 반역의 정신을 일으켰다. 백성 중의 한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에 크게 노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자신의 반항심을 나타내기로 결심하고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나아갔다. 이것은 공공연히 넷째 계명을 범하는 일을 감행하는 행위였다. 광야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제칠일에 불을 피우는 일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다. 이 금령은 가나안 땅에서는 연장되지 않았는데 그 곳은 기후가 차서 자주 불을 피울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덥게 하기 위하여 불이 필요치

않았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행위는 부주의나 무지의 결과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외람되이 고의적으로 넷째 계명을 범한 것이었다. {PP 408.4}

그는 현장에서 체포되어 모세 앞으로 끌려왔다. 이미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죽음에 처하라는 명령이 주어져 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러한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지에 대하여는 지시가 주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모세에 의해 여호와 앞에 제출되었고 여호와께서는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칠지니라"(민 15:35)고 명하셨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와 고의로 안식일을 범하는 죄는 다같이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는 표시였으므로 동일한 형벌을 받았다. {PP 409.1}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창조의 안식일을 유대인의 제도라고 거절한다. 그리고는 만일 안식일을 꼭 지켜야 한다면, 그것을 범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사형의 벌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는 셋째 계명을 범한 죄도 안식일을 범한 죄와 동일한 형벌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셋째 계명도 역시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쳐 두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죽음의 형벌을 가지고 논쟁을 하려 한다면 그것은 넷째 계명과 똑같이 셋째와 다섯째뿐 아니라 거의 열 가지 계명 모두에 적용된다. 비록 하나님께서 요즘에는 당신의 율법을 범하는 자들에게 현세적인 형벌을 가하지 않으실지 모르나 당신의 말씀은 죄의 삯은 사망이라고 선언한다. 그러므로 최후의 심판을 집행할 때에 당신의 거룩한 계명을 범한 자들이 받을 몫은 죽음이라는 것이 판명될 것이다. {PP 409.2}

광야에서 40년 동안 백성들은 매 주일 만나의 기적을 통하여 거룩한 안식일의 의무를 깨우침 받았다. 그러나 이것도 그들을 순종으로 인도하지는 못했다. 비록 그들이 뚜렷한 형벌을 받을 만큼 공공연하고 대담하게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나 넷째 계명을 준수하는 일에 있어서 크게 해이해졌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를 통하여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겔 20:13~24)다고 선언하셨다. 이것이 바로 처음 세대가 약속된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로 열거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자녀들은 그 교훈을 배우지 못했다. 방황하던 40년 동안 그들은 그처럼 안식일 준수를 게을리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지는 않으셨으나 그들이 약속된 땅에 정착한 후에 이방인들 중에 흩어지리라고 선언하셨다. {PP 409.3}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데스로부터 광야로 되돌아갔었다. 그리고 광야에서 체류하는 기간이 끝나자 그들은 다시 가데스로 왔다. “정월에…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민 20:1)라. {PP 410.1}

이곳에서 미리암이 죽어 장사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하여 노래하고 춤추던 홍해 바닷가의 기쁨의 장면으로부터 일생 동안의 방랑을 종결지은 광야의 무덤까지가 큰 희망을 품고 애굽에서 나왔던 대다수의 백성들의 운명이었다. 죄는 축복의 잔을 그들의 입술에서 빼앗아 버렸다. 다음 세대는 이 교훈을 배울 것인가? “그럴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범죄하여 그의 기사를 믿지 아니하였으므로…하나님이 저희를 죽이실 때에 저희가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저희의 반석이시요 지존하신 하나님이 저희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은 성실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비록 원수들로부터 고통을 당할 때에는 그들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였으나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시 78:32~35, 37~39). {PP 410.2}

37장 침을 당한 반석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풀어 준 생수는 호렙에서 반석을 쳤을 때 처음으로 흘러나왔다. 여행하던 전 기간 동안 어디든지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적을 통하여 물이 공급되었다. 물이 계속 호렙으로부터 흘러내린 것은 아니었다. 그들의 여행 중 물이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진영 부근에 있는 바위틈들에서 물이 흘러나왔다. {PP 411.1}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말씀의 능력으로 신선한 물이 흐르게 하신 분은 그리스도이셨다.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전 10:4). 그리스도께서는 영적 축복과 아울러 모든 현세의 축복의 근원이시다. 참된 반석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모든 유랑 생활 동안에 그들과 함께 계셨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로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사 48:21; 시 105:41)다. {PP 411.2}

모세가 친 반석은 그리스도의 표상이었고 이 상징을 통하여 가장 귀중하고 신령한 진리가 가르쳐졌다. 생명을 주는 물이 모세가 친 반석에서 흘러나온 것처럼 "하나님에게 맞으며"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사 53:4, 5) 상하신 그리스도께로부터 잃어버린 인류를 위한 구원의 시냇물이 흐른다. 반석이 한 번 침을 당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바 되"(히 9:28)실 것이었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두 번 희생당하지 않으실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축복을 구하는 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회개하는 기도로써 마음의 소망을 토로하기만 하면 된다. 이와 같은 기도는 만군의 여호와 앞에 예수의 상처를 가져갈 것이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생수의 흐름으로 상징된 생명을 주는 피가 다시 흘러내리게 될 것이다. {PP 411.3}

사막에서 반석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온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도 큰 기쁨으로 경축하였다. 이 축제는 그리스도 당시에 가장 감명적인 의식이었다. 이 축제는 온 나라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때인 초막절에 거행되었다. 축제의 7일 동안 날마다 제사장들은 노래를 부르며 레위인들의 합창단과 더불어 실로암으로 나아가

그 곳 샘에서 금그릇으로 물을 길었다. 예배하러 모인 군중들은 제사장들의 뒤를 따랐다. 그리고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으리로다”(사 12:3)라는 환희의 곡조가 터지면서 샘에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자들은 모두 그 물을 마셨다. 그러고 나서 제사장들이 길은 물은 나팔 소리와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라는 엄숙한 찬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성전으로 운반되었다. 찬송의 소리가 고조되고 군중들이 악기와 장중(莊重)한 나팔 소리에 맞추어 의기양양하게 노래부르는 합창단과 연합하여 노래하는 동안 그 물은 번제단 위에 부어졌다. {PP 412.1}

구주께서는 백성들의 마음을 당신께서 오셔서 주시려고 하는 축복에로 향하도록 하는데 이 상징적인 의식을 사용하셨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예수께서는 온 성전 마당에 다 들릴 만한 큰 음성으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다. 요한은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요 7:37~39)고 말했다. 정신을 상쾌하게 하는 물 즉, 바싹 마른 불모의 땅에 샘물이 솟아나고 사막이 꽃이 피는 곳이 되게 하고, 멸망당할 자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흘러내린 샘물은 그리스도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생수로써, 영혼을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고 활력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다. 그리스도께서 내재하시는 사람은 그 속에 결코 다함이 없는 은혜와 능력의 샘을 가지고 있다. 예수께서는 참으로 당신을 찾는 모든 사람의 생애를 기쁘게 하고 그들의 길을 밝게 하신다. 마음속에 받아들여진 예수의 사랑은 선한 일 속에서 샘처럼 솟아나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이 샘솟는 영혼은 자신이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그의 의로운 말과 행실 가운데서 생수가 흘러나와 주위에 있는 갈급한 자들에게 활력을 주게 될 것이다. {PP 412.2}

그리스도께서는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실 때에 동일한 표상을 사용하셨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스도께서는 두 상징을 겸하고 계시다. 그 분은 반석이시요 생수이시다. {PP 412.3}

동일한 아름답고 뜻 깊은 표상들이 성경 도처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기 수 세기 전에 모세는 그분을 가리켜 “이스라엘의 구원의 반석”(신 32:15)이라고 하였고, 시인은 “나의 구속자”요, “내 힘의 반석”이요, “나보다 높은 바위”요, “거할 바위”요,

“내 마음의 반석”이요, “나의 피할 반석”(시 19:14, 62:7, 61:2, 71:3, 94:22)이라고 노래하였다. 다윗의 노래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은혜는 역시 하늘의 목자가 당신의 양떼를 인도하고 있는 푸른 목장의 시원하고 “잔잔한 물”(시 23:2)로 묘사되어 있다. 또 그는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시 36:8, 9)나이다라고 말했다. 지혜자 솔로몬은 “지혜의 샘은 솟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잠 18:4)고 선언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생수의 근원”(렘 2:13)이 되시고 스가랴에게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슥 13:1)이 되셨다. {PP 413.1}

이사야는 그리스도를 “영원한 반석”이요,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사 26:4, 32:2)로 묘사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흘렀던 산시내를 생생하게 회상시키는 귀중한 약속을 기록하였다.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대저 내가 갈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사 41:17, 44:3, 35:6, 55:1)는 초청이 주어졌다. 그리고 거룩한 말씀이 끝나는 페이지에 이 초청이 반복되어 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고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계 22:17)는 은혜로운 초청이 각 시대를 통하여 울려 내려오고 있다. {PP 413.2}

히브리 대군이 가데스에 도착하기 직전에 그처럼 여러 해 동안 그들의 진영 곁에서 솟아나왔던 산 시냇물이 끊어지고 말았다. 이는 여호와께서 다시 당신의 백성을 시험하시고자 하심이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당신의 섭리를 신뢰할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조상들의 불신을 모방할 것인지 시험하실 것이었다. {PP 413.3}

그들은 이제 가나안의 산들이 보이는 곳에 이르렀다. 며칠만 여행하면 그들은 약속의 땅의 변경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에서의 후손에게 속한 에돔에서 과히 멀지 않은 곳에 있었고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에돔을 통해 나 있었다.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가 주어졌다.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하는 너희 동족에서의 자손의 지경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으며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신 2:3~6). 이 명령은 왜 그들에게 물의 공급이 끊어졌는지를 설명하기에 충분하였다.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직통로인 물이 풍족하고 비옥한 나라를 통과하려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방해를 받지 않고 에돔을 통과할 수 있으며 또한 대군의 수요에 충족한 음식과 물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약속하셨다. 그런고로 기적적으로 물이 솟아나는 일이 중지된 것은 광야의 유랑 생활이 끝났다는 징조로서 기뻐해야만 하였다. 그들이 불신으로 눈멀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이 일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증거가 되었을 바로 그것이 의심과 불평의 원인이 되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가나안을 소유하게 하시리라는 모든 희망을 포기한 자들처럼 보였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그들이 누렸던 축복들을 극성스럽게 요구하였다. {PP 413.4}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시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앙을 나타내 보여야 하였다. 물은 그들이 에돔에 도달하기 전에 그쳤다. 이곳에서 그들은 얼마 동안 눈에 보이는 것 대신에 믿음으로 행할 기회를 가져야 하였다. 그러나 최초의 시련에 그들은 조상들처럼 광포(狂暴)와 망은의 정신을 발휘하였다. 진영에서 물을 갈망하는 소리가 들려오자마자 그들은 그처럼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포자기하여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면 좋을 뻔하였도다"고 부르짖었다. 그들은 고라의 반역으로 죽은 자 중에 끼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PP 414.1}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여 부르짖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PP 414.2}

모세와 아론은 성막 문으로 가서 땅에 부복하였다. 또다시 "여호와의 영광이…나타"났으며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가 주어졌다.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민 20:8)라. {PP 417.1}

두 형제는 군중 앞으로 나아갔다. 모세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노인이었다. 그들이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반역과 고집을 참았으나 마침내 모세는 인내력을 잃었다. 모세는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고 부르짖었다. 그러고는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반석에게 명하는 대신에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쳤다. {PP 417.2}

물은 군중이 넉넉히 마실 만큼 많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모세는 큰 과오를 범했다. 모세는 분노한 감정으로 말했고, 그의 말은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셨기 때문에 발한 거룩한 의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적 격정의 표출이었다. 그는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고 말했다. 이 비난은 잘못이 아닌 사실이었으나 사실일지라도 분노하거나 조급하게 말하지 말아야 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반역을 책하실 때에 그 말은 모세 자신에게도 고통스러웠고 백성들도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 기별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를 붙들어 주셨었다. 그러나 모세가 백성들을 비난하기 위하여 스스로 분노할 때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고 백성들에게 해를 끼쳤을 뿐이었다. 그는 인내심과 자제력이 부족했음이 분명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그의 과거의 행로가 하나님의 지도 하에 이루어졌었는지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되고 그들의 죄를 변명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모세도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그들은 모세의 행위가 처음부터 비평과 비난을 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통해 보내 주신 모든 책망을 거절할 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PP 417.3}

모세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나타냈다. 그는 마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대로 행하지 않으실 것처럼 “우리가 물을 내랴”고 물었다. 여호와께서는 두 형제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셨다. 물이 끊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대한 그들의 믿음은 백성들의 불평과 반역으로 흔들림을 당했다. 처음 세대는 불신의 연고로 광야에서 멸망당하도록 선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정신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나타났다. 이들도 역시 약속을 받아들이기에 실패할 것인가? 지치고 낙담한 모세와 아론은 일반 백성들의 감정의 흐름을 막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만일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대한 확고부동한 신앙을

나타내었더라면 백성들이 이 시험을 견딜 수 있게 할 그 같은 빛으로 백성들 앞에 그 문제를 제시할 수 있었을 것이다. 행정 장관으로서 그들에게 부여된 권위를 신속하고도 과단성 있게 행사했더라면 그들은 그 불평을 진압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께 그들을 위하여 그 일을 해주시도록 요청하기 전에 힘닿는 데까지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였다. 가데스에서의 불평을 신속히 저지했더라면 연달아 일어날 얼마나 많은 죄악이 예방되었을까! {PP 417.4}

모세는 그의 경솔한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신 교훈의 효력을 상실시켰다. 그리스도를 상징한 반석은 그분께서 한 번 희생이 되셔야 한 것처럼 한 번 침을 당하였다. 두 번째는 마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간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반석에게 명하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나 두 번째도 반석을 침으로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표상의 의미가 상실되고 말았다. {PP 418.1}

이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만 속한 권세를 자기들이 취했다. 그 때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필요가 있는 가장 엄숙한 기회였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 기회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갖도록 그들을 감명시키고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에 대한 저들의 믿음을 굳게 해주어야 하였다. 그들이 분노하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고 부르짖었을 때에 마치 그들은 그 능력이 인간의 약점과 정욕을 소유한 자신들에게 놓여 있는 것처럼 그들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었던 것이다. 모세는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평과 반역에 지쳐서 마침내 자기를 돕고 계시는 전능하신 분을 보지 못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약점을 나타냄으로 인하여 그의 경력에 오점을 남겼다. 그의 사업이 끝날 때까지 순결하고 확고부동하고 무아의 경지를 지속했어야 할 사람이 마침내 패배를 당하고 말았다. 하나님께서는 찬양과 높임을 받으셨어야 할 때에 이스라엘의 회중 앞에서 모욕을 당하셨다. {PP 418.2}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그처럼 격노케 만든 악한 행위를 저지른 자들에게 형벌을 선언하지 않으셨다. 모든 견책은 지도자들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대표자로 선 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의 불평이 자기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공격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무의식중에 죄에 빠져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커다란

죄를 그들 앞에 제시해 주지 못한 것은 자기 자신들을 바라보고 자신들을 동정하였기 때문이다. {PP 418.3}

몹시 굴욕적이고 쓰라린 형벌이 즉시 선고되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그들은 반역한 이스라엘로 더불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죽어야 했다. 만일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경고와 견책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을 품고 격정적인 정신을 드러냈더라면 그들의 죄는 훨씬 더 컸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고의적이거나 계획적인 죄는 범하지 않았다. 그들은 돌연한 시험에 패배했으나 즉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회개를 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회개를 가납하셨으나 그들의 죄가 백성들에게 끼칠 해를 염려하시어 그 형벌을 면제해 주실 수 없으셨다. {PP 419.1}

모세는 자기에게 내린 형벌의 선고를 숨기지 않고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실패함으로 인하여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말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내린 가혹한 형벌을 주목하도록 명령했다. 그리고 자신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자초했었던 형벌을 다만 한 사람의 탓으로 돌리려는 그들의 불평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대시하시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명령했다. 그는 또 이 선고를 면제해 주시도록 몹시 간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그들에게 말했다. 그는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신 3:26)셨다고 말하였다. {PP 419.2}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난이나 시련을 당하게 되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전혀 관여하시지 않으셨는 양 저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고 모세를 비난했다. 그들의 모든 여행 기간 동안에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할 때 모세는 그들에게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너희를 구원해 내신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반석 앞에서 “우리가 물을 내랴”는 조급한 말을 한 것은 백성들의 비난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었다. 그로 인하여 그들은 자기들의 불신을 굳게 하고 그들의 불평을 정당화할 수 있게 됐다. 그런고로 여호와께서 모세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이 그릇된 인상을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제거하고자 하셨다. 여기에서 백성의 지도자는 모세가 아니고,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출 23:20, 21)고 말씀하신 능력의 사자인 여호와시라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증거가 드러났다. {PP 419.3}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셨다고 모세는 말했다. 온 이스라엘이 모세를 주목하였고 그의 죄는 그를 당신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신 하나님께 불명예가 되었다. 그 죄는 온 회중에게 알려졌으므로 그것을 가볍게 지나가게 한다면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자들의 불신과 조급한 분노의 행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인상을 줄 것이었다. 이 한 가지 죄로 인하여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선언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범죄자는 분명하게 처벌하신다는 사실을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다. {PP 420.1}

이스라엘의 역사는 후세대를 교훈하고 경고하기 위하여 기록해 두어야 하였다. 미래에 사는 모든 자들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공평무사하신 통치자로서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죄를 정당화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죄가 얼마나 악한 것임을 깨닫는 자들이 적다. 하나님께서는 범죄자를 형벌하시기엔 너무나 선하시다고 사람들은 은근히 믿고 있다. 그러나 성경 역사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과 사랑 때문에 죄를 우주의 평화와 행복의 가장 치명적인 악으로 취급하신다는 것이 분명하다. {PP 420.2}

모세의 성실과 충실을 가지고도 그의 죄과에 대한 보응을 피할 수는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보다 더 큰 범죄를 용서하셨으나 인도자의 죄를 인도함을 받는 자들의 죄와 똑같이 처리하실 수는 없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지상의 어느 다른 사람보다도 모세를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의 율법을 전달하셨다. 모세가 그처럼 큰 빛과 지식을 향유했다는 사실이 그의 죄를 한층 더 무겁게 하였다. 과거에 충실히 행한 일이 그 후의 한 번의 부정한 행위를 속하지 못할 것이다. 부여된 빛과 특권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의 책임도 커지고 그의 죄는 한층 더 무거우며 그 형벌 또한 엄해진다. {PP 420.3}

인간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살펴보면 모세가 커다란 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었다. 그의 죄는 보통 사건 중의 하나이었다. 시편 기자는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시 106:33)고 하였다.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그것이 경한 일처럼 보일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가장 충실하고 영예를 받은 당신의 종의 이 죄를 그처럼 엄격히 처리하셨을진대 다른 사람에게도 그 같은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자기를 높이는 정신과 형제들을 비난하는 성벽을 하나님께서는 불쾌히 여기신다. 이런 죄악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업에 의심을 일으키고 회의론자에게 그들의 불신을 변명할 재료를 준다. 중요한 지위에 있으면 있을수록, 그의 감화력이 크면 클수록 인내와 겸손을 계발할 필요는 더욱더 크다. {PP 420.4}

만일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취하도록 유혹할 수 있을 때 사단은 기뻐 날뛴다. 그렇게 되면 사단은 승리를 얻게 된다. 그가 사단이 된 것도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는 다른 사람들을 멸망하도록 유혹하는 데 가장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 속에 자기를 높이는 위험에 대하여 그처럼 많은 교훈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계책에 대하여 경계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필요되는 것은 우리의 본성적 충동이나 정신적 능력이나 마음의 경향이 아니요 오직 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일이다. 만일 우리가 작은 틈이라도 보인다면 사단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는 축복과 인류에게 허락하시는 시련을 이용하여 사람을 유혹하고 영혼을 괴롭혀 멸망을 당하게 할 것이다. 그런고로 아무리 큰 영적 빛을 받았거나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항상 여호와 앞에 겸손히 행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생각을 지도하시고 모든 충동을 제어해 주시도록 믿음으로 간청해야 한다. {PP 421.1}

경건하다고 공언하는 자들은 모두 마음을 경계하고 아무리 성이 날지라도 자제력을 행사해야 할 가장 엄숙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 모세에게 부과된 짐들은 매우 컸었다. 그가 당한 바와 같은 혹독한 시련을 당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실도 모세의 죄에 대한 변명이 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충분한 준비를 갖추어 놓으셨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한다면 결코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시험이 크다 할지라도 죄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다. 아무리 영혼에게 가해지는 압력이 크다 할지라도 범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는 행위이다. 이 세상의 권세나 지옥의 권세라 할지라도 억지로 악을 행하게 할 수 없다. 사단이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질 필요는 없다. 아무리 공격이 맹렬하고 불시에 닥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도우시는 손길을 준비하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승리를 얻을 수 있다. {PP 421.2}

38장 에돔을 돌아서

이스라엘이 진을 친 가데스는 에돔 국경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있었으므로 모세와 백성들은 모두 이 나라를 통과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몹시 열망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에돔 왕에게 기별을 보냈다. {PP 422.1}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의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열조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열조와 우리를 학대하였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컨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통과하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공히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통과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민 20:14~20). {PP 422.2}

정중한 요청에 대해 이를 거절하는 위협적인 회답이 왔다.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맞을까 염려하라." {PP 422.3}

이 거절에 놀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은 "우리가 대로로 통과하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줄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통과할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는 약속과 더불어 왕에게 두 번째 간청을 보냈다. {PP 422.4}

대답은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였다. 벌써 무장을 갖춘 에돔의 군대들이 험한 길목에 배치되어 있어서 평화적으로 그 방면으로 전진하는 일은 불가능하게 되었고 또한 히브리인들에게는 무력에 호소하는 일이 금지되어 있었다.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긴 여행을 해야만 하였다. {PP 422.5}

만일 백성들이 시련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을 신뢰했더라면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그들을 인도하여 에돔을 통과하게 하였을 것이며 그 땅의 거민들은 그들에 대한 공포심을 품고 적의를 나타내는 대신에 그들에게 호의를 나타냈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속히 행동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불평과 수군거리는 일로 황금처럼 귀중한 기회를 놓쳤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들이 에돔 왕에게 그들의 요구를

할 준비가 갖추어졌을 때 그 요구는 거절을 당했다. 그들이 애굽을 떠난 이래로 사단은 꾸준히 그들의 길에 장애물과 시험을 던져 그들이 가나안을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불신으로 여러 번 사단에게 문을 열어 줌으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게 하였다. {PP 422.6}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속히 행동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악한 천사들은 전진하는 발걸음마다 싸우려 하고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당신의 자녀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도록 명령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하시려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계실 때에 사단은 그들로 하여금 주저하고 지체하게 함으로 여호와를 불쾌하게 하도록 유혹한다. 사단은 투쟁의 정신을 불타게 하거나 불평과 불신을 일으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려는 축복을 그들로부터 빼앗아 간다. 하나님의 종들은 민첩한 의용병이 되어 하나님의 섭리가 길을 열어 주실 때에 항상 재빨리 움직일 준비를 하여야 한다. {PP 423.1}

그들 편의 지체는 사단에게 그들을 패배시키기 위해 일할 시간을 주는 것이다. 에돔인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리라고 선포하신 후에 저희들이 에돔을 통과하는 일에 대해 맨 처음에 모세에게 주신 명령 가운데서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이 편의를 에돔인들을 대적하는 데 이용하지 못하도록 금하셨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까닭에 에돔인들은 공포에 떨고 있었고 그래서 쉽게 약탈될 수 있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그들을 약탈하지 말아야 하였다. 히브리인들은 “너희는 깊이 스스로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신 2:4, 5)라는 명령을 받았다. 에돔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생각하시고, 에서의 자손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일산을 기업으로 주셨다. 그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당신의 은혜 밖으로 스스로 나아가지 않는 한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될 것이었다. 가나안 거민들은 이미 죄악의 잔을 채웠으므로 그 소유를 박탈하고 그들을 완전히 멸하라고 하셨으나 에돔인들은 아직 유예 중에 있었으므로 자비로운 대우를 받아야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기뻐하시므로 형벌을 내리시기

전에 동정심을 나타내신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주민들을 멸하도록 요구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에돔 백성을 살려주도록 가르치신다. {PP 423.2}

에돔과 이스라엘의 조상은 형제간이었다. 그러므로 상호간에 형제다운 친절과 예절이 있어야 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을 통과하려는 일이 거절당함으로 모욕을 받았지만 그 일에 대하여 그 때에든지 장래의 어느 때에라도 복수하는 일이 금지되었다. 그들은 에돔 땅의 어느 부분이라도 점령하려는 기대를 품어서는 안 될 것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요 은총 받은 백성이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하신 제한에 대하여 유의하여야 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름다운 유업을 약속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만 세상에서 모든 권리를 가졌다고 생각하고 모든 다른 민족들을 밀어내려고 하지 말아야 하였다. 그들은 에돔인들과 더불어 나누는 모든 교제에 있어서 그들에게 불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들은 그들로 더불어 통상하고 필요되는 물품을 사고 그들이 산 모든 물품에 대하여 신속히 돈을 지불해야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격려하는 다음의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았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고…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신 2:7). 그들은 에돔인들을 의지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이 자원이 풍부하신 하나님을 모신 까닭이었다. 이스라엘인들은 에돔인에게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폭력이나 기만으로 얻으려고 하지 말아야 했다. 오히려 에돔인과의 모든 교제에 있어서 이스라엘인들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을 수범해야 했다. {PP 424.1}

만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이런 방법으로 에돔을 통과했더라면 그들의 통과가 자신들에게뿐 아니라 그 땅의 거민에게도 축복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했더라면 이 일은 에돔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과 사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법을 배우는 기회가 되고, 야곱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을 어떻게 번영케 하셨는지를 목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불신은 이 모든 것을 막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에 응하여 백성들에게 물은 주셨으나 그들의 불신이 형벌을 받도록 허락하셨다. 그들은 다시 광야로 여행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했더라면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았을 그 기적의 샘에서 갈증을 풀어야 했다. {PP 424.2}

따라서 이스라엘 대군은 다시 남쪽으로 향하여 불모의 황무지로 나아갔으며 이 여행은 에돔의 산과 골짜기의 푸른 지대를 바라본 이후이므로 한층 더 침울한 것처럼 보였다. 이 침울한 사막에서 바라보이는 산맥 중에 호르산이 우뚝 솟아 있었는데 그 산꼭대기는 아론이 죽어 장사될 곳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산에 왔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에게 전달되었다. {PP 424.3}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라"(민 20:25, 26). {PP 425.1}

이 두 노인과 젊은이는 함께 땀을 흘리며 산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모세와 아론의 머리카락은 백이십년의 풍상을 겪어 눈과 같이 희었다. 그들의 길고 다사다난한 생애는 보통 사람이 당해 보지 않은 가장 심한 시련과 또한 가장 큰 영예로 점철되어 있었다. 그들은 타고난 위대한 재능을 가진 자들이었고 그들의 모든 능력은 전능하신 분과 교통함으로 계발되고 향상되고 위엄을 가졌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들의 동포를 위한 이기심 없는 사업으로 평생을 보냈다. 그들의 용모는 위대한 지적 능력과 확고하고 고상한 목적과 강한 애정의 증거를 나타냈다. {PP 425.2}

모세와 아론은 여러 해 동안 서로 노고와 염려를 나누었다. 그들은 무수한 위험을 함께 직면하였고 또한 하나님의 현저한 은혜를 함께 나누었다. 그러나 그들이 작별해야 할 시간이 임박했다. 그들은 상호간의 친교의 매 순간이 귀중하기에 매우 천천히 움직였다. 올라가는 길은 가파르고 힘이 들었다. 그리고 쉬려고 멈추었을 때에 그들은 과거와 미래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하였다. 그들의 앞에는 시야가 미치는 한도 안에 그들이 방황하던 광야의 광경이 전개되었다. 아래 평야에는 이스라엘 대군이 진을 치고 있었는데 택함을 입은 모세와 아론은 이들을 위하여 그들의 생애의 가장 좋은 부분을 소비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하여 그처럼 깊은 관심을 가졌었고 그처럼 큰 희생을 치렀다. 에돔의 산들 너머 어딘가에 약속된 땅으로 가는 길이 있었다. 그러나 그 땅의 축복을 모세와 아론은 누릴 수 없었다. 그들의 마음에는 반항적인 감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한 마디의 불평도 그들의 입술에서 튀어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이 왜 조상들의 유업에서 제외되었는지를 생각할 때에 그들의 얼굴에는 엄숙한 비애가 깃들었다. {PP 425.3}

이스라엘에 대한 아론의 사업은 이제 종언을 고하였다. 하나님께서는 40년 전 그가 83세 때에 그를 부르셔서 당신의 크고 중대한 사명을 모세와 함께 수행하게 하셨다.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일에 그의 아우와 더불어 협력하였다. 아론은 히브리 대군이 아말렉으로 더불어 교전할 때에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손을 위로 쳐들고 있었다. 그는 시내산에 올라갈 허락을 받아 하나님의 존전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다. 여호와께서는 제사장 직분을 아론의 가계에 수여하시고 또 아론에게는 대제사장의 성스러운 직분을 맡을 수 있는 영광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고라와 그 무리들을 멸하시는 당신의 무서운 형벌을 나타내실 때에도 성직에 있는 아론을 붙들어 주셨다. 그 재앙이 멎은 것은 아론의 중재의 결과이었다. 그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을 무시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을 때에 아론은 반역하지도 않았고 불평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의 고상한 생애의 기록에는 오점을 남겼다.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에 굴복하여 시내산 기슭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매우 무서운 죄를 범했고 다시 그는 미리암과 연합하여 모세를 시기하고 불평하였다. 그리고 그는 모세와 같이 가데스에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PP 425.4}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의 대표자들이 되기를 의도하셨다. 아론은 가슴에 이스라엘의 이름들을 달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달하였다. 그는 대속죄일에 온 이스라엘의 중보자로서 지성소에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마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한 속죄 사업이 끝나게 될 때에 기다리는 당신의 백성에게 나아와 축복하실 것처럼 지성소에서 나와 이스라엘 회중에게 축복하였다.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을 대표하는 그의 성스러운 직분이 매우 높은 성질의 직분이기에 가데스에서 범한 아론의 죄는 그처럼 큰 것이었다. {PP 426.1}

모세는 커다란 슬픔을 안고 아론에게서 성의(聖衣)를 벗겨 엘르아살에게 입혔다. 그렇게 해서 그는 하나님의 임명을 받아 아론의 후계자가 되었다. 가데스에서 범한 죄로 인하여 아론은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시무할 특권 곧 아름다운 땅에서 첫 희생 제물을 드려 이스라엘의 유업을 성별할 특권을 상실하였다. 모세는 바로 가나안 접경까지 백성들을 인도할 임무를 계속 수행해야 했다. 그는 약속의 땅이 보이는 곳까지

갈 것이지만 그 곳에 들어갈 수는 없었다. 만일 이 하나님의 종들이 가데스의 반석 앞에 섰을 때에 그들 앞에 다가온 시험을 불평 없이 견디었더라면 그들의 장래는 얼마나 달라졌을 것인가! 단 한 번의 그릇된 행위도 결코 원상대로 회복될 수 없다. 한 순간의 유혹이나 부주의로 잃어버린 것은 일생의 사업으로도 회복시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 {PP 426.2}

두 큰 지도자가 진영에서 사라졌고 아론의 후계자로서 성직에 임할 것으로 일반에게 알려진 엘르아살이 그들과 함께 갔다는 사실이 백성들에게 불안감을 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백성들이 주위의 대 군중을 살펴볼 때에 애굽을 떠나온 어른들은 거의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모세와 아론에게 선언된 형벌을 기억하고 그들은 모두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호르산 꼭대기로 가는 그 신비스러운 여행의 목적을 아는 어떤 이들은 쓰라린 추억들과 양심의 가책으로 저들의 지도자들에 대해 몹시 염려하였다. {PP 426.3}

마침내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을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으나 아론은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또 엘르아살이 사제복을 입고 있는 것은 그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성직을 계승한 사실을 나타내 주었다. 백성들이 무거운 마음으로 지도자의 주위에 모였을 때에 모세는 그들에게 아론이 호르산 위에서 그의 팔에 의지하여 죽었다는 사실과 그 곳에 장사지냈다는 사실을 말했다. 온 회중은 슬퍼하고 통곡했다. 비록 그들이 그처럼 자주 그를 슬프게 했지만 그들이 모두 아론을 사랑한 까닭이었다.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의 죽은 것을 보고 위하여 삼십일을 애곡하였더라”(민 20:29). {PP 427.1}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장사에 관하여 성경에는 “아론이 거기서 죽고 거기 장사되었”(신 10:6)다는 짤막한 기록밖에 없다. 오늘날의 관습과는 현저히 대조되는 이 장례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에 따라 거행되었다. 현대의 높은 지위를 누렸던 자의 장례식은 때때로 허식과 낭비를 과시하는 기회가 된다. 이 세상에 산 가장 저명한 자 중에 한 사람인 아론이 죽었을 때에 그의 가장 가까운 근친 두 사람만이 그의 죽음을 목격하고 그의 장사에 참례하였다. 그리고 호르산 위에 있는 그 외로운 무덤은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영원히 감추어졌다. 죽은 자에게 흔히들 너무나 큰 허식을 나타내고 그들의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일에 막대한 비용을 들이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 {PP 427.2}

온 회중이 아론을 위하여 슬퍼했으나 그들은 모세만큼 그런 절통한 손실을 느낄 수 없었다. 아론의 죽음은 모세에게 자신의 종말이 가까움을 통절히 느끼게 했다. 그리고 그가 이 세상에 머물러 있을 시간이 짧음을 알수록 그처럼 장구한 세월 동안 기쁨과 슬픔, 희망과 공포를 같이 겪은 충실한 친구 아론을 잃은 것을 슬퍼하였다. 그 사업을 모세는 이제 홀로 계속해야 했으나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친구이심을 알고 더 열렬히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PP 427.3}

호르산을 떠난 지 얼마 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의 한 왕 아랏으로 더불어 교전하여 패배를 당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열렬히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들에게 임하여 원수들은 대패하였다. 이 승리는 감사의 마음을 고취시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하는 대신에 그들을 자만스럽고 자부심이 강하게 만들었다. 곧 그들은 불평하던 옛 습관에 빠지고 말았다. 근 40년 전에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반역한 후에 즉시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으로 진군하도록 허락을 얻지 못한 일을 그들은 지금 불만스럽게 생각하였다. 그들은 광야에서 오랫동안 체류한 것은 지체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그 때에도 지금처럼 원수들을 쉽게 정복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PP 427.4}

그들이 남쪽으로 여행을 계속할 때에 그들의 길은 수목의 그늘이 없는 무더운 사막의 골짜기를 통해 뻗어 있었다. 그 길은 멀고 어려운 것처럼 보였으며 그들은 피곤과 갈증으로 심히 고통을 받았다. 또다시 그들은 믿음과 인내의 시험을 견디지 못했다. 그들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경험한 어두운 면에 집착함으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았다. 가데스에서 물이 그쳤을 때에 불평하지 않았더라면 에돔을 돌아가는 여행을 하지 않을 수 있었으리라는 사실을 그들은 잊어버렸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보다 나은 일을 경영하셨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그처럼 경하게 처벌하신 데 대해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충만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대신에 그들은 속으로 만일 하나님과 모세가 간섭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약속된 땅을 점령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어려움을 자초하고 그들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보다 더욱 어렵게 만들고도 그들은 모든 불행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렸다. 그리하여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사에 대하여 반감을 품고 마침내 만사에 불만을 나타냈다. 그리하여 애굽은 그들에게

노예로부터의 자유보다 더 좋게 보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땅보다 더욱 좋게 보였다. {PP 428.1}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만의 정신에 빠져서 축복에서까지도 결점을 찾으려고 하였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민 21:5). {PP 428.2}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그들의 죄를 충실히 제시하였다.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신 8:15)에서 그들을 보호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그들이 여행하는 동안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적으로 보호함을 받지 않은 날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모든 길에서 그들은 갈증을 풀어 주는 물을 발견하였다. 하늘에서 내린 떡은 배고플 때에 그들의 허기를 채워 주었고 낮에는 구름기둥의 그늘과 밤에는 불기둥 아래서 평화와 안전을 얻었다. 그들이 암석의 험준한 산길을 오를 때나 광야의 울퉁불퉁한 길을 헤치고 나아갈 때에 천사들은 그들을 위해 봉사하였다. 그들이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온 대열 중에 약한 자가 한 명도 없었다. 그들의 오랜 여행에서도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옷이 해어지지도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앞길에 삼림과 사막에 있는 맹수와 독사류를 제거하셨다. 그분의 이 모든 사랑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계속 불평한다면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당신의 은혜스러운 보호를 감사하고 회개하고 겸손히 당신께로 돌아올 때까지 당신의 보호를 거두실 것이었다. {PP 428.3}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아 왔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들을 둘러싼 무수한 위험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은 망언과 불신에 빠진 나머지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으며 여호와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죽음이 오도록 허락하셨다. 광야에 불뱀이라 불리는 독사가 있었는데 이 독사에게 물리면 극렬한 염증을 일으켜 신속하게 죽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이스라엘을 떠났을 때에 수많은 백성들이 이 독사에게 물렸다. {PP 429.1}

그리하여 온 진영에 공포와 혼란이 일어났다. 거의 모든 장막에 죽어가는 자와 죽은 자들이 있었다. 때때로 찢어지는 듯한 비명 소리가 밤의 적막을 깨뜨렸는데 이는 새로 뱀에게 물린 자가 있음을 알리는 것이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도와주거나, 아직 물리지 않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통스러운 염려와 노력으로 모두 분주하였다. 이제는 한 마디의 불평도 그들의 입술에서 흘러나오지 않았다. 현재의 고통에 비교하면 전에 당한 어려움과 시련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다. {PP 429.2}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였다. 그들은 모세에게 나아와 죄를 고백하고 탄원하였다. 저들은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므로 범죄하였”(민 21:7)다고 말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모세를 그들의 가장 큰 원수이며 그들의 모든 고통과 재난의 원인이라고 비난하였었다. 그러나 그런 비난을 말할 때에라도 그들은 그 비난이 잘못임을 알았다. 그리고 참으로 어려움이 닥쳐오자마자 그들은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모세에게 달려갔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민 21:7)라고 그들은 부르짖었다. {PP 430.3}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산 뱀과 비슷하게 구리로 뱀을 만들어 백성 중에 높이 세워 두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물린 자들이 그것을 바라보면 구원을 받을 것이었다. 모세는 그렇게 했고 물린 자들은 누구나 다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리라는 기쁜 소식이 온 진영에 전해졌다. 이때에 많은 사람이 이미 죽었다. 모세가 장대에 구리뱀을 달아 올렸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낫는다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같은 불신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길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도 많이 있었다. 부모와 형제와 자매들은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는 친지들의 희미한 눈망울들을 구리뱀에게로 향하도록 도와주려고 몹시 노력하였다. 비록 힘없이 죽어가는 자들일지라도 한번 쳐다보기만 하면 완전히 회복되었다. {PP 430.1}

백성들은 구리로 만든 뱀에게는 그것을 쳐다보는 자들을 그처럼 변화시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치료하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이다. 이 단순한 방법으로 백성들은 그같은 고통이 그들의 죄로 인하여 이르러 왔음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동안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보증을 받았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PP 430.2}

구리뱀을 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대한 교훈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치명적인 독소의 영향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었다. 하나님만이 그들을 치유하실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길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다. 그들은 살기 위하여 바라보아야 했다. 이는 하나님께 가납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었고, 그 뱀을 바라봄으로 그들의 믿음을 나타냈다. 그들은 뱀 그 자체에 무슨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의 상징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어야 할 필요성이 그들의 마음에 깨우쳐졌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왔고 그렇게 함으로 그들의 죄를 위한 충분한 속죄가 이루어진 줄 알았다. 그들은 이 제물들이 예표하는 장차 오실 구속주를 의지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는 이제 그들이 드리는 희생 제물 자체는 구리뱀처럼 아무 능력도 없고 효력도 없지만 구리뱀과 같이 그것은 그들의 마음을 크신 속죄 제물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할 것임을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다. {PP 430.3}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4, 15). 일찍이 이 세상에 살았던 자들은 모두 다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계 12:9) 자의 치명적인 독아(毒牙)에 물렸다. 죄의 치명적인 결과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방책에 의해서만 제거될 수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높이 쳐들린 뱀을 쳐다봄으로 저들의 생명을 구원했다. 쳐다보는 것은 믿는다는 의미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 준비된 방법을 의지하여 생명을 구원했다. 그처럼 오늘날의 죄인들도 그리스도를 쳐다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즉 죄인들은 속죄의 희생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용서를 받는다. 활력이 없고 생명이 없는 상징물과는 달리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회개하는 죄인을 고칠 수 있는 능력과 효능을 가지고 계신다. {PP 431.1}

비록 죄인들은 자기 스스로 구원함을 받을 수 없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요 6:37)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나 믿음을 행사하는 능력은 우리의 것이다. 믿음은 영혼이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은혜와 자비를 붙잡는 손이다. {PP 431.2}

그리스도의 의밖에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은혜스러운 언약의 축복 중 단 한 가지도 받을 권리를 주지 못한다. 이 축복을 얻으려고 오랫동안 갈망하고 노력한 자들이 많으나 받지 못함은 그들이 스스로 이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무슨 일을 해보려는 생각을 품은 까닭이었다. 그들은 시선을 자신에게서 돌리고 예수를 모든 것을 충족시키시는 구주로 믿지 않았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우리를 구원하리라고 생각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시다.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행 4:12). {PP 431.3}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죄를 용서하시는 구주로써 예수의 공로를 의지할 때에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모든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아무도 마치 자기 자신을 구원할 능력을 가진 것처럼,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말라. 예수께서는 우리가 이 일을 하기에 무력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 안에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칭의와 우리의 의가 있다. 우리에게 죄가 많음을 알게 될 때에 낙심하거나 우리에게 구주가 없는 것처럼 두려워하거나 구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생각이 없는 것처럼 여기지 말 것이다. 예수께서는 무력한 우리에게 당신께 나아와 구원함을 얻도록 초청하고 계신 것이다. {PP 431.4}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하늘이 제정한 구제책에서 도움을 발견하지 못한 자들이 많았다. 죽은 자들과 죽어가는 자들이 그들의 주위에 널려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죽음을 피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으나 계속하여 그들의 상처와 고통과 죽음이 확실함을 슬퍼하다가 마침내 그들이 즉시 나음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력은 쇠하고 그들의 눈은 흐려지게 되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인식한다면 우리의 모든 힘을 우리의 행위를 슬퍼하는 일에 바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의 상태가 무력함을 깨달아야 하는 동시에 결코 실망하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를 의지하여야 한다. 바라보고 살라. 예수께서는 당신께 나오는 자는 모두 구원하시겠다는 보증을 주셨다. 비록 기별을 받아야 할 무수한 사람들이

당신께서 제공하신 은혜를 거절할지라도 당신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는 한 사람도 멸망하도록 버려둔 바 되지 않을 것이다. {PP 432.1}

많은 사람들이 구속의 경륜의 신비가 그들에게 분명해질 때까지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무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효과를 체험한 사실을 알면서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거절한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결코 발견할 수 없는 이유와 증거를 찾아내기 위하여 철학의 미로에서 방황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증거는 거절한다. 그들은 의의 태양이 빛을 발하는 이유를 깨달을 때까지 그 빛 가운데서 행하기를 거절한다. 이런 노선을 고집하는 자들은 아무도 진리의 지식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의심할 여지를 모두 제거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기초를 놓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주신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마음은 흑암 중에 처하게 된다. 만일 뱀에게 물린 자들이 쳐다보기를 동의하기 전에 멈추어 서서 의심과 의문을 일으켰더라면 그들은 멸망을 당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쳐다보는 일이 우리의 의무이며 믿음으로 쳐다봄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PP 432.2}

39장 바산을 정복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의 남단을 통과한 후 다시 북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약속의 땅을 향해 진군했다. 그들의 길은 이제 광활한 고원(高原)으로 뻗어 있었는데 산등성이들로부터 시원하고 신선한 미풍이 불어오고 있었다. 이 길은 그들이 지금까지 여행해 온 타는 듯한 뜨거운 계곡과는 달리 여러 가지 좋은 변화가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쾌한 걸음으로 희망에 부풀어 앞으로 진군하였다. 그들은 세렛 시내를 건넌 후 모압 땅의 동쪽을 통과하였는데 이는 "모압을 괴롭게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신 2:9)는 명령을 받은 까닭이었다. 암몬 자손에 관해서도 동일한 명령이 내렸는데 이들도 역시 롯의 후손이었다. {PP 433.1}

더욱더 북쪽으로 전진하여 이스라엘 대군들은 곧 아모리 족속의 나라에 도달하였다. 본래 이 강하고 호전적인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남부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수효가 증가함에 따라 요단강을 건너 모압 족속으로 더불어 전쟁하여 그들의 영토의 일부분을 점유하였다. 아모리 족속들은 이곳에 정착하여 아르논 강으로부터 가장 북쪽인 얍복 강에 이르기까지 온 땅을 확고하게 지배하고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과하기를 갈망한 요단강으로 가는 길은 직접 이 지역을 통하여 나 있었다. 모세는 우호적인 기별을 수도에 있는 아모리 왕 시혼에게 보내었다. "나를 네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대로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나로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나로 마시게 하라 나는 도보로 지날 뿐"(신 2:27, 28)이라. 이에 대해 단호하게 거절하는 회신이 왔다. 모든 아모리 사람들의 군대가 침략자들의 진격을 저지하기 위하여 소집되었다. 이 무서운 군대는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에 사로잡히게 했는데 이는 그들이 잘 무장하고 훈련된 군대와 싸우기에는 그 준비가 너무나 빈약했기 때문이었다. 전쟁의 기술에 있어서도 그들의 원수들이 유리하였다.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즉시 망할 것처럼 보였다. {PP 433.2}

그러나 모세는 자기의 시선을 구름기둥에 고착시키고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아직도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사상으로 백성들을 격려하였다. 그와 동시에 모세는 전쟁을 위하여

인간의 힘으로 준비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도록 백성들에게 명하였다. 그들의 원수들은 전쟁하기를 열망하고 있었으며, 아무 준비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말살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온 땅의 소유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에게 다음의 명령을 하달하셨다. “너희는 일어나 진행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 땅을 네 손에 붙였은즉 비로소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얻으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으로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네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인하여 근심하리라”(신 2:24, 25). {PP 434.1}

가나안 국경에 있는 이 민족들은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여 이스라엘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았더라면 멸절되지 않았을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친히 이 이방 백성들에게까지 오래 참으셨고 큰 친절과 부드러운 동정을 나타내셨다. 아브라함이 계시 가운데 자기의 후손 이스라엘 자손이 이방 나라에서 4백 년 동안 나그네가 되리라는 것을 보았을 때에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네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창 15:16)는 약속을 주셨다. 원래 아모리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었으며 큰 죄를 범하였으므로 전멸되는 것이 당연했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4백 년 동안이나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당신께서 천지의 창조주시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란 분명한 증거를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당신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다. 충분한 증거가 주어진 바 되었으므로 자원하여 우상숭배를 버리고 방종에서 돌아서기를 원했더라면 그들은 진리를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모리인들은 빛을 거절하고 그들의 우상을 버리지 않았다. {PP 434.2}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을 두 번째 가나안 국경으로 인도하실 때에 당신의 능력의 증거를 이 이교 민족들에게 다시 한 번 나타내셨다. 이스라엘이 아랏 왕과 가나안 사람들에게서 얻은 승리와 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이적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통과하도록 해달라는 저들의 요청이 거절당해서 홍해 곁의 멀고 어려운 길을 취할 수밖에 없었으나 그들은 에돔 땅을 지나 모압과 암몬을 여행하거나 진을 치는 일에 있어서 적의를 보이거나 그 나라 백성이나 그들의 소유에 대해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다. 아모리

족속의 국경에 도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과 더불어 교제할 때에 지켰던 동일한 규칙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면서 다만 그 나라를 직접 통과할 허락을 요청하였다. 아모리인의 왕이 이 정중한 간청을 거절하고 도전적으로 전쟁을 위해 그의 군대를 소집했을 때에 그들의 불의의 잔이 넘쳤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전복시키기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행사하실 것이었다. {PP 434.3}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르논강을 건너 적을 향해 진격하였다. 두 군대 사이에 교전이 있었고 마침내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를 얻었다. 획득한 유리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아모리의 영토를 점령하였다. 당신의 백성들의 원수를 흩으신 분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었다. 만일 이스라엘이 그분을 의지했었더라면 그분은 38년 전에도 이 일을 행하셨을 것이다. {PP 435.1}

희망과 용기가 충천해진 이스라엘군은 쉬지 않고 전진하여 더욱더 북쪽으로 나아가 마침내 그들의 용기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시험하기에 적합한 나라에 도착하였다. 그들 앞에는 오늘날까지 세계의 경이로 일컫는 왕국 곧 “성읍이 육십이…며 높은 성벽이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신 3:4, 5)은 석조의 대도시가 운집한 강력하고 인구가 많은 바산 왕국이 있었다. 그 집들은 거대한 검은 돌들로 건축되었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어떤 힘으로도 헐 수 없는 난공불락의 건물들이었다. 그 나라에는 동굴과 높은 절벽과 입을 벌린 듯한 심연과 암석의 요새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나라의 주민들은 거인의 후예로서 거대한 체구와 힘을 가지고 있었으며 매우 난폭하고 잔인하여 인근 모든 민족이 두려워하였다. 한편 그 나라의 왕 옥은 거인의 나라에서도 체구와 용맹이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했다. {PP 435.2}

그러나 구름기둥은 앞으로 이동하였고 그것의 지도를 따라 히브리 대군은 거인 왕이 그의 군사로 더불어 그들의 접근을 기다리고 있는 에드레이로 진군하였다. 옥은 가장 지혜롭게 전투지를 선택하였다. 에드레이 도성은 평야에서 돌연히 솟은 고원의 가장자리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그 고원은 톱날 같은 화산암으로 덮여 있었다. 이곳은 협소하고 가파르고 험한 오르막길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었다. 그의 군대가 패배할 경우에는 적군이 그들을 추격할 수 없는 그 암석의 황야에서 피난처를 찾을 수 있었다. {PP 435.3}

왕은 성공을 확신하고 대군을 거느리고 평지를 향해 내려왔다. 한편 위에 있는 고원지대에서는 도전하는 군사들의 함성이 들려오고 싸우기를 열망하는 수천 개의 창살들이 번쩍였다. 이스라엘 백성 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군병들보다 키가 엄청나게 큰 거인들 중에 거인 왕의 당당한 자세와 그를 둘러싼 대군과 난공불락인 것처럼 보이는 요새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수한 복병들이 있는 그 곳을 바라보고 공포에 떨었다. 그러나 모세는 태연자약하였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바산 왕에 관하여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네 손에 붙였으니 네가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신 3:2)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PP 436.1}

그들의 지도자 모세의 침착한 신앙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고취시켰다. 백성들은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에 의지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장대한 거인과 성벽으로 둘린 도성과 무장한 대군과 암석으로 된 요새도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서는 견딜 수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대군을 인도하시고 원수를 교란시키시고 그들을 정복하셨다. 거인인 왕과 그 군대는 멸망을 당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시 온 땅을 점령하였다. 그리하여 죄악과 추악한 우상숭배에 빠졌던 이방인들은 그 땅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PP 436.2}

길르앗과 바산의 정복에서 많은 사람들은 약 40년 전에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광야를 방황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한 사건을 회상하였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관한 정탐꾼들의 보고가 많은 점에서 옳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도성들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매우 거대했다. 또 그 곳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에 비하면 히브리인들은 난쟁이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므로 치명적인 과오를 범했다는 사실도 알았다. 바로 이 불신이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은 것이었다. {PP 436.3}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처음에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준비할 때에는 그 모든 사정이 지금보다 훨씬 어려움이 덜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의 음성을 순종하면 당신이 그들 앞서 가셔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고 또한 왕벌을 보내어 그 땅 거민들을 몰아내시겠다고 당신의 백성에게 약속하셨고 또 모든 민족들은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그들의 진로를 방해할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으로 전진하라고 명하신 지금에 와서는 경계 태세를 갖춘 강력한 원수를 향해 진격해야 하고 그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잘 훈련된 대군과 싸워야만 했다. {PP 436.4}

옥과 시혼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그처럼 현저하게 실패한 동일한 시련을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의 시련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으로 전진하라고 명령하셨을 때보다 훨씬 더 어려웠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진하라는 명을 받았을 때에 그들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들의 앞길에 놓인 어려움은 한층 더 커졌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당신의 백성을 시험하신다. 만일 그들이 그 시험을 견디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다시 동일한 지점에 두시어 그들로 두 번째 시험을 받게 하신다. 그 때에는 그 시험이 전보다 훨씬 격렬할 것이다. 그들이 시험을 견딜 때까지 이 일은 계속된다.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반역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당신의 빛을 거두시고 그들을 어둠 속에 버려두신다. {PP 437.1}

히브리인들은 전에 그들의 군대가 전투에 나아가 패배를 당하고 무수한 사람이 죽었던 사실을 회상하였다. 그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갔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임명하신 지도자 모세도 없이 나아갔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기둥과 법궤도 없이 나아갔다. 그러나 지금은 모세가 그들과 함께 있어 희망과 믿음의 말로써 저희 마음을 굳세게 하였다. 구름기둥에 싸인 하나님의 아들이 길을 인도하였고 거룩한 법궤가 대군과 동행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이 경험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하며 우리가 당신의 요구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옛날 당신의 백성에게 행하신 바와 같은 현저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의무의 길을 따르고자 애쓰는 자들에게는 때때로 의심과 불신이 엄습해 올 것이다. 때때로 그들의 전도가 거의 이겨내기 어려운 장애물로 가로막힐 때 낙담하고 절망에 빠질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자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신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대의 의무를 다하라. 그대의 영혼을 공포에 몰아넣는 엄청나게 무서워 보이는 고난들이,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의 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갈 때에는 사라질 것이다. {PP 437.2}

40장 발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산을 정복한 후에 요단강으로 돌아와 즉각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로서 여리고 평원의 맞은편 곧 사해(死海)로 들어가는 하구 곁에 진을 쳤다. 그들은 바로 모압의 변경에 있었으므로 모압인들은 침략자들이 가까이 접근한 것을 알고 공포에 사로잡혔다. {PP 438.1}

모압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지 않았으나 이웃 나라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매우 불길한 예감을 가지고 바라보았다. 모압인들은 아모리인들 앞에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아모리인들은 히브리인들에게 정복당하여 아모리인들이 모압 사람들에게서 억지로 빼앗아간 영토가 이제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었다. 바산 대군은 구름기둥에 둘러싸인 신비스러운 능력 앞에 항복했다. 히브리인들은 이제 거인의 성채(城砦)들을 점령하였다. 모압인들은 감히 히브리인에게 모험적인 공격을 가하지 못했다. 무력에 호소하는 일은 히브리인을 위하여 싸우시는 초자연적 능력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었다. 그러나 모압인들은 바로가 했던 것처럼 마술의 능력을 빌어 하나님의 사업을 저지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를 내리고자 했다. {PP 438.2}

모압 백성들은 국민성과 종교의 양면에 있어서 미디안인들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모압 왕 발락은 같은 민족들의 공포심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대적하려는 그의 계획에 그들의 협력을 얻기 위하여 기별을 보내어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 먹음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민 22:4)고 말했다. 메소포타미아 사람 발람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는 소문이 모압 땅에까지 퍼져 있었다. 모압 왕은 발람을 불러 그의 도움을 얻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의 사자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발람의 예언과 요술을 얻어내기 위하여 보낸 바 되었다. {PP 438.3}

사신들은 곧 산을 넘고 사막을 건너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긴 여행을 시작했다. 그들은 발람을 찾아 다음과 같이 그들의 왕의 기별을 전했다.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앎이니라”(신 22:5, 6). {PP 439.1}

일찍이 발람은 선량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선지자였다. 그러나 그는 배도하고 탐욕에 빠져 있으면서도 여전히 지극히 높으신 분의 종이라고 공언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사자들이 그에게 온 용건을 말했을 때에 그는 발락의 보상을 거절하고 사신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자기의 의무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발람은 위험하게도 감히 유혹과 장난하려고 하였으며, 여호와의 권고를 듣기까지는 아무런 결정적인 대답도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사자들에게 그 밤을 자기와 함께 유하도록 간청하였다. 발람은 자기의 저주가 이스라엘을 해할 수 없으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계시며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한 이 지상이나 지옥의 어떠한 반대 세력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발람의 교만심은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사신들의 말에 우쭐했다. 매우 값진 뇌물과 장래의 부귀영달은 그의 탐욕을 자극했다. 그는 그들의 내놓은 보물들을 탐욕스럽게 받아들이고는 한편으로 하나님의 뜻을 엄격히 순종할 것을 공언하면서도 발락의 소원을 채워 주고자 하였다. {PP 439.2}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발람에게 내려와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니라”는 기별을 전하였다. {PP 439.3}

아침에 발람은 마지못해 사자들을 돌려보냈으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바를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많은 이득과 명예에 대한 환상이 돌연히 소실되었기 때문에 화가 난 발람은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고 부르짖었다. {PP 439.4}

발람은 “불의의 삯을 사랑하”(벧후 2:15)였다.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라고 선언하신 탐욕의 죄는 발람을 기회주의자로 만들었으며 이 한 가지 죄를 통하여 사단은 그를 완전히 지배하였다. 이것이 바로 그의 멸망을 초래했다. 유혹자는 사람들을 꾀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항상 세속적 이득과 명예를 제시한다. 유혹자는 그들이 지나치게 양심적이므로 번영하지 못한다고 그들에게 말한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은 엄격한

성실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유혹을 받는다. 한 번의 그릇된 발걸음은 그 다음의 발걸음을 더욱 쉽게 만들고 더욱더 외람된 일을 행하게 한다. 탐욕의 지배를 받고 권세욕에 빠지게 될 때에는 가장 무서운 일들을 감행하게 될 것이다. 어떠한 세속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한동안 엄격한 성실을 떠났다가 그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그들이 원할 때는 다시 그들의 행로를 변경할 수 있다고 스스로 아첨하는 자들이 많다. 이와 같은 자들은 스스로 사단의 올무에 빠지는 자들이며 그들은 좀처럼 그 곳에서 빠져 나올 수 없다. {PP 439.5}

사자들은 발락에게 선지자가 그들과 동행하기를 거절한 사실을 보고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금하신 일을 고하지 않았다. 왕은 발람이 더 많은 보상을 얻기 위하여 지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처음보다 지위가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어 더 높은 지위를 주겠다는 약속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발람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줄 수 있는 권위를 부여하였다. 선지자에게 보내는 발락의 긴급한 기별은 다음과 같았다. “청컨대 아무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민 22:16, 17). {PP 440.1}

발람은 두 번째 시험을 당했다. 발람은 사신들의 간청에 대하여 자신은 매우 양심적이며 성실하다고 공언하면서 아무리 많은 금과 은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행동은 하지 못한다고 단언하였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왕의 요구에 응하고 싶어했다. 하나님의 뜻이 이미 자기에게 분명히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사자들에게 하나님께 다시 물어볼 터이니 하룻밤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마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처럼 설득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PP 440.2}

여호와께서 다시 밤에 발람에게 나타나사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민 22:20)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어떻게든지 가려고 작정한 것을 보시고 당신의 뜻을 따르는 한 가도록 허락하셨다.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길을 선택한 후에 여호와의 재가를 얻으려고 애를 썼다. {PP 440.3}

오늘날도 이와 같은 노선을 따라가는 자들이 무수히 많다. 그들의 의무가 그들의 기호와 일치했더라면 그것을 깨닫기에는 별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의무는 성경에

분명히 드러나 있거나 환경과 이성에 의하여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들이 그들의 욕망과 기호에 반대되는 까닭에 그들은 흔히 그것들을 제쳐 두고 그들의 의무가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표면상으로 그들은 크게 양심적인 것처럼 빛을 구하기 위하여 오래 열렬히 기도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실 것이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자신들의 욕망을 따르도록 허락하시고 그 결과를 당하게 하신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 마음의 강퍅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시 81:11, 12). 우리의 의무를 분명히 알면서도 그것을 행치 않을 핑계를 찾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 보겠다고 생각지 말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겸손하고 순종하는 정신을 가지고 그 요구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할 것이다. {PP 440.4}

모압인들은 타락한 우상 숭배자들이었으나 저희가 받은 빛에 의하면 그들의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발람의 죄만큼 크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공언했으므로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의하여 말한 것으로 간주될 것이었다. 그런고로 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할 허락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기별을 전해야 하였다.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다. {PP 441.1}

발람은 모압에서 온 사자들이 아침에 그를 부르러 오면 그들과 함께 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발람이 지체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났을 뿐만 아니라 다시 거절당할 것이 뻔하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그와 의논하지 않고 돌아가 버렸다. 이제는 발락의 요구에 따라갈 구실이 모두 없어졌다. 그러나 발람은 보상을 받기로 결심하고 항상 타고 다니던 짐승을 타고 여행길에 올랐다. 그는 하나님의 허락이 취소되지나 않을까 염려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그가 탐하던 보상을 잃지 않으려고 조급한 마음으로 열심히 길을 재촉하였다. {PP 441.2}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그 짐승은 발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갔다. 발람은 잔인하게 그 짐승을 때려 길로 되돌아오게 했다. 그러나 담들로 막힌 협소한 곳에서 다시 천사가 나타나자 이를 본 그 짐승은 천사의 무서운 자태를 피하려고 주인의 발을 담벼락에 비비어 상처를 나게 했다. 발람은 눈이 어두워 그의 길을 하늘 천사가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이

그의 길을 막고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발람은 대노하여 무자비하게 나귀를 때리고 억지로 전진하게 하였다. {PP 441.3}

다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서 전과 같이 무서운 자태로 천사가 나타났다. 가련한 짐승은 공포에 떨면서 꼼짝 못하고 섰다가 발람을 태운 채로 엎드려졌다. 발람은 말할 수 없이 분노하여 지팡이로 전보다 더 잔인하게 나귀를 때렸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귀의 입을 여시고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게 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하셨다”(벧후 2:16). 나귀는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뇨”라고 말했다. {PP 442.1}

이와 같이 여행이 방해받는 것을 보고 분노한 발람은 마치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 짐승에게 “네가 나를 거역하는 연고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고 말하였다. 자기가 타는 동물도 죽일 능력이 없는 자칭 마술사가 온 국민에게 저주를 선언하여 그들의 능력을 마비시키러 가다니! {PP 442.2}

이제 발람은 눈이 열려서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빼어 들고 서 있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았다. 그는 무서워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다. 천사는 발람에게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네 길이 내 앞에 패역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고 말하였다. {PP 442.3}

발람은 자기가 그처럼 잔인하게 대했던 가련한 동물의 덕택으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주장하고 “눈을 뜬 자요”, “전능자의 이상”을 본다고 선언한 자가 탐욕과 야망에 눈이 어두워 그의 나귀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천사를 분별할 수 없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후 4:4)였다. 이와 같이 눈먼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은 금지된 길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며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이 그들을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들은 발람처럼 그들의 멸망을 막는 자들을 보고 화를 낸다. {PP 442.4}

발람은 자기의 나귀를 취급한 일에서 그가 어떤 정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잠

12:10). 세상에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여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는 자가 심히 적다.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등 동물도 역시 만드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시 145:9)다. 동물은 비록 인간의 필요에 응하도록 지음을 받았으나 인간에게는 동물을 혹사시키거나 학대함으로 그것을 괴롭힐 권리가 없다. {PP 442.5}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롬 8:22)고 있다. 이와 같이 고통과 죽음은 인류에게뿐 아니라 동물들에게까지 미쳤다. 그러므로 인간은 분명히 그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물에게 미친 고통의 무게를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마땅하다. 자기의 지배 아래 있다는 이유로 동물을 학대하는 자는 비겁한 자인 동시에 압제자이다. 사람이나 짐승에게 고통을 가하는 성벽은 악마적인 성벽이다. 말 못하는 가련한 동물은 아무리 학대할지라도 그 고통을 표현할 수 없으므로 그들의 잔인한 행위가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발람의 눈처럼 이런 자의 눈이 열릴 수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천사가 증인으로서 하늘 법정에 서서 그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을 학대하는 자들의 기록이 다 하늘로 올라가고 있으며 또 그들에게 형벌이 선고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PP 443.1}

하나님의 사자를 볼 때에 발람은 두려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라고 부르짖었다. 여호와께서는 발람에게 여행을 계속하도록 하셨으나 그가 말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에 지배를 받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모압인들에게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증거를 주시고자 하셨다. 그같은 증거로서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발람이 히브리인을 저주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무력함을 모압인들에게 보이셨던 것이다. {PP 443.2}

모압 왕은 발람이 가까이 온다는 소식을 듣자 많은 시종들과 함께 그를 맞으러 자기 나라의 국경에까지 나아갔다. 값진 보상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데도 발람이 지체한 데 대하여 왕이 놀라움을 표시할 때에 선지자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다.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임의로 말할 수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은 이 제재를 매우 애석하게 여겼으며 여호와의 제어하시는 능력이 그에게 있으므로 그의 목적이 성취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고 두려워하였다. {PP 443.3}

왕은 나라의 중신들과 함께 장엄하게 위엄을 갖추어 발람을 호송하여 "바알의 산당"으로 올라갔다. 그 곳에서 발람은 히브리 대군을 두루 살필 수 있었다. 높은 산 위에 서서 하나님의 선민의 장막을 내려다보고 있는 선지자를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얼마나 알지 못하고 있었던고! 그들은 밤낮 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얼마나 알지 못했던가! 하나님의 백성의 지각력이 얼마나 둔한가! 각 시대를 통하여 그들은 당신의 크신 사랑과 자비를 얼마나 더디 깨닫는가! 만일 그들이 그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분별할 수 있었더라면 그들의 마음에는 당신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당신의 위엄과 능력을 생각하고 경외심으로 충만했을 것이 아닌가? 발람은 히브리인들의 희생 제물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므로 그는 그들이 드리는 제물을 능가하는 값진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그의 악한 계획도 성취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졌다. 그리하여 우상 숭배자인 모압인들의 감정이 발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의 지혜는 어리석게 되고 그의 영적 안목은 흐려졌다. 그는 사단의 능력에 복종함으로 스스로 우매함을 자청하였다. {PP 443.4}

발람은 일곱 개의 제단을 쌓도록 지시하고 각 제단 위에 희생 제물을 드렸다. 그 후에 발람은 여호와께서 나타내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발락에게 고할 것을 약속하고 하나님을 만나려 "사태난 산"으로 물러갔다. {PP 444.1}

왕은 모압의 귀족과 방백들과 함께 제단 곁에 서 있고 그 주위에는 결과를 보고자 열망하는 군중들이 모여 서서 모두가 선지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발람이 돌아왔고 백성들은 자기들이 미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신비스러운 능력을 영원히 무력하게 할 저주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발람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PP 444.2}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편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의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뉘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 사분지 일을 뉘 능히 계수할꼬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PP 447.1}

발람은 자기가 이스라엘을 저주할 목적으로 왔노라고 고백하였다. 그러나 그가 한 말은 그의 마음의 감정과는 정반대되는 말이었다. 그의 영혼은 저주로 충만한 반면에 그는 축복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 {PP 447.2}

발람이 눈을 들어 이스라엘의 진영을 바라볼 때에 그들의 번영의 증거를 보고 크게 놀랐다. 발람은 이제까지 이스라엘은 미개하고 아무 조직도 없는 민족으로 무리를 지어 배회하면서 나라들을 해치므로 부근의 국민들에게 염오와 공포의 대상인 줄 알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 모든 것과는 정반대였다. 발람은 이스라엘 진영이 그 규모가 크고 완전히 정렬되었으며 모든 것이 완전한 규율과 질서를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또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은총과 하나님의 선민으로의 그들의 특수한 성격을 보았다. 실로 이스라엘은 다른 국민들과 동일한 수준에 설 것이 아니요 만민 중에 탁월하게 될 것이었다.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로 열방 중의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발람이 이 말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주할 땅도 없었고 또 그는 이스라엘의 특별한 성격이나 그들의 풍속이나 습관을 잘 알지도 못했다. 그 후 그의 이 예언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얼마나 현저하게 성취되었는가! 포로 생활을 하던 모든 세월 동안 각 나라로 흩어진 이후의 각 시대를 통하여 이스라엘은 특유한 백성으로 존속하였다.

그와 같이 온 세상에 흩어져 사는 하나님의 백성 곧 참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서 과객(過客)에 불과하고 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PP 447.3}

발람은 한 민족으로서의 히브리의 역사뿐 아니라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의 증가와 번영을 바라보았다. 그는 당신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특별한 은총을 보았다. 그는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어둠의 골짜기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당신의 팔에 의지하는 것을 보았다. 또 그는 저희가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면류관을 쓰고 무덤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새롭게 변화된 세상에서 불멸의 영광중에서 구속받은 자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았다. 이 광경을 바라보고 발람은 "야곱의 티끌을 뉘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 사분지 일을 뉘 능히 계수할꼬"라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또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영광의 면류관이 있고 각 사람의 얼굴에 희열이 빛나는 것을 보고 그 순결한 행복의 무궁한 생애를 연상할 때에 발람은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라고 엄숙한 기도를 드렸다. {PP 447.4}

만일 발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었다면 그는 이제 그가 한 말을 실행하고 모압과의 모든 관계를 끊었을 것이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를 이용하지 않고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것이다. 그러나 발람은 불의의 삯을 사랑하고 그것을 얻기로 결심하였다. {PP 448.1}

발락은 이스라엘에게 저주가 내려 마치 초목이 시들듯이 그들이 시들 것을 확신하고 기다렸다. 그러나 그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분노하여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온전히 축복하였도다"고 부르짖었다. 발람은 부득이해서 한 일을 자진해서 한 것같이 꾸미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양심적으로 존중하여 그의 권능으로 자기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공언했다. 발람은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라고 대답하였다. {PP 448.2}

발람은 아직도 자기의 목적을 포기할 수 없었다. 발락은 방대한 히브리 진영의 당당한 광경을 보고 발람이 놀라서 감히 히브리인을 저주하는 점을 치지 못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리하여 왕은 이스라엘 대군의 일부만이 보이는 곳으로 선지자를 데리고 가기로

결심하였다. 발람이 일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 있다면 온 진영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비스가산이라고 불리는 높은 산꼭대기에서 다른 시험을 하였다. 다시 제단 일곱을 쌓고 그 위에 첫 번째 제물과 같은 제물을 놓았다. 왕과 귀족들만 희생 제단 곁에 남아 있고 발람은 하나님을 만나러 물러갔다. 다시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기별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그는 그것을 변경할 수도 없었고 버릴 수도 없었다. {PP 448.3}

그가 근심스럽게 기다리는 무리에게 왔을 때에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왕과 귀족의 마음을 공포에 사로잡히게 한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하였다. {PP 448.4}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식언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PP 449.1}

이 계시에 압도당한 발람은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라고 부르짖었다. 대마술사는 모압인들의 갈망에 따라 사술을 쓰려고 노력하였으나 바로 이때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한 어떤 국가나 사단의 모든 능력을 힘입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죄악의 노선을 따르려고 결심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에 감동되어 그들을 저주하는 대신에 가장 부요하고 가장 귀중한 허락들을 장엄하고 감동적인 시적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에, 온 세계는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하신 일을 보고 경탄할 것이다. 이때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은총은 각 시대를 통하여 당신을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녀들을 보호하시겠다는 보증이 될 것이었다. 사단이 악인들을 움직여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잘못 나타내고 괴롭히고 멸하려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 사건을 회상하고 용기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크게 할 것이다. {PP 449.2}

실망하고 고민에 싸인 모압 왕은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고 부르짖었다. 그러나 일루의 희망이 아직도 그의 마음에 머물러 있어서 그는 한 번 더 시험해 보기로 하였다. 발락은 이제 그들의 신 바알을 음란하게 섬기는 사당이 있는 브올산으로 발람을 인도하였다. 여기서 전과 동일한 수효의 제단을 쌓고 같은 수의 희생 제물을 드렸다. 그러나 발람은 다른 때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홀로 물러가지 않았다. 그는 사술을 부리는 체하지도 않고 제단 곁에 서서 널리 펼쳐진 이스라엘의 장막들을 내려다보았다. 다시 하나님의 성령이 발람에게 임하여 그의 입술에서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기별이 흘러나왔다. {PP 449.3}

"야곱이여 네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종자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진흥하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PP 450.1}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의 번영이 자연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상징들로 표현되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풍부한 수확물이 덮인 비옥한 골짜기와, 언제나 끊어지지 않는 샘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댄 무성한 동산과, 향기로운 백단향(白檀香)과,

당당한 백향목에 비유하였다. 마지막에 언급한 장면은 영감의 말씀 중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현저하고 아름답고 적절한 표현 중에 하나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동방의 모든 백성에게서 존중히 여김을 받았다. 이 백향목류에 속하는 나무는 온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찾아볼 수 있다. 한대 지방에서 열대 지역에까지 백향목류의 나무들은 더위에 잘 자라고 추위에도 잘 견디며 물가에서는 매우 무성하나 찌는 듯이 무덥고 메마른 황무지에서도 높이 솟아 있다. 이들은 바위산에서도 뿌리를 깊이 박고 폭풍우에 끄떡하지 않고 꿋꿋이 서 있다. 다른 모든 나무가 겨울이 오면 곧 말라 죽지마는 그들의 잎사귀는 신선하고 푸르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다른 모든 나무보다 그 힘과 견고함과 좀처럼 썩지 않는 점에서 우월하다. 그리고 이 나무는 그들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취"(골 3:3)인 자들을 상징하는 데 사용된다. 성경에는 "의인은…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시 92:12)고 말한다. 하나님의 손길이 백향목을 삼림 중의 왕처럼 높이셨다.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아무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겔 31:8). 백향목은 종종 왕의 상징으로 사용된다. 성경에는 이것을 의인을 대표하는 데 사용하고 하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나타낸다. {PP 450.2}

발람은 이스라엘 왕이 아각보다 위대하고 강대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아각이란 그 당시에 매우 강대한 민족인 아말렉인의 왕들에게 붙인 이름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한 그의 모든 원수를 정복할 것이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 보좌는 장차 이 세상에 세워지고 그 권세는 세상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날 것이다. {PP 450.3}

선지자의 말을 듣고 발락은 실망과 공포와 분노로 압도되었다. 발락은 발람이 유리한 대답으로 최소한의 용기도 주지 못하고 모든 일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결정된 것을 보고 분개하였다. 그는 선지자의 타협적이요 기만적인 행위를 조롱하는 태도로 대하였다. 왕은 맹렬하게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려가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케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가 그대를 막아 존귀치 못하게 하셨도다"라고 부르짖었다. 그 대답은 발람이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만을 말할 따름이라고 왕에게 미리 경고한 그대로였다. {PP 450.4}

발람은 자기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기 전에 세계의 구주와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들의 최후의 멸망에 관한 가장 아름답고 장엄한 예언을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PP 451.1}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PP 451.2}

발람은 최후로 모압과 에돔, 아말렉과 가인 족속의 완전한 멸망을 예언하여 모압 왕에게 일루의 희망도 남기지 않았다. {PP 451.3}

부귀영달의 소망과 왕의 총애를 잃어버렸을 뿐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을 산 것을 알고 실망한 발람은 자기 스스로가 선택했던 사명을 마치고 돌아왔다. 발람이 집에 도착한 후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제어하시는 능력이 그를 떠나고 이제까지 제지되어 온 그의 탐욕만이 그를 지배하였다. 그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발락이 약속한 보상을 얻고자 하였다. 발람은 이스라엘의 번영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데 달려 있고 그들을 죄에 빠뜨리지 않고는 그들을 전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제 그는 모압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가 내리도록 하는 방법을 따르도록 조언함으로 발락의 환심을 사기로 결심하였다. {PP 451.4}

발람은 즉시 모압 땅으로 돌아가 왕 앞에 자기의 계획을 아뢰었다. 모압인들도 역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실 것을 깨닫고 있었다. 발람이 제의한 계획은 이스라엘을 우상숭배로 유인함으로 그들을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것이었다. 만일 그들을 바알과 아스다롯의 음탕한 예배에 참석시킬 수 있다면 그들의 전능하신 보호자는 그들의 원수가 되실 것이며 그들은 곧 주위에 있는 맹렬한 호전 민족들의 밥이 되고 말 것이다. 왕은 쾌히 이 계책을 받아들였으며, 발람 자신은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일을 수행하는 데 조력하였다. {PP 451.5}

발람은 그의 악마적 계책이 성공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저주가 당신의 백성에게 임하여 무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것을 보았다. 이스라엘의 죄를 벌하신 하나님의 공의는 유혹자들을 그대로 두시지 않으셨다. 발람은 이스라엘과 미디안 백성 사이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다. 자신의 최후가 가까움을 예감한 발람은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고 부르짖었었다. 그러나 발람은 의인의 생애를 살기로 선택하지 않았고 그의 운명은 하나님의 원수 편으로 결정되었다. {PP 451.6}

발람의 운명은 유다의 운명과 비슷하였고 그 두 사람의 성격에는 서로 유사점이 있었다. 두 사람이 다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기려다가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다. 발람은 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섬기노라고 공언하였다. 유다도 역시 예수를 메시야로 믿는다고 공언하고 예수의 추종자들과 연합하였다. 그러나 발람은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부귀와 세속적 명예를 얻는 디딤돌로 삼으려 하였다. 여기에 실패하여 그는 비틀거리다가 넘어져 깨어지고 말았다. 유다는 자신이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음으로 자기가 믿는 바와 같이 메시야가 이 세상에 세우려고 하는 나라에서 부귀와 영달을 얻으려고 기대하였다. 그가 바라던 일의 실패가 그를 배도와 멸망으로 몰아넣었다. 발람과 유다 두 사람 다 큰 빛을 받았고 특별한 특권을 누렸다. 그러나 마음속에 품은 한 가지 죄악이 온 성품을 중독시켜 그들을 멸망에 빠뜨렸다. {PP 452.1}

마음속에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특성이 존재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마음속에 품은 한 작은 죄는 점점 품성을 저하시켜 그 고상한 모든 능력을 악한 욕망에 복종시킨다. 양심의 방벽 중 하나를 제거하고, 한 가지 악습에 방종하는 것, 고상한 한 가지 의무의 요구를 게을리하는 것은 영혼의 방벽을 무너뜨리고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를 타락시킬 길을 열어준다. 가장 안전한 길은 다윗처럼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아니하였나이다”(시 17:5)라고 진실한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다. {PP 452.2}

41장 요단에서의 배도

승리를 얻은 이스라엘 군대는 마음에 큰 기쁨과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바산에서 돌아왔다. 그들은 이미 귀중한 영토를 소유하였고 즉시 가나안을 정복하리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들과 약속의 땅 사이에는 요단강이 가로놓여 있을 뿐이었다. 강 바로 맞은편에는 신록이 덮여 있었고 많은 샘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와 무성한 종려나무 그늘이 덮인 비옥한 평야가 있었다. 이 평야의 서쪽 변경에는 여리고의 망대와 높이 솟은 궁전이 종려나무 숲에 둘러싸여 있었으므로 여리고 성을 "종려의 성읍"이라 불렀다. {PP 453.1}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높은 고원 지대와 강 사이는 요단 동편에도 역시 폭이 여러 마일이나 되는 평야가 있었는데 그것은 강을 따라 멀리까지 펼쳐져 있었다. 이 그늘진 골짜기의 기후는 열대성이었는데 그 곳에는 싯딤나무 혹은 아카시아라고 불리는 나무가 무성하여 이 평야를 "싯딤 골짜기"라 불렀다.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으며 그들은 강변에 있는 아카시아 숲 속에서 쾌적한 안식처를 발견하였다. {PP 453.2}

그러나 이 매혹적인 환경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장한 대군이나 광야의 맹수보다 더 치명적인 악을 만나게 되었다. 자연의 혜택이 매우 풍부한 이 나라는 그 곳에 사는 거민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다. 주신(主神) 바알의 예배에서 가장 비열하고 간악한 장면이 날마다 공공연하게 일어났다. 사방에는 백성들의 비열하고 부패함을 암시하는 우상숭배와 방탕한 흔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PP 453.3}

이러한 환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패한 감화를 끼쳤다. 그들의 마음은 끊임없이 암시되는 비열한 생각에 익숙해지고 그들의 안일하고 나태한 생활은 저들의 생활을 문란하게 해서 자신들이 거의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쉽사리 유혹의 희생물이 될 상태에 들어가고 있었다. {PP 453.4}

그들이 요단강가에 진을 치고 있는 동안 모세는 가나안을 정복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위대한 지도자는 이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다. 그러나 백성들에게는 이 어중간하고 기대하는 시간이 가장 괴로운 때였다. 여러 주일이 지나가기 전에 그들은 덕행과 성실함에서 매우 크게 이탈하여 그들의 역사를 더럽히고 말았다. {PP 454.1}

최초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인근 이방인 사이에 거의 교제가 없었다. 그러나 얼마 후에 미디안 여인들이 진 속으로 몰래 숨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 여인들의 출현이 아무런 경계심도 일으키지 않았으며 그들의 계획이 매우 조용히 진행되었으므로 모세도 그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 여인들의 목적은 히브리인과 교제하여 그들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유혹하고 이교의 의식과 습관에 흥미를 끌게 하여 그들을 우상숭배에 끌어들이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동기가 우정의 두루마기 아래 교묘히 감추어져 있었으므로 그들은 백성의 지도자들에게까지 의심을 받지 않았다. {PP 454.2}

발람의 제의에 따라 모압 왕은 그들의 신들을 높이는 대축제일을 정하고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석을 권유할 수 있도록 그것은 비밀리에 준비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고 있었으므로 발람은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거의 어려움이 없었다. 많은 백성들이 그와 함께 축제에 참가하였다. 그들은 대담하게도 금지된 곳으로 나아가 사단의 올무에 걸렸다. 노래와 춤과 이교 축제의 아름다움에 현혹되어 그들은 여호와께 대한 충절을 포기하였다. 환락과 축연에 가담하여 술을 마시며 방종할 때에 그들의 지각은 몽롱해져 마침내 자제력을 잃고 말았다. 정욕이 그들을 완전히 지배하였다. 음탕한 행위로 말미암아 양심을 더럽힌 그들은 우상에게 머리를 숙여 절하도록 권유를 받았다. 그들은 이교도의 제단에 희생 제물을 드리고 가장 비루한 의식에 참여하였다. {PP 454.3}

오래지 않아 이 독소는 치명적인 전염병처럼 이스라엘 진영에 퍼졌다. 전쟁으로 원수를 정복해야 할 이들이 이방 여인의 간계에 정복당하고 말았다. 온 백성이 들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통치자들과 지도자들이 범죄하는 첫 무리에 속해 있었으며 너무나 많은 백성이 범죄하여 거족적(擧族的)으로 배도하게 되었다.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부속된지라"(민 25장을 보라). 모세가 그 악을 감지했을 때에는 원수의 계획이 이미 큰 성공을 거두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브올산에서 음탕한 예배에 참가할 뿐 아니라 이교도의 의식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에서도 거행되고 있었다. 연로한 지도자 모세는 분개하였고 하나님께서도 진노하셨다. {PP 454.4}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법적인 행위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발람의 모든 사술이 행할 수 없었던 일 곧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키는 그 일을 행하였다. 백성들은 신속히

내리는 형벌로 인하여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었다. 무서운 염병이 진중에 퍼져 수만 명이 삽시간에 죽임을 당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에게 이 배도에 가담한 두목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셨다. 이 명령은 신속히 집행되었다. 범죄자들은 죽임을 당했고 그들의 시체는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 높이 매달려 있었다. 두목들이 그처럼 혹독한 처벌을 받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 회중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며 저들에 대한 당신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깊이 깨닫게 하셨다. {PP 455.1}

그 형벌이 공의로움을 깨달은 모든 백성들은 급히 성막으로 나아가 눈물과 깊이 뉘우침으로 그들의 죄를 자백하였다. 이와 같이 그들이 성막 문에 나아와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고, 염병이 아직도 사람들을 죽이고 사사들은 그 무서운 임무를 집행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의 귀족 중 한 사람인 시므리는 “미디안 백성의 한 종족”의 공주인 미디안 창녀를 데리고 담대하게 진영으로 들어왔다. 이보다 더 대담하고 완고한 악행은 결코 없었다. 술에 벌겋게 된 시므리는 “그의 죄를 소돔과 같다고 선포하고” 자신의 수치를 영광으로 여겼다. 제사장과 지도자들이 슬픔과 굴욕 중에 엎드려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면서 여호와께 당신의 백성을 아끼시고 당신이 택하신 백성을 책하지 마시기를 간청하고 있을 때에 이 이스라엘의 귀인은 마치 하나님의 형벌을 부인하고 민족의 사사들을 조롱하는 것처럼 회중의 목전에서 보라는 듯이 뽐내면서 범행하였다.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그 둘을 살해하였다. 그리하여 염병이 멎고 하나님의 형벌을 집행한 그 제사장은 온 이스라엘 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아 사제 직분이 그와 그의 가문에 영원히 보장되었다. {PP 455.2}

하나님의 기별이 임하여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켰”으니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고 하셨다. {PP 455.3}

싯딤에서 범한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내린 형벌은 거의 40년 전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는 선고를 받았던 거대한 무리 중에 살아남은 자를 멸하였다. 요단 평야에서 진을 치고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명을 따라 백성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민 26:64, 65)다. {PP 456.1}

미디안 사람들의 유혹에 빠졌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형벌을 내리셨다. 그러나 그 유혹자들도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다. 아말렉인들은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대군 뒤에 남아 있던 피로에 지친 자들을 습격했으나 오랜 후까지 형벌을 받지 않고 살고 있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죄에 빠지게 한 미디안인들은 더 위험한 원수이었으므로 신속히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민 31:2)고 명하셨다. 곧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또 브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민 31:7, 8). 공격군의 포로가 되었던 여인들도 역시 가장 큰 범죄자요 가장 위험한 이스라엘의 원수로서 모세의 명령에 따라 사형에 처하였다. {PP 456.2}

음모를 꾸며 하나님의 백성을 해한 자들의 말로가 이와 같았다.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시 9:15).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판단이 의로 돌아가리”(시 94:14, 15)라. 사람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시 94:21) 할 때에 여호와께서 “저희 죄악을 저희에게 돌리시며 저희의 악을 인하여 저희를 끊으시리”(시 94:23)라. {PP 456.3}

발람이 히브리인들을 저주하도록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는 그의 모든 사술로도 히브리인들에게 해를 끼칠 수 없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민 23:21)심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유혹에 굴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을 때에 그들을 보호하던 방벽이 그들을 떠났다. 하나님의 백성이 당신의 계명을 충실히 지킬 때에는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민 23:23)었다. 그런고로 사단은 모든 능력과 교활한 술책으로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죄에 빠지게 하려고 노력하였다. 만일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라고 공언하는 자가 그 계명을 범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고 원수들 앞에 서지 못할 것이다. {PP 457.1}

미디안의 무력이나 사술에도 정복당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창녀들의 희생 제물이 되고 말았다. 사단의 역사에 가담하여 영혼을 함정에 빠뜨리고 멸망시키려고 노력하는 여인의 힘은 이와 같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잠 7:26). 이와 같이 셋의 자손들이 유혹을 받아 그들의 성실성을 버림으로 거룩한 자손이 부패하게 되었다. 요셉도 이와 같은 유혹을 받았다. 이스라엘의 방패였던 삼손도 범죄하여 자기의 힘을 빼앗기고 블레셋 족속의 수중에 빠졌다. 이 점에서 다윗도 넘어졌다. 그리고 세 번이나 당신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불렸던, 열왕 중에 가장 현명한 왕인 솔로몬도 정욕의 노예가 되어 동일한 매혹의 힘에 자신의 성실성을 희생하였다. {PP 457.2}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전 10:11, 12). 사단은 인간의 마음을 다룰 수 있는 요소를 잘 알고 있다. 사단은 수천 년 동안 악마와 같이 맹렬하게 연구하였으므로 각 사람들의 공격당하기 가장 쉬운 점들을 알고 있다. 사단은 여러 세대를 통하여 바알브올에서 그처럼 성공을 거둔 동일한 유혹으로 이스라엘 중에 가장 강한 자들과 귀인들을 파멸시켰다. 각 시대를 통하여 육욕적 방종의 암초에 걸려 깨어진 품성의 잔해(殘骸)들이 흩어져 있다. 세상 끝이 가까이 이를수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 가나안의 변경에 서 있는 우리에게 사단은 옛날처럼 우리를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사단은 각 영혼에게 그의 올무를 놓는다. 경계해야 할 사람은 무식자나 교양이 없는 자들만이 아니다. 사단은 가장 높은 지위, 가장 거룩한 직분을 가진 자들을 유혹할 준비를 할 것이다. 만일 그가 그들을 유혹하여 그들의 영혼을 더럽히게 할 수 있다면 그는 그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멸망시킬 수 있다. 그는 3천 년 전에 사용했던 동일한 매개체들을 지금도 사용한다. 세속적 우정, 매혹적인 미, 향락의 추구, 환락, 잔치, 혹은 술잔으로 그는 일곱째 계명을 범하도록 유혹한다. {PP 457.3}

사단은 이스라엘을 우상숭배로 인도하기 전에 먼저 방탕으로 유인하였다. 그들 자신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모독하고 당신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은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어떤 일이라도 주저 없이 행하여 그들의 부패한 마음의 욕망을 만족시킬 것이다.

육욕의 방종은 지력을 약화시키고 영혼의 가치를 저하시킨다. 동물적 기호의 만족으로 도덕적·지적 능력은 마비된다. 그리고 정욕의 노예가 된 자는 하나님의 율법의 신성한 의무를 깨닫고 속죄의 감사함을 알고 영혼에게 바른 가치를 부여하는 일이 불가능하다. 선과 순결, 진리와 하나님께 대한 존경심, 거룩한 사물에 대한 사랑 등 인간을 하늘의 세계로 연결시키는 모든 거룩한 애정과 고상한 소망은 색욕의 불에 타버린다. 그 영혼은 캄캄하고 황폐된 황무지와 악신들의 거처와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이 짐승의 수준으로 전락된다. {PP 458.1}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형벌을 초래한 것은 우상숭배자들과 교제하고 그들의 축제에 참가한 까닭이었다. 그와 같이 지금도 그리스도의 추종자들로 경건치 않은 자들과 교제하게 하고 그들의 오락에 참가하게 함으로써 사단은 가장 성공적으로 그들을 유혹하여 죄 가운데 빠뜨린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후 6:17).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백성에게 당신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바와 같이 풍속과 습관과 원칙에 있어서 세상과 크게 구별되기를 원하신다. 만일 그들이 당신의 말씀의 교훈을 충실히 따른다면 이런 구별이 존재할 것이요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구별될 수 없다. 그리스도인에게 경건치 않은 자들의 정신이나 습관과 일치하지 않도록 금하신 주님의 경고는 이방인들과 동화하지 않도록 히브리인에게 주셨던 경고 못지않게 직접적이고 분명한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요일 2:15)다고 말씀하신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약 4:4).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죄인들과 분리되어야 하며 그들을 위하여 선을 행할 기회가 올 때에만 그들과 교제하도록 선택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는 감화를 끼치는 자들과의 교제를 피하려고 아무리 굳게 결심하여도 그 결심이 지나치지 않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함과 동시에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시험을 피하여야 한다. {PP 458.2}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에 빠진 것은 저희가 표면상으로 안일하고 안전한 상태에 있을 때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항상 그들 앞에 모시는 데 실패하였고 기도를 게을리 하고 자기 자신을 믿는 정신을 품었다. 안일과 방종은 영혼의 성채를 경비하지 않은 채 버려두는 것이며 부패한 사상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것이다. 원칙의 요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단의 권세에 팔아넘긴 자들은 성 안에 있던 반역자들이었다. 아직도 사단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영혼을 파멸시키고자 노력한다. 그리스도인이 공공연하게 죄를 범하기 전에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준비 과정이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진행된다. 사람의 마음이 단번에 순결과 거룩함에서 부패와 타락과 범죄로 전락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 금수와 악마처럼 타락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바라봄으로 우리는 변화를 받는다. 불순한 생각들을 품음으로 인간은 한때 그가 미워하던 죄를 좋아하도록 그 마음을 길들일 수 있다. {PP 459.1}

사단은 범죄와 비열한 악습을 널리 퍼뜨리려고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고 있다. 우리는 어떤 소설에 나타나 있거나 어떤 극장에서 상영되는 범죄에 대한 현란한 소개들을 보지 않고는 우리가 사는 도시의 거리를 걸어갈 수 없다. 마음이 죄에 익숙하도록 길들여지고 있다. 비열하고 비루한 자들이 살아온 경로가 오늘날의 정기 간행물에 소개되어 백성들에게 전달되고 있으며 정욕을 자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자극적인 이야기로 꾸며져 그들에게 제시된다. 그들이 비열한 범죄에 대하여 그처럼 많이 듣고 읽기 때문에 한때는 그와 같은 장면에 무서워 질겁을 하던 부드러운 양심이 마침내는 굳어져서 그들은 그런 일들을 아주 재미 있는 듯이 오래 마음에 간직하게 된다. {PP 459.2}

오늘날에도 세상 사람에게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에게까지 인기를 끄는 많은 오락들이 이교도들의 오락이 가져왔던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그 오락들 중에는 사단이 영혼들을 멸망시키는 데 이용하지 않는 것이 거의 없다. 영화를 통해서 사단은 각 시대를 통하여 인간의 정욕을 흥분시키고 악습을 찬양하는 일을 해왔다. 매혹적인 과시(誇示)와 넋을 잃게 하는 음악을 동반한 오페라, 가면무도회, 댄스, 카드놀이를 이용하여 사단은 원칙의 방벽을 무너뜨리고 육욕적 방종의 문을 연다. 교만한 마음을 기르거나 식욕의 방종을 조장하는 곳과 하나님을 잊게 하고 영원한 관심사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오락장에서 사단은 쇠사슬로 영혼들을 속박하고 있다. {PP 459.3}

현인 솔로몬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 4:23),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잠 23:7)하다고 권면하였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생애의 순결을 찾으려는 노력이 헛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고상하고 덕 있는 품격을 건설하려는 자는 흐르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자이다. 맹렬한 시험의 폭풍이 불 때에 그 집은 분명히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시 51:10)라는 다윗의 기도가 모든 영혼의 탄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늘의 선물에 참여자가 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벧전 1:5)을 힘입어 완전을 향해 전진해야 한다. {PP 460.1}

아직도 우리는 유혹을 물리치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있다. 사단의 계책에 빠지지 않으려면 영혼의 통로를 잘 지켜야 한다. 불순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들을 읽거나, 보거나, 듣는 일을 피해야 한다. 영혼의 대적이 암시하는 모든 문제에 닥치는 대로 빠져들지 않도록 마음을 방심하지 말 것이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이전 알지 못할 때에 좇던 너희 사욕을 본 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벧전 1:13~15)고 말했다. 바울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빌 4:8)고 말하였다. 이 일에는 열렬한 기도와 끊임없는 경계가 요구될 것이다. 우리는 마음을 향상시키고 마음속에 순결하고 거룩한 사물을 항상 생각나게 하는 거룩한 성령의 끊임없는 감화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해야 한다. 시편 기자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시 119:9, 11)라고 말하였다. {PP 460.2}

이스라엘이 벧브올에서 범한 죄는 하나님의 형벌을 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리게 하였으나 지금은 그와 동일한 죄라 할지라도 신속히 형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 죄는 분명히 보응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전 3:17). 자연은 이러한 범죄에 대한 무서운 형벌 곧 조만간에 모든

범죄자에게 주어질 형벌을 가할 것이다. 우리 인류가 무섭게 퇴화되고 온 세계가 중한 질병과 고통의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은 다른 어떤 죄보다도 이러한 죄악의 연고이다. 사람들이 그들의 범행을 그들의 동료들에게는 감출 수 있을지 모르나 그들은 고통과 질병과 저능과 죽음과 같은 것에서 분명히 그 못지않은 결과를 거둘 것이다. 그리고 현세 저편에서 심판정에 설 것인데 그 심판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갈 5:21)며, 사단과 악한 천사와 더불어 “둘째 사망”인 “불못”(계 20:14)에 들어갈 것이다. {PP 461.1}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잠 5:3, 4)롭다. “네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네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네 수한이 잔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네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네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네 몸 네 육체가 쇠패할 때에 네가 한탄하”(잠 5:8~11)게 될까 하노라. “그 집은 사망으로…기울어졌”(잠 2:18)으며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잠 2:19)며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잠 9:18)다. {PP 461.2}

42장 율법의 반복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을 점령할 시간이 가까웠음을 알려 주셨다. 연로한 선지자 모세는 요단강과 약속된 땅이 내려다보이는 높은 산꼭대기에 서서 이스라엘 민족의 기업이 될 땅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았다. 가데스에서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한 선고가 철회될 수는 없을까? 모세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신 3:24, 25)라고 열렬히 탄원하였다. {PP 462.1}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네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신 3:26, 27) 고 대답하셨다. {PP 462.2}

한 마디의 불평도 없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였다. 이제 그의 큰 염려는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다. 누가 자기처럼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하여 관심을 가질 것인가? 모세는 충심으로 다음과 같이 기도하였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민 27:16, 17). {PP 462.3}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민 27:18~20)고 대답하셨다. 여호수아는 오랫동안 모세를 시중하였고 지혜와 능력과 믿음의 사람으로서 모세의 후계자로 선택되었다. {PP 462.4}

모세는 여호수아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가장 감동적인 유시를 함으로써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엄숙히 구별하였다. 이스라엘의 행정권도 역시 여호수아에게 위임되었다. 여호수아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이 다음과 같이 모세를 통하여 회중에게 전달되었다.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좇아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민 27:21, 22). {PP 463.1}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보이는 지도자로서 모세는 그의 지위를 양도해주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희가 애굽에서 구원받은 역사와 광야에서의 여행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아울러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반포된 율법의 요점을 되풀이해서 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현재 살아 있는 회중 가운데는 율법을 반포할 당시의 장엄함을 이해할 만큼 오래 산 사람은 별로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지않아 요단강을 건너가 허락의 땅을 점령하려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 당신의 율법의 요구를 제시하고 번영의 조건으로서 그것을 순종하도록 명하시려 하셨다. {PP 463.2}

모세가 그의 최후의 경고와 훈계를 되풀이하고자 백성들 앞에 설 때에 그의 얼굴은 신성한 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의 머리는 노령으로 백발이었으나 그의 체구는 곧고 그의 얼굴은 건강하여 기력이 쇠하지 않음을 나타내었고 그의 시력은 명료하고 조금도 흐리지 않았다. 이 중대한 시기를 당하여 모세는 깊은 감동을 받고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보호자의 사랑과 자비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PP 463.3}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 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신 4:32~35). {PP 463.4}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 7:7~9)시느니라. {PP 464.1}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까지 저희가 당한 어려움들을 모세의 탓으로 돌릴 채비를 갖추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가 교만하고 야심 있고 이기적이라는 그들의 의심이 사라졌으므로 그의 말을 신뢰하고 귀를 기울여 들었다. 모세는 그들 앞에 그들의 과오와 조상들의 범죄를 낱낱이 열거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일로 인해 때때로 인내하지 못하고 반역하고 싶은 감정을 가졌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가나안 점령이 이렇게 지체되는 데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으셨다. 오히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즉시 약속된 땅으로 인도해 들이지 못하시는 까닭에 그들보다 더 슬퍼하셨으며 그리고 모든 민족들 앞에서 당신의 구원하시는 일로써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교만하고 불신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갖추지 못했다. 그들은 전혀 여호와를 그들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임을 나타낼 수 없었으니 이는 그들이 순결하고 선하고 자비로운 여호와의 성품을 갖지 못한 까닭이었다. 만일 저희 조상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고 당신의 법도를 따르고 율례대로 행했더라면 그들은 오래 전에 가나안에 정착하여 번영하고 거룩하고 행복한 백성이 되었을 것이다. 그들이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기를 지체함으로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인근 민족들 앞에서 그분의 영광을 훼손시켰다. {PP 464.2}

하나님의 율법의 성질과 가치를 이해한 모세는 히브리인들에게 주어진 율법과 같은 현명하고 의롭고 자비로운 율법을 가진 다른 민족이 없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했다. 모세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신 4:5, 6)고 말하였다. {PP 464.3}

모세는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신 4:10)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켰다. 그리고 그는 히브리 대군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신 4:7, 8).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동일한 질문을 반복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고대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주셨던 율법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문화가 발달된 나라의 법률보다 더 현명하고 더 낫고 더 인도적이었다. 이 세상 나라의 법률은 결함이 많고 거듭나지 않은 감정의 흔적이 남아 있으나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다. {PP 465.1}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신 4:20)라고 선언하였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지않아 들어갈 땅,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조건으로 그들의 소유가 될 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그러나 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땅의 축복들을 묘사한 모세가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의 백성들의 기업 분배에서 제거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아름다운 땅을 묘사한 모세의 다음과 같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음에 틀림없다. {PP 465.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신 8:7),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신 11:10), "그 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의 결핍함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신 8:7~9),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신 11:12). {PP 465.3}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신 6:10~12)라. 그리고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신 4:23)리지 않게 하라…."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신 4:24). 그리고 모세는 계속하여,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신 4:26)고 말하였다. {PP 465.4}

모세는 대중 앞에서 율법을 되풀이하여 말한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율법, 규례, 법도와 희생 제도에 관한 모든 규칙을 기록하는 일을 완성하였다. 이 모든 것이 수록된 책은 정식 관리들의 책임 하에 두되 안전히 보존하기 위하여 법궤 곁에 두었다. 아직도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에 사로잡혔다. 가장 장엄하고 엄숙한 연설 가운데서 그는 다음과 같이 그들이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요 범죄하면 저주가 따르리라는 것을 저들 앞에 제시하였다. {PP 466.1}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네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여호와께서 명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신 28:1~8)리라. {PP 466.2}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신 28:15),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램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신 28:27).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네가 그 곳에서 너와 네 열조의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열국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네 발바닥을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의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쇠하고 정신으로 산란케 하시리니 네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며 네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네 마음의 두려움과 눈의 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이르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신 28:64~67). {PP 466.3}

성령의 감동을 받아 멀리 각 시대를 내려다본 모세는 한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의 최후의 무서운 전복의 장면과 예루살렘이 로마의 군대에 의하여 멸망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날음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유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신 28:49, 50)리라. {PP 467.1}

수 세기 후 티투스에게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있는 동안 땅은 완전히 황폐되고 백성들이 무서운 고통을 당하는 광경을 다음과 같이 생생하게 묘사하였다. “네 육축의 새끼와 네 토지의 소산을 먹어서 필경은 너를 멸망시키며”(신 28:51), “그들이 전국에서 네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네가 의뢰하는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신 28:52),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네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난케 함을 당하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자녀 곧 네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신 28:52, 53), “또 너희 중에 유순하고…연약하여 그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 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그 품의 남편과 그 자녀를 질시하여…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이는 네 대적이 네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난케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신 28:56, 57). {PP 467.2}

모세는 다음과 같은 감명적인 말로 그의 말을 마쳤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리라”(신 30:19, 20). {PP 467.3}

이러한 진리들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더 깊이 새기도록 하기 위하여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그것들을 거룩한 시가로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 이 노래는 역사적일 뿐만 아니라 예언적이었다. 이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기이하신 방법으로 인도하신 것을 자세히 말할 뿐 아니라 또한 장래의 대사건 즉 그리스도께서 능력과 영광으로 재림하실 때에 충실한 자들의 최후의 승리를 예표하였다. 백성들은 이 시적 역사를 외우고 이것을 자자손손에게 가르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노래는 그들이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을 때에 온 회중이 불러야 했고 백성들은 날마다 일터로 나가려 할 때에 이 노래를 반복해야 했다. 감수성이 예민한 자녀들의 마음에 이 말들로 새겨 주어서 결코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였다. {PP 467.4}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의 수호자요 관리인이었으므로 그 계명의 의미심장함과 순종의 중요성이 특별히 그들에게 감명을 끼쳐서 그들을 통하여 그들의 후손에게 전달되어야 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법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신 6:7~9). {PP 468.1}

후일에 그들의 자손들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신 6:20)이냐고 물을 때에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은혜로운 역사를 반복하여 말하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사 그들로 당신의 율법을 지키게 하셨는지를 말해야 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신 6:24, 25)고 그들에게 선포해야 하였다. {PP 468.2}

43장 모세의 죽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취급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의 사랑과 자비가 섞여 있을 뿐 아니라 당신의 엄격하고 공평한 공의의 뚜렷한 증거가 있다. 이것들은 히브리 백성의 역사에서 예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축복들을 내려주셨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자애는 다음과 같은 감동적인 말로 묘사되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업는 것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신 32:11, 12)다. 그러나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신속하고 엄중한 형벌이 임했던가! {PP 469.1}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은 잃어버린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주심에서 나타났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의 품성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려고 세상에 오셨고 그의 생애는 거룩한 친절과 동정어린 행위로 충만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마 5:18)리라고 친히 선언하셨다. 죄인들에게 인내와 사랑의 간청으로 당신께 나아와 용서와 평화를 얻으라고 초청하시던 동일한 음성이 심판 날에 당신의 은혜를 거절한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마 25:41)라고 명하실 것이다. 온 성경 중에 하나님은 인자하신 아버지로뿐 아니라 의로운 재판관으로 나타나 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출 34:7)시기를 기뻐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출 34:7) 아니하신다. {PP 469.2}

열국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통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회중을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지 못할 것이며 당신의 종의 열렬한 탄원이 당신의 선고를 철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모세는 자기가 죽어야 함을 알았다. 그러나 그는 일순간도 이스라엘을 위한 자신의 염려를 그치지 않았다. 그는 온 회중을 약속된 기업의 땅으로 들어가도록 준비시키고자 충실히 노력하였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성막으로 가자 구름기둥이 내려와 문 위에 머물렀다. 이곳에서 백성들은 엄숙하게 여호수아의 보호 하에 위탁되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모세의 사업은 끝났다. 운집한 군중들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의 후계자에게 다음과 같은 거룩한

격려사를 전달하였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신 31:23). 그 후에 그는 백성의 장로와 관원들을 향하여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그들에게 전달한 교훈들을 충실히 순종하라는 엄숙한 명령을 주었다. {PP 469.3}

백성들은 얼마 후에 그들 중에서 사라질 연로한 모세를 바라볼 때에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의 어버이다운 친절과 현명한 권고와 부단한 노력들을 회상하였다.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형벌을 받을 때에 얼마나 자주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겨 그들을 구원하였던가! 그들의 슬픔은 후회로 더욱 고조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완고함이 모세를 노하게 하여 그로 하여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범하게 했음을 통절히 기억했다. {PP 470.1}

그들의 사랑하는 지도자 모세의 해임은 그의 생애와 사명이 계속되었다면 그들이 받았을 어떤 견책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훨씬 더 큰 견책이 될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장차 그들의 지도자의 생애를 모세의 생애처럼 시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하고자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축복을 내려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나 그것들을 감사하지 않을 때에는 그들에게서 그 축복을 거두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전심으로 당신께 돌아오게 하신다. {PP 470.2}

바로 그날 “너는…올라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신 32:49, 50)라는 명령이 내렸다. 모세는 가끔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하여 그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진영을 떠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새롭고 신비스러운 사명을 띠고 출발해야 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을 그를 지으신 창조주의 손에 의탁하기 위하여 나아가야 했다. 모세는 자기가 홀로 죽어야 함을 알고 있었으며 세상의 어떤 친구도 그의 임종 시간에 그를 도와주도록 허락되지 않았다. 그의 앞에 놓인 장면은 신비하고 장엄하였으며 그 장면은 그의 마음을 위축시켰다. 가장 쓰라린 시련은 그가 보호하고 사랑하던 백성 - 그의 관심과 생명이 그처럼 오랫동안 연합되었던 백성에게서 떠나는 일이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으므로 의심 없이 믿음으로 자기 자신과 그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의탁하였다. {PP 470.3}

마지막으로 모세는 그의 백성들의 회중 앞에 섰다. 다시 하나님의 성령이 모세에게 임하여 그는 가장 엄숙하고 감명적인 언어로 각 지파에게 축복을 선포하고 다음과 같이 모든 회중에게 축복하는 말로 끝맺었다. {PP 471.1}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신 33:26~29 {PP 471.2}

모세는 회중을 떠나 조용히 홀로 산 중턱으로 향했다. 그는 "느보산에 올라…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신 34:1)렀다. 모세는 그 외로운 꼭대기에 서서 흐리지 않은 맑은 눈으로 그의 앞에 전개된 광경을 바라보았다. 멀리 서쪽에는 지중해의 푸른 물이 넘실거리고 북쪽에는 헤르몬산이 하늘로 솟아 있었고 동쪽으로는 모압 고원이 있고 그 너머에는 이스라엘이 승리한 현장인 바산이 있었다. 멀리 남쪽에는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방황하던 사막이 펼쳐져 있었다. {PP 471.3}

모세는 홀로 외로이 그가 궁전의 영광과 장차 애굽 왕국을 차지할 지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더불어 자기의 운명을 함께하기로 선택한 이후의 파란곡절과 어려움이 많았던 생애를 회고하였다. 그는 이드로의 양떼와 함께 광야에서 생애하던 오랜 세월과 불타는 가시덤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던 일과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던 일들을 회상하였다. 다시 모세는 선민을 위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큰 이적들과 그들의 유랑하고 반역하던 세월 동안의 하나님의 오래 참으셨던 자비를 바라보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또 자신의 기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떠난 대군 가운데 성인은 오직 두 사람만이 약속된 땅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충실했음을 알게 되었다. 모세가 자기의 노력의 결과를 회상하여 볼 때에 그의 시련과 희생의 생애는 거의 헛된 것처럼 보였다. {PP 471.4}

그러나 모세는 자신이 진 짐들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았다. 모세는 자기의 사명과 사업이 하나님께서 친히 정해 주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속박 중에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도록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했으나 일단 사업을 착수한 후에는 그 짐을 버리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고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겠다고 제의하셨지마는 모세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비록 그가 겪은 시련은 컸으나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의 표를 받았다. 그는 광야에서 체류하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출현을 목격하였고 그분의 사랑과 교통하는 값진 경험을 얻었다. 그는 잠시 동안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불어 고난받기를 선택한 것이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느꼈다. {PP 472.1}

하나님의 백성의 인도자로서 자기의 경험을 회고하여 볼 때에 그가 범한 한 번의 그릇된 행위는 그의 생애의 기록에 오점을 남겼다. 만일 그 범죄 행위가 지워질 수 있다면 그는 죽음을 겁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모세는 회개와 약속하신 희생 제물이신 구세주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전부임을 확신하고 다시 한 번 그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간구하였다. {PP 472.2}

이제 약속된 땅의 전경이 모세에게 나타났다. 그 땅의 모든 부분이 먼 거리에서 흐릿하고 불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뚜렷하고 아름답게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 장면에는 그 당시의 실제 모습이 나타났을 뿐 아니라 장차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심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광경까지 나타났다. 모세는 제2의 에덴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곳에는 레바논의 백향목이 우거진 산들과 감람나무 숲으로 회색빛을 띠고 향긋한 포도 냄새가 풍기는 언덕들이 있었고 넓고 푸른 들판에는 꽃들과 과일이 주렁주렁 달린 나무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이쪽에는 열대 식물인 종려나무들이, 저쪽에는 밀과 보리가 물결치고 있었다. 햇빛에 눈이 부시는 골짜기가 있고 졸졸 흐르는 개울물 소리와 새들의 노랫소리는 음악처럼 아름다웠다. 훌륭한 도시와 예쁜 정원들이 펼쳐져 있고 “바다의 풍요”를 주는 물이 철철 넘치는 호수들이 보이고 산허리에는 양떼들이 풀을 뜯고, 바위틈에는 야생벌들이 모아 놓은 꿀이 있었다. 그 곳은 모세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묘사한 땅이었다.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케 하는 보물과…옛 산의 상품물과…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신 33:13~16)이라. {PP 472.3}

모세는 선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나라를 세우고 각 지파가 그들의 기업을 차지하는 것을 보았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정착한 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았다. 그들의 길고도 슬픈 배도와 그 형벌에 대한 역사가 그의 앞에 전개되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인하여 이방인들 중에 흩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나 아름다운 도성이 황폐하고 그 백성이 이방의 포로가 되는 것을 보았다. 그 후에 저희가 조상의 나라를 회복하지만 마침내 로마의 통치 하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PP 475.1}

모세는 시간의 흐름을 내려다볼 허락을 받아 구주의 초림을 바라보았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태어난 예수를 바라보았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상의 평화를 축하하는 천사들의 즐거운 노래를 들었다. 그는 동방 박사들이 하늘의 별의 인도를 받아 예수께 나아오는 것을 보았으며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민 24:17)리라는 예언의 말씀을 회상할 때 그의 마음은 홍수 같은 큰 빛을 받았다. 나사렛에서의 그리스도의 비천한 생애와 사랑과 동정어린 봉사와 병을 고치시는 일을 보았고 드디어 거만하고 믿지 않는 백성에게 거절당하시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율법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높인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그 율법을 주신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거절하는 것을 보고 모세는 놀랐다. 그는 감람산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도성에 눈물로 작별을 고하는 예수를 바라보았다. 모세는 그처럼 하늘의 큰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곧 그 백성을 위하여 그가 그처럼 수고하고 기도하고 희생했으며 그들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도말되는 것까지라도 불사했던 이 백성들의 최후의 거절을 바라보고 아울러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마 23:38)는 무서운 선고를 들었을 때에 그의 마음은 고민으로 찢어지는 듯했고 그의 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슬픔을 동정하는 쓰라린 눈물이 흘러나왔다. {PP 475.2}

모세는 겟세마네 동산까지 구세주를 따라가서 고뇌하시는 모습과 배반당하시고 능욕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모세는 자기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도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요 3:16)기 위하여 들려져야 함을 보았다. 그들의 조상들 앞에서 행하셨던 능력의 천사 곧 그들의 구주께 대하여 유대 민족이 나타낸 위선과 악마와 같은 증오를 바라볼 때에 모세의 마음은 슬픔과 의분과 공포로 충만하였다.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그리스도의 고민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는 요셉의 새 무덤에 누우신 그리스도를 보았다. 절망의 흑암이 온 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는 다시 눈을 들어 그리스도께서 승리자로서 무덤에서 나오시고 그를 찬미하는 천사들의 옹위를 받으며 사로잡은 한 무리를 인도하여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빛나는 하늘 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하여 열려 있는 광경과 하늘 천군들이 승리의 노래로 저희 사령관을 맞이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 자신도 구세주를 수행해서 그를 위하여 영원한 문들을 열 무리 중의 한 사람임을 보게 되었다. 그 광경을 바라볼 때에 모세의 얼굴이 거룩한 빛으로 밝게 빛났다. 자기의 생애를 통해 겪은 시련과 희생을 하나님의 아들이 당하는 시련과 희생에 비교할 때에 얼마나 작게 보였는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고후 4:17)과 비교할 때에 얼마나 가벼웠던가! 모세는 그가 비록 적은 분량이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의 동참자가 되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몹시 기뻐했다. {PP 475.3}

모세는 예수의 제자들이 나아가 당신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육체를 좇아”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높은 운명에 도달하는 일에 실패했지만, 그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이 되지 못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멸시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축복을 상실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버리지 아니하신 것을 보았다. 당신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성취하시려고 계획하셨던 영광스러운 목적은 성취될 것이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의 자녀가 된 자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계수될 것이었으며 그들은 언약의 약속들의 후사였다. 아브라함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율법과 당신의 아들의 복음을 간수하고 그것을 세상에게 전하도록 부르신 바 되었다. 모세는 복음의 빛이 예수의 제자들을 통하여 "흑암에 앉은 백성"(마 4:16)에게 비치어서 이방 나라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이 밝은 빛으로 모여드는 것을 보았다. 모세는 바라보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증가되고 번영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PP 476.1}

그리고 이제 다른 광경이 그의 앞을 지나갔다. 모세는 사단이 유대인을 유인하여 그들로 당신의 아버지의 율법을 존중한다고 공언하게 하면서 그리스도를 거절하도록 역사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후세에도 그리스도교계가 하나님의 율법을 유린하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고 공언함으로 그와 유사한 기만에 빠지는 것을 보았다. 모세는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격분하여 부르짖는 제사장과 장로들의 소리를 들었으나 그 후에는 소위 그리스도교의 교사들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율법을 없애라"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모세는 또한 안식일이 유린당하고 그 대신에 위조의 제도가 세워지는 것을 보았다. 또다시 모세는 경악과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분의 육성으로 친히 거룩한 산에서 말씀하신 율법을 거절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어찌 천지간에 당신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율법을 제쳐둘 수 있을까? 그러나 모세는 아직도 소수의 충실한 자들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그는 세속적 권력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멸하려는 최후의 대쟁투를 보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일어나시어 세상의 거민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형벌하시고 당신의 성호를 경외하는 자들을 당신의 분노의 날에 보호하시고 숨겨 주시는 그 때를 내다보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처소에서 당신의 친 음성으로 당신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과 평화의 언약을 세우실 때에 온 하늘과 땅이 흔들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영광중에 재림하시고 죽은 의인이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 있는 성도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하여 다 함께 즐거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승천하는 것을 보았다. {PP 476.2}

또 다른 광경이 모세의 눈앞에 전개되었는데 그것은 저주에서 해방된 땅, 곧 조금 전에 그의 앞에 전개되었던 아름다운 약속의 땅보다 더욱더 사랑스러운 세상이었다. 그 곳은 죄가 없으며 죽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 거기서 구원받은 민족들이 그들의 영원한 고향을 발견하게 된다. 모세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일찍이 그가 상상하던 그의 최대의 희망보다 더 영광스러운 구원의 성취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이 세상에서의 방황은 영원히 끝나고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땅에 들어간 것이다. {PP 477.1}

다시 그 계시는 사라지고 모세의 눈은 멀리 전개되어 있는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피곤한 용사가 쉬기 위해 드러눕는 것처럼 누웠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벧브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니라”(신 34:5, 6). 그가 장사된 곳을 알았더라면, 모세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는 그의 권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시체를 우상처럼 숭배할 위험이 있었다. 그 때문에 모세의 장지는 사람들에게 감추인 바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들이 당신의 충실한 종의 시체를 장사하고 외로운 무덤을 지키고 있었다. {PP 477.2}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신 34:10~12). {PP 478.1}

만일 모세의 생애가 가데스에서 저질러진 죄 곧 바위에서 물을 내게 하는 사건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그 한 가지 죄로 더럽혀지지 않았더라면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것이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을 것이다. 그러나 모세는 오랫동안 무덤 가운데 있지 아니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세를 장사한 천사들과 함께 잠자는 성도 모세를 불러내시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사단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 범죄토록 하여 마침내 그를 죽음의 권세에 가두어 둔 자신의 성공에 기뻐 날뛰었다. 대적 마귀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창 3:19)는 하나님의 선고가 그를 죽음의 소유가 되게 했다고 선언하였다. 무덤의 권세가 결코 깨뜨려져 본 일이 없고 무덤 속에 있는 자는

모두 자기의 포로이므로 그의 어두운 옥사에서 결코 놓이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PP 478.2}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셨다. 생명의 왕과 빛나는 천사들이 그 무덤에 접근할 때에 사단은 자기의 주권을 빼앗길까봐 염려하였다. 사단은 악한 천사들과 더불어 그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한 영토의 침해에 대하여 항쟁할 태세를 갖추었다. 사단은 하나님의 종이 자기의 포로가 되었다고 자랑하였다. 그는 모세까지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었으며 모세는 사단으로 하여금 하늘에서 추방당하게 한 죄 즉 여호와께 속한 영광을 자신이 취한 범죄로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왔다고 선언하였다. 대반역자 사단은 그가 하나님의 정부에 대항하고 하나님이 자기에 대하여 불공평하다는 최초의 불평과 비난을 되풀이했다. {PP 478.3}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으로 더불어 언쟁하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이 하늘에서 무수한 하늘 거민을 기만하여 멸망시킨 잔인한 행위에 대하여 논박하실 수도 있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에덴동산에서 거짓말을 하여 아담을 범죄케 하고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오게 한 것을 지적하실 수도 있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이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그들로 불평과 반역을 일으키게 함으로 오랫동안 참고 인내한 그들의 지도자를 지치게 만들고, 그리하여 그가 방심하고 있는 순간에 죄를 짓게 만들어 그로 하여금 죽음의 세력에 빠져들어 가게 한 사단 자신의 행위를 사단에게 상기시키실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당신의 아버지께 의탁하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유 9)고 말씀하셨다. 구주께서는 당신의 대적으로 더불어 논쟁하지 않으시고 그 때 그 곳에서 타락한 원수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당신의 사업을 시작하셨다.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의 최상권에 대하여 사단이 논박할 수 없는 증거가 있었다. 부활은 영원히 확실하게 되었다. 사단은 그의 먹이를 빼앗겼고 죽은 의인은 다시 살 것이었다. {PP 478.4}

모세는 죄의 결과로 사단의 권세 하에 빠졌다. 그 자신의 행위대로라면 그는 당연히 죽음의 포로이었다. 그러나 그는 구주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부활하여 영생을 얻었다. 모세는 영광스럽게도 무덤에서 나와 당신의 구원자와 함께 하나님의 도성으로 승천하였다. {PP 479.1}

그리스도의 희생이 예시되기까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당신께서 모세를 다루신 일에서 보다 더 뚜렷하게 나타난 때는 결코 없었다. 하나님께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교훈 곧 당신께서는 정확한 순종을 요구하시며 사람들은 저희 창조주께 속한 영광을 스스로 취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교훈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유업에 동참하기를 간청하는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 없었으나 당신의 종을 잊으시거나 버리지 않으셨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당한 고통을 아셨으며 오랜 세월 동안 투쟁과 시련 중에서 충실히 봉사한 모든 행위를 주목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지상 가나안보다 더 영광스럽고 무한한 유업으로 모세를 초청하셨다. {PP 479.2}

모세는 승천한 엘리야와 함께 변화산에 나타났다. 그들은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보내는 빛과 영광의 전달자로서 보내신 바 되었다. 그리하여 여러 세기 전에 드린 모세의 기도는 마침내 성취되었다. 모세는 그의 백성의 기업에 포함되어 있는 "아름다운 산"에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약속들이 집중되어 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크게 존경을 받는 그 사람의 역사 중에서 인간의 안목에 나타난 마지막 장면이었다. {PP 479.3}

모세는 그리스도의 예표이었다. 모세는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신 18:15)고 선언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대군을 지상 가나안으로 인도할 준비를 갖추기 전에 그가 고난과 빈곤의 학교에서 훈련을 받는 것이 적합함을 아셨다. 하늘 가나안으로 여행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군대장관 한 분을 모시고 있다. 그분은 거룩한 지도자로서의 그의 사명을 위해 그를 준비시켜 줄 인간의 가르침을 필요로 하지 않으셨다. 그는 고난을 통하여 완전하게 되셨고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히 2:10, 18). 우리 구세주께서는 인간의 연약함과 불완전을 나타내시지 않으셨으나 우리로 하여금 허락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죽으셨다. {PP 480.1}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히 3:5, 6). {PP 480.2}

44장 요단강을 건너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을 떠난 저희 지도자를 위하여 몹시 슬퍼하며 30일간 그를 추모하는 특별한 예식을 거행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저희를 떠나기까지는 그의 현명한 권고와 부모와 같은 친절과 확고부동한 신앙의 가치를 충분히 깨달은 적이 결코 없었다. 그들은 새로운 깊은 감사로 그가 저희 중에 있을 때에 주어진 그 귀중한 교훈들을 회상하였다. {PP 481.1}

비록 모세는 죽었으나 그의 감화는 죽지 않았다. 그 감화는 살아서 그의 백성의 마음속에 계속 소생되어야 하였다. 그의 거룩하고 무아적인 생애의 추억은 그들 중에 오랫동안 간직되어 있어서 고요한 설복력을 가지고, 그가 살아 있을 때에 그의 말을 경멸하던 자들의 생애까지 변화시킬 것이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간 후에도 그 빛이 오랫동안 산봉우리를 비치는 것처럼 순결하고 선량한 사람들의 사업은 그들이 세상을 떠난 오랜 후에도 그 빛을 세상에 비춘다. 그들의 사업, 그들의 말, 그들의 모본은 길이 남을 것이다.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시 112:6). {PP 481.2}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당한 큰 손실을 보고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그들이 홀로 버려둔 바 되지 않았음을 알았다. 낮에는 구름기둥이 성막을 덮고 있고 밤에는 불기둥이 덮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당신의 계명의 길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의 인도자와 도우시는 자가 되시리라는 보증이었다. {PP 481.3}

이제는 여호수아가 공인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다. 여호수아는 주로 무사로서 잘 알려졌으며 그의 천부적 재능과 덕성들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중 이 기간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었다. 용감하고 과단성이 있으며 인내력이 있고 민첩하고 청렴하였고 자기의 보호 아래 위탁된 자들을 보살피는 일에 자신의 이익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 대한 산 믿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여호수아야말로 이스라엘 군대를 약속의 땅에 인도해 들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인물이었다. 광야에서 체류하는 동안 여호수아는 마치 모세를 보좌하는 총리대신처럼 행동하였고 그의 침착성과 겸손한 충성심, 다른 사람들이 동요할 때에라도 흔들리지 않은 견인성, 위험

중에서도 진리를 고수하려는 그의 강직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그를 그 자리에 부르시기 전에도 그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적합한 자라는 증거를 보여 주었다. {PP 481.4}

여호수아는 자기 앞에 놓인 사업을 바라보았을 때에 크게 근심하고 망설이게 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보증의 말씀을 듣고 그의 공포심은 사라졌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라"(수 1~4장). 멀리 레바논 고지까지, 지중해의 해안까지, 동으로는 유브라데 강 언덕까지 모두 그들의 것이 되어야 하였다. {PP 482.1}

이 약속에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여야 한다는 명령이 첨부되었다. 여호와께서 지시하시는 바는 "이 율법 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는 것이었다. {PP 482.2}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요단 동편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가나안 정복의 최초의 장벽이 나타나 있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보내신 최초의 기별은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다. 그들이 어느 길로 통행할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지시도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하시든지 그분께서 당신의 백성이 나아갈 길을 만드실 것을 알고 있었으며 용감한 지도자는 이것을 믿고 즉시 진군할 준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PP 482.3}

이스라엘 백성이 진치고 있는 바로 맞은편 강 건너 몇 마일 떨어진 곳에는 여리고성이 있었는데 그것은 매우 크고 철통같이 방어되어 있었다. 이 여리고 성읍은 사실상 가나안 전국의 관문이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성공에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두 젊은이를 정탐꾼으로 이 성읍에 보내어 그 인구와 자원과 그 성의 견고함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였다. 이스라엘을 매우 두려워한 이 성읍의 거민들은 항상 경계하고 있었으므로 정탐꾼들의 신변은 몹시 위험스러웠다. 그러나 여리고 여인 라합이 자신의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 정탐꾼들을 숨겨 주었다. 그의 친절에 대한 보답으로 정탐꾼들은 성이 함락될 때에 그를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PP 482.4}

정탐꾼들은 "진실로 여호와께서는 그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한 소식을 가지고 무사히 돌아왔다. 그들은 여리고성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 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PP 483.1}

이제 진군 준비를 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 온 백성들은 3일 동안 먹을 양식을 준비해야 하였으며 군사들은 전투 준비를 갖추어야 하였다. 모두 자원하여 그들의 지도자의 계획에 따르고 그들이 믿고 지지함을 다음과 같이 그에게 보증하였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PP 483.2}

이스라엘 온 무리는 아카시아 숲이 우거진 싯딤의 진영을 떠나서 요단강가로 내려갔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저희가 앞으로 전진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일 년 중 이 계절은 봄이었다. 산의 눈이 녹아 내려서 요단강 물이 불어 둑에 넘쳐흘렀으므로 평상시에 걸어서 건널 수 있던 곳으로도 건널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적으로 요단강을 건너도록 뜻하셨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백성들로 스스로 성결케 하고 저희 죄를 버리고 외부의 모든 불결함에서 자신을 정결케 하도록 명령하였다. 여호수아는 그 까닭을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중에 기사를 행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언약궤"가 무리 앞에서 길을 인도할 것이었다. 제사장들이 멘 여호와의 임재의 증거인 법궤가 진 중앙에 있던 그 본래의 자리를 떠나 강을 향해 나아갈 때 그들은 "저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좇"아야 하였다. 지나가는 곳의 형편이 미리 상세히 알려진 바 되었으며 여호수아는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녕히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라고 말하였다. {PP 483.3}

정한 시간에 제사장들이 어깨에 멘 법궤를 선두로 하여 행진을 시작하였다. 백성들은 뒤로 물러가 법궤 주위에 약 반 마일 가량의 공간을 두라는 명령을 받았다. 제사장들이 요단강 둑을 내려갈 때에 모든 사람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았다.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법궤를 메고 노한 듯이 물결치는 강물을 향해 한발자국 한발자국 앞으로 나아가 마침내 법궤를 멘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닫는 것을 보았다. 그 때에 돌연히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결이 위로 쏠려 멎고 아래의 물은 흘러내려가 강 밑바닥이 드러났다. {PP 484.1}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들은 강 한가운데로 들어가 거기 정지해 서고 이스라엘 전군은 강으로 내려와 저편으로 건너갔다. 그리하여 요단강 물의 흐름을 멈추신 능력은 40년 전에 저희 조상들 앞에서 홍해를 가르신 능력과 동일한 능력이라는 사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깊은 감명을 주었다. 백성들이 모두 강을 건넌 후에 법궤도 서쪽 강변에 도착하고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자마자” 꼼짝 못하던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여 강물은 다시 자연스럽게 저항할 수 없는 홍수로 흘러내렸다. {PP 484.2}

오는 세대들에게 이 큰 기적을 증거할 증거물이 필요했다. 법궤를 멘 제사장들이 아직 요단강 가운데 있을 때에 이미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택하심을 입은 열두 사람이 각각 제사장들이 서 있는 하상(河床)에서 돌을 취하여 서편 강가로 운반하였다. 이 돌들은 강을 건너가 처음 진 친 곳에 기념비로 세워져야 하였다.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그들의 자자손손에게 되풀이하여 말해 주라는 명령을 받았다. {PP 484.3}

히브리인과 그의 원수들 모두에게 이 기적의 영향은 매우 중대한 것이었다. 이 기적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계속적인 임재와 보호에 대한 보증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일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리라는 증거였다. 그들이 그 땅의 정복 즉 40년 전 그들의 조상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았던 그 엄청난 과업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보증이 필요하였다. 여호와께서는 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고 선언하셨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 약속을 성취시켰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의 생존할 날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같이 하였더라." {PP 484.4}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와 같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인근 민족들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공포심을 증가시켜 이스라엘로 하여금 쉽고도 완전하게 승리할 길을 준비해 주시고자 하심이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요단강 물을 멎게 하셨다는 기별이 아모리인의 왕과 가나안인의 왕들에게 전달되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공포에 사로잡혔다. 히브리인들은 이미 미디안의 다섯 왕과 아모리인의 왕인 유력한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죽이고 이제 강물이 불어 맹렬히 흘러가는 요단을 건너오게 되자 인근의 모든 민족들은 공포심에 사로잡혔다. 가나안인들과 온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자신에게 천지의 왕이신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계시고 저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의심할 여지없는 증거가 주어진 바 되었다. {PP 485.1}

히브리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요단강 가까운 곳에 최초에 진을 쳤다. 이곳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유월절을 지켰"(수 5:3, 9, 10)다. 가데스에서 반역한 이후 할례 의식이 중지된 것은 그 의식이 상징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음을 이스라엘에게 계속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되었다.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기념인 유월절을 중지한 것은 종살이하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한 그들의 요구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불쾌히 여기신 증거이었다. 그러나 이제 거절의 세월은 끝났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언약의 표를 회복하셨다. 광야에서 탄생한 백성들 모두에게 다 할례 의식이 거행되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수 5:9)고 선언하셨으므로 그들이 진 친 장소를 이 말씀에 연유하여 "굴러가게 함" 혹은 "말아 올림"이란 뜻으로 길갈이라 불렀다. {PP 485.2}

이방 민족들은 히브리인들이 기대했던 바와 같이 애굽을 떠난 즉시 가나안을 점령하기에 실패한 까닭에 여호와와 그 백성을 비난해 왔었다.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광야에서 방황한 까닭에 히브리인의 원수들은 의기양양했으며 히브리인의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된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다는 말로 조롱하였다. 여호와께서는 이제 당신의 백성들 앞에 요단강을 여심으로 당신의 능력과 은총을 현저히 나타내시고 그들의 원수들로 하여금 더 이상 그들을 비난할 수 없게 하셨다. {PP 486.1}

"그 달 십사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광야에서 방황하던 장구한 세월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은 마침내 약속의 땅을 밟고 있었다. {PP 486.2}

45장 여리고의 함락

히브리인은 이미 가나안에 들어갔으나 아직 그 나라 백성들을 정복하지는 않았다.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에는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길고도 어려운 전쟁을 치러야 할 것처럼 보였다. 가나안에는 강대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들의 영토의 침략에 대항할 준비를 이미 갖추고 있었다. 여러 종족들은 공통된 위험에 대한 공포심으로 인해 일치단결하였다. 그들의 말과 철병거와 지형에 대한 밝은 식견과 전쟁을 위한 훈련 등을 생각할 때 그들은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 게다가 그 나라는 견고한 성채로 방어되고 있었는데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아"(신 9:1) 있었다. 그들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의 능력의 보증으로써만 이스라엘은 절박한 전투에서 성공을 바랄 수 있었다. {PP 487.1}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크고 견고한 성 중에 하나인 부요한 여리고 성읍은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있었다. 비옥한 평원의 변경에 자리 잡고 있어서 열대 지방의 윤택한 각종 생산물이 풍부했고 사치와 죄악의 소굴인 궁전과 신전이 있고 그 뒤에 육중한 성벽이 둘러 있는 이 거만한 여리고 성읍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도전하였다. 여리고는 우상숭배의 본거지 중 하나인데 특히 달의 여신 아스다롯을 섬기는 곳이었다. 이곳은 가나안인들의 종교 중에 가장 비열하고 가장 부패된 모든 것들의 중심지였다. 벧브올에서 범한 죄의 무서운 결과가 마음속에 생생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이교의 성읍을 증오와 공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PP 487.2}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제일보가 여리고를 함락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보증을 간구하여 그 보증을 받았다. 여호수아가 진영에서 물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앞에 행하시기를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키가 크고 풍채가 당당하고 "칼을 빼어 손에" 든 한 무장한 군사를 보았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는 여호수아의 도전에 그는 "여호와의 군대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수 5:13~15, 6장, 7장)고 대답하였다.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명하셨던 동일한 명령이 이 신비스러운 낯선 사람의 참 성격을 드러내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 서셨던 분은 지존하신 그리스도이셨다. 위엄에 눌린 여호수아는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이셨다는 보증의 말씀을 들었으며 그분으로부터 그 성읍을 빼앗는 일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 {PP 487.3}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군대를 정렬시켰다. 그러나 공격을 가하지 말아야 하였다.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팔을 불면서 그 성읍 주위를 돌아야 하였다. 대열의 선두에 무사들이 섰었는데 그들은 선발된 용사의 단체이었으나 지금은 그들 자신들의 수완과 용맹으로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지시를 순종함으로 승리를 얻어야 하였다. 그 뒤를 나팔을 가진 일곱 제사장이 따랐다. 그 다음에는 그들의 신성한 직무를 나타내는 의복을 입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영광의 구름에 둘러싸인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행진하였다. 그 후에 이스라엘 군대는 각 지파마다 그 지파의 깃발 아래 행진하였다. 그 운명지어진 성읍을 도는 행렬은 이와 같았다. 이 강대한 군사들의 발걸음 소리와 엄숙한 나팔 소리가 산들에 메아리치고 그 소리가 다시 여리고 시가에 울려 퍼졌는데 그 소리밖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돌기를 마치자 전군은 조용히 각기 장막으로 되돌아가고 법궤는 성막 안에 전에 있던 자리에 안치되었다. {PP 488.1}

여리고 성읍의 파수꾼들은 경이와 공포로써 이스라엘의 모든 행동을 세밀히 감시하고 이를 상관에게 보고하였다. 그들은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지 그 뜻을 알지 못했으나 강대한 군대가 성스러운 법궤와 수종드는 제사장들과 함께 그들의 성읍을 매일 한 번씩 도는 것을 볼 때에 이 신비스러운 광경은 이교의 사제들과 백성의 마음을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였다. 그들은 아무리 강력한 공격이라도 능히 성공적으로 막아낼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 그들의 튼튼한 방어 시설들을 점검해 보았다. 이 이상한 시위 때문에 저희에게 어떤 해가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을 조롱하는 자들이 많았다. 다른 이들은 날마다 성읍을 도는 행렬을 바라볼 때에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열렸으며 얼마 전에는 요단에 길이 열려 그들이 건너온 것을 기억하였다. 그들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떠한 경이로운 일을 더 행하실지 알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PP 488.2}

이스라엘 대군은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다. 일곱째 날 새벽에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를 소집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여리고 성을 일곱 바퀴 돈 후에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거든 큰소리로 외치라고 지시했다. {PP 488.3}

거대한 이스라엘 대군은 운명지어진 성벽 주위를 엄숙히 행진하였다. 보조를 맞추어 걸어가는 많은 사람의 발걸음 소리와 이른 아침의 고요함을 깨뜨리는 나팔 소리가 때때로 울리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조용하였다. 견고한 돌로 된 튼튼한 성벽은 사람들의 포위를 멸시하는 것처럼 보였다. 성벽 위에 있는 파수병들은 첫 바퀴를 돌고 나서 뒤따라 두 번째 바퀴를 돌고 이어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바퀴를 도는 모습을 공포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다. 이 신비스러운 행동의 목적은 무엇일까? 어떤 큰 사건이 임박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들은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일곱 번 돌기를 마친 후 긴 행렬은 멈추어 서고 한동안 조용하던 나팔들이 일시에 울려 온 땅을 진동시켰다. 견고한 돌로 쌓은 성벽이 그 거대한 망대와 활 쏘는 구멍 있는 흉벽과 함께 기초에서부터 흔들려 우르르하고 무너져 내렸다. 여리고 거민들은 공포에 질려 움직일 수 없었고 이스라엘 대군은 진군하여 들어가 그 성읍을 점령하였다. {PP 491.1}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승리를 얻은 것은 아니었다. 그 정복은 전부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그 성벽과 거기 포함한 것은 모두 그 땅의 처음 열매로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바쳐야 하였다. 또 가나안 정복은 그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싸운 싸움이 아님과 그들은 다만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과, 그들이 재물이나 명예를 구할 것이 아니요 그들의 왕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아야만 하였다. 그 성을 빼앗기 전에 다음과 같은 명령이 내렸다.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바치되”,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PP 491.2}

그 성읍의 모든 거민은 그중에 있는 모든 생물과 함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다 칼로 진멸해야 하였다. 다만 충실한 라합과 그 가족은 정탐꾼의 약속대로 죽임을 면했다. 여리고 성읍이 전부 불타버렸다. 그 궁전과 사원들, 장엄한 저택과 그 사치스러운 모든 기구들, 화려한 피륙과 값진 의복들이 모두 불꽃에 삼키운 바 되었다. 그러나 불로 태울 수 없는 “은금과 동철 기구”는 성막에서 사용하도록 바쳐야 하였다. 성읍의 유적도 저주를 받아 여리고는 결코 성채로서 재건될 수 없었으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파괴된 성벽을

회복하려고 시도하는 자는 형벌받을 우려가 있었다. 온 이스라엘 앞에서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잃으리라”고 엄숙히 선포되었다. {PP 491.3}

여리고의 백성을 전부 멸한 것은 전에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백성들에 관하여 주신 명령 곧 “너로 치게 하시리니…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신 7:2, 20:16)라는 명령의 성취에 불과하였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명령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 있는 사랑과 자비의 정신에 반대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것은 참으로 무한히 지혜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세워 그들로부터 이 세상에 당신의 나라를 나타낼 수 있는 민족과 국가를 발전시키고자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종교의 후계자가 되어야 할 뿐 아니라 그 원칙을 온 세계에 전파하여야 하였다. 가나안인들은 가장 더럽고 가장 부패한 이교에 빠졌으므로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목적을 성취하는 데 분명히 방해가 될 것이므로 그들을 그 땅에서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PP 492.1}

가나안 거민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허락되었다. 40년 전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에 형벌을 내리심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권능이 가장 위대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리고 이제 미디안과 길르앗과 바산의 왕들을 정복하게 하심으로 한층 더 여호와가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심을 나타내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품격이 거룩하시고 음란한 행위를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서 가증스러운 의식에 참여한 까닭으로 그들에게 내리신 형벌에서 잘 나타내셨다. 이 모든 사건을 여리고 거민들이 잘 알고 있었고 비록 그들이 순종하기를 거절하였을지라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에 하나님이시니라”는 라합의 확신에 동참하는 자들이 많았다. 가나안인들은 홍수 전 사람들처럼 하늘을 모독하고 땅을 더럽히는 삶을 살 뿐이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와 인류의 원수들을 신속히 처형하기를 요구했다. {PP 492.2}

40년 전에 불신의 정탐꾼들을 공포에 사로잡히게 했던 그 교만한 성읍 여리고의 성벽을 하늘의 군대가 얼마나 쉽게 무너뜨렸던가!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분께서 “내가 여리고를 네 손에 붙였”노라고 말씀하셨다. 인간의 힘은 이 말씀에 항거하기에 무력하였다. {PP 492.3}

“믿음으로…여리고 성이 무너졌”(히 11:30)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로 더불어만 교통하시고 자신을 모든 회중에게 나타내시지 않았다. 여호수아의 말을 믿든지 의심하든지 하는 것은 오직 이스라엘 회중에게 달려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지도하에 그들을 옹위한 천사들의 무리를 볼 수 없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도 있었다. “숫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면서 날마다 성벽 주위를 행진하는 것은 얼마나 무의미하고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이 일은 이 우뚝 솟은 성채에 아무런 결과도 가져올 수 없다.” 그러나 성벽을 최후로 무너뜨리기 전에 오랫동안 이런 의식을 계속하게 한 이 모든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신앙심을 계발시킬 기회를 주시고자 하심이었다. 이는 그들의 힘은 인간의 지혜나 그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감명시키려 하심이었다. 이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으로 그들의 거룩하신 지도자를 의지하도록 숙달되어야 하였다. {PP 493.1}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실 것이다. 당신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보다 큰 능력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지혜를 크게 의지하고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그분에게 기회를 드리지 않는 까닭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충실히 당신을 순종한다면 당신을 믿는 자녀들을 위급할 때마다 도와주실 것이다. {PP 493.2}

여리고를 함락시킨 지 얼마 후에 여호수아는 요단강 유역 서편 수 마일 떨어진 계곡 중에 있는 작은 성 아이를 공격하기로 하였다. 그 곳에 보낸 정탐꾼들은 그 곳 주민은 적고 그 곳을 점령하기에는 적은 군대밖에 필요치 않을 것이라는 보고를 가지고 돌아왔다. {PP 493.3}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신 대승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만심을 가지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으므로 그들은 안심하였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그들에게 성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또 잊어버렸다. 여호수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아이 성을 정복할 계획을 세웠다. {PP 493.4}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을 높이고 원수를 경멸하기 시작하였다. 쉽게 승리를 얻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 곳을 취하는 데는 3천명의 군사면 족하다고 생각하였다. 이 군사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리라는 보증도 없이 공격하여 돌진해 나아갔다.

이스라엘 군사는 아이 성문 가까이 진군하였으나 가장 완강한 저항을 받고 말았다. 그들은 적의 수효와 철저한 준비를 보고 당황하고 혼란에 빠져 가파른 내리받이 길로 도망하였다. 가나안인들은 맹렬히 추격하여 "성문 앞에서부터…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다. 그 때에 36명이 죽임을 당했는데 비록 그 수효는 적었지만 이 패배는 전 회중을 낙담하게 하였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이 가나안인과 실전에서 교전한 최초이었는데 이 작은 성읍의 방어군에게 이처럼 패배를 당한다면 그들 앞에 있는 큰 전투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호수아는 그들이 성공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의 표시임을 알고 슬퍼하고 염려하여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었다. {PP 493.5}

여호수아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라고 부르짖었다. {PP 494.1}

여호와께서는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느니라고 대답하셨다. 이때는 절망과 비탄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요 신속하고 단호하게 행동해야 할 시간이었다. 진영 중에 은밀한 죄가 있었는데 이것을 찾아서 제거하기 전에는 여호와의 임재와 축복이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실 수 없었다.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PP 494.2}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라는 명령을 받은 자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였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 범죄자의 죄에 대하여 책임이 있었다.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였다. 여호수아는 범죄자를 수색하여 처벌하라는 명을 받았다. 범인을 찾아내기 위하여 제비를 뽑아야 하였다. 죄인을 직접 지적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한동안 의문 중에 두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저희 중에 있는

죄에 대하여 책임을 깨닫게 하여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도록 하였다. {PP 494.3}

여호수아는 이른 아침 "그 지파대로" 백성을 모아 엄숙하고 인상 깊은 의식을 시작하였다. 하나하나 조사하는 일이 진행되었다. 무서운 심사는 점점 더 범인에게 가까워지고 있었다. 최초에는 지파, 그 다음에는 종족, 그 후에는 가족, 최후에는 범인을 잡아내게 되었는데 유다지파 갈미의 아들 아간이 하나님의 손가락에 의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로 지목되었다. {PP 495.1}

여호수아는 의심할 여지없이 그의 죄상을 밝혀 그가 부당하게 선고를 받았다는 비난을 남기지 못하도록 아간에게 사실을 승인하도록 엄명하였다. 비참한 아간은 그의 죄상을 다음과 같이 철저히 고백하였다.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이백 세겔과 오십 세겔 중의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은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나이다. 즉시 사자를 그의 장막에 보냈고 사자들이 그가 말한 장소의 땅을 파 보니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취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놓으니라." {PP 495.2}

아간에게 형벌이 선고되었고 즉시 그 형이 집행되었다. 여호수아는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고 말하였다. 온 백성이 아간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결과로 고통을 당하였으므로 그들은 이제 저희 대표자들을 통하여 형벌하는 일에 참여하여야 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쳤"다. {PP 495.3}

그리고 아간의 시체 위에는 돌무더기가 크게 쌓여 그 죄와 형벌에 대한 증거가 되었다. "그러므로 그 곳 이름을 아골(괴로움) 골짜기라 부르더라." 역대기에는 그의 죄를 기념하여 "아갈이니…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대상 2:7)라고 기록되어 있다. {PP 495.4}

아간의 죄는 가장 직접적이고도 엄숙한 경고와 가장 강한 하나님의 능력의 출현을 무시하고 범해졌다.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는 명령이 온 이스라엘에게 포고되었다. 이 명령은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온 백성이 할례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인식한 후에 유월절을 지키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인 언약의 천사가 나타난 후에 즉시 주어진 바 되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모든 범죄자들이 분명히 당할 멸망을 증거하는 여리고의 함락에 뒤따라 일어났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스라엘이 승리를 얻었고 그들이 자기 힘으로 여리고를 점령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노획물을 취하지 않도록 금지하신 명령에 엄숙한 비중을 더하였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성을 함락시키셨으므로 승리는 당신의 것이며 그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당신에게만 바쳐야 하였다. {PP 496.5}

그 승리와 심판이 시행되던 엄숙한 시간에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감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한 사람이 있었다. 시날산 의복을 볼 때에 아간의 탐욕은 자극을 받았다. 이것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게 된 그 순간까지도 아간은 그것을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라고 불렀다. 한 가지 죄는 다른 죄를 유도하여 그는 여호와의 보고에 바쳐야 할 금과 은도 훔쳤는데 곧 가나안 땅의 처음 열매를 하나님에게서 도적질하였다. {PP 496.1}

아간을 파멸시킨 무서운 죄는 모든 죄 중에 가장 흔하고 가장 경히 여겨지고 있는 탐욕에서 기인되었다. 다른 죄들은 조사하여 형벌하는 반면에 열째 계명을 유린한 죄는 좀체로 비난조차 받지 않는다. 이 죄가 얼마나 흉악하며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에 대하여는 아간의 역사에서 배울 수가 있다. {PP 496.2}

탐욕은 점차적으로 발전하는 죄악이다. 아간이 품은 물욕은 마침내 습관이 되어 거의 깨뜨릴 수 없는 족쇄처럼 그를 속박하였다. 그는 이 악을 품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에게 재난이 이르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그의 지각은 마비되어 유혹이 닥쳐올 때에 그는 쉽사리 유혹에 빠지고 말았다. {PP 496.3}

엄숙하고 명백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동일한 죄가 범해지고 있지 아니한가? 아간에게 여리고의 노획물을 훔치지 못하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그 같은 탐욕에 방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탐욕을 우상숭배라고 선언하셨다. 우리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골 3:5; 마 6:24; 눅 12:15; 엡 5:3)는

경고를 받고 있다. 우리 앞에는 아간과 유다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무서운 운명이 제시되어 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의 배후에 보다 높은 자리를 탐내다가 하늘의 영광과 복락을 영원히 상실한 "아침의 아들" 루스벨의 무서운 운명이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경고에도 불구하고 탐욕은 매우 많다. {PP 496.4}

어느 곳에서든지 탐욕 투성이의 더러운 자국들이 보인다. 탐욕은 가정에서 불만과 알력을 조장하고 가난한 자로 하여금 부자에 대하여 질투와 증오를 일으키게 하고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포학한 압박을 가하도록 한다. 이 탐욕이란 악은 세상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존재한다. 교회 안에서까지도 이기심과 허욕과 속이는 일과 자선사업의 태만과 "십일조와 헌물"을 바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소유를 도적질하는 일을 얼마나 쉽게 볼 수 있는가! "선량하고 교회에 잘 다니는" 교인들 중에 슬프게도 많은 아간들이 있다. 정기적으로 교회에 나아와 주의 식탁에 앉으나 저희 재산 중에 불법적으로 취한 것 즉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물건을 감추어 둔 자들이 많다. 많은 군중들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를 위하여 양심의 호소와 천국의 소망을 희생한다. 많은 무리들이 그들의 성실과 훌륭하게 될 가능성을 돈주머니와 바꾼다. 가난한 자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은 무시되고, 복음의 빛이 전파되는 일이 방해를 받고 있으며 그리스도인이라 공언하는 자들의 거짓된 행동으로 인하여 속인들의 조롱이 불타오르고 있으나 여전히 탐욕적인 그리스도인은 재물 모으기를 계속한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PP 497.1}

아간의 죄는 전국민에게 재난을 가져왔다. 그와같이 한 사람의 죄는 그 범행을 조사하여 처리해 버리기까지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이 당신의 교회에게 임할 것이다. 교회가 가장 무서워해야 할 영향은 공공연한 반대자나 신앙심 없는 자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의 영향이 아니요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공언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영향이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축복을 억제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약하게 하는 자들이다. {PP 497.2}

교회가 난관에 처하고 냉담과 영적 타락에 빠져서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승리의 개가를 부를 기회를 제공하고 있을 때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불행한 상태를 슬퍼하는 대신에 교인들로 하여금 진영 중에 아간과 같은 자가 있는지 조사하게 하라. 각 사람은 겸비하고 마음을 살펴 하나님의 임재를 막는 감추인 죄를 찾아내도록 노력하라. {PP 497.3}

아간은 자기의 죄를 시인하였으나 그 고백이 자신에게 유익을 주기에는 너무 늦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이에서 패배하여 낙담하여 돌아오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는 자진하여 죄를 자복하지 않았다. 그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큰 슬픔으로 땅에 부복한 것을 보았다. 만일 그 때에 자복하였더라면 그는 진심으로 회개한 증거를 나타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간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아간은 큰 죄가 범하여졌다는 선언을 듣고 그 죄의 성질까지 분명히 진술된 것을 들었다. 그러나 그의 입술은 인봉되었다. 그 후에 엄숙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먼저 그의 지파에서 시작하여 그의 종족과 가족이 점차 지목당하는 것을 볼 때에 그의 마음은 얼마나 공포에 떨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손가락이 그를 지적할 때까지 그는 자복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죄를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아간은 사실을 고백하였다. 이와 동일한 자복이 얼마나 자주 행하여지고 있는가! 다 알려진 후에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자기 자신과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죄를 자복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아간은 그의 고백으로써 그의 범죄의 결과를 피하리라는 희망을 갖지 않았다면 자기의 죄를 자복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자복은 다만 자신의 형벌이 공의로움을 나타내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이다. 그에게는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도, 깊은 뉘우침도 의도의 변화도, 악에 대한 증오도 없었다. {PP 497.4}

그와 같이 죄인들은 생사의 운명이 결정된 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를 자복할 것이다. 그들에게 미칠 결과가 각각 저희 죄를 시인하게 할 것이다. 선고에 대한 무서운 느낌과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자복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복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다. {PP 498.1}

많은 사람들은 아간처럼 그들의 범죄를 같은 사람에게 감출 수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혼자 속으로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엄격히 주목해 보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는다. 조만간 희생 제물이나 헌물로도 영원히 죄를 속할 수 없는 그날에 그들의 죄가 그들을 찾아낼 때에는 모두 너무 늦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늘의 기록들이 공개될 때에 재판장께서는 말씀으로 인간에게 그들의 죄를 선언하지 않으시고 날카롭고 가책을 느끼게 하는 시선을 던지심으로 모든 행위와 일상 생애의 모든 업무가 행악자들의 기억에 생생하게 떠오르게 하실 것이다. 그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시대에서처럼 지파로부터

가족에게까지 색출될 필요가 없을 것이며 자신의 입술로 자기 수치를 고백할 것이다.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졌던 죄악들이 그 때에는 전 세계에 선포될 것이다. {PP 498.2}

46장 축복과 저주

아간에 대한 형을 집행한 후에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를 소집하여 다시 아이를 향하여 진격하라는 명을 받았다.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셨으므로 그들은 곧 아이성을 점령하였다. {PP 499.1}

이제 군사적 행동을 중지하고 온 이스라엘은 엄숙한 종교적 의식에 참여하여야 했다. 백성들은 가나안에 정착하기를 열망했으나 아직 저희 가족들을 위하여 집이나 토지를 소유하지 못했으므로 그것들을 얻기 위하여 가나안인들을 몰아내야 하였다. 그러나 보다 우선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높은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중대한 일은 연기되어야만 하였다. {PP 499.2}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업의 땅을 소유하기 전에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충성의 언약을 새롭게 하여야 했다. 모세의 마지막 권면에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하나님의 율법을 엄숙히 인식하기 위하여 세겜에 있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모이라는 지시가 두 번이나 주어져 있다. 이 명령에 순종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은 남자뿐 아니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우거하는 객들”(수 8:30~35)까지도 다 길갈에 있는 그들의 진을 떠나 원수의 나라들을 통과하여 가나안 땅의 중앙부에서 가까운 세겜 골짜기로 행진하였다. 비록 아직 정복하지 않은 원수들에게 에워싸여 있었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으므로 안전하였다. 야곱의 시대에서처럼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고로”(창 35:5) 이제 히브리인들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았다. {PP 499.3}

이 엄숙한 의식을 위하여 지정된 장소는 그들의 조상들의 역사와 연관시켜 볼 때에 이미 신성한 곳이었다. 이곳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께 첫 제단을 쌓은 곳이다. 아브라함과 야곱이 모두 이곳에 저희 장막을 쳤었고 그 후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요셉의 시체를 가져와 이곳에 장사하였다. 그뿐 아니라 여기에는 야곱이 판 우물도 있었고 그 가족들이 그 아래 그들의 신상들을 파묻었던 상수리나무도 있었다. {PP 499.4}

이 선택된 곳은 팔레스틴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고 이 장엄하고 감명적인 광경이 벌어지기에 알맞은 장소였다. 아름다운 골짜기와 감람나무 숲으로 점철된 푸른 들은 생수의 샘에서 흘러내리는 시내들이 물을 대줌으로 인하여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보석처럼 피어 불모의 산들 사이에 매혹적으로 펼쳐져 있었다. 그 골짜기 양편에 있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서로 가까이 접근해 있었고 그 산들 아래 있는 절벽들은 자연의 강단처럼 되어 있었고 거기서 하는 말은 사방에서 분명하게 들을 수 있었다. 한편 산 중턱에는 푹 꺼진 곳이 있어서 무수한 군중이 회집할 수 있었다. {PP 500.1}

모세의 지시를 따라 에발산에 큰 돌로 만든 한 기념비를 세웠다. 전에 석고를 발라서 준비해 두었던 이 돌들 위에 율법을 새겼는데 이 율법에는 시내산에서 반포되고 돌비에 기록된 십계명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하시고 그가 책에 기록한 율법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기념비 곁에는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여호와께 희생 제물을 드렸다. 저주가 선포된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까닭으로 당신의 분노를 초래했다는 것과 희생 제단이 대표한바 그리스도의 속죄가 없었다면 당장에 형벌이 내렸을 것임을 나타내는 의미심장한 것이었다. {PP 500.2}

모두가 레아와 라헬의 후손인 여섯 지파는 그리심산에 서고, 한편 여종들의 후손은 르우벤과 스불론과 함께 에발산에 자리를 잡았으며 제사장들은 법궤와 함께 그들 사이에 있는 골짜기에 있었다. 조용히 하라는 나팔 소리가 울려퍼진 후에 여호수아는 깊은 침묵 가운데 거룩한 법궤 곁에 서서 이 거대한 회중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때에 따를 축복의 말씀을 읽었다. 그 때에 그리심산에 선 모든 지파가 “아멘”으로 화답하였다. 그 후에 그가 저주의 말씀을 낭독할 때에 에발산 위에 선 지파들이 같은 방법으로 동의를 표했다. 이같은 엄숙한 응답에 수천수만의 음성이 합하여 한 사람의 음성과 같이 울려 퍼졌다. 이 일 후에 그들이 모세에게서 받은 율례와 법도와 함께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였다. {PP 500.3}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는 율법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그 거룩한 계명이 아직도 법궤 속에 보관되어 있었다. 이제 이 계명은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곳에 다시 기록되었다.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 점령에 대한 언약의 조건들을 친히 볼 특권을 얻었다. 모든 사람들은 언약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표시를 해야 하였고 그것을 준수하면 축복을 받고 게을리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사실에 동의해야 하였다. 율법을 기념비에 기록했을 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듣는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봉독하였다. 모세가 연설하면서 신명기서 전체를 백성들에게 준 지 많은 주일이 지나지 않았으나 여호수아는 이제 율법을 다시 봉독하였다. {PP 500.4}

이스라엘 남자뿐 아니라 "모든 여인과 아이들이" 봉독하는 율법을 들었으며 이 율법은 대단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그들의 의무를 알고 행해야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법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다.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의 장구함 같으리라"(신 11:18~21). {PP 503.1}

7년 마다 온 이스라엘이 모인 중에 전 율법을 봉독해야 하였는데 이는 모세가 다음에 명한 바와 같았다. "매 7년 끝해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네 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신 31:10~13). {PP 503.2}

사단은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왜곡시키고 인간의 마음을 흐리게 하고 이해력을 어둡게 하여 그들을 죄악으로 인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매우 명백하게 말씀하시고 당신의 요구를 매우 알기 쉽게 만들어 아무도 실수하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당신의 보호의 날개 아래로 이끌어들이사 사단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잔인하고 기만적인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노력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친 음성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손수 살아 있는 당신의 말씀을 기록하셨으며, 진리로 빛나고, 생명이 넘치는 이 복된 말씀을 사람들에게 완전한 안내자로 맡겨 주셨다. 사단은 주의 언약과 요구로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고 그것에 대한 애착심을 버리게 하려고 몹시 노력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그것들에 대하여 뜻을 굳게 하고 그것들을 마음에 새기는 일을 더욱 부지런히 할 필요가 있다. {PP 503.3}

종교 지도자와 교사들은 성경 역사에 나타난 사실과 교훈은 물론 여호와의 경고와 요구에 대하여 백성을 가르치는 일에 보다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것들을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한 말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젊은이들이 성경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있는지를 주시하는 것이 목사와 부모들의 사업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PP 504.1}

부모들은 거룩한 페이지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지식으로 자녀들의 흥미를 일으킬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의 흥미를 일으키려면 자신들이 먼저 그것에 흥미를 가져야 한다.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익숙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바와 같이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신 11:19) 이 말씀을 강론해야 한다. 그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기를 바라는 자들은 그분의 말씀과 창조 사업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그분의 선하심과 위엄과 능력에 대하여 말하여야 한다. {PP 504.2}

성경의 모든 장과 절들은 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교훈의 통로이다. 우리는 이 교훈을 우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야 한다. 이 말씀을 연구하고 순종하면 이 말씀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것이다. {PP 504.3}

47장 기브온 족속과의 동맹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겜에서 그들의 진영이 있는 길갈로 돌아왔다. 얼마 후 길갈에서 그들은 이상한 대표자들의 방문을 받았으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기를 희망하였다. 이 사신들은 자기들이 먼 나라에서 왔노라고 말했으며 그들의 외모는 이 말이 틀림없음을 입증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의 의복은 낡고 해어졌으며 신발은 기운 것을 신고 있었다. 그들의 양식은 곰팡이가 나 있었고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도 찢어진 곳을 기워 마치 여행 중에 급히 수선한 것처럼 보였다. {PP 505.1}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의 고향은 팔레스틴 국경 저편 먼 나라인데 그들의 동포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경이로운 일에 관하여 듣고 이스라엘과 동맹을 체결하기 위하여 자기들을 보냈다고 하였다. 히브리인들은 가나안의 우상 숭배자들과는 어떠한 동맹도 체결하지 말라는 특별한 경고를 받았으며 지도자들의 심중에는 이 이상한 자들의 말이 사실일까 하는 의심이 일어났다. 그들은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다고 말하였다. 이 말에 대하여 사신들은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여호수아 9, 10장을 보라)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직접 그들에게 “너희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느뇨”라고 물을 때에 그들은 전에 한 말을 되풀이하고 그들의 성실성을 증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말을 부언하였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오히려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취하였더니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더니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심히 길므로 인하여 낡아졌나이다.” {PP 505.2}

이 진술은 효력이 있었다. 히브리인들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리하여 조약은 체결되었다. 그러나 3일 후에 사실이 발견되었다. “그들은 근린에 있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라 함을 들으니라.” 히브리인을 대항하기 불가능함을 안 기브온 사람들은 술책을 써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였다. {PP 505.3}

기만당하였음을 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분노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3 일간 여행 끝에 가나안 땅의 중앙에서 가까운 기브온인들의 성읍에 도착하였을 때에 그들의

분노는 최고 절정에 이르렀다.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였으나 족장들은 비록 기브온인들의 기만으로 이루어진 것이긴 하지만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 까닭에 조약을 깨뜨리기를 거절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기브온인들은 우상숭배를 버리고 여호와를 경배하기로 서약하였으므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한 것은 우상숭배하는 가나안인들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히브리인들은 저희가 서약한 맹세로 인하여 스스로 범죄한 것은 아니었다. 비록 서약이 기만으로 이루어졌을지라도 그것을 무시하지 말아야 하였다. 사람이 말로 서약한 의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릇된 행동을 하도록 속박하지 않는 한 신성하게 지켜야 한다. 이득이나 복수와 사욕 등 그 어떤 것도 그들이 한 맹세나 서약을 깨뜨릴 이유가 될 수 없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그 거룩한 곳에 설”자는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잠 12:22; 시 24:3, 15:4)는 자이다. {PP 506.1}

기브온인들은 죽음은 면하였으나 노예로서 성막에 매여서 온갖 천한 일들을 행하게 되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긷는 자를 삼았”다. 그들은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이 조건들을 받아들이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라도 기쁨으로 응하였다.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라고 말하였다. {PP 506.2}

기브온인들의 영토는 네 성읍으로 구성되었다. 이 백성들은 한 왕의 통치 하에 있지 아니하고 장로 혹은 원로들의 통치를 받았다. 그들의 성읍 중에 가장 중대한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성읍이요”, “그 사람들은 다 강하였다.” 이와 같은 성읍의 백성들이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이처럼 굴욕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인들이 가나안 거민들에게 끼친 공포심에 대한 현저한 증거였다. {PP 506.3}

그러나 기브온인들이 정직하게 이스라엘과 교섭하였더면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았을 것이다. 여호와께 복종함으로 생명의 보존은 얻었으나 그들의 기만은 그들에게 굴욕과 노역을 가져왔다. 하나님께서는 이교의 우상숭배를 버리고 이스라엘과 연합하는 자들은 모두 다 언약의 축복을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두셨다. 그들은 “너희 중에

우거한 이방인"이란 칭호 아래 포함되었고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이 계급의 사람들도 이스라엘인과 동등한 은총과 특권을 누릴 수 있었다. 여호와의 지시하신 바는 다음과 같았다. {PP 507.1}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거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레 19:33, 34). 유월절과 희생 제물을 헌납하는 데 관하여 "회중 곧 너희나 우거하는 타국인이나…너희의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민 15:15)고 명하셨다. {PP 507.2}

만일 기브온인들이 기만적인 수단을 쓰지 않았더라면 위에 말한 지위를 차지했을 것이다. "그 다 강한" 왕도의 시민이던 그들이 자자손손이 내려가며 나무패는 자와 물 긷는 자가 된 것은 결코 가벼운 굴욕이 아니었다. 그들은 기만의 대가로 빈곤이란 의복을 채택하였고 그것은 그들을 영원한 종살이의 표로 속박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의 노예의 상태는 오는 모든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거짓을 미워하신다는 것을 증거할 것이다. {PP 507.3}

기브온인들이 이스라엘에게 굴복한 일로 가나안 왕들은 크게 당황했다. 즉시 침략자와 화친한 자들에 대한 복수에 착수하였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의 지휘 하에 가나안의 다섯 왕들은 기브온을 토벌할 동맹을 체결하였다. 그들은 신속히 행동을 시작하였다. 기브온인들은 방어할 아무 준비가 없었으므로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은 기별을 보냈다.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수 10:6). 위험은 기브온 백성에게뿐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이르러 왔다. 이 기브온 성읍은 중부와 남부 팔레스틴의 요로를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고수해야 하였다. {PP 507.4}

여호수아는 즉시 기브온을 구원하러 갈 준비를 갖추었다. 포위된 성읍의 거민들은 저희가 행한 기만으로 인하여 여호수아가 그들의 간청을 거절하지나 않을까 염려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의 지배 아래 복종하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받아들인 이상 여호수아는 그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을 느꼈다. 그는 이번에는 하나님의 지시 없이 움직이지 않았고 여호와께서는 이 거사에 대하여 그를 격려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는 기별을 보내셨다.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PP 507.5}

밤새도록 행군하여 여호수아는 아침에 그의 군대를 기브온 앞까지 인솔하였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도착했을 때에 동맹군의 왕들은 그들의 군대를 성 주위로 소집할 겨를이 없었다. 이 돌연한 공격은 적들을 완전히 패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막대한 군사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도망하여 벧호론으로 가는 산길로 올라갔다. 산꼭대기에 올라간 후 그들은 반대편의 깎아 세운 듯한 내리막길로 급히 내려가고 있었다. 이곳에서 무서운 우박이 그들에게 내렸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PP 508.1}

아모리인들이 산성에 피난처를 찾으려고 무모하게 도망하기를 계속하고 있을 때에 산봉우리에서 내려다보고 있던 여호수아는 자기의 과업을 마치기에는 해가 너무 짧다는 것을 알았다. 만일 적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면 그들은 다시 힘을 얻어 역습해 올 것이다. "그 때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PP 508.2}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은 저녁이 되기 전에 성취되었다. 전 원수의 군대는 그의 수중에 들어갔다. 이 날의 사건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기억에 남아 있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주의 날으는 살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인하여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발하사 땅에 둘리셨으며 분을 내사 열국을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합 3:11~13) 나오셨다. {PP 508.3}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여호수아의 기도에 영감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 번 증거하게 하셨다. 그런고로 위대한 지도자의 이 요구는 주제넘은 것은

아니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의 원수를 분명히 멸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그는 승리가 오로지 이스라엘의 군대에게 달려 있는 것처럼 그 싸움에 열렬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였다.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노력이 결합하는 데 있다. 최대의 결과를 성취하는 자는 가장 열렬히 전능하신 자의 팔에 매달리는 자이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라고 명한 자는 길갈의 진영에서 여러 시간 동안 땅에 엎드려 기도하던 그 사람이었다. 기도의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다. {PP 509.1}

이 큰 기적은 온 우주 만물이 창조주의 통치 하에 있다는 것을 증거한다. 사단은 자연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사람들에게 감추려 하고 있으며 이 최초의 대사업에 나타난 하나님의 끊임없는 역사를 보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이 기적으로 자연을 자연의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자는 모두 견책을 받는다. {PP 509.2}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원수의 세력을 멸하시려고 자연의 힘 즉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좇는 광풍”(시 148:8)을 소환하신다. 이교도인 아모리인이 하나님의 목적을 저항하려고 일어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내리셨다. 우리는 세상 역사의 최후의 장면에서 일어날 보다 큰 전쟁에 대하여 듣는데 그 때에는 “여호와가 그 병고를 열고 분노의 병기를 내”(렘 50:25)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고 물으시고 “내가 환난 때와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저축하였노라”(욥 38:22, 23)고 말씀하신다. {PP 509.3}

요한계시록의 기자는 “큰 음성이 성전에서” 나서 “되었다”고 선언할 때에 일어날 멸망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니”(계 16:17, 21). {PP 509.4}

48장 가나안의 분배

벧호론의 승리는 신속히 남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온 땅 곧 산지와 남방과 평지”를 “쳤”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고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왔더라”(수 10:40, 43, 11장). {PP 510.1}

이스라엘 군사가 거둔 승리를 보고 두려워한 북방 팔레스틴 족속들은 이제 이스라엘을 대항하기 위하여 동맹을 체결하였다. 이 동맹의 두령은 메롬 호수 서편 영토를 가진 하솔 왕 야빈이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다. 이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에 가나안에서 만났던 어떤 군대보다 큰 군대였으며 “민중이 많아 해변의 수다한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여 나아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다시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은 격려의 기별이 전달되었다.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라. {PP 510.2}

여호수아는 메롬 호수 가까운 동맹군의 진지를 습격하여 그들의 군대를 완전히 전멸시켰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고로 그들을 격파하고…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였다. 가나안인들의 자랑이었던 병거와 말들을 이스라엘은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병거들은 불사르고 말들은 힘줄을 끊어 전쟁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병거와 말들을 사용하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야 했다. {PP 510.3}

도성들은 하나하나 점령당하고 동맹군의 요새인 하솔도 불타 버리고 말았다. 전쟁은 여러 해 동안 계속되었으나 그 종말에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지배자임이 밝혀졌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PP 510.4}

그러나 비록 가나안인들의 세력은 꺾였지만 그들을 완전히 몰아낸 것은 아니었다. 아직도 그들은 팔레스틴 서쪽 해안을 따라 펼쳐진 비옥한 평야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 북쪽에는 시돈인들의 영토가 있었다. 레바논도 역시 시돈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었고 애굽 쪽에 있는 남쪽 땅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점령하고 있었다. {PP 511.1}

그러나 여호수아는 전쟁을 계속하지 않았다.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는 지도자의 직임을 양도하기 전에 수행하여야 할 또 다른 일이 있었다. 이미 정복한 부분도 있고 아직 점령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으나 그 땅을 전부 각 지파에게 분배해 주어야 하였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분배된 기업의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일은 각 지파의 의무였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수를 그들의 앞에서 몰아내실 것이다. 백성들이 당신의 언약을 충실히 지킨다면 하나님께서는 보다 큰 영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PP 511.2}

그 땅의 분배는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각 지파의 족장들의 도움을 받아 행하도록 여호수아에게 위임되었고 각 지파의 구역은 추첨으로 결정해야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점령하게 될 때 각 지파에게 분배될 전 영토의 경계는 모세에 의해 이미 정해져 있었고 분배하는 일을 돕기 위하여 각 지파마다 1명씩 족장이 임명되었다. 레위 지파는 성소 봉사를 전담하고 있었으므로 이 분배에 들지 못하였으나 가나안의 각 곳에 있는 48 성읍을 기업으로 배정받았다. {PP 511.3}

토지 분배에 들어가기 전에 갈렙은 자기 지파의 두령들과 함께 나아와 특별한 요구를 제출하였다.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이제 갈렙이 이스라엘에서 최고 연장자였다.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정탐꾼들 중에서 살아남은 자들이었고 그들은 허락의 땅에 대한 좋은 보고를 가져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올라가 그 곳을 정복하자고 백성들을 격려한 자들이었다. 갈렙은 그 당시의 자기의 충성의 보상으로 허락된 다음의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상기시켰다.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수 14:6~15). 그런고로 헤브론을 그의 소유로 줄 것을 요구하였다. 헤브론은 여러 해 동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집이 있었으며 그 곳 막벨라 동굴은 그들이 장사된 곳이었다. 헤브론은 무서운 아낙인들의 본거지였고 그들의 무서운 외모는 정탐꾼들을 몹시 무서워 떨게 하였으며 그로 인해 온 이스라엘의 용기는 꺾이고 말았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갈렙은 다른 어떤 곳보다도 바로 그 곳을 그의 기업으로 선택하였다. {PP 511.4}

갈렙은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

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 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고 말하였다. 이 요구는 유다 두령들의 지지를 받았다. 갈렙은 자신이 자기 지파로부터 토지를 분배하는 데 참여하도록 임명된 자이었으므로 그의 요구를 제출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위를 행사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 했다. {PP 512.1}

갈렙의 요구는 즉시 수락되었다. 갈렙 이외에는 이 거인의 성채를 정복하도록 안심하고 맡길 만한 자가 없었다. "여호수아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니라. 갈렙의 신앙은 지금도 그가 다른 정탐꾼들의 악한 보고를 반박하는 증언을 하던 그때의 신앙과 똑같았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을 점령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의 오랜 방랑 생활을 견디었으며 범죄한 형제들로 인하여 실망과 고통을 당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것에 대하여 한 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고 오히려 광야에서 그의 형제들이 죽임을 당했을 때에 자기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였다. 광야에서 방황하던 때의 모든 난관과 위험과 재앙 중에서는 물론이고 가나안에 들어와 전쟁하는 여러 해 동안에도 여호와께서 그를 보호하셨으며 이제 그는 80세가 지났으나 그의 기력은 쇠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이미 정복된 땅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정탐꾼들이 정복하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던 그 곳을 요청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의 신앙심을 동요시켰던 큰 세력을 가진 바로 그 거인들에게서 그들의 요새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탈취하고자 하였다. 갈렙의 요구는 그가 명예나 세력을 얻으려는 욕망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용감한 노 전사(老戰士)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모본을 보여 각 지파를 격려하여 저희 조상들이 정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던 땅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고자 하였다. {PP 512.2}

갈렙은 40년 동안 그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던 기업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는 신념을 가지고 "거기서 아낙의…세 아들을…쫓아내었"(수 15:14)다. 그는 이와

같이 자기 자신과 자기 집을 위하여 기업을 얻었으나 그 열심은 줄지 않았다. 그는 자기의 기업을 얻은 것을 만족히 여겨 주저앉지 않고 민족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더 정복하고자 전진하였다. {PP 513.1}

비겁한 자들과 반역자들은 광야에서 멸망당했으나 의로운 정탐꾼들은 에스골의 포도를 먹을 수 있었다. 각각 저희 신앙에 따라 상벌을 받았다. 믿지 않는 자들은 저희가 두려워하던 대로 사건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허락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을 기업으로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했으므로 그들은 그것을 소유하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은 전도에 가로놓인 어려움보다는 전능하신 조력자의 능력을 바라보았으므로 아름다운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 옛 위인들이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한" 것은 다 믿음으로 행한 일이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히 11:33, 34; 요일 5:4). {PP 513.2}

토지의 분배에 관하여 갈렙의 정신과는 전혀 다른 정신을 드러낸 다른 요구가 있었다. 이 요구는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의 반 지파가 제출했다. 저희 수가 많은 것을 고려하여 이 지파들은 두 몫의 영토를 요구하였다. 제비로써 그들에게 할당된 곳은 가나안에서 가장 부요한 곳이며 샤론의 비옥한 평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골짜기에 있는 많은 중요한 성읍들은 아직도 가나안인들이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지파들은 그들의 소유를 점령하는 수고와 위험을 피하고 이미 정복된 영토에서 다른 부분을 더 요구했다.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 자신이 속한 지파로서 이스라엘 중에 가장 큰 지파 중 하나였다. 그 수로 볼 때 그들은 자연히 특별한 고려를 받을 만하다고 스스로 생각했다. 그들은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찜이니이까"(수 17:14~18)고 하였다. 그러나 확고부동한 지도자 여호수아는 엄격한 공의에서 떠난 일이 없었다. {PP 513.3}

여호수아는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고 대답하였다. {PP 513.4}

그들의 대답이 불평의 참 원인이 무엇임을 나타내었다. 그들은 가나안인들을 쫓아내려는 믿음과 용기가 부족하였다. 그들은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철병거가 있나이다”고 말하였다. {PP 514.1}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리라고 보증하셨으므로 에브라임 사람들이 갈렙과 같은 용기와 신앙을 소유하였더라면 그들 앞에는 어떠한 원수도 설 수 없었을 것이다. 난관과 위험을 피하려는 그들의 명백한 욕망은 여호수아의 단호한 책망을 받았다. 여호수아는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가나안 사람들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이 주장하는 바와같이 큰 민족이었으므로 그들은 저희 형제들처럼 충분히 자신들의 길을 개척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다면 그들은 철병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 {PP 514.2}

이제까지 길갈이 이스라엘 민족의 본부였고 성소가 그 곳에 있었다. 그러나 성소는 그것이 영구적으로 안착할 곳으로 선택된 장소로 옮겨야만 하였다. 그 곳은 에브라임 땅에 있는 작은 성읍 실로였다. 이곳은 가나안 땅의 거의 중앙에 있었고 모든 지파들이 출입하기에 편리한 곳이었다. 이곳은 완전히 정복한 땅의 일부였으므로 예배자들은 출입하는 데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수 18:1~10)다. 성막을 길갈에서 옮길 때에 지금까지 진을 치고 있었던 지파들은 성막을 따라가 실로 가까이에 장막을 쳤다. 이 지파들은 저희 소유지로 분산될 때까지 실로에 머물러 있었다. {PP 514.3}

엘리의 죄악으로 블레셋인의 수중에 들어가고 그 후 실로가 망하기까지 법궤는 3백 년 동안 실로에 안치되어 있었다. 법궤는 그후 이곳 성막으로 되돌아오지 않았으며 마침내 성소 봉사는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옮겨지고 실로는 무의미하게 되었다. 지금은 한때 실로가 있었던 곳을 나타내는 유적들이 있을 뿐이다. 오랜 후에 실로의 운명은 예루살렘을 경고하는 데 사용되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의뢰하는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 곳에 행하”(렘 7:12, 14)리라고 선포하셨다. {PP 514.4}

"이스라엘 자손이...땅 나누기를 마치고" 모든 지파가 저희 기업을 배당받은 후에 여호수아는 자기의 요구를 제시했다. 갈렙에게처럼 그에게도 기업에 관한 특별한 약속이 주어져 있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광막한 지역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읍을 하나 요구하였다. "여호수아의 구한 성읍...을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였었더라"(수 19:49, 50). 이 성읍에 "남은 분깃"이란 뜻으로 딤낫세라란 명칭이 주어졌는데 이는 정복한 땅을 제일 먼저 취하는 대신에 자기 백성 중 가장 미천한 자들까지 다 분배받기까지 자기의 요구를 연기한 정복자 여호수아의 고상한 인격과 무아적 정신에 대한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였다. {PP 515.1}

레위인에게 배당한 성읍 중 여섯 성읍 - 요단강 양쪽에 있는 각각 세 성읍 - 은 도피성으로 지정되어 살인자가 도피하여 신변의 안전을 얻을 수 있게 하였다. 이 성읍들의 지정은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민 35:11, 12)는 모세의 명령으로 이루어졌다. 모세는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고 말하였다. 이 자비스러운 제도는 사적복수(私的復讐)의 관습이 있던 옛날에는 필요했다. 그 때에는 살인자에 대한 형벌이 피해자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나 상속인에게 부과되어 있었다. 죄의 증거가 분명한 경우에는 법관의 취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복수자는 어디든지 죄인을 추적하여 발견하는 대로 그를 죽일 수 있었다. 여호와께서는 그 때에 이 습관을 폐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보셨다. 그러나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의 안전을 보장할 길을 마련하셨다. {PP 515.2}

도피성은 가나안 땅 어느 곳에서든지 한나절 안에 갈 수 있는 곳에 분산 배치되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평탄하도록 잘 손질하였다. 그 모든 길을 따라 표주(標柱)들을 세워 도망하는 자가 일순간도 지체하지 않도록 분명하고도 큰 글씨로 "도피"란 말을 기록하여 두었다. 히브리인이나 이방인이나 우거하는 자들이나 누구든지 이 도피성을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무죄한 자를 성급히 죽이지 말아야 하는 반면에 실제로 죄가 있는 자는 결코 형벌을 피하지 못하게 하였다. 올바른 집권자가 도피자의 사건을 공정히 심판하여 고의적으로 살해하지 않은 일이 분명한 자만을 도피성에서 보호하였다. 그러나 범죄자는 복수자의 손에 넘겨주었다. 보호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는 지정된 보호소

안에 체류한다는 조건으로만 받아들여졌다. 만일 한계선 밖에서 방황하다가 복수자에게 발견되면 그는 여호와의 보호를 무시한 대가로 자기의 생명을 지불해야 하였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으면, 피난하고 있던 자들은 자유를 얻어 그들의 소유지로 돌아갈 수 있었다. {PP 515.3}

살인죄에 대하여 심문할 때에 비록 그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피고인을 정죄하지 말아야 하였다. 여호와께서는 "무릇 사람을 죽인 자 곧 고살자를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민 35:30)라고 지시하셨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와 같은 지시를 모세에게 주신 이는 그리스도이셨다. 위대한 교사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범죄자를 처리하는 법을 가르치실 때에 한 사람의 증언으로 무죄 석방하거나 유죄 선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반복하셨다. 한 사람의 견해나 의견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문제를 결말지어서는 안 된다. 이 모든 사건에 있어서 두 사람이나 그 이상 연합하여 그들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하며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마 18:16)여야 한다. {PP 516.1}

살인죄로 심문을 받는 자가 유죄로 판명되면 아무런 속죄나 배상금으로라도 구원할 수 없었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피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창 9:6; 민 35:31, 33; 출 21:14)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국가의 안전과 순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살인죄를 엄중히 처벌해야 했다.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인간의 생명은 신성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PP 516.2}

고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지정된 도피성은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피난처의 상징이었다. 이러한 이 땅의 도피성을 마련하셨던 동일한 자비로우신 구주께서는 그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을 위하여 저희가 둘째 사망에서 피하여 안전함을 얻을 수 있는 확실한 피난처를 준비하셨다. 어떠한 권세도 용서를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영혼을 그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롬 8:1, 34; 히 6:18). {PP 516.3}

도피성으로 도망하는 자는 조금도 지체할 수 없었다. 가족과 직업을 모두 버려야 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을 고할 시간도 없었다. 생명이 위태롭기 때문에 안전한 땅으로 피하는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다른 모든 이해관계를 포기해야 하였다. 피로도 잊고 어려움도 돌아보지 않았다. 도피자는 그 성벽 안에 도달하기까지는 감히 한 순간도 발걸음을 늦출 수 없었다. {PP 517.1}

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신처를 찾을 때까지는 영원한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도피자가 불필요한 배회나 부주의로 인하여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빼앗기는 것처럼 지체함과 무관심이 영혼의 파멸을 가져올 수 있다. 대적 사단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범하는 모든 사람들을 추적하고 있다. 사단의 위험에 민감하지 못하고 영원한 피난처에서 보호를 받으려고 열렬히 노력하지 않는 자들은 파괴자 사단의 제물이 될 것이다. {PP 517.2}

언제고 도피성 밖으로 나아가는 죄인은 복수자의 손에 빠졌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그들의 안전을 위하여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따라야 함을 배웠다. 그와 마찬가지로 죄인이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죄인은 믿음과 순종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 한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히 10:26, 27). {PP 517.3}

이스라엘의 두 지파 갓과 르우벤은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들의 기업을 받았다. 유목민들에게 광활한 고원 지대와 길르앗과 바산의 풍부한 삼림이 그들의 양떼와 소떼를 위하여 가나안 본토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광대한 방목지를 제공해 주는 데 매력을 느껴 이곳에 정착하기를 갈망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 두 지파와 반 지파는 그들의 몫에 해당한 군사를 보내어 다른 지파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다른 지파 모두가 기업을 얻을 때까지 그들과 함께 싸울 것을 서약하였다. 그리고 그 의무를 충실히 감당해 냈다. 열 지파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수 4:12, 13) 사만명의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서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들은 여러 해 동안 저희 동포들 곁에서 용감히 싸웠다. 이제 그들이 저희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시간이 이르렀다. 그들은 저희 동포들과 연합해서 싸웠으므로 노획물을 분배받아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 금, 동, 철과 심히 많은 의복을 가지고"(여호수아 22장 참조) 돌아갔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가족과 가축과 함께 현재 남아 있었던 자들과 분배해야 했다. {PP 517.4}

이제 그들은 여호와의 성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게 되었으며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목격한 여호수아는 그들의 고독한 유랑 생활 중에 저희 변경에 사는 이방 족속들의 관습에 빠지게 될 유혹이 얼마나 강할 것인지를 알고 마음속 깊이 근심하였다. {PP 518.1}

여호수아와 다른 지도자들의 마음이 아직도 불길한 예감에 눌려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이상스러운 소식이 들려왔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적적으로 강을 건넌 곳에서 멀지 않은 요단강변에 두 지파와 반 지파는 실로의 번제단과 비슷한 큰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의 율법은 성전 이외에 다른 예배하는 곳을 세우는 것을 금지하고 그렇게 하는 자를 사형에 처하도록 하였다. 만일 이 제단의 목적이 그런 것이라면 그것을 그냥 둔다면 그것은 백성들을 참 신앙에서 돌아서게 할 것이다. {PP 518.2}

백성들의 대표자들이 실로에 모이고 그들의 흥분과 분노가 고조되어 곧바로 범죄자들을 대항해서 싸움을 하자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가장 신중히 생각하는 자들의 감화를 받아 먼저 대표자들을 보내어 두 지파와 반 지파에게서 그들의 행위에 대한 설명을 듣기로 하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방백 열 명을 선택했다. 그 우두머리는 비느하스였는데 그는 브올의 사건에서 열성으로 이름을 떨쳤던 자였다. {PP 518.3}

두 지파와 반 지파가 그처럼 큰 의심을 받을 행위를 아무런 설명도 없이 공공연히 행한 것은 잘못이었다. 대사들은 저희 동포가 범죄한 것으로 생각하고 날카로운 책망으로 그들을 대하였다. 대사들은 그들이 여호와께 반역하였다고 비난하고 바알브올과 연합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형벌이 내렸는지를 기억하도록 명하였다. 비느하스는 온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하여 갓과 르우벤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만일 희생 제단이 없는 땅에 거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건너편 너희 동포들의 소유지에서 분깃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PP 518.4}

대답으로 피고인들은, 그들의 제단은 희생 제물을 드리려 함이 아니요 다만 그들이 요단강에 의하여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가나안에 있는 동포와 동일한 신앙을 가졌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들은 장차 그들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일부가 아닌 것처럼 성막에서 제거되지나 않을까 염려하였다. 그 때에는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의 모형을 따라 세운 이 제단이 그것을 세운 자들 역시 살아 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라는 증거가 될 것이다. {PP 519.1}

대사들은 큰 기쁨으로 이 설명을 받아들이고 즉시 이 기별을 가지고 그들을 보낸 자들에게로 돌아갔다. 싸움을 하려던 생각은 모두 사라지고 백성들은 연합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PP 519.2}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은 그들의 제단에 그것을 세운 목적을 지적하는 이름을 붙여 “우리 사이에 이 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미래의 오해를 방지하고 유혹의 원인이 되는 것을 제거하려고 노력하였다. {PP 519.3}

가장 가치 있는 동기에 의하여 행동하는 자들 중에서도 단순한 오해로 인하여 큰 어려움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가! 정중하고 관대하게 다루지 않으면 얼마나 위험하고 치명적인 결과까지 따르게 되는가! 열 지파는 아간의 사건에서 하나님이 그들 중에 존재하는 죄악을 발견하기에 조심 없이 행한 일에 대하여 어떻게 견책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신속하고 진지하게 행하기로 결심하였으나 먼젓번의 과오를 피하려는 노력 때문에 반대편의 극단에 치우치게 되었다. 그 사건의 진상을 알기 위하여 정중하게 문의하는 대신에 그들은 비난과 정죄로 저희 동포들을 대하였다. 만일 갓과 르우벤 사람들이 동일한 정신으로 반박하였더라면 전쟁이 일어났을 것이다. 죄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한편으로는 완만하게 행하는 것을 피하는 일이 중요한 반면에 가혹한 형벌과 근거 없는 의심을 피하는 일 또한 다 같이 중요하다. {PP 519.4}

자신들의 행위에 관하여 자책하는 데는 그다지 민감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이 과오를 범했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을 매우 혹독하게 취급하는 자들이 너무도 많다. 일찍이 비난과 힐책으로 그릇된 태도를 교정 받은 자는 한 사람도 없다.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바른길에서 아주 멀리 떠나가고 저희 마음이 굳어져서 죄를 뉘우치지 않는 자들이

많다. 친절한 정신과 겸손하고 관대한 태도가 과오를 범한 자를 구원할 수 있고 많은 허물을 가릴 수 있다. {PP 519.5}

르우벤 족속과 그 동료들이 나타낸 지혜는 본받을 가치가 있다. 참된 종교적인 사업을 추진시키고자 정직하게 노력하였으나 그들은 잘못 판단을 받고 혹독한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울분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기 전에 저희 형제의 비난을 예의와 인내로 다 들은 후에 자신들의 동기를 충분히 설명하고 저희의 무죄함을 나타냈다. 그리하여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뻔한 어려운 사건이 평화적으로 해결되었다. {PP 520.1}

거짓 비난 아래서라도 의로운 자들은 침착하고 사려 깊게 행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잘못 해석된 모든 것들을 잘 아시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사정을 안전하게 위탁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죄를 찾아내신 것처럼 분명히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의 사정을 옹호하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행하는 자들은 오래 참고 온유하게 행하는 사랑을 소유할 것이다. {PP 520.2}

하나님의 백성 사이는 연합과 우애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전에 드리신 그리스도의 기도는 당신의 제자들로 하여금 당신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신 것처럼 하나가 되게 하여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었다. 이러한 가장 감명적이고 놀라운 기도가 각 시대를 통하여 내려와 현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는 당신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요 17:20)라고 말씀하신 까닭이었다. 우리는 진리의 한 원칙도 희생하지 말아야 하는 동시에 이같은 연합의 상태에 도달해야 함이 우리의 끊임없는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증거이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 13:35)고 말씀하셨다. 사도 베드로도 교회에게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벧전 3:8, 9)고 권고한다. {PP 520.3}

49장 여호수아의 마지막 교훈

전쟁은 끝나고 여호수아는 딤낫세라에 있는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 평화스러운 은퇴 생활을 하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의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주신 지 오랜 후에...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곧 그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렀”다. {PP 521.1}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정착한 지가 여러 해 되었고, 이전에 이스라엘에게 형벌을 가져왔었던 동일한 죄악이 벌써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여호수아는 그를 엄습하는 노쇠를 느끼고 그의 사업이 곧 끝나게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의 장래를 위하여 크게 염려하였다. 그들이 한 번 더 노지도자 주위에 모였을 때에 그는 인자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대하는 그 이상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간곡히 훈계하였다. 여호수아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시니라”고 말하였다. 가나안인들은 정복당하였지만 아직도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땅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안일하게 거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을 완전히 쫓아내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잊지 말라고 권면하였다. {PP 521.2}

백성들은 일반적으로 이방인을 축출하는 일을 완수하는 데 완만하였다. 각 지파는 저희 소유지로 분산되고 군대도 해산되었으므로 전쟁을 다시 시작하는 일은 어려웠고 수행하기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PP 521.3}

여호수아는 저희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조건에 순응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신 당신의 약속을 충실히 성취하신 일에 대하여 저희 자신이 증인이라고 백성들에게 호소하였다. 여호수아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고 하였다. 그는 백성에게,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신 것처럼 처벌하시겠다고 하신 말씀도 반드시 성취시키실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며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PP 522.1}

사단은 당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라는 그럴 듯한 이론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기만한다. 사단은 하나님의 위협적인 말씀이 당신의 도덕 정치에 있어서 어떠한 목적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 말씀은 결코 문자 그대로 성취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을 취급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죄를 그 참 성질 그대로 나타내심으로, 즉 죄의 분명한 결과는 비참함과 죽음이란 사실을 증거하심으로 의의 원칙을 유지하셨다. 죄에 대한 무조건적 용서는 존재한 적이 결코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용서는 바로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인 의의 원칙의 포기를 나타내게 된다. 이것은 타락하지 않은 우주를 경악(驚愕)으로 충만케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결과를 충실히 지적하셨는데 만일 이 경고가 참되지 않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겠는가? 공의를 무시하는, 이름만의 자비심이란 것은 참 자비심이 아니요 다만 우유부단일 뿐이다. {PP 522.2}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태초부터 모든 하나님의 법도가 생물에게 제정되었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였고, 그리하여 불화가 그 뒤를 따랐다. 죄악이 존속하는 한 고통과 사망은 불가피한 것이다. 다만 구세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의 저주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인류는 자신에게 닥쳐올 죄악의 무서운 결과에서 피할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PP 522.3}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각 지파의 두령과 대표자들은 그의 소집에 응하여 다시 세겜에 모였다. 온 가나안 땅에서 이곳처럼 매우 많은 신성한 연상을 일으키고 저희 마음에 아브라함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을 회상하게 하고 또한 저희 자신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맺은 엄숙한 서약을 기억나게 하는 곳은 없었다. 이곳에 있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이제 그들이 임종을 앞둔 그들의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 모여 새롭게 하려는 맹세에 대한 말없는 증인이었다. 좌우편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행하신 일 즉 어떻게 당신께서 그들이 노력하지 않은 땅과, 건축하지 않은 성읍들과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을 그들에게 주신 일에 대한 증거물이 있었다. 여호수아는 한 번 더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깊이 느끼고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 경이로운 성업을 자세히 말하였다. {PP 522.4}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실로에서 법궤를 가져왔다. 그 행사는 매우 엄숙한 것이었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주고자 한 그 감명을 깊게 할 것이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한 후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이 섬길 자를 택하라고 호소하였다. 우상숭배가 아직도 어느 정도 비밀리에 행하여지고 있었으므로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에게서 이 죄를 멸절시키도록 그들을 결심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여호수아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고 말하였다. 여호수아는 강제로가 아니요 자원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들을 인도하고자 하였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 종교의 기초이다. 오로지 보상에 대한 희망에서나 형벌에 대한 공포심에 의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위선과 형식적인 예배는 차라리 공공연한 배도보다 더 하나님께 불쾌히 여기심을 받는다. {PP 523.1}

노령의 지도자는 그가 그들에게 한 모든 말의 참뜻을 심사숙고하여 만일 그들이 참으로 그들 주위의 민족들처럼 참 비열한 우상숭배의 생애를 살고자 원하든지 결정하도록 백성들에게 강권하였다. 만일 능력의 근원이요 축복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저희로 저희가 섬길 자 곧 “너희 열조가...섬기던 신” 즉 거기서 아브라함이 불러냄을 받은 그 곳 신이나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그날에 택하도록 명하였다. 이 마지막 말은 이스라엘에게 신랄한 견책이었다. 아모리 사람의 신들은 그를 섬기는 자를 보호할 능력이 없었다. 가증하고 비열한 죄로 인하여 그 악한 민족은 멸망을 당했고 한때 그들의 소유였던 아름다운 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바 되었다. 멸망당한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기로 선택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인가!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말하였다. 지도자 여호수아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룩한 열심이 백성에게 전달되었다. 그의 호소에 백성들은 주저하지 않고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리라고 대답하였다. {PP 523.2}

여호수아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고 말하였다. 영구적인 개혁을 행하기에 앞서 백성들은 저희 스스로는 하나님께 순종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였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으므로 이것은 그들을 범죄자로 정죄하였고 거기에는 피할 길이 없었다. 그들이 자신의 힘과 의를 의지하는 한 죄의 용서를 받기는 불가능하였다. 그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의 요구에 응할 수 없으므로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서약한 것은 헛된 일이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그들은 죄의 사유함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는 일을 멈추어야 하였다. 그들이 하나님의 가납하심을 얻고자 한다면 전적으로 허락하신 구주의 공로를 의지하여야 한다. {PP 524.1}

여호수아는 그의 말을 듣고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하는 말을 잘 생각해서 하고 이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맹세를 삼가게 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백성들은 열성을 다하여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라는 말을 반복하였다. 그들이 여호와를 선택했다는 증거에 엄숙히 동의하기 위하여 한 번 더 충성의 서약을 다음과 같이 반복하였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한지라." {PP 524.2}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이 엄숙한 계약의 전말을 기록한 여호수아는 이것을 율법책과 함께 법궤 곁에 두었다. 그리고는 기념으로 돌기둥을 세우고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라 그런즉 너희로 너희 하나님을 배반치 않게 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고 한 후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PP 524.3}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수아의 사업은 다 이루어졌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다. 성경에는 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기록하였다. 대중의 지도자로서의 여호수아의 고결한 품성에 대한 증언은 그가 다스렸었던 세대의 역사이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PP 524.4}

50장 십일조와 헌물

히브리인의 제도에서 백성들의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대한 공중 예배를 유지하기 위하여 구별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모세는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다. “땅의 십분의 일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십분 일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소나 양의 십분 일은…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레 27:30, 32)라. {PP 525.1}

그러나 십일조를 헌납하는 제도는 히브리인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여호와께서는 오랜 옛날부터 십일조를 당신의 것이라고 요구하셨고 이 요구는 인정을 받고 존중히 여김을 받았다. 아브라함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쳤다. 야곱도 방랑자로 벧엘에서 방황할 때에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의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창 14:20, 28:22)라고 약속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나라로서 세워지려고 할 때에 십일조가 하나님이 주신 제도 중 하나로서 그것을 순종하면 번영하게 될 것임이 재확인되었다. {PP 525.2}

십일조와 헌물 제도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시며, 당신께서 섭리하신 아름다운 선물에 대하여 인간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감명시키고자 계획된 것이었다. {PP 525.3}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여호와께서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행 17:25; 시 50:10; 학 2:8)고 선언하신다. 사람들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신 8:18). 모든 만물이 당신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표시로써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내려 주시는 것 중의 한 부분을 당신께 대한 예배를 유지하기 위하여 십일조와 헌물로 드리도록 지시하셨다. {PP 525.4}

“십일조는…여호와의 것이다”라는 말에는 안식일 계명에 사용된 것과 같은 동일한 표현 방법이 사용되어 있다. “제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출 20:10)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시간과 재물 중에서 특별한 부분을 자신을 위하여 남겨두셨으므로 그중 하나라도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취하는 사람은 무죄하다고 할 수 없다. {PP 525.5}

바쳐진 십일조는 오로지 성소 봉사를 위하여 구별된 레위 지파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종교적 목적을 위하여 드리는 헌물의 한계가 십일조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성전의 전신인 성막은 전적으로 자원하는 헌물로 세워졌다. 그리고 모세는 필요되는 수리와 다른 비용을 준비하기 위하여 백성을 계수할 때마다 각 사람이 "회막의 봉사"를 위하여 반 세겔을 바치도록 명령하였다. 느헤미야 시대에는 이 목적을 위하여 매년 헌물을 바쳤다(출 30:12~16; 왕하 12:4; 대하 24:4~13; 느 10:32, 33). 때때로 속죄 제물과 감사의 헌물을 하나님께 드렸으며, 이러한 헌물들은 연중 축제 때에는 매우 많이 드려졌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었다. {PP 526.1}

십일조 바치기 전일지라도 하나님의 요구를 인정하는 표시가 있었다. 땅의 모든 소산의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께 성별하였다. 양털을 깎을 때의 처음 깎은 털과 밀타작할 때의 처음 얻은 곡식과 기름과 포도즙의 처음 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하였다. 또한 모든 짐승의 처음 난 것도 그러하였고 처음 난 아들을 위하여서는 속전이 지불되었다. 처음 익은 열매는 성소로 가져가 여호와 앞에 드려서 제사장들이 쓰도록 되었다. {PP 526.2}

그리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들과 양떼와 소떼의 참 소유주라는 것과 당신께서 파종 때와 추수 때를 위하여 햇빛과 비를 보내셨다는 것과 그들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지으신 것이며 당신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소유물의 청지기로 삼으셨다는 사실들을 항상 기억하게 하셨다. {PP 526.3}

들과 과수원과 포도원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득 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막에 모여서 온 백성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였다. 제사장이 헌물을 받을 때에 바치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애굽에서 체류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서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을 말했다. 그리고 그는 "이 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신 26:5, 8~11)고 하였다. {PP 526.4}

히브리인들에게 종교적 목적과 자선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요구한 헌물은 결국 저희 수입의 4분의 1은 족히 되었다. 백성들에게 그처럼 무거운 부담을 지우게 되면 그들이

빈곤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와 반대로 이 규칙들을 충실히 준수하는 것은 그들이 번영하는 조건 중의 하나였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조건으로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셨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말 3:11, 12). {PP 527.1}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바쳐야 할 자원하는 헌물을 이기심을 가지고 바치지 않은 결과에 대한 현저한 예증이 학개 선지자 시대에 나타났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성전 재건에 착수하였으나 원수들의 단호한 반대를 당하여 사업을 중단하였다. 그리고 그 일로 그들은 실제로 빈곤에 빠져 심한 결핍으로 인하여 성전 건축을 완성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확신하였다. 그들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여호와의 선지자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기별을 보냈다.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삯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리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학 1장 참조). “그 때에는 이십석 곡식더미에 이른즉 십석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오십 그릇을 길으려 이른즉 이십 그릇뿐이었느니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곰팡과 우박으로 쳤”(학 2:16, 17)느니라. {PP 527.2}

이 경고를 듣고 분기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려고 애를 썼다. 그 후에는 다음과 같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였다.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구월 이십사일 곧 여호와의 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학 2:16~19). {PP 528.1}

현인 솔로몬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잠 11:24)고 말하였다. 그와 동일한 교훈을 사도 바울도 신약성경에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리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 9:6, 7). {PP 528.2}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상의 모든 거민에게 횃불을 든 자로 삼고자 하셨다. 하나님께 대한 공중 예배를 행함으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와 최상권을 증언하고 있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사랑의 표현으로 그들의 특권이었다. 여호와께서는 하늘의 선물을 받는 자들의 노력과 헌물에 의하여 이 세상에 빛과 진리가 전파되도록 정하셨다. 여호와께서는 천사들을 진리의 사신으로 삼으시거나 시내산에서 당신의 친 음성으로 율법을 선포하신 것처럼 당신의 뜻을 알리실 수도 있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무한하신 사랑과 지혜로써 사람들을 불러 이 사업을 행하도록 택하심으로 당신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셨다. {PP 528.3}

이스라엘 시대에 십일조와 자원하여 드리는 헌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의식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였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적게 드려도 되겠는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원칙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물이 우리가 받은 빛과 특권에 비례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눅 12:48).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마 10:8)고 말씀하셨다. 우리의 축복과 특권이 증가할 때, 무엇보다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의 비할 데 없는 희생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별을 전달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헌물을 드림으로 표시하지 않겠는가? 확장되어 가는 복음 사업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옛날보다 더 큰 돈이 요구된다. 그렇기 때문에 십일조와 헌물을 드리는 법칙은 히브리인의 제도 하에서보다 지금 더 긴급히 필요되고 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금고를 채우기 위하여 비그리스도적이요 신성하지 않은 방법에 의뢰하지 않고 자원하는 헌물로써 당신의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대하게 드렸더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을 것이며 보다 더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께 인도되었을 것이다. {PP 528.4}

성막을 건축하기 위한 모세의 모금 계획은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강권하는 일이 필요치 않았다. 모세는 오늘날 교회에서 채택하고 있는 어떤 방법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큰 잔치도 배설하지 않았다. 그는 백성들을 열락과 춤추는 곳과 일반적인 오락 장소로 초청하지도 않았으며 하나님을 위하여 성막을 세울 자금을 얻기 위하여 복권 제도나 어떤 세속적인 방법도 결코 사용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헌물을 가져오도록 요청하셨다. 그분은 각자가 마음에서 우러나 바치는 헌물을 가납하실 것이었다. 그리고 헌물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모세는 백성들에게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명령했다. 이는 그들이 다 쓸 수 없을 만큼 많이 가져온 까닭이었다. {PP 529.1}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청지기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맡기신 재산은 복음 전파를 위하여 위탁하신 재물이다.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러운 청지기임이 밝혀지는 자들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실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삼상 2:30)리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고후 9:7)며 당신의 백성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헌물과 헌금을 가져올 때에 약속하신 당신의 축복을 그들에게 부어 주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말 3:10). {PP 529.2}

51장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

종교적 예배를 위하여 백성들을 모으는 일을 촉진시키고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하여 모든 수입의 제2 십일조가 요구되었다. 제1 십일조에 관하여 여호와께서는 “내가 이스라엘의 십일조를 레위 자손에게…다 주었”(민 18:21)다고 선언하셨다. 그리고 제2 십일조에 대하여 여호와께서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먹으며 또 네 우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신 14:23, 29, 16:11~14)고 명하셨다. 이 십일조나 거기에 상당한 돈을 백성들은 2년 동안은 성막이 서 있는 곳으로 가져와야 하였다. 바치는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제사장에게 지정된 몫을 준 후에 그 나머지를 종교적 연회를 위하여 사용해야 하였는데 이 연회에 레위인과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참여시켜야 하였다. 매년 축제일에는 감사 예물과 연회를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였으며 백성들은 제사장과 레위인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한 교훈과 격려를 받을 수 있었다. {PP 530.1}

그러나 매 3년째 되는 해에는 제2 십일조를 모세가 “네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신 26:12)고 말한 바와 같이 집에서 레위인과 가난한 자를 접대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였다. 이 십일조는 자선 사업과 접대하는 일을 위하여 사용될 자금을 공급할 것이다. {PP 530.2}

그리고 가난한 자를 위하여 그 이상의 대책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바를 인정한 다음에 가난한 자들에게 나타내라고 분부된 관대하고 친절하고 후대하는 정신보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더 특출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크게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나 그들 중에 빈곤이 전혀 존재하지 않도록 계획하지는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땅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으리라고 선언하셨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는 그들의 동정과 친절과 자비심을 받아야 할 대상이 항상 있을 것이다. 지금처럼 그 때에도 사람들은 불행과 질병과 재산의 손실을 당하였으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을 따랐더라면 그들 중에는 거지도 없고 배가 고파서 고생하는 자들도 없었을 것이다. {PP 530.3}

하나님의 율법은 가난한 자들에게 땅의 소산의 얼마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 사람들은 배고플 때에 이웃의 밭이나 과수원에 들어가 허기를 때울 수 있을 만큼 곡식이나 과실을 먹을 자유가 있었다. 이 허락에 따라서 예수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들을 지나가다가 곡식 이삭을 잘라먹었다. {PP 531.1}

들과 과수원과 포도원의 모든 이삭은 가난한 자들에게 속하였다. 모세는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묶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신 24:19~22; 레 19:9, 10)고 말하였다. {PP 531.2}

칠년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특별한 양식이 준비되었다. 안식년이라고 불린 이 해는 추수가 끝난 다음에 시작되었다. 수확이 끝난 후에 곧 파종기였는데 이때에 백성들은 씨를 뿌리지 말아야 하였다. 백성들은 봄에 포도원도 가꾸지 말아야 했고 곡식이나 포도를 수확하지도 말아야 했다. 땅에서 스스로 난 것은 청청할 때에 먹을 수는 있었으나 곳간에 거두어들이지 말아야 했다. 이 해의 소산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뿐 아니라 들짐승들이 자유로이 먹도록 놔두어야 했다(출 23:10, 11; 레 25:5). {PP 531.3}

그러나 만일 땅이 보통 해와 마찬가지로 백성들의 필요를 공급할 만큼만 수확을 내주었다면 어떻게 그들이 곡식을 거두지 않고 한 해를 살 수 있었겠는가?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양식을 준비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명하여 제육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삼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너희가 제팔년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며 제 구년 곧 추수하기까지 묵은 곡식을 먹으리라"(레 25:21, 22)고 말씀하셨다. {PP 531.4}

안식년의 준수는 땅과 백성들에게 모두 유익이 되었다. 1년 동안 경작하지 않고 둔 땅은 그 후에는 더욱 풍부한 수확을 가져올 것이다. 백성들은 분주한 들 노동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한편에는 이 기간 동안에 따르는 여러 가지 작은 일이 있기는 하였으나 모두 큰 휴가를 누렸으며 다가올 여러 해 동안 쓸 수 있는 체력을 저장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백성들은 더욱 많은 시간을 묵상과 기도에 바치고 여호와의 가르치심과 요구에 통달하고 그들의 가족들을 교훈하였다. {PP 532.1}

안식년에는 히브리 노예들을 놓아 주어야 했으며 그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아야 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에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네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라”(신 15:13, 14)고 지시하셨다. {PP 532.2}

품꾼의 삯은 신속히 지불되어야 했다.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의 형제든지 네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하므로 마음에 품삯을 사모함이라”(신 24:14, 15). {PP 532.3}

노역에서 도망하는 자들의 대우에 관하여 역시 특별한 지시를 주셨다.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네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 주인에게로 돌리지 말고 그가 성읍 중에서 기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네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신 23:15, 16). {PP 532.4}

제칠년은 가난한 자들이 빚에서 놓이는 해였다. 히브리인들은 어느 때나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 주므로 곤궁한 동포를 도우라는 명을 받았다. 가난한 사람에게 이자를 받는 것은 다음과 같이 분명히 금지되어 있었다. “네 동족이 빈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거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며 네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식을 위하여 돈을 꾸이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식물을 꾸이지 말라”(레 25:35~37). 만일 빚을 면제년까지 갚지 못할 때에는 원금까지도 되찾을 수 없었다. 백성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도움이 필요되는 동포를 버리지 않도록 분명한 경고를 받았다.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네 마음을 강퍅히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 칠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네가 죄를 얻을 것이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경내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반드시 네 손을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신 15:7~9, 11, 8). {PP 532.5}

아무도 자신들의 너그러움이 그들을 빈곤하게 만들 것이라고 염려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분명히 번영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신 15:6)고 말씀하셨다. {PP 533.1}

"일곱 안식년" 즉 "칠년이 일곱 번"지난 후에는 대면제년 곧 희년이 되었다.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오십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레 25:9, 10)니라. {PP 533.2}

"칠월 십일…속죄일"에 희년의 나팔을 불었다. 유대 백성이 거하는 전국에 그 소리가 들려 모든 야곱의 자손들을 불러 면제년을 환영하게 하였다. 대속제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속죄됐으므로 백성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희년을 환영하여야 했다. {PP 533.3}

안식년에서와 마찬가지로 땅에 파종하거나 추수하지 말아야 하였고 땅의 소산은 가난한 자들의 정당한 소유로 간주되어야 하였다. 안식년에 자유를 얻지 못한 히브리 노예들이 모두 풀려났다. 특별히 희년을 특출하게 만든 것은 모든 소유지를 그 본래의 소유자의 가족에게 돌려주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지시에 따라 가나안 땅은 추첨으로 분배되었고 그렇게 분배된 후에는 아무도 자기의 소유지를 팔 자유가 없었다. 가난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땅을 팔지 않았으며 팔았을지라도 그 후에 본인이나 그 친척이 다시 찾고자 할 때에는 언제든지 산사람은 그것을 다시 팔기를 거절하지 말아야 하였다. 그리고 만일 다시 찾지 못할 때에는 이 토지는 희년에 그 최초의 소유자나 그 상속인에게로 돌아갈 것이었다. {PP 533.4}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레 25:23). 백성들은 이것이 당분간 그들이 소유하도록 허락된 하나님의 땅이며, 하나님께서는 정당한 소유자요 원지주이시므로 가난한 자와 불행한 자를 위하여 특별한 고려를 베푸실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하였다. 가난한 자도 부자와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리를 가질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감명시켜야 하였다. {PP 534.1}

자비로우신 우리의 창조주께서는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의 생애에 고통을 덜어 주고, 희망의 광선을 가져다주고 명랑한 빛을 비추시려고 이와 같은 대비책을 세우셨다. {PP 534.2}

여호와께서는 재산과 권력에 대한 과도한 애착심을 막고자 하셨다. 한 계층이 끊임없이 재물을 축적하고 다른 계층은 빈곤과 타락에 빠짐으로 인하여 큰 악이 초래될 것이다. 어떠한 제재가 없다면 부자는 권력을 독점할 것이며 가난한 자들은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면에 매우 귀하다 할지라도 점점 번영하는 그들의 동포에 비해 열등한 사람들처럼 보이게 되고 또 그런 대우를 받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압박감은 보다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절망과 자포자기의 감정을 갖게 만들어 사회를 타락시키고 각종 범죄의 문호를 열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규는 사회적 평등을 유지하도록 계획되었다. 안식년과 희년을 마련하신 것은 그동안에 발생된 온 국가의 사회적·정치적·경제적 구조의 그릇된 점을 대폭 시정하시려는 의도에서였다. {PP 534.3}

이 법규들은 가난한 자들뿐 아니라 부자들에게도 축복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것들은 허욕과 자고하는 성벽을 제어하고 고상한 박애 정신을 함양할 수 있으며 각 계급 사이에 호의와 신뢰심을 육성함으로 사회적 질서와 정치적 안정을 이룰 수 있다. 우리 모두는 인간이라는 거대한 피륙에 함께 짜여 있으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익과 향상을 위하여 하는 모든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간에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올 것이다. 상호 의존의 법칙은 사회의 모든 계층에 다 적용된다. 가난한 자가 부자를 의지하는 것 못지않게 부자도 가난한 자를 의지하고 있다. 한 계층이 하나님께서 부요한 이웃에게 하사하신 축복의 일부를 요청하는 한편 다른 계층은 가난한 자의 자본인 뇌와 뼈와 근육의 힘으로 하는 노역을 필요로 한다. {PP 534.4}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는 조건으로 이스라엘에게 큰 축복이 약속되었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우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너희의 파종이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레 26:4~17)고 말씀하셨다. {PP 535.1}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주신 현세의 축복을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고 매우 열렬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창조주의 목적이 아니다. 상태의 다양성은 하나님께서 품성을 향상시키시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계획하신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이 고통당하고 궁핍한 자들을 위하여 써야 할 자금을 위탁받은 당신의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게 하려 하신다. {PP 535.2}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한 자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며 당신은 당신의 고통당하는 백성에게 관심을 가지신다고 말씀하셨다. 우리의 구주의 마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낮은 당신의 자녀들을 동정하신다. 구주께서 우리에게, 우리는 세상에서 당신을 대표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신다. 구주께서는 당신의 고통과 압박당하는 자들에 대하여 느끼시는 사랑을 우리 마음에 각성시키려고 우리들 가운데 그들을 두셨다. 그들에게 베푼 동정과 자비심은 마치 당신 자신에게 베푼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으신다. 그들에게 잔인하게 대한 행위나 등한히 한 행동은 마치 그리스도께 행한 것처럼 간주된다. {PP 535.3}

가난한 자들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을 계속 지켰더라면 현재 세상의 상태는 도덕적·영적·물질적 면에 있어서 얼마나 달라졌을 것인가! 이기심과 자존심은 지금처럼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며 오히려 각 사람은 타인의 행복과 복리를 위하여 친절히 염려하는 마음을 품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여러 나라에서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광범위한 빈곤이 있지 않았을 것이다. {PP 536.1}

하나님께서 명하신 원칙들은 각 시대를 통하여 부자가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가난한 자가 부자를 의심하고 증오한 결과로 일어나는 무서운 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원칙들은 거대한 재물을 모으고 무제한으로 향락에 방종하는 일을 막는다. 또한 막대한 재산을 쌓기 위해 공정한 보수를 지불하지 않고 노역을 시킴으로 인하여 무수한 사람들을 결과적으로 무지와 타락에 빠지게 한 그 같은 잘못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원칙들은 지금 무질서와 유혈로 세상을 채우려고 위협하는 문제들을 평화적으로 해결시켜 줄 것이다. {PP 536.2}

52장 연중 절기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에서 예배하기 위하여 연중 세 번 회집하였다(출 23:14~16). 실로가 한동안 이러한 집회의 장소였으나 그 후 예루살렘이 거족적 예배의 중심지가 되어 각 지파는 엄숙한 절기들을 지키기 위하여 이곳에 회집하였다. {PP 537.1}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땅을 빼앗으려고 노리고 있는 사나운 호전 족속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으나 매년 세 번씩 모든 강건한 장정들과, 여행할 수 있는 백성들은 모두 그들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 거의 중앙에 있는 집회 장소에 모이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때에 아무 보호책도 없는 그들의 가족들을 원수들의 불과 칼로부터 무엇이 보호해 줄 것이었는가? 그 땅을 침입하여 이스라엘을 사로잡으려는 이방 원수들로부터 무엇이 보호해 줄 것이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보호자가 되시리라는 허락이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시 34:7).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하러 올라가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원수들을 제어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열방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네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출 34:24)고 약속하셨다. {PP 537.2}

최초의 절기는 유월절, 곧 무교절인데 유대력의 첫 달인 아빕월에 거행되었으며 지금의 3월 하순에서 4월 초순까지에 해당된다. 추운 겨울도 지나고 늦은비도 끝났으므로 삼라만상은 춘계의 신선함과 아름다움을 향유하고 있었다. 산과 계곡에 초목이 푸르렀고 사방에 핀 야생화들이 들판을 곱게 장식하고 있었다. 아울러 만월에 가까운 달은 밤을 즐겁게 하였다. 이 계절을 성가 시인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매우 아름답게 묘사하였다. {PP 537.3}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아 2:11~13 {PP 538.1}

가나안 땅 각처에서 순례자의 대열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다.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산에서는 목부들이, 갈릴리 바다에서는 어부들이, 들에서는 농부가, 거룩한 학교에서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모두 그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곳으로 향하였다. 그들은 천천히 여행하였는데 이는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가기 때문이었다. 여행자들은 끊임없이 증가하여 때때로 거룩한 도성에 도착할 즈음에는 큰 무리를 이루었다. {PP 538.2}

즐거운 삼라만상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북돋우어 주었고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게 하였다. 웅장한 히브리 시편들을 노래하여 여호와의 영광과 위엄을 높였다. 나팔 소리와 제금 소리를 신호로 해서 무수한 사람들은 음성을 높여 다음과 같은 감사의 노래를 합창하였다. {PP 538.3}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시 122:1~6 {PP 538.4}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교도들이 그들의 제단에 불을 붙이던 주위의 산들을 바라보고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PP 538.5}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 121:1, 2 {PP 538.6}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시 125:1, 5 {PP 538.7}

거룩한 성읍이 보이는 산에 올라가 그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성전으로 나아가는 예배자의 무리를 바라보았다. 향연이 올라가고, 레위인들의 나팔 소리가 거룩한 예배를 예고할 때에 그들은 그 시간의 영감에 사로잡혀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PP 539.1}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함이여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네 성안에는 평강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라

예루살렘아, 네 가운데서
여호와의 전 정(殿庭)에서
내가 갚으리로다 할렐루야".

시 122:7, 118:19, 116:18, 19 {PP 539.2}

예루살렘의 집들은 모두 순례자에게 개방되고 방들은 무료로 제공되었으나 그 많은 군중에게는 넉넉지 못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성읍 안과 주위에 있는 언덕을 찾아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모두 장막을 쳤다. {PP 539.3}

그 달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켰는데 그 엄숙하고 감명적인 의식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고 장차 죄의 속박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것이었다. 구세주께서 갈바리에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을 때에 유월절의 의의는 끝나고 성만찬 제도가 유월절이 예표하던 동일한 사건의 기념으로 제정되었다. {PP 539.4}

유월절에 이어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 첫째와 일곱째 날은 성회로 모이는 날이므로 육체노동을 해서는 안 되었다. 둘째 날에는 그 해의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팔레스틴에서는 보리가 처음으로 수확되었는데 절기가 시작될 무렵에는 결실하기 시작하였다. 제사장은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에 대한 인정으로 이 곡식단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흔들었다. 이 의식이 거행될 때까지는 수확을 할 수 없었다. {PP 539.5}

열매를 드린 후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었는데 이는 또한 맥추절 혹은 칠칠절이라고 불리었다. 곡식을 양식으로 주신 것을 감사하는 표로써 누룩을 넣어서 구운 빵 두 덩이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오순절은 하루뿐이었으며 종교적 예배를 위하여 구별된 날이었다. {PP 539.6}

7월에는 초막절 또는 수확의 절기가 있었다. 이 절기는 과수원과 감람원과 포도원의 산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절기였다. 이 절기는 그 해의 가장 영광스러운 축제였다. 땅은 그 소산물을 증산해 주었고 수확물을 곳간에 거두어 들였으며 과실과 기름과 포도즙은 저장되고 처음 익은 열매들이 보관되었으므로 이제 백성들은 그들을 풍성히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모여들었다. {PP 540.1}

절기는 가장 크게 기뻐하는 기회가 되어야 하였다. 이 절기는 대속죄일 바로 후이므로 그들의 죄가 그 이상 더 기억되지 않으리라는 보증을 받은 때였다.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당신의 자비를 찬양하고자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다. 추수하는 일도 끝나고 신년의 수고도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므로 백성들은 아무 염려 없이 그 시간의 거룩하고 즐거운 감화에 열중할 수 있었다. 아버지와 아들만이 절기에 나오도록 명을 받았으나 가능한 한 가족들은 모두 그들을 동반하여 와서 종들과 레위인과 이방인과 가난한 자들을 후대해야 하였다. {PP 540.2}

초막절(장막절)도 유월절처럼 기념하는 절기였다. 광야에서의 순례 생활을 기념하여 백성들은 이제 집을 떠나 “아름다운 나무”의 푸른 가지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 버들”(레 23:40, 42, 43)로 만든 초막에 거하였다. {PP 540.3}

그 첫째 날은 성회로 모였으며 7일간의 절기에 여덟째 날을 더하여 그같은 방법으로 지켰다. {PP 540.4}

이 연례 회집은 노인과 젊은이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섬기도록 격려하는 한편 그 땅의 각처에서 온 백성들의 회합은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유대와 상호간의 연합을 강하게 하였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도 초막절과 같이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을 기쁨으로 기념하는 일은 매우 유익한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저희 조상들에게 베푸신 구원을 기념한 것처럼 우리도 그분께서 이 세상과 흑암의 오류에서 우리를 당신의 은혜와 진리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여러 방법을 감사하며 회상해야 한다. {PP 540.5}

성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자들은 매년 한 달 이상을 연중 절기에 참석하기 위하여 바쳐야 하였다. 하나님께 헌신한 이같은 모본은 종교적 예배의 중요성과 우리의 이기적, 세속적 이익을 영적이요 영원한 이익 아래 종속시켜야 할 필요를 강조해 주고 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서로 굳게 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함께 모이는 특권을 게을리 할 때에 우리는 커다란 손실을 당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기와 중대성을 잃고, 우리의 마음이 그것의 성화시키는 감화로 계발되고 부흥되기를 멈추고, 영적으로 퇴보하게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교제할 때에 서로간의 동정심이

부족하므로 큰 손실을 당한다. 자신을 스스로 가두어 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대하신 위치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다 한 아버지의 자녀이며 서로의 행복을 위하여 상호간에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의 요구와 인간의 요구가 우리에게 있다. 우리로 동포들을 동정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자 노력하는 중에 행복을 얻게 되는 것은 우리들의 성품에 사교적인 요소를 올바르게 계발시키는 것이다. {PP 541.1}

초막절에는 기념하는 의미 이외에 표상적인 의미도 있었다. 그것은 과거의 광야 생활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수확의 절기로서 땅의 열매의 수확을 경축하고, “추수하는 주인”께서 가라지를 모아 불태우고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기 위하여 추수꾼을 보내시는 최후의 수확의 날을 예표하였다. 그 때에 악인들은 모두 멸망을 당할 것이다. 악인들은 “본래 없던 것같이”(옵 16) 될 것이다. 그리고 온 우주의 모든 음성이 합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기자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계 5:13)고 말한다. {PP 541.2}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에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의 순례 생활 동안 친절히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고 그분을 찬양하였다. 또한 그들은 대속죄일의 의식을 행한 직후에 사죄와 가납하심을 입은 것을 인식하고 기뻐하였다. 그처럼 이제 여호와의 구속받은 자들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롬 8:22) 저주의 속박에서 영원히 구원 얻어 안전히 하늘 가나안에 모일 때에 말로 다할 수 없는 즐거움과 충만한 영광중에 기뻐할 것이다. 그 때에는 인류에 대한 그리스도의 대속 사업은 완성되고 인류의 죄는 영원히 도말될 것이다. {PP 542.1}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 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 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인은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사 35:1, 2, 5~10 {PP 542.2}

53장 초기의 사사들

이스라엘 각 지파들은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기 위하여 정력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미 얻은 영토를 만족히 여겼으므로 그들의 열심은 곧 시들어져서 더 이상 전쟁을 계속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삿 1:28). {PP 543.1}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언약을 당신 편에서 충실히 이행하셨으므로 여호수아는 가나안인의 세력을 꺾고 그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였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리라는 보증을 신뢰하고 그 땅의 거민을 완전히 몰아내는 일만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일에 실패했다. 그들은 가나안인들과 동맹을 체결함으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 그리하여 그들은 당신께서 그들로 가나안을 점령하도록 허락하신 조건을 성취시키는 일에 실패했다. {PP 543.2}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최초로 교통하신 바로 그 때부터 그들에게 우상숭배를 배격하라는 경고를 주셨다. 율법을 선포하신 직후에 가나안 민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기별이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전달되었다.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훼파하며 그 주상을 타파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라”(출 23:24, 25). 그들이 순종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그들의 원수를 정복하시겠다는 보증을 주셨다.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에 보내어 너의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파하고 너의 모든 원수로 너를 등지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일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그 땅의 거민을 네 손에 붙이리니 네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네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케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출

23:27~33). 이 명령은 모세가 죽기 전에 그를 통하여 가장 엄숙한 방법으로 반복되었고 또한 여호수아에 의하여 되풀이되었다. {PP 543.3}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두신 것은 그들로 도덕적 죄악의 조수를 막아 온 세상에 범람하지 못하게 할 강한 방파제를 삼고자 하심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에게 충성하는 한 그들이 나아가 정복하고 또 정복할 수 있게 하시고자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인들보다 더 크고 강력한 족속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붙이시고자 하셨다. 그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얻을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하수라 하는 하수에서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밟는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신 11:22~25). {PP 544.1}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숭고한 운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안일과 방종의 길을 택하여 가나안 정복을 완수할 기회를 잃었으며 여러 세대 동안 선지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민 33:55) 리라고 예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남아 있던 우상숭배하는 백성들로부터 압박을 당하였다. {PP 544.2}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방과 섞여서 그 행위를 배"웠다. 그들은 가나안인들과 잡혼하였고 우상숭배는 염병과 같이 온 땅에 퍼졌다. "그 우상을 섬기므로 그것이 저희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저희가 그 자녀로 사신에게 제사하였도다…그 땅이 피에 더러웠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 기업을 미워하"(시 106:34~38, 40)셨다. {PP 544.3}

여호수아에게 교훈을 받은 세대가 사라지기까지는 우상숭배가 거의 머리를 들지 못했으나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의 배도의 길을 준비하였다. 가나안을 점령한 자들 편에서 여호와께서 제시하신 바를 무시함으로 여러 세대 동안 계속하여 쓴 열매를 가져올 악의 종자를 심었다. 히브리인의 단순한 습관이 그들로 신체상의 건강을 누리게 하였으나

이방인들과 교제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식욕과 정욕에 방종하게 되었으며 그들의 체력은 점점 감소되고 지적·도덕적 능력은 약화되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로부터 물러가서 그들은 더 이상 저희 원수를 이길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힘입어 정복할 수 있었던 바로 그 민족들에게 압제를 당하였다. {PP 544.4}

그들은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신",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 "자기 산당으로 그 노를 격동하며 저희 조각한 우상으로 그를 진노케 하였"다. 그런고로 여호와께서는 "실로의 성막 곧 인간에 세우신 장막을 떠나시고 그 능력된 자를 포로에 붙이시며 자기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셨"(삿 2:12; 시 78:52, 58, 60, 61)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는 아니하셨다. 언제나 여호와께 충실한 남은 무리가 있었으며 때때로 여호와께서는 충실하고 용감한 자들을 일으키셔서 우상숭배를 타파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셨다. 그러나 구원자가 죽을 때에 백성들은 그의 권위에서 풀려나 점차로 그들의 우상에게로 돌아가곤 하였다. 그리하여 타락하여 징계를 받았고 자복하여 구원을 얻는 역사가 거듭거듭 되풀이되었다. {PP 545.1}

메소포타미아 왕과 모압 왕, 그 후에는 블레셋인들과 시스라가 인도하는 하솔의 가나안인들이 차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압박했다. 옷니엘과 삼갈, 예후와 드보라와 바락이 그들의 백성의 구원자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다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삿 6~8장을 보라)셨다. 지금까지는 압제자의 손이 요단 동편에 거하는 지파들에게 가볍게 뻗쳤으나 이번 재난에는 그들이 제일 먼저 고통을 당하였다. {PP 545.2}

가나안 남쪽에 사는 아말렉인들은 동쪽 변경과 사막 저편의 미디안 족속들과 함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자비한 원수들이었다. 미디안 족속은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의 멸망되었으나 그 후에 크게 증가하고 수효도 많아져서 강대하게 되었다. 그들은 복수하기를 갈망하고 있었다. 차제에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났으므로 기회는 이르러 왔다. 요단 동편 족속뿐만 아니라 온 땅이 파괴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였다. "메뚜기 떼 같"(삿 6:5)은 사막의 거칠고 맹렬한 거민들이 양떼와 소떼를

가지고 그 땅에 무리를 지어 들어왔다. 그들은 멸망시키는 전염병처럼 요단강으로부터 팔레스틴 평야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에 퍼졌다. 그들은 곡식이 익기 시작하면 들어와서 토지의 마지막 소산을 거두기까지 머물러 있었다. 그들은 토지소산을 빼앗고 거민들을 약탈하고 학대한 후에 사막으로 돌아갔다. 그러므로 개활지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집들을 버리고 성벽이 있는 성읍으로 모여들거나 성채에서 피난처를 구했다. 심지어는 산 중에 있는 동굴과 바위로 된 요새에서 의지할 곳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이같은 압박이 7 년간 계속된 후에 백성들이 고통 중에서 여호와의 견책에 주의하고 자신들의 죄를 자복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위하여 구원자를 일으키셨다. {PP 545.3}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요아스의 아들이었다. 이 가문이 소속된 지파는 아무런 지도적 지위를 차지하지 못했으나 요아스의 가족은 용기와 성실에 있어서 탁월하였다. 그의 용감한 아들들에 대하여 "모두 왕자 같더라"(삿 8:18)고 말했다. 그 중 한 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미디안 사람과의 싸움에서 죽었다. 그 한 아들은 침략자들이 그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만들었다. 기드온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기드온은 그 때에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소량의 곡식을 감추어 두었으나 그는 그것을 감히 보통 타작마당에서 타작할 수 없었다. 그는 그것을 포도주 틀 가까운 곳에서 타작하였는데 이는 포도가 익을 계절이 아직 멀었으므로 그 때는 포도원이 거의 주목을 받지 않는 까닭이었다. 기드온은 은밀한 곳에서 말없이 일하면서 슬픔에 젖어 이스라엘의 상태를 숙고하고 자기 백성에게서 압박자의 멍에를 꺾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였다. {PP 546.1}

돌연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PP 546.2}

기드온은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라고 대답하였다. {PP 546.3}

하늘의 사자는 "너는 이 네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고 말하였다. {PP 547.1}

기드온은 지금 자기에게 말하는 이가 과거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역사한 언약의 천사인 표징을 얻고자 갈망하였다.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교통한 하나님의 천사들은 한때 머물러 그의 후대를 받은 적이 있었다. 기드온도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그의 손님으로 머물도록 간청하였다. 기드온은 급히 장막으로 가서 그의 빈약한 창고에서 염소 새끼 하나와 무교병을 준비하여 하늘의 사자에게 가져다 드렸다. 그러나 그 천사는 그를 명하여 "고기와 무교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고 말하였다.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 그가 바라던 표징이 주어진 바 되었으니 곧 천사가 손에 잡은 지팡이로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반석에서 나와 제물을 태웠다. 그 후에 천사는 떠나가고 보이지 않았다. {PP 547.2}

동향인의 배도에 가담한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그가 사는 오브라에 바알 신을 위하여 거대한 제단을 쌓았으며 그 성읍 백성들이 거기서 예배하였다. 기드온은 이 제단을 훼파하고 그의 헌물을 불살라 드리던 그 반석 위에 여호와의 단을 세우고 여호와께 희생 제물을 드리라는 명을 받았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일은 제사장들에게 위임되었고 실로의 제단에서만 드리도록 제한되었다. 그러나 의식을 제정하시고 그 모든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요구를 변경시키실 권한도 가지고 계셨다. 이스라엘의 구원보다 먼저 바알 신 숭배에 대한 엄숙한 항의가 앞서야 했다. 기드온은 그의 백성의 원수와 싸우러 나아가기 전에 우상숭배에 대하여 전쟁을 선언해야 하였다. {PP 547.3}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만일 공공연하게 시도한다면 반대를 받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기드온은 그 일을 은밀히 수행했다. 그는 종들의 도움을 받아 하룻밤 동안에 전부 해치웠다. 다음날 아침 바알에게 예배하러 나온 오브라인들은 크게 분노하였다. 천사의 내방에 대하여 들은 요아스가 자기 아들을 위하여 변호하지 않았더라면 오브라인들이 기드온의 생명을 취했을 것이다. 요아스는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대 그 단을 훼파하였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고 말하였다. 바알이 자신의 제단을 보호할 수 없을진대 어찌 그를 예배하는 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겠는가? 기드온을 해하려는 생각은 모두 사라지고 기드온이 전쟁의 나팔을 불 때에 오브라인들이 제일 먼저 그의 깃발 아래 모인 무리 중에 있었다. 그는

자기가 속한 므낫세 지파와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 사자를 보냈는데 모두 그의 요청에 응하였다. {PP 547.4}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위하여 자기를 부르시고 자기와 함께 하시리라는 보다 더 분명한 증거 없이는 감히 군대의 선두에 설 수 없었다. 기드온은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라고 기도하였다. 아침에 본즉 양털은 젖었고 그 반면에 땅은 말랐다. 그러나 양털은 대기 중에 있을 때에 자연히 습기를 흡수하므로 이 시험은 결정적이 될 수 없으리라는 의심이 일어났다. 그러므로 기드온은 그의 극단적인 신중성이 여호와께 불쾌히 여기심이 되지 않도록 간청하면서 그 표징이 반대로 되도록 간청하였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요구를 허락하셨다. {PP 548.1}

그리하여 용기를 얻은 기드온은 침략자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그의 군대를 인솔해 나갔다.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기드온이 인솔하는 모든 군사는 겨우 3만 2천명이었으나 그의 앞에는 원수의 대군이 널려있었다. 그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음과 같이 그에게 임하였다. "너를 좇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셨다. 자원하여 위험과 난관에 직면하지 않으려는 자나 세속적 이익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업에서 떠나게 할 자들은 이스라엘 군대에 힘을 보태주지 못할 것이다. 이런 자들의 존재는 다만 약점의 원인이 될 것이다. {PP 548.2}

이스라엘의 법에는 온 군대가 출전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선언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취할까 하노라." 그리고 유사(有司)들은 더 나아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신 20:5~8)고 해야만 하였다. {PP 548.3}

기드온은 그의 군사의 수가 원수의 수와 비교하여 너무나 적은 까닭에 선전 포고를 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의 군사가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듣고 기드온은 크게 놀랐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있는 교만과 불신을 보셨다. 기드온의 감동적인 호소에 분기한 그들은 곧 군대에 입대하였으나 미디안의 군중을 보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많았다. 그러나 만일 이스라엘이 승리하면 바로 이런 사람들은 승리를 하나님께 돌리는 대신에 그 영광을 스스로 취할 것이다. {PP 549.1}

기드온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2만 2천명 즉 그의 온 군대의 3분의 2가 저희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다. 또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다음과 같이 기드온에게 임하였다.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무릇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백성들은 물가로 인도함을 받았는데 그들은 이제 곧 적진으로 진격하게 되리라고 기대했다. 앞으로 행진하면서 급히 손으로 물을 조금 움켜 핥아먹는 자는 매우 적고 거의 모두 무릎을 꿇고 한가롭게 시내 표면의 물을 마셨다.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자는 불과 만 명 중 3백 명밖에 되지 않았다. 그들은 택함을 입고 나머지는 모두 저희 집으로 돌아갈 허락을 받았다. {PP 549.2}

때때로 가장 단순한 방법에 의하여 품성은 시험을 받는다. 위험한 때에 자신의 필요만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은 위급한 경우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 여호와께서는 게으르고 방종한 자들을 위하여 당신의 사업 가운데 자리를 마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은 자신들의 필요로 인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일을 지체하지 않는 소수의 사람이었다. 선발된 3백 명은 용기와 자제력을 가졌을 뿐 아니라 신앙이 돈독한 자들이었다. 그들은 우상숭배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휘하실 수가 있으셨고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었다. 성공이란 수효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적은 사람을 통하여서도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수효를 통해서보다는 오히려 당신을 따르는 자들의 품성으로 영광을 받으신다. {PP 549.3}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략자의 대군이 진을 치고 있는 골짜기가 내려다보이는 산벼랑에 주둔하였다.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 같은지라"(삿 7:12). 기드온은 내일의 전투를 생각하고 떨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밤에 기드온에게 명하시기를 그의 부하 부라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 그리하면 그가 용기를 얻을 무슨 말을 들으리라고 하셨다. 기드온이 내려가 어둠과 고요 속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한 병사가 동료에게 다음과같이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의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러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료는 숨어서 듣고 있는 자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말로 대답하기를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고 하였다. 기드온은 미디안의 알지 못하는 자들을 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였다. 그는 자기의 명령 하에 있는 소수의 군사에게로 돌아와서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고 말하였다. {PP 550.1}

하나님의 지시에 의하여 공격 계획이 기드온에게 제시되었고 그는 그것을 즉시 실행에 옮겼다. 3백 명의 군사를 세 부대로 나누었다. 각 사람은 나팔과 진흙 항아리 속에 감춘 횃불을 받았다. 군사들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방향으로부터 미디안 진에 접근하도록 배치되었다. 이 세 부대는 깊은 밤에 기드온의 전쟁 나팔의 신호를 따라 그들의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려 타오르는 횃불을 쳐들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라는 무서운 군호를 외치면서 적군에게로 질주하였다. {PP 550.2}

자던 원수의 군사는 돌연히 깨었다. 타오르는 불빛이 사방에 보였다. 사방에서 나팔 소리와 공격자의 부르짖음이 들렸다. 미디안인들은 저희가 압도적인 대군에 포위된 줄 믿고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들은 놀라서 무서운 비명을 지르며 목숨을 구하려고 도망하였다. 그러나 저희 동료를 적으로 오인하고 서로 죽였다. 승리의 소식이 널리 퍼지자 저희 집으로 돌아가던 무수한 이스라엘 군사들이 되돌아와 도주하는 원수를 추격하는

일에 가담하였다. 미디안인들은 요단강을 건너 그들의 영토로 돌아가려고 강쪽으로 행진하고 있었다. 기드온은 사자를 에브라임 지파에게 보내어 그들로 일어나 도망하는 자들을 남방 여울에서 막도록 명하였다. 그동안에 기드온은 "비록 곤비하나 따르"는 3백인과 함께 이미 건너편으로 멀리 간 자들의 뒤를 쫓아 힘든 강물을 건넜다. 전 군대를 인솔하고 왔다가 겨우 1만 5천명의 군사와 함께 도망하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는 기드온에게 따라잡혔으며 그들의 군대는 산산이 흩어졌으며 그 지도자들은 사로잡혀 죽임을 당하였다. {PP 550.3}

이 현저한 패배로 인하여 12만 명 이상의 침략자들이 죽임을 당하였다. 미디안인의 세력이 꺾여 결코 다시는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 수 없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다시 싸우셨다는 소식은 신속히 원방에 전파되었다. 단순한 방법으로 대담하고 호전적인 백성의 권세를 꺾었다는 것을 알게 된 인근 민족들의 공포심은 말로 형언할 수 없었다. {PP 553.1}

하나님께서 미디안인을 정복하도록 택하신 지도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관원도,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니었다. 그는 스스로 그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생각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를 용기와 성실의 사람으로 보셨다. 그는 자신을 불신하고 여호와의 지도를 따르고자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사업을 위해 가장 큰 재능을 가진 자를 택하지 않으시고 당신께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자를 택하신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잠 15:33). 주께서는 자신들의 부족함을 가장 절실히 느끼고 당신을 그들의 지도자요 힘의 근원으로 의지할 자들을 통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일하실 수 있으시다. 주께서는 그들의 연약함에 당신의 능력을 연합하심으로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그들의 무지에 당신의 지혜를 결합하심으로 그들을 지혜롭게 하실 것이다. {PP 553.2}

참으로 겸손한 마음을 품는다면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매우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신뢰하면서 어떤 큰 책임을 맡아 성공할 수 있는 자는 거의 없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당신의 사업을 위하여 쓰실 인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이 위대하고 재능이 있고 훌륭하다고 존경하는 자들을 택하시지 않는

이유이다. 그런 자들은 흔히 너무나 교만하고 자부심이 강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고 없이도 행할 능력이 있다고 느낀다. {PP 553.3}

여리고를 포위한 여호수아의 군사와 미디안 대군 주위에 있던 기드온의 적은 군병이 나팔을 분 단순한 행위는 하나님의 권능을 통하여 원수들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되었다.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떠나서 사람들이 고안해 낸 가장 완전한 어떤 제도라 할지라도 실패로 끝날 것이며 반면에 가장 전망이 없는 듯이 보이는 방법이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겸손과 신앙으로 받아들일 때에 성공할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일은 마치 기드온과 여호수아가 가나안인과 싸울 때에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영적 싸움을 할 때도 필수 불가결하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듭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그 백성들을 당신께 대한 신앙 즉 모든 위급한 때에 당신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신뢰심을 갖게 하시고자 하셨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백성의 노력으로 일하시고 연약한 그릇들을 통하여 큰일을 성취하시기를 원하신다. 온 하늘은 우리가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엡 3:20)수 있으시다. {PP 554.1}

자기 민족의 원수를 추격하는 일에서 돌아온 기드온은 자기 동족으로부터 질책과 비난을 받았다. 기드온이 미디안인을 치려고 이스라엘 군사를 소집할 때에 에브라임 지파는 거기에 응하지 않았다.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은 그 노력이 위험한 기도(企圖)인 것으로 판단하고 기드온이 그들에게 특별한 초청을 보내지 않은 것을 저희 동포들과 연합하지 않을 구실로 삼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승리에 관한 소식을 들을 때에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들이 거기에 참가하지 못한 까닭에 질투하였다. 에브라임 군사들은 기드온의 명령을 따라 미디안의 오합지졸을 뒤쫓아 요단강 여울을 장악하여 탈주병들을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 전략으로 많은 적군이 살해당했고 그 중에는 두 왕 오렙과 스엡이 있었다. 이와 같이 에브라임 군사들은 전투에 따라가 승리를 이루는 데 조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드온이 자신의 뜻과 판단대로 다했다고 질투하고 분노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승리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길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을

구원하신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감사하지 아니하였다. 바로 이런 사실이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도구로 택함을 받을 가치가 없음을 나타내었다. {PP 554.2}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온 에브라임 사람들은 분노하여 기드온을 책망하여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찜이뇨"라고 말하였다. {PP 555.1}

기드온은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맏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고 말하였다. {PP 555.2}

질투심은 투쟁과 유혈을 가져올 언쟁을 선동하기 쉬운 것이다. 그러나 기드온의 겸손한 대답은 에브라임 사람들의 분노를 진정시켰다. 그들은 평안히 집으로 돌아갔다. 원칙에 관하여서는 확고부동하고 타협하지 않으며 전쟁에 있어서는 "큰 용사"인 기드온은 또한 좀처럼 보기 드문 공손한 정신을 나타내었다. {PP 555.3}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것을 감사하여 기드온에게 저희 왕이 되고 왕위를 그의 후손에게 확립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 제의는 신정 정치(**神政政治**)의 원칙을 직접 범하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었으므로 그들이 한 인간을 보좌에 앉히는 것은 저희 하나님의 주권을 거절하는 것이 될 것이다. 기드온은 이 사실을 잘 알았고 그의 대답은 그의 동기가 얼마나 참되고 고상함을 나타내었다. 그는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고 선언하였다. {PP 555.4}

그러나 기드온은 다른 과오를 범하였으니 이는 그의 집과 온 이스라엘에게 재난을 가져왔다. 대 전쟁 후에 오는 평온한 때가 흔히 싸움할 동안보다 더 큰 위험이 따른다. 기드온은 이제 이 위험에 직면하였다. 그에게 불온한 정신이 있었다. 지금까지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시를 성취하는 일로 만족하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지도를 기다리는 대신에 자신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였다. 여호와의 군대가 현저한 승리를 얻었을 때에 사단은 하나님의 사업을 전도(顚倒)하려는 노력을 배가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사단이 기드온의 마음에 암시를 준 생각과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하게 하였다. {PP 555.5}

기드온은 그에게 천사가 나타난 반석 위에 제물을 드리도록 명령을 받았으므로 그가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행하도록 임명을 받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재가를 기다리지 않고 적합한 장소를 준비하여 성막에서 진행되는 예배와 동일한 예배 제도를 세우고자 결심하였다. 그에 대한 인기가 매우 강하였으므로 그는 자기의 계획을 수행하는 데 아무 어려움이 없음을 발견하였다. 그의 요구를 따라 미디안 사람에게서 취한 모든 금귀고리는 그의 몫의 전리품으로서 그에게 주어진 바 되었다. 또한 백성들은 값진 다른 많은 물건과 함께 미디안 방백들의 부요하게 장식한 의복을 모았다. 이와 같이 공급된 재료를 가지고 기드온은 대제사장의 것을 모방하여 에봇과 흉패를 만들었다. 그의 행위는 자신과 그의 가족과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되었다. 승인되지 않은 예배는 백성 중 많은 사람들을 마침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하였다. 기드온이 죽은 후 그의 가문 중에서 큰 무리가 이 배도에 가담하였다. 한때 저희 우상숭배를 전복시킨 바로 그 사람에 의하여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되었다. {PP 555.6}

말과 행동의 감화가 얼마나 멀리 미치는지를 깨닫는 자들은 매우 적다. 얼마나 자주 부모의 과오가 그들이 죽은 후에도 오랫동안 그들의 자자손손에게 가장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각자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그 영향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말과 행동은 엄청난 능력이 있어 오랫동안 현세의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우리의 말과 행위로 지은 인상은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이나 저주의 반응을 가져올 것이다. 이런 생각은 우리의 생애를 매우 엄숙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도록 겸손히 기도하게 할 것이다. {PP 556.1}

가장 높은 지위에 서 있는 자들도 타락할 수 있다. 가장 현명한 자들도 과오를 범하고 가장 강한 자들도 비틀거리다가 넘어질 수 있다. 하늘로부터 오는 빛이 끊임없이 우리의 앞길을 비춰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유일의 안전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길을 절대적으로 의탁하는 데 달려 있다. {PP 556.2}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의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그의 집을 후대치도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사사요 구원자인 기드온에게 입은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의 세력을 유지하고자 한 사람을 제외하고 기드온의 모든 적자(嫡子)들을 살해한 그의 서자 아비멜렉을 그들의 왕으로 추대하였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버릴 때에 오래지 않아 정절과 성실에서 떠나게 된다. 여호와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기드온처럼 당신의 백성을 축복하는 도구로 사용된 자들에게도 감사할 것이다. 기드온의 집에 대한 이스라엘의 잔인한 행위는 하나님께 크게 배은망덕한 백성에게만 있을 수 있다. {PP 556.3}

아비멜렉이 죽은 후 여호와를 경외한 사사들의 통치는 한동안 우상숭배를 저지시켰다. 그러나 머지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위에 있는 이교 사회의 행습으로 되돌아갔다. 북방 지파들 중에는 아람과 시돈의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많았다. 서남부는 블레셋인의 우상에게로, 동부는 모압과 암몬인의 우상에게로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나 배도는 신속한 형벌을 받았다. 암몬 족속들이 동쪽 지파들을 정복하고 요단강을 건너 유다와 에브라임 영토에 침입하였다. 서부에서는 해변 평야에 사는 블레셋인들이 올라와 원근에서 방화와 약탈을 일삼았다. 다시 이스라엘은 무정한 원수의 권세 하에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다. {PP 557.1}

백성들은 다시 저희가 그처럼 버리고 모독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삿 10:10~16). 그러나 슬픔이 참 회개를 이루는 것은 아니었다. 백성들은 저희 죄가 그들에게 고통을 가져온 까닭에 슬퍼한 것이지 저희가 당신의 거룩한 율법을 범하여 하나님께 욕을 돌린 까닭에 슬퍼한 것은 아니었다. 참된 회개란 죄에 대하여 슬퍼하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한다. 그것은 악으로부터 결정적으로 돌아서는 것이다. {PP 557.2}

여호와께서는 선지자 중 한 사람을 통하여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 환난 때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PP 557.3}

이 엄숙하고 무서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다른 광경 즉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하고 당신의 은혜를 멸시한 자들이 당신의 공의와 대면하게 될 최후의 대심판을 연상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시간과 재물과 지력의 낭쭝을 이 세상 신들을 섬기는 데 써버린 자들은 심판 때에 그 일에 대하여 답변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편의와 세속적 향락의 길을 따르기 위하여 참 사랑의 친구 그리스도를 버렸다. 그들은 때때로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였으나 세상의 어리석음과 기만은 그 의도를 없애 버렸다. 경박한 오락과 의복에 대한 허영심과 식욕의 방종은 마음을 굳게 하고 양심을 마비시켜 진리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였다. 의무는 멸시를 받았다. 무한히 가치 있는 사물은 경히 여김을 받고 마침내 인류를 위하여 그처럼 큰 것을 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추수 때에는 그들은 자신들이 씨 뿌린 것을 수확할 것이다. {PP 557.4}

여호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여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 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잠 1:24~31, 33). {PP 558.1}

이스라엘인들은 이제 여호와 앞에 스스로 겸비하였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의 마음은 근심하셨으니 곧 "이스라엘의 곤고를 인하여…근심하시니라." 오, 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비이신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임재를 막은 죄들을 제거할 때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한 번 그들을 위하여 일하기 시작하셨다. {PP 558.2}

길르앗 사람 입다를 구원자로 등장시키셨는데 그는 암몬인들과 전쟁하여 그들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였다. 그러나 이때에 이스라엘은 18년 동안 원수들의 압박 하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배운 교훈을 또다시 잊어버렸다. {PP 558.3}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악의 길로 되돌아갔을 때에 그들의 강력한 원수 블레셋인들에게 여전히 압박을 당하도록 그들을 허락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해 동안 끊임없이 괴로움을 당했고 때때로 이 잔인하고 호전적인 민족에게 완전히 예속되었다. 그들은 이 우상 숭배자들과 섞였고 향락과 예배에 있어서 그들과 연합하여 마침내 그들은 정신과 취미에 있어서 그들과 하나가 된 것처럼 보였다. 그 후에 이 이스라엘의 친구라고 공언하는 블레셋인들은 이스라엘의 가장 원한 깊은 원수가 되어 온갖 방법을 다하여 그들을 멸하려고 하였다. {PP 558.4}

그리스도인들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무나 자주 경건치 않은 자들과 우정을 맺기 위하여 세속적 감화에 복종하고 그들의 원칙과 습관을 따른다. 그러나 결국에는 친구라고 공언하던 자들이 가장 위험한 원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이에는 조화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친다. 우리 구주께서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요일 3:13; 요 15:18)고 말씀하셨다. 사단은 경건치 않은 자들을 통하여 외면상의 우정이란 가면 아래 하나님의 백성을 죄 가운데로 유혹하여 그들을 하나님과 분리시키기 위하여 일한다. 그들을 보호하는 방벽이 제거될 때에 사단은 그의 대리자를 인도하여 그들에게 대항하여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다. {PP 559.1}

54장 삼 손

널리 퍼진 배도의 와중에서도 충실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탄원하였다. 겉보기에는 아무 응답이 없고 해마다 그 땅에 대한 압박자의 권세가 더욱 가혹해 갔으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도움을 준비하고 계셨다. 블레셋인의 압정의 초기에 한 어린이가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이 강대한 원수의 권세를 꺾고자 하셨다. {PP 560.1}

블레셋 평야가 내려다보이는 산지의 변경에 소라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곳에 단 지파에 속한 마노아의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보편적인 배도 중에서도 여호와께 충실한 몇 안 되는 가정 중에 하나였다. 아이가 없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시작하시리라는 기별을 전했다. 이것과 관련하여 그 사자는 그 여자에게 어떻게 처신할 것과 또 그 아이를 어떻게 기를 것에 대하여 지시를 주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사사기 13장 참조). 그리고 처음부터 그에게 금지된 것들이 그 아이에게도 똑같이 금지되었다. 이에 추가해서 그 아이의 머리를 깎지 말라고 하였다. 이는 그 아이가 날 때부터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PP 560.2}

그 여인은 남편을 찾아가 천사가 나타난 사실에 대하여 말하고 아울러 천사가 전해준 기별을 이야기했다. 그 때에 그의 남편은 그들에게 위임된 중대한 사업을 수행하는 일에 어떤 과오를 범하지나 않을까 염려하여 “주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였다. {PP 560.3}

천사가 다시 나타났을 때에 마노아는 근심스럽게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라고 질문하였다. 지난번에 준 지시가 다시 반복되어 주어졌다.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PP 560.4}

하나님께서 마노아에게 약속하신 아이는 해야 할 중대한 과업이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와 아이 모두 습관을 주의 깊이 규제해야 했는데 이는 그 아이가 이 사업에 필요한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준 교훈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는 것이었다. 아이는 어머니의 습관으로 선악간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어머니가 아이의 행복을 바란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원칙의 지배 아래 두어야 하며 절제와 극기를 실천해야 한다. 미련한 충고자들은 어머니의 모든 욕망과 충동을 만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할지 모르나 그와 같은 가르침은 거짓이요 해로운 것이다.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명령에 따라 극기를 실천해야 할 가장 엄숙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 {PP 561.1}

아버지도 어머니처럼 이 책임을 분담하고 있다. 부모들은 양쪽 다 자신들의 지적 · 육체적 특징과 성질과 기호(嗜好)를 자녀들에게 유전시킨다. 부모의 부절제의 결과로 인하여 때때로 자녀들의 체력과 지적 · 도덕적 능력에 결함이 생긴다.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그들의 탐욕스러운 욕망과 격정적인 피와 흥분하기 쉬운 체질을 유전시킨다. 흔히 음탕한 자들은 그들의 사악한 욕망과 몸서리치는 질병까지도 저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전한다. 그리고 유혹을 저항하는 힘이 부모들에게서보다 자녀들에게서 더 약화되며 그 경향은 후세로 갈수록 점점 더 낮아진다. 부모들은 저희 자녀들의 난폭한 성질과 그릇된 식욕뿐 아니라 귀머거리와 소경과 백치와 병약한 체질로 태어나게 된 무수한 결점에 대하여 큰 책임이 있다. {PP 561.2}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는 "우리에게 태어날 아이에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해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태아기의 영향의 결과를 경히 여기나 하늘에서 이 히브리인 부모에게 보낸 지시와 그것을 가장 분명하고 엄숙한 방법으로 두 번이나 반복하심은 우리의 창조주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나타낸다. {PP 561.3}

그 약속된 아이가 부모에게 좋은 유전을 받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다. 거기에 주의 깊은 훈련과 바른 습관의 형성이 뒤따라야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장래의 사사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그 아기에게 어릴 때부터 엄격한 절제의 훈련을 시키도록 지시하셨다. 그는 날 때부터 나실인이 되어야 했으므로 영원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하였다. 자녀들에게 절제와 극기와 자제에 대한 교훈을 갓난아이 시절부터 가르쳐야 한다. {PP 561.4}

천사가 금지한 것에는 “부정한 것”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정하고 부정한 식품을 구별하는 것은 단순히 의식적(儀式的)인 것에 불과하거나 독단적인 규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위생의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었다. 수천 년 동안 유대 백성들을 특출하게 만들어 왔던 경이로운 생명력의 비결은 이러한 구별을 엄수한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절제의 원칙들은 주정음료의 사용을 금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상 훨씬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자극성 식물과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을 사용하는 것은 흔히 주정음료와 똑같이 건강에 해롭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술 취함의 씨앗을 심는다. 참된 절제는 해로운 것은 모두 완전히 버리고 건강에 이로운 것을 현명하게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친다. 식사의 습관이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품성과 이 세상에서의 유용성과 그들의 영원한 운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깨달아야 할 만큼 깨닫는 자가 거의 없다. 식욕은 항상 도덕적·지적 능력의 지배 아래 있어야 한다. 육체는 마음의 종이 되어야 하며 마음이 육체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PP 562.1}

마노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정한 때에 성취되어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삼손이라 불렀다. 그 소년이 성장할 때에 그는 비상한 체력을 가졌음이 판명되었다. 그러나 이 체력은 삼손과 그 부모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의 튼튼한 근육에 의한 것이 아니요 그의 깎지 않은 머리가 상징하는 바와 같이 나실인으로서의 조건에 의한 것이었다. 만일 삼손이 그의 부모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히 순종하였더라면 그의 운명은 보다 더 고상하고 행복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우상 숭배자들과 교제함으로 그는 타락하였다. 소알촌이 블레셋 나라에 가까이 있었으므로 삼손은 그들과 다정하게 어울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 젊은 시절에 정교(情交)의 싹이 터서 그 영향은 그의 전 생애를 어둡게 하였다. 딤나라고 불리는 블레셋인의 마을에 사는 한 젊은 여인이 삼손의 애정을 사로잡았다. 그리하여 삼손은 그 여자를 아내로 삼고자 하였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부모가 삼손의 목적을 단념시키려고 노력하자 삼손은 부모에게 다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삿 14~16장을 보라)다고 대답할 뿐이었다. 그 부모는 마침내 그 소원을 허락하여 결혼식을 거행하였다. {PP 562.2}

삼손은 성년이 된 바로 그 때 곧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사명을 수행해야 할 때, 다시 말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그가 하나님께 충실해야 할 그 때에 이스라엘의 원수들과 결합하였다. 삼손은 자기가 선택한 상대와 결합함으로 하나님을 보다 더 영화롭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의 생애를 통해 성취해야 할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처지에 자신을 두게 되는 것이 아닌지를 물어 보지 않았다.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약속하셨으나 자신을 기쁘게 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약속이 없다. {PP 563.1}

삼손과 같은 길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남편이나 아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기호의 지배를 받아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 얼마나 자주 결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상대방들은 하나님의 권고를 듣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마음도 갖고 있지 않다. 그리스도교는 결혼 관계에 지배적인 감화를 끼쳐야 한다. 그러나 결합을 주도하는 결혼의 동기가 그리스도인 원칙들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여 자신의 부하들과 연합하게 함으로 그들에 대한 자기의 세력을 강화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심중에 성화되지 않은 정욕을 일으키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당신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로 더불어 연합하지 않도록 분명한 교훈을 주셨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고후 6:15, 16). {PP 563.2}

삼손은 그의 결혼 잔치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로 더불어 친밀히 교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교제에 스스로 들어가는 자들은 누구나 어느 정도 그 동료들의 습관과 풍습을 따라 행해야 한다고 느낄 것이다. 이와 같이 소비된 시간은 낭비라고 하기보다는 악용이라고 할 수 있다. 원칙의 성채를 무너뜨리고 영혼의 요새를 약하게 하는 사상이 받아들여지고 그런 대화가 교환된다. {PP 563.3}

삼손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얻으려고 했던 아내는 결혼 잔치가 채 끝나기도 전에 그의 남편을 배반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 여자의 불성실을 보고 분노한 삼손은 당분간 그 여자를 버리고 홀로 소라에 있는 그의 집으로 돌아갔다. 얼마 후 마음이 누그러진 삼손은 그의 신부를 위하여 다시 돌아왔으나 그 여자는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있었다.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들과 포도원을 황폐시킨 삼손의 복수는 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비록 그 여자가 그들의 위협 때문에 속임수를 쓴 데서 소동이 일어났으나 그들은 그 여자를 살해하였다. 삼손은 이미 한 손으로 어린 사자를 죽이고 아스글론 사람 삼십 인을 살해함으로 그가 놀랄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를 나타내 보였다. 이제 삼손은 그의 아내를 잔인하게 죽인 사실에 격분하여 블레셋 사람을 공격하여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진멸하였다. 그 후에 그는 원수들을 피하여 유다 지파에 속한 "에담 바위 틈"으로 물러갔다. {PP 563.4}

강한 군대가 이곳까지 삼손을 추격해 왔다. 몹시 놀란 주민들은 비굴하게도 삼손을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유다 사람 3천 명이 그에게로 올라갔다. 그러나 그처럼 큰 무리였을지라도 삼손이 자기 동족은 자기를 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그들에게 없었더라면 그들은 감히 그에게 접근하지 못했을 것이다. 삼손은 결박되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지는 데 동의했으나 먼저 유다 사람들에게 저희가 친히 그를 치지 않겠다고 약속하기를 요구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그들을 죽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삼손은 그들에게 새 밧줄 둘로 자기를 결박하도록 허락하였다. 그리고 그는 큰 기쁨의 시위를 하고 있는 원수의 진영으로 이끌러 갔다. 그러나 그들의 환호성이 산골짜기에 메아리치고 있는 동안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였다. 삼손은 강한 새 줄을 마치 불탄 삼처럼 산산이 끊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손에 잡은 무기는 나귀의 턱뼈에 지나지 않았으나 그것을 칼이나 창보다 더 유효하게 사용하여 블레셋인들을 진멸하였다. 마침내 그들은 들에 1천명의 시체를 남긴 채 공포에 질려 도망하고 말았다. {PP 564.1}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꺼이 삼손과 연합하여 승리할 때까지 그들을 추격했더라면 그 때에 압박자들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풀이 죽고 겁에 질려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쫓아내도록 명하신 사업을 등한히 하였으며 그들의 부패한 행위에 가담하고 그들의 잔인성을 용납하였고 그들 자신들에게 직접 해가 오지 않는 한 그들의 비행을 옹호하기까지 하였다. 그들은 압박자의 권세 아래 들어갔을 때에 저희가 하나님께만 순종했더라면 능히 피할 수 있었을 타락에 나약하게 굴복하였다. 여호와께서 구원자를 일으키셨을 때에도 그들은 가끔 그들의 구원자를 버리고 원수들과 연합하려 하였다. {PP 564.2}

이스라엘 사람들은 삼손이 승리를 얻은 후에 그를 사사로 삼았고, 그는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였다. 그러나 한 번의 그릇된 발걸음은 또 다른 그릇된 길을 준비하였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 중에서 아내를 취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했고 그는 또다시 철천지원수들 중에서 불법적인 정욕의 방종을 감행하였다. 블레셋인들에게 그와 같은 공포심을 일으킨 자기의 큰 힘을 의지하고 삼손은 담대히 가사로 가서 그 곳의 한 기녀를 찾았다. 그 성읍 거민들은 그가 온 줄을 알고 어떻게든지 복수를 하고자 하였다. 그들의 원수 삼손은 그들의 모든 성읍 중에서 가장 견고한 성벽 안에 갇혀 있으므로 그들은 틀림없이 그를 사로잡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승리가 확정될 아침을 기다릴 뿐이었다. 밤중에 삼손은 깨었다. 그는 나실인의 서약을 깨뜨린 것을 상기하고 양심의 가책으로 심히 후회하였다. 그러나 그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 그의 놀라운 힘이 다시 그를 구원하였다. 삼손은 성문으로 가서 성문을 잡아떼었다. 그는 그것과 설주와 빗장을 헤브론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한 산꼭대기로 운반하였다. {PP 564.3}

그러나 이번에 그가 간신히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악한 길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또다시 블레셋인 중에서는 그같은 일을 감행하지 않았으나 계속하여 그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육욕적 향락을 추구하였다. 삼손이 자기의 출생지에서 멀지 않은 소렉 골짜기의 한 "여인을 사랑하"였다. 그의 이름은 들릴라이었는데 "소비자"란 뜻이었다. 소렉 골짜기는 포도원으로 유명하였는데 이것 역시 이미 술에 방종한 흔들리는 나실인을 유혹하였다. 그리하여 삼손은 자신의 순결을 파괴하고 하나님과 결속한 다른 줄을 끊었다. 온 블레셋인들은 그들의 원수 삼손의 행동을 방심치 않고 경계했고 그가 이 새 애정에 빠졌을 때에 들릴라를 통하여 그를 멸하고자 결심하였다. {PP 565.1}

블레셋 각 지방의 지도자 한 사람씩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소렉 골짜기로 파송되었다. 삼손이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동안 감히 그를 포박할 수 없었으므로 가능한 한 그 힘의 비결을 알아내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 그런고로 그들은 그것을 발견하여 알려 주도록 들릴라를 매수하였다. {PP 565.2}

배반자 들릴라가 성가시게 질문을 퍼붓자 삼손은 여차 여차히 행하면 자기가 다른 사람들처럼 약하게 되리라고 말하여 그 여자를 속였다. 들릴라는 그렇게 해보고 그것이 거짓임을 발견하였다. 그 때에 들릴라는 거짓에 대하여 삼손을 비난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당신이 세 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하였다. 삼손은 세 번이나 블레셋인들이 그의 애인과 결탁해서 그를 멸하고자 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를 보았다. 자기의 목적이 실패할 때마다 들릴라는 그 일을 장난이라 하였고 삼손은 맹목적으로 공포심을 떨어 버렸다. {PP 565.3}

날마다 들릴라가 조르니 마침내 "삼손의 마음이 번민하여 죽을 지경이"었으나 여인은 이상한 매력으로 그를 자기의 곁에 있게 하였다. 마침내 삼손은 굴복당하여 비밀을 알려 주었다.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즉시 블레셋 방백들에게 사자를 파송하여 그들로 지체 없이 자기에게 오도록 간청하였다. 삼손이 자는 동안 다량의 머리털이 깎였다. 그 후에 들릴라는 전에 세 번 행한 것처럼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고 말하였다. 삼손은 돌연히 일어나 전처럼 힘을 써서 그들을 멸하려고 생각하였으나 무력한 팔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달았다. 삼손의 머리를 깎은 후에 들릴라는 그를 괴롭히고 그에게 고통을 가하여 그의 힘을 시험해 보았었다. 왜냐하면 블레셋인들은 그의 힘이 없어진 것을 분명히 알게 되기까지는 감히 삼손에게 접근하지 못하는 까닭이었다. 그 다음에 블레셋인들은 삼손을 잡아 두 눈을 뽑고 가사로 데려갔다. 여기서 삼손은 족쇄에 채여 감옥에 갇혀 고역에 종사하였다. {PP 566.1}

이스라엘의 사사요 전사였던 그에게 이 얼마나 큰 변화인가? 그가 이처럼 약해지고 눈멀고 감옥에 갇혀서 가장 천한 일에 종사하고 있다니! 삼손은 거룩한 부르심의 조건을 조금씩 깨뜨려 갔다.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참으셨으나 삼손이 그의 비밀을 누설할 만큼 죄악의 세력에 자신을 굴복하였을 때에 여호와께서는 그를 떠나셨다. 그의 긴 머리에 효능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만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의 증거일 뿐이었다. 그리고 정욕의 방종으로 그 상징을 잃었을 때에 그것이 나타내는 축복도 역시 상실되었다. {PP 566.2}

고통과 굴욕과 블레셋인의 희롱을 받는 가운데 삼손은 이제까지 그가 알고 있던 것보다도 자신의 연약함을 더욱 많이 알게 되었고 그의 고통은 그를 회개의 길로

인도하였다. 머리가 자람에 따라 그의 힘은 서서히 되돌아왔으나 그가 족쇄에 차인 가망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한 그의 원수들은 아무 염려를 하지 않았다. {PP 566.3}

블레셋인들은 승리를 저희 신들에게 돌리고 미친 듯이 기뻐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도전하였다. "바다의 보호자"란 어신(魚神) 다곤을 위하는 잔칫날이 정해졌다. 온 블레셋 평원의 성읍과 촌락에서 백성들과 방백들이 모여왔다. 예배자의 무리들은 광대한 신전을 메우고 그 지붕 주위에 있는 회랑에도 운집하였다. 그것은 환락과 축제의 장면이었다. 성대한 제사를 드린 뒤에는 음악과 잔치를 벌였다. 그 후에 다곤의 힘을 과시하는 최고의 전리품으로서 삼손을 끌어내 왔다. 삼손이 나타나자 그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백성들과 방백들은 그의 비참함을 보고 조롱하고 "우리 토지를 헌"자를 넘어뜨린 그들의 신을 숭배하였다. 얼마 후에 삼손은 마치 피로한 것처럼 그 신전 지붕을 버티고 있는 중앙에 있는 두 기둥에 기대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 후에 삼손은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라고 조용히 기도를 드렸다.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고 삼손은 강한 팔로 두 기둥을 껴안고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고 부르짖으면서 몸을 굽히니 지붕이 무너져 와르르 하는 소리와 함께 그 많은 군중을 모두 멸하였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PP 566.4}

우상과 그의 예배자들, 사제와 농민들, 무사와 귀족들이 모두 다곤의 신전의 폐허 아래 매장되었다. 그 중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구원자가 되도록 택하셨던 거인의 시체도 있었다. 그처럼 신전이 무섭게 무너져 내렸다는 소식이 이스라엘 땅에 전달되어 삼손의 친족들이 저희 산지에서 내려와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죽은 영웅의 시체를 꺼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 아비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PP 567.1}

삼손을 통하여 당신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으나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민족의 영광이 되었을 삼손의 생애의 기록은 얼마나 어둡고 무서운가! 만일 삼손이 거룩한 부르심에 충실했더라면 그가 명예를 얻고 높임을 받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유혹에 굴복하고 그의 임무에 불충실하였기 때문에 그의 사명은 패배와 속박과 죽음에서 성취되었다. {PP 567.2}

삼손은 육체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었으나 자제와 성실과 확고부동함에 있어서는 가장 약한 자 중의 한 사람이었다. 강한 정욕의 소유자를 강한 인물로 오해하는 자들이 많으나 사실은 정욕의 지배를 받는 자는 약한 사람이다. 인간의 참 위대함은 그가 감정을 지배한 힘으로 측정되는 것이지 그를 지배하는 감정의 힘으로 측정되는 것은 아니다. {PP 567.3}

하나님의 섭리의 보호가 삼손에게 임하여 그로 하여금 맡겨진 사업을 성취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었다. 삼손의 생애는 바로 시초부터 체력과 지력과 도덕적 순결을 위한 좋은 조건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악한 동무들의 감화로 인하여 삼손은 인간의 유일한 안전한 방벽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버리고 악의 조수에 휩쓸려 버렸다. 의무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시련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나 만일 사람들이 고의로 자신들을 유혹의 세력 하에 두면 그들은 조만간에 넘어질 것이다. {PP 568.1}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업을 위하여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자들을 사단은 전력을 다하여 타락시키려 한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이용하여 우리를 공격하고 품성의 결점들을 통하여 우리의 심신을 모두 지배하려 하고 있으며, 우리가 이 결점들을 계속 품고 있다면 그가 성공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아무도 패배할 필요가 없다. 인간은 자신의 연약한 노력으로 악의 세력을 정복하도록 홀로 버려둔 바 되지 않았다. 도움은 가까이 있으며 참으로 도움을 갈망하는 모든 영혼에게 도움이 주어질 것이다. 야곱이 계시 가운데 본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던 하나님의 천사가 원하는 모든 영혼을 도와 가장 높은 하늘에까지 오르게 할 것이다. {PP 568.2}

55장 아이 사무엘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레위 사람 엘가나는 부요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일 뿐 아니라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아내 한나는 매우 경건한 부인이었다. 온유하고 겸손한 부인의 품성은 깊은 열심과 고상한 믿음으로 특징을 이루고 있었다. {PP 569.1}

모든 히브리인이 매우 열렬히 갈망한 축복을 이 경건한 부부는 받지 못하여 그들의 가정에는 아이의 음성을 듣는 즐거움이 없었다. 남편은 그의 가계(家系)를 영속시키려는 소망으로,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듯이 제2의 결혼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신앙심의 부족으로 이루어진 이 처사는 행복을 가져오지 못했다. 집안에 아들딸들이 탄생하였으나 하나님의 거룩한 제도의 기쁨과 아름다움은 훼손되었고 가정의 평화는 깨어졌다. 새 아내 브닌나는 질투심이 강하고 마음이 좁았고 오만하고 불손하였다. 한나에게는 희망이 깨어지고 생애가 무거운 짐처럼 보였으나 부인은 불평하지 않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 시련을 견디었다. {PP 569.2}

엘가나는 하나님의 법도를 충실히 준수하였다. 여전히 실로에서의 예배는 계속되었으나 성소 봉사의 직무가 불규칙하게 된 까닭에 레위인으로서 그가 해야 할 성소에서의 봉사를 그에게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엘가나는 정해진 회집일에는 가족과 함께 예배하고 희생 제물을 드리려고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갔다. {PP 569.3}

그의 가정에 저주를 가져온 악한 정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축제에까지 침입하였다. 감사의 예물을 드린 후 온 가족은 세워진 습관에 따라 함께 연합하여 엄숙하면서도 즐거운 잔치를 배설하였다. 엘가나는 이 자리에서 자녀들의 어머니와 그 아들과 딸들에게 그들의 몫을 각각 나눠 주고, 한나에게는 그를 중히 여기는 증거로 두 몫을 주어 그에 대한 자기의 애정이 마치 그가 자녀를 가진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증거하였다. 그 때에 질투심에 불타는 둘째 아내는 자신이 하나님의 큰 총애를 받은 자로서 우대 받기를 요구하고 한나가 아들이 없는 것은 여호와의 불쾌히 여기심의 증거라고 그를 조소하였다. 이와 같은 일이 해마다 계속되었다. 마침내 한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한나는 슬픔을 감출 길이 없어 울음을 터트리고 잔치 자리에서 떠나갔다. 그의 남편이 그를

위로하고자 애썼으나 헛수고였다. 그는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삼상 1:8)라고 말하였다. {PP 569.4}

한나는 아무런 비난도 하지 않았다. 한나는 이 세상 친구와 나눌 수 없는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하였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치욕을 거두시고 당신을 위하여 양육하고 교육시킬 한 아들을 귀중한 선물로 주시기를 열렬히 탄원하였다. 그리고 한나는 만일 자기의 요구가 허락된다면 자기의 아이를 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였다. 한나는 성막 문 곁으로 가까이 나아가 마음이 괴로워 “기도하고 통곡하”였다. 그러나 그는 조용히 하나님과 교통하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이 사악한 시대에는 그와 같이 예배하는 광경을 보기가 매우 드물었다. 종교적 축제에서까지도 불경한 연락과 술취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 엘리는 한나를 보고 술취한 줄로 생각하였다. 엘리는 당연한 책망으로 훈계하리라고 생각하고 엄하게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고 말하였다. {PP 570.1}

한나는 마음이 아프고 놀랐으나 온유하게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다”고 대답하였다. {PP 570.2}

대제사장은 깊은 감동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까닭이었다. 그는 책망 대신에 축복하였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PP 570.3}

한나의 기도는 응답되어 그는 그처럼 열렬히 간청하던 선물을 받았다. 그는 그 아이를 바라보고 그를 “사무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구하였다”는 뜻이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에게서 떨어질 수 있을 만큼 자라자 곧 한나는 그의 서원을 이행하였다. 그는 어머니로서의 온 정성을 다하여 그의 아이를 사랑하였다. 사무엘의 힘이 강해지는 것을 바라보고 그의 재잘거리는 귀여운 소리를 들을 때에 한나의 애정은 날마다 사무엘과 더욱더 밀착되었다. 사무엘은 그의 외아들인 동시에 하늘의 특별한 선물이었다. 그러나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성별된 보물로 받았으므로 그를 소유주이신 주신 분께 돌려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PP 570.4}

한나는 다시 한 번 남편과 함께 실로에 가서 그의 귀중한 선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장에게 바치면서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고 말하였다. 엘리는 이 이스라엘 여인의 신앙과 헌신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자신의 자녀를 지나치게 방임하여 온 엘리는 하나님을 봉사하는 일에 바치기 위하여 자기의 외아들과 헤어지는 이 어머니의 숭고한 희생을 바라볼 때에 두려워하고 수치를 느꼈다. 엘리는 자신의 이기적 사랑에 대하여 자책을 느끼며 면목이 없다는 생각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PP 571.1}

어머니의 마음에는 기쁨과 찬양이 넘쳐흘러서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싶었다. 영감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한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PP 571.2}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PP 572.1}

한나의 기도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군림할 다윗과 여호와의 기름부음을 받은 메시야에 대한 예언적인 말이었다. 처음에 오만하고 다투기를 좋아하던 여인의 거만에 대하여 언급한 이 노래는 하나님의 원수들의 멸망과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후의 승리를 지적하였다. {PP 572.2}

한나는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할 수 있는 교육을 받도록 그를 대제사장의 지도에 맡기고 조용히 실로에서 라마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왔다. 지력이 싹트기 시작하는 매우 초기부터 한나는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도록 가르치는 동시에 자신을 여호와의 것으로 여기도록 가르쳤다. 한나는 아들 주위에 있는 모든 익숙한 사물을 통해 그의 생각을 창조주께 향하도록 노력하였다. 아이와 헤어진 후에도 이 충실한 어머니의 염려는 그치지 않았다. 매일 그는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매년 그는 손수 아들의 예복을 만들어 남편과 함께 예배하러 실로에 갈 때에 가지고 가서 그 아이에게 자기의 사랑을 생각나게 하는 그 예복을 주었다. 그 작은 예복은 올마다 그가 순결하고

고상하고 진실되기를 기원하는 그의 기도로 짜여 있었다. 한나는 자기의 아들이 세속적으로 위대하게 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가 하늘이 귀중히 여기는 위대함,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웃에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열렬히 탄원하였다. {PP 572.3}

한나가 받은 보상은 얼마나 큰 보상이었는가! 그의 모본은 충실함에 대한 얼마나 큰 격려인가! 모든 어머니들에게 말할 수 없이 값있는 기회와 무한히 귀중한 사업이 위임되어 있다. 여인들이 싫증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주위에 있는 대수롭지 않은 매일의 의무는 중대하고 고상한 사업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감화를 통하여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이 어머니들의 특권이며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마음에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어머니들은 기쁜 일과 궂은일을 통하여 저희 자녀들이 영광스러운 하늘로 가도록 길을 곧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들의 생애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따르려고 노력할 때에만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품성을 거룩한 모본을 따라 형성시킬 수 있다. 세상은 부패한 감화로 가득 차 있다. 유행과 습관은 젊은이들에게 강한 힘을 발휘한다. 만일 어머니들이 교훈하고 지도하고 제어해야 할 의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자녀들은 자연히 악을 용납하고 선에서 돌아설 것이다. 모든 어머니들은 자주 구주 앞에 나아가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이까 가르쳐 주소서”라고 기도를 드려야 한다. 모든 어머니들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 가운데 주신 교훈에 유의하라. 그러면 필요할 때에 그대들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PP 572.4}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이 젊은 시절을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헌신하였으나 악한 감화나 죄악의 모본이 없는 환경에서 살지는 못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아버지를 공경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들과 짝하려 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악한 길을 따르려 하지도 않았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대하신 바와 같이 된 것은 그가 끊임없이 노력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젊은이들의 특권이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작은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당신을 섬기는 일에 헌신할 때에 기뻐하신다. {PP 573.1}

사무엘은 엘리의 보호 아래 있었으며 그의 사랑스러운 품성은 연로한 제사장 엘리의 뜨거운 애정을 끌었다. 사무엘은 친절하고 아량 있고, 순종하고 공손하였다. 제멋대로

고집하는 자기 아들들로 인하여 상심한 엘리는 그가 맡아 보호하는 이 아이에게서 안식과 위로와 축복을 발견하였다. 사무엘은 유용하고 애정이 깊었으며 엘리가 이 젊은이를 사랑한 것보다 자기 아이를 더 사랑한 아버지는 일찍이 없었다. 국정(國政)을 맡은 자와 단순한 아이 사이에 이처럼 뜨거운 애정이 존재하게 된 것은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다. 엘리는 고령으로 허약해지고 자신의 아들들의 방탕한 행위로 인하여 근심에 싸이고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 위로를 받기 위하여 사무엘에게로 향했다. {PP 573.2}

레위인들의 규례로는 저희가 25세 전까지는 그들의 특별한 봉사에 들어갈 수 없었으나 사무엘은 이 법의 예외가 되었다. 해마다 그에게는 더욱 중요한 임무가 위임되었으며 그가 아직 아이 때에 성소의 직무에 성별된 증거로 세마포 에봇을 입고 있었다. 성막에서 수종들도록 데려왔을 때 그는 매우 어렸지만, 그 때에도 그의 능력에 따라 하나님께 봉사하도록 수행해야 할 의무가 주어졌다. 이 일들이 처음에는 매우 보잘것없는 일이었고 언제나 즐겁게 수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으나, 그는 최선을 다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들을 수행하였다. 그는 생애의 모든 의무에 그의 종교를 결부시켰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고 그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그의 노력은 받으신바 되었으니 이는 그 노력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분의 뜻을 행하려는 성실한 소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사무엘은 우주의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사업을 완수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도록 하셨다. {PP 573.3}

만일 자녀들이 날마다 연속되는 미천한 의무들을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정해 주신 과정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저희가 충실하고 효과적인 봉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받는 학교로 생각하도록 가르침을 받는다면 그들의 일이 얼마나 더 즐겁고 명예스럽게 보일 것인가! 모든 의무를 주께 하듯 하는 것은 가장 천한 일에도 매력을 주고, 지상의 일꾼들을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룩한 자들과 연결시켜 준다. {PP 574.1}

현세에서 성공하고 내세를 얻는 일에 성공하는 것은 작은 일들을 충실히 하고 양심적으로 돌보는 데 달려 있다. 하나님의 작품에는 큰일에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서도 완전함이 나타나 있다. 세계들을 허공에 다신 손은 섬세한 솜씨로 들의 백합화를 만드신 손이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역에서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역에서

완전해야 한다. 튼튼하고 아름다운 균형 잡힌 품성의 건물은 각자가 자기의 의무를 수행하는 행위로 건축된다. 우리의 생애는 큰일에서뿐만 아니라 작은 일 하나하나에 있어서도 충실함이 그 특징이 되어야 한다. 작은 일을 충성스럽게 하고 친절하게 수행한다면 인생길은 즐거워질 것이다. 지상에서 우리의 사업이 끝날 때에 작은 의무들 하나하나마다 결코 소멸될 수 없는 선한 감화를 끼쳤음이 판명될 것이다. {PP 574.2}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도 사무엘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하게 될 수 있다. 그들은 그들의 그리스도인적 성실을 충실히 유지함으로 개혁 사업에 큰 감화를 끼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각자가 할 일을 가지고 계시다. 아무도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임무를 충실히 감당하는 자들이 성취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과 인간을 위하여 더 큰 결과를 성취한 사람은 결코 없었다. {PP 574.3}

56장 엘리와 그 아들들

엘리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인 동시에 사사였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가장 높고 책임이 중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엘리는 거룩한 제사장 직분과 최고의 재판권을 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로서, 본받아야 할 사람으로 추앙되고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큰 감화를 끼치고 있었다. 그러나 엘리는 비록 온 백성을 다스리도록 임명을 받았으나 자기 가족들을 잘 다스리지 못하였다. 엘리는 아이들을 너무 귀여워하는 아버지였다. 평화와 안일을 사랑하는 그는 자녀들의 악한 습관과 정욕을 시정하는 데 자기의 권위를 행사하지 않았다. 그는 자녀들을 나무라거나 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뜻에 굴복하여 그들이 마음대로 하도록 방임하였다. 그는 자녀들의 교육을 가장 중요한 책임 중의 하나로 여기지 않고 사소한 일처럼 취급하였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요, 사사인 엘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보호 아래 두신 자기 자녀들을 억제하고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엘리는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가 그의 아들들의 뜻을 거스리고 그들을 체벌하고 어떤 것은 거절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엘리는 그의 이러한 태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지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의 자녀들로 하여금 저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하도록 하고, 그들로 하나님께 대한 봉사와 생애의 의무를 감당하는 일에 적합한 자가 되도록 교육하는 일을 게을리하였다. {PP 575.1}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대하여 그가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창 18:19) 할 것을 안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엘리는 자기의 자녀들이 자기를 지배하도록 허용하였다. 아버지는 자녀들의 종이 되었다. 그의 아들들의 길에 뚜렷이 나타난 부패와 죄악에서 범죄의 저주가 분명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품성이나 그분의 율법의 신성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그들에게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 그들은 유년 시절부터 성소와 그 봉사에 익숙하였으나 더욱더 경건하게 되는 대신에 그 거룩함과 중요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였다. 아버지는 자기의 권위에 대한 그들의 존경심의 부족을 바로잡지도 않았고, 엄숙한 성소의 봉사에 대한 그들의 불경을 저지하지도 않았다. 성년이 되었을 때에 그들은 회의와 반역의 치명적인 열매로 충만하였다. {PP 575.2}

그들이 전혀 그 직무에 부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제사장으로 임명되었다. 여호와께서는 희생 제물들을 바치는 일에 대해 매우 특별한 지시를 주셨다. 그러나 이 악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권위를 계속 무시하고 가장 엄숙한 방법으로 거행되어야 할 제사의 예법을 무시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희생 제물들은 백성들의 마음속에 오실 구세주에 대한 신앙을 보존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그러므로 그것들에 관한 여호와의 지시를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화목 제물은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다. 이 제물 중에 기름만은 번제단에서 불태워야 하였고, 특정한 어떤 부분은 제사장들을 위하여 남겨 두었으나 대부분은 제물을 바친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어 그들로 희생 잔치를 베풀어 저희 친구들과 함께 먹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의 마음이 감사와 믿음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실 크신 희생 제물로 향해야 하였다. {PP 576.1}

엘리의 아들들은 이 상징적 예배의 엄숙성을 깨닫는 대신에 오로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방종의 방편으로 삼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화목 제물 중 저희에게 배당된 부분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부분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연중 절기 때마다 드리는 수많은 화목 제물은 이들 제사장들로 하여금 백성들의 비용으로 치부할 기회를 주었다. 그들은 그들의 권리 이상을 요구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서 기름을 태우기까지도 기다리지 않았다. 그들은 저희가 좋아하는 부분은 무엇이든지 달라고 고집했으며 주지 않겠다고 하면 위협과 폭력으로 빼앗아 갔다. {PP 576.2}

이와 같은 제사장들의 불경이 마침내 제사의 거룩하고 엄숙한 의의를 상실케 하여 백성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그들은 저희가 바라보아야 할 원형의 희생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컸”(삼상 2:12~36 참조)다. {PP 576.3}

또한 이 불충실한 제사장들은 비열하고 욕된 행위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들의 신성한 직분을 욕되게 하였으며 하나님의 성막은 그들이 들어감으로 계속 더럽혀졌다. 많은 백성들은 홉니와 비느하스의 부패한 행로를 보고 분개하여 지정된 예배 장소에 올라가지 않았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예배는 악인들의 죄로 인하여 멸시와 무시를 당하였다. 불경과 방탕과 우상숭배가 무서울 정도로 유행하였다. {PP 576.4}

엘리는 그의 아들들이 거룩한 직분을 맡아 봉사하도록 허락함으로 큰 과오를 범하였다. 엘리는 그들의 행동을 이 핑계 저 핑계로 변명함으로 그들의 죄에 대하여 눈이 멀게 되었다. 그러나 마침내 그들의 죄악은 더 이상 눈감아 줄 수 없는 형편에까지 이르렀다. 백성들은 그들의 난폭한 행위에 대하여 불평했고 대제사장은 슬퍼하고 괴로워하였다. 그는 더 이상 감히 침묵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자신들밖에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도록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 어느 누구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았다. 그들은 아버지의 슬픔을 보았으나 그들의 굳은 마음은 아무런 감동도 받지 못하였다. 그들은 아버지의 부드러운 훈계를 들었으나 아무 감명도 받지 못했으며 그들의 죄의 결과에 대하여 경고를 받았으나 그들의 악한 행동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만일 엘리가 그의 악한 아들들을 공정하게 다루었다면 그들은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되고 사형에 처해졌을 것이다. 그들이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정죄를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는 그들로 하여금 가장 신성한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하도록 놔뒀다. 그는 여전히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수행하는 데 그들의 부패를 곁들이게 함으로 인하여, 여러 해에 걸쳐서 지울 수 없는 손해를 진리의 사업에 끼치도록 묵인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사사가 자기의 직무를 게을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직접 처리하셨다. {PP 577.1}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PP 577.2}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그의 아들들을 당신보다 더 중히 여긴다고 책망하셨다. 엘리는 그의 아들들의 사악하고 가증한 행위로 인하여 그들이 수치를 당하도록 하는 대신에, 이스라엘에게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물이 가증한 것이 되도록 놔뒀다. 자녀들에 대한 맹목적인 애정 때문에 그들의 죄를 책망하지 않았고 악을 시정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지 못했다. 자녀들로 하여금 저희의 이기적 욕망을 만족시키도록 버려두는 자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보다 악한 자녀들을 더 중히 여기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그들의 명성을 보호하기에 더욱 급급하다. 그들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고 사악한 일로부터 주님께 대한 예배를 지키기보다는 저희 자녀들을 더욱 기쁘게 하기를 좋아한다. {PP 578.1}

하나님께서는 엘리를 당신의 백성의 도덕적 · 종교적 상태와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는 그의 아들들의 품성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사사로 세우셨다. 엘리는 처음에 온화한 방법으로 악을 제어하도록 시도하여야 하였다. 그러나 만일 그것으로 되지 않을 때에는 가장 단호한 방법으로 행악자들을 진압해야 하였다. 엘리는 죄를 책망하지 않고 죄인을 형벌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의 불쾌히 여기심을 입었다. 그에게 이스라엘의 순결을 지키도록 의지할 수 없었다. 악을 책망할 용기가 전혀 없는 자들이나 게으름과 관심의 부족으로 인하여 가정이나 하나님의 교회를 정결케 하는 일에 노력하지 않는 자들은 저희가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 초래한 악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는 부모나 목사로서 우리의 권위로 저지할 수 있었던 악에 대하여 그것이 마치 우리 자신의 죄악인 것처럼 똑같이 책임이 있다. {PP 578.2}

엘리는 가족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그의 가족을 다스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판단을 따랐다. 그 다정한 아버지는 그의 아들들의 유년 시절에 그들의 과오와 죄를 묵과하고 장차 그들이 자라나면 그들의 악한 성벽을 버릴 것이라고 혼자 속으로 믿었다. 지금도 그와 같은 과오를 범하는 자들이 많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 중에 주신 그것보다도 저희 자녀를 교육할 더 나은 길을 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자녀들의 그릇된 성벽을 조장하면서 “저희들은 벌 받기에는 너무 어리다. 저희가 커서 사리를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자”고 핑계한다. 그리하여 그릇된 습관들은 제2의 천성이 될 때까지

굳어지도록 방임된다. 자녀들은 제지를 받지 않고, 그들에게 평생 저주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기 쉬운 품성의 특성을 가지고 자라난다. {PP 578.3}

젊은이들이 제멋대로 하도록 허락하는 것보다 가족들에게 더 큰 저주가 없다. 부모들이 자녀들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부모가 알기에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데 방종하게 할 때에, 자녀들은 곧 부모들에 대한 모든 존경심과 하나님이나 인간의 권위에 대한 모든 존중심을 잃어버리고 사단의 뜻에 복종하게 된다. 잘못 단속한 가족의 영향은 널리 퍼지고 온 사회와 국가에 해를 끼치는 악의 조수를 쌓아올린다. {PP 579.1}

엘리는 그의 지위 때문에 그의 감화는 보통 사람들의 감화보다 더욱 널리 퍼졌다. 그의 가정생활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방하였다. 엘리의 태만하고 안일을 사랑하는 생활 태도의 해로운 결과는 그의 모본을 따라 이루어진 무수한 가정에서 볼 수 있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공언하는 부모의 자녀들이 악습에 방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는 수치를 당한다. 그리스도인 가정에 대한 가장 좋은 시금석은 그 가정의 감화로 이루어진 품성이 어떠냐에 있다. 경건하다고 열을 올리는 것보다 그들의 행동이 더 큰 소리로 말한다. 만일 신앙생활을 하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는 축복의 증거로서 잘 정돈된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열렬하고 꾸준하고 근실한 노력을 하는 대신에, 가정을 치리하는 데 완만하고 저희 자녀들의 악한 욕망에 대해 엄하게 다스리지 않는다면 그들은 엘리처럼 행하는 것이 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업에 수치를 가져오고 자신과 저희 가족들을 파멸시키게 될 것이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부모의 불충실은 큰 죄가 된다. 그러나 그 죄가 하나님의 백성의 선생으로 임명된 자들의 가정에 존재할 때에 그것은 십배가 더 커진다. 자기 가족들을 다스리는 일에 실패하게 되면 그들의 그릇된 모본이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 지위가 다른 사람의 지위보다 더 중하게 되면 그들이 짓는 죄도 그만큼 무거워진다. {PP 579.2}

아론의 집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행하리라는 언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언약은 저희가 자신의 사욕이나 사악한 성벽을 따르지 않고, 전심으로 성소의 일에 헌신하고 그들의 모든 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조건으로 체결된 것이다. 엘리와 그 아들들은 시험을 받았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당신을 섬기는 높은 제사장 직분에 전혀 부적당함을 발견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고 선언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그들에게 행하기로 하신 선을 이루실 수 없으셨다. 이는 그들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PP 579.3}

성직에 종사하는 자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과 그분에게 범죄하는 일을 무서워하도록 모본을 통해 깊은 감명을 주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고후 5:20) 백성들에게 그분의 은혜와 화평의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일어선 자들이 그들의 거룩한 부르심을 이기심과 육욕의 만족을 가리우는 두루마기로 삼을 때에, 그들은 자신들을 가장 효과적인 사단의 대리자로 만든다. 그런 자들은 홉니와 비느하스처럼 사람들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게 한다. 그들이 얼마 동안은 악한 행위를 비밀리에 행할 수 있으나, 마침내 그들의 실상이 드러나게 될 때에 백성들은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되고, 그것이 흔히는 그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을 불신할 여지를 남겨놓는다. 그리하여 참 그리스도인 종의 기별도 의심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 “이 사람도 우리가 매우 거룩하다고 생각하였으나 그처럼 부패했음이 판명된 그 자와 같지 않을까?” 라는 의문이 그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PP 580.1}

엘리가 그의 아들들을 책망한 말에는 엄숙하고도 무서운 의미를 내포한 말, 즉 성직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깊이 생각해야 할 말이 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만일 그들의 범죄가 다만 그들의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었다면 법관이 형벌을 선고하고 손해 배상을 하도록 함으로 화해가 이루어지고 범죄자들이 용서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또 그들이 만일 고범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들을 위하여 속죄 제물을 드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죄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들의 직무와 연결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사업은 백성들 앞에서 크게 모독과 수치를 당했으므로 그들을 위하여서는 어떠한 속죄 제물도 가납될 수 없었다. 그들의 아버지는 자신이 비록 대제사장이었을지라도 감히 그들을 위하여 중재하지 못했고 그들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방어할 수 없었다. 모든 죄인들 중에 가장 중한 죄인은 하늘이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준비하신 방법을 멸시하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욕을 보이”(히 6:6) 는 자이다. {PP 580.2}

57장 법궤를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김

또 다른 경고가 엘리의 집에 주어져야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경고를 대제사장과 그 아들에게 직접 전하실 수 없으셨다. 그들의 죄가 빽빽한 구름처럼 당신의 거룩한 성령의 임재를 막았다. 그러나 죄악이 난무하는 중에도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께 충실하였으므로,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엘리의 집에 정죄의 기별을 전달할 사명을 받았다. {PP 581.1}

이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는 그 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삼상 3~7장 참조). 그 음성이 엘리의 음성인 줄로 알고 아이 사무엘은 급히 제사장의 침상 곁으로 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고 말하였다. 엘리는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고 대답하였다. 사무엘은 세 번 부르심을 받고 그와 같은 모양으로 세 번 대답하였다. 그 후에 엘리는 그 신비스러운 부르심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확신하였다. 여호와께서는 백발노인인 당신의 택하신 종을 버리시고 한 아이로 더불어 교통하셨다. 이 일 자체가 엘리와 그 집에는 혹독한 것이었으나 당연한 견책이었다. {PP 581.2}

엘리의 심중에는 시기나 질투의 감정이 일어나지 않았다. 엘리는 만일 다시 부르시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고 대답하도록 사무엘에게 지시하였다. 다시 한 번 그 음성이 들려 아이 사무엘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대답하였다. 크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생각에 사무엘은 너무나 두려워 엘리가 그에게 말하도록 명한 말을 그대로 기억할 수 없었다. {PP 581.3}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나 영영히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고 하셨다. {PP 581.4}

하나님께로부터 이 기별을 받기 전에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즉 사무엘은 선지자들에게 허락하신 바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의 직접적인 출현을 알지 못하였다. 엘리로 하여금 젊은이의 놀람과 문의를 통하여 그것을 들을 수 있도록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 여호와의 목적이었다. {PP 582.1}

사무엘은 그에게 위임된 그처럼 무서운 기별을 생각할 때에 두려움과 놀라움에 사로잡혔다. 아침에 그는 평상시와 같이 그가 할 일을 하려고 나아갔으나 무거운 짐이 그의 어린 마음을 억누르고 있었다.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이 무서운 경고를 알리도록 명하시지 않으셨으므로 사무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될 수 있는 대로 엘리를 피하려고 하였다. 사무엘은 자기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벌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어떤 질문을 받지나 않을까 하고 떨었다. 엘리는 그 기별이 자기 자신과 자기의 집에 어떤 큰 재난을 예고하는 것임을 예감했다. 그는 사무엘을 불러 여호와께서 나타내신 바를 빠짐없이 말하도록 명했다. 소년은 그의 말을 순종했고 늙은 엘리는 머리 숙여 그 무서운 선고에 겸손히 복종하였다. 엘리는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고 말하였다. {PP 582.2}

그러나 엘리는 참된 회개의 열매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는 자기의 죄를 자복하였으나 그 죄를 포기하지 않았다. 여러 해 동안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무서운 형벌을 지체하셨다. 이 여러 해 동안에 과거의 실패를 속할 수 있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노령의 제사장은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고 무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죄악들을 시정하기 위한 아무런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홉니와 비느하스로 하여금 저희 마음을 굳게 하고 여전히 범죄하는 일에 담대하게 하였다. 엘리는 자기의 집에 대한 경고와 책망의 기별을 온 국민에게 알렸다. 이 방법으로 그는 자기의 과거의 태만이 끼친 악한 감화를 어느 정도 막아 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 경고를 제사장들이 무시한 것처럼 백성들도 무시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공공연하게 행하여지는 죄악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인근 국가의 백성들 역시 그들의 우상숭배와 범죄를 전보다

더 대담하게 감행하였다. 그들은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실을 유지했더라면 그들이 느끼게 되었을 저희 죄의 흉악함을 느끼지 않았다. 그러나 보응의 날은 다가오고 있었다. 하나님의 권위가 무시되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태만히 여김과 멸시를 당했으므로 당신의 성호의 영광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신께서 개입하실 필요가 있었다. {PP 582.3}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고도 대제사장이나 선지자의 찬동도 없이 이 원정을 기도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오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장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 명가량이라." 사방으로 흩어지고 낙담한 군대가 진으로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라고 말하였다. 온 나라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만큼 그들의 죄가 무르익었는데도 그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죄가 이 무서운 재난의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의 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고 하였다. 여호와께서는 법궤를 진지로 가져가도록 명령하지도 않으셨고 허락하지도 않으셨다. 그러나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승리가 저희 것이 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엘리의 아들들이 법궤를 진중으로 가져올 때 큰 환호성을 올렸다. {PP 583.1}

블레셋 사람은 법궤를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보았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행하셨던 모든 기적들은 법궤의 권세의 덕분으로 간주되었다. 법궤가 도착할 때의 기쁨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은 "히브리 진에서 큰소리로 외침은 어찜이뇨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같이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고 말하였다. {PP 583.2}

블레셋 사람이 맹렬한 공격을 가했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큰 살육과 패배를 당했다. 군사 3만명이 싸움터에서 죽어 넘어지고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들은 법궤를 방어하려고 싸우는 동안에 죽임을 당하였다. 그리하여 또다시 장래의 모든 시대를 위한 증언,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의 죄악은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역사의 페이지에 남기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자들의 죄는 더욱더 크다. {PP 583.3}

일어날 수 있는 재난 중에서 가장 무서운 재난이 이스라엘에게 내렸다.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겨 원수의 소유가 되었다. 여호와의 임재와 능력의 상징이 저희 중에서 떠났을 때에 실제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나님의 진리와 능력에 대한 가장 놀랄 만한 계시가 이 성스러운 법궤와 연결되어 있었다. 전날에는 이 법궤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기적적 승리를 얻곤 했다. 금으로 만든 그룹의 날개는 법궤를 덮었고, 눈에 보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상징인 이루 말할 수 없는 속죄소의 영광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덮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법궤는 승리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이번 경우에는 법궤가 방벽이 될 수 없음이 밝혀졌고 온 이스라엘은 통곡하였다. {PP 584.1}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이 다만 명목상의 신앙에 불과했고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신앙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 법궤 속에 간직한 율법도 역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계명을 멸시하고 그 요구를 경시하여, 그들 중에 계시는 여호와의 성령을 슬프게 하였다. 백성들이 거룩한 계명을 순종할 때에 여호와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시고 당신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그들을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법궤를 하나님과 관련시키지도 않고, 당신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당신께서 나타내신 뜻을 존중하지도 않으면서 다만 그것을 바라보고만 있을 때에는, 그 법궤가 그들에게 보통 궤짝보다 더 유용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바라보듯이 마치 법궤 자체가 능력과 구원을 가진 것처럼 바라보았다. 그들은 법궤에 넣어 둔 율법을 범하였다. 법궤를 숭배하는 그 일이 그들을 형식주의와 위선과 우상숭배로 인도하였다. 그들의 죄가 그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켰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죄악을 버리기까지는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수 없으셨다. {PP 584.2}

법궤와 성소가 이스라엘 중에 있는 것으로 넉넉하지 않았다. 제사장들이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것으로는 넉넉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는 심중에 죄악을 품은 자의 요구를 들으시지 않으신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잠 28:9)고 기록되어 있다. {PP 584.3}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 나아갈 때에 눈멀고 늙은 엘리는 실로에 머물러 있었다. 엘리는 걱정스러운 예감을 가지고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는 “그 마음이 여호와의 궤로 인하여 떨리”는 까닭이었다. 엘리는 성막 문밖에 자리를 잡고 대로변에 앉아서 날마다 근심스럽게 전쟁터로부터 사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PP 585.1}

마침내 한 베냐민 사람이 “그 옷을 찢고 그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군대의 진에서 나와 성읍으로 가는 오르막길을 급히 올라가고 있었다. 그는 길가에 있는 그 노인 앞을 조심없이 지나쳐 마을로 달려가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무리에게 패배와 손실에 대한 기별을 전하였다. {PP 585.2}

슬피 울고 통곡하는 소리는 마침내 성막 곁에서 지키고 있는 엘리에게도 들려왔다. 사자를 엘리에게 데려왔다. 그 사람은 엘리에게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나이다고 말하였다. 엘리는 두려워 떨었으나 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으므로 그 말을 듣고도 견딜 수 있었다. 그러나 사자가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고 덧붙여 말했을 때에 그의 얼굴에는 말할 수 없는 고민의 모습이 지나갔다. 자기의 죄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욕돌리고 그분의 임재를 이스라엘에게서 거두시게 한 것을 생각할 때에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의 힘이 다 빠졌다. 그는 “자빠져…목이 부러져 죽었”다. {PP 585.3}

비느하스의 아내는 남편이 불경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한 여인이었다. 시부와 남편의 죽음과 그보다도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무서운 소식이 그를 죽게 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의 최후의 희망이 사라졌다는 것을 느끼고 이 불운한 시간에 탄생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즉 “영광이 없다”고 명명하고 숨을 거두면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말을 슬프게 반복하였다. {PP 585.4}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아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이방인의 희열을 오랫동안 허락하지도 않으실 것이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형벌하는 도구로써 블레셋 사람을 사용하시고 블레셋 사람을 형벌하는 데는 법궤를 사용하셨다. 과거 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당신을 순종하는 백성들의 힘과 영광이 되시기 위하여 법궤와 동행하였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는 여전히 법궤와 함께 하셔서 당신의 거룩한 율법을 범하는 자들에게 공포와 파멸을 가져다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때때로 당신의 가장 큰 원수를 당신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의 불충실을 벌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악인들은 이스라엘이 징계를 당하는 것을 보고 한동안 승리의 개가를 부를지 모르나, 그들도 역시 거룩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형벌을 당할 때가 올 것이다. 죄악을 품는 곳에는 어디든지 신속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형벌이 따를 것이다. {PP 585.5}

블레셋 사람들은 의기양양하게 법궤를 그들의 중요한 다섯 성읍 중의 하나인 아스돗으로 옮겨 그들의 신인 다곤 신당에 두었다. 그들은 지금까지 법궤와 동행하던 능력이 저희 것이 되고, 이 능력이 다곤의 능력과 연합하여 아무도 그들을 이겨 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튿날 신전에 들어갈 때에 그들은 깜짝 놀랄 만한 한 광경을 보게 되었다.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아 있었다. 사제들이 그 우상을 공손히 일으켜 다시 제자리에 세웠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에 그들은 다시 그 신상이 이상하게 머리와 손이 끊어진 채 법궤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우상의 상반신은 사람의 그것과 같고 하반신은 물고기와 같았다. 이제 인간의 모양과 같은 부분은 모두 절단되었고 다만 물고기의 몸만이 남아 있었다. 사제들과 백성들은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들은 이 신비스러운 사건을 그들 자신과 그들의 우상들이 히브리인의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할 것을 예고하는 불길한 징조로 생각하였다. 그들은 이제 법궤를 그들의 신전에서 옮겨 어떤 건물 속에 따로 두었다. {PP 586.1}

아스돗 거민들은 비참하고도 치명적인 질병으로 침을 당하였다.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재앙을 기억하고 그들이 당하는 고통은 그들 중에 법궤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법궤를 가드로 옮기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재앙은 법궤를 옮긴 곳으로 따라갔으므로 그 성읍 사람들이 법궤를 다시 에그론으로 보냈다. 이 곳 백성들은 법궤를 받고 두려워하며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고 부르짖었다. 그들은 가드와 아스돗 백성들처럼 저희 신들에게 가서 보호를 구하였으나 파괴자의 활동은 계속되어 마침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치"게 되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집에 두기가 무서워 백성들은 그 법궤를 들에 갖다 두었다. 그러자 그 다음에는 쥐들의 재앙이 뒤따라 그것들이 토지를 해치고 창고와 들에 있는 모든 땅의 소산을 멸하였다. 질병이나 기근으로 인한 철저한 파멸은 이제 온 민족을 위협하였다. {PP 586.2}

7개월 동안 법궤는 블레셋에 머물러 있었으나 이 모든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전에 저희가 법궤를 취하려고 고심했던 것처럼 이제는 법궤를 없애려고 고심하였다.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힘의 근원이 되는 대신에 무거운 짐과 큰 저주가 되었다. 그러나 법궤가 가는 곳에는 어디든지 하나님의 형벌이 따랐으므로 그들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지 못했다. 백성들이 그 나라의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함께 불러 진지하게 묻기를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꼬 그것을 어떻게 본처로 보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하였다. 그들은 값진 속건제를 드려 법궤를 돌려보내라는 권고를 받았다.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연고도 알리라"고 제사장들이 말했다. {PP 586.3}

옛날에 이방인 중에는 재앙을 예방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금이나 은이나 다른 물질로 파멸을 일으키는 것이나 특별히 침해를 받은 대상이나 몸의 일부분을 우상으로 만드는 관습이 있었다. 이 우상을 기둥 위에나 눈에 잘 뜨이는 곳에 세워 두면 그것이 대표하는 해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아직도 어떤 이교도들 중에는 이와 비슷한 관습이 남아 있다.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낫기 위하여 그의 우상의 신전에 갈 때에 그는 아픈 부분의 형상을 만들고 가서 그것을 자기들의 신에게 제물로 바친다. {PP 587.1}

블레셋 방백들은 그 당시 성행하던 미신에 따라 백성들에게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질병의 형상, 곧 그들이 말한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효대로 금독종 다섯과 금쥐 다섯"을 만들라고 명하면서 "너희와 너희 방백에게 내린 재앙이 일반임이라" 하였다. {PP 587.2}

이 현명한 자들은 이 신비스러운 능력, 곧 그들의 지혜로는 도무지 대처할 수 없는 능력이 법궤와 같이 하는 능력임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에게 우상숭배를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고 권고하지 않았다. 그들은 무서운 형벌에 못 이겨 억지로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했으나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증오하였다. 이와 같이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형벌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헛된 일임을 깨닫는다.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억지로 복종할지 모르나 그 반면에 그들의 마음은 당신의 지배에 대하여 반역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복종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다. 인간의 회개가 가납되기 전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부드러워져야 한다. {PP 587.3}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얼마나 큰가! 우상을 숭배하는 블레셋 사람과 타락한 이스라엘이 모두 하나님의 선물을 향유하였다. 눈에 띄지 않는 무수한 은혜가 감사치 않고 반역만 하는 사람들의 길에 고요히 내리고 있었다. 모든 축복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말했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무관심하였다. 인간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참으심이 말할 수 없이 컸으나 그들이 완고하게 회개하지 않기를 고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보호의 손길을 그들에게서 거두셨다. 그들은 당신의 창조물과 경고와 권고와 책망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형벌을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으셨다. {PP 587.4}

블레셋 사람 중에는 법궤를 그 본토로 돌려보내는 일을 반대한 자들이 있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자존심을 욕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백성들을 권하여 바로와 애굽인들의 강퍅함을 본받지 말도록 했다. 그들이 그와 같이 하면 자신들에게 더욱더 큰 고난을 가져올 것이라고 하였다. 이제 그 제의를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의 동의를 얻은 후에 계획을 즉시 실행하였다. 법궤를 금으로 만든 속건 제물과 함께 새 수레에 실어 법궤의 신성성을 더럽힐 모든 위험을 제거하고, 이 수레를 목에 멍에를 멘 일이 없는 암소 두 마리에 메웠다.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보내고 암소들을 저희가 원하는 대로 가게 하였다. 그리하여 만일 법궤가 가장 가까운 레위인의 성읍 벧세메스 길을 따라 이스라엘인에게로 돌아가면, 블레셋 사람은 이것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리셨다는 증거로 받아들일 것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고 말하였다. {PP 588.1}

마음대로 가도록 놓아 주자 그 암소들은 저희 어린 새끼들을 떼어놓고 울면서 벧세메스 길로 향해 곧바로 나아갔다. 천사들의 손의 안내를 받아 참을성 있는 짐승들은 계속 저희 길로 나아갔다. 하나님의 임재가 법궤와 동행하여 지정된 장소에 안전히 도착하였다. {PP 588.2}

그 때는 밀을 추수하는 때였으므로 벧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고 있었다.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것의 보임을 기뻐하였더니 수레가 벧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렸"다. 법궤를 따라 "벧세메스 변경까지" 왔던 블레셋 방백들은 벧세메스 사람들이 그 궤를 받아들이는 것을 목격하고 에그론으로 돌아갔다. 재앙이 멎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저희의 재난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형벌임을 확신했다. {PP 588.3}

벧세메스 사람들은 법궤가 돌아왔다는 기별을 빨리 퍼뜨렸으므로 인근 시골의 백성들이 법궤가 돌아온 것을 환영하기 위하여 모여들었다. 법궤를 처음에 제단으로 쓰던 돌 위에 안치하고 그 앞에서 더 많은 희생 제물을 여호와께 드렸다. 만일 예배자들이 저희 죄를 회개하였더라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과 함께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충실히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법궤가 돌아온 것이 좋은 일의 전조라고 기뻐한 반면에 법궤의 신성에 대한 참된 깨달음이 없었다. 그들은 법궤를 받아들일 적당한 장소를 준비하는 대신에 그것을 추수하는 들판에 방치해 두었다. 그들은 계속하여 거룩한 궤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돌아오게 된 놀라운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그러는 중에 이 법궤의 신비한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추측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들은 호기심에 못 이겨 덮개를 걷어치우고 감히 법궤를 열었다. {PP 589.1}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경외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법궤를 이곳저곳으로 옮길 필요가 있을 때에도 그것을 옮기는 레위인들조차 법궤를 바라볼 수 없었다. 오직 일 년에 한차례씩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의 법궤를 바라볼 수 있는 허락을 받았다. 이교도인 블레셋 사람들조차도 감히 법궤의 뚜껑을 열어 보지 않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천사들이 법궤를 옮기는 모든 기간 동안 법궤를 수행하였다. 벧세메스 백성들의 불경한 행동은 신속한 처벌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돌연히 죽임을 당했다. {PP 589.2}

살아남은 자들은 이 형벌을 통하여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다만 미신적인 공포심을 가지고 법궤를 바라보게 되었다. 벧세메스 사람들은 법궤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를 갈망하였으나 감히 그것을 옮기지 못하고 기랏여아림 거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법궤를 가져가도록 요청하였다. 이 곳 주민들은 큰 기쁨으로 신성한 궤를 환영하였다. 그들은 이것을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의 보증으로 알았다. 그들은 장엄한 기쁨으로 법궤를 그들의 성읍으로 옮겨 와 레위 사람 아비나답의 집에 안치하였다. 아비나답은 그 아들 엘리아살에게 명하여 법궤를 돌보게 하였고 법궤는 여러 해 동안 그 곳에 머물러 있었다. {PP 589.3}

여호와께서 처음으로 한나의 아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신 때로부터 이제까지 온 나라는 사무엘이 선지자의 직분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사무엘은 그 의무가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었지만 엘리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충실히 전달함으로 여호와의 사신으로서의 자신의 성실성을 입증하였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PP 589.4}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족적으로 여전히 참 종교를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으므로 그에 대한 형벌로서 블레셋 사람들의 속박에 머물러 있게 되었다. 이 기간 중 사무엘은 전국 각 성읍과 동리들을 순회하며 백성들의 마음을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로 돌리려고 노력하였으나 그의 노력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20 년간 원수의 압박으로 고생을 당한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사모하”였다. 사무엘은 그들에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행하여 그만 섬기라”고 권고하였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가르치신 것처럼 사무엘의 시대에도 실제적 경건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생활을 가르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는 신앙의 외형적 형식은 고대 이스라엘에게 아무 가치가 없었다. 그들도 현대 이스라엘과 동일하다. {PP 590.1}

오늘날도 고대 이스라엘이 경험한 것과 같은 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의 부흥이 필요하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모두 내딛어야 할 첫 계단이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 일을 할 수 없다. 우리들은 각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우리들의 우상을 버려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때에 주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구원을 나타내실 것이다. {PP 590.2}

각 지파의 두령들의 협력으로 큰 무리가 미스바에 모였다. 이곳에서 엄숙한 금식을 실시했다. 백성들은 깊이 겸비하면서 저희 죄를 자복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들은 교훈을 순종한다는 결심의 증거로 사무엘에게 사사의 권한을 주었다. {PP 590.3}

블레셋 사람은 이 모임을 전쟁을 위한 집결로 오인하고 강한 군대를 보내어 그들의 계획이 성숙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분산시키고자 하였다. 블레셋인이 접근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라고 간청하였다. {PP 590.4}

사무엘이 어린양을 번제로 드리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은 싸우기 위하여 다가왔다. 그 때에 불과 연기와 우레 가운데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요단강에 길을 내셨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셨다. 맹렬한 폭풍이 진군하는 군대를 쳐서 땅은 강한 전사들의 시체로 덮였다. {PP 590.5}

이스라엘 사람들은 겁에 질려 말없이 서 있었다. 그들은 희망과 공포심으로 떨었다. 그들의 원수의 살육을 바라볼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저들의 회개를 가납하셨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들은 전쟁에 대한 아무 준비가 없었지만 살육된 블레셋 사람들의 무기를 탈취하여 도망하는 군대를 벧갈까지 추격하였다. 이 현저한 승리는 20년 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제사장들이 살해되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던 바로 그 전쟁 마당에서 거뒀다. 각 개인과 마찬가지로 민족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을 순종하는 길은 안전과 행복의 길인 반면 범죄의 길은 그들을 재난과 패배로 인도할 뿐이다. 블레셋 사람은 이제 완전히 정복당하여 이스라엘에게서 탈취한 요새들을 도로 내주고 여러 해 동안 적대 행위를 하지 않았다. 다른 민족들도 이 모본을 따랐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의 일인 정치가 마칠 때까지 평화를 누렸다. {PP 591.1}

사무엘은 그 때 일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돌을 기념비로 세웠다. 사무엘은 이것을 에벤에셀 즉 “도움의 돌”이라 부르고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말하였다. {PP 591.2}

58장 선지자 학교

여호와께서는 친히 이스라엘의 교육을 지도하셨다. 그분의 돌보심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관심사에 국한되지 않았다. 그들의 지적 혹은 육체적 안녕에 영향을 주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이며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었다. {PP 592.1}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당신의 요구를 저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당신께서 저희 조상들을 취급하신 일에 대하여 잘 알게 하도록 명하셨다. 이것은 모든 부모들의 특별한 의무, 곧 다른 이들에게 위임하지 말아야 할 의무 중에 하나였다. 낯선 사람의 입술 대신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의 마음이 저희 자녀들에게 교훈을 주어야 하였다. 하나님께 대한 생각은 일상생활의 모든 일과 관련되어야 하였다.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오실 구주에 대한 언약들은 이스라엘인들의 가정에서 자주 자세히 설명되어야 하였다. 그리고 표상과 상징을 통하여 그 교훈들이 더욱 잘 기억되게 하였다. 하나님의 섭리와 내세에 대한 대진리가 젊은이들의 마음에 감명을 주었다. 자연의 경치와 계시의 말씀에서 똑같이 하나님을 보도록 교육을 받았다. 하늘의 별들, 들의 나무와 꽃들, 높은 산, 잔물결을 일으키는 시내 이 모든 만물은 창조주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성소에서 거행되는 제사와 엄숙한 예배 의식과 선지자들의 말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였다. {PP 592.2}

모세는 고센 땅의 천한 오두막집에서, 사무엘은 충성스런 한나의 곁에서, 다윗은 베들레헴 언덕에 있는 거처에서, 다니엘은 포로가 되어 조상의 집을 떠나기 전에 그와 같은 교육을 받았다. 나사렛에서의 그리스도의 초기 생애도 역시 그와 같았으며 “외조모 로이스와…어머니 유니게”(딤후 1:5, 3:15)의 입술로부터 성경을 배운 아이 디모데도 그와 같은 교육을 받았다. {PP 592.3}

선지자 학교를 설립함으로 젊은이들의 교육을 위한 준비가 한층 더 갖추어지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더욱 깊이 연구하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여 이스라엘의 교사가 되고자 갈망하는 젊은이들에게 이 학교는 열려 있었다. 사무엘은 보편화된 부패에 대한 방벽이 되고 청년들의 도덕적 영적 복리를 도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와 고문으로 봉사할 자격 있는 사람들을 배출시킴으로 장래의 민족적 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지자 학교를 세웠다. 사무엘은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경건하고 총명하고

배우기를 갈망하는 젊은이들의 무리를 모았다. 이들은 선지자들의 아들들이라 불렸다. 그들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업을 연구했을 때에 그들의 타고난 재주에 하늘의 지혜가 첨가되었다. 교사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조예가 깊었을 뿐 아니라 친히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특별한 재능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학식과 경건, 이 두 가지에 있어서 백성들의 존경과 신임을 받았다. {PP 593.1}

사무엘 당시에는 이러한 선지자 학교가 두 개 있었는데 하나는 선지자의 고향 라마에, 다른 하나는 그 당시 법궤가 있던 기랏여아림에 있었다. 다른 학교들은 그 후에 설립되었다. {PP 593.2}

이 학교의 학생들은 토지를 경작하거나 어떤 육체노동에 종사하여 자신들의 노력으로 자활했다. 이스라엘에서 이것은 이상하거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 생각되지 않았다. 실제로는 자녀들이 유용한 노동을 알지 못하고 장성하도록 놔두는 것은 범죄라고 생각하였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모든 자녀들은 어떤 일을 배워야 하였으며 비록 성직을 위하여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했다. 많은 종교적 교사들은 노작으로 자급하였다. 사도 시대와 같은 근대에도 바울과 아굴라가 장막을 만드는 직업으로 생계를 유지했으며 그로 인해 존경을 덜 받지 않았다. {PP 593.3}

이들 학교의 주요 학과는 하나님의 율법과 모세에게 주신 교훈과 거룩한 역사와 거룩한 음악과 시가였다. 교수 방법은 많은 학생들이 입학할 때보다 하나님께 대한 참 지식과 종교적 진리를 덜 가지고 졸업하는 오늘날의 신학교들의 교수 방법과는 훨씬 달랐다. 이러한 고대의 학교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에 대한 인간의 의무를 배우는 것이 모든 학과 중에 가장 으뜸 되는 것이었다. 거룩한 역사의 기록에서 여호와의 발자취를 찾을 수 있었다. 표상으로 설명된 큰 진리들이 나타났고 그 모든 제도의 중심적인 대상, 곧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양을 믿음으로 붙잡았다. {PP 593.4}

학생들은 헌신의 정신을 품었으며 그들의 기도의 의무에 대하여 배울 뿐 아니라 기도하는 법과 창조주께 접근하는 법, 창조주께 대한 신앙을 행사하는 법과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웠다. 성화된 지력은 하나님의 보고에서 새로운 것과 옛 것을 이끌어 내었고 하나님의 성령은 예언의 성가(聖歌) 속에 나타났다. {PP 594.1}

음악은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졌다. 그것은 사람들로 순결하고 고상하고 향상하도록 저들의 사상을 높이고 영혼 속에 하나님께 대한 헌신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일깨워 주도록 만들어졌다. 음악에 대한 고대의 관습이나 용도와, 오늘날 흔히 음악이 쓰이는 용도 사이에는 얼마나 큰 대조를 이루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선물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대신에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세속적인 음악에 대한 사랑이 방심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지 말라고 금하신 쾌락의 장소에 가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과 연합하게 한다. 그리하여 올바로 사용하면 큰 축복이 될 음악이,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저들의 의무와 영원한 사물을 명상하는 일에서 유혹해 내는 가장 성공적인 매개물 중의 하나가 된다. {PP 594.2}

음악은 하늘 궁정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일부를 이루므로 우리들의 찬양의 노래를 가능한 한 하늘 합창대의 화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음성을 올바로 계발하는 일은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교육의 한 부분이다. 종교적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 노래하는 것은 기도가 예배에서 중요한 것만큼 중요하다. 마음은 그 노래의 정신을 느껴야 하며 그 정신은 올바로 표현되어야 한다. {PP 594.3}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가르친 이 방법들과 현대 우리들의 교육 기관 사이에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세상의 처세법과 관습으로 다스리지 않는 학교가 얼마나 드문가! 올바른 제지와 현명한 훈육이 한심할 만큼 부족하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백성 중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는 참으로 놀랄 만하다. 천박한 담화, 단순한 감상주의가 품행과 종교의 교육으로 통한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신성함의 아름다움, 옳은 일에 대한 분명한 보상, 죄의 흉악한 성질, 죄의 무서운 결과의 확실성 등은 젊은이들의 마음에 감명을 주지 못한다. 악한 동료들은 젊은이들에게 범죄와 유혹과 방탕의 길을 가르치고 있다. {PP 594.4}

오늘날의 학교 교육자들이 고대 히브리 학교에서 무엇인가 유익한 교훈들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성장을 위하여 준비하셨다. 그러므로 교육에 있어서 참된 성공은 사람들이 창조주의 계획을 수행하는 성실성에 달려 있다. {PP 595.1}

참 교육의 목적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고상한 특성을 부여하셨다. 인간의 마음은 균형이 잘 잡혀 있었고 온 몸의 능력은 모두 다 잘 조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타락과 그 결과는 이 선물들을 그르쳤다. 죄는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고 거의 말살시켰다.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이 세워지고 유예의 생명이 허락된 것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함이었다. 다른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인간의 목적은 인간이 처음 창조 받을 그 때의 완전함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청년들의 교육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과 협력하는 것이 부모와 교사들이 해야 할 일이며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전 3:9) 된다. {PP 595.2}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영혼과 몸의 여러 가지 재능들은 가능한 최고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나 이것들은 이기적으로나 배타적인 목적으로 연마되어서는 안 되었다. 이는 우리가 닮고자 하는 하나님의 품성은 자비와 사랑인 까닭이다.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모든 재능과 모든 특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동포들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사용한 것은 가장 순결하고, 가장 고상하고, 가장 복되게 사용된 것임이 판명될 것이다. {PP 595.3}

만일 이 원칙들을 그 중요성을 감안해서 유의했더라면 현행 교육 방법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것이다. 교만과 이기적인 야심에 호소하거나 경쟁심을 불붙이는 대신에 교사들은 선과 진리와 미에 대한 사랑을 분기시켜 미덕에 대한 열망을 일으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학생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을 개발하려고 노력할 것이며 다른 사람을 능가하려고 애쓰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은 창조주의 목적을 성취하고 창조주의 형상을 닮고자 할 것이다. 단순히 이 세상 표준에 따라 행하거나 자고(自高)하고자 하는 욕망에 따라 행함으로 자신을 위축시키고 저하시키는 대신에, 창조주를 알고 창조주와같이 되기 위하여 저들의 마음이 창조주께로 향할 것이다. {PP 595.4}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잠 9:10). 인생의 최대의 사업은 품성을 건설하는 일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참 교육의 기초가 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나누어 주고 그것과 일치하는 품성을 형성시키는 일이

교사의 사업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율법은 당신의 품성의 사본이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우므로”,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시 119:172, 104)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과 창조하신 만물을 통하여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우리는 영감으로 기록된 책과 자연의 책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PP 596.1}

마음은 명상하도록 훈련을 받은 주제에 점차로 순응한다. 그것이 마음의 법칙이다. 만일 마음이 평범한 것들만으로 차 있다면 마음은 위축되고 약하게 될 것이다. 한 번도 어려운 문제와 씨름해 보지 못한 마음은 얼마 후에는 성장의 능력을 거의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교육하는 능력으로 말하면 성경을 당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사람들의 마음은 가장 깊은 생각과 가장 높은 포부에 대한 주제를 찾을 수 있다. 성경은 인간이 소유한 가장 교훈적인 역사서이다. 그것은 영원한 진리의 샘으로부터 신선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손길이 각 시대를 통하여 그 순결을 유지하여 오셨다. 그것은 인간이 통찰하려고 애썼으나 허사였던 아득한 옛날을 비춰 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지상의 기초를 놓고 하늘을 펴신 능력을 바라볼 수 있다. 여기서만 우리는 인간의 편견이나 인간의 교만심에 의하여 더럽혀지지 않은 우리 인류의 역사를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는 일찍이 이 세상에 알려진 가장 위대한 사람들의 투쟁과 패배와 승리에 대한 기록이 있다. 여기에 인간의 의무와 운명의 큰 문제가 공개되어 있다.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로막은 휘장이 들리우고, 우리는 처음 죄악이 들어온 때로부터 의와 진리가 영원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의 선의 군대와 악의 군대가 서로 싸우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품성의 계시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진리를 경건하게 고찰할 때에 학생들의 마음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교통하게 된다. 이와 같은 연구는 품성을 향상시키고 고상하게 할 뿐 아니라 지력을 넓히고 고무시키지 않을 수 없다. {PP 596.2}

성경의 가르침은 현세에 관계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인류의 번영에 필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국가 번영의 초석이 되는 원칙들, 곧 사회의 안녕과 가정의 방벽이 되는 원칙들을 제시한다. 이 원칙들을 도외시하고는 아무도 현세에서 유용함과 행복과 영예를 얻을 수 없고 장래에 불멸의 생명도 얻을 수 없다. 성경의 가르침이 필수적인 준비가

되지 않는, 인생에서의 지위나 인간의 경험 분야는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순종한다면 인간의 모든 분야의 철학을 면밀히 연구한 것보다 더 뛰어난 강력하고 활동적인 지성인들을 배출할 것이다. 이 말씀은 힘 있고 견고한 품성을 가진 사람, 예리한 지각과 건실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에게 축복이 될 사람들을 배출할 것이다. {PP 599.1}

우리들은 과학을 연구하는 중에서도 역시 창조주께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모든 참 과학은 물질세계에서 하나님의 솜씨를 설명하는 데 불과하다. 과학의 연구는 다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 뿐이다. 바로 이해되면 자연의 책과 기록된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지혜롭고 자비스러운 법칙들을 가르쳐 줌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게 한다. {PP 599.2}

학생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삼라만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야 한다. 교사들은, 자연의 익숙한 풍경에서 예증을 끌어내시고 단순하게 가르치심으로 청중들의 마음에 보다 깊은 감명을 주셨던 크신 교사의 모본을 따라야 한다. 잎이 무성한 나뭇가지에서 지저귀는 새들, 골짜기에 피어 있는 꽃들, 하늘을 찌를 듯한 나무들, 곡식이 무르익은 들판, 자라나는 곡식, 불모의 땅, 하늘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저녁놀 이 모든 것이 예수께서 가르치는 데 사용하신 매개물이었다. 예수께서는 눈에 보이는 창조주의 사업을 당신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말씀과 연결시키셨으므로, 당신의 청중의 눈에 이 대상물이 나타날 때에는 언제든지 그들의 생각이 당신께서 그것들과 연결시킨 진리의 교훈을 회상할 수 있게 하셨다. {PP 599.3}

계시의 페이지에 나타난 하나님의 흔적은 높은 산과 비옥한 골짜기와 넓고 깊은 대양에서도 볼 수 있다. 자연계의 사물은 창조주의 사랑을 인류에게 말해 준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무수한 증거로 우리를 당신과 연결시키셨다. 이 세상은 모두가 슬픔과 비애뿐만은 아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는 문구는 방싯방싯 피는 꽃봉오리마다. 뾰족뾰족 싹트는 풀잎사귀마다 기록되어 있다. 비록 죄의 저주는 세상에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가져왔으나 엉겅퀴에도 꽃이 피고 가시덩굴에도 장미꽃이 덮인다. 자연의 삼라만상은 우리 하나님의 인정 있고 자부적(慈父的)인 권고와 그 자녀를 행복되게 하시려는 그분의 희망을 증거한다. 하나님이 내리신 금지와 명령은 단지 당신의 권위를

나타내시고자 하심이 아니다.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행복을 고려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저희 최대의 이익이 될 것은 무엇이든지 버리도록 요구하지 않으신다. {PP 599.4}

종교가 이 세상에서 건강이나 행복에 공헌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가장 해로운 오류 중의 하나이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낸"(잠 19:23)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궤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시 34:12~14). 지혜의 말씀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잠 4:22). {PP 600.1}

참된 신앙생활은 인류를 육체적 · 지적 ·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시킨다. 신앙은 자제와 침착과 절제를 가르친다. 종교는 마음을 고상하게 하고 취미를 세련시키고 판단을 성화시킨다. 그것은 영혼들로 하늘의 순결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지배하시는 섭리에 대한 신앙은 걱정과 근심의 짐을 덜어 준다. 이것은 최고의 행운에서나 최악의 불운에서도 마음을 기쁨과 만족으로 충만하게 한다. 신앙생활은 직접 건강을 증진시키고 생명을 연장하고 그 모든 축복의 기쁨을 증대시킨다. 이것은 영혼들에게 무진장한 행복의 샘을 열어 준다. 그리스도를 택하지 않은 모든 사람이 저희 스스로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그리스도께서 주시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노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게 생각하고 행동할 때에 그는 자기의 영혼에게 가장 큰 해를 입히고 자신을 부당하게 취급하는 것이다. 무엇이 가장 좋은 것임을 아시고 그의 피조물들의 행복을 위하여 계획하시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길에서는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 없다. 범죄의 길은 비애와 멸망으로 인도하나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잠 3:17). {PP 600.2}

히브리인의 학교에서 실행한 체육 교육은 신앙 교육만큼이나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인간의 정신과 육체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도덕적으로나 지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체를 지배하는 법칙들에 주의하여야 한다. 강하고 잘 조화된 품성을 얻기 위하여 지적 · 육체적 능력을 행사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이 경이로운 신체 조직을 다루고 이를 건강하게 보존할 수 있게 하는 법칙을 연구하는 것보다 청년들에게 더 중요한 학과가 무엇이겠는가. {PP 601.1}

이스라엘의 시대에서처럼 지금도 모든 청년들은 실생활의 의무들에 대하여 배워야 한다. 각자는 어떤 분야의 수공에 대한 지식을 얻어야 할 것이며 만일 필요한 경우에는 그것으로 저희 생계를 이어갈 수 있다. 그것은 생활의 변동에 대한 보호책일 뿐 아니라 육체적·지적·도덕적 발전에 필요한 것이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수공에 의지해야 할 필요가 없는 자들까지도 일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육체적 노동 없이는 건전한 신체와 활력이 넘치는 건강을 소유할 수 없다. 규칙적인 노동으로 단련하는 것은 강하고 활동적인 지력과 고상한 품성을 얻는 데 필요하다. {PP 601.2}

학생들이 매일 얼마의 시간을 노동에 바칠 때 근면의 습관이 형성되고 독립 정신이 촉진되는 반면 게으름으로 일어나는 악하고 부패한 행위에서 보호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교육의 근본 목적과 일치되는 것이며 활동과 근면과 순결을 촉진시킴으로 우리는 창조주와 조화를 이루게 된다. {PP 601.3}

청년들로 하여금 저희를 창조하신 목적,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에게 축복이 되게 하신 목적을 깨닫게 하고, 그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나타내신 부드러운 사랑과 현세의 훈련으로 그것을 얻기 위해 준비해야 할 높은 운명, 즉 저희를 불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그 고상한 명예를 알게 하라. 그리하면 무수한 청년들이 수치심과 염오감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까지 열중하던 저열하고 이기적인 목적과 천박한 향락에서 돌아설 것이다. 그들은 다만 보상에 대한 희망이나 형벌에 대한 공포심에서가 아니라 죄의 근본이 비열한 것을 느끼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피하기를 배울 것이니 이는 죄가 그들의 천부의 능력을 부패시키고 인격에 오점을 찍기 때문이다. {PP 601.4}

하나님께서는 청년들에게 큰 포부를 품지 말도록 명하시지 않으신다. 사람들 속에서 성공하고 명예를 얻을 수 있게 하는 품성의 요소, 곧 보다 큰 행복에 대한 억제할 수 없는 욕망, 불굴의 의지, 열렬한 노력, 끈기 있는 인내 등을 깨뜨려 버리지 말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적이요 일시적인 이익보다 훨씬 더 높은 사물,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높은 사물로 향해야 한다. 현세에서 시작된 교육은 내세에까지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의 경이로운 사업, 곧 우주를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당신의 지혜와 능력의 증거와 구원의 계획 가운데 나타난 사랑과 지혜의 무한한 신비가 날마다 새로운 아름다움을 가지고 마음에 전개될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고전 2:9)한 것이다. 현세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희미하게 볼 수 있고 하늘과의 교통을 맛볼 수는 있으나 그 기쁨과 축복의 충만함은 내세에서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영원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운명을 드러내 줄 수 있을 것이다. {PP 602.1}

59장 이스라엘의 첫 왕

이스라엘 정부는 하나님의 성호와 하나님의 권위로 다스려졌다. 모세와 70인 장로들과 관원들과 사사(士師)들은 단순히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집행할 뿐이었다. 그들은 국가의 법률을 제정할 권한이 없었다. 각 시대를 통하여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율법을 집행하도록 파송되었다. {PP 603.1}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리라는 것을 미리 아셨으나 국가의 기초가 되는 원칙들을 변경시키는 데 동의하지 않으셨다. 왕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야 하였다. 하나님을 국가의 원수로 인정해야 하고 당신의 율법을 지상의 최고의 법으로서 실행하여야 하였다. {PP 603.2}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가나안에 정착하였을 때에 신정 정치(神政政治)의 원칙을 인정하였고 온 국민이 여호수아의 통치 하에서 번영을 누렸다. 그러나 인구가 증가하고 다른 민족들과 교제함으로 변화를 가져왔다. 백성들은 이웃 이교도들의 많은 습관을 모방함으로 저희 자신들의 독특하고 거룩한 특성을 대부분 희생하였다. 점차로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존경심을 잃어버리고 그분의 선민이 된 영예를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 이방 군주들이 과시하는 화려함에 매력을 느낀 그들은 자신들의 단순함에 싫증을 느꼈다. 각 지파들 사이에는 질투와 시기심이 샘솟듯했다. 내부의 분쟁은 그들을 약하게 하였다. 끊임없이 이방 원수들의 침략을 당하였으므로 백성들은 열국 중에서 저희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지파들이 강한 중앙 정부 하에 연합되어야 한다고 믿게 되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길에서 떠나갈 때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군주에 대한 요구가 온 이스라엘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PP 603.3}

여호수아의 시대 이래 사무엘의 통치 시대처럼 그렇게 큰 지혜로 성공적인 정치를 하던 때가 없었다. 사무엘은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란 삼중 직분을 하나님께 받고 백성의 행복을 위하여 끈기 있고 사심이 없이 열심으로 노력하여 그 나라를 그의 현명한 통치 하에서 번영하게 만들었다. 질서가 회복되고 경건이 증진되어 한동안 불만의 정신이 저지되었다. 그러나 선지자 사무엘은 연로하여 정치적 책임을 다른 사람과 분담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그의 두 아들을 임명하여 그를 보좌하게 하였다. 사무엘이 라마에서 그의 직무를 계속하는 한편 이 청년들은 브엘세바에 주재하여 그 나라의 남방 변경 근처에 있는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을 하였다. {PP 603.4}

사무엘은 온 국민의 동의를 얻어 그의 아들들을 그 직무에 임명하였으나 그들은 그런 임명에 합당한 사람들임을 스스로 입증해 주지 못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관원들은 의롭게 재판하고 과부와 고아를 공정하게 다루고 뇌물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특별한 명령을 주셨다. 그러나 사무엘의 아들들은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였다. 선지자의 아들들은 선지자가 저희 마음에 감명을 주고자 노력한 교훈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은 저희 아버지의 순결하고 무아적인 생애를 본받지 않았다. 엘리에게 주어진 경고는 사무엘의 마음에 마땅히 감화를 끼쳐야 할 만큼 감화를 끼치지 못하였다. 사무엘은 어느 정도 아들들을 제멋대로 하도록 방임하였으므로 그 결과가 그들의 품성과 생활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PP 604.1}

이 사사들의 비행은 많은 불만을 일으켰으며 그것을 핑계 삼아 오랫동안 은밀히 갈망하던 변화를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백성 중에 있는 수많은 사악한 사건들은 사무엘의 귀에 들어가지 않았다. 만일 그의 아들들의 악한 행위를 알았더라면 사무엘은 지체 없이 그들을 해임시켰을 것이다. 그러나 간청자들의 바라는 바는 그것이 아니었다. 사무엘은 그들의 진정한 동기가 불만과 교만심에 있었으며 그들의 요구는 계획적이고 단호한 목적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았다. 사무엘에 대해서는 아무런 불평도 없었다. 그의 성실하고 지혜로운 통치를 모든 사람이 인정하였으나 이 연로한 선지자는 이 요구를 자신에 대한 비난과 그를 제거하려는 직접적인 노력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의 감정을 나타내거나 책망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기도로 여호와께 아뢰어 오직 그분으로부터 어떤 권고를 구하였다. {PP 604.2}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선지자는 일개인으로서 백성들이 자신에게 보여 준 행동으로 인하여 슬퍼한 일로 책망을 받았다. 백성들은 사무엘에 대하여 무례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고 당신의 백성의 관원들을 임명하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 무례함을 나타냈다. 하나님의 충실한 종을 멸시하고 거절하는 자들은 단순히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를 보내신 주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무시를 당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책망과 권고였으며 거절당한 것은 하나님의 권위였다. {PP 605.1}

이스라엘이 최대의 번영을 누리던 시대는 저희가 여호와를 저희 왕으로 승인하던 시대, 곧 당신께서 세우신 율법과 정사를 다른 모든 민족의 그것들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한 시대였다. 모세는 여호와의 계명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신 4:6).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감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시고자 하신 백성이 되는 데 실패하였다. 그리고 저희 죄와 어리석음의 결과로 이르러온 모든 재해를 하나님의 정치의 잘못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들은 죄로 인하여 이처럼 완전히 눈멀게 되었다. {PP 605.2}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왕의 통치를 받으리라고 예언하셨다. 그러나 이 정치 형태가 이스라엘에게 가장 좋은 것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도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자신들의 선택을 따르도록 허락하셨다. 이는 그들이 당신의 권고를 거절한 까닭이었다.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분노하심으로 그들에게 왕을 주셨다고 선언하였다(호 13:11).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고를 구하지 않고 당신께서 나타내신 뜻과 반대되는 데도 불구하고 저들의 마음대로 하고자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들의 원하는 바를 허락하심으로 뒤따르는 쓰라린 경험을 맛보게 하여 그들로 저희 어리석음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도록 하신다. 인간의 교만과 지혜는 위험한 안내자라는 것이 밝혀질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마음의 욕망은 결국 축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저주가 된다는 것이 판명될 것이다. {PP 605.3}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법자와 능력의 근원으로서 백성들이 오직 당신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에 그들은 끊임없이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리게 될 것이다. 그들은 향상하고 고상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저희를 당신의 선민으로 부르신 높은 운명에 적합하게 될 것이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될 것이었다. 백성들은 인간의 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덜 의지함으로 저희 왕의 과오는 그들로 죄에 빠지게 하고 그 민족을 하나님과 분리시킬 것이었다. {PP 606.1}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백성들의 요구를 허락하되 여호와께서 찬성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경고하고, 또한 그들의 행동의 결과를 그들에게 알리라고 지시하셨다.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일러"주었다. 사무엘은 저희가 당하게 될 압박을 분명하게 알려 주고 그와 같은 압박 상태와 그들이 지금 누리는 자유스럽고 번영하는 상태 사이에 엄청난 차이점을 충실하게 보여 주었다. 저희 왕은 다른 군주들의 성대한 의식과 사치를 모방할 것이므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의 몸과 재산에 무거운 부담을 지울 것이다. 왕은 백성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청년들을 뽑아 자기의 종으로 삼을 것이다. 그들을 병거 모는 자와 말 타는 자와 왕 앞에 달리는 자로 삼을 것이다. 그들은 왕의 군대의 대오를 채워야 하며 그의 밭을 갈고 그의 곡식을 거두고 그의 군대를 위하여 전쟁 도구들을 생산해야 할 것이다. 그는 또 이스라엘의 딸들을 취하여 왕족들을 위한 요리사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다. 그는 왕다운 면모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친히 백성에게 하사하신 그들의 땅 중에 가장 좋은 부분을 취할 것이다. 그는 그들의 노비와 또한 가축 중에서 가장 귀중한 부분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다. 이 모든 것 위에 왕은 그들의 모든 수입, 즉 저희가 노동하여 얻은 것이나 땅의 소산의 10분의 1을 요구할 것이다.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고 선지자는 결론을 내리고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고 말하였다. 일단 군주 정치가 제정되면 그 부담이 견딜 수 없이 무거워지고 가혹할지라도 그것을 마음대로 버릴 수 없을 것이다. {PP 606.2}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라고 대답하였다. {PP 607.1}

"열방과 같이" 되고자 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과 같지 아니한 바로 그 점이 그들의 특별한 특권과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을 다른 모든 백성과 분리시켜서 그들을 당신의 특별한 보배로 삼고자 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높은 영예를 무시하고 이방인의 모본을 따르기를 그처럼 열렬히 갈망하다니!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 중에는 세상 사람들의 습관과 풍속을 따르고자 갈망하는 자들이 있다. 주님을 떠나갈 때에 그들은 세속적 이익과 명예에 대한 야심을 가지게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신을 섬기는 자들의 습관을 모방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속인들과 연합하고 그들의 풍속을 따름으로 불신자들에게 큰 감화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길을 따르는 자들은 누구나 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어진다. 그들은 세상과 벗이 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들은 이 세상의 영예 때문에 그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을 희생한다(벧전 2:9 참조). {PP 607.2}

사무엘은 크게 슬퍼하면서 백성들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셨다. 선지자 사무엘은 자기의 의무를 다하였다. 그는 경고를 충실히 하였으나 그 경고는 거절당했다.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백성들을 해산시키고 자기 자신도 정치상의 큰 변화를 준비하기 위하여 그 곳을 떠났다. {PP 607.3}

사무엘의 순결한 생애와 무아적 헌신은 이기적인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는 물론 거만하고 음탕한 이스라엘 군중에게도 끊임없는 견책이었다. 비록 그가 화려하게 몸을 단장하거나 과시하지 않았지만 그가 하는 사업에는 하늘의 인이 찍혀 있었다. 그는 세상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존귀히 여김을 받았고 그 지도를 받아 히브리 민족을 통치하였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의 경건과 헌신에 싫증을 느끼고 그의 겸손한 권위를 멸시하고 저희를 다스릴 왕을 구함으로 그를 거절하였다. {PP 607.4}

우리는 사무엘의 품성에서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점이 반사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사단의 분노를 자극시킨 것은 구세주의 생애의 순결이었다. 그 생애는 세상의 빛으로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부패를 드러내었다.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은 경건하다고 공언하면서도 성실치 못한 자들의 가장 격렬한 감정을 자극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부와 명예를 가지고 오시지 않으셨으나 당신께서 행하신 사업은 그가 이 세상의 어떠한 군주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나타내었다. 유대인들은 압박자의 멍에를 꺾어 줄 메시야를 바라고 있었으나 저희 목에는 죄악의 멍에가 메어 있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를 덮어 주시고 그들의 거짓된 경건을 칭찬하셨더라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저희 왕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저희 죄악에 대한 그리스도의 대담한 책망을 견딜 수 없었다. 그들은 자비와 순결과 거룩함만을 지니시고, 죄악 외에는 아무것도 미워하지 않은 아름다운 품성을 멸시하였다. 이 세상은 각 시대를 통하여 그러하였다. 하늘에서 온 빛은 그 빛 가운데 행하기를 거절하는 자들 모두를 정죄한다. 위선자들은 죄를 미워하는 자들의 모본으로 견책을 받을 때에 사단의 대리자가 되어 충실한 자들을 괴롭히고 박해할 것이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딤후 3:12). {PP 607.5}

이스라엘의 정치가 군주 정치 형태로 될 것이라고 예언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왕을 선택하실 권리를 가지고 계셨다. 히브리인들도 왕의 선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정도로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였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었다. {PP 608.1}

장차 왕이 될 사울의 용모는 왕을 갈망하던 자들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만족시킬 만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삼상 9:2)었다. 고상하고 존귀한 태도와 혈기 왕성하고 용모가 아름답고 키가 큰 사울은 존경을 받을 자로 태어난 것 같았다. 사울은 이와 같은 매력적인 외적 용모를 가지고 있었으나 참된 지혜로 구성된 보다 높은 자질은 결핍되어 있었다. 사울은 청년기에 그의 조급하고 격렬한 감정을 제어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도 전혀 체험하지 못했다. {PP 608.2}

사울은 권세 있고 부유한 두령의 아들이었으나 소박한 그 당시의 형편에 따라 아버지와 함께 겸비한 농부의 일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의 가축 얼마가 산에서 길을 잃었으므로 사울은 한 사환을 데리고 그것을 찾으러 나갔다. 그들은 3일 동안 찾았으나 헛수고였다. 그들이 사무엘의 고향 라마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에 사환은 잃어버린 가축들에 대하여 물어보자고 제의하였다. 그 사환은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사분의 일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치게 하겠나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는 그 당시의 습관을 따르는 것이었다. 계급이나 직분이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찾아갈 때에는 그에게 존경의 표시로서 작은 선물을 드렸다. {PP 608.3}

그들이 성읍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물 길러 나오는 몇 명의 소녀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선견자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종교적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선견자가 이미 도착하였으며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후에 희생의 잔치가 있을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사무엘의 통치 하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에는 성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멸시를 당했었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삼상 2:17)였다. 그러나 지금은 온 나라에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행해지고 있었으며 백성들은 종교적 예배에 관심을 나타내었다. 성막에서 드리는 봉사가 없었기 때문에 제사는 당분간 다른 곳에서 드렸는데 백성들이 교훈을 얻으려고 자주 가던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성읍이 이 목적을 위하여 선정되었다. 이 성읍들 중 가장 높은 곳을 흔히 제사 드리는 곳으로 선택한 고로 그 곳을 산당이라고 불렀다. {PP 609.1}

사울은 성문에서 선지자를 만났다. 그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함을 입을 자가 친히 그의 앞에 나타나리라는 것을 보여 주셨다. 이제 저희가 서로 마주섰을 때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통할하리라"고 말씀하셨다. {PP 609.2}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컨대 내게 가르치소서"라는 사울의 요청에 사무엘은 "내가 선견자니라"고 대답하였다. 사무엘은 잃어버린 가축들을 찾았으니 안심하라고 말하면서 사울에게 머물러 잔치에 참석하라고 강권하고, 그 때에 그의 앞에 놓인 큰 운명에 대하여 알려 주겠다고 말했다. "온 이스라엘의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사울의 마음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떨었다. 사울은 그 말의 뜻을 얼마만큼 눈치 챌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왕에 대한 요구가 온 국민의 가장 열렬한 관심을 끄는 문제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사울은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라고 대답하였다. {PP 609.3}

사무엘은 그 마을의 중요한 사람들이 모인 회집 장소로 이 낯선 사람을 인도하였다. 선지자의 지도를 따라 그들 중에 제일 좋은 좌석이 사울에게 주어졌고 잔칫상에서는 제일 좋은 부분을 그의 앞에 배설하였다. 예배가 끝난 후 사무엘은 그의 객을 자기의 집으로 데려와 다락방에서 그와 더불어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이스라엘 정부를 세울 대원칙들을 그에게 설명해 주어 그로 하여금 어느 정도 그의 높은 신분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노력하였다. {PP 609.4}

다음날 이른 아침에 사울이 떠날 때에 선지자도 그와 함께 나갔다. 선지자는 성읍을 지나자 사환에게는 앞으로 가라고 명하고 사울에게 잠깐 서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기별을 받으라고 말하였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고 하였다. 이 일이 하나님의 권위로 이루어진 증거로서 사무엘이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일어날 사건들을 예언하고, 그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 지위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격을 얻으리라는 것을 보증하였다. 선지자는 “네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고 말하였다. {PP 610.1}

사울이 그의 길을 갈 때에 선지자가 말한바 모든 일이 성취되었다. 사울이 베냐민의 변경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잃었던 짐승들을 찾았다는 기별을 받았다. 그는 다볼 평원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벧엘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났다. 그 중 한 사람은 제사드릴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다른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셋째 사람은 희생의 잔치에 쓸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사울에게 예법대로 인사를 하고 또 그에게 떡 세 덩이 중에서 두 덩이를 선사하였다. 그의 성읍 기브아에서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으로부터 돌아오면서 저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의 곡조에 맞추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사울이 그들에게 접근할 때에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도 임하여 그들과 함께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같이 예언하였다. 사울이 매우 유창하고 지혜롭게 말하고 매우 열렬히 예배에 참석함으로 그를 알던 자들이 놀라 “기스의 아들의 당한 일이 무엇이뇨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고 외쳤다. {PP 610.2}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그들의 예배에 참가하고 있을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다. 하나님의 순결과 성결의 빛은 타고난 마음의 어둠을 비추었다. 사울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보았다. 그는 성결의 미를 보았다. 이제 그는 죄와 사단을 대항하는 싸움을 시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며 이 싸움에 있어서 그의 힘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함을 느껴야 했다. 전에는 희미하고 불확실한 것처럼 보이던 구속의 경륜을 밝히 깨닫게 되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높은 신분을 위하여 그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셨다.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힘과 은혜의 근원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요구와 자신의 의무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그의 이해력을 계발시켜 주셨다. {PP 610.3}

사울을 왕으로 기름부은 사실은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선택은 제비를 뽑아서 공공연하게 나타내어야 하였다. 사무엘은 이 목적을 위하여 백성들을 미스바로 소집하였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기 위하여 기도를 드린 후에 제비를 뽑는 엄숙한 의식을 거행하였다. 모인 군중은 조용히 결과를 기다렸다. 지파에서 가문이, 가문에서 가족이 차례로 뽑혔으며 드디어 기스의 아들 사울이 선택된 사람으로 지명되었다. 그러나 사울은 그 회중 가운데 없었다. 그에게 지워지려는 큰 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마음이 무거워져서 그는 몰래 자리를 떴다. 그를 다시 회중에게로 데려왔을 때, 회중들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큰” 그의 군주다운 태도와 고상한 모습을 자랑스럽고 만족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사울을 회중에게 보일 때에 사무엘까지도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고 부르짖었다. 그 대답으로 군중들 속에서 “왕의 만세”를 드높이 부르는 긴 기쁨의 함성이 일어났다. {PP 611.1}

그 후에 사무엘은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알리고 군주 정치의 기초가 되고 그것을 지배할 원칙들을 말하였다. 왕은 독재 군주가 되지 말아야 하고 그의 권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하였다. 이 선지자의 교시를 책에 기록했는데 그 가운데는 왕의 대권과 백성의 권리와 특권이 설명되어 있었다. 비록 국민들은 사무엘의 경고를 멸시했을지라도 이 충성스러운 선지자는 그들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하면서도 여전히 그들의 자유를 할 수 있는 대로 보호하고자 노력하였다. {PP 611.2}

백성들은 일반적으로 사울을 저희 왕으로 인정하였으나 한 큰 무리가 반대하였다. 가장 강대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들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뽑아 낸 일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사울에게 충성을 다짐하지도 않았고 관습상의 선물도 가져오지 않았다. 가장 열렬히 왕을 요구하던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사람을 감사히 받아들이기를 거절하였다. 각 당파에서는 저희가 보좌에 앉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고 지도자 중에 여러 사람은 자기가 그 명예를 갈망하였다.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심이 불타올랐다. 교만과 야심에 찬 노력이 결국 실망과 불만을 가져왔다. {PP 611.3}

이와 같은 사태에서 사울은 왕위를 받기에 부적당함을 알았다. 사울은 전과 같이 정사를 사무엘에게 맡기고 기브아로 돌아갔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것을 보고 그를 지지하고자 결심한 무리가 사울을 그 곳으로 영예스럽게 호송하였다. 그러나 사울은 그의 왕권을 힘으로 유지하고자 하지 않았다. 그는 베냐민 고원 중에 있는 그의 집에서 조용히 농사일에 종사하면서 그의 권위의 확립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다. {PP 612.1}

사울을 왕으로 임명한 지 얼마 후에 나하스의 통치 아래 있는 암몬 사람들이 요단 동편에 거주하는 지파들의 영토를 침범하여 길르앗 야베스 성읍을 위협하였다. 그 거민들은 암몬 사람들에게 조공을 드려서 화평을 얻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 잔인한 왕은 주민들의 오른눈을 빼어 그들을 자기의 능력의 영원한 증거로 삼는 조건 외에는 동의하려 하지 않았다. {PP 612.2}

포위당한 성읍 백성들은 7일간의 유예(猶豫) 기간을 달라고 애걸하였다. 암몬 사람들은 저희가 기대하는 승리의 영예를 더 높이려는 생각으로 이 제안에 동의하였다. 야베스에서 파송된 사자들은 즉시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의 도움을 요청하였다. 사자들이 기브아에 그 기별을 전하니 공포심은 널리 퍼지게 되었다. 사울은 밤에 밭에서 소를 몰고 돌아오다가 어떤 무서운 재난을 예고하는 큰 울림소리를 들었다. 그는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고 말하였다. 그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숨어 있던 그의 모든 힘이 솟아올랐다.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매” 사울은 “소 두 마리를 취하여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어 가로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다. {PP 612.3}

33만 명이 사울의 명령 아래 베섹 평원에 모였다. 즉시 사자들을 포위된 성읍에 보내어 내일 그들을 도와주고 그날에 암몬 사람이 복종할 것이라는 보증을 전하게 하였다. 신속한 야간 행군으로 사울과 그 군대는 요단강을 건너 새벽에 야베스 앞에 도착하였다. 사울은 기드온처럼 그의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누어 암몬 사람이 위험을 느끼지도 않고 아무 방비도 없는 이른 아침에 그들의 진영을 공격하였다. 공포에 싸여 그들이 패주한 후에는 큰 살육이 뒤따랐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PP 612.4}

사울의 신속성과 용맹은 그처럼 큰 군대를 성공적으로 지도한 통솔력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망하던 군주, 곧 그들을 다른 민족과 싸워 이기게 할 군주가 갖춰야 할 자격이었다. 백성들은 이제 사울을 저희 왕으로 환영했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축복이 없었다면 그들의 모든 노력이 헛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인간 대리자에게 승리의 영광을 돌렸다. 열광적으로 사울을 환영한 나머지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 사울의 권위를 인정하기를 거부한 자들을 죽이자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왕은 말리면서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고 말하였다. 여기서 사울은 품성이 변화되었다는 증거를 나타내었다. 그는 자신이 영예를 취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복수의 정신을 나타내는 대신에 그는 동정과 용서의 정신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 거하는 분명한 증거였다. {PP 613.1}

사무엘은 이제 길갈에서 거국적 회집을 열어 나라를 정식으로 사울에게 주자고 제의하였다. 그렇게 한 후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PP 613.2}

길갈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최초에 진을 친 곳이었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넌 사실을 기념하기 위하여 열두 개의 돌로 돌단을 세운 곳이었다. 이곳에서 할례를 새로 거행하였다. 이스라엘이 가데스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황야에 체류하게 된 후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킨 곳도 이 곳이었다. 이곳에서 "만나"가 그쳤었다.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자신을 이스라엘 군대의 사령관으로서 나타내셨다. 이곳으로부터 그들은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아이를 정복하기 위하여 행진했었다. 여기서 아간은 자기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았고, 또한 여기서 기브온 사람과

조약을 맺으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권고를 구하는 일을 태만히 한 데 대한 처벌을 받았다. 이처럼 많은 놀라운 사건들과 관련되어 있는 이 평원에 사무엘과 사울이 나란히 서고 왕을 환영하는 함성이 그친 후에 연로한 선지자는 민족의 통치자로서 그의 고별사를 말하였다. {PP 613.3}

사무엘은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었고...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 기름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뉘 소를 취하였느냐 뉘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뉘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고 말하였다. {PP 614.1}

백성들은 한결같은 음성으로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뉘 손에서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나이다"고 대답하였다. {PP 614.2}

사무엘은 단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먼저 왕과 백성 모두가 따라야 할 원칙들을 천명하였고 자신의 모본으로 그의 말의 무게를 더하고자 하였다. 그는 유년 시절부터 하나님의 사업에 관계하였고 그의 긴 생애를 통해 오직 한 가지 목적,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스라엘의 최대의 행복을 위하는 일만이 항상 그의 앞에 있었다. {PP 614.3}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영에 대한 희망을 갖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인도함을 받아야 하였다. 죄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국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에 대한 분별력을 잃고, 당신의 사업을 옹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들의 신뢰심을 상실하였다. 그들은 참 평화를 찾기 전에 저희가 범한 바로 그 죄를 알고 자복해야 하였다. 그들은 왕을 요구하는 목적을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고 선언하였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날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를 자세히 설명하였다. 만왕의 왕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시고 그들의 싸움을 싸우셨다. 때때로 그들은 저희 죄로 인하여 원수의 세력 하에 팔렸으나 저희가 악의 길에서 돌이키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사 구원자를 일으키셨다. 여호와께서는 “기드온과 바락과 입다와 사무엘을 보내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안전히 거하게 하셨”다. 그러나 위험을 당하여 그들이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고 선언했을 때에 선지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고 말하였다. {PP 614.4}

사무엘은 계속하여 말하였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라. 오뉴월 맥추 때에 동방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고 공기는 맑고 온화하였다. 그러므로 이 계절에 돌연한 폭풍우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공포에 싸이게 하였다. 이제 백성들은 겸비하여 저희 죄, 곧 저희가 범한 바로 그 죄를 자복하였다.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PP 615.1}

사무엘은 백성들을 낙망 상태에 버려두지 아니하였느니 이는 낙망은 보다 나은 생활을 하고자 하는 모든 노력을 막아 버리는 까닭이었다. 사단은 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을 가혹하고 용서치 않는 분으로 보게 하여 그들로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게 하고자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시며 항상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리기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통하여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좇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좇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기별을 전하였다. {PP 615.2}

사무엘은 자신이 당해왔었던 경멸에 대해서는 조금도 말하지 않았다. 그는 이스라엘이 그의 한 평생의 헌신에 보답하지 않은 배은망덕에 대하여 조금도 꾸짖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들에 대한 자기의 끊임없는 관심을 그들에게 보증하였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PP 615.3}

60장 사울의 외람됨

길갈의 집회 후에 사울은 암몬 사람들을 정복하기 위하여 소집한 군사들 중에서, 믹마스에 주둔한 자기 휘하의 군사 2천명과 기브아에 주둔한 그의 아들 요나단을 따르는 군사 일천명을 남겨 두고 모두 해산시켰다. 여기서 그는 치명적인 과오를 범했다. 사울의 군대는 최근의 승리로 희망이 넘치고 용맹이 충천해 있었으므로, 만일 사울이 즉시 이스라엘의 다른 원수들을 대항하여 진격했더라면 국가의 자유를 위해 눈부신 타격을 가할 수 있었을 것이다. {PP 616.1}

그 동안에 이스라엘의 호전적 이웃인 블레셋 사람들은 매우 활발히 움직였다. 그들은 에벤에셀 전투에서 패배한 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의 여러 산성들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으며 이제는 그들이 나라의 중심부에까지 들어와 자리를 잡고 있었다. 블레셋 사람들은 시설과 무기와 장비에 있어서 이스라엘보다 훨씬 우수했다. 블레셋 사람들은 오랜 압박 통치 기간 동안 자기들의 세력을 강하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에게 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대장간 영업을 금지했다. 히브리 사람들은 평화 조약을 체결한 후에도 여전히 필요되는 대장간 일을 위해서는 블레셋 사람의 주둔지로 가곤 했다. 안일을 사랑하는 마음과 오랜 압박으로 비굴해진 정신의 지배를 받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전쟁에 필요한 무기 준비를 게을리했다. 전쟁에는 활과 물매(投石器)가 쓰였는데 이것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질 수 있었으나 창과 칼은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아무도 가진 이가 없었다. {PP 616.2}

사울의 치세 제2년에 비로소 블레셋 사람들을 정복하기 위한 공격을 가했다. 최초의 공격은 왕의 아들 요나단이 시작하였는데 그는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쳐서 함락시켰다. 이 패배로 격분한 블레셋 사람들은 즉시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할 준비를 했다. 이에 응해 사울도 나팔을 불어 각처에 전쟁이 일어났음을 알리고, 요단 건너편 지파들을 포함해서 모든 지파의 군사들을 길갈에 모이도록 했다. 모두가 이 소집에 응했다. {PP 616.3}

블레셋 사람들도 믹마스에 거대한 군사들을 모았는데 “병거가 삼만이요 마병이 육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삼상 13:5)았다. 이 소식이 길갈에 있는 사울과 그

군사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백성들은 저희가 대항해서 싸워야 할 그 강력한 군대들을 생각하고 간담이 서늘해졌다. 그들은 원수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전투 준비 검열에도 나오지 못했다.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했고 다른 사람들은 굴과 웅덩이와 그 지역에 흔한 바위틈에 숨었다. 싸울 시간이 가까워지자 탈주자들의 수효는 급격히 늘어났고 대오를 벗어나지 않은 자들도 불길한 예감과 공포심에 사로잡혔다. {PP 617.1}

사울이 맨 처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았을 때에 사무엘로부터 이때에 행하여야 할 방법에 대하여 분명한 지시를 받았다. 선지자는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칠일을 기다리”(삼상 10:8)라고 말하였다. {PP 617.2}

백성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고취시키는 결정적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사울은 날마다 기다리기만 하였다. 선지자가 정한 기간이 채 지나기도 전에 그는 그 지체에 조바심을 느끼고 그를 에워싸고 있는 괴로운 환경에 스스로 낙담하였다. 사울은 사무엘이 와서 거행할 그 예배에 대하여 백성들이 준비하도록 충실히 노력하는 대신에 불신과 불길한 예감에 빠졌다. 제사로 하나님을 찾는 일은 매우 엄숙하고 중대한 사업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이 당신 앞에 가납되고, 원수를 정복하려는 저들의 노력에 당신의 축복이 같이할 수 있도록, 당신의 백성이 저희 마음을 살피고 죄를 회개하기를 요구하셨다. 그러나 사울은 참을성이 없었고, 백성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대신에 저희를 인도하고 지도하도록 선택한 왕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PP 617.3}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보호하셨고, 만일 연약한 인간의 힘만 의지했더라면 그들에게 닥쳐왔을 그런 재난에 빠지도록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셨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아슬아슬한 곳으로 인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인간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깨닫고 그들의 유일의 조력자이신 당신께로 나올 수 있게 하셨다. 사울을 시험하는 시간이 당도하였다. 이제 사울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당신의 명령을 따라 인내로 기다리는 사람인가? 또 힘드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우유부단하여 자기에게 맡겨진 신성한 책임을 감당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를 스스로 나타내야 하였다. 이스라엘이 선택한 왕이 만왕의

통치자에게 귀를 기울일 것인가? 또 그가 겁이 많은 그의 군사들로 하여금 영원한 힘과 구원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주목하도록 할 것인가? 사울은 조바심을 가지고 사무엘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면서 그의 군사의 혼란과 낙담과 이탈을 선지자가 빨리 오지 않는 탓으로 돌렸다. 정한 시간이 되었으나 하나님의 사람은 즉시 나타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섭리는 당신의 종을 지체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울의 침착하지 못하고 충동적인 정신은 더 이상 억제될 수 없었다. 백성들의 공포심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무엇인가 해야 된다고 느낀 사울은 종교 집회를 열어 제사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로 작정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직무를 위하여 성별된 자만이 당신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명하셨다. 그러나 사울은 "번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갑옷을 입고 무기를 가진채 제단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 {PP 618.1}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였다. 사무엘은 곧 사울이 그에게 주어진 명백한 명령을 어긴 것을 알았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이런 위기를 당했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를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셨었다. 만일 사울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성취했더라면 여호와께서는 왕에게 충성하는 적은 군사들을 가지고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경이로운 구원을 이룩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매우 만족하게 여겼으므로 책망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 할 사람처럼 선지자를 만나러 나아갔다. {PP 618.2}

사무엘의 얼굴은 근심과 번민으로 가득 찼다.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라는 사무엘의 질문에 사울은 자신의 외람된 행위에 대하여 변명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PP 621.1}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어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PP 621.2}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단념하든지 군주 정치의 기초가 되는 원칙들을 유지하고 온 민족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배를 받든지 해야 하였다. 만일 이스라엘이 완전히 여호와의 소유가 되었다면, 만일 인간의 세속적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셨을 것이다.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방벽이 되실 수 있었다. 그러나 범사에 하나님의 최상권을 인정하지 않고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군주 정치가 번성할 수 없었다. {PP 621.3}

만일 사울이 이 시련의 때에 하나님의 요구를 존중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으셨을 것이다. 이제 그의 실수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분의 대리자가 되기에 부적당하다는 것을 증거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을 그릇된 길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의지가 지배적인 능력이 될 것이다. 만일 사울이 충실했더라면 그의 나라가 영원히 섰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실패한 이상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성취되어야 하였다. 이스라엘의 정치는 하늘의 뜻을 따라 백성을 다스릴 자에게 위임되어야 하였다. {PP 621.4}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이 어떤 큰 이익과 연계(連繫)가 되어있는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길 외에는 안전이 없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믿음과 순종을 조건으로 주어져 있으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응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성경에 제시된 수많은 약속들이 성취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일시적 감정을 따르거나 사람들의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우리 주위의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확한 계명을 따라 행할 것이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우리는 시련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순종함으로 어떠한 어려운 사태에서도 우리가 그분의 뜻을 수행하고, 그분의 성호를 영화롭게 하며 그분의 백성들을 복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실 수 있음을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서 증거할 수 있다. {PP 621.5}

사울은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을 입었으나 회개를 통해 그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자 하지 않았다. 사울은 참된 경건의 부족을 종교적 형식에 대한 열심으로 메우고자 하였다. 하나님의 법궤를 홉니와 비느하스가 진영으로 가져왔을 때에 이스라엘이 패배한 사실을 사울이 모르는 바가 아니었으나,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그는 거룩한 궤와 수행하는 제사장을 데려 오기로 결심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백성들에게 신뢰심을 고취시켜서 흩어진 군대를 다시 모아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사울은 사무엘이 와서 그를 후원해 줄 때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실행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선지자의 반갑지 않은 비난과 책망을 듣지 않으려 하였다. {PP 622.1}

사울의 이해력을 계발하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려고 그에게 성령이 허락되었다. 사울은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충실한 교훈과 책망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얼마나 완고했는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생애는 유년 시절의 나쁜 습관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 주는 슬픈 실례가 된다. 사울은 젊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지 않았다. 어렸을 때 복종하도록 교육받지 못하고 자란 그의 성급한 정신이 계속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하게 된 원인이었다. 청년 시절에 하나님의 뜻을 거룩히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을 품고 맡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자들은 후세에 보다 높은 봉사를 위한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악용한다면 나중에 갑자기 그것을 고칠 수는 없을 것이다. {PP 622.2}

백성들을 분기시키고자 한 사울의 노력이 헛수고였음이 판명되었다. 사울은 그의 군대가 6백 명으로 줄어든 것을 보고 길갈을 떠나 최근 블레셋 사람에게서 취한 게바에 있는 요새로 물러갔다. 이 요새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수 마일 떨어진 깊고도 험준한 계곡의 남쪽에 있었다. 같은 계곡 북쪽 믹마스에는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는데 그들의 분견대(分遣隊)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마을을 약탈하였다. {PP 622.3}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완고함을 꾸짖으시고 당신의 백성에게 겸손과 신앙의 공과를 가르치고자 사태가 이처럼 위기에 빠지는 것을 허락하셨다. 외람되이 제물을 드린 사울의 죄로 인하여 여호와께서는 블레셋 사람을 정복하는 명예를 사울에게 주지 않기로 하셨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왕의 아들 요나단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선택되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의 병기 든 자에게 원수의 진을 은밀히

공격하자고 제의하였다. 그는 강권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고 하였다. {PP 623.1}

역시 신앙과 기도의 사람인 병기 든 자도 그 계획을 격려하였고, 그들은 함께 저희 계획이 반대를 당하지 않도록 비밀리에 진영을 빠져 나갔다. 그들은 저희 조상의 인도자 하나님께 열렬히 기도함으로써 저희가 어떻게 진격해 나가야 할지를 결정케 해주는 표징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그 후에 두 군대를 가로막은 계곡으로 내려가 절벽의 그늘과 골짜기의 언덕과 꼭대기로 일부분이 가려져 있는 길을 조용히 이리저리 헤치며 나아갔다. 블레셋 인의 요새에 접근하여 저희 원수들의 앞에 모습을 나타냈을 때에, 원수들은 비웃으면서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고 말하면서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한 일을 보”여 주겠다며 그들에게 도전하였다. 이 말은 그들이 겁 없이 접근한 두 이스라엘 사람을 처형하겠다는 뜻이었다. 이 도전은 요나단과 그의 동료가 여호와께서 그들의 계획을 성공시키시리라는 증거로서 받아들이기로 합의한 표징이었다. 이 용사들은 이제 블레셋 사람이 보이는 곳을 지나 은밀하고 어려운 길을 택하여, 그들이 올라오기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수비를 소홀히 하고 있는 낭떠러지의 꼭대기로 향하여 나아갔다. 그리하여 그들은 원수들의 진영에 침투하여 파수병들을 죽였는데 이 파수병들은 너무나 놀라고 무서워서 아무 저항도 하지 못했다. {PP 623.2}

하늘의 천사들은 요나단과 그 수행원을 보호하고 그들 곁에서 싸웠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 앞에 엎드러졌다. 마치 기병과 병거와 함께 대군중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땅이 진동하였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표적들을 인정하였고, 블레셋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알았다. 들에 있는 자나 진영에 있는 자가 모두 큰 공포에 사로잡혔다. 블레셋 사람은 혼란 중에 아군을 원수로 착각하고 서로 살육하였다. {PP 623.3}

곧 이스라엘 진에 전쟁의 소음이 들렸다. 왕의 파수꾼들은 블레셋 중에 큰 혼란이 있고 그들의 수효가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아직 어떤 부분의 히브리 군대가 진을 떠났는지 알지 못했다. 조사해 보니 요나단과 그 병기 든 자 외에는 아무도 떠난 자가 없음이 판명되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이 격퇴당하는 것을 보고 사울은 군대를 인솔하여 공격에 가담하였다. 전에 원수에게로 도망하였던 히브리 사람들이 돌이켜 원수를

대항하고 큰 무리가 숨었던 곳에서 나왔으며 블레셋인이 패주할 때 사울의 군사는 도주자들에게 무서운 살육을 가했다. {PP 623.4}

기회를 가장 잘 이용하기로 결심한 왕은 온 종일 음식을 먹지 않도록 분별없이 그의 병사들에게 금령을 내렸다.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엄숙한 저주로써 그의 명령을 강행하였다. 사울에게 알리거나 그의 협력을 얻지 않고도 승리는 이미 얻어진 것이었으나 사울은 정복된 원수의 군대를 완전히 멸망시킴으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음식을 먹지 말라고 금한 명령은 이기적 야심에서 나왔으며, 이 명령은 백성의 필요가 자신을 높이려는 욕망과 저촉될 때에 왕은 백성의 필요에 대하여 무관심함을 나타내었다. 엄숙한 맹세로 이 금령을 굳게 한 것은 사울의 성급하고 야비함을 나타내 보였다. 바로 그 저주의 말은 사울의 열심이 자신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아님을 증거하였다. 사울은 그의 목적이 “여호와께서 당신의 원수에게 보수하시는 것”이라 하지 않고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것이라고 선언하였다. {PP 624.1}

이 금령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백성들은 하루 종일 전쟁에 참가했기 때문에 배가 고프고 힘이 없었으므로, 금지했던 시간이 지나자마자 탈취한 짐승을 잡아 그 고기를 피 채 먹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피를 먹지 못하게 금한 법을 범하였다. {PP 624.2}

그날의 전쟁 동안에 왕의 명령을 듣지 못한 요나단은 수풀을 지나다가 꿀을 조금 먹음으로 무의식적으로 그 명령을 범하였다. 사울은 저녁에 그것을 알았다. 왕은 그 칙령을 범하는 자는 사형에 처할 것이라고 선언하였었다. 요나단이 짐짓 죄를 짓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그를 통하여 큰 구원을 이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형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아들의 생명을 살려 둔다는 것은 그가 그처럼 조급히 맹세함으로 범죄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된다. 이것은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었으므로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 원하노라”는 무서운 선고를 내렸다. {PP 624.3}

사울은 승리의 명예를 자기에게 돌릴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맹세의 신성성을 지키려는 그의 열심으로 존경을 받고자 하였다. 사울은 자기의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신하들에게 왕의 권위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시키고자 하였다. 얼마 전에 사울은 길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제사장처럼 제물을 드리는 일을 감행하였다. 사무엘이 책망할 때에 그는 완고하게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였다. 그러나 이제 자기의 명령을 불순종했을 때, 비록 그 명령이 비합리적이며 또 알지 못하고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인 왕은 그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PP 625.1}

백성들은 형의 집행을 거절하였다. 그들은 왕의 분노를 무시하고 "이스라엘에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을 죽이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사하였음이니이다"고 말하였다. 거만한 군주도 감히 이같은 백성들의 판단을 무시할 수 없었으므로 요나단은 생명을 건졌다. {PP 625.2}

사울은 그의 아들이 자기보다 백성들과 여호와께 더 호감을 사고 있다고 느꼈다. 요나단의 구원은 왕의 조급함에 대한 신랄한 책망이었다. 사울은 그의 저주가 자신의 머리로 돌아오리라는 예감을 느꼈다. 그는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을 중단하고 침울하고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PP 625.3}

자신의 죄된 행위를 변명하거나 핑계하기를 몹시 좋아하는 자들은 흔히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가장 신랄한 자들이다. 사울처럼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을 자초해 놓고도 권고를 거절하고 책망을 경멸하는 자들이 많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저희와 함께 계시지 않음을 확실히 알면서도 고통의 원인을 자신들에게서 찾기를 거절한다. 그들은 교만하고 자랑하는 정신을 품는 한편 저희보다 나은 자들을 잔인하게 판단하고 맹렬하게 비판한다. 비판하는 성정을 가진 자들은 다음과 같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마 7:2). {PP 625.4}

흔히 자신을 높이려고 애쓰는 자들은 그들의 숨은 성격이 나타나는 그런 처지에 서게 된다. 사울의 경우에도 그러했다. 사울은 자기의 행위로써 그에게는 왕의 명예와 권위가

공의와 은혜와 자비보다 더 귀중하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인식시켰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정치를 거역한 과오가 어떤 것인가를 보게 되었다. 그들은 기도로써 그들에게 축복을 가져다주었던 경건한 선지자를 그들에게 저주가 내리도록 도모한 왕과 바꾸었다. {PP 625.5}

만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나단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중재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의 구원자 요나단은 왕의 명령으로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백성들은 그 후 얼마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울의 지도를 따랐겠는가! 저희 자신들의 행위로 사울을 보좌에 앉힌 것을 생각하고 얼마나 비통함을 느꼈겠는가! 여호와께서는 사람들의 불순종을 오래 참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저희 죄를 알고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신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뜻을 무시하고 그의 경고를 멸시하는 자들을 번영하도록 놔두시는 것처럼 보이나 당신께서 정하신 시간이 되면 분명히 그들의 어리석음을 나타내실 것이다. {PP 626.1}

61장 사울이 버림을 받음

사울이 길갈의 어려운 처지에서 믿음의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욕되게 하였으나 그의 과오는 전혀 회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당신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는 신앙과 당신의 명령을 순종해야 된다는 교훈을 배울 수 있는 다른 기회를 허락하시고자 하셨다. {PP 627.1}

사울은 길갈에서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을 때에 그가 행한 행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그는 부당한 취급을 받았다고 느끼고 자기의 행위를 옹호하기 위하여 자기의 잘못을 변명하였다. 그 때 후로 사울은 선지자와 거의 교제하는 일이 없었다. 사무엘은 사울을 자기의 아들처럼 사랑하였으며 성질이 대담하고 격렬한 사울도 사무엘을 몹시 존경하였으나 그의 책망에 분노하여 그 때부터 할 수 있는 대로 그를 피하였다. {PP 627.2}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종에게 다른 기별을 주어 사울에게 보내셨다. 사울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성실성과 이스라엘 앞에서 행할 그의 유용성을 아직도 증거할 수 있었다. 사무엘은 왕에게 나아와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하였다. 사무엘은 왕이 그 명령에 주의하는 것이 몹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사울을 왕이 되도록 부르신 동일한 권위로 말한다는 사실을 뚜렷이 했다. 선지자는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고 하였다. 아말렉 사람들은 광야에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어 온 자들이었다. 이러한 죄와 아울러 그들이 하나님께 반항하고 비열한 우상숭배에 빠진 죄로 인하여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형벌을 선고하셨다.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잔인하게 행한 역사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신 25:19)는 명령과 함께 책에 기록되었다. 이 선고의 집행을 4백 년 동안 연기하였으나 아말렉 사람들은 저희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는 이 사악한 백성들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당신의

백성과 당신께 드리는 예배를 말살하고자 한다는 것을 아셨다. 이제 그처럼 오랫동안 지체된 형벌을 집행할 시간이 이르렀다. {PP 627.3}

악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 담대하게 죄를 행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형벌은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더 확실하고 더 무서울 것이다.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 공을 이루시리니 그 공이 기이할 것임이라"(사 28:21).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형벌하는 일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겔 33:11). 여호와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신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출 34:6, 7)으신다. 여호와께서는 복수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당신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는, 지상의 거민들을 완전한 타락과 파멸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형벌을 집행하실 수밖에 없으시다.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호와께서는 죄에 굳어진 자들을 끊어 버려야만 하셨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나 1:3). 여호와께서는 정의를 위하여 짓밟힌 당신의 율법의 권위를 무섭게 옹호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어쩔 수 없어서 형벌을 집행하실 수밖에 없다는 바로 그 사실이, 당신의 형벌을 초래한 죄가 얼마나 크고, 범죄자를 기다리고 있는 보응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를 증거한다. {PP 628.1}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형벌을 주시면서도 자비를 기억하셨다. 아말렉 사람들을 멸하는 마당에서도 그들 중에 거하는 겐 사람을 구하셨다. 이 백성은 완전하게 우상숭배를 버리지도 않았으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고 이스라엘과 친한 자들이었다. 이 족속 중에 모세의 처남 호밥이 있었는데 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를 여행하였고, 그가 그 곳 지리를 잘 알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중한 도움을 주었었다. {PP 628.2}

사울은 믹마스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패배시킨 이후에 모압과 암몬과 에돔, 아말렉과 블레셋으로 더불어 전쟁을 하였으며 군사들을 이끌고 가는 곳마다 새로운 승리를 거두었다.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라는 사명을 받자 사울은 즉시 전쟁을 선포하였다. 사울

자신의 권위에 선지자의 권위가 첨가되었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 나오라는 부름을 듣고 그의 깃발 아래 운집하였다. 이 원정은 자신들의 세력 부식의 목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의 영예나 원수의 노획물이나 아무것도 취하지 말아야 하였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위로써 참전해야 하였으니, 이는 아말렉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벌을 집행하는 것이 그 목적인 까닭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이 당신의 주권을 모독한 그 백성들의 운명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가 멸시하던 바로 그 백성에게 멸망을 당하도록 하셨다. {PP 628.3}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PP 629.1}

아말렉 사람을 이긴 이번 승리는 사울이 이제까지 얻은 승리 중 가장 빛나는 승리였고, 이것은 그의 최대의 위험인 교만심을 다시 불붙게 하였다. 하나님의 원수들을 완전히 멸하라는 거룩한 칙령은 부분적으로만 성취되었다. 사울은 왕을 사로잡아 오는 주위에 있는 민족들의 풍습을 모방하여 승리의 영예를 높이려는 야심으로 사납고도 호전적인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 두었다. 백성들은 양떼와 소떼와 짐 나르는 짐승 중 가장 좋은 것을 살려서 남겨 두고, 이 짐승들은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려고 남겨 두었다는 구실로써 저희 죄를 변명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그것들을 자신들의 가축을 아끼기 위한 대용물로 사용하기 위함이었다. {PP 629.2}

사울은 이제 마지막 시험에 굴복당했다. 그는 외람되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군주로서 통치하려는 결심을 보임으로써 여호와의 대리자로서 왕권을 맡을 수 없음이 판명되었다. 사울과 그의 군대가 승리의 감격에 도취되어 집을 향해 행진해 오고 있는 때에 선지자 사무엘은 큰 고민에 싸여 있었다. 사무엘은 여호와께로부터 왕의 행위를 탄핵하는 기별을 받았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삼상 15:11). 선지자는 반역적인 왕의 행동에 대하여 크게 슬퍼하였고 밤새도록 그 무서운 선고가 철회되도록 울며 기도하였다. {PP 629.3}

하나님의 후회는 인간의 후회와 같지 아니하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삼상 15:29). 인간의 후회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후회는 환경과 관계의 변화를 의미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응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 또 자신의 행위로써 자기 자신을 은총을 받을 수 없는 곳에 둘 수도 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히 13:8) 동일하시다. 사울이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었으나 하나님께 가납하심을 받는 조건은 변치 않았고 하나님의 요구는 여전히 동일했다. 이는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약 1:17) 까닭이다. {PP 630.1}

선지자는 괴로운 마음으로 다음날 아침에 범죄한 왕을 만나기 위하여 길을 떠났다. 사무엘은 사울이 그의 죄를 깨닫고 회개와 겸비함으로 다시 여호와의 은총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범죄의 길에 첫 발걸음을 내디디면 그 다음의 범죄는 한층 더 쉬워지게 된다. 불순종으로 타락한 사울은 거짓 입술로 사무엘을 맞으러 나아왔다. 사울은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고 외쳤다. {PP 630.2}

선지자의 귀에 들리는 소리는 불순종하는 왕의 진술이 거짓임을 입증하였다.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찜이니이까”라는 날카로운 질문에 사울은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고 대답하였다. 백성들은 사울의 지시에 따라 행하였으나 사울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기의 불순종의 죄를 백성들에게 전가시키려 하였다. {PP 630.3}

사울이 버림을 받았다는 기별은 사무엘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가져다주었다. 이 기별을 온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전달해야 하였다. 그 때에 그들은 왕의 용맹과 통솔력 덕분에 승리했다는 자부심과 기쁨에 도취되어 있었는데, 이는 사울이 이번 전쟁에서 얻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은 까닭이었다. 그러나 선지자는 사울의 반역의 증거를 보았을 때에, 그처럼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었던 자가 하늘의 계명을 범하고 이스라엘을 죄악으로 인도한 사실에 대하여 분개하였다. 사무엘은 왕의 궤변에

기만당하지 않았다. 슬픔과 분노에 뒤섞인 사무엘은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선언하였다. 사무엘은 아말렉에 관한 여호와의 명령을 되풀이해 말하고 왕이 불순종한 이유를 힐문하였다. {PP 630.4}

사울은 고집스럽게 자신을 정당화하였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 왔고 아말렉 사람를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PP 631.1}

선지자는 엄격하고 엄숙한 말로 거짓말의 은신처를 쓸어버리고 변경할 수 없는 선고를 내렸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음으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PP 631.2}

이 무서운 선고를 듣고 왕은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고 부르짖었다. 선지자의 탄핵을 두려워한 사울은 전에 완강히 부인하던 죄를 인정하였으나 여전히 백성들을 무서워함으로 범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백성들을 비난하기를 고집했다. {PP 631.3}

이스라엘 왕이 사무엘에게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간청한 것은 죄를 슬퍼함에서가 아니요 그 형벌을 두려워한 까닭이었다. 만일 사울이 진정으로 회개하였더라면 그의 죄를 공공연하게 자백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최대의 염려는 자기의 권위를 유지하고 백성들의 충성을 받는 것이었다. 그는 국민에 대한 자신의 세력을 굳게 하기 위하여 사무엘이 임석하는 영예를 갈망하였다. {PP 631.4}

선지자는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고 대답하였다.

사무엘이 떠나려고 돌아설 때에 두려움과 고민 중에 있던 왕은 사무엘의 겉옷을 붙잡았다. 그러자 옷이 찢어지고 말았다. 이것을 보고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고 선언하였다. {PP 632.1}

사울은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보다도 사무엘이 그를 멀리하는 것을 더욱 불안하게 여겼다. 사울은 백성들이 자기보다도 선지자를 더 크게 신뢰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울은 만일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른 사람이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는다면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기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만일 사무엘이 자기를 버린다면 즉시 반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하였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보는 데서 자기와 함께 예배를 드려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영예를 세워 달라고 간청하였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왕의 요구에 응하여 반란이 일어날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러나 사무엘은 조용히 그 예배를 목격하기만 하였다. {PP 632.2}

공의의 재판이 단호하고 무섭게 수행되어야 하였다. 사무엘은 공공연하게 하나님의 명예를 옹호하고 사울의 행위를 견책하여야 했다. 사무엘은 아말렉 왕 아각을 그의 앞으로 이끌어 오라고 명하였다. 아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검으로 멸한 모든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고 무자비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여 멸하고자 한 자였고, 우상숭배를 성행시키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자였다. 아각은 내심으로 죽음의 위험은 지나간 것이라고 믿고 선지자의 명령에 따라 나아왔다. 사무엘은 “네 칼이 여인들로 무자케 한 것같이 여인 중 네 어미가 무자하리라”고 선언하고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렇게 한 후 사무엘은 라마에 있는 그의 집으로 돌아가고 사울도 기브아 본집으로 갔다. 그 후에 선지자와 왕은 단 한 번밖에 서로 만나지 않았다. {PP 632.3}

사울은 왕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였고 자진해서 배우려 하였다. 그는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였고 품성에 큰 결점들이 있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안내자와 조력자로서 성령을 그에게 허락하시고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필요한 자질들을 계발할 수 있는 지위에 그를 두셨다. 만일 그가 그대로 겸손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로써 인도함을 받기 원했더라면 그는 성공하고 명예롭게 그의 높은 지위에 지워진 의무를 잘 수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감화 아래서 모든 선한 자질은 힘을 얻는 한편 악한 성벽들은 그 힘을 잃었을 것이다. 이 일은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자신들을

성별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시겠다고 제의하는 사업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겸손하고 순진한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당신의 사업의 한 자리를 차지하도록 부르신 자들이 많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로 당신을 배울 수 있는 곳에 그들을 두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품성의 결점을 나타내실 것이며, 당신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의 과오를 시정해 주실 것이다. {PP 632.4}

그러나 사울은 자기의 높음을 이용하고 불신과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욕을 돌렸다. 처음 그가 왕으로 부르심을 입었을 때에는 겸손하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으나 성공한 후에는 자신을 의지하였다. 그의 치세의 최초의 승리가 그에게 가장 위험한 마음의 교만을 불붙게 하였다.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함에 있어서 나타낸 용맹과 전술(戰術)은 온 국민의 영광을 자아내었다. 백성들은 그가 다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대리자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왕에게 영광을 돌렸다. 비록 사울이 처음에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으나 후에는 자기가 스스로 영광을 취하였다. 그는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떠났다. 그리하여 그가 길갈에서 오만과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하였다. 그의 이같은 맹목적인 자신감이 그로 사무엘의 책망을 거절하게 하였다. 사울은 사무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했으므로 비록 자기 자신이 범죄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선지자의 책망을 받아들여야 하였다. 만일 사울이 그의 과오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죄를 자복하고자 했더라면 이 쓰라린 경험은 장래를 위하여 방벽이 되었을 것이다. {PP 633.1}

만일 여호와께서 그 때에 사울을 완전히 버리셨다면 그로 하여금 과거의 잘못을 시정할 수 있도록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그에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을 것이요, 그에게 수행해야 할 일을 맡기지도 않으셨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공언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부주의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불경하게 하고 무관심하게 하는 감화를 끼친 때라도, 만일 그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참회로 책망을 받아들이고 겸손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아직도 그의 실패를 승리로 전환시킬 가능성이 있다. 가끔 패배의 굴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가능성이 없음을 깨닫게 해주므로 축복이 된다. {PP 633.2}

사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보내어진 견책에서 돌아서서 완고하게 자기의 주장을 고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거절하였다. 사울은 고의로 하나님을 떠났다. 사울은 그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지도를 받을 수 없었다. {PP 633.3}

사울은 길갈에서 이스라엘의 군대들 앞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아주 양심적인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그의 경건은 순수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기고 거행한 종교적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꺼이 허락하시고자 하신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하였고 오히려 사울의 손을 약하게 했을 뿐이었다. {PP 634.1}

아말렉 원정에 있어서도 사울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한바 필요되는 모든 일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부분적 순종을 기뻐하시거나 그럴 듯한 동기로 그가 태만히 한 일을 묵과하지도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요구하신 바에서 마음대로 떠나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기 소견대로…너희가…하지 말" 것이며,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신 12:8, 28)고 선언하신다. 어떤 행동을 결정할 때 그 결과가 자기에게 해로울 것인가를 묻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를 물어야 한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잠 14:12). {PP 634.2}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희생 제물 그 자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가치가 없다. 희생 제물은 드리는 자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표현하고, 장차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겠다는 서약을 하도록 의도되었다. 그러나 참회와 믿음과 순종심이 없다면, 제물들은 아무 가치가 없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범하고 하나님께서 멸하도록 명하신 것을 제물로 드리자고 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권위를 공공연히 멸시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그 예배는 하늘을 모독하는 일이었다. 우리 앞에 사울의 죄와 그 결과가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와 동일한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들은 여호와의 요구하시는 바는 믿고 순종하기를 거절하면서도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힘을 기울인다. 그와 같은 예배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아무런 응답이 없다. 그들이 종교 의식을 준수하는 데 아무리 열성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만일 고의로 당신의 명령 중 하나라도 범하기를 고집한다면 그들을 가납하실 수 없으시다. {PP 634.3}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반역은 본래 사단에게서 시작되었으며 하나님께 대한 모든 반역은 직접 사단의 감화 때문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반대하는 자들은 대반역자 사단과 동맹을 맺은 자들이며, 사단은 지각을 사로잡고 이해력을 그르치기 위하여 그의 능력과 간지(奸智)를 행사하고 있다. 사단은 모든 것을 올바로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우리들의 최초의 부모 아담과 하와처럼 사단의 매혹케 하는 마력 아래 있는 자들은 죄를 범하면 큰 유익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 {PP 635.1}

이와 같이 사단의 인도를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믿음으로 스스로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보다 사단의 기만적 능력에 대한 더 큰 증거는 없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의 권위에 대하여 반역했을 때에 그들은 다만 자신들과 같은 사람인 인간의 지도를 반대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저희가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고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을 거절함으로 그리스도를 거절하였고 하나님의 성령을 모독하였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큰 열심이 있노라고 공언하던 유대의 서기관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와 동일한 정신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고 자신들의 뜻을 따르고자 애쓰는 자들의 마음속에 존재한다. {PP 635.2}

사울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었다. 그가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감히 무시한 것은 이성의 명령과 건전한 판단에 반대되는 일이었다. 사울의 치명적인 오만은 사단의 흉악한 마법에서 나온 것이 분명하였다. 사울은 우상숭배와 사술을 진압하는 데 큰 열심을 나타냈으나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정신으로 행했고, 사술을 행하는 자처럼 사단의 감동을 받아서 책망을 받을 때에 더욱 완고하게 반역하였다. 만일 사울이 드러내 놓고 우상 숭배자들과 연합하였더라면 하나님의 성령을 그처럼 크게 모독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PP 635.3}

하나님의 말씀이나 당신의 영의 책망과 경고를 경시하는 것은 위험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사울처럼 유혹에 굴복하여 마침내 죄악의 진정한 성격에 대하여 눈멀게 되는 자들이 많다. 그들은 저희가 어떤 좋은 목적을 계획했고 여호와의 요구에서 떠나는 잘못을 범하지 않았다고 혼자 속으로 믿는다. 그리하여 그들은 은혜의 성령을 멸시함으로 마침내 성령의 음성을 더 이상 듣지 못하게 되고 저희가 선택한 기만에 빠져 버리게 된다. {PP 635.4}

길갈에서 나라를 확립시킬 때에 사무엘이 사울을 가리키며 "이제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삼상 12:13)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저희 마음에 맞는 사울을 왕으로 주셨다. 아름다운 신체와 큰 키와 군주다운 태도를 가진 사울의 외모는 왕의 품위에 대한 그들의 개념과 일치하였고, 군대를 통솔하는 그의 육체적 용맹과 능력은 저희가 다른 민족에게서 존경과 명예를 얻기에 가장 알맞다고 생각한 자격들이었다. 그들은 저희 왕이 공의와 공평으로 다스리기에 적합한 보다 큰 자격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다. 그들은 참으로 고상한 품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을 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성별되고 거룩한 성격을 유지해 갈 통치자의 자격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권고를 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방법을 구하였다. 그런고로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바라던 그와 같은 왕, 즉 그들의 품성을 닮은 왕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왕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 왕의 통치 아래서 저희의 과오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충성하는 데 필요한 경험을 얻어야 하였다. {PP 636.1}

여호와께서는 사울에게 나라의 책임을 맡기셨으나 그를 홀로 버려두시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그에게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를 보여 주셨다. 만일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셨을 것이다. 그의 뜻이 하나님의 뜻의 지배를 받고 그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연단에 복종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노력에 성공의 영예를 주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 행동하기를 선택하였을 때에 여호와께서는 더 이상 그의 지도자가 되실 수 없었고 그를 제거하실 수밖에 없었다. 그 후에 여호와께서는 "그 마음에 맞는 사람"(삼상 13:14)을 왕으로 부르셨는데 그는 품성에 결함이 없는 자가 아니었지만, 자신을 의지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지도를 받으며, 범죄했을 때에 견책과 징벌에 복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PP 636.2}

62장 다윗이 기름부음을 받음

"크신 왕의 성읍" 예루살렘에서 남방쪽으로 수 마일 떨어진 곳에 베들레헴이 있었고, 이곳에서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우셔서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받으시기 천여 년 전에 이새의 아들 다윗이 태어났다. 구주께서 초림하시기 여러 세기 전에 활기가 넘치던 다윗은 베들레헴 주위의 산에서 풀을 뜯는 양떼를 지키면서 그의 소년 시절을 보냈다. 이 순박한 목동은 자기가 작곡한 노래를 수금에 맞추어 불렀는데, 그 수금의 아름다운 선율은 이 활기찬 젊은이의 음성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반주를 만들어 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택하시고, 양떼와 함께 지내는 고독한 생활 가운데서 당신께서 장래에 그에게 위임하시고자 계획하신 사업을 위하여 그를 준비시키시고 계셨다. {PP 637.1}

이와 같이 다윗이 미천한 양치기로서 한가한 생활을 보내고 있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대하여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계셨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장로들은 제사 드리러 오라는 초청에 응했고 사무엘은 또 이새와 그의 아들들도 불렀다. 제단을 쌓고 제사 준비를 했다. 이새의 가족은 제일 막내아들 다윗을 제외하고는 모두 참석했다. 다윗은 양떼를 지키기 위해 남게 되었는데 이는 양떼를 돌보지 않고 버려두면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PP 637.2}

제사를 마치고 잔치에 들어가기 전에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의 당당한 모습을 선지자답게 검사하기 시작하였다. 엘리압은 장자였고 키와 아름다움에 있어서 다른 아들들보다 사울을 많이 닮았다. 그의 아름다운 용모와 잘 발달된 체격은 선지자의 주목을 끌었다. 사무엘은 그의 군주다운 태도를 보고 "이 사람은 과연 하나님께서 사울의 후계자로

선택하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가 엘리압에게 기름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재가를 기다렸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셨다. 만일 엘리압이 왕위에 부름을 입는다면 그는 거만하고 가혹한 통치자가 되었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외모의 아름다움으로 사람을 하나님께 천거할 수 없다. 품성과 품행에 나타난 지혜와 미덕은 그 사람의 참된 아름다움을 나타낸다. 우리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가납하심을 입게 하는 것은 내적 가치, 즉 마음의 미덕이다. 우리는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 사실을 얼마나 깊이 느껴야 하겠는가! 우리는 사무엘의 과오에서 얼굴의 아름다움이나 신장의 준수함으로 평가함이 얼마나 헛되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특별한 빛을 받지 아니하면 인간의 지혜만으로는 마음의 비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권고를 깨닫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다. 피조물들에 관한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은 우리의 유한한 마음으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만일 당신의 자녀들이 그들의 뜻을 하나님께 복종한다면, 그들은 저희가 자격을 갖춘 바로 그 자리를 채울 수 있고 저희 손에 맡겨진 바로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계획은 인간의 완고함으로 인해 좌절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 {PP 638.1}

엘리압이 사무엘의 검사를 받았고 의식에 참석했던 여섯 형제도 그의 뒤를 따라 계속 선지자의 심사를 받았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들 중에 아무에게도 당신의 택한 자임을 나타내지 않으셨다. 크게 불안한 마음으로 사무엘은 그 젊은이들의 마지막 사람을 바라보았다. 선지자는 어리둥절하고 당황해졌다. 그는 이새에게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고 물었다. 이새는 대답하기를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고 하였다. 사무엘은 그를 불러오라고 지시하고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고 하였다. {PP 638.2}

외로운 양치기 소년은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와서 자기를 불러오라고 한다는 예기치 않은 기별을 사자로부터 전해 듣고 매우 놀랐다. 그는 놀라움으로 이스라엘의 선지자요, 사사인 사무엘이 왜 자기를 보고자 할까 하는 의아심을 가지고 지체없이 그 부름에 순종하였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사무엘이 기쁨으로,

어여쁘고 남자답고 겸손한 양치기 소년을 바라볼 때에 여호와의 음성이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다. 다윗은 천한 목자의 직분에서 스스로 용감하고 충성스러움을 증거하였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시고자 택하셨다. “사무엘이 기름 뿔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에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선지자는 그에게 맡겨진 일을 마치고 평안한 마음으로 라마로 돌아갔다. {PP 641.1}

사무엘은 그가 온 뜻을 이새의 가족들에게까지도 알리지 않았고 다윗에게 기름 붓는 의식은 비밀리에 거행되었다. 이로써 그 젊은이에게 그를 기다리고 있는 운명을 통고하였다. 그의 앞 생애의 여러 가지 경험과 모든 위험 중에서도 그가 기름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므로, 그것이 그의 생애로 성취되어야 할 하나님의 목적에 진실하도록 그에게 감명을 줄 것이다. {PP 641.2}

다윗은 그에게 큰 영예가 주어졌다고 의기양양해 하지 않았다. 다윗은 그가 차지할 높은 지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계획이 당신께서 정하신 시간과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조용히 그의 생업을 계속하였다. 양치기 소년은 기름부음을 받기 전처럼 겸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들로 되돌아가 친절하게 양떼를 지키고 보호하였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영감으로 가곡들을 작곡하여 거문고를 탔다. 그의 앞에는 화려한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경치가 전개되었다.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매어달린 포도나무는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고, 푸른 잎이 무성한 삼림의 나무들은 미풍에 흔들거리고 있었다. 그는 마치 신랑이 그 신방에서 나오고 경기장에서 달리려는 강한 선수처럼 하늘에서 이글거리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하늘을 찌를 듯한 험한 산봉우리들이 솟아 있고 저 멀리 모압 땅에는 산성을 이룬 불모의 절벽이 솟아 있었다. 이러한 모든 풍경 위에 푸른 하늘이 아치처럼 부드럽게 펼쳐져 있었고 그 너머에 하나님이 서 계셨다. 다윗은 하나님을 볼 수 없었으나 하나님의 만드신 만물을 찬양하였다. 삼림과 산과, 목장과 시내를 금빛으로 물들이는 정오의 햇빛은 그의 마음을 빛의 아버지, 곧 모든 행복과 완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을 바라보게 하였다. 날마다 계시되는 그의 창조주의 품성과 위엄은 젊은 시인의 마음을 흠모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였다. 하나님과 그분의 사업을 명상함으로 다윗의 지력과 마음의 능력은 장래의 그의 사업을 위하여 계발되고 강화되었다. 그는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더욱 가까이 교통하였다. 그의 마음은 끊임없이 그의 노래에 영감을 주는 새로운 주제들을 깊이 파고들어가 그의 거문고의 선율을 깨우곤 했다. 그의 풍부한 성량의 멜로디는 대기 중에 쏟아져 나와 마치 하늘 천사들의 즐거운 노래에 화답하는 것처럼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메아리쳤다. {PP 641.3}

쓸쓸한 들판에서 수고하고 배회하던 이런 세월의 결과를 누가 측량할 수 있었겠는가? 그의 비천한 처지에서 자연과 하나님으로 더불어 가진 교제와 양떼를 돌보는 일과 그가 겪은 위험과 구원과 슬픔과 기쁨은 다윗의 품성을 형성해서 그의 장래의 생애에 영향을 끼쳤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시인의 애정 깊은 노래를 통하여 그 후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사랑과 믿음을 불붙게 해주었고, 그들로 하여금 언제나 변함없으신 사랑의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였다. {PP 642.1}

다윗은 아름다움과 활력이 넘치던 청년 시대에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자들과 함께 높은 지위를 차지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하나님의 귀중한 선물인 그의 재능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의 명상과 묵상의 기회는 그를 지혜와 경건으로 부요하게 하여 하나님과 천사들의 사랑을 받게 하였다. 창조주의 완전하심을 그가 명상할 때에 하나님께 대한 더 분명한 개념이 마음에 전개되었다. 모호한 주제들이 명백하여지고 난제들이 풀리고 난처한 일들은 잘 조화되어, 새로운 빛의 모든 광선은 새로운 환희와 보다 아름다운 헌신의 찬송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과 구세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다. 그를 감동시킨 사랑, 그를 둘러싼 슬픔, 그에게 수반된 승리는 모두 그의 적극적인 생각의 주제였다. 그리고 그가 자기의 생애에 대한 모든 섭리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에, 그의 마음은 보다 더 뜨거운 경모와 감사로 고동쳤고 그의 입술에서는 더 아름다운 곡조가 흘러나왔다. 그는 수금을 기쁨으로 뜯었다. 그리하여 양치기 소년은 힘에 힘을 더하고 지식에 지식을 더하게 되었는데 이는 여호와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심이었다. {PP 642.2}

63장 다윗과 골리앗

하나님께로부터 버림 받은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리고 선지자가 그에게 전한 탄핵의 말에 위압을 느꼈을 때 사울왕의 마음은 큰 반역과 절망으로 가득 찼다. 교만한 왕이 머리를 수그리게 만든 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었다. 사울은 그가 지은 죄가 얼마나 악한지에 대해 분명한 인식이 없었다. 그는 자기의 생애를 개혁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의 왕위를 그에게서 빼앗고 그 후손에게 계승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불공평한 처사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항상 그의 집에 닥쳐올 멸망을 미리 염려하고 있었다. 그는 그가 원수와 교전할 때에 나타낸 용맹이 그의 불순종의 죄를 상쇄할 것이라고 느꼈다.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그의 거만한 정신은 절망의 상태에 이르러 마침내 이성을 잃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의 모사(謀士)들은 사울에게 간하여 솜씨 있는 음악가의 도움을 구하게 하였으니, 이는 아름다운 악기의 달래는 곡조가 그의 혼란한 정신을 진정시키기를 바랐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섭리로써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이 왕의 앞에 불려갔다. 다윗의 고상하고 하늘의 영감을 받은 노래는 바라던 효과를 나타내어 짙은 구름처럼 사울의 마음을 덮었던 우울증은 사라져 버렸다. {PP 643.1}

사울의 궁정에서 할 일이 없을 때에는, 다윗은 들에 있는 그의 양떼에게로 돌아가서 마음과 태도의 단순함을 유지하기를 계속하였다. 다윗은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부름을 받고 왕 앞에 나아와 봉사했으며 악신이 왕을 떠날 때까지 혼란한 군주의 마음을 진정시켰다. 그러나 사울이 다윗을 좋아하고 그의 음악에 대해 큰 기쁨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목자는 왕의 집에서 나와 그의 양을 먹이는 들과 산으로 가는 것을 더 편안하고 즐거운 일로 여겼다. {PP 643.2}

다윗은 하나님과 인간의 총애를 받으면서 장성하고 있었다. 그는 여호와의 방법대로 교육을 받았고 이제 그의 마음은 전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행하기에 전념하였다. 그는 숙고할 새로운 주제들을 갖고 있었다. 그는 왕의 궁정에 있으면서 제왕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었다. 그는 사울의 영혼을 괴롭히는 유혹들을 발견하였고, 이스라엘의 처음 왕의 품성과 행동 속에 숨겨진 것들을 꿰뚫어 볼 수 있었다. 그는 어두운 슬픔의 구름에 그늘진 왕의 영광을 보았고, 사울의 가족이 저희 사생활에 있어서 행복과는

거리가 먼 것을 알았다. 이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은 그의 생각을 혼란시킨 것들이었다. 그러나 다윗은 깊은 명상에 잠기거나 근심 걱정이 엄습해 올 때에는, 수금을 뜯으며 노래를 불러서 그의 마음을 모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였다. 그렇게 하면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검은 구름들이 사라져 버렸다. {PP 643.3}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신뢰의 공과를 가르치고 계셨다. 모세를 당신의 사업을 위해 훈련시키신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이새의 아들을 당신의 선민의 지도자가 되도록 양성하시고 계셨다. 다윗은 그의 양떼를 지켜 보호하면서 크신 목자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양들을 어떻게 돌보시는가를 배우고 있었다. {PP 644.1}

다윗이 양떼와 함께 돌아다니던 외로운 산과 거친 계곡들은 맹수들이 잠복하고 있는 곳이었다. 가끔 요단 강변 숲과 산중 굴에서 굶주린 사자나 곰이 나타나 사납게 양떼를 공격하였다. 다윗은 그 당시의 습관을 따라 물매와 목자의 지팡이만으로 무장하고 있었으나 자기 양떼를 보호하는 일에 그의 힘과 용기가 일찍부터 나타났었다. 후에 이 회전(回戰)을 묘사하면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삼상 17:34, 35). 이런 일들에 대한 다윗의 경험은 그의 마음의 어떠함을 증거하였고 그에게 용기와 인내와 신앙을 계발시켜 주었다. {PP 644.2}

다윗이 사울의 궁정으로 소환되기 전에도 용감한 행위로 그의 이름을 떨친 일이 있다. 다윗을 데려온 관원이 왕의 주목을 끌기 위하여 다윗은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고 말했으며 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삼상 16:18)라고 하였다. {PP 644.3}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에게 전쟁을 선포했을 때에 이새의 세 아들은 사울의 지휘 아래 있는 군대에 가담했으나 다윗은 집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얼마 후에 다윗은 사울의 진영을 방문하러 가게 되었다. 아버지의 명을 따라 그는 형님들에게 기별과 선물을 가지고 가서 그들이 여전히 안전하고 건강한지 알아보고 와야 하였다. 그러나 이 젊은 목자는 이새에게

알려지지 않은 보다 더 큰 사명을 위임받았다. 이스라엘 군대가 위험 중에 있었고 다윗은 천사에게서 그의 백성을 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PP 644.4}

다윗이 군대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마치 전투가 시작되려고 하는 때처럼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하"였다.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인의 군대가 전투태세를 갖추어 서로 접근하고 있었다. 다윗은 부대로 달려가 그의 형들에게 문안하였다. 다윗이 형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의 대장 골리앗이 나아와, 모독적인 언사로 이스라엘을 무시하면서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서 자기와 단둘이 격투할 자를 준비하라고 도전하였다. 골리앗의 도전은 계속되었고 온 이스라엘은 공포에 떨고 있었다. 날마다 블레셋 사람의 호통을 듣고도 그 거만한 자를 침묵시킬 전사를 내세우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다윗의 마음은 몹시 흥분하였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당신의 백성의 면목을 유지시키려는 결심으로 불타올랐다. {PP 645.1}

이스라엘의 군대는 기가 꺾여 있었다. 그들은 용기를 잃고 서로 "너희가 이 올라 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고 말할 뿐이었다. 다윗은 치욕과 분개함을 금치 못하고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관대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고 외쳤다. {PP 645.2}

이 말을 들은 다윗의 맏형 엘리압은 어린 다윗의 마음을 흥분시키고 있는 감정을 잘 알고 있었다. 다윗은 한 목자에 불과하였으나 매우 보기 드문 대담한 성격과 용기와 힘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사무엘이 저희 아버지의 집을 은밀하게 방문했다가 말없이 가버린 데 대해 그의 방문의 참된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의심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다윗이 그들보다 더 영광을 받는 것을 볼 때에 질투심이 일어났고, 다윗의 성실과 형제로서 보여주는 이 친절에 합당한 존중과 사랑을 가지고 그를 대하지 않았다. 그들은 다윗을 단지 풋내기 목자로밖에 보지 않았으며, 다윗이 말한 질문을 듣고 엘리압은 블레셋 사람의 거인을 침묵시키려고 시도하지 못하는 자신의 비겁함에 대한 비난처럼 생각하였다. 엘리압은 분노하여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뉘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고 부르짖었다. 다윗은 공손하나 단호하게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PP 645.3}

다윗의 말이 왕에게 전달되었고 왕은 소년을 그의 앞으로 불러왔다. 사울은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고 말하는 목자의 말을 듣고 놀랐다. 사울은 다윗의 뜻을 돌이키고자 노력하였으나 이 소년은 움직이지 않았다. 다윗은 단순하고 겸손한 방법으로 대답하면서 그의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 동안에 겪은 그의 경험을 말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라고 말하였다. {PP 646.1}

이스라엘 군대는 40일 동안 블레셋 거인의 거만한 도전 앞에 떨었다. 그들은 키가 여섯 규빗이나 되는 골리앗의 거대한 체구와 창을 볼 때에 저절로 낙담하게 되었다. 그는 머리에 놋투구를 썼고 중수가 5천 세겔 되는 어린갑(魚鱗甲)을 입고 있었으며 그 다리는 놋경갑을 쳤었다. 그 갑옷은 고기비늘처럼 차례차례 깐 놋 조각으로 만들어졌고, 그것들은 매우 단단하게 포개졌기 때문에 창이나 화살이 갑옷을 뚫고 들어갈 수 없었다. 거인은 그의 등에 역시 놋으로 만든 창을 메고 있었다. “그 창자루는 베틀채 같고 창날은 철 육백 세겔이며 방패든 자는 앞서 행하더라.” {PP 646.2}

골리앗은 조석으로 이스라엘 진으로 가까이 나아와 큰 소리로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오를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고 하였다. {PP 646.3}

사울왕은 다윗에게 골리앗의 도전을 받아들이도록 허락해 주기는 하였으나 다윗이 그의 용감한 일에 성공하리라고는 거의 기대하지 않았다. 왕의 갑옷을 소년에게 입히라는 명령이 내렸다. 무거운 놋 투구를 그의 머리 위에 씌우고 그 몸에는 어린 갑옷을 입히고 그 옆구리에는 왕의 검을 채웠다. 이와 같이 차려 입은 다윗은 그의 사명을 띠고 출발했으나 얼마 가지 않아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다. 근심스럽게 바라보던 자들은 얼른 생각하기를 다윗이 상대할 수 없는 원수를 만나 그의 생명이 위험하므로 돌아온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이것은 용감한 소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이었다. 다윗은 사울에게 돌아가서

무거운 갑옷을 벗어 두고 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간청하면서 “익숙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고 말했다. 그는 왕의 갑옷을 벗고 그대신 그의 손에 막대기와 목자의 주머니와 단순한 물매를 취했다. 그는 가다가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로 가까이 나아갔다. 거인은 이스라엘 전사 중 가장 힘센 자와 대결하리라고 예상하면서 담대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방패 든 자가 그의 앞에 행하였다. 그를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골리앗이 다윗에게 가까이 나아왔을 때에 그는 어리기 때문에 소년이라 불러야 할 한 풋내기밖에 보지 못했다. 다윗의 얼굴은 건강으로 불그스레했고 갑옷을 입지 않은 그의 튼튼한 체격은 유리해 보였다. 그러나 이 젊은이의 체격과 블레셋 사람의 거대한 체구는 현저한 대조를 이루었다. {PP 646.4}

골리앗은 놀람과 분노로 충만하였다. 그는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아는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에게 가장 무서운 저주를 퍼부었다. 그는 조소하며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고 부르짖었다. {PP 647.1}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전사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는 앞으로 걸어 나가며 그의 원수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PP 647.2}

다윗의 음성에는 두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그의 아름다운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이 있었다. 맑고 음악 소리 같은 이 말은 사방에 울려 펴져서 전쟁을 위하여 정렬하고 있는 무수한 무리들의 귀에 명확하게 들렸다. 골리앗의 분노는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골리앗은 화가 왈칵 나서 그의 이마를 보호하고 있던 투구를 뒤로 밀어 제치고 그의 적수에게 보복하려고 앞으로 달려 나왔다. 이새의 아들은 원수를 대항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오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PP 648.1}

두 군대의 대열은 놀라움에 휩쓸렸다. 그들은 다윗이 죽임을 당하리라고 확신하고 있었으나 돌이 공간을 윙하고 목표를 향하여 곧게 날아갈 때에, 강대한 전사가 마치 돌연히 소경이 된 것처럼 전전 긍긍하면서 양손을 앞으로 내미는 것을 보았다. 거인은 비틀거리다가 잘린 참나무처럼 땅에 엎드러졌다. 다윗은 일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엎드러진 블레셋 사람에게로 달려가 양손으로 골리앗의 무거운 칼을 잡았다. 몇 분 전만 해도 그 거인은 이 칼로 소년의 머리를 자르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들에게 줄 것이라고 장담했었다. 이제 그 칼은 번쩍 들렸고 교만하던 자의 머리는 몸뚱이에서 굴러 떨어졌으며 이스라엘의 진에서는 환성을 올렸다. {PP 648.2}

블레셋 사람들은 공포에 사로잡혔고 계속하여 일어난 혼란은 갑자기 후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히브리인들이 도망하는 원수들의 뒤를 추격할 때에 개가를 부르는 히브리인들의 함성은 산봉우리들을 따라 메아리쳤다. 그리고 그들은 “블레셋 사람을 쫓아 가드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의 상한 자들은 사아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PP 648.3}

64장 도망자 다윗

골리앗이 살해된 후 사울은 다윗을 그와 함께 있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도록 허락지 않았다. 그 동안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과 다윗은 의형제의 언약을 맺었다. 왕의 아들 요나단은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중요한 책임을 맡았으나 겸손함을 잃지 않았고 왕의 가족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사랑도 받았다. {PP 649.1}

"다윗이 사울의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라. 다윗은 사려 깊고 충성스러웠으며,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다. 사울은 가끔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여호와의 지도를 받은 사람이 그와 함께 있다면 나라가 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사울은 그가 다윗과 교통하는 것은 자신에게도 방벽이 되리라고 믿었다. 다윗이 여호와의 총애와 보호를 받는 한 사울이 그로 더불어 전쟁에 나간다면 사울에게 방벽이 될 수 있을 것이었다. {PP 649.2}

다윗이 사울과 관계를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신 바였다. 다윗이 궁정에서 직분을 맡게 된 것이 그로 하여금 국사에 대한 지식을 얻게 하고 장차 그가 위대하게 될 때를 위한 준비를 갖추게 해주었다. 이것은 그로 국민의 신임을 얻을 수 있게 했고 사단의 적의를 통하여 그에게 닥치는 파란곡절과 고난은 그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게 해주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우정도 역시 장래의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 모든 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이스라엘 양편을 위한 당신의 은혜로우신 목적을 이루고 계셨다. {PP 649.3}

그렇지만 다윗에 대한 사울의 친절은 오래 가지 못했다. 사울과 다윗이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에서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였다. 한 무리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라고 노래할 때에 다른 무리가 그 노래를 받아서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화답하였다. 왕의 마음에 질투심이 일어났다. 왕은 이스라엘 여인들의 노래에서 다윗이 자기보다 더 높임을 받은

까닭에 분노하였다. 그는 이 질투의 감정을 억제하는 대신에 그의 품성의 약점을 드러내어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의 더 얻을 것이 이 나라밖에 무엇이냐"고 부르짖었다. {PP 650.1}

사울의 품성의 큰 결점은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것이었다. 이 특성은 그의 행동과 사상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쳐서 모든 일을 칭찬과 자기를 높이려는 욕망으로 행하였다. 옳은 일과 그릇된 일에 대한 사울의 표준은 사람들의 칭찬에 좌우되는 저급한 표준이었다. 먼저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자들은 아무도 안전하지 못하다. 사람들의 판단에서 첫째가 되는 것이 사울의 야망이었다. 이 찬양의 노래를 듣고 있는 동안에 왕의 마음에는 다윗이 백성의 인심을 얻어 자기를 대신하여 왕위에 오를 것이라는 생각이 굳어져 갔다. {PP 650.2}

사울은 마음 문을 열어 질투심이 들어오도록 용납함으로 자기 영혼을 중독시켰다. 왕은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신 일은 무엇이든지 성취하시고 아무도 그것을 방해할 수 없다는 교훈을 선지자 사무엘에게 배웠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계획이나 능력에 대한 참 지식이 없음을 드러내었다. 이스라엘의 군주는 그의 뜻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있었다. 사울은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던 기간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 그는 그의 충동적인 감정이 그의 판단을 지배하도록 허락함으로 인해 마침내 맹렬한 감정에 휩쓸려 들어갔다. 그는 분노를 격발하였고 그런 때는 감히 그의 뜻을 거스르는 자는 누구든지 죽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의 분노는 낙담과 자기 경멸로 변하고 그의 마음은 후회로 가득 차곤 했다. {PP 650.3}

사울은 다윗이 타는 수금 소리를 듣기 좋아했다.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악신은 한동안 물러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하루는 다윗이 그의 앞에서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악기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고 있을 때에 사울은 그의 음악가에게 창을 던졌다. 다윗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보호함을 받아 상처를 입지 아니하고 미친 왕의 분노에서 피하였다. {PP 650.4}

사울은 다윗에 대한 질투심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더 다윗의 생명을 취할 기회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여호와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를 해하려는 사울의 계획은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다. 사울은 그를 다스려온 악신의 지배에 자기 자신을 맡겼으나 다윗은 권고에 능하시고 구원하는 일에 강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였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잠 9:10)므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길로 행하기를 바라는 다윗의 기도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향했다. {PP 651.1}

그의 적수를 멀리 떼어 두기를 갈망한 왕은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았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다. 백성들은 다윗이 유능한 사람이며 그의 손에 맡겨진 일들은 지혜롭고 솜씨 있게 처리된다는 사실을 빨리 알았다. 다윗의 권고는 현명하고 신중한 성격의 권고였으므로 안전히 따를 수 있음이 판명된 반면에 사울의 판단은 때때로 믿을 수 없었고 그의 결정은 현명하지 못했다. {PP 651.2}

사울은 항상 다윗을 죽일 기회를 노리고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했으므로 다윗을 두려워하였다. 다윗의 흠 없는 품성은 왕의 분노를 일으켰고, 왕은 바로 다윗의 그러한 품성이 자신의 품성과 대조를 이루어 자기를 비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사울을 비참하게 만들고 그의 왕좌 아래 있는 겸손한 신하를 위험에 처하게 한 것은 바로 질투심이었다. 이 품성의 악한 특성은 이 세상에 얼마나 말할 수 없이 많은 재해를 가져왔는가! 사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던 그 적의는 가인의 마음을 흔들어 그 아우 아벨을 해하게 한 바로 그 적의였는데 아벨의 행위는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고 가인의 행위는 악하여 여호와께서 그에게 축복할 수 없으셨다. 질투심은 교만의 소산이며 만일 그것을 마음속에 품으면 그것은 증오심을 낳고 마침내 보복과 살인을 행하게 할 것이다. 사단은 사울의 마음속에 자기를 결코 해한 일이 없는 자에 대한 분노를 자극함으로 자신의 품성의 어떠함을 나타내었다. {PP 651.3}

왕은 다윗을 면밀히 감시하여 그를 멸망시킬 구실이 될 수 있는 어떤 몰지각하고 경솔한 사건을 찾고자 하였다. 왕은 이 젊은이의 생명을 취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악한 행위가 국민 앞에서 정당화되기까지는 만족할 수 없다고 느꼈다. 왕은 다윗에게 여전히 큰 용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하면 그의 담력의 보상으로 왕가의 큰 딸과 결혼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함으로 다윗의 발에 올무를 놓았다. 이 제의에 다윗은 겸손히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비의 집이 무엇이관대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라고

대답하였다. 군주는 공주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보냄으로 그의 성실치 못함을 나타냈다. {PP 651.4}

다윗에 대한 사울의 막내딸 미갈의 애정은 왕으로 하여금 그의 적수를 해할 음모를 꾸밀 다른 기회를 제공하였다. 사울은 다윗에게, 제시한 수효의 원수를 격멸하고 살해하면 미갈을 그에게 출가시키겠다고 제의하였다.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려함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보호하셨다. 다윗은 승리자로서 전쟁에서 돌아와 왕의 사위가 되었다.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였”으며 분노한 왕은 그의 음모가 그가 멸하고자 한 자를 높이는 결과가 되었음을 알았다. 왕은 이 사람이야말로 여호와께서 자기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자이며 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위에 군림할 자임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었다. 왕은 모든 가면을 벗어 버리고 직접 요나단과 궁정의 신하들에게 그가 미워하는 자의 생명을 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PP 652.1}

요나단은 왕의 의도를 다윗에게 알리고 그가 그의 아버지에게 이스라엘의 구원자의 생명을 아끼도록 간청할 동안 숨어 있으라고 명하였다. 요나단은 왕의 앞에서 다윗이 민족의 명예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행한 일과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를 흩으시려고 쓰신 자를 죽인다면 얼마나 무서운 죄가 그를 살해한 자에게 내리겠느냐고 말했다. 왕의 양심은 찔림을 받고 그의 마음은 부드러워졌다. “사울이…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다. 다윗은 사울에게 나아와 전에 하던 바와 같이 그의 앞에서 섬겼다. {PP 652.2}

다시 이스라엘 사람과 블레셋 사람 사이에 전쟁이 선포되었고 다윗은 군사를 이끌고 원수를 대적하였다. 히브리 군사들은 대승리를 거두었고 그 영토의 백성들은 다윗의 지혜와 영웅적 행위를 찬양하였다. 이 일은 사울이 다윗에게 전부터 가지고 있던 증오심을 다시금 불러일으켰다. 다윗이 왕 앞에서 수금을 타고 있는 동안 온 궁전은 아름다운 곡조로 충만했다. 그때 사울은 질투심에 사로잡혀 음악가를 벽에 박으려는 생각으로 다윗에게 단창을 집어 던졌다. 그러나 여호와의 천사는 그 치명적 무기를 옆으로 빗나가게 하였다. 다윗은 피하여 자기 집으로 도망하였다. 사울은 정탐꾼을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다윗이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에 잡아 죽이게 하였다. {PP 652.3}

미갈은 그의 아버지의 의도를 다윗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그는 다윗에게 그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라고 강권한 후 그를 창문으로 달아내려 도망할 수 있게 하였다. 다윗은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피하였고 왕의 불쾌히 여김을 두려워하지 않는 선지자는 도피자를 환영하였다. 사무엘의 집은 왕궁과는 대조적으로 평화스러운 곳이었다. 산중에 있는 이 집에서 여호와의 존중히 여김을 받는 종은 그의 사업을 계속하였다. 선지자의 무리가 사무엘과 함께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면밀히 연구하고 사무엘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교훈의 말씀을 경건히 듣고 있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교사에게서 귀중한 교훈을 배웠다. 다윗은 사울의 군사들이 이 신성한 장소에 침입하도록 명령을 받지 않으리라고 믿었으나 절망적인 왕의 어두운 마음은 신성한 곳도 분별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다윗과 사무엘의 교통은 왕의 질투심을 일으켰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로 존경을 받는 사무엘이 사울의 적수에게 입신출세토록 감화를 끼치지나 않을까 함이었다. 왕은 다윗이 있는 곳을 알았을 때에 관원들을 보내어 그를 기브아로 데려오게 하였고, 거기서 그의 살해 계획을 수행하려고 하였다. {PP 653.1}

사자들은 다윗의 생명을 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출발하였으나 사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그들을 제어하셨다. 그들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 도중에 천사를 만난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은 천사들을 만났다. 사자들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 예언하기 시작해서 여호와의 영광과 위엄을 선포하였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분노를 권세로 눌러 소멸하시고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사 악을 제재하시는 한편 천사들의 호위로 당신의 종을 보호하셨다. {PP 653.2}

다윗을 그의 수중에 넣기 위해 몹시 기다리고 있는 사울에게 그같은 기별이 전달되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책망을 깨닫는 대신에 더욱더 분노하여 다른 사자들을 보냈다. 이들도 역시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 먼저 사자들과 함께 예언하였다. 왕은 세 번째 대사들을 파송했으나 그들도 선지자의 무리에게 왔을 때에 역시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예언하였다. 그 후에 사울은 자기가 친히 가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그의 맹렬한 적개심을 제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일 기회를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결심하고 그는 다윗에게 가자마자 결과야 어떻게 되든 자기 손으로 그를 죽이기로 작정하였다. {PP 653.3}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가 도중에 그를 만나 그를 제어하였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능력으로 사울을 붙들어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예언도 하고 거룩한 노래를 부르면서 걸어가게 하였다. 그는 세상의 구주로서 메시야가 오실 것을 예언하였다. 라마의 선지자의 집에 왔을 때에 사울은 그의 신분을 나타내는 겉옷을 벗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아래서 종일 종야 사무엘과 그 생도들 앞에 누웠었다. 백성들은 이 경이로운 광경을 보려고 모여들었고 왕의 경험은 원근에 널리 알려졌다. 그리하여 그의 치세의 끝에 가까이 이르러서 이것은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었다는 이스라엘의 속담이 되었다. {PP 654.1}

다시 박해자의 목적은 좌절되었다. 사울은 다윗과 화친할 것을 보증했으나 다윗은 왕의 회개를 조금도 신임하지 않았다. 다윗은 왕의 마음이 전처럼 변할 것을 염려하여 이 기회를 이용하여 피하고자 하였다. 다윗은 몹시 상심하여 그의 친구 요나단을 다시 한 번 보기를 갈망하였다. 자기의 무죄를 의식한 다윗은 왕의 아들을 찾아가 가장 감명적인 호소를 하였다. 다윗은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부친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이관대 그가 내 생명을 찾느뇨”라고 물었다.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의도를 바꾸어 더 이상 다윗의 생명을 취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하여 요나단은 다윗에게 말하기를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부친이 대소사를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고는 행함이 없나니 내 부친이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능력이 뚜렷이 나타난 후에는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아직도 다윗을 해하려고 한다고 믿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윗은 믿지 않았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매우 간절한 말로 “여호와의 사심과 네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하였다. {PP 654.2}

월삭에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거룩한 축제를 거행하였다. 이 축제일은 다윗과 요나단이 회견한 다음날이었다. 이 잔치에 두 젊은이는 왕의 식탁에 참석해야 하였으나 다윗은 참석하기를 두려워하고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형님들을 방문하기로 작정하였다. 귀로에 그는 잔치하는 곳에서 멀지 않은 들에 숨을 것이었다. 다윗은 3일 동안 자신을 왕 앞에 드러내지 않을 것이었다. 요나단은 사울의 동태를 살필 것이었다. 그리고 만일 이새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고 물을 때에는 요나단은 그가 그의 아버지의 가족들이 청한 제사에

참예하러 집에 갔다고 말해야 하였다. 만일 왕이 분노를 표시하지 않고 “좋다”고 대답하면 다윗이 궁정에 돌아와도 안전할 것이다. 만일 다윗이 없는 데 대하여 왕이 분노하게 되면 다윗은 도망하기로 결정해야 하였다. {PP 654.3}

잔치의 첫 날에는 왕은 다윗이 오지 않은 데 대하여 아무것도 묻지 않았으나 그 자리가 둘째 날에도 비어 있자 왕이 묻기를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뇨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가로되 청컨대 나로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하였으니 내가 네게 사랑을 받거든 나로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고 하였다. 사울은 이 말을 들을 때에 실로 분노를 억제할 수 없었다. 사울은 다윗이 살고 있는 한 요나단이 이스라엘의 보좌에 오를 수 없다고 선언하고 즉시 다윗을 부르러 보내어 그를 죽음에 처하도록 요구하였다. 다시 요나단은 친구를 위하여 중재하여 간청했다.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이 간청은 왕에게 사단적 분노를 더하게 할 뿐이었고 왕은 이제 다윗에게 던지려던 창을 자기 아들에게 던졌다. {PP 655.1}

왕자는 슬픔과 분노로 왕의 앞을 떠나 더 이상 잔치에 참석하지 않았다. 왕자가 정한 시간에 다윗이 그에 대한 왕의 의도를 알기 위하여 숨어 있는 곳으로 갈 때에 그의 영혼은 슬픔으로 축 쳐져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 목을 안고 슬피 울었다. 왕의 악하고 어두운 감정의 그늘이 이 젊은이들의 생애에 던져졌고 그들의 슬픔은 너무나 격렬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들이 작별하여 서로 다른 길로 갈 때에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는 요나단의 작별의 말이 다윗의 귀를 울렸다. {PP 655.2}

왕의 아들은 기브아로 돌아가고 다윗은 몇 마일 떨어졌으나 역시 베냐민 지파에 속한 놉이란 성읍에 급히 도착하였다. 성막이 실로에서 이곳으로 옮겨졌었고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여기서 봉사하였다. 다윗은 하나님의 종에게밖에는 어느 다른 곳에서 피신할 곳을 찾지 못했다. 제사장은 다윗이 걱정과 슬픔을 띤 얼굴로 혼자 급히 온 것을 보고 몹시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제사장은 그에게 어떻게 여기에 왔느냐고 물었다. 젊은이는 발견되지 않을까 하는 끊임없는 두려움에 싸여 극도의 긍지에 몰려 거짓말을 하였다.

다윗은 제사장에게 자기는 왕의 은밀한 사명을 띠고 파송되었고 먼 여행이 필요된다고 말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부족을 나타내었고 그의 죄는 대제사장의 죽음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만일 사실대로 분명하게 진술했더라면 아히멜렉은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처신할 방법을 알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위험 중에서라도 진실이 당신의 백성의 표가 되기를 요구하신다. 다윗은 제사장에게 떡 다섯 덩이를 요구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의 수중에는 거룩한 떡밖에 없었으나 다윗은 계속 그 떡을 먹기에 거리끼는 일이 없음을 말하여 그의 배고픔을 만족시킬 떡을 얻었다. {PP 655.3}

이제 새로운 위험이 나타났다. 히브리인의 신앙을 가졌노라고 공언하는 사울의 목자장 도엑이 예배 장소에서 서원을 갚고 있었다. 다윗은 이 사람을 보고 급히 다른 피난처를 찾기로 결심하고 필요할 때에 자신을 방어할 어떤 무기를 얻고자 하였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칼을 요구했을 때에 그는 성막에 유물로 보관해 둔 골리앗의 칼밖에 없다고 말하였다. 다윗은 “그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라고 대답하였다. 전에 블레셋 사람의 전사를 죽이는 데 사용했던 칼을 잡을 때에 다시 다윗의 용기가 회복되었다. {PP 656.1}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였다. 이는 그가 사울의 영토보다 그의 백성의 원수들 가운데가 더 안전하다고 느낀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윗이 여러 해 전에 블레셋 전사를 죽인 사람이란 말이 아기스에게 보고되어 이스라엘의 원수에게 피신처를 구하던 다윗은 자신이 큰 위험 가운데 있음을 알았다. 그러나 그는 미친 것처럼 가장하여 그의 원수들을 속여 도망하였다. {PP 656.2}

다윗의 최초의 과오는 놉에서 하나님을 불신한 것이었고 두 번째의 잘못은 아기스 앞에서 행한 기만이었다. 다윗은 고상한 품성의 특성을 드러내었고 그의 도덕적 가치는 그로 하나님의 총애를 받게 하였었다. 그러나 그에게 시련이 이를 때에 그의 믿음은 흔들리고 인간적 약점을 나타내었다. 다윗은 모든 사람을 정탐꾼과 배반자로 알았다. 다윗은 대위기의 때에 믿음의 확고한 안목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블레셋 거인을 정복하였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호를 가지고 나아갔었다. 그러나 쫓기고 박해를 당할 때에 그는 곤란과 고통으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그의 안목으로 거의 볼 수 없었다. {PP 656.3}

그러나 이 경험은 다윗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되었으니 이는 이것이 그로 하여금 자신의 연약함과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를 깨닫게 해주었다. 억압당하고 절망에 빠진 영혼들에게 오셔서 겁이 많은 자를 격려하시고 나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며 시련당하는 여호와의 종들에게 용기와 도움을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아름다운 감화는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죄 많은 자를 온유하게 다루시고 우리가 어떤 큰 슬픔에 짓눌려 있을 때와 역경에서 당신의 인내와 친절을 나타내시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고마우신 분인가! {PP 657.1}

하나님의 자녀들 편의 모든 실패는 믿음의 부족 때문에 생긴다. 그늘이 영혼을 에워쌀 때, 빛과 지도가 필요될 때에 우리는 위를 쳐다봐야 한다. 어둠 저편에는 빛이 있는 것이다. 다윗은 한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는 당연히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했다. 이는 그가 여호와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였고 위험 중에서도 하나님의 천사들의 보호를 받았었으며 경이로운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용기로 무장시켜 주신 자였기 때문이었다. 만일 그가 처한 고통스러운 환경에서도 그의 결심이 풀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생각하였더라면 그는 죽음의 그늘 속에서까지라도 평화를 얻었을 것이며 확신을 가지고 “산들이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사 54:10)는 여호와의 언약을 외웠을 것이다. {PP 657.2}

다윗은 유다 산중에서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피난처를 찾았다. 그는 적은 군사를 가지고 큰 군대를 대항할 수 있는 장소인 아둘람 굴에 피신해 있었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 다윗의 가족들은 늘 불안했다. 이는 그들의 다윗과의 관계 때문에 언제 사울의 부당한 의심이 그들에게 향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일,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장래의 통치자로 다윗을 택하신 일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비록 그가 외로운 동굴 속에 피신한 자이지만 그와 함께 있는 것이 질투심 많은 미친 왕의 위험을 무릅쓰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리라고 믿었다. {PP 657.3}

그의 가족들은 아둘람 굴에서 동정과 사랑으로 연합하였다. 다윗은 목소리와 수금으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시 133:1)라고 노래한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 수 있었다. 그는 그의 형님들 편에서의 불신의 쓰라림을 맛보았었다. 그러나 불화를 대신한 화목은 방랑자 다윗의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주었다. 바로 여기서 다윗은 시편 제57편을 지었다. {PP 658.1}

오래지 아니하여 왕의 가혹한 요구를 피해 나온 자들이 다윗의 무리에 가담하였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를 신임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는 그가 더 이상 여호와의 성령의 지도를 받지 않음을 그들이 안 까닭이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 갔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사백 명 가량이었더라.” 여기서 다윗은 그의 작은 나라를 만들고 질서와 규율을 세웠다. 그러나 그는 산중에 피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였다. 이는 왕이 그를 살해하려는 목적을 버리지 않았다는 끊임없는 증거를 본 까닭이었다. {PP 658.2}

다윗은 그 부모를 위하여 모압 왕에게 피난처를 구하였으나 얼마 후에 위험에 대한 여호와의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숨어 있던 곳에서 나와 헤렛 수풀로 도망하였다. 다윗이 겪은 경험은 불필요한 것이거나 아무 실속도 없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공의롭고 은혜로운 왕이 될 뿐만 아니라 현명한 장수가 되기에 합당한 훈련의 과정을 그에게 주시고 계셨다. 다윗은 피신자들의 무리와 더불어 사울이 그의 살인마적인 감정과 맹목적인 경솔로 전혀 감당할 수 없게 된 그 사업을 인수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고를 버리고는 공의롭고 신중하게 행할 수 있는 침착성과 지혜를 가질 수 없다.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고 인간의 지혜를 따르는 것처럼 무섭고 절망적인 질병은 없다. {PP 658.3}

사울은 아둘람 굴에서 다윗을 함정에 빠뜨려 사로잡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윗이 이미 그 은신처를 떠나버린 것을 알고 왕은 매우 노하였다. 다윗의 도주는 사울에게 신비스러운 일이었다. 사울은 그의 진중에 반역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이새의 아들에게 그의 접근과 계획을 알려 준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PP 658.4}

사울은 그의 신하들에게 자기를 대적하는 음모를 꾸몄다고 단정하고 값진 선물과 명예스러운 지위를 주겠다는 약속으로 그들을 매수하여 그의 백성 중에 다윗의 편이 된 자를 알리라고 하였다. 에돔 사람 도엑이 고발자로 변신하였다. 야심과 탐욕과 자기 죄를

책망한 제사장에 대한 증오로 마음이 동한 도엑은 다윗이 아히멜렉을 방문한 일을 보고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사울의 분노를 선동하는 그런 언사로 말하였다. 지옥을 불태우는 듯한 악의에 찬 혀에서 나온 말은 사울의 마음속의 최악의 감정을 분기시켰다. 미친 듯이 노한 사울은 제사장의 전 가족을 멸하라고 선언하였다. 그 무서운 명령은 집행되었다. 아히멜렉뿐 아니라 그의 아버지의 집의 가족들 - "세마포 에봇 입은 팔십오인"ㅡ이 왕의 명령으로 살기등등한 도엑의 손에 살해되었다. {PP 659.1}

"제사장들의 성읍 놉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이것이 바로 사울이 사단의 지배 아래서 할 수 있는 일이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의 죄악이 찼다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그들을 완전히 멸하라고 명하셨을 때에 사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선고를 집행하기에는 너무 인정이 많다고 생각하고 마땅히 멸해야 할 것을 남겨두었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명령도 없이 사단의 지배 하에서 그는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놉 주민들을 멸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지도를 거절한 인간의 마음의 완고함은 이와 같다. {PP 659.2}

이 행위는 온 이스라엘을 공포로 떨게 하였다. 이런 난폭한 일을 한 것은 그들이 택한 왕이었고 그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다른 나라 왕들의 방법을 답습한 데 불과하였다.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었으나 그들을 가르치던 제사장들은 검으로 피살되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PP 659.3}

65장 다윗의 너그러움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중에서 “아히둡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인 것을 다윗에게 고하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엑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고할 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비 집의 모든 사람 죽인 것이 나의 연고로다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이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보전하리라 하니라”(삼상 22:20~23). {PP 660.1}

여전히 왕에게 쫓기는 다윗은 쉴 만한 안전한 장소를 찾지 못하였다. 그일라에서 그의 용감한 무리는 그 성읍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나 그들은 저희가 구원한 백성 중에서까지 안전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일라에서 십 황무지로 옮겼다. {PP 660.2}

다윗이 가는 길에는 밝은 곳들이 거의 없었다. 이때에 그의 피신처를 알고 찾아온 요나단의 예기치 않은 방문은 그를 매우 기쁘게 하였다. 이 두 친구가 서로 교제하면서 지낸 순간들은 매우 중요하였다. 그들은 저희가 당한 여러 가지 경험을 말했으며 요나단은 다윗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하여 “두려워 말라 내 부친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부친 사울도 안다”고 말하였다. 저희가 다윗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경이로운 처사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쫓겨 다니는 도피자는 큰 용기를 얻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거하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PP 660.3}

다윗은 요나단의 방문을 받은 후 찬양의 노래로 그의 영혼을 격려하고 그 음성은 거문고의 반주에 맞추어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PP 660.4}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더러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어찜인고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먹임이여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여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광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시 11:1~5 {PP 661.1}

다윗이 그일라에서 십 사람들의 황무지로 갔는데, 그들은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기별을 보내어 저희가 다윗이 숨어 있는 것을 알므로 그의 피신처로 왕을 안내하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의도에 대하여 경고를 받은 다윗은 그 자리를 옮겨 마온과 사해 사이에 있는 산에 피신하였다. {PP 661.2}

다시 사울에게 기별을 보내어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고 말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서 택한 사람 삼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 염소 바위로 갔"다. 다윗은 그의 무리 육백 명만을 거느리고 있었으나 사울은 삼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향하여 진군하였다. 격리된 동굴에서 이새의 아들과 그의 부하들은 일이 어찌 될지에 대해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울은 산을 헤치고 올라가다가 옆으로 비껴 홀로 다윗과 그 무리가 숨어있는 바로 그 굴에 들어갔다. 다윗의 부하들이 이것을 보고 저희 지도자에게 사울을 죽이기를 간청하였다. 그들은 지금 왕이 저희 권세 하에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저희 손에 붙여 그를 멸할 수 있게 하신 분명한 증거라고 해석하였다. 다윗도 그 일을 그렇게 보려는 유혹을 받았으나 양심의 소리는 그에게 "여호와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를 해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PP 661.3}

다윗의 부하들은 아직도 사울을 평안히 돌려보내려는 것을 원치 않고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붙이리니 네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대장에게 상기시켰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러나 다윗의 양심은 그렇게 한 일로 찔림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왕의 겉옷을 잘라낸 까닭이었다. {PP 661.4}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와 다윗을 추적하기를 계속할 때에 그의 귀를 놀라게 하는 “내 주 왕이여”라고 말하는 음성이 들렸다. 사울이 그에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려고 돌아볼 때에 그는 그가 그처럼 오랫동안 죽이기 위해 그의 권세 하에 두려고 하던 사람 곧 이새의 아들이었다. 다윗은 왕에게 엎드려 절함으로 왕이 그의 주임을 인정하였다. 그 후에 다윗은 다음과 같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혹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였나이다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고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PP 662.1}

사울이 다윗의 말을 들을 때에 그의 마음이 겸비해졌으며 그의 말이 진실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울은 자기가 죽이기 위해 찾아다니던 자의 세력 아래 완전히 들어갔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다윗은 양심상 거리낌 없이 왕 앞에 섰다. 사울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하고 부르짖으며 그는 “소리 높여 울”었다. 그 후에 사울은 다음과 같이 다윗에게 말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가 왕이 될 때에 사울의 집을 선대하고 그의 이름을 끊어 버리지 않을 것을 사울에게 맹세하였다. {PP 662.2}

사울의 과거의 경력을 아는 다윗은 그의 보증을 신임할 수 없었고 그의 회개하는 상태가 오래 계속되리라는 희망을 가질 수 없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의 집으로 돌아갈 때에 다윗은 산성에 머물러 있었다. {PP 662.3}

사단의 세력에 굴복한 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에 대하여 품고 있는 적의가 때때로 화목과 호의의 감정으로 변화되나 그 변화가 오래 지속되지는 않는다. 악한 마음을 품은 자들이 여호와의 종들을 대적해서 악하게 말하고 악한 말과 행동을 한 후에 때때로 저희가 잘못했다는 확신을 마음속 깊이 느낀다. 여호와의 성령께서 그들과 싸우시고 그들은 하나님 앞과 저희가 그들의 감화를 멸하려던 자들 앞에서 저희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그들에 대한 저희 태도를 바꿀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마귀의 암시에 문을 열게 될 때에 옛날의 의심은 다시 살아나고 옛 적의는 다시 분기되어서 그들은 저희가 뉘우치고 한동안 버렸던 동일한 행위로 되돌아간다. 다시 그들은 악한 말을 하고 저희가 가장 겸손히 자복한 바로 그 사람들을 가장 신랄한 방법으로 비난하고 정죄한다. 사단은 이런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경로를 겪은 후에 그 전보다도 더 큰 권세로 그들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그들이 더 큰 빛을 받고도 범죄한 까닭이다. {PP 662.4}

“사무엘이 죽으매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사무엘의 죽음은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할 수 없는 손실처럼 생각되었다. 위대하고 선량한 선지자요 탁월한 사사가 죽었다. 백성들의 슬픔은 깊고도 충심에서 우러나오는 슬픔이었다. 사무엘은 청년 시절부터 성실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앞에서 출입하였고 비록 사울이 공인된 왕이었으나 사무엘이 사울보다 더 큰 감화를 끼치고 있었다. 이는 그의 생애의 기록이 충실과 순종과 헌신으로 일관되었던 까닭이다. 우리는 사무엘이 일생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음을 알고 있다. {PP 663.1}

백성들이 사울의 생애를 사무엘의 생애와 대조하여 볼 때에 그들은 저희가 저희 주위의 민족들처럼 되려고 왕을 구함으로 얼마나 큰 과오를 범했는지에 대해 알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신속하게 무종교와 불신의 물이 들고 있는 사회의 상태를 놀라움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의 통치자의 본은 광범위한 감화를 끼치고 있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선지자 사무엘이 죽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PP 663.2}

이스라엘 민족은 그 거룩한 학교의 창시자요 교장인 그를 잃었지만 잃은 것은 그것뿐 아니었다. 백성들은 그들이 큰 문제들을 가지고 으레 찾아가던 자 곧 백성들의 최대의 이익을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중재하던 자를 잃었다. 사무엘의 중재는 안정감을 주었으니 이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약 5:16)은 까닭이었다.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고 계시다고 느꼈다. 왕은 미친 사람과 다를 바 없었고 공의는 구부러지고 질서는 혼란으로 변했다. {PP 663.3}

백성들이 내부의 싸움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곧 침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무엘의 권고가 가장 필요되는 그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노령의 종에게 휴식을 주셨다. 저희가 사무엘의 말 없는 무덤을 바라보면서 그를 거절하여 통치자가 되지 못하게 한 어리석음을 회고하고 백성들은 몹시 비통함을 느꼈다. 이는 사무엘이 하늘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보좌와 결속시켰던 사실을 안 까닭이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도록 가르친 자는 사무엘이었다. 그러나 이제 사무엘은 죽었고 백성들은 사단과 연합하여 그들을 하나님과 하늘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는 왕의 지배 하에 버려 둔 바 되었다고 느꼈다. {PP 664.1}

다윗은 사무엘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었으나 그는 충실한 아들이 헌신적인 아버지를 위하여 깊고도 애절하게 슬퍼하는 것처럼 사무엘을 위하여 슬퍼하였다. 다윗은 사무엘의 죽음으로 사울의 행동을 제어하는 다른 한 속박이 깨어졌음을 알고 선지자가 살아 있을 때보다 더 안전하지 못함을 느꼈다. 사울의 주목이 사무엘의 죽음을 슬퍼하는 데 집중되고 있는 동안 다윗은 보다 더 안전한 곳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바란 광야로 도망하였다. 여기서 그는 시편 120편과 121편을 엮었다. 이 거친 황야에서 다윗은 선지자가 죽은 것과 왕이 그의 원수라는 것을 알고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PP 664.2}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 121:2~8 {PP 664.3}

다윗과 그 부하들이 바란 광야에 있는 동안 그들은 그 지역에서 막대한 재산을 가진 부자 나발의 양떼와 소떼를 약탈자들로부터 보호해 주었다. 나발은 갈렙의 후손이었으나 그 성품이 야비하고 인색하였다. {PP 664.4}

때는 양털을 깎는 시기였고 손님을 후히 대접하는 계절이었다. 다윗과 그 부하들은 식량이 매우 궁색하였다. 그 때의 풍속에 따라 이새의 아들은 열 명의 소년들을 나발에게 보내어 저희 주인 이름으로 나발에게 문안하도록 명하였다. 그리고 다윗은 다음의 말을 덧붙여 말했다. "이같이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네 집도 평강하라 네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네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상치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갈멜산이 아니고 마온 성읍 가까운 유대 영토에 있는 한 장소임)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네 소년들에게 물으면 네게 고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로 네게 은혜를 입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PP 664.5}

다윗과 그 부하들은 나발의 목자와 양떼를 보호하는 방벽이 되었었다. 그리고 이제 이 부자는 그에게 귀중한 도움을 주었던 자들의 곤궁을 구제하도록 요청을 받았다. 다윗과 그 부하들은 그 양떼나 소떼에서 그들의 필요를 취할 수도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들은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친절은 나발에게 효과가 없었다. 그가 다윗에게 보낸 대답은 다음과 같이 그의 성품을 나타내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근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PP 665.1}

소년들이 빈손으로 돌아와 다윗에게 그 사연을 말했을 때에 다윗은 화가 잔뜩 났다. 다윗은 자기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그를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시킨 자를 멸하기로 결심하고, 그의 부하들에게 싸울 준비를 갖추도록 명령했다. 이같은 충동적인 행동은 다윗의 성품보다는 사울의 성품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새의 아들은 아직도 고난의 학교에서 인내의 공과를 배워야 하였다. {PP 665.2}

나발의 종 중에 하나가 다윗의 소년들을 보낸 후에 급히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가서 그 일의 자초지종을 말해 주었다. 그는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사자들을 보내었거늘 주인이 그들을 수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이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상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나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고 말하였다. {PP 665.3}

아비가일은 그의 남편과 상의하거나 그의 의도를 말하지 아니하고 다량의 식량을 준비하여 나귀에 싣고 종을 시켜 먼저 보내고 자신도 다윗의 무리를 만나려고 출발하였다. 여인은 산의 유벽한 곳에서 그들을 만났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라고 하였다. 아비가일은 마치 왕관을 쓴 군주에게 말하는 것과 같은 존경하는 말로 다윗에게 말하였다. 나발은 경멸하는 말로 "다윗은 누구냐?"고 부르짖었으나 아비가일은 다윗을 "내 주여"라고 불렀다. 여인은 친절한 말로 다윗의 분노한 감정을 진정시키려고 애쓰면서 자기 남편을 위하여 그에게 간청하였다. 아비가일은 허식이나 교만심이 없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여 남편에 대한 그의 헌신의 깊이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그의 남편의 불친절한 행동은 결코 계획적인 인신 모욕이 아니요 다만 비참하고 이기적인 그의 본성이 폭발한 것이라고 다윗에게 설명하였다. {PP 666.1}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 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그의 성급한 의도에서 돌이키려는 이 설득으로 자신의 면목을 세우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렸다. 그 후에 그는 다윗의 부하들에게 화목 제물로 풍부한 식량을 제공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이 대장의 분노를 일으킨 장본인처럼 간청하였다. {PP 666.2}

아비가일은 말하기를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고 하였다. 아비가일은 은근히 다윗이 해야 할 일을 제시하였다. 다윗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야 하였다. 다윗은 비록 반역자처럼 박해를 받고 있을지라도 개인의 과오에 대하여 복수하려 하지 말아야 하였다. 아비가일은 다음과 같이 계속 말하였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싸였을 것이요…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삼상 25:29~31). {PP 666.3}

이 말들은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의 입술에서만 나올 수 있었다. 꽃향기와 같은 아비가일의 경건은 얼굴과 말과 행동에서 무의식적으로 모든 자들에게 풍겼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여인의 마음에 거하고 계셨다. 은혜가 깃들고 친절과 평화로 가득 찬 그의 말은 하늘의 감화를 끼쳤다. 다윗은 좋은 감정으로 돌아왔고 그는 그의 조급한 의도의 결과가 어떠했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떨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마 5:9). 이 이스라엘 여인처럼 분노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급한 충동을 막고 조용한 말과 때에 적합한 지혜로 큰 악을 억누를 자들이 많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PP 667.1}

성화된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항상 빛과 위로와 평화를 주고 있다. 이것은 순결, 기지, 단순, 유용성으로 분명히 식별된다. 이것은 감화를 신성하게 하는 무아적 사랑에 지배된다. 이것은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이것을 가진 자는 가는 곳마다 빛의 자취를 남긴다. 아비가일은 현명한 책망자요 권고자였다. 다윗의 격분은 여인의 감화와 설득의 능력으로

가라앉았다. 다윗은 그가 현명하지 못한 행동을 취했고 자신의 마음의 자제력을 잃었음을 수긍하였다. {PP 667.2}

다윗은 겸손한 마음으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의 기름같이 여긴”(시 141:5)다는 자신의 말과 같이 그 책망을 받아들였다. 다윗은 감사히 생각하고 축복하였으니 이는 그 여인이 그를 의롭게 충고한 까닭이었다. 책망을 받을 때에 안달하지 않고 그 책망을 받기만 해도 칭찬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책망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책망하여 악한 길에서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자를 축복하는 자는 얼마나 드문가! {PP 667.3}

집으로 돌아온 아비가일은 나발과 그의 손님들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향락에 빠진 것을 보았으며 그들은 크게 취하여 그 잔치를 주정하는 장면으로 바꿔 놓았다. 이튿날 아침까지 여인은 다윗과의 회견에서 일어났던 일을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다. 나발은 겁이 많은 사람이었다. 하마터면 그의 어리석음이 그에게 돌연한 죽음을 가져왔으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나발은 중풍에 걸린 사람 같았다. 나발은 다윗이 전과 같이 복수할 결심을 가지고 추격하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로 공포심에 사로잡혀 가망 없는 인사불성의 상태에 빠졌다. 10일 후에 그는 죽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생명은 세상에 저주가 되었을 뿐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나발이 환락과 환희에 빠져 있을 때에 비유 중에서 한 부자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에게 “오늘밤에 네 영혼을 찾으리라”(눅 12:20)고 말씀하셨다. {PP 667.4}

다윗은 그 후에 아비가일과 결혼하였다. 그는 이미 한 아내의 남편이었으나 그 시대의 민족들의 풍습이 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고 그의 행동에 영향을 끼쳤다. 비록 위대하고 선량한 사람들까지도 세상의 습관을 따르는 과오를 범하였다. 여러 아내와 결혼한 쓰라린 결과를 다윗은 그의 온 생애를 통하여 느꼈다. {PP 668.1}

사무엘이 죽은 후 다윗은 몇 달 동안 평안히 거하였다. 다시 그는 십 사람의 황무지로 갔으나 왕의 총애를 얻고자 하는 이 원수들은 왕에게 다윗의 숨은 곳을 알려 주었다. 이 정보는 사울의 가슴속에서 잠자던 분노의 정신을 깨웠다. 다시 한 번 사울은 무장한 부하들을 소집하여 그들로 다윗을 추격하게 하였다. 그러나 자기편의 정탐꾼들이 다윗에게 사울이 다시 그를 추격하고 있다는 기별을 가져왔으므로 다윗은 몇몇 그의

부하들과 함께 원수의 위치를 탐지하러 나아갔다. 그들이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가 적진에 이르러 저희 앞에 왕과 그 수종자들의 장막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는 밤이었다. 아무도 그 왕과 수종자들을 경호하지 않았으니 이는 온 진영이 깊이 잠든 까닭이었다. 다윗은 자기편을 불러 그와 함께 원수의 진중으로 들어가고자 하였다. “누가 나로 더불어 진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라고 말하였다. {PP 668.2}

다윗과 그의 수행원들은 깊은 산그늘에 몸을 숨기며 원수의 진영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원수의 정확한 숫자를 확인하려고 하다가 마침내 사울이 자고 있는 곳까지 왔다. 그의 창은 땅에 꽂혀 있고 그의 머리 곁에는 물병이 있었다. 사울의 곁에는 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누웠고 그 주위에는 군사들이 잠에 도취되어 있었다. 아비새는 창을 높이 쳐들고 다윗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고 말하였다. 그는 허락의 말을 기다렸으나 그의 귀에는 다음과 같이 속삭이는 말이 들렸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가장 강한 자를 약하게 하시며 가장 지혜로운 자의 지각을 무디게 하시고 가장 조심스러운 자의 솜씨를 좌절시키시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가! {PP 668.3}

다윗은 진에서 멀리 떨어져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산꼭대기에 올라가 백성들과 아브넬에게 큰 음성으로 외쳐 말하기를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중에 너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네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중 한 사람이 네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네 행한 일이 선치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의 기름부음을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이제 왕의 창과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고 하였다. 왕은 다시 그 입술로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고 고백하였다. "다윗이 대답하여 가로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비록 사울이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였을지라도 다윗은 자신을 사울의 권세 아래 두지 않았다. {PP 671.1}

다윗이 국왕의 생명을 존중히 여긴 이 두 번째의 경우는 사울의 마음에 깊은 감명을 주었고 그로 하여금 더욱 겸손히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게 하였다. 그는 이러한 친절을 나타내는 것을 보고 놀라고 마음을 낮추었다. 다윗과 작별한 때에 사울은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고 부르짖었다. 그러나 이새의 아들은 왕이 오랫동안 계속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리라고 바랄 수 없었다. {PP 671.2}

다윗은 사울과 화해를 단념하였다. 다윗은 그가 마침내 왕의 원한의 제물이 될 것이 불가피한 것처럼 보였으므로 다시 블레셋 땅에서 피신처를 찾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자기의 수하에 있는 6백인으로 더불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건너갔다. {PP 672.1}

사울이 살해하려는 목적을 분명히 이룰 것이라는 다윗의 결론은 하나님의 권고 없이 내린 것이었다. 비록 사울이 다윗을 멸하려고 음모하고 노력하고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그 나라를 얻도록 일하시고 계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이 인간의 안목에는 신비 속에 덮여 있을지라도 그 계획을 성취시키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외관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도록 허락하시는 시련과 시험과 체험은 그들을 해하는 것이며 다만 그들의 멸망을 초래할 뿐이라고 해석한다. 이와 같이 다윗도 형세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자기가 보좌에 오르리라는 것을 의심하였다. 오랜 시련들은 그의 믿음을 약하게 하였고 그의 인내심을 소모시켰다. {PP 672.2}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큰 원수 블레셋 사람에게 보호를 받도록 보내시지 않으셨다. 이 민족은 그의 가장 큰 원수로 끝까지 남아 있었으나 다윗은 자기가 곤궁한 때에 도움을 얻으려고 그들에게로 도망하였다. 그는 사울과 사울을 섬기는 자들을 전혀 믿지 못하여 자신을 그의 백성의 원수인 블레셋 사람의 지배에 맡겼다. 다윗은 용감한

장수요 자신이 현명하고 성공적인 전사임을 나타내 보였으나 블레셋 사람에게로 갔을 때에 그는 자신의 이익에 직접 반대되게 행동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명하여 유다 땅에서 당신의 기를 세우도록 하셨으나 그는 믿음의 부족으로 하나님의 명령이 없는데도 그 임무를 버리고 그 자리를 떠났다. {PP 672.3}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불신으로 모욕을 당하셨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군대보다도 다윗을 더 두려워하였다. 다윗은 자신을 블레셋 사람의 보호 아래 둠으로 자기 백성의 약함을 그들에게 드러내었다. 그리하여 그는 이 냉혹한 원수들로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도록 격려하였다. 다윗은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을 방어하도록 기름부음을 받았으며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종들이 당신의 백성의 약점을 나타내거나 그들의 행복에 대해 무관심함을 보임으로 악인들을 격려하지 않기를 원하셨다. 더욱이 그의 동포들로 하여금 그가 이방인의 신들을 섬기기 위해 이방 나라로 갔다는 인상을 받게 하였다. 그는 이 일로 인하여 그의 행위를 오해할 여지를 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해가 되는 편견을 가지게 되었다. 다윗은 사단이 그로 하게 하고자 갈망하던 바로 그 일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 중에서 피난처를 구함으로 다윗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원수들에게 대환희를 안겨 주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버리거나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그의 헌신을 그치지 않았으나 그의 신상의 안전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그의 신뢰심을 버림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이 소유하기를 바라시는 정직하고 충성스러운 품성을 더럽혔다. {PP 672.4}

다윗은 블레셋 왕의 친절한 영접을 받았다. 이 후대는 한편으로는 그 왕이 다윗을 좋아했기 때문이었고 다른 편으로는 한 히브리인이 자기의 보호를 구한다는 것이 그의 허영심을 자극했기 때문이었다. 다윗은 아기스의 지배 하에서 밀고에 대해 안전감을 느꼈다. 그는 그의 가족들과 식구들과 모든 소유를 가지고 갔으며 그의 부하들도 그렇게 했다. 모든 사람이 볼 때에는 그가 블레셋 땅에 영주하러 온 것처럼 보였다. 이 모든 일은 아기스를 만족하게 했고 그는 이스라엘의 망명객을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PP 673.1}

왕도(王都)에서 시골로 거처를 옮기기를 원한다는 다윗의 요구를 듣고 왕은 친절하게 시글락을 소유지로 허락하였다. 다윗은 우상 숭배자들의 감화 아래 사는 것은 자신과 그 부하들에게 위험하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의 거처로 사용된 완전히 분리된 이

마을에서 그들은 악의 근원이 되는 이교도의 의식이 편만한 가드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훨씬 자유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다. {PP 673.2}

이 한적한 마을에 거하는 동안 다윗은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여 모두 진멸하고 그 기별을 가드에 전할 사람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전쟁에서 돌아와 다윗은 그가 자기의 민족 유다 사람들과 싸웠다고 아기스에게 알려 주었다. 이 기만으로 그는 블레셋 사람의 손을 강하게 해 주었다. 이는 왕이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하였으니 그는 영영히 내 사역자가 되리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다윗은 이 이교의 족속들을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가 이 일을 하도록 임명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그는 거짓말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있었다. {PP 673.3}

"그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서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한가지로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은 손을 들어 그의 백성을 해할 의도가 없었다. 그러나 어떤 사태가 일어나 그의 의무를 지시해 주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확실히 알지 못하였다. 그는 왕에게 회피하는 말로 "당신이 종의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고 대답하였다. 아기스는 이 말을 전쟁에 나가 도우리라는 약속으로 알고 다윗에게 큰 명예를 내리고 블레셋 궁정에서 높은 지위를 줄 것을 약속하였다. {PP 674.1}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하여 다소 그의 믿음이 흔들렸으나 아직도 그는 사무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과거에 원수를 이기게 하셨던 일들을 회상하였다. 그는 사울의 손에서 그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회고하고 신성한 임무를 배반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생명을 찾고 있을지라도 그는 그의 군대를 그의 백성의 원수들에게 가담시키고 싶지 않았다. {PP 674.2}

66장 사울의 죽음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 사이에 다시 전쟁이 선포되었다. “블레셋 사람이 모여” 이스라엘 평야의 북쪽 변두리에 있는 “수넴에 이르러 진쳤”다. 한편 사울과 그의 군대는 몇 마일 떨어진 그 평야의 남쪽 변경에 있는 길보아산 기슭에 진을 쳤다. 기드온이 그의 군사 300명을 거느리고 미디안 대군을 패배시킨 곳이 이 평야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구원자 기드온을 고무시킨 정신은 지금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정신과는 완전히 달랐다. 기드온은 강하신 야곱의 하나님께 대한 굳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나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신 까닭에 자기 홀로 있고 아무런 방비가 없음을 스스로 느꼈다. 그는 멀리 블레셋 대군을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렸다.” {PP 675.1}

사울은 다윗과 그의 군대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있음을 알고 이새의 아들이 이 기회를 이용하여 자기가 당한 학대에 대하여 보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왕은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다. 자신의 충동적 감정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멸하도록 박차를 가하여 온 나라를 매우 큰 위험에 휩쓸리게 하였다. 왕은 다윗을 추격하기에 열중한 나머지 나라의 방비를 소홀히 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무방비 상태를 이용하여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부까지 침투해 들어왔다. 이와 같이 사단은 사울을 강권하여 다윗을 추격하는 데 모든 정력을 기울이게 해서 다윗을 멸하도록 하는 한편 그와 동일한 악의에 찬 정신은 블레셋 사람을 선동하여 사울을 멸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릴 기회를 포착하게 하였다. 지금도 대원수 마귀는 얼마나 자주 동일한 정책을 쓰고 있는가! 그는 어떤 성화되지 않은 자의 마음을 움직여 교회 중에 시기와 다툼의 불을 붙여 놓은 후에 하나님의 백성의 분열된 상태를 이용하여 그의 대리자들로 하여금 그들을 멸망시키게 한다. {PP 675.2}

다음날 사울은 블레셋 사람과 전투를 벌여야 했다. 절박한 운명의 그늘이 그의 주위를 어둡게 하였고 그는 도움과 지도를 갈망하였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권고를 구하였으나 헛된 일이었다.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셨다. 여호와께서는 성실과 겸손으로 당신에게 나오는 자는 한 영혼이라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신다. 왜 여호와께서는 사울에게 외면하시고 대답지 아니하셨을까? 왕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박탈당하고 말았다.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의 권고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다윗을 추방하였다. 그는 또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살해하였다. 그가 하늘이 제정한 교통의 통로를 차단하고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고 기대할 수 있었을까? 그가 은혜의 성령을 멀리 떠나 범죄하고도 여호와께로부터 꿈이나 계시를 통하여 응답을 받을 수 있었는가? 사울은 겸손과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그가 갈망한 것은 죄에 대한 용서도 하나님과의 화해도 아니요, 오직 그의 원수에게로부터의 구원이었다. 그는 자신의 완고와 반역으로 스스로 하나님과 절교하였다. 회개와 참회의 길밖에는 되돌아갈 길이 없었으나 교만한 군주는 고통과 절망 중에 다른 근원에서 도움을 구하기로 결심하였다. {PP 675.3}

그리하여 사울은 종들에게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고 말했다. 사울은 강신술(降伸術)의 성질을 잘 알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직접 강신술을 금하셨고 그 거룩치 않은 술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모두 사형을 선고하였다. 사울은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모든 박수와 신접한 자를 죽이라고 명령했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성급히 자포자기하여 그가 가증한 것으로 정죄하였던 그 접신자에게 의지하였다. {PP 678.1}

왕은 신접한 여인이 엔돌의 은폐소에 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 여인은 사단과 맹약하여 자신을 사단의 지배에 맡겨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는 대신에 사단은 그를 위하여 이적을 행하고 그에게 은밀한 일들을 나타내었다. {PP 678.2}

사울은 변장을 하고 두 시종만을 데리고 밤에 마녀의 은신처를 찾아갔다. 오, 비참한 정경이여! 이스라엘의 왕이 사단의 뜻대로 노예가 되다니!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감화를 거절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하기로 고집한 자가 택한 길보다 더 어두운 인생의 길이 어디 있겠는가! 최대의 폭군인 사단의 지배에 자신을 맡긴 자보다 더 무서운 속박을 당하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만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었다. 만일 그의 치세를 통하여 이 조건에 응하였더라면 그의 나라는 안전했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도자가 되시고 전능하신 자가 그의 방패가 되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오래 참으셨다. 비록 그의 반역과 완고는 그의 마음속에 거의 하나님의 음성을 침묵시켰으나 아직도 회개할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위기를 당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 사단의 공모자로부터 빛을 얻고자 함으로 사울은 조물주와 그를

묶은 마지막 줄을 끊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그를 괴롭히고 마침내 그를 멸망의 지경으로 몰아갈 악마의 세력에 완전히 지배되고 있었다. {PP 678.3}

어둠이 덮이자 사울과 그 시종들은 평야를 건너 블레셋 군대를 무사히 지나 산등을 넘어 엔돌의 마녀가 사는 쓸쓸한 집에 도착하였다. 그 곳에서 신접한 여인은 하나님께 모독적인 이교의 주문(呪文)을 계속해서 은밀히 외우려고 숨어 있었다. 비록 변장하기는 하였으나 사울의 큰 키와 군주다운 풍채는 그가 보통 병사가 아님을 나타내었다. 그 여인은 찾아온 자가 사울이 아닌가 의심하였고 그의 값진 선물은 그녀의 의심을 굳게 하였다. “청하오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는 사울의 요구에 그 여인은 “네가 사울의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고 대답하였다. 그 때에 “사울이 여호와로 그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 여인이 “내가 누구를 네게로 불러올리랴”고 말할 때에 사울은 “사무엘”이라고 대답하였다. {PP 679.1}

주문을 외운 후 그는 말하기를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PP 679.2}

신접한 여인의 주문을 듣고 올라온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가 아니었다. 사무엘은 그 악한 신들이 거하는 곳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 초자연적 현상은 오로지 사단의 능력으로 나타났다. 사단은 그가 광야에서 그리스도를 유혹할 때에 빛의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할 수 있었던 것처럼 쉽사리 사무엘의 모습으로 가장할 수 있었다. {PP 679.3}

그 여인이 주문의 마력 아래서 제일 먼저 왕에게 한 말은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였다. 이와 같이 선지자로 가장한 악신이 행한 최초의 일은 이 악녀와 은밀히 교통하여 그가 당한 기만을 그에게 알린 것이었다. 거짓 선지자가 사울에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로 분요케 하느냐”는 기별을 전하였고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군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이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나의 행할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고 하였다. {PP 680.1}

사무엘이 살아 있을 때에는 사울이 그의 권고를 멸시하고 그의 책망에 분개하였었다. 그러나 이제 고통과 재난의 때에 그는 선지자의 지도가 유일한 희망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하늘의 대사와 교통하기 위하여 지옥의 사자를 헛되이 의지하였다! 사울은 자신을 완전히 사단의 세력 하에 두었고 불행과 멸망을 초래하는 것을 유일의 즐거움으로 삼는 사단은 이제 이 불행한 왕을 멸하려고 그의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였다. 사울의 고통스런 간청의 응답으로 소위 사무엘의 입술에서 다음과 같은 무서운 기별이 전달되었다. {PP 680.2}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신 대로 네게 행하사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네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네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라." {PP 680.3}

그의 모든 반역의 길을 통하여 사울은 사단의 아첨과 기만을 당하였다. 죄를 얕잡아 보게 하고 범죄의 길로 쉽게 마음이 끌리게 만들고 여호와의 경고와 훈계에 대하여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이 유혹자가 하는 일이다. 사단은 그의 매혹하는 능력으로 사울로 하여금 사무엘의 책망과 경고를 무시하고도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제 사단은 궁지에 빠진 사울을 향하여 그의 죄의 흉악함과 용서받을 가망이 없음을 나타내어 그로 자포자기에 빠지게 하였다. 그의 용기를 꺾고 그의 판단을 혼란시키고 그로 절망과 자멸에 빠지게 하기 위하여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었다. {PP 680.4}

사울은 피로와 단식으로 쇠약하였고 공포와 양심의 가책에 휩싸였다. 이 무서운 예보가 그의 귀를 울렸을 때에 그의 몸은 태풍에 흔들리는 참나무처럼 흔들렸으며, 그는 땅에 엎어졌다. {PP 681.1}

무녀는 크게 놀랐다. 이스라엘의 왕이 죽은 사람처럼 여인의 앞에 쓰러졌다. 그가 그녀의 은신처에서 죽을 것인가. 그렇다면 그 자신에겐 어떤 결과가 돌아올 것인가?

무녀는 일어나 왕에게 음식을 먹도록 탄원하고 그녀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왕의 소원을 들어준 이상 그도 그녀의 요구를 들어야 한다고 간청하였다. 그의 종들도 함께 간청하여 사울은 마침내 허락하고 그 여인은 급히 준비한 살진 송아지와 무교병을 그의 앞에 차렸다. 조금 전만 해도 운명의 말이 메아리치던 무녀의 거친 동굴 속, 사단의 사자 앞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그날의 치명적 싸움의 준비로서 그 곳에 앉아 음식을 먹다니 이 얼마나 이상한 광경인가! {PP 681.2}

날이 새기 전에 사울은 그의 시종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돌아와 전쟁 준비를 갖추었다. 흑암의 신의 조언으로 사울은 자신을 멸망시켰다. 절망적인 공포에 억눌려 있었으므로 그의 군대에게 용기를 고취시키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능력의 근원에서 떨어진 그는 저희 조력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스라엘의 마음을 인도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악마의 예언은 성취될 것이었다. {PP 681.3}

수넴 평야와 길보아산 비탈에서 이스라엘 군사와 블레셋 대군이 죽음의 전투에 접근하였다. 엔돌의 동굴에서 본 무서운 광경이 그의 마음에서 희망을 모두 몰아내었으나 사울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용맹스럽게 그의 보좌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 싸웠다. 그러나 헛된 일이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왕의 용감한 세 아들이 그의 곁에서 죽었다. 활 쏘는 자들이 사울을 맹렬히 공격하였다. 사울은 주위에 그의 군사들이 쓰러지는 것을 보았고 그의 왕자들도 칼에 살해되었다. 자기 자신도 부상을 입어 싸울 수도 도망할 수도 없었다. 도주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블레셋 사람에게 생포되지 않기를 결심하고 사울은 병기 든 자에게 “네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고 명하였다. 그 사람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거절할 때에 사울은 그의 칼 위에 엎드러져 죽었다. {PP 681.4}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처음 왕은 죽었고 자기 영혼에게 자살의 죄를 범하였다. 그의 생애는 실패의 생애였고 그는 절망 가운데서 불명예스럽게 죽었으니 이는 그가 자신의 괴팍한 뜻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 까닭이었다. {PP 682.1}

패배의 소식은 사방에 퍼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공포심을 일으켰다. 백성들이 성읍에서 도망하였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은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성읍을 탈취하였다. 하나님을 떠난 사울의 치세로 그의 백성은 거의 파멸되었다. {PP 682.2}

싸움이 있은 그 다음날 블레셋 사람들은 죽은 자에게서 약탈하려고 전쟁 마당을 찾아 헤매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의 시체를 발견하였다. 그들은 저희 승리를 완성하기 위하여 사울의 목을 자르고 그의 갑옷을 벗겨 피를 뿜는 그 머리와 갑옷을 승리의 기념물로서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보냈다. 갑옷은 최후로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머리는 다곤의 신전에 박아두었다. 그리하여 승리의 영광은 이 거짓 신들의 능력에 돌리고 여호와의 이름은 모욕을 당하였다. {PP 682.3}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는 길보아에서 멀지 아니하고 요단강에서 가까운 성읍 벧산으로 끌려갔다. 그 곳에서 이 시체들을 사슬에 매달아 두어 맹금(猛禽)들이 뜯어 먹게 하였다. 그러나 용감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이 그의 치세 초기 곧 강성하던 시절에 저희 성읍을 구원한 일을 기억하고 이제 왕과 왕자들의 시체를 구출하여 명예로운 장사를 지내 줌으로 그들의 감사를 표시하였다. 그들은 밤에 요단강을 건너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벧산 성벽에서 취하여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다. 그리하여 40년 전에 행한 고상한 행위는 사울과 그의 아들들로 하여금 패배와 치욕의 어두운 때에 친절과 동정의 손으로 장사지냄을 받게 하였다. {PP 682.4}

67장 고대와 현대의 마술

사울이 엔돌의 여인을 방문했다는 성경의 기사는 많은 성경 학도를 혼란시키는 근원이 되어 왔다. 사울과의 회견에서 사무엘이 실제로 그 곳에 나타났다는 견해를 가진 자들이 더러 있으나 성경 자체가 그 반대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제공한다. 만일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사무엘이 하늘에 있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든, 사단의 능력에 의해서든 거기서 소환당했음이 틀림없다. 아무도 잠시나마 사단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를 하늘에서 불러내려 버림받은 한 여인의 주문(呪文)을 높이게 할 능력을 가졌다고 믿을 수 없다. 우리 중 아무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 무녀의 동굴에 보내셨다고 단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는 여호와께서 이미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사울과 교통하시기를 거절한 까닭이었다(삼상 28:6). 이러한 방법이 하나님께서 친히 지정하신 교통의 매개체들이며 그것을 무시하고 사단의 대리자를 통하여 기별을 전하시지 않으셨다. {PP 683.1}

기별 자체가 그 근원을 충분히 증거하고 있다. 그 목적은 사울을 회개시키려는 것이 아니요, 그를 멸망으로 밀어 넣는 것이므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요 사단이 한 일이었다. 더욱이 무녀에게 의견을 청한 사울의 행위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멸망을 받게 된 이유라고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대상 10:13, 14). 여기에 직접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물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사울은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과 교통하지 아니하고 무녀를 통하여 사단과 교통하였다. 사단은 참 사무엘을 나타내게 할 수 없었으나 위조의 것을 나타내어 그의 기만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PP 683.2}

거의 모든 형태의 고대 마술과 요술은 죽은 자와 교통할 수 있다는 신념에 기초되어 있다. 강신술을 행하는 자들은 죽은 사람들과 교제하며 그들을 통하여 장래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죽은 자에게 의견을 듣는 이 풍습은 이사야의 예언에는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사 8:19). {PP 684.1}

죽은 자와 교통한다는 이 같은 신념이 이교의 우상숭배의 초석을 놓았다. 이교의 신들은 죽은 영웅들의 신격화된 영이라고 믿어졌다. 그리하여 이교의 종교는 죽은 자를 예배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벧브올에서 범죄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싯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부속된지라”(민 25:1~3). 시편 기자는 이 제사를 어떤 유의 신에게 드렸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준다. 동일한 이스라엘의 배도에 언급하여 그는 “저희가 또 바알브올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시 106:28)었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즉 죽은 자에게 드린 제사였다. {PP 684.2}

죽은 자를 신으로 섬기는 것과 그 죽은 자와 교통하는 것은 거의 모든 이교 체계에 나타나는 현저한 현상이다. 신들이 저희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또한 사람들이 그 신들의 의견을 구할 때에 권고를 준다고 믿었다. 유명한 그리스와 로마의 신탁이 이런 성격의 것이었다. {PP 684.3}

죽은 자와 교통한다는 신념은 기독교 국가라고 공언하는 나라에서까지도 여전히 가지고 있다. 강신술이란 이름 아래 죽은 자의 영이라는 존재와 교통하는 행위가 널리 퍼져 있다. 이것은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을 사별한 자들의 호감을 사게 되었다. 때때로 영적 존재들이 죽은 친구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 그들의 생애와 관련된 사건들을 말하고 저희가 살아 있을 때에 행하던 행위를 행한다. 이런 방법으로 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죽은 저희 친구들이 천사가 되어 저희 위를 날고, 저희와 교통한다는 것을 믿게 한다. 이와 같이 죽은 자의 영인 체하는 자들은 확실히 맹목적인 숭배를 받고 그들의 말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히 여김을 받는다. {PP 684.4}

그러나 강신술이란 인간의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다. 강신술이 초자연적 성격의 것이라는 주장을 지지할 수 있는 현상을 보고도 그것을 영매(靈媒)의 속임수로 돌린다. 그러나 물론 진정한 것처럼 보이되 실상은 속임수인 것이 많이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초자연적 놀라운 기적이 행하여지는 수도 있다. 그리고 강신술을 인간의 기교나 속임수의 결과라고 거절하는 많은 사람들도 저희가 그 까닭을 설명할 수 없는 현상에 직면할 때 그 주장을 승인하게 될 것이다. {PP 685.1}

현대 강신술과 여러 형태의 고대 요술과 우상숭배는 모두 죽은 자와의 교통을 필수 불가결의 원칙으로 삼는 것으로 에덴에서 사단이 하와를 기만한 다음과 같은 최초의 거짓말에 근거를 두고 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창 3:4, 5). 그것들은 예나 지금이나 모두 거짓에 기인하고 있으며 동일하게 모두 다 거짓말의 아비에게서 유래된 것이다. {PP 685.2}

히브리인들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죽은 자와 교통하는 체하는 행위를 명백하게 금지당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심으로 이 문호를 철저하게 폐쇄하셨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히 분복이 없느니라"(전 9:5, 6).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시 146:4).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다. "음란하듯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레 20:6)라. {PP 685.3}

"신접한 자"는 죽은 자의 영이 아니요, 악한 천사 즉 사단의 사자였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죽은 자의 예배와 죽은 자와 교통하는 체하는 것으로 구성된 고대 우상숭배를 성경에는 마귀의 예배라고 선언하였다. 사도 바울은 자기 동포들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저희 이웃인 이교도의 우상숭배에 가담하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하여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고전 10:20)고 말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저희가 그 자녀로 사신에게 제사하였도다"고 말하고 다음 절에서 그는 저희가 저희 자녀를 "가나안 우상에게" 제사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들은 소위 죽은 자를 예배한다고 하나 실제로는 마귀를 예배하고 있었다. {PP 685.4}

동일한 기초 위에 놓인 현대 강신술은 하나님께서 옛날에 정죄하시고 금지하신 마술과 마귀 숭배를 새로운 모양으로 부활시킨 데 불과하다. 성경에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딤전 4:1)고 예언되어 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내는 그의 두 번째 편지에서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사건으로서 사단이 강신술을 행할 것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는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살후 2:9)이 일어나리라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베드로도 말세에 교회가 당면해야 할 위험들을 묘사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죄악으로 인도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장차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좇으리”(벧후 2:1, 2)라고 하였다. 여기서 사도는 강신술사들의 뚜렷한 특성 중 하나를 지적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를 거절한다. 이와 같은 교사에 관하여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요일 2:22, 23)느니라. 강신술은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모두 부인한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것을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라고 선언한다. {PP 686.1}

사단은 이미 주어진 사울의 운명을 엔돌의 여인을 통해 말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계획하였다.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녀를 신뢰하고 그녀에게 묻게 하고자 하였다.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그들의 권고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 스스로 사단의 지도를 받게 될 것이다. 강신술이 군중을 매혹시키는 미끼는 그것이 소위 미래의 휘장을 걷어치우고 하나님이 감춰 두신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낼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 중에 장래의 대사건들, 즉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모든 일을 우리 앞에 공개하시고 그 모든 위험 가운데서 우리가 안전하게 행할 수 있도록 안전한 안내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나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신뢰를 파괴하고 그들로 하여금 삶의 조건에 불만을 갖게 하고 하나님께서 현명하게 가리우신 바를 꼬치꼬치 캐게 하고 당신의 거룩한 말씀 중에 나타내신 바를 멸시하게 하는 것이다. {PP 686.2}

일의 분명한 결과를 알 수 없을 때에 침착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 그들은 의문을 수용하지 못하고 참을성이 없으므로 기다려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를 거절하고 재앙을 염려하여 견디지 못한다. 그들은 반역적 감정에 빠져 격정적인 슬픔으로 나타내지 않은 일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동분서주한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깨어 기도했더라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발견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정신은 하나님과의 교제로 진정되었을 것이다. 만일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기만 했더라면 피곤하고 무거운 짐진 마음이 쉼을 얻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안위를 위하여 제정하신 방법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지 않으신 것을 알려고 다른 근원을 의지하다가 사울이 저지른 죄를 범하고 결국에는 악의 지식만을 얻게 된다. {PP 687.1}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동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가장 분명한 말씀으로 나타내셨다. 미래의 휘장을 찢어버리는 이 참을성 없는 경솔함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부족을 나타내고 영혼은 대기만자의 암시를 받도록 버려지게 되는 것이다. 사단은 사람들을 인도하여 신접한 자에게 묻게 하고 과거의 감추인 일들을 나타냄으로 그는 자기가 다가올 일을 예언할 능력이 있음을 사람들이 신뢰하도록 그들의 정신을 고취시킨다. 사단은 오랜 세월을 통하여 얻은 경험을 가지고 원인에서 결과까지를 논할 수 있으며 때때로 사람의 생애에 나타날 장래의 어떤 사건들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그리하여 그는 가련하고 잘못 인도된 영혼들을 기만하고 그들을 자기의 권세 아래 두어 자기의 뜻에 그들을 복종시킨다. {PP 687.2}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경고를 주셨다.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히 아침빛을 보지 못하”(사 8:19, 20)리라. {PP 687.3}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우리 주의 원수와 친교하여 지식을 얻는 마술사들에게 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의 백성의 빛이 되시고 그들에게 믿음으로 인간의 안목에는 가리워져 있는 영광을 바라보도록 명하신다. 의의 태양이 그 밝은 빛을 그들의 마음에 비추신다. 그들은 하늘의 보좌에서

발하는 빛을 가졌으므로 빛의 근원에서 돌이켜 사단의 사자들에게 가고자 하지 않는다. {PP 687.4}

사울에게 보낸 악마의 기별은 비록 그것이 죄의 탄핵과 형벌의 예언이긴 하였으나 사울을 개혁시키고자 함이 아니요 그를 절망과 파멸로 몰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유혹자는 흔히 아첨으로 사람들을 멸망에 빠지도록 유혹하는데 그는 그것으로 자기의 목적을 가장 잘 달성하고 있다. 고대에는 마귀의 가르침이 가장 비열한 방종을 조장했다. 죄악을 정죄하고 의를 행하도록 강권하는 하나님의 교훈은 파기되고 진리는 무시되었으며, 음란이 허락되었을 뿐 아니라 그것을 행하도록 명령되었다. 강신술은 죽음도 없고 죄도 없으며 심판도 없고 형벌도 없다고 말하며 사람들은 "타락하지 않은 반신반인(半神半人)"이며, 욕망은 최고의 법이요 인간은 자신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선언한다. 하나님께서 진리와 순결과 경외심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우신 울타리가 무너져 많은 사람들이 담대하게 죄를 범한다. 이와 같은 가르침은 마귀 숭배의 가르침과 근본이 동일하지 아니한가? 여호와께서는 가나안인들의 가증한 행위 중에 특별히 악신과 교제한 결과를 이스라엘 백성 앞에 다음과 같이 나타내셨다. 그들은 선천적으로 애정이 없는 자들이며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요, 간음하고 살인하고 모든 부패한 사상과 몸서리치는 행위로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음은 알지 못하나니 이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렘 17:9)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패한 인간의 성질의 경향을 아신다. 사단은 지금처럼 그 때에도 반역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스스로 가나안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미움을 사도록 하였다. 영혼의 원수는 우리들 속에 억제되지 않은 악이 흘러갈 통로를 열려고 항상 경계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고 멸망을 당하기를 갈망하는 까닭이다. {PP 688.1}

사단은 가나안 땅을 계속 지배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나 그 곳이 이스라엘 자손의 거처가 되고 하나님의 율법이 그 땅의 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잔인하고 악의에 찬 증오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고 그들의 멸망을 음모하였다. 악령의 대리자들을 통해서 이상한 신들이 들어오고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민들이 마침내 약속의 땅을 떠나 흩어지게 되었다. 사단은 이 역사를 오늘날에도 반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세상의 가증한 것으로부터 인도해 내셔서 그들로 당신의

율법을 지키게 하신다. 이 일로 인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의 분노는 끝이 없다.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계 12:10, 12). 실제(實際)의 허락의 땅이 바로 우리 앞에 있고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여 그들로 유업을 받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막 14:38)는 권고가 지금처럼 더 필요한 때가 전에 결코 없었다. {PP 688.2}

고대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레 19:31),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신 18:12)라고 하신 여호와의 말씀은 역시 이 시대에 사는 당신의 백성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다. {PP 689.1}

68장 시글락에서의 다윗

다윗과 그 부하들은 비록 블레셋 사람과 함께 전쟁 마당으로 진군하기는 했으나 사울과 블레셋 사람 사이의 싸움에 가담하지는 않았다. 두 군대가 전투에 임할 준비를 갖추고 있을 때에 이새의 아들은 자신이 크게 난처한 입장에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는 블레셋 사람을 위하여 싸우도록 되어 있었다. 만일 그가 싸움 중에 그에게 배정된 진지를 포기하고 전쟁 마당에서 물러간다면 그는 자신을 겁쟁이로 낙인을 찍을 뿐 아니라 그를 보호하고 신임한 아기스를 배신하고 반역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와 같은 행위는 그의 이름을 더럽힐 것이며 그는 사울보다 더 무서운 원수들의 분노를 살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잠시라도 이스라엘과 싸우기를 동의할 수 없었다. 만일 그가 그렇게 한다면 그는 자기 나라의 반역자, 즉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원수가 될 것이며 그 일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위를 얻으려는 그의 길을 영원히 막을 것이다. 그리고 사울이 전쟁에서 죽게 되면 그의 죽음의 책임이 다윗에게 돌아갈 것이었다. {PP 690.1}

다윗은 자기가 길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가 여호와와 그의 백성의 공공연한 원수들에게서 피난처를 찾기보다 하나님의 강한 산성에서 피신처를 찾았더라면 그에게 훨씬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크신 은혜를 베푸사 이같은 잘못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형벌하지 않으셨으며 그를 고통과 곤란 중에 버려두지도 아니하셨다. 비록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손을 놓고 돌이켜 온전한 성실의 길에서 떠나갔으나 그의 마음의 의도는 여전히 하나님께 충실하려고 한 까닭이었다. 사단과 그의 대군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도와 하나님을 저버린 왕을 대적하려는 계획으로 분주한 반면에, 여호와의 천사들은 위험에 빠져 있는 다윗을 구원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다. 하늘의 사자들은 블레셋 방백들을 움직여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그들과 같이 전쟁에 나아가는 것을 반대하게 하였다. {PP 690.2}

블레셋 방백들이 아기스 주위에 몰려들어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고 부르짖었다. 매우 중요한 동맹자들을 놓기 싫어서 아기스는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달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고 대답하였다. {PP 691.1}

그러나 방백들은 분노하여 그들의 요구를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이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이 다윗이 아니니이까.” 그들의 이름 높은 용사가 살육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둔 그 때의 일이 아직도 블레셋 방백들의 기억에 생생하였다. 그들은 다윗이 자기의 백성을 대적하여 싸우리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 전쟁의 벽두에 그가 자기 백성의 편에 가담하면 사울의 전 군대보다 더 블레셋 사람에게 큰 해를 끼칠 수 있을 것이다. {PP 691.2}

그리하여 아기스는 그들의 의견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다윗을 불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네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군중에 출입하는 것이 나의 소견에는 좋으나 장관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너는 돌이켜 평안히 가서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에게 거슬려 보이지 말라”고 하였다. {PP 691.3}

다윗은 그 본심이 드러나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의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나로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라고 대답하였다. {PP 691.4}

다윗은 그가 행한 비열한 기만들이 여호와의 종으로서 얼마나 부당한 일인가를 생각했다. 아기스의 대답을 듣고 그의 온 마음은 수치와 후회로 떨었다. 왕은 말하기를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쟁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네 주의 신하들로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밝거든 곧 떠나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다윗이 얽매였던 덫이 풀리고 그는 놓임을 얻게 되었다. {PP 691.5}

3일 동안을 여행한 후에 다윗과 그의 부하 6백 명의 무리는 블레셋 땅에서의 그들의 거처인 시글락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폐허의 광경을 보았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아말렉 사람들이 전에 다윗이 그들의 영토를 침입한 일에 대한

보복으로 그렇게 하였다. 그들은 아무 방비가 없는 틈을 타서 성읍을 기습하여 점령하고 약탈과 방화를 한 후에 많은 노획물과 함께 모든 부녀와 아이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떠나 버렸다. {PP 692.1}

공포와 경악으로 말문이 막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잠시 동안 까맣게 그슬리고 연기 나는 폐허를 묵묵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들에게 갑자기 일어난 무서운 폐허를 느낀 이 역전(歷戰)의 용사들은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 {PP 692.2}

여기서 다윗은 다시 한 번 자신을 블레셋 사람 중에 처하게 한 그의 믿음의 부족에 대한 징벌을 받았다. 그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원수들 중에서 얻을 수 있는 안전이 어떠한 것인지를 볼 기회를 가졌다. 다윗의 추종자들은 그들의 재난의 원인을 다윗에게 돌리며 항의했다. 다윗은 아말렉 사람을 공격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복수심을 자극했었고 또 그의 원수들 중에서의 안전을 너무나 믿었기 때문에 성읍에 대한 아무 방비도 하지 않고 떠났었다. 슬픔과 분노로 미치게 된 다윗의 군사들은 어떤 과격한 조치도 서슴지 않을 태세였다. 심지어 그들의 지도자 다윗에게까지 돌로 치겠다고 위협하였다. {PP 692.3}

다윗은 모든 인간의 지지로부터 끊어진 것처럼 보였다. 그가 이 땅에서 애착을 가졌던 모든 것이 그에게서 사라져 버렸다. 사울은 그를 그의 나라에서 추방했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진영에서 몰아냈고 아말렉 사람은 그의 성읍을 약탈해 갔다. 그의 아내들과 자녀들은 포로가 되고 그의 친한 친구들은 단결하여 그를 대적하고 그를 죽이겠다고 위협하였다. 이 같은 극도의 궁지에 몰린 이 시간에 다윗은 그의 마음을 이 고통스러운 환경에 집착시키지 않고 그 대신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열렬히 바라보았다. 다윗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는 다사다난했던 과거의 생애를 회고하였다. 여호와께서 그를 버리신 적이 있었던가? 그의 마음은 수많은 하나님의 은총의 증거들을 회상하고 활기를 띠었다. 다윗의 추종자들은 불만과 조급함으로 그들의 고통을 배나 더 크게 하였으나 하나님의 사람은 슬퍼해야 할 이유가 더 컸을지라도 스스로 꿋꿋함을 드러내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시 56:3)라는 것이 그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었다. 비록 다윗 자신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분별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다윗에게 어떻게 할 것을 가르치고자 하셨다. {PP 692.4}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을 불러 와서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좇아가면 미치겠나이까” 하였다. 여호와께서는 “좇아가라 네가 반드시 미치고 정녕 도로 찾으리라”(삼상 30:8)고 대답하셨다. {PP 693.1}

이 말을 듣고 슬픔과 분노의 소동은 그쳤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도주하는 원수를 추격하기 위하여 출발했다. 그들의 진군이 너무나 빨랐으므로 지중해로 흘러가는 가사 가까이에 있는 브솔 시내에 도착했을 때에는 무리 중 2백 명은 기진맥진하여 뒤에 남겨둘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다윗과 함께 남아 있는 4백인은 조금도 겁내는 기색이 없이 앞으로 전진하였다. {PP 693.2}

진군하다가 그들은 피곤하고 배가 고파 죽어가는 애굽인 노예를 만났다. 그 노예는 음식과 물을 얻어먹고 기운을 차렸다. 그는 침략군에 속한 한 아말렉 사람의 종으로 잔인한 그의 주인이 그를 죽도록 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침략하여 약탈한 이야기를 모두 한 후에 그를 죽이거나 그의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다음, 다윗의 무리를 그들의 원수의 진으로 인도하기로 동의하였다. {PP 693.3}

그들의 진영이 보이는 곳에 이르러 그들은 적군이 환락에 도취되어 있는 광경을 보았다. 승리한 대군은 큰 축연을 배설하고 있었다.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탈취하였음을 인하여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즉시 공격 명령이 내려 추격자들은 그들의 원수를 맹렬히 공격하였다. 아말렉 사람들은 몹시 놀라 대혼란에 빠졌다. 싸움은 그 온 밤과 다음날까지 계속되었고 마침내 전군이 거의 죽임을 당하였다. 4백 명의 무리만이 약대를 타고 도망했을 뿐이었다. 여호와의 말씀은 성취되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의 취하였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의 탈취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대소를 물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 왔”다. {PP 693.4}

다윗이 아말렉 사람의 영토를 침입했을 때 그는 수중에 떨어지는 거민은 모두 다 칼로 도륙하였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제지하시는 능력이 아니었더라면 아말렉 사람들은 보복으로 시글락 백성을 모두 멸했을 것이다. 아말렉 사람들은 많은 수효의 포로들을 고국으로 데려감으로 승리의 영광을 높이고 그 후에 노예로 팔기 위하여 그들을 살려

두기로 작정했었다. 그리하여 무의식적으로 포로들을 해하지 않고 보호했다가 그들의 남편과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함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시켰다. {PP 693.5}

지상의 세력들은 모두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다. 가장 강한 통치자에게, 또 가장 잔인한 압박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욥 38:11)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은 악의 세력을 깨뜨리기 위하여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멸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들을 바로잡아 보존하시려고 항상 사람들 가운데서 일하시고 계신다. {PP 694.1}

승리자들은 큰 기쁨으로 집으로 행진했다. 뒤에 남아 있던 저희 동료에게 이르자 4백인 중에 이기심이 많고 무법한 자들은 전쟁에 가담하지 않은 자들은 노획물을 나눠가질 몫이 없고 각자에게 아내와 자녀들만 돌려주는 것으로 넉넉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이와 같은 배정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말하기를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 문제는 해결되었고 명예스럽게 종군한 자는 누구나 실전에 참가한 자와 동등하게 노획물을 나눠야 한다는 것이 후에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었다. {PP 694.2}

다윗과 그의 무리는 시글락에서 빼앗겼던 노획물을 모두 찾았을 뿐 아니라 아말렉 사람에게 속한 막대한 양떼와 소떼를 사로잡았다. 이것들을"다윗의 탈취한 것"이라 불렀고 다윗은 시글락에 돌아와서 이 탈취물들을 그가 속한 유다 지파의 장로들에게 선물로 보냈다. 이 선물을 나누어 줌으로 그가 그의 생명을 위하여 이리저리 도망하여 다닐 수밖에 없었을 때에 산들의 요새에서 그와 그의 추종자들을 도와주던 이들을 모두 기억하였다. 쫓겨 다니던 피신자에게 매우 귀중하던 그들의 친절과 동정은 이와 같이 감사의 보답을 받았다. {PP 694.3}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시글락에 돌아온 지 3일째 되던 날이었다. 그들은 폐허가 된 집들을 다시 재건하면서 저희가 아는 대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 사이에 싸움이 반드시 있었을 것이므로 그 전쟁의 소식을 근심스러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돌연히 한 사자가 마을에 들어왔는데 "그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었다. 그는 곧 다윗에게

나아가 그 앞에서 공손히 절하고 그를 강력한 군주로 인정하고 그가 그의 은총을 받고자 한다는 것을 나타냈다. 다윗은 전쟁이 어찌 되었는지를 열심히 물었다. 도망하여 온 자는 사울의 패배와 죽음, 요나단의 죽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그는 사실의 간단한 진술 그 이상을 말하였다. 다윗이 그의 무정한 박해자에게 원한을 품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한 이 이방인은 자신이 왕의 살해자의 명예를 얻고자 했다. 자랑스러운 태도로 그 사람은 말을 계속했다. 전쟁 중에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부상당하고 원수의 격렬한 추격을 당하는 것을 보았고 왕 자신의 요구를 듣고 그가 왕을 죽였다고. 그는 왕의 머리에 있는 면류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다윗에게 가져왔다. 그는 이 기별이 크게 환영을 받고 그가 행한 일에 대하여 값진 상금이 주어지리라는 것을 굳게 믿고 기대하였다. {PP 694.4}

그러나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매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을 인하여 저녁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PP 695.1}

무서운 기별의 처음 충격이 지나자 다윗은 스스로 죄를 범했다고 말하는 그 이방인 사자를 생각했다. 다윗은 이 소년에게 “너는 어디 사람이냐”고 물었다. 그는 대답하기를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다. 두 번이나 사울은 다윗의 수중에 들어갔고 그를 죽이도록 요청을 받았을 때에 다윗은 손을 들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하도록 성별된 사울을 치기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이 아말렉인은 그가 이스라엘 왕을 살해한 일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랑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죽음에 해당되는 죄를 지었다고 고백했으므로 그에 대한 형벌은 곧 집행되었다. 다윗은 말하기를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네 입이 네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다. {PP 695.2}

사울의 죽음을 들은 다윗의 슬픔은 고상한 성질의 아량을 증명하는 진실하고도 깊은 슬픔이었다. 그는 그의 원수의 멸망에 기뻐하지 않았다. 그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나가지 못하게 막던 장애물이 제거되었으나 그는 그것을 보고도 기뻐하지 않았다. 죽음은 사울의 불신과 잔인에 대한 그의 기억을 말살해 버리고 이제는 그가 늠름하고 왕다웠다는

생각밖에는 아무 다른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사울의 이름은 그와의 우정이 참으로 진실하고 참으로 무아적이었던 요나단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었다. {PP 695.3}

다윗이 그의 마음의 감회를 표현한 다음의 노래는 그의 민족과 후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배가 되었다. {PP 696.1}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게 고하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며
제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부음을 받지 않음같이 됨이로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저희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저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너의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병기가 망하였도다".

삼하 1:19~27 {PP 696.2}

69장 다윗이 왕위에 오름

사울의 죽음은 다윗을 유랑자가 되게 했던 위험들을 제거해 버렸다. 이제 다윗이 고국으로 돌아갈 길이 열렸다. 사울과 요나단을 위하여 곡하는 기간이 끝났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PP 697.1}

헤브론은 브엘세바에서 북쪽으로 20마일 떨어진, 장래의 예루살렘 터와의 중도에 있었다. 헤브론은 원래 아낙의 아비아르바의 성읍으로 기랏 아르바라 불리었으나 후에 마므레라 불리었고 이곳에 부조들의 장지 "막벨라 굴"이 있었다. 헤브론은 갈렙의 소유였었는데 이제는 유다의 제일 큰 성읍이었다. 헤브론은 비옥한 전원과 풍요로운 땅에 둘러싸여 있는 골짜기에 놓여 있었다. 팔레스틴의 가장 아름다운 포도원들이 감람원과 다른 과수들의 무수한 농원과 함께 헤브론 변두리에 있었다. {PP 697.2}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은 신속히 저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시를 순종할 준비를 갖추었다. 6백명의 무장한 군사들은 처자들과 함께 양떼와 소떼를 거느리고 곧 헤브론을 향해 길을 떠났다. 이 무리들과 성읍에 들어갈 때에 유다 사람들은 다윗을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환영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곧 다윗의 즉위식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그러나 다른 지파들을 지배할 그의 권위를 확립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려는 노력은 전혀 필요가 없었다. {PP 697.3}

새로 왕위에 오른 군주 다윗이 제일 먼저 할 일은 사울과 요나단의 명성에 대하여 그의 친절한 사려를 표하는 일이었다.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를 구출하여 명예로운 장례를 지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용감한 행위에 대하여 들은 다윗은 야베스에 사자를 보내어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라는 기별을 전하였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유다의 왕위에 오른 것을 통고하고 참으로 마음이 진실함을 나타낸 자들에게 신하가 되어 줄 것을 요청하였다. {PP 697.4}

블레셋 사람은 다윗을 왕으로 삼은 유다 사람의 처사를 반대하지 않았다. 그들은 사울의 나라를 괴롭히고 약하게 하려고 방랑 중에 있는 다윗과 친하였으므로 이제 저희가 전에 다윗에게 친절히 한 까닭으로 그의 권세의 확대는 마침내 그들에게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다윗의 치세는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 그가 왕위에 오름과 동시에 음모와 반역의 어두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다윗은 반역자로서 왕위에 앉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셨으므로 불신이나 반대를 받을 까닭이 없었다. 그러나 아브넬의 영향을 통하여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으로 추대되어 이스라엘에 다윗과 경쟁하는 다른 왕권이 세워짐으로 인해 다윗의 권위는 유다 사람들에게 거의 인정을 받을 수 없었다. {PP 698.1}

이스보셋은 연약하고 무능한 사울의 집의 대표자인 반면에 다윗은 나라의 책임을 질 수 있는 현저하게 뛰어난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주모자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의 총사령관이었고 이스라엘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다. 아브넬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도록 지명하신 것을 알고 있었으나 그처럼 오랫동안 다윗을 추격한 고로 이제 그는 이새의 아들이 사울의 다스리던 나라를 계승하는 것을 원치않았다. {PP 698.2}

아브넬이 처하여 있던 환경은 그의 진정한 성격을 드러낼 기회를 제공했는데 그는 야심이 있고 절조가 없는 인물임이 드러났다. 아브넬은 사울과 친밀히 교제하였고 왕의 정신에 감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선택하신 자를 멸시하였다. 그가 진에서 잘 때에 다윗이 사울의 곁에서 물병과 왕의 창을 취한 그 때에 그에게 가한 신랄한 비난으로 아브넬의 증오심은 증가하였다. 아브넬은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듣는 데서 다윗이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중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네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네 행한 이 일이 선치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일 자니라”(삼상 26:15, 16)고 부르짖었던 것을 기억하였다. 이 책망은 그의 가슴에 사무쳤고 그는 복수에 찬 그의 목적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분열시켜서 자기 자신을 높이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자신의 이기적 야망과 목적을 진전시키려고 죽은 왕가의 후계자를 이용하였다. 그는 백성들이 요나단을 사랑한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죽은 후의

명성은 소중히 간직되었고 사울의 최초의 성공적인 전쟁을 군사들은 잊지 않고 있었다. 이것을 이용 가치가 있는 좋은 근거로 삼은 이 반역의 지도자는 그의 계획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PP 698.3}

요단에서 멀리 떨어진 마하나임은 다윗과 블레셋 사람이 공격하기 어려운 곳으로 매우 안전한 곳이었기 때문에 왕의 도성으로 선택하였다. 여기에서 이스보셋의 즉위식이 거행되었다. 처음에는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만이 그의 통치를 받아들였으나 마침내 유다를 제외한 온 이스라엘에 확대되었다. 2년 동안 사울의 아들은 격리된 수도에서 그의 영광을 누렸다. 그러나 그의 권세를 온 이스라엘에 확대시키려고 계획한 아브넬은 침략 전쟁을 위하여 준비하였다. 그리하여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PP 699.1}

마침내 악의와 야망으로 세워진 왕권은 반역으로 전복되었다. 약하고 무능한 이스보셋에 대하여 몹시 분노한 아브넬은 다윗에게로 탈주하여 그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넘겨주겠다고 제의하였다. 왕이 그의 제의를 받아들였고 그는 그의 목적을 달하기 위해서는 체면도 잊어버렸다. 그러나 그처럼 용감하고 이름 높은 용사를 호의로 맞이한 것이 다윗의 군대의 총사령관 요압의 질투심을 자극하였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의 전쟁 중에 아브넬이 요압의 아우 아사헬을 죽인 까닭에 아브넬과 요압 사이는 혈원(血怨)이었다. 이제 아우의 죽음을 복수하고 장차 필적이 될 자를 제거할 기회를 본 요압은 비열하게 매복하였다가 아브넬을 살해할 기회를 잡았다. {PP 699.2}

이 반역적 습격에 대한 소식을 들은 다윗은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비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고 부르짖었다. 다윗은 나라의 불안정한 상태와 살인자들 곧 요압의 아우 아비새가 그와 함께 범행하였으므로 그들의 권세와 지위를 고려하여 그 범죄를 공정히 처벌할 수는 없었으나 그는 공공연히 잔인하게 죽인 것에 대해 증오심을 나타냈다. 아브넬의 장사에는 백성의 존경이 함께 하였다. 군사들은 요압과 그들의 수령들과 함께 곡하는 예식에 참석하여 겉옷을 찢고 베옷을 입도록 명을 받았다. 왕은 장삿날에 금식함으로 그의 슬픔을 나타내고 상주처럼 상여를 따라갔다. 다윗은 무덤에서

살인자들에게 신랄한 견책이 된 애가(哀歌)를 음독(音讀)하였다.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다음과 같이 불렀다. {PP 699.3}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네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차꼬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같이
네가 엎드러졌도다.” *{PP 700.1}*

그의 큰 원수였던 자에 대한 다윗의 관대한 처사는 온 이스라엘의 신임과 칭송을 받았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바가 아닌 줄을 아니라.” 그의 신임하는 모사들과 시종들의 비공식 회합에서 왕은 그 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가 원하는 바와 같이 살인자들을 처벌하지 못한 자신의 무능을 시인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보응에 맡기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방백이요 또는 대인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PP 700.2}

아브넬은 다윗에게 한 그의 제의와 진술에는 성실하였으나 그의 동기는 비열하고 이기적이었다. 그는 자신이 명예를 얻으려는 기대를 가지고 완고하게 하나님이 임명하신 왕에게 대항했다. 그가 그처럼 오랫동안 종사하던 일을 버리고 그의 직무 중에 최고의 지위를 얻으려는 희망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간 것은 울분과 상한 자존심과 감정 때문이었다. 만일 그가 그의 목적을 성공시켰다면 그의 재능과 야심과 그의 큰 감화력과 경건의 결핍은 다윗의 왕위와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위태롭게 하였을 것이다. {PP 700.3}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나라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음이 분명했다. 뒤따른 반역으로 기우는 왕권이 완전히 몰락하고 말았다. 이스보셋은 그의 두 군장들에 의하여 무참하게

살해되었고 그들은 그의 목을 잘라 급히 유다 왕에게로 가져가 저희가 왕의 총애를 받고자 하였다. {PP 700.4}

그들은 저희 범죄에 대한 유혈의 증거물을 가지고 다윗의 앞에 나타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왕위를 세워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들로부터 그를 구원해 주셨음으로 다윗은 반역자의 도움으로 자기의 권세를 확립하기를 원치 않았다. 다윗은 이 살인자들에게 사울을 죽인 것을 자랑하던 자에게 임했던 운명을 말하고 첨가하여 말하기를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저의 피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소년들을 명하매 곧 저희를 죽이고…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하였더라.” {PP 701.1}

이스보셋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다윗이 온 지파의 왕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골육이니이다.” 그들은 이렇게 선언했다.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웠”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그가 왕위에 오를 길이 열렸다. 다윗은 개인의 야망을 만족시키려 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가 자기에게 이르러 온 영예를 구하지 않았던 까닭이었다. {PP 701.2}

아론과 레위인의 후손 8천명 이상이 다윗을 시중들었다. 백성들의 감정의 변화는 현저했고 결정적이었다. 변혁은 저희가 행하고 있는 큰 사업에 적합하도록 조용하고 위엄을 갖추어 진행되었다. 전에 사울의 신하였던 거의 5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헤브론과 그 주위에 운집했다. 모든 들과 골짜기는 군중들로 생기가 돌았다. 즉위식 시간이 정해졌다. 사울의 궁정에서 쫓겨나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산과 들과 토굴로 도망하여 다니던 다윗이 인간이 동포에게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받으려는

순간이었다. 성스러운 직무를 행할 때에 입는 예복을 입은 제사장들과 장로들, 번쩍이는 창을 들고 투구를 쓴 장교와 병사들, 먼 곳에서 온 외국인들이 택함을 받은 왕의 즉위식을 보려고 서 있었다. 다윗은 임금의 의복으로 성장(盛裝)하였다.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에 거룩한 기름을 부었으니 이는 사무엘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은 왕의 즉위식에서 행해질 것을 예표한 까닭이었다. 시간이 이르러 다윗은 엄숙한 의식에 의하여 하나님의 대리자의 직무에 성별되었다. 그의 손에는 홀이 쥐어졌다. 의로 통치하겠다는 그의 서약이 기록되었고 백성들은 충성을 맹세하였다. 그의 머리에는 왕관이 씌어지고 대관식은 끝났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왕을 모셨다. 여호와를 위하여 참을성 있게 기다린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았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삼하 5:10). {PP 701.3}

70장 다윗의 치세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의 왕국의 수도를 위하여 보다 적합한 장소를 물색하기 시작했다. 헤브론에서 20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한 장소를 장래 왕국의 수도로 선택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이곳을 살렘이라 불렀다. 이 부근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충성을 입증해 보였다. 이곳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8백 년 전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집이 있던 곳이다. 이곳은 나라의 중앙부에 있는 높은 지대였고 주위의 산들에 둘러싸인 요지였다. 이곳은 베냐민과 유다 사이의 변경 지대로써 에브라임에 아주 접근해 있었으며, 다른 지파에 가기 쉬운 곳이었다. {PP 703.1}

히브리인들은 이 장소를 얻기 위하여 시온산과 모리아산 위에 있는 요새에 살고 있는 가나안 거민의 남은 자들을 추방해야 하였다. 이 요새는 여부스라 불리었고 그 주민들은 여부스인들로 알려졌다. 여러 세기 동안 여부스는 난공 불락의 성으로 보였으나 마침내 요압이 지휘하는 히브리인들에게 포위되어 함락되었고 요압은 그의 용맹의 보상으로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이 되었다. 여부스는 이제 이스라엘 국가의 수도가 되고 이교 이름이었던 여부스는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졌다. {PP 703.2}

지중해 연안에 있는 부요한 두로 성읍의 왕 히람이 이스라엘 왕과 동맹할 생각으로 다윗에게 예루살렘 궁전을 건축하는 사업에 도움을 주었다. 건축가와 직공들과 값진 목재와 백향목과 다른 귀중한 재료들을 실은 긴 배의 행렬이 두로에서 파송된 사신들을 동행하였다. {PP 703.3}

다윗의 영도 아래 이스라엘 나라가 연합되고 그 힘이 점점 강해지고 여부스의 요새를 탈취하며 두로 왕 히람과 동맹한 일 등이 블레셋 사람의 적개심을 자극했다. 그들은 다시 강한 군대를 일으켜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하여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다. 다윗은 군사들과 함께 시온의 요새로 물러나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렸다.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붙이시리라 하신지라”(삼하 5:17~25). {PP 703.4}

다윗은 곧 원수를 향해 진군하여 그들을 격파하고 그들로부터 저희 승리를 확증해 줄줄 믿고 가져왔던 신들을 탈취했다. 패배의 굴욕에 격분한 블레셋 사람들은 더욱 많은 군대를 모아 다시 싸우려 왔다.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시 다윗은 여호와께 간구했고 크신 자존자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하셨다. {PP 704.1}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수풀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 때에 여호와가 네 앞에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셨다. 만일 다윗이 사울처럼 자신의 길을 택하였더라면 그에게 성공이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바와 같이 행하여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열국으로 저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대상 14:16, 17). {PP 704.2}

이제 다윗은 보좌를 굳게 세우고 외적(外敵)의 침입에서 해방되었으므로 그의 마음속에 품고 있던 목적 곧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오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여러 해 동안 법궤는 9마일이나 떨어진 기랏여아림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법궤를 나라의 수도로 옮겨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로 영화롭게 해야 마땅한 일이었다. {PP 704.3}

다윗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3만명을 소집했다. 이는 법궤를 운반하는 일을 매우 기쁘고 당당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백성들은 그 부름에 즐거이 응답했고 대제사장은 성직에 있는 그의 형제와 방백들과 각 지파의 지도자들과 함께 기랏여아림에 모였다. 다윗은 거룩한 열심으로 불타올랐다.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소가 끄는 새 수레에 실은 다음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 법궤를 수행하였다. {PP 704.4}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쁨의 환성을 외치고 즐거움의 노래를 부르며 악기 소리의 곡조에 맞추어 커다란 소리를 내며 법궤 뒤를 따랐다. “다윗과 이스라엘 족속이…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삼하 6장 참조).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이와 같은 승리의 광경을 목격하지 못했다. 엄숙한 기쁨으로 거대한 행렬이 산과 골짜기를 따라 나 있는 거룩한 성읍을 향해 가는 길을 메웠다. {PP 704.5}

그러나 “저희가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의 경솔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 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기뻐하던 군중들은 돌연히 공포에 사로잡혔다. 다윗은 깜짝 놀라 몹시 당황했다. 마음속으로 그는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였다. 그는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영화롭게 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렇다면 왜 무서운 형벌을 내려 기쁨의 때를 슬픔과 애통의 시간이 되게 하셨는가? 다윗은 법궤를 자기의 곁에 모시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법궤를 지금 있는 그 곳에 두기로 결심하였다. 가까운 곳에 법궤를 안치할 장소를 발견했으니 그 곳은 가드 사람 오벧에돔의 집이었다. {PP 705.1}

웃사의 죽음은 가장 명확한 명령을 범한 데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법궤의 운송에 관한 특별한 명령을 주셨다.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 외에는 아무도 법궤를 만지거나 덮여 있지 않은 법궤를 바라보아서도 안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고핫 자손이 와서 멜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민 4:15)고 지시하셨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덮어야 했고 그 후에 고핫 사람들은 법궤 양면 고리에 꿰어 있는 채를 들어야 했다. 그들은 그 채를 결코 빼지 말아야 했다. 성막의 휘장과 널판과 기둥을 맡은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에게 모세는 그들에게 맡겨진 것을 운송할 수레와 소를 주었다. 그러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메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민 7:9). 그런데 기랏여아림에서 법궤를 옮겨올 때에는 이 같은 여호와의 명령을 직접적으로 무시했고, 거기에 대해 아무런 핑계도 할 수 없었다. {PP 705.2}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성스러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에 종사했으나 여호와께서는 그 봉사를 받으실 수 없었으니 이는 당신의 명령과 일치하게 그 일이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에 수레에 실었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행한 수고를 가납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희 수중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명확한 기록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저희가 이 명령을 게을리한 것은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것이었다. 웃사에게는 오만이란 큰 죄가 놓였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율법의 신성성에 대한 그의 감각이 둔화되었다. 웃사는 고백하지 않은 죄를 가진 채

하나님의 금령에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에 손을 댔다. 하나님께서는 부분적 순종이나 조심성 없는 태도로 당신의 계명을 취급하는 일을 가납하실 수 없으시다. 하나님께서는 웃사를 벌하심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의 요구에 엄격히 유의해야 할 중요성을 명심토록 하시고자 하셨다. 그리하여 그 한 사람의 죽음이 백성들을 회개토록 인도하여 무수한 사람에게 내릴 형벌을 미리 예방할 수 있었다. {PP 705.3}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롭지 않다는 것을 느낀 다윗은 웃사의 죽음을 보고 자기의 어떤 죄가 그에게 형벌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여 법궤를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오벧에돔은 기뻐 뛰면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보증으로서 거룩한 상징을 환영하였다. 온 이스라엘의 주의가 이제 가드 사람과 그 권속에게 쏠렸고 모든 사람들은 법궤가 그들과 잘 지내는지를 주목하여 바라보았다. “여호와께서 오벧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PP 706.1}

다윗에게 대한 하나님의 견책은 효력이 있었다. 다윗은 그가 전에 결코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율법의 신성성과 엄격한 순종의 필요를 깨닫게 되었다. 오벧에돔의 집에 내린 은총은 다윗에게 다시 법궤는 그와 그의 백성에게 축복을 가져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했다. {PP 706.2}

석 달 후에 다윗은 다시 법궤를 옮기기로 결심하고 이번에는 여호와의 명을 일일이 세심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몹시 주의를 기울였다. 다시 국민의 지도자들이 소집되었고 큰 무리가 가드 사람의 집 주위에 모였다. 이제 거룩히 임명된 자들이 법궤를 경건하게 주의를 기울여 저들의 어깨에 메었고 군중들은 대열에 들어가 떨리는 마음으로 큰 행진을 다시 시작했다. 여섯 걸음을 걸은 후에 나팔을 불어 행진을 멈추게 했다. 그러고는 다윗의 지시에 따라 “소와 살진 것”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다. 이제 기쁨이 떨림과 두려움을 대신했다. 다윗은 군주의 예복을 벗고 제사장들이 입은 것과 같은 수수한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 그는 이 일로 그가 제사장의 직능을 받았음을 의미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때때로 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들도 에봇을 입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거룩한 예식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하들과 함께 낮은 자리에 있고자 하였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경배를 받으셔야 하셨고 그분이 경배의 유일한 대상이 되셔야 하였다. {PP 706.3}

다시 긴 행렬은 움직였고 수금과 소고와 양금과 제금의 주악 소리가 많은 사람들의 노래 곡조와 어울려서 하늘로 퍼져 올라갔다. 그리고 다윗은 즐거움으로 노래의 박자에 장단을 맞추어 “여호와 앞에서…춤추”었다. {PP 707.1}

연락을 사랑하는 자들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기쁨으로 춤을 춘 사실을 빙자하여 현대에 유행하는 댄스를 정당화하려고 하지만 이와 같은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오늘날 춤추는 것은 어리석은 짓과 밤중의 주연과 관련되어 있다. 건강과 품행이 향락의 제물이 된다. 무도장에 자주 출입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생각과 존경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으며 기도나 찬송은 그들의 회집에서 적합지 않음을 느낄 것이다. 이것이 결정적인 시금석이 되어야 한다. 신령한 사물에 대한 사랑을 약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기쁨을 감소시키는 경향으로 흐르는 오락을 그리스도인들은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 법궤를 옮길 때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와 춤은 현대 댄스의 유흥과는 전혀 닮은 점이 없다. 전자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당신의 성호를 높이는 것이었고 후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께 욕돌리게 한 사단의 흉계이다. {PP 707.2}

승리의 행렬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의 거룩한 상징인 법궤를 따라 수도(首都)에 접근하였다. 그 후에 성벽의 파수꾼들에게 거룩한 성읍의 문을 활짝 열도록 요구하는 다음의 노래가 터져 나왔다. {PP 707.3}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한 무리의 노래하는 자와 기악하는 자가 응답하기를,
“영광의 왕이 뉘시뇨”
다른 무리가 화답하기를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PP 708.1}

그 후 다수의 음성이 합하여 승리의 합창이 드높게 울려 퍼졌다. {PP 708.2}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PP 708.3}

다시 “영광의 왕이 뉘시뇨”라는 기쁨의 질문이 들렸다. “많은 물소리 같은” 큰 군중의 음성은 환희에 넘치는 대답을 하였다. {PP 708.4}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시 24:7~10 {PP 708.5}

그 다음에 문들이 활짝 열리고 행렬이 안으로 들어갔으며, 법궤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를 영접하기 위하여 준비된 장막에 안치되었다. 이 성스러운 법궤 앞에 제단을 쌓고 화목제와 번제를 드렸다. 그 연기와 향연이 이스라엘의 찬양과 기도와 함께 하늘로 올라갔다. 예식이 끝나자 왕은 친히 그의 백성에게 축복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그는 왕의 하사물(下賜物)로 떡과 포도주를 주어 백성의 기력을 돋우었다. {PP 708.6}

각 지파는 모두 다윗의 치세의 특색을 나타낸 가장 신성한 사건을 축하하는 이 예식에 대표자를 보내어 참석하도록 했다. 거룩한 영감의 성령이 왕에게 임하였고 넘어가는 마지막 태양 광선이 성막을 거룩한 빛으로 가득 채울 때에 왕의 마음은 당신의 임재의 복된 상징이 이제 이스라엘의 보좌와 매우 가까이 있으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PP 708.7}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궁궐로 향하였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킨 정신과는 현저히 다른 정신으로 기뻐하던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그 여인은 심히 흥분하여 다윗이 궁으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릴 수 없어 그를 맞으러 나아가 그의 친절한 인사에 혹독한 말을 퍼부었다. 그 여인은 신랄하고 예리한 비꼬는 말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PP 708.8}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없는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 몸을 드러내셨도다.” {PP 708.9}

다윗은 미갈이 멸시하고 욕한 것은 하나님께 드린 예배임을 느끼고 다음과 같이 엄격히 대답하였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네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다윗의 견책에 여호와의 견책이 첨가되었는데 그의 교만과 자만심 때문에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 {PP 711.1}

법궤를 옮기는 데 수반된 엄숙한 의식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래 지속되는 깊은 감명을 주어 성소 봉사에 대한 저들의 깊은 관심을 환기시키고 여호와께 대한 그들의 열심을 새로 불타오르게 하였다. 다윗은 그의 능력이 미치는 온갖 방법으로 이 감명을 깊게 하고자 노력하였다. 노래 부르는 것을 종교적 예배의 필수적 부분으로 삼았고, 다윗은 시편을 만들어 성소 봉사에서 제사장들이 사용할 수 있게 했을 뿐 아니라 백성들이 연중 절기에 성소를 향하여 여행할 때에 역시 부를 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이 애쓴 감화는 멀리까지 미쳤고 온 나라를 우상숭배에서 해방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많은 인근의 백성들도 이스라엘의 번영을 바라보고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그와 같은 위대한 일을 행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하여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 {PP 711.2}

모세가 지은 성막은 법궤를 제외하고는 성소 봉사에 속한 모든 것과 함께 여전히 기브아에 있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그 나라의 종교적 중심지로 만들고자 하였다. 다윗은 자신을 위하여 궁궐을 지은 후에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장막 속에 두는 것이 온당한 일이 아니라고 느꼈다. 다윗은 법궤를 위하여 매우 장엄한 성전을 건축해서 온 백성이 여호와 그들의 왕의 임재하신 중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뜻을 선지자 나단에게 전달한 다윗은 그로부터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삼하 7장 참조)라는 격려의 대답을 받았다. {PP 711.3}

그러나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왕에게 전할 기별을 주셨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집을 건축할 특권을 받지 못할 것이나 그와 그의 후손과 이스라엘 나라에

내리실 하나님의 은총의 보증을 다음과 같이 허락하여 말씀하셨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리라. {PP 711.4}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고자 갈망했기 때문에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는 허락이 주어졌다. {PP 712.1}

다윗이 성전을 지어서는 안 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다.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한 아들이 네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은 솔로몬(평화로움)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의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라”(대상 22:8~10 참조). {PP 712.2}

다윗은 비록 그 마음에 품고 있던 목적이 거절당했지만 그 기별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관대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이를 일을 말씀하”셨나이다고 부르짖은 후 하나님과 그의 언약을 새롭게 하였다. {PP 712.3}

다윗은 그의 심중에 하려던 사업을 수행함으로 그의 이름이 영예롭게 되고 그의 나라의 영광이 될 것임을 알았으나, 곧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켰다. 이와 같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단념하는 일이 그리스도인 중에서까지도 매우 드물게 보인다. 얼마나 흔히 성년의 기력을 넘긴 자들이 저희가 수행하기에 부적당한 어떤 큰 사업을 성취시키려는 희망을 굳게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섭리는 당신의 선지자가 다윗에게 한 것처럼 저희가 그처럼 갈망하는 사업이 그들에게 위임되지 않았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들이 할 일은 다른 사람이 그 일을 성취하도록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대신에 만일 저희가 하고자 하는 한 가지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리라는 감정을 가지고 마치 모욕과 거절을 당한 것처럼 물러간다. 많은 사람들은 무모한 정력을 가지고 저희가 감당할 능력이 없는 책임을 맡고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사업을 성취하고자 헛되이 노력하는 반면에 저희가 해야 할 일은 게을리 하여 버려둔다. 그리하여 저들 편의 이러한 협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더 큰 사업이 방해를 받거나 실패하고 만다. {PP 712.4}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에서 그가 원수들에게 쉼을 얻게 될 때에 사울의 집에 친절을 베풀 것을 약속하였었다. 왕은 그가 번영할 때에 이 언약을 기억하고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삼하 9장 참조)고 물었다. 왕은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있는데 그는 어린 시절부터 절뚝발이라는 말을 들었다. 사울이 이스르엘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패배했을 때에 이 아이의 유모가 그를 안고 도망하다가 그만 떨어뜨려 평생 동안 절뚝발이가 되었다. 다윗은 이제 이 젊은이를 궁정으로 불러들여 큰 친절로 그를 영접하였다. 사울의 사유 재산을 그에게 돌려주어 가족을 부양하게 하고 므비보셋 자신은 항상 왕의 객이 되어 날마다 왕의 식탁에 앉게 하였다. 므비보셋은 다윗의 원수들의 보고를 통하여 다윗이 왕위의 찬탈자란 강력한 편견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왕이 그를 관대하고 정중하게 영접해주고 끊임없이 친절을 베풀어 주자 이 젊은이의 마음은 감동을 받아 그는 다윗을 아버지 요나단처럼 열렬히 사랑하게 되어 자기의 이해관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의 이해관계와 하나임을 느꼈다. {PP 713.1}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위에 오른 후에 그 나라는 오랜 평화의 기간을 누렸다. 얼마 후에 인근 백성들도 이스라엘 나라의 세력과 통일을 보고 공공연한 적대 행위를 단념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다윗도 그의 나라를 조직하고 창립하는 데 전념하고 침략적 전쟁을 멀리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결국 이스라엘의 숙적 블레셋과 모압으로 더불어 전쟁하여 양국을 정복하는 데 성공하여 그들을 속국으로 삼았다. {PP 713.2}

그 후에 다윗의 나라를 대적하는 인근 민족들의 거대한 연합이 이루어졌고 이 연합에서 그의 치세의 최대의 전쟁과 승리를 거두고 그의 세력을 가장 광범위하게 증대시켰다. 실은

다윗의 세력이 증대되는 것을 질투하여 이루어진 이 적들의 연합군은 전혀 다윗과 싸울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 이 일이 일어나게 된 전말은 다음과 같았다. {PP 713.3}

다윗이 사울의 분노를 피하여 유랑할 때에 그에게 친절을 베푼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죽음을 고하는 기별이 예루살렘에 전달되었다. 그가 고통당할 때에 그에게 은혜를 베푼 데 대한 감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다윗은 이제 암몬 자손의 왕의 아들이요 후계자인 하눈에게 사신을 보내어 동정의 기별을 전했다. "다윗이 가로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 아비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같이 하리라"(삼하 10장 참조) 하였다. {PP 714.1}

그러나 그의 친절한 행위는 오해를 받았다. 암몬 사람은 참 하나님을 미워하였고 이스라엘의 큰 원수였다. 나하스가 다윗에게 베푼 표면상의 친절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왕인 사울에 대한 적개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다윗의 기별은 하눈의 방백들의 오해를 받았다. 그들이 "그 주 하눈에게 고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 신복을 보내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이까" 하였다. 반세기 전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암몬 사람에게 포위되어 평화의 언약을 간청할 때에 나하스가 그들에게 잔인한 조건을 요구하게 된 것은 그의 방백들의 충고 때문이었다. 나하스는 그들 모든 자의 오른 눈을 뽑아 낼 특권을 요구하였다. 암몬 사람들은 지금도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그들의 잔인한 계획을 실패하게 하여 저희가 천대하고 불구로 만들었을 백성을 구원한 것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이스라엘에 대한 동일한 증오심이 그들을 자극시켰다. 그들은 다윗이 기별을 보내도록 고취시킨 관대한 정신을 전혀 짐작할 수 없었다. 사단이 인간의 마음을 지배할 때에 그는 바로 최선의 의도까지도 곡해시킬 질투와 의심을 일으킬 것이다. 방백들의 말을 들은 하눈은 다윗의 사신들을 정탐으로 간주하고 그들에게 조롱과 모욕을 주었다. {PP 714.2}

하나님께서는 암몬 사람들이 저희 마음의 악한 목적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수행하도록 허락하심으로 그들의 진정한 성격을 다윗에게 나타내 보이도록 하셨다. 이스라엘이 이 반역적인 이방 백성들과 동맹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아니었다. {PP 714.3}

옛날에도 지금처럼 대사의 직분은 신성하게 여김을 받았다. 대사는 국제법으로 신체의 폭행이나 인신 모독에서 보호되도록 보장되어 있었다. 자기의 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대사에게 어떠한 모욕을 가하면 신속한 보복이 이르러 왔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가한 모욕으로 분명히 보복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암몬 사람들은 전쟁을 준비했다.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하눈이 암몬 자손으로 더불어 은 1천 달란트를 아람나하라임과 아람마아가와 소바에 보내어 병거와 마병을 삯 내되 곧 병거 3만 2천승...을 삯 내었더니...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 좇아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대상 19:6, 7, 13). {PP 714.4}

이것은 과연 방대한 연합이었다. 유브라데강과 지중해 사이에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암몬 사람과 동맹하였다. 가나안 북부와 동부는 이스라엘 나라를 쳐부수려고 단결한 무장한 원수들에게 포위되었다. {PP 715.1}

히브리인들은 그들의 나라를 침입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요압의 지휘를 받는 그들의 군대는 요단강을 건너 암몬의 수도를 향하여 진군하였다. 히브리 대장은 그의 군대를 전쟁 마당으로 인도할 때에 싸움을 위하여 군사를 격려하려고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고 말했다. 동맹국의 연합군은 최초의 교전에서 패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싸움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해에 다시 전쟁을 시작하였다. 아람 사람들은 온 군대를 모아 막대한 군사로 이스라엘을 위협하였다. 이 싸움의 결과가 얼마나 중대함을 깨달은 다윗은 몸소 싸움터에 나아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동맹군에게 너무나 엄청난 패배를 가했으므로 레바논에서 유브라데에 이르는 아람 사람이 전쟁을 포기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었다. 다윗은 암몬 사람을 대항하여 힘차게 전쟁을 강행하여서 마침내 그들의 요새들을 함락시켰다. 그리하여 전 영토는 다윗의 통치 하에 들어왔다. {PP 715.2}

나라를 완전히 파멸시킬 것처럼 위협하던 위험이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미증유의 강대국이 되게 하는 방편이 되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기념하여 다윗은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PP 715.3}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수하시고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실로 나를 대적하는 자의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며
영영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시 18:46~50 {PP 716.1}

그리고 다윗의 노래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의 능력이요 구원자시라는 사상이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었다. {PP 716.2}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함에 말은 헛것임이여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로 나를 구원치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케 하셨나이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시 33:16, 17, 44:4~7, 20:7 {PP 716.3}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후에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창 15:18; 신 11:22~25)라고 모세에게 반복하여 말씀하신 언약을 성취시키는 범위에까지 도달하였다. 이스라엘은 강대한 국가를 이루어 인근 백성들이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바가 되었다. 그의 영토 안에서도 다윗의 세력은 매우 강하였다. 다윗은 어느 시대의 군주라도 얻기 어려웠던 그 백성의 사랑과 충성을 받았다. 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시고 계셨다. {PP 716.4}

그러나 번영 속에도 위험은 숨어 있었다. 외부에서 그가 최대의 승리를 얻은 그 때에 다윗은 최대의 위험 중에 있었고 가장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였다. {PP 716.5}

71장 다윗의 범죄와 회개

성경에는 사람들을 칭찬하여 말한 데가 거의 없다. 일찍이 세상에 산 가장 선한 사람들의 미덕까지도 자세하게 말해 주는 지면이 거의 없다. 이러한 침묵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우리가 알아야 할 교훈이 있다.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좋은 자질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들의 선한 행위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덕인 이상 그들의 위인(爲人)됨이 어떠하든지 무엇을 성취했든지 간에 그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모든 성경 역사의 교훈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사람을 칭찬하거나 높이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잘못하면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힘을 의지함으로 결국에 가서는 타락하게 되는 연고이다. 인류는 자기보다 강한 원수와 싸우고 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엡 6:12).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싸움을 계속하기 불가능하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고 우리로 자고하게 하거나 자신을 의지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분명히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성경의 취지는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PP 717.1}

다윗에게 범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은 자신을 의뢰하는 정신과 자기를 높이는 정신이었다. 아첨과 권세와 사치의 미묘한 유혹이 다윗에게 영향을 미쳤다. 주위의 민족과의 교제도 역시 악한 감화를 끼쳤다. 동방의 통치자들 사이에 성행하던 풍습에 따르면 신하들에게 용서할 수 없는 범죄를 왕이 행했을 때에는 정죄하지 않았으며 왕은 신하가 행하는 그런 자제를 행할 의무가 없었다. 이 모든 것들은 죄의 흉악성에 대한 다윗의 생각을 무디게 했다. 그리하여 다윗은 겸손히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하였다. 사단은 영혼을 유일한 능력의 근원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게 되자마자 인간의 사악한 육체적 욕망을 충동시키고자 할 것이다. 원수는 일을 돌발적으로 하지 아니한다. 원수는 처음부터 몹시 놀랄 만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리에 원칙의 요새를 침식하는 것이다. 이 일은 겉보기에는 매우

적은 일처럼 보이는 것들 즉 하나님께 충실하고 당신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게을리 하는 일이나, 세상의 풍속과 행습을 따르는 경향에서 시작한다. {PP 717.2}

암몬 사람과의 전쟁을 종결짓기 전에 다윗은 군대의 지휘권을 요압에게 맡기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아람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항복했고 암몬 사람을 완전히 정복하는 일도 분명한 것처럼 보였다. 다윗은 승리의 성과와 그의 지혜롭고 유능한 통치에 대한 존경에 둘러싸여 있었다. 유혹하는 자가 다윗의 마음을 점령할 기회를 포착한 것은 그가 안일하고 방심하고 있던 이 때였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취하여 당신과 매우 밀접한 교제를 하게 하시고 그에게 그처럼 큰 은총을 나타내셨다는 사실이 그의 품성을 흠없이 보존해야 할 가장 큰 동기가 되어야 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안일과 스스로 안심하는 상태에 빠져 하나님 의지하기를 잊어버리므로 사단에게 굴복하고 그 자신에게 범죄의 오점을 남기게 됐다. 하늘이 임명한 민족의 지도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집행하도록 택하신 다윗은 스스로 그 계명을 유린하였다. 행악자들에게 두려움이 되었어야 할 그는 자신의 행위로 행악자들의 손을 강하게 하였다. {PP 718.1}

다윗은 그의 초기 생애의 온갖 위험 중에서 양심적으로 성실하게 그의 사정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다. 여호와의 손길이 그를 인도하여 그의 발길에 놓였던 무수한 올무를 안전히 지나가게 하셨다. 그러나 이제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은 그는 하늘의 도움과 지도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범죄로 인하여 빠져들어간 위험에서 자기 자신을 구출하고자 노력하였다. 절세의 미모로 왕에게 올무가 되었던 밧세바는, 다윗의 가장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장교 중에 하나인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였다. 다윗의 범죄가 알려질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하나님의 율법은 간음한 자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그같은 치욕을 당한, 자부심이 강한 무사는 왕의 생명을 취하거나 나라에 대한 반란을 일으켜 복수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PP 718.2}

다윗이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하여 취한 모든 노력이 다 소용없는 일임이 밝혀졌다. 다윗은 자신을 사단의 권세에 팔았다. 위험은 그를 둘러 있었고 그의 앞에는 죽음보다 더 쓰라린 치욕이 있었다. 피할 길이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서 그는 절망 중에 신속히 간음죄에 살인죄를 첨가했다. 사울의 멸망을 계획했던 사단은 다윗도 역시 멸망으로 이끌어 가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비록 유혹은 달랐으나 그 모든 것은 다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도록 인도하였다. 다윗은 만일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원수들의 손에 죽임을 당한다면 그의 죽음의 책임을 왕에게서 찾지 않을 것이며 밧세바는 자기의 아내가 되는 데 걸릴 것이 없을 것이고 의심도 피할 수 있고 왕의 명예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PP 718.3}

우리아는 자기 자신의 사형 집행 영장을 가지고 가는 자가 되었다. 왕은 우리아의 손을 빌어 요압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명했다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삼하 11, 12장 참조). 이미 함부로 사람을 죽인 죄로 물들여진 요압은 왕의 명을 순종하기에 주저하지 않았고 우리아는 암몬 자손의 칼에 죽임을 당하였다. {PP 719.1}

이제까지 통치자로서의 다윗의 기록은 어느 군주도 필적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한 것이었다. 다윗에 대하여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하"(삼하 8:15)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의 성실함은 온 민족의 신뢰와 충성을 얻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을 악한 자에게 복종시킴으로 인하여 그는 한동안 사단의 대리자가 되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위와 권위를 누리고 있었다. 그 때문에 그는 자기의 권위에 복종하는 자의 영혼을 파멸시키라는 요구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보다도 왕에게 더 충의를 표했던 요압은 왕의 명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다. {PP 719.2}

다윗의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하도록 그것을 행사해야 하였다. 그가 하나님의 율법에 반대되는 것을 명했을 때에 그것을 순종하는 것은 죄가 되는 것이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롬 13:1)나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반대되는 권세에 순종하지 말아야 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사람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가 다스림을 받아야 할 원칙을 제시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전 11:1)고 하였다. {PP 719.3}

그의 명령이 집행되었다는 보고를 다윗에게 보낼 때에 요압이나 왕이 연루되지 않은 것처럼 매우 주의 깊은 말을 사용하였다. 요압이 "그 사자에게 명하여 가로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에게 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면…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헷 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사자가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의 모든 보낸 일을 고하였”다. {PP 719.4}

왕의 대답은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저를 담대케 하라” 하였다. {PP 720.1}

밧세바는 그녀의 남편을 위하여 관습상 호곡(號哭)하는 기간을 준수하였다. 그 기간의 끝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었”다. 자기의 생명이 위태한 때에라도 그의 고운 양심과 명예에 대한 고상한 의식을 잃지 아니하고,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를 치지 않았던 그가 자기의 가장 충성스럽고 가장 용맹스러운 무사를 욕보이고 살해한 후 자기의 죄악의 보상을 방해받지 아니하고 향락하기를 바랄만큼 타락했다. 슬프다! 어찌하여 정금이 광채를 잃었는고! 어찌하여 최고의 정금이 변했는고! {PP 720.2}

태초부터 사단은 범죄하면 이익이 있다고 사람들에게 말해 왔다. 천사들도 그런식으로 유혹했고 아담과 하와도 그 방법으로 유혹하여 범죄하게 했다. 그리고 지금도 같은 방법으로 군중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을 순종하는 길에서 떠나도록 하고 있다. 범죄의 길은 바람직하게 보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잠 14:12)다. 대담하게 이 길에 들어섰다가 죄의 결과가 얼마나 쓰라린 것임을 알고, 일찍 거기를 떠나는 자들은 행복한 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셔서 다윗을 죄악의 기만적 대가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을 당하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셨다. {PP 720.3}

또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필요가 있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밧세바에 대한 다윗의 범죄가 알려지고 다윗이 우리아의 죽음을 계획했을 것이라는 의심이 일어나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모욕을 당하셨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그를 높이셨으므로 다윗의 죄는 하나님의 품성을 잘못 드러내었고 당신의 성호에 욕을 돌렸다. 한편으로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경건의 표준을 낮추고, 많은

사람들의 심중에 죄에 대한 증오심을 둔화시켰고 다른 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공경하지도 않는 자들에게 대담하게 범죄할 구실을 주었다. {PP 720.4}

선지자 나단은 다윗에게 책망의 기별을 전하라는 명을 받았다. 이것은 매우 혹독한 기별이었다. 이와 같은 책망을 받고도 책망한 자로 하여금 반드시 죽음으로서 그 값을 치르게 하지 않을 군주는 거의 없었다. 나단은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선고를 전했으나 왕의 동정심을 끌고 그의 양심을 환기시켜 자기의 입술로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그와 같은 천래의 지혜를 사용하였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권리를 수호하는 자로 임명하셨다는 것을 다윗에게 호소하면서 선지자는 제거되어야 할 악과 압제에 대한 이야기를 되풀이해서 말했다. {PP 720.5}

나단은 말하기를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가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우므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고 하였다. {PP 721.1}

왕은 분노하여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사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삼하 12:5, 6)고 부르짖었다. {PP 721.2}

나단은 왕을 주목한 후 손을 하늘로 쳐들고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엄숙히 선언하였다. 그는 계속하여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라고 말하였다. 다윗처럼 범죄자들이 저희 죄를 사람들에게 감추려고 시도하고 저희 악한 행위를 인간의 안목과 지식에서 영원히 덮어두려고 노력할지 모르나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같이 드러나느니라"(히 4:13).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마 10:26). {PP 721.3}

나단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네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느니라…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네가 칼로 헷 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처를 빼앗아 네 처를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 사람 우리아의 처를 빼앗아 네 처를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 영영히 떠나지 아니하리라…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PP 721.4}

선지자의 견책은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 양심을 일깨웠고 그의 죄는 흉악한 그대로 모두 나타났다. 그의 영혼은 굴복되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 떨리는 입술로 그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말하였다. 다른 사람에게 행한 모든 악은 모두 다 해받은 자들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다윗은 우리아와 밧세바 양인에게 극악한 죄를 범하였고 그는 이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러나 더욱 그를 괴롭힌 것은 그 죄가 하나님께 범한 죄라는 것이었다. {PP 722.1}

비록 이스라엘 중에는 여호와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를 사형에 처할 사람이 없지만 다윗은 자기가 범죄하고 용서받지 못했으므로 하나님의 신속한 심판으로 끊어짐을 당하지 않을까 하여 떨었다. 그러나 선지자는 그에게 기별을 보내어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다. 그러나 공의는 유지되어야 하였다. 사형 선고는 다윗에게서 그의 범죄의 아이에게로 전가되었다. 그리하여 왕에게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 바 되었으나 자기 아들의 고통과 죽음이 그에게 자신의 죽음보다 훨씬 더 쓰라린 형벌이 되었다. 선지자는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훼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이다"고 말하였다. {PP 722.2}

그의 아이가 병들었을 때에 다윗은 금식하면서, 깊이 겸비하고 그 생명을 위하여 탄원하였다. 다윗은 왕의 예복을 벗고 왕관도 벗어 두고 여러 날과 밤을 땅에 엎드려 애끊는 슬픔으로 자기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무죄한 아이를 위하여 간구하였다.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곁에 이르러 다윗을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였다. 때때로 사람이나 성읍들에 형벌이 선고되었을 때에 겸비하고 회개함으로 그 형벌이 물러가기도 했었고, 신속히 용서하시고 항상 자비스러운 하나님께서 화평의 사자들을 보내시기도 했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용기를 얻은 다윗은 그 아이가 목숨이 붙어 있는 한 굽히지 않고 탄원하였다. 아이가 죽은 것을 알자 그는 침착하게 하나님의 섭리에 복종하였다. 스스로

당연하다고 선언한 보응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한 다윗이 위로를 받지 못한 것은 아니다. {PP 722.3}

다윗의 타락의 역사를 읽은 매우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기록을 공개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하늘이 그처럼 크게 영예롭게 한 자의 생애에서 이 어두운 대목을 세상에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보셨을까?”라고 질문한다. 선지자는 다윗을 책망하는 말에서 다윗의 죄에 관하여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훼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고 선언하였다. 후세대 이방인들은 이 어두운 오점을 가지고 다윗의 성품을 지적하면서 의기양양하고 조롱하는 뜻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고 부르짖어 왔다.

그리하여 신앙은 비난을 당하였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은 모독을 당했으며 영혼들은 불신에 굳어졌고 많은 사람들은 경건의 가면을 쓰고 범죄하기에 담대하게 되었다. {PP 722.4}

그러나 다윗의 역사가 범죄를 찬성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불리운 것은 그가 하나님의 권고를 따라 행하고 있을 때였다. 그가 범죄했을 때에 그는 그렇게 인정받을 수 없었고 그가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올 때까지 그러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고 분명히 선언했다. 또한 여호와께서도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겼”으니, “칼이 네 집에 영영히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 비록 다윗이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께로부터 용서와 가납하심을 받았으나 그는 자신이 심은 씨로부터 해로운 수확을 거두었다. 그와 그의 집에 내린 형벌은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증거한다. {PP 723.1}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섭리로써 다윗을 그의 원수들의 모든 음모에서 보호하시고 직접 사울을 제지하는 일을 행하셨다. 그러나 다윗의 범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변화시켰다. 여호와께서는 결단코 죄악을 시인하실 수 없으셨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사울의 적의에서 보호하셨지만 그가 지은 죄의 결과로부터 그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행사하실 수는 없으셨다. {PP 723.2}

다윗 자신에게도 큰 변화가 있었다. 그는 자기의 죄와 멀리까지 미칠 그 결과를 의식하고 상심하였다. 그는 자기의 신하들의 목전에서도 천하게 보인다는 것을 느꼈다. 이제까지 그가 번영한 것은 여호와의 계명을 양심적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죄를 알고 있는 그의 신하들은 더욱 거리낌 없이 범죄하게 될 것이다. 자기 가족들에 대한 자신의 권위가 약해지고 아들들에게 존경과 순종을 요구할 권위도 약화되었다. 그가 마땅히 죄를 정죄해야 할 때에도 자신의 범죄를 의식하고 그는 침묵을 지켰다. 그로 인해 그의 집에서 공의를 집행해야 할 그의 팔을 약화시켰다. 그의 악한 모본의 감화가 그의 아들들에게 끼쳐졌고 하나님께서도 그 결과를 막으려 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만사를 되어지는 대로 흘러가도록 버려두셨으며 그리하여 다윗은 격렬한 징벌을 받았다. {PP 723.3}

타락한 후 온 일 년 동안 다윗은 표면상으로는 안전히 거하는 것처럼 보였고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신다는 아무런 외적 증거도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벌이 그에게 박두하고 있었다. 형벌과 보응의 날은 신속하고도 분명히 다가오고 있었으며 그가 아무리 회개할지라도 그의 온 지상 생애를 어둡게 할 고민과 수치를 막을 수 없었다. 다윗의 예를 들어 자신들의 죄의 악함을 경감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은 성경의 기록에서 범죄의 길은 혹독한 길임을 배울 것이다. 비록 저희는 다윗처럼 악한 길에서 돌아선다 할지라도 죄악의 결과는 이 세상에서도 쓰라리고 견디기 어려움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PP 723.4}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범죄의 역사를 비록 당신으로부터 크게 축복과 은총을 받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안전하다고 느끼고 깨어 있어 기도하기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로 삼고자 하셨다. 그같은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계획하신 교훈을 겸손히 배우려고 노력한 자들의 생애에서 입증되어 왔다. 각 시대를 통하여 무수히 많은 사람들은 유혹자의 세력으로부터 오는 위험들을 깨닫게 되었다. 여호와께로부터 그처럼 크게 존귀히 여김을 받았던 다윗의 타락은 그들의 마음에 자신을 믿지 않도록 일깨워 주었다. 그들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당신의 능력으로 그들을 보호하실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하나님 안에 그들의 능력과 안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사단의 영역에 첫발을 들여놓기를 두려워하였다. {PP 724.1}

하나님의 선고가 그에게 선언되기 전에도 다윗은 범죄의 열매를 거두기 시작하였다. 그의 양심은 평안하지 않았다. 다윗이 그 때에 당한 정신적 고통을 시편 32편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PP 724.2}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하므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시 32:1~4 {PP 724.3}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의 기별이 다윗에게 이르렀을 때에 다윗은 회개의 표현을 시편 51편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PP 724.4}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시 51:1~14 {PP 725.1}

그리하여 이 이스라엘 왕은 성가로 그의 백성의 공중 회집에서, 궁궐 앞에서, 제사장들과 재판관들과 방백들과 무사들로 이 노래를 부르게 하여 먼 후세대까지 자기의 타락에 대한 지식을 보존하도록 했다. 이스라엘 왕은 자기의 범죄와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용서에 대한 자기의 희망을 자세히 말했다. 그는 자기의 죄악을 감추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이 그의 타락의 슬픈 역사로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갈망하였다. {PP 725.2}

다윗의 회개는 성실하고 깊은 회개였다. 자기의 죄악을 변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그의 기도에는 경고된 형벌을 피하려는 욕망이 없었다.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죄의 흉악함과 자기 영혼의 더러움을 보고 죄를 미워하였다. 그가 기도한 것은 용서만을 얻고자 함이 아니요 마음의 정결을 얻기 위함이었다. 다윗은 절망 중에 투쟁을 포기하지 아니하였다. 회개한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용서와 가납하심의 증거를 보았다. {PP 725.3}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시 51:16, 17 {PP 725.4}

다윗은 비록 넘어졌으나 여호와께서는 그를 일으키셨다. 다윗은 이제 타락하기 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 이웃들에게 동정적이었다. 죄에서 해방된 기쁨을 다윗은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PP 726.1}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에우시리이다”.

시 32:5~7 {PP 726.2}

많은 사람들은 저희 보기에는 훨씬 덜 악한 죄처럼 보이는 사울은 거절하시고 매우 큰 죄를 범한 다윗은 아끼신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한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낮추고 죄를 자백한 반면에 사울은 책망을 멸시하고 마음을 굳게 하여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PP 726.3}

다윗의 역사에서 이 대목은 회개하는 죄인들에게 의미심장한 것이다. 이것은 인류의 투쟁과 시험, 그리고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에 관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힘 있는 예증의 하나이다. 각 시대를 통하여 이것은 범죄하여 그들의 죄악의 짐에 눌려 몸부림치는 영혼들에게 용기를 주는 근원임이 입증되었다. 범죄하고

절망에 빠져 자포자기 하려던 무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윗이 자기의 범죄로 고통을 당했다 할지라도 성실히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하나님의 가납하심을 받았던 일을 기억하고 그들도 역시 회개할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계명의 길로 행하려고 노력하였다. {PP 726.4}

누구든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다윗처럼 겸비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희망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허락들을 받아들인 자는 용서를 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참으로 회개하는 영혼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이와 같은 약속을 주셨다.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사 27:5).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사 55:7). {PP 726.5}

72장 압살롬의 반란

다윗은 선지자 나단의 비유를 듣다가 "저가...사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고 무의식중에 자기 자신에게 선고를 내렸다. 그는 자신의 선고에 따라 심판을 받아야 했다. 그의 아들 중 넷은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 각인의 상실은 아비의 죄악의 결과이었다. {PP 727.1}

다윗은 장자 암논의 치욕적인 죄를 형벌하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은 채 지나가게 놔뒀다. 율법은 간음한 자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인도에 어긋난 암논의 범죄는 그로 이중으로 유죄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자신의 죄에 대한 자책을 받은 다윗은 범죄자를 형벌할 수 없었다. 그처럼 더럽게 수치를 당한 누이의 당연한 보호자인 압살롬은 최후에 더욱 실수 없이 처치하기 위하여 만 2년 동안 자기의 복수심을 감추어 왔다. 왕의 아들들의 잔치에서 거나하게 취한, 근친상간의 죄를 저지른 암논은 그의 아우의 명령에 따라 살해되었다. {PP 727.2}

이중의 형벌이 다윗에게 주어졌다.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무서운 기별이 그에게 전달되었고 "왕은 곧 일어나서 그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지고 그 신복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허겁지겁 예루살렘에 돌아온 왕의 아들들은 저희 아비에게 사실을 밝혀 암논만이 죽임을 당했다고 말했다. 그들이 "대성통곡하니 왕과 그 모든 신복도 심히 통곡하니라." 그러나 압살롬은 그의 외할아버지 그술 왕 달매에게로 도망하였다. {PP 727.3}

다윗의 다른 아들들처럼 암논은 이기적 방종에 몰두하였다. 암논은 하나님의 요구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의 마음의 모든 욕망을 만족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그가 크게 범죄하였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하여 오랫동안 참으셨다. 2 년간 그에게 회개할 기회가 허락되었다. 그러나 그는 범죄하기를 계속했다. 무서운 형벌의 심판을 기다리다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음에 넘어지고 말았다. {PP 727.4}

다윗은 암논의 범죄를 처벌하기를 게을리했다. 왕이요 아버지인 그의 불충실과 그 아들이 회개치 않은 까닭에 여호와께서는 사건들이 그 당연한 진로를 따르도록 허락하시고 압살롬을 제지하지 않으셨다. 부모나 통치자가 죄악을 처벌할 의무를 게을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처리하실 것이다. 당신의 제지하시는 능력이 악의

대리자들로부터 조금만 거두어져도 악이 악으로 처벌되는 일련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PP 728.1}

다윗이 암논의 죄를 묵인한 죄의 결과가 이것으로 다 끝나지 않았다. 이 때부터 압살롬은 그의 아버지와 멀어지기 시작하였다. 그가 그술로 도망한 후 다윗은 그의 아들이 범한 죄는 어떠한 처벌이 요구된다는 것을 느끼고 그가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일은 왕도 포함되어 있는 뒤얽힌 죄악을 감소하기보다는 오히려 증가시키는 경향으로 나아갔다. 정력과 야망은 있으나 절조가 없는 압살롬은 추방으로 인해 국사에 관여하지 못했으며 얼마 후에 위험스러운 음모에 몰두하게 되었다. {PP 728.2}

2년 끝에 요압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화해를 이루게 하기로 결심하였다. 이 목적을 고려하던 중 그는 지혜롭다는 평판이 있는 드고아 여인의 도움을 얻었다. 요압의 시킴을 받고 이 여인은 다윗에게 자기는 두 아들만을 유일의 위로와 의지로 삼아 오던 과부라고 말했다. 그런데 두 아들이 싸워 그 중 하나가 다른 자를 죽였으며 이제 모든 가족과 친척들이 살아 남은 자를 죽여 죽은 자를 위해 보복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말하기를 “그러한즉 저희가 내게 남아 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끼쳐 두지 아니하겠나이다”고 하였다. 왕의 마음은 이 탄원에 감동되었고 그는 그녀의 아들을 왕이 보호할 것을 그 여인에게 보증하였다. {PP 728.3}

여인은 그로부터 젊은이의 안전에 대한 거듭된 약속을 얻어낸 후, 왕이 추방한 아들을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아니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선언하고 왕의 관용을 간청하였다. 그는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모으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세우사 내쫓긴 자로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나이다”라고 말했다. 거칠은 무사인 요압에게서 나온 죄인을 향한 이처럼 부드럽고 감명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묘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속의 대진리를 익숙히 알고 있다는 현저한 증거였다.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자신의 필요를 느낀 왕은 이 호소를 거절할 수 없었다. 요압에게 “가서 소년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PP 728.4}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돌아올 허락을 받았으나 궁전에 나타나거나 그의 아버지를 만날 수는 없었다. 다윗은 자녀들에 대하여 방종한 악한 결과를 보기 시작하였고 이 아름답고

타고난 재능을 가진 아들을 매우 사랑하는 까닭에 압살롬과 백성들 양편 모두에게 이와 같은 범죄를 미워해야 한다는 교훈을 줄 필요를 느꼈다. 압살롬은 2 년간 자기의 집에 살았으나 궁전에서는 추방되었다. 그의 누이가 그와 함께 살고 있었으며 그것은 그녀가 당한 회복할 수 없는 수치를 생생하게 기억나게 하였다. 백성들의 판단으로는 왕자가 범죄자라기보다 차라리 영웅이었다. 이런 이점을 가지고 그는 백성의 마음을 얻고자 노력하였다. 그의 외모는 바라보는 모든 사람의 찬탄을 얻을 만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왕이 야망적이요 충동적이요 급한 성격의 소유자로 하여금 2년 동안이나 소문이 파다한 불평의 씨를 품고 있도록 방임해 둔 것은 현명치 못한 일이었다.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에 돌아오도록 허락하였으나 자기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한 처사는 압살롬에게 백성의 동정을 사게 하였다. {PP 729.1}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기의 범죄에 대한 기억이 항상 그의 앞에 있어서 다윗은 도덕적으로 마비된 것처럼 보였다. 범죄하기 전에는 용기 있고 단호한 사람이었으나 이제 그는 연약하고 우유부단하였다. 백성들에 대한 그의 감화력은 약화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천리(天理)를 어긴 아들의 음모를 유리하게 하였다. {PP 729.2}

요압의 영향으로 압살롬이 다시 그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 표면적으로는 화해가 이루어졌을지라도 그는 야망적 음모를 계속하였다. 압살롬은 이제 거의 왕자다운 위엄을 갖추어 병거와 말들과 그의 앞에 달리는 자 50명을 가졌다. 한편 왕은 더욱 은퇴하여 한거하려는 소망으로 기울어지고 압살롬은 부지런히 백성들의 총애를 구하였다. {PP 729.3}

다윗의 귀찮아하고 우유부단하게 하는 영향이 그의 신하들에게까지 확대되어서 재판 업무에도 태만과 지체하는 일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압살롬은 교활하게 모든 불만의 원인을 자신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였다. 풍채가 늠름한 이 사람은 날마다 성문에 나타났는데 그 곳에는 저희 억울함을 시정해 주기를 기다리는 간청자들의 무리가 있었다. 압살롬은 그 무리와 섞여 그들의 불평의 호소를 듣고 그들의 고통에 동정을 표시하고 정부의 무능을 한탄하였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왕자는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고 대답하고 덧붙여

말하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었다. {PP 729.4}

왕자의 교활한 암시에 선동을 받아 정부에 대한 불만이 빨리 유포되었다. 모든 사람의 입술에는 압살롬을 칭찬하는 말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그를 나라의 후사로 알고 있었으며 백성들은 그가 이 높은 신분에 처할 만하다고 자랑스럽게 그를 바라보았고 그를 보좌에 앉히려는 열망이 불타올랐다. “압살롬이…이스라엘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그러나 아들에 대한 애정에 눈먼 왕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압살롬이 받은 왕자다운 위엄을 다윗은 그의 궁정의 명예 즉 화해에 대한 기쁨의 표시가 된다고 생각하였다. {PP 730.1}

백성의 마음이 앞으로 올 일에 대하여 준비가 된 것을 보고 압살롬은 각 지파에게 모두 선정한 사람들을 은밀히 보내어 반역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였다. 그리고 이제 종교적 예배란 구실로 그의 반역적 음모를 은닉하고자 하였다. 오래 전 그가 유랑하던 때에 한 서원을 헤브론에서 이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압살롬은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컨대 나로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고 했다. 사랑하는 아버지는 아들의 이런 경건에 위안을 받으며 축복을 베풀어 돌려보냈다. 음모는 이제 완전히 성숙되었다. 압살롬의 더할 나위 없는 위선적인 행위는 왕을 눈멀게 할 뿐 아니라 백성의 신임을 얻기 위해 고안되었고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에 대하여 반역하게 되었다. {PP 730.2}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출발하고 “청함을 받은 이백 명이 그 사기를 알지 못하고 아무 뜻 없이 예루살렘에서 저와 함께 갔”었다. 이 사람들은 그 아들에 대한 저들의 사랑이 그들을 그의 아버지께 대한 반역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조금도 알지 못하고 압살롬과 함께 갔다. 헤브론에 도착하자 압살롬은 즉시 아히도벨을 소환하였다. 그는 다윗의 모사의 두목 중에 한 사람이었으며 지혜로 평판이 나 있는 좋은 사람이었고 그의 의견은 신의 명령처럼 안전하고 지혜롭다고 생각되었다. 아히도벨은 반역자들에게 가담했고 그의 가담은 압살롬의 사업이 분명히 성공할 것처럼 보이게 했다. 그리하여 그의 깃발 아래 전국 각 곳으로부터 많은 유력한 자들을 끌어들였다. 반역의 나팔이 울릴 때에 왕자의 정탐꾼들은

온 나라에 퍼져 압살롬이 왕이 되고 많은 백성들이 그의 주위에 모여들었다는 기별을 전하였다. {PP 730.3}

그동안에 경보는 예루살렘에 전달되어 왕에게 알려졌다. 다윗은 정신이 번쩍 들어 자기의 보좌 곁 가까이에서 일어난 반역을 보게 되었다. 그의 친 아들, 그가 사랑하고 믿던 아들이 그의 왕관을 빼앗고 의심 없이 그의 생명을 취하려고 음모하고 있었다. 다윗은 그의 큰 위기에 그처럼 오랫동안 그를 누르던 억압을 떨쳐 버리고 그의 소년 시절의 정신을 가지고 이 무서운 급변을 대처하기 위해 준비하였다. 압살롬은 20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은 헤브론에서 그의 군대를 소집하고 있었다. 반역자들은 곧 예루살렘 성문에 당도할 것이다. {PP 731.1}

다윗은 궁정에서 "터가...아름"답고 "온 세계가 즐거워"하고 "큰 왕의 성"(시 48:2)인 수도를 내다보았다. 그는 수도가 살육과 참화를 입을 것을 생각하고 떨었다. 그는 여전히 그의 왕위에 충성을 다하는 신하들에게 도움을 구하여 그의 수도를 보존하도록 저항하게 할 것인가? 그는 예루살렘이 피로 범람하게 할 것인가? 그는 전쟁의 공포가 택하신 성읍에 내리지 않게 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 백성들에게 그를 지지하기 위해 다시 모일 기회를 주어 그의 백성의 충성심을 시험해 보기로 하였다. 이 큰 위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권위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 대한 그의 의무이었다. 싸움의 결과를 그는 하나님께 맡기기로 하였다. {PP 731.2}

다윗은 겸비하고 슬퍼하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반란으로 자기의 왕좌와 궁전과 하나님의 법궤를 버리고 예루살렘 성문을 나섰다. 백성들은 마치 긴 장례 행렬처럼 비탄에 젖어 그의 뒤를 따랐다. 다윗의 호위병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그리고 잇대의 휘하에 있는 가드 사람 6백 명이 왕과 동행하였다. 그러나 천성적으로 이타심이 강한 다윗은 그를 보호하기 위해 온 이 이국 사람들을 자기의 재난에 함께 휩쓸리게 할 수 없었다. 다윗은 저희가 자기를 위하여 이처럼 희생하려는 데 대하여 놀라움을 나타냈다. 그리하여 왕은 가드 사람 잇대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날 어찌 너로 우리와 함께 유리하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고 하였다. {PP 731.3}

잇대는 “여호와의 사심과 우리 주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무론 생사하고 종도 그 곳에 있겠나이다”라고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은 이교 신앙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으로 개종한 이들로서 그들은 이제 저희 하나님과 저희 왕에게 대한 그들의 충성을 훌륭하게 증거하였다. 다윗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겉보기에 기울어져가는 그의 사업에 대한 그들의 헌신을 받아들이고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 광야 길로 향하였다. {PP 732.1}

행렬은 다시 멈추었다. 거룩한 제복(祭服)을 입은 한 무리가 가까이 나아오고 있었다. “사독과 그와 함께 한 모든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다. 다윗의 추종자들은 이것을 좋은 징조라고 바라보았다. 이 거룩한 분의 상징의 출현이 그들에게 구원과 최후의 승리의 보증이었다. 이 일은 백성을 감동시켜 그들로 용감하게 왕에게 다시 모이도록 할 것이다. 법궤가 예루살렘에 없는 것은 압살롬의 지지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것이다. {PP 732.2}

법궤를 보자 잠시 동안 기쁨과 희망이 다윗의 마음을 전율케 하였다. 그러나 곧 다른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쳐갔다. 하나님의 유업을 다스리도록 임명된 통치자로서 그는 엄숙한 책임을 지고 있었다. 이스라엘 왕은 마음에는 개인적 이익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과 당신의 백성의 행복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하였다.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시 132:14)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권위 없이는 제사장이나 왕이라도 당신의 임재의 상징을 거기에서 옮길 권리가 없었다. 다윗은 그의 마음과 생애가 하나님의 계명과 일치하지 않으면 법궤가 성공보다는 차라리 재난의 방편이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큰 죄는 항상 그의 앞에 있었다. 그는 이 반역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형벌임을 깨달았다. 그의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칼이 이제 뽑혀진 것이었다. 그는 이 싸움의 결과가 어찌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들의 거룩하신 주권자의 뜻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었고, 나라의 헌법이요 나라의 번영의 기초인 거룩한 율법을 나라의 수도에서 옮기는 것은 그를 위하는 일이 아니었다. {PP 732.3}

다윗은 사독에게 명하였다.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PP 735.1}

다윗이 덧붙여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백성을 가르치도록 지명하신 자 즉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네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고하는 기별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룻터에서 기다리리라"고 하였다. 성읍에서 제사장들은 반역자들의 움직임과 의도를 알아 가지고 그것들을 그들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을 통하여 은밀히 왕에게 전달하므로 왕에게 좋은 봉사를 할 수 있었다. {PP 735.2}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떠나는 무리에게 깊은 그늘이 덮혔다. 저희 왕은 도망하는 자가 되고, 저희 자신들은 추방당하고, 하나님의 법궤에까지 버림을 받을지 모르는 공포와 불길한 예감으로 캄캄하였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였다. 다시 다윗은 그의 재난이 자신의 범죄의 결과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 가장 유능하고 가장 꾀많은 정치적 지도자인 아히도벨의 반역은 그의 손녀 밧세바가 입은 치욕과 그에 따른 가문의 수치를 보복하고자 한 것이었다. {PP 735.3}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산꼭대기에 도착하자 왕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의 영혼의 괴로움을 맡기고 겸손히 하나님의 자비를 간청하였다. 그의 기도는 즉시 응답을 받는 것처럼 보였다. 현명하고 유능한 모사이며 다윗의 충실한 친구 아렉 사람 후새가 이제 스스로 옷을 찢고 티끌을 머리에 쓰고, 왕권을 빼앗기고 망명자가 된 다윗과 운명을 같이 하기 위하여 그에게 나아왔다. 다윗은 하나님의 깨우치심을 받아 충실하고 마음이 참된 이 사람이 수도에서 개최되는 회의에 참석한다면 크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후새는 다윗의 요구를 듣고 압살롬을 섬기면서 아히도벨의 교묘한 모략을 꺾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PP 735.4}

왕과 그의 추종자들은 어두운 중에서 희미한 빛의 섬광으로 감람산 동쪽 비탈길을 내려와 바위 많고 황량한 광야와 거친 계곡을 지났다. 다시 그들은 돌이 많고 험한 길을 따라 요단강을 향하여 나아갔다. “다윗왕이 바후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 때에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고로 화를 자취하였나니라.” {PP 736.1}

다윗이 번영 중에 있을 때에 시므이는 말로나 행실로 그가 왕의 충실한 신하가 아님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왕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베냐민 사람은 그의 참 성격을 나타내었다. 그는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에는 그를 존경하였으나 그가 굴욕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를 저주하였다. 비열하고 이기적인 그는 다른 사람들을 자신과 동일한 성격을 가진 자들처럼 여겼으며 사단의 충동을 받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자에게 자기의 증오심을 나타내었다.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 중에 있는 자를 치게 하고 그를 욕하고 괴롭히게 하는 정신은 사단의 정신이다. {PP 736.2}

다윗에 대한 시므이의 비난은 전적으로 거짓말이었으며 근거 없고 악의에 찬 중상이었다. 다윗은 사울이나 그의 집에 대하여 악을 행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사울이 완전히 그의 세력 아래 들어와 그를 죽일 수 있는 때에라도 사울의 겉옷 자락만을 베었던 다윗은 이제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에게 이런 불경을 나타내는 것을 보고도 오히려 자기 자신을 책망할 뿐이었다. {PP 736.3}

다윗이 인간의 생명을 존중히 여긴 현저한 증거가 자신이 짐승처럼 쫓겨 다니는 동안에까지도 나타났다. 하루는 그가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에 그의 소년 시절에 누리던 자유를 회상하고 망명자 다윗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삼하 23:13, 17)라고 부르짖었다. 그 때에 베들레헴은 블레셋 사람의 수중에 있었다. 그러나 다윗의 무리 중 세 용사가 경계선을 뚫고 들어가 베들레헴의 물을 길어 그들의 군주에게 가져왔다. 다윗은 이 물을 마실 수 없었다. 그는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니이다"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그는 그 물을 부어 경건하게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었고 그의 생애의 대부분을 사나운 장면 중에서 보냈다. 이와 같은 엄한 시련을 통과한 사람으로서 마음을 강퍅하게 하고 타락시키는 감화를 다윗처럼 받지 않은 자는 거의 없었다. {PP 736.4}

다윗의 조카요 그의 가장 용감한 군장 중에 한 사람인 아비새는 시므이의 모독하는 말을 참고 들을 수 없었다. 그는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라고 부르짖었다. 그러나 왕은 그를 금하여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 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고 말했다. {PP 737.1}

양심은 다윗에게 쓰리고 굴욕적인 사실을 말해 주고 있었다. 그의 충실한 신하들은 돌연한 그의 불운을 보고 이상히 여겼지만 왕에게는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그는 가끔 이와 같은 일에 대한 예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그처럼 오래 참으시고 마땅히 받아야 할 보응을 내리시지 않고 지체하시는 데 대해 이상히 여겼었다. 그러나 이제 급하고도 슬픈 도망으로 그의 발은 맨발이었고, 그의 왕복은 베옷으로 바뀌어졌으며, 그의 추종자들의 애곡은 이산 저산에 메아리쳤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그는 그의 사랑하는 수도 - 그의 범죄 장면이 벌어졌던 곳 - 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기억하였다. 그에게서 희망이 사라진 것은 결단코 아니었다. 그는 여호와께서 여전히 그를 은혜로 다루시리라는 것을 느꼈다. {PP 737.2}

많은 범죄자들은 다윗의 타락을 지적하면서 저들의 죄를 핑계하지만 다윗의 회개와 겸비를 나타내는 자는 얼마나 적은가! 다윗이 나타낸 인내와 불요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책망과 보응을 견디는 자가 얼마나 적은가! 다윗은 그의 죄를 자복하였고 여러 해 동안 충실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의 의무를 수행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나라를 창립하는 일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그의 치세 아래서 나라는, 전에 없이 강성해지고 번영을 누리게 되었다. 그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값진 재료를 모아 저장하여 두었는데 이제 그의 생애의 모든 수고가 일소되고 말 것인가? 여러 해 동안 헌신적으로 수고한 결과와 온갖 재능과 헌신과 정치적 수완을 다해 이룬 사업이 하나님의 영광도 이스라엘의 번영도 안중에 없는

그의 무모하고 반역적인 아들의 수중에 들어가야 한단 말인가? 이 같이 큰 고통 중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불평한다 해도 그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에서 그가 고통당하는 원인을 찾았다. 선지자 미가의 말은 다윗의 마음을 감명시킨 그 정신을 풍기고 있다.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할”(미 7:8, 9)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다. 가장 쓰라린 학대와 모독 중에서도 겸손과 무아의 정신과 관대함과 유순함을 나타낸 그의 이 같은 경험의 이야기는 그의 온 생애의 경험 중에 가장 고상한 사건 중에 하나이다. 이스라엘의 통치자 다윗이 가장 처절한 외적 굴욕을 당하던 이 시간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더 위대한 때는 결코 없었다. {PP 737.3}

만일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죄하기를 계속하여도 견책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면서도 왕위에서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하셨더라면 회의론자와 이교도들은 다윗의 역사를 인용하여 성경의 신앙을 비난하는 어떤 핑계를 삼았을 것이다. 그러나 다윗으로 하여금 겪게 하신 그 경험을 통하여 여호와께서는 당신께서 죄를 허용하시거나 묵인하실 수 없으심을 나타내셨다. 그리고 다윗의 역사는 또한 하나님께서 죄를 처리하시는 크신 목적을 우리로 알 수 있게 하며, 비록 가장 침울한 형벌을 통하여서도 당신의 은혜와 자비의 목적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알 수 있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회초리 아래로 지나가게 하셨으나 그를 멸하시지 않으셨다. 풀무는 정결하게 하기 위함이지 태워 없애 버리기 위함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율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폐하지 아니하”(시 89:31~33)리라 하셨다. {PP 738.1}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난 직후 압살롬과 그의 군대가 입성하여 싸움도 없이 이스라엘의 요새를 점령하였다. 후새가 새로 왕위에 오른 군주를 환영하는 첫 무리 중에 있었고 압살롬은 그의 아버지의 옛 친구요 모사인 후새가 나온 것을 보고 놀라고 만족히 여겼다. 압살롬은 성공을 확신하였다. 이와같이 그의 음모가 멀리까지 성공하자 그의 왕위를 굳게 하고 민족의 신임을 얻고 싶은 생각으로 압살롬은 후새를 궁전으로 영접해 들였다. {PP 738.2}

압살롬은 이제 큰 군대에 호위되어 있었으나 그들은 대부분 전쟁에 단련되지 않은 자들로 구성되었다. 아직 그들은 전쟁에 들어가지 않았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입장이 절망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아직도 국민의 대부분이 다윗에게 충성하고 있으며, 그는 저희 왕에게 충성을 바치는 연단을 받은 전사들의 호위를 받고 있으며 그의 군대는 유능하고 노련한 장수들의 지휘를 받고 있었다. 아히도벨은 새 왕을 찬성하는 처음 열광이 지나가면 반발이 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만일 반란이 실패하면 압살롬은 그의 아버지와 화해할 수 있을 것이나 그 때에 아히도벨은 그의 모사의 두목으로서 반란에 대한 가장 중한 죄를 지게 되고 그에게 가장 무거운 형벌이 내릴 것이다. 압살롬으로 하여금 그의 내디딘 발걸음을 돌이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아히도벨은 그에게 온 국민의 목전에서 화해를 불가능하게 할 행위를 하도록 권고하였다. 이 교활하고 파렴치한 정치가는 흉악한 간지(奸智)로 압살롬에게 반역의 죄에 근친상간의 죄를 더하도록 간청하였다. 압살롬에게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동방 민족들의 풍속을 따라 그의 아버지의 후궁들을 취하고 그가 그의 아버지의 왕위를 계승한 것을 선포하라는 것이었다. 압살롬은 이 비루한 제의를 수행하였다. 그리하여 “내가 네 집에서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네 처들을 가져 네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삼하 12:11, 12)고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행위를 하도록 하심이 아니요 다만 다윗의 죄의 까닭에 그것을 막기 위해 당신의 권능을 행사하지 않으신 것뿐이었다. {PP 738.3}

아히도벨은 그의 지혜의 까닭에 큰 존경을 받았으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부족하였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잠 9:10)라. 아히도벨은 이 지혜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의 반역을 성공시키기 위해 근친상간이라는 죄악을 이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은 마치 그들의 계획을 좌절시키실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악을 꾸미나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 2:4)신다. 여호와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신다.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킬”(잠 1:30~32) 것이다. {PP 739.1}

자신의 안전을 얻기 위한 계획에 성공한 아히도벨은 다윗을 대항하여 즉시 행동을 개시해야 할 필요성을 압살롬에게 간청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이제 나로 하여금 사람 일만 이천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따라 저가 곤하고 약할 때에 엄습하여 저를 무섭게 하면 저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으로 왕께 돌아오게 하리"라고 하였다. 왕의 모사들이 이 계획에 찬성하였다. 만일 이 계획에 따라 행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를 구원하시지 않는 한 다윗은 분명히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그러나 유명한 아히도벨의 지혜보다 더 높은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사건을 지배하고 계셨다.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음이더라." {PP 739.2}

후새는 그 회의에 초청을 받지 않았지만 억지로 참석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이는 자기가 정탐꾼으로 의심을 받을까 해서였다. 폐회 후 그의 아버지의 모사의 판단을 크게 존중한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획을 후새에게 제시하였다. 후새는 고안된 계획을 따르게 되면 다윗이 죽임을 당할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후새는 "이 때에는 아히도벨의 베푼 모략이 선치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부친과 그 종자들은 용사라 저희는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병법에 익은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이제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이다 하고 말하면서 만일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을 추격할지라도 그들은 왕을 사로잡을 수 없고 패배를 당할 것이며 이는 그들을 낙담하게 하고 압살롬의 사업에 큰 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계속해서 그는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부친은 영웅이요 그 종자들도 용사인 줄 앎이니이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는 저 잘난 체하고 이기적 성질과 권력을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마음을 끄는 계획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나의 모략은 이러하니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왕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저를 엄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저희 위에 덮어 저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 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저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 곳에 한 작은 돌도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니이다." {PP 740.1}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새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라. 그러나 이 모략에 속임을 당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아히도벨이었다. 그는 이 압살롬의 치명적인 과오의 결과를 분명히 내다보았고 반역자들의 사업이 실패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는 왕자의 운명이야 어찌되든 왕자의 최대의 범죄를 충동한 모사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을 반역하도록 격려했고 가장 끔찍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께 욕을 돌리도록 그를 권고했으며 또 그는 다윗을 살해하도록 조언하는 동시에 그 일을 성취시킬 계획을 세우고 그 자신이 왕과 화해할 마지막 가능성을 끊어버렸는데 이제 와서 압살롬은 그의 앞에서 다른 사람을 등용했다. 질투와 분노와 절망 중에 아히도벨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탁월한 재능을 구비했으나 하나님을 그의 고문으로 삼지 아니한 자의 지혜의 결과는 이와 같았다. 사단은 유망해 보이는 약속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나 결국 “죄의 삯은 사망”(롬 6:23)이란 사실을 모든 영혼들이 발견하게 될 것이다. {PP 741.1}

변덕스러운 왕이 자기의 권고를 꼭 따라 주리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 후새는 때를 놓치지 않고 다윗에게 지체 말고 요단 건너편으로 도망하도록 경고하였다. 저희 아들들을 통하여 후새는 제사장들에게 다음과 같은 기별을 보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여차여차히 모략을 베풀었고 나도 여차여차히 모략을 베풀었으니...오늘 밤에 광야 나룻터에서 자지 마시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 좇는 자들이 몰사할까 하노라.” {PP 741.2}

젊은이들은 의심과 추격을 받았으나 그들의 위험한 사명을 수행하기에 성공하였다. 도망하던 첫날부터 수고와 슬픔으로 세월을 보낸 다윗은 그의 아들이 자기의 생명을 찾고 있으므로 그 밤에 요단을 건너야 한다는 기별을 받았다. {PP 741.3}

이처럼 무참하게 욕을 당한 아버지요 왕인 다윗의 감정은 이 무서운 위험 중에 어떠했을까? “호기”와 무용의 사람이요, 그의 말이 곧 법이었던 왕이 이제 그가 사랑해 왔고 맹목적으로 지혜롭지 못하게 믿었던 아들에게 배반당하고 명예와 신의라는 가장 강한 유대로 결속되어 있던 그의 신하들로부터 모욕과 버림을 당한 다윗은 무슨 말로 그의

영혼의 감정을 토로하였을까? 가장 어두운 시련의 시간에도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 머물러 있었고 그는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PP 741.4}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시 3:1~8 {PP 742.1}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모든 무리들 곧 무사와 정치가들, 노인과 청년들, 여인과 작은 아이들이 밤의 어둠을 타서 깊고 빨리 흐르는 강을 건넜다. "새벽에 미쳐서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PP 742.2}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마하나임으로 후퇴하였는데 그 곳은 이스보셋의 왕좌가 있었던 곳이었다. 이 곳은 견고하게 축성된 성읍으로 전쟁 때에 퇴각하기 좋은 산지로 에워싸여 있었다. 이 나라는 식량이 잘 공급되어 있었고 백성들은 다윗의 일에 호의를 나타냈다. 여기서 많은 지지자들이 다윗의 편에 가담하였고 한편 같은 족속의 부자들은 풍부한 양식을 선물로 가져왔고 다른 이들은 필요되는 물품들을 공급하였다. {PP 742.3}

후새의 모략은 그 목적을 성취하여 다윗에게 도망할 기회를 주었으나 조급하고 성급한 왕자는 오래 참고 있을 수 없어 그는 곧 그의 아버지를 추격하였다.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은 다윗의 누이 아비갈의 아들 아마사를 그의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삼았다. 압살롬의 군사는 대군이었으나 훈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의 아버지의 노련한 병사들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PP 742.4}

다윗은 그의 군대를 3개 대(隊)로 나누어 요압과 아비새와 가드 사람 잇대의 수하에 두었다. 그리고 그가 친히 전장에 나아가 그의 군대를 지휘하려 하였으나 이 일을 군장들과 모사들과 백성들이 격렬히 반대하였다. 그들은 말하기를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저희는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 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왕이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선히 여기는 대로 행하리라” 하였다. {PP 742.5}

성벽에서 볼 때 반역군의 긴 행렬이 다 시야에 들어왔다. 왕위의 찬탈자는 대군을 수행하고 있었고 그의 대군에 비하면 다윗의 군대는 소수에 불과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왕이 적군을 바라볼 때에 그의 마음에 맨 먼저 떠오른 생각은 왕위도, 나라도, 전쟁에 걸린 자신의 생명도 아니었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의 반역한 아들에 대한 사랑과 동정으로 충만하였다. 군대가 성문에서부터 줄을 지어 행진할 때에 다윗은 충성스러운 병사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리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도록 명하였다. 그러나 이 마당에서도 다윗은 압살롬에 대한 그의 사랑을 억누를 수 없었다. 첫 대를 인솔하는 요압은 수백 번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정복자였다. 그가 그의 군주의 마지막 기별을 듣기 위하여 거만스러운 그의 머리를 숙였을 때에 왕은 떨리는 음성으로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고 말했다. 아비새와 잇대도 동일한 명령 곧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압살롬이 그에게는 그의 나라보다 소중하고 그의 왕위에 충성을 다하는 신하들보다 귀중하다고 선언하는 것처럼 들리는 왕의 호소는 인륜에 어긋나는 아들에 대한 군사들의 분개심을 증가시킬 뿐이었다. {PP 743.1}

싸움이 벌어진 장소는 요단강 근처에 있는 숲이었는데 이곳에서는 압살롬의 군대의 수효가 많은 것이 그에게 불리할 뿐이었다. 삼림의 잡목 숲과 늪 가운데서 이 훈련받지 못한 군대는 혼란하게 되고 지휘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무리가 다윗의 신복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 곳에서 살육이 커서 이만에 이르렀다." 싸움에 진 것을 보고 압살롬이 돌아서 도망하려 할 때에 그의 머리가 뻗어 있는 나뭇가지 사이에 걸렸고 그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갔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매달려 원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한 병사가 이런 형편 중에 있는 그를 보았으나 왕의 불쾌히 여기심을 두려워하여 압살롬을 살려 두고 그가 본 것을 요압에게 보고하였다. 요압은 주저하지 아니하였다. 요압은 압살롬의 편이 되어 두번이나 그로 다윗과 화해하도록 했으나 그 신임은 수치스럽게도 배반당했다. 그리고 요압의 중재를 통하여 압살롬이 유리한 지위를 얻지 않았던들 이 반역과 거기 따른 모든 무서운 일들은 결코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제 이 모든 악의 선동자를 일격에 멸할 권세가 요압에게 있었다. 그가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무리가 압살롬을 옮겨다가 수풀 가운데 큰 구덩에 던지고 그 위에 심히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PP 743.2}

그리하여 이스라엘 중에 반역을 선동한 자들이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아히도벨은 자신의 손으로 자기의 목숨을 끊었다. 그의 뛰어난 아름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랑이었던 고귀한 압살롬은 혈기 왕성한 청춘 시절에 죽임을 당했고 그의 시체는 구덩이에 던진 바 되어 영원한 질책의 표로 돌무더기에 덮였다. 압살롬은 생시에 자신을 위하여 왕의 골짜기에 값진 비석을 세웠으나 이제 그의 무덤을 표하는 기념비는 다만 광야에 있는 그 돌무더기였다. {PP 744.1}

반역의 두목이 살해되자 요압은 나팔을 불어 도망하는 적군을 추격하는 그의 군대를 소환하고 곧 사자들을 급파하여 왕에게 기별을 전하게 하였다. {PP 744.2}

성벽에서 전쟁 마당 쪽을 감시하던 파수꾼은 한 사람이 혼자 달려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얼마 후에 또 한 사람이 보였다. 처음 사람이 가까이 이를 때에 파수꾼은 성문 곁에서 기다리고 있는 왕에게 말하기를 "나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달음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달음질과 같으니이다 왕이 가로되 저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말씀하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가로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 손을 들어내 주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붙여 주셨나이다"고 하였다.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란 왕의 애절한 질문에 아히마아스는 회피하는 대답을 하였다. {PP 744.3}

둘째 사자가 와서 "내 주 왕께 고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고 부르짖었다. 다시 아버지 왕의 입술에서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라는 애절한 질문이 흘러나왔다. 슬픈 소식을 감출 수 없어 사자는 "내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소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대답하였다. 이것으로 넉넉하였다. 다윗은 그 이상 더 묻지 아니하였고 머리를 숙이고 "문루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PP 744.4}

전쟁 마당에서 돌아오는 승리의 군대가 성읍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들의 승리의 함성은 산들의 메아리를 일깨웠다. 그러나 그들이 성문에 들어설 때에 그 함성은 사라지고 그들의 깃발은 저희 손에서 수그러지고 시선을 아래로 향하고 그들은 정복자라기보다 오히려 패배를 당한 자들처럼 행진하였다. 그 까닭은 왕이 그들을 환영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지 아니하고 문루에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하고 통곡하고 부르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PP 745.1}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에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이김이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에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으로 들어가니라." {PP 745.2}

요압은 매우 분개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의기양양하고 기뻐할 이유를 주시고 일찍이 이스라엘 중에서 알려진 반역 중 최대의 반역을 파쇄하게 하셨으나 이 큰 승리는 그의 범죄로 무수한 용사들의 피를 흘리게 한 압살롬을 위한 애도로 변하게 되었다. 사납고 솔직한 대장 요압은 왕의 앞으로 달려가 담대히 말하기를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신복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장관들과 신복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

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서 왕의 신복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고 하였다. {PP 745.3}

비탄에 빠진 왕에게 가혹하고도 잔인하기까지 한 책망이었으나 다윗은 그것에 분개하지 않았다. 그의 장수가 옳음을 알고 다윗은 문으로 내려가 그의 용감한 병사들이 그의 옆을 행진할 때에 용기와 칭찬의 말로 그들을 환영하였다. {PP 745.4}

73장 다윗의 만년

압살롬의 멸망으로 즉시 그 나라에 평화가 회복되지는 않았다. 민족의 대부분이 반역에 가담했으므로 다윗은 지파들의 초청이 없이는 수도에 돌아가 권좌에 오르기를 원치 않았다. 압살롬의 패배에 뒤따른 혼란 중에 왕을 다시 모시려는 신속하고 결정적인 움직임이 없었다. 마침내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돌아오게 하려는 일을 기도했을 때에 다른 지파들의 질투심을 일으켜서 마침내 반혁명이 뒤따르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신속히 진압되어 이스라엘에 다시 평화가 돌아왔다. {PP 746.1}

다윗의 역사는 영혼들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가장 열렬히 갈망하는 권력과 부와 세속적 명예로부터 오는 위험에 대한 가장 감명적인 증언을 주고 있다. 일찍이 이와 같은 시험을 견딜 수 있도록 저희를 준비시켜 주는 매우 적절한 경험을 겪고 그 시험을 통과한 자들은 매우 드물다. 다윗이 목자로서의 초기의 생애에서 겸손과 수고를 참고 친절히 양떼를 돌보는 데서 얻은 교훈들과 한적한 들에서 자연과 접촉하고 음악과 시에 대한 재능을 계발하며 그의 생각을 창조주께 향하게 한 것들과 오랜 광야 생활의 단련으로 용기와 견인불발과 인내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행사하도록 하신 것은 여호와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할 준비로서 정하신 과정이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귀중한 경험을 겪었고 당신의 성령의 풍부한 선물을 받았다. 그리고 사울의 역사에서 그는 단순한 인간적 지혜가 얼마나 무가치함을 보았다. 그러나 세속적 성공과 명예는 다윗의 품성을 매우 약하게 하여 그는 유혹자에게 여러 번 패배를 당하였다. {PP 746.2}

이방 백성과의 교제는 그 민족들의 풍습을 따르고 싶은 욕망을 일으켰고 세속적 위대함에 대한 야심을 불붙게 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영광을 받았으나 교만과 자신감(自信感)이 증가할 때에 그들은 그 정도로 뛰어나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오히려 다른 민족들 중에서의 높은 명성을 갈구하였다. 이런 정신은 유혹을 자청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윗은 외국 민족들 중에 그의 정복을 확대할 목적으로 군대를 증강시키고자 결심하였다. 적령에 달한 모든 사람에게 군복무를 요구하기로 작정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인구 조사를 할 필요가 있었다. 왕이 이 일을 한 것은 교만과 야심 때문이었다. 백성을 계수함으로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라가

약하였던 것과 그의 치세 아래 나라가 강하고 번영한 것 사이의 큰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이 일은, 이미 왕과 백성 양편이 다 지나치게 자신들을 믿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더욱더 조장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대상 21장 참조)고 말한다. 다윗의 치세 하에서 이스라엘이 번영한 것은 왕의 능력이나 그 군사력이라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에 기인된 것이었다. 그런데 그 나라의 군사력을 증가시키는 것은 인근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신뢰하는 것은 여호와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의 군대라는 인상을 줄 것이다. {PP 746.3}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 나라가 커지는 데 대해서는 자랑스럽게 여겼으나 그들은 그처럼 군복무를 크게 확대시키는 다윗의 계획에는 찬성하지 아니하였다. 계획된 병적 등록은 많은 불만을 일으켰고 따라서 이전에 계수에 동원했던 제사장과 장관들 대신에 군대 장교들을 고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이 일의 목적이 직접적으로 신정의 원칙에 배치되었다. 지금까지 자신을 무법한 자처럼 나타낸 요압까지도 항의했다. 요압은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백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라고 말했다.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떠나서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계수가 다 끝나기 전에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 양심의 가책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음날 아침,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다음과 같은 기별을 가져왔다. 선지자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삼년 기근일지, 혹 네가 석 달을 대적에게 패하여 대적의 칼에 쫓길 일일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온역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일지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 것을 결정하소서" 했다. {PP 747.1}

왕은 "내가 곤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삼하 24:14)고 대답하였다. {PP 748.1}

온 땅에 온역이 내려 이스라엘 중에 7만명이 죽었다. 재앙은 아직 수도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 때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사자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편을 가리켰는지라 다윗이 장로들로 더불어 굵은 베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왕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간청하였다. “명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한 자는 곧 내니이다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PP 748.2}

인구 조사하는 일은 백성 중에 불만을 일으켰으나 그들 자신들도 다윗의 행위를 자극시킨 동일한 죄악을 품고 있었다. 여호와께서는 압살롬의 죄를 통하여 다윗을 형벌하신 것처럼 다윗의 과오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죄악을 벌하셨다. {PP 748.3}

멸망시키는 천사가 예루살렘 밖 그의 길에 머물러 있었다. 그는 모리아산 위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있었다. 선지자의 지시를 받아 다윗은 그 산에 올라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대상 21:26)셨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삼하 24:25). {PP 748.4}

제단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 때 이후로 언제나 성지로 여김을 받은 그 장소를 오르난이 왕에게 선물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왕은 그 곳을 받기를 거절하였다.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결단코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네 물건을 취하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고 그 기지 값으로 금 육백 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제단을 쌓았던 장소로서 기념할 만하고 이제 이 큰 구원으로 거룩하게 된 이곳은 후에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부지로 선정되었다. {PP 748.5}

다윗의 만년을 덮으려는 또 다른 어두운 그림자가 소리 없이 모여들고 있었다. 다윗은 70 노령에 도달했다. 소년 시절의 방랑 생활 동안의 고난과 추방, 그가 싸운 많은 전쟁, 만년의 근심과 고통은 그의 생명의 원천을 침식하고 있었다. 비록 그의 정신은 명료하고 힘이 있었으나 노령과 쇠약으로 인해 나라에서 진행되는 일들을 빨리 알지 못하게 되고 그의 은퇴를 바라는 자들의 욕망이 커져서 마침내 반역이 바로 그의 보좌 그늘에서 발생하게 되었다. 다윗이 부모로서 방종했던 열매가 다시 나타났다. 이제 왕위를 갈망한

자는 아도니야인데 그는 체용과 태도가 “심히 준수한 자”였으나 절조가 없고 무모했다. 그는 젊어서 조금도 제재를 받지 않았으니 이는 “그 부친이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던”(왕상 1장 참조) 까닭이었다. 이제 그는 솔로몬을 왕위에 임명하신 하나님의 권위에 반항하였다. 타고난 천품이나 신앙상 성품 양면으로 보아 솔로몬은 그의 형보다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기에 보다 더 적합한 자격을 구비하고 있었고 더욱이 하나님의 선택이 분명히 지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도니야는 지지자들을 찾을 수 있었다. 많은 죄과가 있었으나 요압은 지금까지 왕에게 충성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는 제사장 아비아달처럼 솔로몬을 대적하는 음모에 가담하였다. {PP 749.1}

반역은 무르익어 음모자들이 아도니야를 왕으로 선포하기 위해 성읍 바로 밖에서 큰 잔치를 열고 있을 때에 그들의 계획은 몇몇 충성스러운 사람들의 신속한 행동으로 좌절되었다. 이 일을 한 자들 중 중요한 자들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솔로몬의 모친 밧세바였다. 그들은 왕에게 사태를 말하고 그에게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바를 깨우쳐 주었다. 다윗은 곧 솔로몬에게 양위하였고 솔로몬은 즉시 기름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다. 음모는 좌절되었다. 그 두목들은 사형을 당했다. 그의 직무와 전에 다윗에게 행한 성실성을 존중하여 아비아달은 죽음은 면했으나 대제사장 직분에서 파면당하였고 그 직분은 사독의 가계로 넘어갔다. 요압과 아도니야도 당분간 용서를 받았으나 다윗이 죽은 후에 그들의 범죄에 대한 형벌을 받았다. 다윗의 아들 아도니야에게 형벌을 집행하므로 다윗의 죄에 대해 사배의 형벌을 채우게 되었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비의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보여 주셨다. {PP 749.2}

다윗의 치세의 바로 시초부터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긴 계획 중에 하나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다. 비록 그는 이 계획을 실행할 허락을 받지 못했지만 성전 건축을 위한 성심과 열성은 줄어들지 않음을 나타내었다. 다윗은 가장 값진 재료 곧 은, 금과 홍마노와 채석과 대리석과 가장 진귀한 목재를 풍부히 준비하였다. 그리고 이제 그가 모은 이 귀중한 보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위임해야 하였으니 이는 다른 사람의 손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위하여 집을 지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PP 750.1}

임종이 가까움을 알자 왕은 이 위임하는 유산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함께 그 나라 각처의 대표자들을 소집하였다. 그는 그의 임종의 부탁을 그들에게

맡기고 성취되어야 할 대사업에 대해 그들의 협력과 지지를 받고자 하였다. 그의 몸이 쇠약한 까닭에 그가 몸소 이 위임식에 참석하기를 바랄 수 없었으나 하나님의 영감이 그에게 임함으로 인하여 그는 평상시의 열성과 능력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그의 백성에게 명을 내릴 수 있었다. 그는 성전 건축에 대한 자신의 열망과 이 사업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위임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보증은 "네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저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 아비가 될 것임이라 저가 만일 나의 계명과 규례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날과 같이 하면 내가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하셨다. 다윗은 말하기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의 보는 데와 우리 하나님의 들으시는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고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대상 28, 29장 참조). {PP 750.2}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는 자의 길이 얼마나 힘든 길임을 자신의 경험에서 배웠다. 그는 깨뜨린 율법의 선고를 뼈저리게 느꼈고 범죄의 열매를 거두었으므로 이제 그의 온 영혼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솔로몬이 자기 아비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그의 생애를 비참하게 하고 하나님께 욕을 돌렸던 그 죄악들을 피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고동치고 있었다. 다윗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겸손히 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경계하여 높은 자리에 있는 솔로몬을 괴롭힐 것이 분명한 유혹을 저항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사단의 특별한 공격 목표가 되기 때문이다. 이미 왕위의 후계자로 공인된 그의 아들을 향하여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뭇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PP 750.3}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상세한 지시를 주어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에게 알려 주신 바와 같이 각 부분과 그 봉사의 모든 기구의 양식을 보여 주었다. 아직도 어린 솔로몬은 그에게 부과된 성전 건축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일의 무거운 책임을

겁내고 있었다. 다윗은 그 아들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의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사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고 말했다. {PP 751.1}

다시 다윗은 회중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다.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크도다 이 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그는 또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다고 말하고 계속 그가 모은 재료를 열거하였다. 이보다 더 그는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므로 나의 사유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삼천달란트와 천은 칠천달란트라 모든 벽에 입히”게 하였다고 말했다. 그는 자원하는 선물을 가지고 모인 군중들에게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고 물었다. {PP 751.2}

회중에서 곧 응답이 있었다. “모든 족장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어른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 감독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전 역사를 위하여 금 오천달란트와 금 다릭 일만과 은 일만 달란트와 놋 일만 팔천 달란트와 철 십만 달란트를 드리고 무릇 보석이 있는 자는…여호와의 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다윗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PP 751.3}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관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 있사오니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PP 752.1}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시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예비한 것으로 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절하"였다. {PP 752.2}

가장 깊은 흥미를 가지고 왕은 성전을 건축하고 미화할 값진 재료를 모았다. 그는 장차 성전 마당에서 메아리칠 영광스러운 성가를 지었다. 족장들과 이스라엘의 방백들이 그처럼 고상하게 그의 호소에 응답하고 저희 앞에 놓인 이 중대한 사업에 헌신하는 것을 보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였다. 그리고 저희가 봉사할 때에 그들은 더 많이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보고에 드려 헌물을 증가시켰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재료를 모음에 있어서 자신의 무가치함을 깊이 느꼈다. 그리고 그의 나라의 귀인들이 그들의 보물들을 기쁜 마음으로 여호와께 봉헌하고 그분을 섬기는 데 헌신함으로 즉시 응답하여 충성을 표시하자 그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그러나 당신의 백성에게 이러한 마음을 나누어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셨다. 그러므로 그 영광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였다. 백성에게 세상 재물을 장만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셨고 당신의 성령은 그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위하여 값진 물건을 가져오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았으니 이는 만일 여호와의 사랑이 백성의 마음을 움직이지 아니하였더라면 왕의 노력은 헛되었을 것이고 성전은 결코 건축되지 못했을 것이다. {PP 752.3}

인간이 받은 하나님의 하사물(下賜物)은 여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세상의 귀중하고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즉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사랑과 당신의 은총에 대한 그들의 감사의 깊이를 재려고 그들의 손에 두신

것이다. 그것이 재산이라는 보물이든지, 지력이라는 보물이든지 간에, 예수의 발 앞에 자원하는 헌물로 바쳐야 하며 한편 헌납자들은 다윗처럼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라고 해야 한다. {PP 753.1}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에 다윗의 마음의 걱정은 여전히 솔로몬과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번영이 그 왕의 성실성에 매우 크게 의존되었기 때문이다.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릇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왕상 2:1~4)고 말하였다. {PP 753.2}

기록으로 남아 있는 다윗의 “최후의 말”은 하나의 시가(詩歌)이다. 즉 그것은 신뢰와 가장 고상한 원칙과 불멸의 신앙에 대한 노래이다. {PP 754.1}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함이여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심이여...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저는 돋는 해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삼하 23:1~5 {PP 754.2}

다윗의 타락은 컸으나 그는 깊이 회개했고 그의 사랑은 열렬했고 그의 신앙은 몹시 강했다. 그는 많이 용서를 받았으므로 많이 사랑하였다(눅 7:48). {PP 754.3}

다윗의 시편은 고범죄와 양심의 가책의 깊은 구렁에서부터 최고의 신앙과 하나님과 교통하는 최고의 위치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경험을 총망라하고 있다. 그의 생애의 기록은, 죄는 수치와 괴로움만을 가져올 뿐이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가장 깊은 구렁에까지 도달할 수 있어서 믿음으로 회개하는 영혼을 높이사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신다고 선언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포된 모든 보증 가운데 이것이 충실과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로운 언약에 대한 가장 강한 증거들 가운데 하나이다. {PP 754.4}

인간은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욥 14:2)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사 40:8),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시 103:17, 18). {PP 754.5}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전 3:14). {PP 754.6}

다윗과 그 집에 하신 말씀, 영원한 시대를 멀리 내다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될 언약은 영광스럽다. 여호와께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다. {PP 754.7}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내 손이 저와 함께 하여 견고히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저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을 인하여 그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 손을 바다 위에 세우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세우리니 저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저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구히 지키고 저로 더불어 한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시 89:3~28) 리라. {PP 755.1}

“또 그 후손을 영구케 하여 그 위를 하늘의 날과 같이 하리로다”.

시 89:29 {PP 755.2}

“저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저희가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저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저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시 72:4~8 {PP 755.3}

“그 이름이 영구함이여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시 72:17 {PP 755.4}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사 9:6). {PP 755.5}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눅 1:32, 33). {PP 755.6}

끝을 기대하면서